

地域 番号	カテゴリ	都道府県	地域協議会名	英語解説文 作成年度	英語事例集 対応番号
001	文化財 (21地域)	愛知県	一般社団法人とこなめ観光協会	令和5年度	026
006		新潟県	「越後長岡」観光振興委員会	令和6年度	004
007		広島県	廿日市市宮島地域多言語解説協議会	令和元年度	029
011		大分県	豊後高田市多言語解説協議会	平成30年度 令和元年度	1226 097
012		静岡県	富士宮市	令和7年度	004
013		滋賀県	長浜市	令和7年度	006
014		滋賀県	湖南市	令和7年度	007
015		兵庫県	湊川神社	令和7年度	009
016		奈良県	世界遺産大峰奥駈道多言語化事業推進協議会	令和7年度	010
017		奈良県	長谷寺地域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令和7年度	011
018		奈良県	西ノ京地域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令和7年度	012
019		奈良県	古都奈良の文化財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令和7年度	013
020		鳥取県	三朝町日本遺産活用推進協議会	令和7年度	015
021		島根県	石見銀山多言語解説協議会	令和7年度	016
022		岡山県	津山まちじゅう博物館コンソーシアム	令和7年度	017
023		山口県	周南市	令和7年度	018
024		香川県	こんぴら文化観光推進協議会	令和7年度	020
025		愛媛県	大洲市観光施設多言語推進協議会	令和7年度	021
026		徳島県	徳島県文化振興課	令和7年度	022
027		徳島県	板野町	令和7年度	023
028		福岡県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保存活用協議会	令和7年度	029

地域番号	001	協議会名	一般社団法人とこなめ観光協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01-001	常滑系招き猫（幸運の招き猫）	572	看板
001-002	常滑の見守り猫「とこにゃん」	408	看板
001-003	常滑焼	622	看板
001-004	やきもの散歩道	505	看板
001-005	とこなめ陶の森 資料館	309	Web ページ
001-006	廻船問屋 瀧田家	561	Web ページ
001-007	登窯（陶榮窯）	533	Web ページ
001-008	登窯広場	514	Web ページ
001-009	常滑系招き猫（幸運の招き猫）	1050	Web ページ
001-010	常滑焼	1158	Web ページ
001-011	やきもの散歩道	1494	Web ページ

【タイトル】 常滑系招き猫（幸運の招き猫）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도코나메의 마네키네코(행운의 마네키네코)**

도코나메는 행운의 상징인 마네키네코 도기 장식품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마네키네코의 어원은 일본어 ‘마네쿠’(초대하다)와 ‘네코’(고양이)로, 한국어로는 ‘복을 부르는 고양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네키네코는 보통 삼색털 고양이(흰색, 검은색, 노란색 털을 가진 고양이)입니다. 한쪽 앞발은 발가락을 주먹처럼 쥐고 일본에서 손짓할 때 취하는 자세를 하고 있고, 다른 쪽 앞발은 금화를 쥐고 있습니다. 왼쪽 앞발을 들고 있는 고양이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특히 손님 유치에 적극적인 상점 및 회사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앞발을 들고 있는 고양이는 행운과 부를 불러옵니다.

마네키네코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고양이가 쥐와 해충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농가와 상점 주인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마네키네코가 등장한 때는 19세기 중반이라고 하는데, 도코나메에서는 1930년대부터 마네키네코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전통적인 도기 산업이 쇠퇴 일로를 걷고 있었기에 지역 장인들은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마네키네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에는 도코나메시가 마네키네코를 일본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게 되었고, ‘큰 눈과 귀, 통통한 몸’이라는 도코나메 특유의 매력적인 마네키네코 스타일이 확립되었습니다. 현재도 전통적인 삼색털 고양이 모양의 마네키네코가 가장 인기 있지만,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마네키네코가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常滑の招き猫(幸運の招き猫)**

常滑は、幸運の象徴である招き猫の陶器製置物の主要な生産地である。招き猫の語源は日本語の「招く(초대하다)」と「猫(고양이)」で、韓国語においては복을 부르는 고양이(福を呼ぶ猫)と訳されることもある。

招き猫は通常、三毛猫(白、黒、オレンジの模様)である。片方の前足は指を丸めて上げ、日本で手招きする仕草をしており、もう片方の前足は小判を持っている。左前足を上げる猫は、人を招くと言われていたため、特に集客に熱心な店舗や会社で人気がある。右足を上げる猫は、幸運と富を引き寄せる。

招き猫の起源は定かではないが、ネズミや害虫を食べてくれることから、農家や商店主は猫を大切に、重宝していたという。招き猫が登場したのは19世紀半ばと考えられているが、常滑では1930年代から招

き猫が作られるようになった。当時、伝統的な陶器産業は衰退の一途をたどっており、地元の職人たちは新しいビジネスの一環として招き猫を作り始めた。

1950年には、常滑市は招き猫の生産量日本一となり、「大きな目と耳、ふっくらとした体」が特徴的な常滑特有の魅力的な招き猫のスタイルが確立された。現在も伝統的な三毛猫の招き猫が一番人気だが、様々な色やデザインのものがある。

001-002

一般社団法人とこなめ観光協会

【タイトル】 常滑の見守り猫「とこにゃん」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도코나메의 수호 고양이 ‘도코냥’

도코냥은 도코나메 마네키네코 도리 거리 도중에 있는 다리의 벽 위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거대한 도자기 마네키네코입니다. 이 마네키네코의 이름은 ‘도코나메’와 일본어로 고양이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냥’을 조합한 것입니다. 2008 년에 탄생한 이래 도코나메시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인기 있는 기념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높이 3.8m, 폭 6.3m 로 일본 국내에서 가장 큰 마네키네코 가운데 하나입니다. 머리와 왼쪽 앞발을 든 부분까지만 있는 마네키네코이지만 눈에 띄는 위치에서 모든 사람을 반겨줍니다. 이 마네키네코 가까이의 벽을 주의 깊게 찾아보면 도코냥 주위에 11 개의 작지만 진짜 같은 고양이 작품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코나메시 도자기 회관과 도코나메역을 연결하는 도코나메 마네키네코 도리 거리에는 도코나메와 인연이 있는 작가들이 만든 컬러풀하고 현대적인 39 개의 마네키네코가 늘어서 있습니다. 인연 맺기, 무병장수, 사업 번성 등 각 고양이가 가져다주는 복(행운)이 있다고 합니다.

001-002

＜日本語仮訳＞

常滑の見守り猫「とこにゃん」

とこにゃんは、とこなめ招き猫通りの途中にある橋の塀の上から顔を出している巨大焼き物の招き猫である。像の名前は、「常滑」と日本語で猫の鳴き声を表現する「にゃん」を組み合わせたものだ。2008 年の誕生以来、常滑市のシンボルとして愛され、記念撮影の人気スポットとなっている。

高さ 3.8 メートル、幅 6.3 メートルと国内最大級の招き猫の 1 つである。頭と左前足を上げた部分までのみある招き猫だが、目立つ位置でみんなを迎えてくれる。像の近くの壁を注意深く探してみると、とこにゃんの周囲には 11 体の小さな本物そっくりの猫の作品があることがわかる。

常滑市陶磁器会館と常滑駅を結ぶとこなめ招き猫通りには、常滑にゆかりある作家たちによる 39 体のカラフルでモダンな招き猫が並んでいる。縁結び、無病息災、事業成就など、それぞれの猫がもたらす福(幸運)があるという。

【タイトル】 常滑焼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도코나메야키 도자기**

도코나메는 일본 6 대 도자기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1000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도자기 산지입니다. 따라서 도코나메의 역사와 경제 발전은 도자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도코나메시 주변의 환경은 도기 생산에 적합했습니다. 질 좋은 점토가 풍부하게 공급되었고, 부드러운 흙과 완만한 언덕이 많아 등요(터널 모양의 가마)를 파기 쉬웠습니다. 또 지타 반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완성품을 운반하기 위해 바다로 접근하기도 쉬웠습니다.

도코나메야키 도자기는 12 세기 초엽에 등장했고, 도공들이 만들기 시작한 대형 저장용 병과 조리 기구는 금방 일본 전국에 퍼졌습니다. 19 세기에 중국에서 전래된 기술을 통해 철분이 많은 적토를 사용한 도코나메 명물인 찻주전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830 년경에는 오름가마가 등장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19 세기 후반, 일본이 급속히 근대화되면서 도코나메에서는 기와와 급배수용 파이프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도자기 생산은 1950 년대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도코나메야키 도자기는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장인들은 기호의 변화에 맞추어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기술 혁신을 조화시키며 도코나메야키 도자기를 번영시켰습니다. 마네키네코 장식품과 분재 화분, 적토로 만든 찻주전자 등은 오늘날 인기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코나메야키 도자기에 대해서는 ‘도자기 산책길’ B 코스에 있는 ‘도코나메 도자기의 숲’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常滑焼**

常滑は、日本六古窯のひとつとして知られ、1000 年以上の歴史を持つ陶磁器産地である。そのため、常滑の歴史と経済発展は焼き物と切っても切れない関係にある。

常滑市周辺の環境は、陶器の生産に適していた。良質な粘土が豊富に供給され、柔らかい土となだらかな丘陵地は穴窯（トンネル状の窯）を掘りやすかった。さらに、知多半島に位置していたため、完成品を運ぶための海へのアクセスも容易だった。

常滑焼は 12 世紀初頭に登場し、陶工たちが作り始めた大型の貯蔵瓶や調理器具はすぐに全国に広

がった。19 世紀に中国から伝来した技術により、鉄分の多い赤土を使った常滑名物の急須が作られるようになった。

1830 年頃には登り窯が登場し、エネルギー効率の良い大量生産が可能になった。19 世紀後半、日本が急速に近代化すると、常滑では瓦や給排水用のパイプが生産されるようになった。大規模な陶磁器生産は 1950 年代にピークを迎えた。

ここ数十年、生活様式の変化や海外での関心の高まりにより、常滑焼はさらに多様化した。職人たちは嗜好の変化に対応し、伝統的な技法と現代的な技術革新の両方を調和させながら、常滑焼を繁栄させていった。招き猫の置物や盆栽鉢、赤土の急須などは、今日の人気商品のひとつだ。

常滑焼については、「やきもの散歩道」B コースにある「とこなめ陶の森」でより詳しく知ることができる。

【タイトル】 やきもの散歩道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도자기 산책길**

도자기 산책길을 걷는 것은 도코나메의 전통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총 두 코스가 있으며, 모두 도코나메시 도자기 회관에서 출발합니다. A 코스는 총 길이 1.6km로 도코나메의 대표적인 명소와 명승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 코스는 총 길이 4km로 더 상세하게 도코나메 도자기 역사의 개요를 알 수 있습니다. 산책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체로 A 코스가 1 시간 정도, B 코스가 2 시간 30 분 정도이지만, 볼거리가 많이 있어서 충분히 만끽하려면 시간을 더 길게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손에 들고 길 곳곳에 있는 영어 간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산책길은 보존 상태가 좋은 가옥과 가마가 많이 남아 있는 사카에마치 지구가 중심입니다. 꼬불꼬불한 거리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으며 여러 사적 옆을 지나갑니다. 주민들은 거리와 정원을 도코나메야키 도자기로 장식해서 이 지역의 매력을 한층 고조시키고, 새로운 세대의 장인과 창업가들은 코스변에 있는 빈집을 도예 공방이나 아트 갤러리, 카페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도자기 산책길은 1972 년에 개설되어 역사적인 거리 풍경을 보존하는 한편 도코나메가 관광지로 발전하는 데 공헌해 왔습니다. 산책길을 걸을 때는 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가 내릴 때는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日本語仮訳>**やきもの散歩道**

やきもの散歩道を歩くのは、常滑の伝統を学ぶ最適な方法の1つだ。コースは2種類あり、いずれも常滑市陶磁器会館を起点とする。Aコースは全長1.6キロで、常滑の代表的な名所や景勝地がいくつか含まれている。一方Bコースは全長4キロで、常滑の陶磁器のより詳しい歴史の概要がわかる。散策時間の目安は、Aコースが1時間程度、Bコースが2時間半程度だが、見どころがたくさんあり、十分満喫するためにはもっと長い時間をかけたいかもしれない。地図を手に、道中にある英語の看板を探してみよう。

やきもの散歩道は、保存状態の良い家屋や窯が多く残る栄町地区が中心となっている。細く曲がりくねった通りは伝統的な雰囲気を残し、いくつかの史跡のそばを通る。住民たちは通りや庭を常滑焼で飾ることでこの地域の魅力を高め、新しい世代の職人や起業家たちはコース沿いの空き家を陶芸工房やアートギャラリー、カフェに改装した。

やきもの散歩道は 1972 年に開設され、歴史的町並みの保存と常滑の観光地としての発展に貢献してきた。散歩道を歩く際は、住民のプライバシーを尊重し、雨天時は滑りやすいので注意して歩こう。

001-005

一般社団法人とこなめ観光協会

【タイトル】とこなめ陶の森 資料館

【想定媒体】Web ページ

＜韓国語＞

도코나메 도자기의 숲 자료관

도코나메는 ‘일본 6 대 도자기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1000 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자기 산지입니다. 도코나메 도자기의 숲은 도코나메시의 풍요로운 도자기 전통을 알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문화시설입니다. 이곳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사자료관, 연구소, 그리고 젊은 도예가 육성을 위한 연구 공방 등 세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수 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뛰어난 도코나메야키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품 섹션에는 각 작품들과 제작에 사용된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코나메 도자기의 숲은 ‘도자기 산책길’ B 코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코나메역에서 바로 가면 도보로 25 분 거리입니다.

001-005

＜日本語仮訳＞

とこなめ陶の森 資料館

常滑は「日本六古窯」のひとつとして知られている。これらの地域は 1,000 年以上の伝統を持つ歴史的に重要な陶磁器の産地である。とこなめ陶の森は、常滑市の豊かな焼き物の伝統を伝え、未来を展望する文化施設である。施設は、有用な情報を提供する歴史資料館、研究所、そして若手陶芸家育成のための研修工房の 3 施設で構成されている。

館内に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作られた常滑焼の優れた作品が展示されている。展示品の各セクションには、それら作品とその製作に使用された技術についての詳細な説明が英語で記載されている。

とこなめ陶の森は、「やきもの散歩道」B コースに入っており、常滑駅から直行すれば徒歩 25 分で行くことができる。

【タイトル】廻船問屋 瀧田家

【想定媒体】Web ページ

<韓国語>**운송선업자 다키타 저택**

도코나메에서 운송선업을 경영한 다키타 가문은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있어 1850 년에 이세 만을 바라보는 땅에 저택을 지었습니다. 이 구 저택은 충실히 복원되어 있으며, 전시되어 있는 당시의 가구, 도자기, 옷기 등에서 일족과 그 생활양식, 그들의 해운업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해운 역사를 설명하는 유익한 전시도 있습니다.

18 세기에 이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코나메는 지타 반도에 위치한 덕에 해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다키타 가문이 소유한 수 척의 작은 목조선을 이용해 도코나메야키 도자기와 지역산 쌀과 술을 에도(현재의 도쿄)로 운송하고 대두와 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에도로 항해하기 전에 배는 이세 만을 건너가 미에현의 도바라는 항구 마을까지 갔고 거기에서 뱃사람들은 신중하게 날씨를 살폈습니다. 항해 조건이 갖춰지면 에도를 향해 7 일에서 10 일간의 항해를 떠났습니다. 당시의 배를 15 분의 1 사이즈로 축소한 복제품이 저택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코나메시에서 관리를 맡기 전까지 이 집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키타 에이지와 아내 하루미, 그리고 두 자녀였습니다. 그중 딸 아유치(1932~2005)는 남성 중심의 일본 항공계에서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치는 일본항공 최초의 여성 임원이었고, 후에 일본 정부의 고문을 맡았습니다. 운송선업자 다키타 저택은 ‘도자기 산책길’ A 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廻船問屋 瀧田家**

常滑で廻船問屋を営んでいた瀧田家は、収益の大きな商売を始めて間もなく 1850 年に伊勢湾を望む地に邸宅を建てた。その旧宅は忠実に復元されており、展示されている当時の家具、陶磁器、漆器などから一族とその生活様式、彼らの海運業について学ぶことができる。また、地元の海運の歴史を説明する有益な展示もある。

18 世紀にこの地域の産業と経済が発展するにつれ、常滑は知多半島に位置することから海運の中心地となった。瀧田家は所有する数隻の小さな木造船を使って、常滑焼や地元産の米や酒を江戸（現在の東京）に運び、大豆や小麦を持ち帰った。

江戸への航海の前に、船は伊勢湾を渡って三重県の鳥羽という港町まで行き、そこで乗組員は慎重に天候を監視した。航海条件が整うと、7 日から 10 日間の江戸への航海に出発した。当時の船の 15 分の 1 サイズの複製が家の中に展示されている。

市が管理を引き継ぐ前、この家に最後に住んでいたのは、瀧田英二と妻のはるみ、そして 2 人の子供たちだった。娘のあゆち（1932-2005）は、男性中心の日本の航空界におけるパイオニアとしてよく知られている。彼女は日本航空初の女性役員であり、後に日本政府の顧問を務めた。廻船問屋 瀧田家は「やきもの散歩道」A コースに含まれる。

【タイトル】 登窯（陶榮窯）

【想定媒体】 Web ページ

<韓国語>**오름가마(도예이 가마)**

이 인상적인 벽돌조 건물은 도자기 산책길 A 코스변의 언덕 위, 경사 17 도 사면에 지어져 있습니다. 도코나메의 마지막 오름가마이며 오름가마로서는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오름가마란 경사면에 만든 가마를 가리키며, 중국에서 유래했습니다. 17 세기 초엽에 한반도를 경유해 일본에 전해졌고 도코나메에서는 1830 년경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이 오름가마는 1887 년부터 1974 년까지 조업했습니다.

가마는 작은 방들로 나뉘어 있었으며, 대량의 도기, 특히 유약을 칠한 도기를 높은 에너지 효율로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름가마는 8 개의 소성실이 있고 장작과 석탄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높이의 굴뚝 10 채가 있어서 가마 안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마는 근처에 사는 33 곳의 장인들이 교대로 지키며 공동으로 작업했습니다.

19 세기 중반부터 일본은 급속도로 근대화하게 되는데, 1910 년대까지는 60 곳 정도의 오름가마가 도코나메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름가마들에서는 일본 전국에서 사용하는 타일과 도관(陶管)을 생산했습니다. 20 세기 중반이 되면서 기술 향상과 환경 규제의 강화에 따라 오름가마에서의 생산은 1974 년에 정지되었습니다.

오름가마는 1982 년에 국가 중요 유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도코나메의 유산 가운데 하나로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登窯（陶榮窯）**

この印象的なレンガ造りの建物はやきもの散歩道 A コース沿いの丘の上、傾斜 17 度に建っている。常滑最後の登窯であり、登窯としては日本最大級の規模を誇る。

登窯とは、斜面に造られた窯のことで、その起源は中国にある。17 世紀初頭に朝鮮半島を経由して日本に伝わり、常滑では 1830 年頃から使われていた。この登窯は 1887 年から 1974 年まで操業していた。

窯は小部屋に分かれており、大量の陶器、特に釉薬を塗ったものをエネルギー効率よく製造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登窯は 8 つの焼成室があり、薪と石炭を燃料としていた。様々な高さの 10 本の煙突があり、窯の中の温度を均一に保つことができる。窯の運営は、近隣の 33 軒の職人が交代で見守る共同作業だった。

19 世紀半ばから日本は急速に近代化し、1910 年代までには 60 ほどの登窯が常滑で操業していた。これらの登窯では全国で使用されるタイルや陶管を生産していた。20 世紀半ばになると、技術の向上や環境規制の強化によって、1974 年に登窯での生産は停止された。

登窯は 1982 年に国の重要有形民俗文化財に指定され、常滑の遺産のひとつとして保存されることになった。

【タイトル】 登窯広場

【想定媒体】 Web ページ

<韓国語>**오름가마 광장**

벽돌조 오름가마(도예이 가마)에 인접한 이 광장은 도자기 산책길 A 코스의 중간쯤에 위치하여 휴식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광장의 볼거리는 2 층 건물로, 1 층은 보존 상태가 좋은 19 세기의 가마, 2 층은 전시 공간과 공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은 가마 안에 들어가 내부를 견학할 수 있습니다. 가마에는 입구가 두 개 있어서 도기를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습니다. 이 가마는 간장병, 도관, 찻주전자, 분재 화분 등 도코나메의 다양한 특산품을 생산하는 데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지역의 신진기에 도예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선물 및 기념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공방에서는 도기나 마네키네코에 그림을 그려넣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제작한 작품은 유약을 바르고 구운 다음 몇 주 뒤에 참가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광장에는 크고 현대적인 옥외 도예 작품이 두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바타 마사아키 씨(1948~)가 만든 『시공(時空)』이라는 역동적인 푸른 조각입니다. 광장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작품은 스기에 준페이 씨(1936~2005)가 만든 『광채(輝)』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광채』는 갖가지 색의 타일이 반짝이는 모자이크 벽입니다.

<日本語仮訳>**登窯広場**

レンガ造りの登窯（陶榮窯）に隣接するこの広場は、やきもの散歩道 A コースのほぼ中間に位置し、休憩に最適な場所である。広場の見どころは 2 階建ての建物で、1 階には保存状態の良い 19 世紀の窯、2 階は展示スペースと工房になっている。

訪問者は窯の中に入場し、内部を見学できる。窯には、入り口が 2 つあり、陶器を効率よく積み込むことができる。この窯は、醤油差し、陶管、急須、盆栽鉢など常滑の様々な特産品を生産するために長年使われてきた。

展示スペースでは、地元の新進気鋭の陶芸家による作品が展示されており、お土産や贈答品に最適な商品が豊富に揃っている。工房では、陶器や招き猫の絵付け体験もできる。年齢を問わず参加でき、事前予約は不要。ただし、制作した作品は釉薬を塗り、焼成後、数週間後に参加者に郵送される。

広場には、大きな現代的屋外陶芸作品が2つある。ひとつは柴田正明氏(1948-)作『時空』というダイナミックな青い彫刻だ。広場の中央に位置するこの作品は、杉江淳平氏(1936-2005)作『輝』と並んでいる。『輝』は色とりどりのタイルがきらめくモザイクの壁である。

【タイトル】 常滑系招き猫 (幸運の招き猫)

【想定媒体】 Web ページ

<韓国語>**도코나메의 마네키네코(행운의 마네키네코)**

도코나메는 마네키네코의 명산지입니다. 마네키네코는 일반적으로 삼색털 고양이(흰색, 검은색, 노란색 털을 가진 고양이)이며 한쪽 앞발을 들고 다른 쪽 앞발로 금화를 쥐고 있는 자세입니다. 앞발을 드는 몸짓은 일본 사람이 손짓을 할 때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몸짓을 표현한 것입니다. 왼쪽 앞발을 들고 있는 마네키네코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손님유치에 적극적인 상점 및 회사에서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앞발을 든 마네키네코는 행운과 부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마네키네코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일찍이 농가와 상점 주인들은 쥐와 해충을 잡아주는 고양이를 아꼈습니다. 마네키네코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 세기 후반이라고 하는데, 도코나메시에서는 1930 년대 후반부터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통적인 도기 산업이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장인들이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장식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950 년까지는 도코나메시가 일본 마네키네코의 주요 생산지로 정착되었고, 통통한 몸에 큰 눈과 귀가 특징인 마네키네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마네키네코가 있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삼색털 고양이 장식품입니다. 마네키네코는 아래와 같은 도코나메시의 유명한 관광 명소에서도 그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도코나메 마네키네코 도리 거리

도코나메 마네키네코 도리 거리는 마네키네코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39 개의 마네키네코가 늘어서 있는 거리입니다. 도코나메와 인연이 있는 예술가들이 제작한 마네키네코는 작가별로 다른 행운을 가져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인연 맺기, 무병장수, 사업 번성 등입니다.

도코나메역과 도코나메시에서 가장 유명한 마네키네코 ‘도코냥’, 그리고 ‘도자기 산책길’의 입구인 도코나메시 도자기 회관을 잇는 거리입니다.

도코나메의 수호 고양이 ‘도코냥’

마네키네코 도리 거리 도중에 있는 다리 위 제방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거대한 마네키네코입니다. 전철로 도코나메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역에 도착하면 이 마네키네코가 바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도코냥’이라는 이름은 ‘도코나메’의 ‘도코’와 일본어로 고양이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냥’을 조합한 것입니다. 2008 년에 탄생한 이래 도코나메시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인기 명소이기도 합니다.

머리와 왼쪽 앞발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높이 3.8m, 폭 6.3m 로 일본에서 가장 큰 마네키네코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리를 지키며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 줍니다. 도코냥 가까이의 벽을 따라 잘 찾아보면 거대한 마네키네코 주위에 작지만 진짜 같은 11 개의 고양이 작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001-009

<日本語仮訳>

常滑の招き猫 (幸運の招き猫)

常滑は招き猫の名産地である。招き猫は一般的に三毛猫（白、黒、オレンジの模様）で、片方の前足を上げ、もう片方の前足に小判を握りしめるスタイルをしている。この前足を上げる仕草は、日本人が手招きをするときを使う、手のひらを下に向け、指を上下に動かす仕草を真似ている。左前足を上げた招き猫は人を呼び寄せると言われ、集客に熱心な店舗や会社で特に人気がある。右前足を上げた招き猫は、幸運と富をもたらすと言われる。

招き猫の起源は定かではないが、かつて農家や商店主は、ネズミや害虫を食べてくれる猫を重宝していた。招き猫の置物が最初に登場したのは 19 世紀半ばと考えられているが、常滑市では 1930 年代後半から生産が始まった。当時、伝統的な陶器産業が衰退していたため、地元の職人たちが新たなビジネスとして置物を作り始めたのだ。

1950 年までには、常滑市は日本の招き猫の主要な生産地となり、ふっくらとした体に大きな目と耳が特徴的な招き猫が作られるようになった。現在では様々な色やデザインの招き猫があるが、最も人気があるのは三毛猫の置物である。招き猫は下記のような、常滑市の有名な観光名所にも影響が見られる。

とこなめ招き猫通り

とこなめ招き猫通りは、招き猫をモダンにアレンジした 39 体の招き猫が並ぶ通りである。常滑にゆかりのある芸術家たちが制作した招き猫は、製作者によって異なる幸運を与える力が込められている。縁結び、無病息災、事業成就などである。

常滑駅と、常滑市で最も有名な招き猫「とこにゃん」、そして「やきもの散歩道」の入口である常滑市陶磁器会館を結ぶ通りである。

常滑の守護猫「とこにゃん」

招き猫通りの途中にある橋の上の堤防から顔を出す巨大な招き猫である。電車で常滑を訪れる観光客は駅に到着すると、この招き猫を目にすることだろう。

「とこにゃん」という名前は、「とこなめ」の「とこ」と日本語で猫の鳴き声を表す「にゃん」を組み合わせたものである。2008 年の誕生以来、「とこにゃん」は常滑市のシンボルとして愛され、記念写真を撮る、人気スポットとなっている。

頭と左前足だけの構成だが、高さ 3.8 メートル、幅 6.3 メートルと日本最大級の招き猫である。街を見守りながら、訪れる全ての人を歓迎してくれる。とこにゃんの近くの堀沿いをよく探してみると、巨大な招き猫の周りに小さな本物そっくりの猫の置物を 11 体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

【タイトル】 常滑焼

【想定媒体】 Web ページ

<韓国語>**도코나메야키 도자기**

도코나메의 역사와 경제적인 발전은 도자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에치젠, 세토, 시가라키, 단바, 비젠과 더불어 ‘일본 6 대 도자기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1000 년 넘게 도기를 만들어 온 전통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코나메야키 도자기의 기원은 제작 기술이 지타 반도(아이치현)에 전해진 12 세기 초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역은 등요(터널 모양의 경사진 가마)를 파기 쉬운 부드러운 토양과 완만한 언덕이 있었으며 질 좋은 점토가 풍부하게 공급되었고, 바다에도 가까워 완성품 운송이 쉬웠기 때문에 도기 생산지로 적합했습니다. 14 세기에는 도코나메시의 도공들이 띠 모양으로 만든 점토를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코일링’ 기법을 사용해 대형 저장용 병과 조리 도구를 생산했습니다.

15 세기 후반에는 대형 가마가 출현함으로써 도코나메시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었고, 고품질의 도자기 산지로서 지명도를 높였습니다. 도코나메의 항아리는 술 운반 등 여러 실용적인 용도로 활용되었고 작은 항아리는 교토의 세련된 다도 문화에 사용되었습니다.

19 세기 중반에 중국에서 전래된 기술을 통해 도코나메를 대표하는 적토 찻주전자가 탄생했습니다. 이 점토는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독특한 붉은 빛을 띠며, 높은 보온력과 다공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찻주전자는 현재에도 귀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찻주전자 본체와 뚜껑이 딱 맞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밀성이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찻주전자 내부는 유약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철분을 많이 함유한 도코나메시의 흙이 녹차의 짙은 맛을 완화하여 부드러운 맛의 차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찻주전자는 서양의 티포트보다 작고 주둥이에 대해 90 도 각도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적응과 근대화

1830 년경 도코나메시에서 가장 오래된 오름가마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도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50 년대에는 도코나메야키 도자기로 도기제 변기도 제조하기 시작했고, 19 세기 후반에 일본이 급속히 근대화하자 지붕 기와와 급배수용 파이프 제조도 시작했습니다.

1930 년대 후반에는 장인들이 도기 장식품을 만들기 시작하여 1950 년에는 일본 전국에서 마네키네코를 가장 많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생산의 절정은 1950 년대로 수백 개의 가마가 있었습니다. 그 뒤 제조 기술의 향상과 환경 규제의 강화에 따라 대규모

생산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도코나메야키 도자기는 더욱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장인들은 기호의 변화에 맞추어 도예가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기술 혁신을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코나메야키의 도자기 마네키네코와 찻주전자, 분재 화분은 일본 국내외에서 인기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도코나메야키 도자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도자기 산책길’ B 코스에 있는 ‘도코나메 도자기의 숲’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001-010

<日本語仮訳>

常滑焼

常滑の歴史と経済的な発展は、焼き物と密接に結びついている。越前、瀬戸、信楽、丹波、備前とともに「日本六古窯」のひとつとして知られる。これらの地域は 1000 年以上前から続く陶器作りの伝統がある。

新たなテクニック

常滑焼の起源は製作技術が知多半島（愛知県）にもたらされた 12 世紀初頭にさかのぼる。この地域は、穴窯（トンネル状の傾斜のある窯）を掘りやすい柔らかい土壌となだらかな丘陵があり、良質な粘土が豊富に供給され、海にも近く、完成品の輸送が容易であったため、陶器生産に適していた。14 世紀には、常滑市の陶工たちは、紐状にした粘土を底から積み上げていく「ひもづくり」という技法で、大型の貯蔵瓶や調理器具を生産していた。

15 世紀後半には大窯が出現したことで常滑市の生産能力は向上し、高品質な焼き物の産地として常滑市の知名度は上がった。常滑の壺は酒の運搬など、さまざまな実用的な用途に使われ、小壺は、京都の洗練された茶の湯文化に用いられた。

19 世紀半ばに中国から伝道された技術によって、常滑を代表する赤土の急須が誕生した。この粘土は鉄分を多く含み、独特の赤い色合いをしており、保温力の高さと多孔質で知られている。この急須は現在でも珍重されている。急須本体と蓋がぴったりと合うように細心の注意が払われ、気密性の高い仕上がりになっている。急須の内部は釉掛けされていないので、鉄分を多く含む常滑市の土が緑茶の渋みを和らげ、まろやかな味わいのお茶を楽しめと言われている。急須は西洋のティーポットよりも小さく、注ぎ口に対して 90 度の角度で取手が付いているのが特徴だ。

適応と近代化

1830 年頃、常滑市で最も古い登窯が作られ、陶器のエネルギー効率の良い大量生産が可能になった。1850 年代には、常滑焼は陶器製便器の製造も開始し、19 世紀後半に日本が急速に近代化すると、屋根瓦や給排水用のパイプの製造も開始した。

1930 年代後半には、職人たちが陶器の置物を作り始め、1950 年には招き猫の生産で日本一になった。陶磁器生産のピークは 1950 年代で、数百もの窯があった。その後、製造技術の向上や環境規制の強化により、大規模な生産は減少していった。

ここ数十年、ライフスタイルの変化や海外からの関心によって、常滑焼はさらに多様化している。職人たちは嗜好の変化に対応し、陶芸が繁栄し続けるよう伝統的な技法と現代的な革新の両方を取り入れてきた。今日、常滑の焼き物の招き猫や赤土急須、盆栽鉢は国内外で人気を博している。常滑焼についてより詳しく知りたければ「やきもの散歩道」B コースにある「とこなめ陶の森」を訪れよう。

【タイトル】 やきもの散歩道

【想定媒体】 Web ページ

<韓国語>**도자기 산책길**

도코나메야키 도자기는 1000 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도코나메시의 역사, 경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 왔습니다. 도코나메시의 유산에 대해 알아보려면 2 종류의 코스가 있는 ‘도자기 산책 길’을 걸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총 길이 1.6km 의 A 코스는 도코나메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돌아보며, B 코스는 총 길이 4km 로 도코나메시의 도자기 역사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두 코스 모두 도코나메야키 도자기 전시와 관광 안내를 하는 도코나메시 도자기 회관에서 출발합니다.

도자기 산책길은 보존 상태가 좋은 민가와 가마가 많이 남아 있는 사카에마치 지구가 중심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은 전통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고 여러 사적을 지냅니다. 주민들은 거리와 정원을 도코나메야키 도자기로 장식해서 이 지역의 매력을 한층 더하고, 새로운 세대의 장인과 창업가들은 길 주변에 있던 빈집을 도예 공방이나 아트 갤러리, 카페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도자기 산책길은 1972 년에 시작되어 역사적인 거리 풍경을 보존하는 한편 도코나메가 관광지로 발전하는 데 공헌해 왔습니다. 소요 시간은 대략 A 코스가 1 시간 정도, B 코스가 2 시간 30 분 정도지만, 많은 관광객들은 볼거리를 충분히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A 코스(1.6km)**운송선업자 다키타 저택**

다키타 가문은 부유한 운송선업자였습니다. 1850 년에 지어진 구 저택에는 당시의 가구, 도기, 옷기와 더불어 도코나메시의 해운 역사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칸자카

완만한 언덕길이 이어지는 이 거리는 도자기 산책길에서 가장 상징적인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코나메야키 도자기는 혁신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벽과 도로 포장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책길 한쪽에는 1870 년대에 제조된 급배수용 도기제 토관이, 반대쪽에는 1960 년경의 소주병이 늘어서 있습니다. 토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폐기물로 만든 고리는 길 바닥에 묻어 미끄럼 방지 바닥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름가마(도에이 가마)

벽돌로 만들어진 이 인상적인 가마는 도코나메시에 현존하는 마지막 오름가마이며 일본에서 가장 큰 오름가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1887 년부터 1974 년까지 이용되었는데, 8 개의 소성실이 있고 높이가 서로 다른 10 개의 굴뚝을 통해 가마 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름가마 광장

벽돌조 오름가마(도예이 가마)에 인접한 광장입니다. 주요 볼거리는 2 층 건물의 내부에 있는데, 1 층은 19 세기 초의 가마, 2 층은 전시 공간과 공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은 보존 상태가 좋은 가마 안으로 들어가 견학할 수 있습니다. 옥외에는 화려한 색상의 거대한 현대 도예 작품 두 점이 있습니다.

벽돌조 굴뚝

생산 전성기였던 1950 년대에는 도코나메에 300 개 이상의 벽돌조 굴뚝이 있었는데, 현존하는 굴뚝은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았습니다. 약 100 개가 보존되어 있으며 산책로의 주요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B 코스(4km)

INAX 라이브 뮤지엄

도코나메의 도자기 문화를 소개하는 6 채의 체험형 파빌리온으로 이루어진 드넓은 복합 시설입니다.

- 도자기 가마가 있는 광장에는 도관을 제조했던 다이쇼 10 년(1921 년)의 가마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 세계의 타일 박물관은 세계의 장식 타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 건축 도기의 시작관은 일본 건축물의 테라코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 흙·진흙관에서는 도기 원료를 만져보면서 견학할 수 있습니다.
- 도라공방에서는 타일에 그림 그리기 등의 공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도자기 공방은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부터 혁신적인 도자기 기술 및 제품 개발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코나메 도자기의 숲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역사자료관, 연구소, 젊은 도예가 육성 공방이 일체화된 문화 시설입니다. 도코나메야키 도자기를 탄생시킨 가마가 수 세기에 걸쳐 만들어온 멋진 작품들을 상세한 영어 표기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001-011

<日本語仮訳>

やきもの散歩道

常滑焼は 1000 年以上の歴史と共に、常滑市の歴史、経済、社会的基盤を形成してきた。この常滑

市の遺産について知るには、2 種類のコースがある「やきもの散歩道」を歩くのが一番だ。全長 1.6 キロの A コースは常滑市の代表的な観光スポットを巡り、B コースは全長 4 キロで常滑市の焼きものの歴史を詳しく紹介する。どちらのコースも、常滑の焼き物の展示や観光案内がある常滑市陶磁器会館からスタートする。

やきもの散歩道は保存状態の良い民家や窯元が多く残る栄町地区を中心としている。細く曲がりくねった道は昔ながらの雰囲気を残し、様々な史跡を通り過ぎる。住民たちは、通りや庭を常滑焼で飾ることでの地域の魅力を高め、新しい世代の職人や起業家たちは、コース沿いの空き家を陶芸工房やアートギャラリー、カフェに改装した。

やきもの散歩道は 1972 年にスタートし、歴史的町並みの保存と常滑の観光地としての発展に貢献してきた。所要時間の目安は、A コースが 1 時間程度、B コースが 2 時間半程度だが、観光客の多くは見所を十分に楽しむためそれ以上の時間をかける。

A コース (1.6 キロ)

廻船問屋 瀧田家

瀧田家は裕福な廻船問屋であった。1850 年に建てられた旧宅には、当時の家具、陶器、漆器に加え、常滑市の海運の歴史などの資料が展示されている。

土管坂

なだらかな坂道が続くこの通りは、やきもの散歩道の最も象徴的なスポットのひとつである。常滑焼は革新的な用途に使われ、壁や舗装の一部を形成している。散歩道の片側には 1870 年代に製造された給排水用の陶製土管が、反対側には 1960 年頃の焼酎瓶が並ぶ。土管を作る過程でできる廃材の輪は、路面に埋め込まれて滑らないための敷物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

登窯（陶榮窯）

この煉瓦造りの印象的な窯は、常滑市に現存する最後の登窯であり、日本最大級のものである。1887 年から 1974 年まで稼働したが、8 つの焼成室があり、高さの異なる 10 本の煙突により窯内の温度を均一に保つことができる。

登窯広場

レンガ造りの登窯（陶榮窯）に隣接する広場。主な見どころは 2 階建ての建物内にあり、1 階には 19 世紀初頭の窯、2 階は展示スペースと工房になっている。訪問者は保存状態の良い窯内に入場し、見学することができる。屋外には、色鮮やかな現代陶芸の大きな作品が 2 つある。

レンガ造りの煙突

1950 年代の生産最盛期には、常滑には 300 本以上のレンガ造りの煙突があり、現存する煙突は市を象徴するランドマークの一つとなっている。約 100 本が保存され、散歩道の主な見どころの一つだ。

B コース (4 キロ)

INAX ライブミュージアム

常滑のやきもの文化を紹介する 6 つの体験型パビリオンからなる広大な複合施設。

- ・窯のある広場には、陶管を製造していた大正 10 年（1921 年）の窯が保存されている。
- ・世界のタイル博物館は、世界の装飾タイルを展示している。
- ・建築陶器のはじまり館では、日本の建築物のテラコッタ作品を展示している。
- ・土・どろんこ館では、陶器の原料に触れながら見学することができる。
- ・陶楽工房では、タイル絵付けなどの工芸体験ができる。
- ・やきもの工房は歴史的建造物の修復から、革新的な陶磁器技術や製品の開発まで多様なプロジェクトを行う。

とこなめ陶の森

多くを学べる歴史資料館、研究所、若手陶芸家育成工房が一体となった文化施設。常滑焼の陶磁器を誕生させた窯が何世紀にもわたって作り続けてきた逸品を、詳細な英語表記とともに見ることができる。

地域番号	006	協議会名	「越後長岡」観光振興委員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 (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06-001	摂田屋・宮内地区：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敷地内の 10 棟の建造物、石垣の歴史や概要（見どころや見学ルートを記載）	2,212	WEB
006-002	摂田屋・宮内地区：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 1 2 種類の鍔絵の説明	1,408	WEB
006-003	摂田屋・宮内地区：秋山孝ポスター美術館・長岡/建物の歴史や概要、美術館の概要	1,242	WEB
006-004	摂田屋・宮内地区：旧三国街道/歴史や概要	1,257	WEB
006-005	摂田屋・宮内地区：吉乃川 醸蔵/建物の歴史や概要	1,214	WEB
006-006	摂田屋・宮内地区：星六 土蔵/建物の歴史や概要	837	WEB
006-007	摂田屋・宮内地区：長谷川酒造 主屋/建物の歴史や概要	1,105	WEB
006-008	摂田屋・宮内地区：星野本店 三階蔵/建物の歴史や概要	1,159	WEB
006-009	摂田屋・宮内地区：越のむらさき 主屋・土蔵/建物の歴史や概要	1,038	WEB
006-010	摂田屋・宮内地区：旧川上邸（江口だんご）/建物の歴史や概要	1,262	WEB
006-011	摂田屋・宮内地区：宮内駅と宮内商店街/宮内地区について、雪国の生活について（雁木通り、消雪パイプ等）	584	WEB
006-012	摂田屋・宮内地区：日本酒・味噌・醤油・サフラン酒について/発酵のプロセスなどの製造方法や製品についての解説	2,438	WEB
006-013	照明寺/密蔵院、観音堂、本堂、天井絵、石造など	1,867	パンフレット
006-014	白山媛神社/社殿、天井絵、十二神社など	1,728	パンフレット
006-015	白山媛神社奉納船絵馬/北前船及び船絵馬の概要など	1,321	パンフレット
006-016	聖徳寺/本堂、文化財など	1,501	パンフレット
006-017	法福寺祖師像/由来や建物など	1,108	パンフレット
006-018	養泉寺/由来や建物など	1,563	パンフレット
006-019	寺泊御朱印街道/白山媛神社、照明寺、法福寺、聖徳寺など	1,857	パンフレット
006-020	寺泊の温泉/寺泊温泉、寺泊海岸つわぶき温泉、寺泊岬温泉	1,437	パンフレット
006-021	長岡市寺泊民俗資料館/施設の概要、展示紹介	931	パンフレット
006-022	長岡市寺泊民俗資料館/展示紹介	1,005	アプリ&QR コード
006-023	長岡市の概要/長岡市の風土や歴史、文化等の概要やアクセス情報	1,118	WEB

【タイトル】 摂田屋・宮内地区：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敷地内の10棟の建造物、石垣の歴史や概要（見どころや見学ルートを記載）

【想定媒体】 WEB

<韓国語>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은 1894년에 건설된 이후, 셋타야 지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양조장은 약주 제조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 전성기에는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에서 만들어진 사프란주는 일본 전역에 퍼졌고, 멀리 하와이에까지 판매되었습니다. 현재, 당시의 건물과 석축은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보존되어 있으며, 옛 창고는 방문객들이 그 역사에 대해 배우고 지역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창업자인 요시자와 니타로(1863~1941년)는 독특한 감성과 웅장한 구상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는 기능을 중시한 시설이었을 건물을, 그의 다채롭고 창의적인 취미를 반영한 호화롭고 색채감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고, 거기에 실무적인 작업 환경도 접목한 복합적인 시설로 완성했습니다.

창설자

요시자와 니타로는 조묘무라(定明村, 현재의 나가오카시 미야우치 지구)에 있는 농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세에 약방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한방약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쌓아갔습니다. 21세 때, 오랜 세월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비전주로 알려진 자가제 사프란주를 대나무 통에 담아 약주로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1887년, 24세의 니타로는 사프란주의 제조 판매 허가를 정식으로 취득하고 1892년에는 ‘기나 사프란주’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고 1894년에는 가게를 조묘무라에서 현재의 셋타야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 그는 모은 재산을 바탕으로,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대규모 양조장과 저택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한편으로 조경과 불꽃놀이 제작, 옛날 돈과 도검 수집 등 다양한 취미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요시자와 니타로는 1941년에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현재도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의 건물에는 그의 정신이 짙게 남아 있으며, 그 독특한 세계관은 ‘니타로 월드’로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프란주의 특징

기나 사프란주는 사프란을 비롯한 다양한 약초 허브와 향신료를 증류 알코올에 담가 만든 시럽 상태의 리큐어입니다. 원래는 자양강장제나 만병통치약으로 널리 사랑받아 왔습니다. 현대의 사프란주는 사프란, 꿀, 대추, 정향, 시나몬, 감초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당시의 풍미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4%로 약간 걸쭉하고 달콤하며 꽃 같은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트레이트로 즐기는 것은 물론, 레몬즙을 섞거나 칵테일로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전역에서 유통되었지만, 현재는 주로 나가오카 지방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본채(오모야)

본채는 원래 1894년에 점포와 주거지를 겸한 건물로 건설되었습니다. 1913년에는 후방 부분이 증축되어 건물 전체 면적은 330m²를 넘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도로변에

면한 가게에는 문 위에 큰 간판이 걸려있었고, 한편 안쪽에는 가족의 거주지로 사용되며 호화로운 주거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역 특유의 많은 적설량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맞배지붕에 장식된 특히나 큰 귀와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붕이 달린 복도를 통해 부지 내에 흩어져 있는 다른 9 채의 건물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별관(하나레자시키)

2 층 건물인 별관은 1931 년에 증축되어 주로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붕의 주요 용마루에는 번영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기하학적 무늬 ‘칠보’가 그려진 장식적인 도기 기와가 올려져 있습니다. 용마루의 양쪽 끝에는 길운을 가져다준다는 용과 잉어, 그리고 화재를 막아준다고 하는 사치호코(물고기처럼 생긴 상상 속 생물)가 장식 기와로서 꾸며져 있습니다.(2024 년 3 월 시점에는 분리해 보관 중)

내부에는 느티나무 판자로 된 복도, 우아한 벽감 기둥, 다실풍의 훌륭한 오동나무 지붕, 정교한 구미코 세공의 나무 칸막이판, 조각이 새겨진 란마(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 중 하나. 천장과 상인방<맹장지 등을 넣는 틀> 사이에 만들어진 개구부를 말하며, 바람이나 빛이 통과하도록 설치된 것), 서양식 대리석 싱크대와 도기로 된 변기, 화초와 동물이 그려진 출입구 외에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곳곳에 보입니다. 게다가 요시자와 가문이 소장한 병풍 그림과 족자 등의 미술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별관은 토, 일, 공휴일에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의 일환으로 1 층만 견학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이외의 투어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정원에도 창업자인 요시자와 니타로의 고집과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니타로는 정원의 설계와 장식, 유지 관리까지 관여하며 말년까지 직접 손질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통적인 일본 정원다운 구조이지만, 니타로가 직접 조각한 등롱과 조각상, 그리고 나가노현의 아사마 산에서 들여온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이탈리아풍의 동굴 등 곳곳에 자신만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식용 돌이 정원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연못에는 헤엄치는 보석이라고 불리는 형형색색의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을 10m 나 내뿜는 잉어 모양의 분수 등도 있었지만, 제 2 차 세계대전 중의 금속 회수령에 의해 철거되었습니다. 정원에는 당시의 독특한 특징이 여전히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지의 다른 구역

본채와 별관, 정원, 장식적인 창고는 부지의 남동쪽에 있지만, 북동쪽은 예전에 제조 구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프란주와 포도주를 만들던 큰 건물 주위에는 쌀과 도구,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과거에 쌀 창고였던 건물이 지금은 갤러리와 상점, 이벤트 공간, 관광 안내소로 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초청 게스트의 강연을 듣거나 셋타야의 식품 생산에 대해 배우기도 하며, 명물 사프란주를 비롯한 현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006-001

<日本語仮訳>

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

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は、1894 年に建設されて以来、摂田屋地区の名所となっています。この醸造所は薬酒の製造元として始まりました。20 世紀初頭の最盛期には、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で造られたサフラン酒は日本全国に広がり、遠くはハワイにまで販売されました。現在、当時の建物と石垣は国の登録有形文化財として保存されており、かつての蔵は、訪れる人々がその歴史について学び、地元の食材を購入できるスペースへと生まれ変わっています。創業者である吉澤仁太郎（1863-1941 年）は、独特な感性と壮大な構想を持った人物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もとは機能重視の施設であったであろう建物を、彼の多彩で創造的な趣味を反映させた贅沢で色彩豊かな空間へと変え、そこに実務的な労働環境も融合させた複雑な施設へと仕上げました。

創設者

吉澤仁太郎は、定明村（現在の長岡市宮内地区）にある農家の次男として生まれました。17 歳で薬屋に勤め始め、漢方薬についての知識を深めていきます。21 歳の時、長年家に伝わる秘伝の酒とされる自家製サフラン酒を竹筒に詰め、薬酒として行商を始めました。1887 年、24 歳の仁太郎はサフラン酒の製造販売の許可を正式に取得し、1892 年には「機那サフラン酒」として商標登録を行います。事業は順調に成長し、1894 年には店舗を定明村から現在の摂田屋へと移転しました。その後、彼は蓄えた富をもとに、若い頃からの夢だった大規模な醸造所と邸宅の建設に乗り出します。一方で、造園や花火作り、古銭や刀剣の収集など、さまざまな趣味にも情熱を注ぎました。

仁太郎は 1941 年に 78 歳でこの世を去りました。それからおよそ 1 世紀が経った現在も、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の建物には彼の精神が色濃く残っており、その独特の世界観は「仁太郎ワールド」として語り継がれています。

サフラン酒の特徴

機那サフラン酒は、サフランをはじめとするさまざまな薬草ハーブやスパイスを蒸留アルコールに漬け込んだ、シロップ状のリキュールです。もともとは滋養強壮や万能薬として親しまれていました。現代のものは、サフラン、蜂蜜、ナツメ、丁子、シナモン、甘草、といった素材を使い、当時の風味を再現しています。アルコール度数は 14% で、ややとろみがあり甘く、花のような香りが特徴です。ストレートで味わうのはもちろん、レモン果汁で割ったり、カクテルにアレンジしたりと、さまざまな楽しみ方ができます。かつては全国的に流通していましたが、現在は主に長岡地方で販売されています。

主屋（おもや）

主屋は、もともと 1894 年に店舗と住居を兼ねた建物として建設されました。1913 年には後方部分が増築され、建物全体の面積は 330 平方メートルを超える大きさになりました。表に構えた店舗には、ドアの上に大きな看板が掲げられ、一方、奥の部分は家族の住まいとして、豪華な居住空間が広がっていました。この建物は、地域特有の重い雪に耐えられるように建てられているため、切妻屋根に飾られている、特に大きな鬼瓦も支え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屋根付きの廊下によって、敷地内に点在する他の 9 棟の建物ともつながっていました。

別館（離れ座敷）

2階建ての別館は1931年に増築され、主に来客をもてなすための空間として使われてきました。屋根の主棟には、繁栄を象徴する伝統的な幾何学模様「七宝」が描かれた、装飾的な陶器瓦が施されています。棟の両端には、縁起の良い龍や鯉、そして火除けの意味を持つと言われるしゃちほこ（魚のような形をした想像上の生き物）が装飾瓦としてあしらわれています。（2024年3月時点では、取り外され保管中）

内部には、ケヤキの板張り廊下、優雅な床柱、茶室風の立派な桐の屋根、精巧な組子細工の木製の仕切り板、彫刻が施された欄間（日本の伝統的な建築様式の1つ。天井と鴨居<ふすまなどを入れる枠のこと>との間に作られた開口部を指し、風や光を通すために設けられたもの）、洋風の大理石の流し台や陶器製のトイレ、草花や動物が描かれた戸口の他、高価な意匠が随所に見られます。さらに、吉澤家所蔵の屏風絵や掛け軸などの美術品も展示されています。

別館は、土日・祝日に実施されるガイドツアーの一環として1階のみ見学可能です。日本語以外のツアーを希望の場合は、事前にご相談ください。

庭園

他の部分と同様、庭園にも、創業者である吉澤仁太郎のこだわりと想いが込められています。仁太郎は庭園の設計や装飾、維持管理にまで携わり、晩年まで自ら手入れを続けました。全体としては伝統的な日本庭園らしい作りですが、仁太郎自身が彫った灯籠や彫像、そして長野県の浅間山から取り寄せた火山岩で作られたイタリア風の洞窟など、ところどころに独自の趣向が凝らされています。そのほかにも装飾用の石が庭の随所に配され、池には泳ぐ宝石と呼ばれる色とりどりの錦鯉がいます。かつては、水を10メートルも噴き上げる鯉の形をした噴水などもありましたが、第二次世界大戦中の金属回収令により撤去されました。庭園には、当時の独特の特徴が今もなお随所に痕跡として残っています。

敷地の他のエリア

主屋や別館、庭園、装飾的な蔵は敷地の南東にありますが、北東側はかつて製造エリアとして使われていました。サフラン酒や葡萄酒を造っていた大きな建物の周囲には、米や道具、その他の品物を保管する倉庫が立ち並んでいました。現在、かつて米蔵だった建物が、ギャラリーやショップ、イベントスペース、観光案内所として再活用されています。ここでは、ゲストによる講演を聞いたり、摂田屋の食品づくりについて学んだり、名物のサフラン酒をはじめとする地元産のさまざまな品を購入できます。

【タイトル】 摂田屋・宮内地区：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 1 2 種類の鍍絵の説明

【想定媒体】 WEB

<韓国語>**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 고테에 창고**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의 부지 내에는 ‘고테에(鍍絵)’라고 불리는 정교한 회반죽 부조가 장식된 창고가 2 채 있습니다. 고테에는 19 세기 중반에 널리 퍼진 기법입니다. 전통적인 미장용 흙손을 사용하여 장인은 축축한 회반죽을 여러 겹으로 덧바르고 다 마르면 채색할 수 있는 입체적인 모양으로 조각합니다. 이곳에 남아 있는 고테에는, 당시 이 양조장에 자주 방문하던 현지 미장 장인인 가와카미 이키치에 의해 제작된 것입니다.

창고 모두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상 창고(이쇼구라)

의상 창고(이쇼구라)는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의 부지 내에 있는 두 채의 장식적인 창고 중 가장 먼저 지어진 것입니다. 1916 년에 다양한 가정용품을 수납하기 위한 창고로 건설되었습니다. 2 층 구조의 창고에는 당시로서는 고가의 수입품이었던 강판 사이딩(금속으로 만들어진 외벽 패널재)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문 셔터에는 새, 물고기, 그리고 신화에 등장하는 거북이 같은 생물이 파도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표현한 고테에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인 니타로의 유쾌한 발상이 넘치는 예술적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창고 토대에 있는 돌 타일이 있습니다. 통기용으로 슬라이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문을 열고 닫기 위한 손잡이는 이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사프란주에 착안해 유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테에 창고(고테에구라)

이 2 층 구조의 창고는 회반죽으로 만들어진 부조 세공인 고테에를 주로 전시하기 위해 1926 년에 지어졌습니다. 지붕의 처마 밑에 요시자와 가문의 문양을 가운데에 두고 쌍용이 그려져 있으며, 계절 화초로 장식된 간지 중 9 마리의 동물이 그려진 문, 봉황과 기린 등 신화에 등장하는 생물이 그려진 4 장의 문, 그리고 행운과 상업 번창의 신인 에비스와 다이코쿠텐이 그려진 한 쌍의 여단이문,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학과 거북이가 그려진 한 쌍의 미단이문 등 모두 18 점의 고테에가 이 창고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전역의 미장 업자들로부터는 ‘일본 최고의 고테에’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요시자와 니타로가 창고의 장식을 의뢰할 때 비용을 아끼지 않은 것은, 이 작품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사업 번창을 위한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테에는 색이 선명하고 약동감이 있으며, 그려진 생물 중에는 생생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유리로 된 눈이 박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창고 자체는 윗부분이 흰색 회반죽, 아랫부분이 검은 평기와로 되어 있으며, 줄눈에 회반죽을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 벽으로 화재 방지를 목적으로 한 창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 두껍고 둥근 흰 줄눈이 해삼을 닮았다고 하여 이 건축 양식은 ‘해삼 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고테에 릴리프가 창고 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고려하여 창고의 건축 사양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기둥은 고테에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보통은 닫혀 있는 문도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고테에 창고에서는 열린 채로 있습니다. 지역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이 문이 닫힌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 중 공습 때, 가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기 전에 고테에를 보호하려고 했던 때 단 한 번 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고테에 창고의 내부는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과 요시자와 가문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창고 내부는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이드가 진행하는 양조장 투어도 실시하고 있어 더 자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일본어 이외의 가이드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006-002

<日本語仮訳>

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鍔絵蔵

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の敷地内には、「鍔絵（こてえ）」と呼ばれる精巧な漆喰の浮き彫りが施された蔵が 2 棟あります。鍔絵は 19 世紀半ばに広まった技法です。伝統的な左官用のコテを使って、職人は湿った漆喰を何層にも重ね、乾いたら彩色できる立体的な形に彫り上げます。ここに残る鍔絵は、当時この醸造所によく出入りしていた地元の左官職人である河上伊吉によって制作されたものです。

いずれの蔵も、国の登録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衣裳蔵（いしょうぐら）

衣裳蔵は、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の敷地内にある 2 棟の装飾的な蔵のうち、最初に建てられたものです。1916 年に、さまざまな家庭用品を収納するための蔵として建設されました。2 階建ての蔵には、当時としては高価な輸入品だった鋼板サイディング（金属で作られた外壁パネル材のこと）が使われています。窓の鎧戸には、鳥や魚、そして神話に出てくる亀のような生き物が波の上を舞う姿を表現した鍔絵が施されています。また、創業者の仁太郎の遊び心あふれる芸術的な精神を垣間見せるものとして、倉庫の土台にある石のタイルがあります。通気用にスライドできる構造になっており、開け閉めするための取手は、この醸造所で作られていたサフラン酒にちなんでガラス瓶の形をしています。

鍔絵蔵（こてえぐら）

この 2 階建ての蔵は、漆喰で作った浮き彫り細工である鍔絵を主に展示するために、1926 年に建てられました。屋根の軒下に吉澤家の家紋を挟むように双龍が描かれている他、季節の草花をあしらった干支のうち 9 つの動物が描かれた扉、鳳凰や麒麟など神話に登場する生き物が描かれた 4 枚の扉、そして開運や商売繁盛の神様である恵比寿と大黒天が描かれた一対の開き戸、長寿の象徴とされる鶴と亀が描かれた一対の引き戸など、全部で 18 点の鍔絵がこの蔵を彩っています。

このため、全国の左官屋からは「鍔絵日本一」と称賛されています。

創業者の吉澤仁太郎が蔵の装飾を依頼する際に費用を惜しまなかったのは、これらの作品が通行人の目を引き、商売繁盛の宣伝になると考えたからです。鐺絵は色鮮やかで躍動感があり、描かれた生き物のなかにはリアルさを際立たせるために、ガラス製の目がはめ込まれ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蔵そのものは、上半分が白い漆喰、下半分が黒い平瓦を張り、その目地に漆喰をかまぼこ型に盛り付けた壁で、防火を目的とした蔵によく見られる様式です。この太く丸みを帯びた白い目地がナマコに似ていることから、この建築様式は「なまこ壁」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うした背景により、鐺絵のレリーフが蔵の壁に際立つ構成となっています。作品に配慮して、蔵の建築上の仕様も一部調整されました。たとえば、内部の柱は、鐺絵を妨げないように配置されており、通常であれば閉じられている扉も、作品を目立たせるために鐺絵蔵では開かれたままになっています。地元に伝わる話では、この扉が閉じられたのは、第二次世界大戦の空襲の際、一時避難する前に家族が鐺絵を守ろうとした時の一度きりだ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現在、鐺絵蔵の内部は、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と吉澤家の歴史を紹介する展示スペースに改装されています。蔵の内部は自由に見学することができ、週末や祝日にはガイド付きの醸造所ツアーも実施されているので、より詳しい解説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入場は無料です。日本語以外のガイドを希望の場合は、事前にご相談ください。

【タイトル】 撰田屋・宮内地区：秋山孝ポスター美術館・長岡/建物の歴史や概要、美術館の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

아키야마 다카시 포스터 미술관 나가오카

아키야마 다카시: 선명한 색채가 전하는 메시지

아키야마 다카시(1952~2022 년)는 유머와 사회 비평이 어우러진 선명한 색채의 포스터로 유명한 그래픽 아티스트입니다. 나가오카 출신으로 청과점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다마미술대학과 도쿄예술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후에 다마 미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의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유소년기에 나가오카 셋타야에 있는 기나 사프란주 양조장에서 본 회반죽 부조 그림(고테에, 鏝繪)에서 영향을 받아 모든 작품이 제한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키야마의 포스터 대부분은 현대 사회의 과제에 주목하고, 반전과 자연 보호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오카의 명소를 소재로 한 포스터도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일본 국내 외에 걸쳐 활동하며, 국제적인 아트 디자인 대회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고, 세계 각지의 포스터전에서 심사위원도 맡았습니다.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한국, 중국, 일본의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을 모은 대규모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고향의 구 은행 건물을 활용해 ‘아키야마 다카시 포스터 미술관 나가오카’를 개관하고, 전시회와 이벤트, 연구 활동을 통해 젊은 예술가 육성에도 힘썼습니다. 생전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예술을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술관을 나가오카시에 기증했습니다.

미술관

아키야마 다카시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미술관 내부는 높이 5m의 전시실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벽면 가득 포스터가 진열되어 있고, 중앙 테이블에는 예전 전시회에서 사용된 카탈로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회 내용에 따라서는 입체 작품을 포함하는 전시에 맞춰 레이아웃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관내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과거 은행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으로, 두꺼운 금고실 문이 갤러리 공간과 작은 기프트숍, 카페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프트 샵에서는 아키야마가 나가오카의 풍경과 동물들을 다채롭게 그린 엽서를 비롯해 책과 작은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의 간단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은행 건물

본 미술관은 1925년에 지어진 구 나가오카 상업은행(훗날 다이시 호쿠에쓰 은행)의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세기 초의 서양식 건축을 대표하는 것으로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철골 트러스 구조(부재를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만드는 공법) 지붕과 벽돌 모양의 타일로 마감한 외벽이 특징적입니다. 건물의 남쪽에는 2004년에 발생한 주에쓰 지진으로 깨진 두꺼운 유리창이 새로 교체된 창문 아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건물이 그 재해를 견뎌낸 흔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 벽에는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나가오카 공습으로 인한 화재의 흔적이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은행 주위에는 목조 건축물이 많아서 불길이 셋타야 지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에 잘 타지 않는 은행 건물이 방화벽 역할을 하여 셋타야와 지역에 뿌리내린 수 세기에 걸친 전통 산업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지켜졌다고 전해집니다.

006-003

<日本語仮訳>

秋山孝ポスター美術館 長岡

秋山孝：鮮やかな色彩が伝えるメッセージ

秋山孝（1952-2022 年）は、ユーモアと社会批評を織り交ぜた鮮やかな色彩のポスターで知られるグラフィック・アーティストです。長岡出身で、青果店を営む家庭で育ちました。多摩美術大学と東京藝術大学で学び、のちに多摩美術大学グラフィックデザイン科の教授を務めました。幼少期に、長岡・摂田屋にある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で目にした漆喰の浮き彫り絵（鏝絵）に影響を受け、どの作品も限られた色数で構成されているのが特徴です。秋山氏のポスターの多くは、現代社会の課題に目を向け、反戦や自然保護を訴えるメッセージを力強く伝えています。また、長岡の名所を題材にしたポスターも数多く制作されました。

その活動は国内外に及び、国際的なアート・デザイン・コンペティションで数々の賞を受賞し、世界各地のポスター展で審査員も務めました。2007 年には、世界で初めて韓国・中国・日本のポスターイラストレーションを集めた大展覧会も開催しました。さらに 2009 年には、故郷の旧銀行ビルを活用して「秋山孝ポスター美術館長岡」を開館し、展覧会やイベント、研究活動を通じて、若いアーティストの育成にも尽力しました。ご逝去にあたり、市民や学生がアートを学び体験する活動の継続的な支援のため、美術館を長岡市に寄贈しました。

美術館

秋山孝の作品を展示するため、美術館の内部は高さ 5 メートルの展示室へと改装されました。壁一面にポスターが並び、中央のテーブルには、過去に展覧会で使われたカタログが展示されています。展覧会の内容によっては、立体作品を含む展示に合わせてレイアウトが変更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入場は無料です。館内での写真撮影も可能です。

かつて銀行として使われていた名残として、分厚い金庫室のドアが、ギャラリースペースと小さなギフトショップやカフェスペースの仕切りになっています。ギフトショップでは、秋山氏が長岡の風景や動物をカラフルに描いたポストカードをはじめ、本や小さな土産物を販売しています。カフェでは、ドリンクやアイスクリームなどのシンプルなメニューを提供しています。

旧銀行ビル

本美術館は、1925 年に建てられた旧長岡商業銀行（のちの第四北越銀行）の建物を活用していま

す。この建物は、20 世紀初期の洋風建築を代表するもので、国の登録有形文化財にも指定されています。鉄筋コンクリート造りで、鉄骨トラス構造（部材を三角形につなぎ合わせる工法の事）の屋根と、レンガを模したタイル張りの外壁が特徴的です。建物の南側には、2004 年の中越地震で損傷した分厚いガラス窓が、新しく取り付けられた窓の下に保存されており、建物が災害を生き延びた証となっています。また、北側の壁には、第二次世界大戦の長岡空襲による火災の痕跡が、今もかすかに残っています。当時、銀行の周囲には木造建築が多く、火は摂田屋地区へと燃え広がりやすい状況でした。しかし、燃えにくかった銀行建物が防火壁の役割を果たし、摂田屋と地域に根付く何世紀にもわたる伝統的な産業が、大きな被害から守ら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

【タイトル】 摂田屋・宮内地区：旧三国街道/歴史や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

옛 미쿠니 가도(旧三国街道)

역사 깊은 미쿠니 가도

미쿠니 가도는 한때 혼슈의 내륙부와 혼슈 북서부의 해안 지역을 잇는 변화한 교역과 여행의 길이었습니니다. 현재의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의 해안가 마을인 데라도마리까지, 약 200km 에 걸친 길이었습니니다. 도중에는 35 개의 역참(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가도의 거점)이 있어 여행자들은 찻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하타고(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새로운 말로 갈아타거나 선박 운송 업체와 계약하여 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 년)에는 종교 순례를 위해 방문하는 서민들과 멀리 있는 시장으로 향하는 상인, 에도(현재의 도쿄)로 향하는 다이묘 행렬(다이묘<대영주>가 공식적으로 외출할 때 행렬을 이루어 이동하는 것) 등 많은 사람이 이 가도를 오갔습니니다.

데라도마리는 미쿠니 가도의 북쪽 종점이자, 호쿠리쿠 지방(현재의 후쿠이현, 이시카와현, 도야마현, 니가타현)의 해안을 동서로 달리는 호쿠리쿠도(통칭명: 홋코쿠 가도, 北国街道)의 역참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미쿠니 가도의 남쪽 끝에 있는 다카사키(현재의 군마현 다카사키시)는 막부의 행정 중심지인 에도와 당시 수도였던 교토를 잇는 다섯 가도 중 하나인 나카센도의 역참이었습니니다. 그래서 미쿠니 가도는 더 먼 대도시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루트였습니니다.

셋타야의 미쿠니 가도

1605 년경, 사도 금광에서의 수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에도 막부(당시 일본을 다스리던 무가 정권을 말한다. 현재의 도쿄를 정권의 중심으로 삼았다)가 본격적으로 미쿠니 가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도는 나가오카번이 아니라 에도(현재의 도쿄)를 통치했던 도쿠가와 가문의 보다이지 절(菩提寺, 보리사. 대대로 조상들을 모신 묘가 있으며, 돌아가신 가족의 장례와 법요를 맡기고 있는 절)인 우에노 간에이지 절(上野 寛永寺)의 영지, 셋타야 지구를 지났습니니다. 에도로 향하는 다이묘 행렬은 쇼군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가고 가마(이동 수단 중 하나. 하나의 막대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매달고, 막대기의 앞뒤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이동한다)에서 내려 셋타야의 미쿠니 가도를 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니다. 에도 시대 후기 이후의 주택과 도로의 건설로 인해 과거 교역로의 대부분이 자취를 감췄지만, 좁은 골목길은 지금도 남아 있으며 이 지구에 있는 수 세기나 이어져 온 가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니다.

셋타야 구역 내 미쿠니 가도의 입구는 고시노무라사키 간장 양조장과 작은 다케코마 이나리 신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니다. 양조장 건물 옆에는 약 200 년 전부터 여행자들의 수호신인 지장보살 석상이 있습니니다. 이 지장보살상은 길잡이 역할도 겸하고 있는데, 대좌에는 ‘오른쪽은 에도, 왼쪽은 산길’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길잡이 지장보살’이라고 불립니다. 이 석조 길을 따라가면 간장과 일본술을 양조할 때 나는 독특한 향기와 발효에 사용되는 누룩곰팡이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검게 변한 나무 벽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니다.

보존되어 있는 미쿠니 가도의 구간은 셋타야 지구의 오랜 역사의 일부를 말아 온 여러 사적을 따라 이어집니다. 고시노무라사키 간장 양조장과 요시노가와 주조, 천하감로천의 물을 길어 올리는 우물, 곤피라 신사로 이어지는 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06-004

<日本語仮訳>

旧三国街道

歴史ある三国街道

三国街道は、かつて本州の内陸部と本州北西部の海沿い地域を結ぶ賑やかな交易や旅の道でした。現在の群馬県高崎市から、新潟県長岡市の海岸沿いの町、寺泊まで、約 200 キロの道のりでした。途中には 35 の宿場（様々な施設がそろった街道の拠点のこと）があり、旅人たちは茶屋で食事や休憩を取り、旅籠で一泊し、新しい馬に乗り換えたり、船宿と契約して荷物を送ったりしていました。江戸時代（1603-1867 年）には、宗教的な巡礼に訪れる庶民や遠方の市場へ向かう商人、江戸（現在の東京）へ向かう大名行列（大名・大領主が公式に外出する際に列を作って移動すること）など、多くの人々がこの街道を行き交っていました。

寺泊は三国街道の北の終点であると同時に、北陸地方（現在の福井県、石川県、富山県、新潟県）の海沿いを東西に走る北陸道（通称名：北国街道）の宿場町でもありました。三国街道の南端にある高崎（現在の群馬県高崎市）は、幕府の行政の中心地である江戸と、当時の首都であった京都を結ぶ五街道のひとつ、中山道の宿場でした。そのため三国街道は、さらに遠方の大都市を目指す人々にとって重要なルートでした。

摂田屋の三国街道

1605 年頃、佐渡金山からの輸送を便利にするため江戸幕府（当時日本を治めていた武家政権のこと。現在の東京を政権の中心とした）が本格的に三国街道を整備しはじめました。この街道は長岡藩ではなく、江戸（現在の東京）を統治していた徳川家の菩提寺（先祖代々のお墓があり、亡くなった家族の葬儀や法要を任せている寺のこと）である上野 寛永寺の御領地、摂田屋地区を通りました。江戸へ向かう大名行列は、将軍への敬意を示すため駕籠（乗り物の 1 つ。1 本の棒に人が乗った座席を吊るし、棒の前後を二人で担いで移動する）を降りて摂田屋の三国街道を歩いたと言われています。江戸時代後期以降の住宅や道路の建設により、かつての交易路の大部分は姿を消しましたが、狭い路地は今も残っており、この地区にある何世紀も続く店々をつないでいます。

摂田屋エリア内の三国街道の入り口は、越のむらさき醤油醸造所と小さな竹駒稲荷神社の間に位置しています。醸造所の建物の横には、約 200 年前から旅人の守り神である地蔵菩薩の石像があります。この地蔵菩薩の像は道しるべも兼ねており、台座には「右は江戸、左は山道」と刻まれていることから「道しるべ地蔵」と呼ばれています。この石置の道を進むと、醤油や日本酒の仕込みから漂う独特な香りや、発酵に使われる麹菌に長年さらされて黒ずんだ、木製の壁に気付くことでしょう。

保存されている三国街道の区間は、摂田屋地区の長い歴史の一端を担ってきた、いくつかの史跡に沿って進みます。越のむらさき醤油醸造所や吉乃川酒造、天下甘露泉の水がくみ上げられる井戸、金刀比羅神社につながる道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タイトル】 摂田屋・宮内地区：吉乃川 醸蔵/建物の歴史や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요시노가와 사케 뮤지엄 ‘조구라’**

요시노가와는 니가타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입니다. 이 회사는 1548 년 에치고국(현재의 니가타현)의 다이묘(대영주)인 우에스기 겐신(1530~1578 년)을 섬기던 전 무사였던 가와카미 가문에 의해 창업되었습니다. 1543 년, 무사 신분을 버리고 셋타야로 이주하여 주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몇 차례 상호를 바꾸었지만, 1973 년에 가장 인기 있는 일본술 시리즈의 이름을 따서 ‘요시노가와’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요시노가와 사케 뮤지엄 ‘조구라(醸蔵)’에서는 요시노가와와의 명주를 시음하며 비교해 보고 요시노가와와 역사와 그 섬세한 주조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요시노가와 사케의 특징

요시노가와와의 사케는 역대 도지(주조 현장의 최고 책임자를 지칭함)가 수백 년에 걸쳐 계승해 온 기술과 열정의 결정체입니다. 요시노가와와의 사케는 양조장 부지 안쪽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천하감로천의 연수를 사용하여 양조되고 있습니다. 요시노가와와 구라비토(주조 장인)들은 니가타현에서 재배된 쌀만 사용하여 술을 빚고 있으며, 그 중에는 술 빚는 시기가 아닌 여름철에 구라비토가 직접 재배한 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일본술은 일반적으로 가을에서 봄에 걸쳐 빚어집니다). 이 정성 들여 재배한 ‘구라비토 재배미(양조 장인 재배미)’와 현지의 맑은 샘물이 어우러져 요시노가와와의 사케는 깔끔한 맛과 부드러운 느낌을 자랑합니다.

요시노가와 사케 뮤지엄 ‘조구라’

이 뮤지엄은 한때 술을 병에 담는 작업이 진행되던 약 100 년 된 창고를 개조한 것입니다. 철골 트러스 지붕(부재를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만드는 공법)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 20 세기 초 서양 건축의 요소를 도입한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입니다. 한때 창고의 2 층 부분은 약 50 명의 양조 작업자가 휴식을 취하는 수면실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배움’, ‘맛보기’, ‘쇼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요시노가와와 역사와 주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전시 코너,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사케와 마시며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음 바, 요시노가와 사케 판매점,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 일본술 제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게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시 코너에서는 요시노가와와 역사와 관련된 오래된 사진과 물품들, 요시노가와와에 관한 교육용 비디오, 주조 도구, 술 빚는 과정을 설명한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음 바에서는 요시노가와와의 다양한 종류의 사케를 시음해볼 수 있으며, 달콤한 무알코올 음료와 엄선된 안주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음 바와 판매점에서는 요시노가와와 대표 상품 외에도 다른 가게에서는 구할 수 없는 계절 한정 사케와 수량 한정 사케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배우고 싶은 사람은 테이블트를 흔들거나 움직여서 쌀에 곰팡이 포자를 묻혀 누룩을 만들거나 술덧을 저어주는 등의 술을 빚는 과정을 유사 체험 게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요시노가와 뮤지엄 ‘조구라’의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음료와 음식은 별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 시 30 분부터 오후 4 시 30 분까지(바의 라스트 오더는 오후 4 시)입니다. 정기휴일은 화요일과 연말연시입니다.

<日本語仮訳>

吉乃川 酒ミュージアム「醸蔵」

吉乃川は、新潟県の最古の酒蔵です。この会社は、1548年に越後国（現在の新潟県）の大名（大領主）の上杉謙信（1530–1578年）に仕える元武士であった、川上家によって創業されました。1543年、武士の身分を捨てて摂田屋に移住し、酒造業を始めました。何世紀にもわたって何度か屋号を変えましたが、1973年、最も人気のある日本酒シリーズにちなんで「吉乃川」と名乗るようになりました。吉乃川 酒ミュージアム「醸蔵」では、吉乃川の銘酒を飲み比べながら、吉乃川の歴史やその緻密な酒造りについて学ぶことができます。

吉乃川の酒の特徴

吉乃川の酒は、歴代の杜氏（酒造りの現場で最高責任者を指す）が何百年もかけて受け継いできた、技と熱意の結晶です。吉乃川の酒は、醸造所の敷地奥の井戸からくみ上げる天下甘露泉の軟水を使用して醸造されています。吉乃川の蔵人（酒造り職人）たちは、新潟県で栽培された米のみを使って酒造を行っており、その中には、酒の仕込み時期ではない夏場に、蔵人が自ら栽培した米も含まれています（日本酒の仕込み時期は秋～春にかけて行われることが一般的）。この丁寧に栽培した「蔵人栽培米（くらびとさいばいまい）」と地元の清らかな湧水が相まって、吉乃川の酒はすっきりとした味わいと滑らかな口当たりになっています。

吉乃川酒ミュージアム「醸蔵」

このミュージアムは、かつては酒の瓶詰めが行われていた築約100年の倉庫を改装しています。鉄骨トラスの屋根（部材を三角形につなぎ合わせる工法の事）や鉄筋コンクリートの構造など、20世紀初頭の西洋建築の要素を取り入れた、国の登録有形文化財です。かつて倉庫の2階部分は、約50人の醸造作業員の仮眠室として使われていました。現在は、「学び」、「味わい」、「お買い物」が楽しめる空間へと生まれ変わっています。吉乃川の歴史や酒造りを学べる展示コーナーや、当館でしか味わえない特別なお酒や飲み比べのできる試飲バー、吉乃川酒の売店、クラフトビールの醸造所、日本酒造りの工程を体験できるデジタルゲームが設置されています。

展示コーナーでは、吉乃川の歴史にまつわる古い写真や品々、吉乃川に関する教育用ビデオ、酒造りの道具、酒造りの工程を説明した資料などが展示されています。試飲バーでは、吉乃川の様々な銘柄の酒を試せるほか、甘口のノンアルコール飲料や厳選されたおつまみもお楽しみいただけます。試飲バーと売店では、吉乃川の定番銘柄に加え、他店では手に入らない季節限定酒や数量限定の酒も取り扱っています。体験を通じて学びたい人は、タブレットを振ったり動かしたりして、米にカビの胞子をまぶして麴を作ったり、もろみをかき混ぜたりといった酒造りの工程を疑似体験するゲームで遊べます。

吉乃川酒ミュージアム「醸蔵」の入場料は無料ですが、飲み物と食べ物は別途料金がかかります。営業時間は午前9時30分から午後4時30分まで（バーのラストオーダーは午後4時）となっています。定休日は火曜日と年末年始となります。

【タイトル】 摂田屋・宮内地区：星六 土蔵/建物の歴史や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미소 호시로쿠**

미소 호시로쿠는 19 세기 선인들이 개량을 거듭하고 품과 시간을 아끼지 않은 제조법으로 빚어낸 깊은 풍미의 적된장을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 양조장은 1846 년에 창업한 발효 식품을 판매하는 호시노 혼텐과 역사적인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호시노 로쿠로는 호시노 혼텐을 운영하는 집안의 여섯째로, 1897 년에 분가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의 손자 중 한 명이 호시로쿠 브랜드 이름으로 된장 제조를 시작하였으며, 1975 년에 현재의 셋타야 지구에 미소 호시로쿠를 설립했습니다. 손자는 50 년 넘게 발효 기술을 연마하며, ‘평소에 먹는 맛있는 음식을 당연하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기업의 기본 콘셉트로 내걸고 천연 재료만을 사용한 된장 제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호시로쿠 된장의 특징

호시로쿠의 된장은 농약과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일본산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해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무통에서 몇 년에 걸쳐 자연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시간에 만드는 방법으로는 재현이 어려운 감칠맛이 도는 풍부한 풍미가 만들어집니다. 된장은 발효 기간에 따라 맛이나 요리에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요리에 맞춰 어떤 된장을 고르면 좋을지 양조장에 함께 마련된 매장 직원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호시로쿠에서는 현재 프리미엄 된장과 쌀된장, 보리된장, 에치고 적된장 등 15 종류의 된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된장 창고

이 2 층 구조의 창고는 호시로쿠 된장 생산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지붕은 철판으로 덮여 있고 벽은 회반죽으로 칠해져 있으며, 외벽의 아래쪽은 횡판으로 되어 있는 나가오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고 건축 양식입니다. 원래는 19 세기 후반에 호시노 혼텐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간장 제조에 사용되었습니다. 호시노 로쿠로가 분가했을 때 이축되어 가족의 주거지로 이용되었습니다. 1918 년에는 현재 위치로 다시 히키야(曳家, 건물을 원형 그대로 손상 없이 옮기는 기술) 기술을 사용해 옮긴 뒤, 호시로쿠 양조장의 일부로서 된장의 생산과 보관을 위해 개조되었습니다. 실내 발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창고는 외부에서만 견학할 수 있습니다. 창고는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입니다.

<日本語仮訳>**味噌星六**

味噌星六は、19 世紀の先人たちが改良を重ね、手間暇を惜しまぬ製法で作られた、風味豊かな赤味噌の専門店です。この蔵元は、1846 年創業の発酵食品を販売する星野本店と歴史的な結びつきがあります。星野六郎は星野本店を営む家の六番目の子供で、1897 年に分家しました。数年後に、彼の孫

のひとりが星六ブランドの名で味噌づくりをはじめ、1975 年に現在の摂田屋地区に味噌星六を設立しました。孫は 50 年以上にわたり発酵の技術を磨き、「おいしい当たりまえの食べ物を、当たり前で食べたい」という想いを企業の基本コンセプトに掲げて、自然素材のみを使用した味噌づくりに専念しています。

星六の味噌の特徴

星六の味噌は、農薬・添加物を一切使用せず、国産原料のみを使用しています。機械によって発酵時間を短縮するのではなく、木桶で何年もかけて自然に発酵させています。これにより、短時間で作る手法では再現が難しい、コクのある豊かな風味が生まれます。味噌は発酵年数によって味や料理の用途が変わります。料理にあわせてどの味噌を選べばいいか、醸造所に併設された売店のスタッフに相談することができます。星六では現在、こだわり味噌や米味噌、麦味噌、越後赤味噌など 15 種類の味噌を販売しています。

味噌蔵

この 2 階建ての蔵は、星六の味噌づくりの中心となる場所です。屋根は鉄板葺、壁は漆喰塗りで、外壁の下半分は横板張り、長岡地方でよく見られる蔵の造りです。もともとは 19 世紀後半に星野本店の事業の一環として建てられたもので、醤油の製造に使われていました。星野六郎が分家した際に移築され、家族の住居として利用されました。1918 年には現在の場所へ再び曳家（建物をそのままの姿で傷つけずに移動する技術）にて移動し、その後、星六醸造所の一部として味噌の生産と保管のために改装が施されました。室内の発酵の妨げにならないよう、蔵は外からのみ見学ができます。蔵は国の登録有形文化財です。

【タイトル】 摂田屋・宮内地区：長谷川酒造 主屋/建物の歴史や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하세가와 주조**

하세가와 주조는 셋타야에서 180년 이상 이어져 온 가족 경영의 작은 양조장입니다. 하세가와 가문은 원래 쌀농사를 짓던 농가였으며,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내란을 피해 신슈(현재의 나가노현)에서 나가오카로 이주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842년에 하세가와 주키치가 신 앞에 바치는 술인 오미키의 제조와 그 잉여분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정부에 허가를 신청한 것에서부터 양조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세가와 가문은 대대로 전통적인 양조법을 계승해 오늘날의 셋타야를 상징하는 사업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하세가와 주조가 나가오카에서 여성이 경영하는 몇 안 되는 양조장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술을 빚는 일이 ‘여인금제(여성 출입 금지)’였던 시절이 있었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여성이 경영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연 2회, 양조장 개방 행사를 개최하며, 방문객들은 일본술을 시음하고 양조장을 견학하며 다양한 상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세가와 주조의 술의 특징

하세가와 주조는 전통적인 수제 방식을 고집하며, 구라비토(蔵人, 주조 장인)들은 양조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세가와 주조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폭넓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세가와 주조는 술을 추출할 때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술덧(일본술의 근원이 되는 원료를 발효시킨 것)을 천 주머니에 넣고 매달아, 중력 여과를 통해 천천히 한 방울씩 술을 추출하는 ‘시즈쿠 시보리’라는 기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깊고 풍부한 향과 고급스러운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일품이 탄생합니다.

하세가와 주조는 나가노현과 선조의 인연에 경의를 표하며 나가노현에서 생산된 술쌀과 니가타현에서 생산된 술쌀, 그리고 기타 원료를 배합해, 나가오카에서 사랑받는 깔끔하고 드라이한 일본술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일본술을 빚고 있습니다. 술병의 라벨은 지역 일러스트레이터와 협업하여 계절마다 다채로운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채(오모야)

본채는 1886년에 지어졌으며, 그 후 1919년에 양조장을 증설했습니다. 이곳은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4년 주에쓰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시간을 들여 복구되었습니다.

본채로 통하는 장지문(미닫이 패널)에는 하세가와 가문의 가인(家印, 일본에서 집마다 자가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 도구류, 배, 창고 등에 붙이는 표식)이 큰 화지(일본 종이)를 오려 만든 종이 공예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는 ‘길 장(長)’이라는 한자를 변형해 장수와 행복을 상징하는 학 모양으로 디자인된 것입니다. 원래 주거지로 사용되었던 본채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세가와 주조의 상품 라인업을 전시하는 것 외에도 신도의 신을 모시는 신단과 오래된 대형 금고 등이 있습니다. 신단 중 하나에는 주조의

신을 모시는 마쓰노오 다이샤 신사의 부적도 모셔져 있습니다.

006-007

<日本語仮訳>

長谷川酒造

長谷川酒造は、摂田屋で 180 年以上続く家族経営の小さな酒蔵です。長谷川家はもともと米農家で、15 世紀から 16 世紀にかけての内乱から逃れ、信州（現在の長野県）から長岡に移り住みました。歴史的な記録によると、1842 年に長谷川重吉が神前に奉納する御神酒（おみき）の製造と、その余剰分を商業的に販売するために政府に許可を申請したことから蔵の歴史が始まります。長谷川家は代々、伝統的な醸造法を受け継ぎ、今日の摂田屋の象徴となる事業を確立しました。

特に注目すべきは、長谷川酒造が長岡で女性が経営する数少ない酒蔵のひとつであることです。日本では酒造りが「女人禁制」であった時代があり、現代においても女性が経営することは珍しいとされています。年に 2 回、蔵開きを開催し、来場者は日本酒の試飲や蔵見学、さまざまな商品を見て回ることができます。

長谷川酒造の酒の特徴

長谷川酒造は伝統的な手造りにこだわっており、蔵人（酒造り職人）たちは、醸造のすべての工程を入念に管理しています。同社は様々な価格帯の製品を幅広く製造しています。長谷川酒造は、酒を抽出する際に機械に頼るのではなく、もろみ（日本酒のもとになる原料を発酵させたもの）を布袋に吊りし、重力ろ過によってゆっくりと一滴ずつ酒を抽出する「雫しぼり」という技法を採用しています。それにより、香り高く、芳醇で贅沢な逸品が生まれます。

長谷川酒造は、長野県と先祖とのつながりに敬意を表し、長野県産の酒米と新潟県産の酒米と他の原料を組み合わせ、長岡で好まれるキリッとした淡麗辛口の日本酒をはじめ、様々な種類の日本酒を造っています。酒瓶のラベルは、地元のイラストレーターとコラボレーションして季節ごとに色とりどりのデザインを作成しています。

主屋（おもや）

主屋は 1886 年に建てられ、その後 1919 年に酒蔵を増設しました。こちらは国の登録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おり、2004 年の中部地震により被害を受けましたが、後に時間をかけて修復されました。

主屋に通じる障子（引き戸パネル）には、長谷川家の家印（日本において、家々で自家の所有を示すために、道具類・船・倉などにつける符号）が大きな和紙の切り絵として貼られています。これは、「長」という漢字を崩し、長寿と幸福を象徴する鶴の形にデザインされたものです。もともと住居として使われていた主屋は、現在事務所として使われております。長谷川酒造の商品ラインナップを展示するほか、神道の神を祀る神棚や年代物の大型金庫などがあります。神棚のひとつには酒造りの神を祀る松尾大社のお札も

祀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摂田屋・宮内地区：星野本店 三階蔵/建物の歴史や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호시노 혼텐의 발효 식품**

호시노 혼텐은 1846 년에 창업한 발효 식품 제조업체로 간장과 된장, 누룩을 사용한 조미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호시노 산고에몬으로 에도(현재의 도쿄)에서 된장 제조를 배운 후, 나가오카로 돌아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호시노 혼텐은 처음에 ‘야마호시산’이라는 상호로 알려졌으며, 브랜드 마크는 지금도 이 상호를 반영하여 ‘산(山, 야마)’, ‘성(星, 호시)’, ‘삼(三, 산)’을 상징하는 세 개의 기호를 세로로 배열한 심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11 년에 ‘호시노 혼텐’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전쟁과 지진 재해 등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가오카시와 그 주변의 고객들을 위해 고품질의 전통적인 기본 조미료를 계속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시노 혼텐의 발효 제품

호시노 혼텐의 사업은 된장과 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된장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특히 주력 생산하는 제품은 에치고 된장으로, 이는 누룩(특정 곰팡이가 배양된 쌀)과 대두를 섞어 만든 적된장입니다. 향이 풍부하고 깊이 있는 맛이 특징입니다. 호시노 혼텐에서는 두 종류의 간장을 생산하고 있으며, 진한 타입과 담백한 타입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조림 요리나 기름진 생선에는 진한 간장이 잘 어울리고, 맑은 장국이나 흰살생선에는 담백한 간장이 더 잘 맞습니다. 20 세기 중엽에는 소금과 다시마, 소량의 홍고추를 섞은 누룩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효 조미료는 채소를 단시간 절이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고기나 생선을 재울 때 사용하면 풍미를 더해줍니다.

호시노 혼텐의 장인들은 대대로 이어지며 연마된 기술을 활용하여 발효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힘입어 호시노 혼텐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농림수산대신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한 제품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3층 구조 창고

이 창고는 1882 년에 지어졌으며, 호시노 혼텐의 본채와 점포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형적인 2층 구조의 창고였지만, 더 많은 수납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다이쇼 시대(1912~1926 년)에 3층으로 증축했습니다. 바닥 면적이 약 60m²에 달하는 넓은 창고로 킹 포스트 트러스가 골조를 지탱하며, 기와로 덮인 전통적인 맞배지붕이 있습니다. 벽은 나무 골조, 밧줄, 혼합토를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9 겹의 견고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벽은 회반죽이 칠해져 있으며, 벽의 아래쪽 절반은 비막이 판자로 덮여 있습니다. 3층 구조 창고는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고는 2004 년 주에쓰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철거가 결정되었으나, 3층 규모의 창고라는 희귀성에 지역 학자들이 주목했습니다. 2008 년 복원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오래된 들보를 이용한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고 사다리 대신 계단을 설치했으며,

외벽에는 건축 구조를 보여주는 유리창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이 창고는 강연회와 미술전, 콘서트, 라쿠고(落語, 일본의 전통 화술 예능) 공연 등의 지역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006-008

<日本語仮訳>

星野本店の発酵食品

星野本店は、1846 年創業の発酵食品メーカーで、醤油や味噌、麴を使った調味料を製造しています。創業者は星野三五衛門で、江戸（現在の東京）で味噌づくりを学んだ後、長岡に戻り商売を始めました。星野本店は当初、「ヤマホシサン」という屋号で知られ、ブランドマークは今でもこの屋号を反映し、「山（ヤマ）」「星（ホシ）」「三（サン）」を縦に並べたシンボルで構成されています。1911 年に「星野本店」と改名しました。戦争や震災などさまざまな苦難に見舞われながらも、長岡市とその周辺の顧客に高品質で伝統的な基本調味料を作り続けています。

星野本店の発酵製品

星野本店の事業は味噌と醤油から始まりました。さまざまな味噌製品を生産していますが、特に得意とするのは越後味噌で、これは麴（特定のカビが培養された米）と大豆を練り合わせて作られる赤味噌です。香り高く深みのある味わいが特徴です。同店の醤油は二種類の醤油をバランスよく製造しており、濃厚タイプとあっさりタイプが選べます。煮物や脂ののった魚には濃厚な醤油、すまし汁や白身魚にはあっさりとした醤油が適しています。20 世紀中頃には、塩や昆布、少量の赤唐辛子を混ぜた麴も販売し始めました。この発酵調味料は、野菜の一夜漬けが簡単にでき、肉や魚のマリネードとして使用することで風味を加えます。

星野本店の職人たちは、代々受け継がれ磨き上げられた技術を駆使して、発酵過程を注意深く管理しています。その伝統に支えられ、同社は高い評価を受け、「農林水産大臣賞」を始めとした数々の賞を受賞した製品で知られています。

三階蔵

この蔵は 1882 年に建設され、星野本店の主屋と店舗の向かいに位置しています。当初は典型的な二階建ての蔵でしたが、より多くの収納スペースが必要になり、大正時代（1912-1926 年）に三階が増設されました。床面積は約 60 平方メートルの大きな蔵で、キングポストラスが骨組みを支え、瓦葺きの伝統的な切妻屋根があります。壁は、木枠、縄、混合土を何層にも重ねた 9 層の堅牢な構造で作られています。最も外側の壁は漆喰が塗装されており、その下半分は下見板で覆われています。三階蔵は国の登録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蔵は 2004 年の中越地震で被害を受け、取り壊されることが決まっていたが、3 階建ての蔵の珍しさに地元の学者たちが注目しました。2008 年に修復工事が行われ、古い梁を利用したテーブルや椅子を作り、梯子の代わりに階段、外壁には建築構造を見せるガラス窓が設置されました。現在、この蔵は講演会や美術展、コンサート、落語（日本の伝統話芸）会などの地域イベントの会場として活用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摂田屋・宮内地区：越のむらさき 主屋・土蔵/建物の歴史や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시노무라사키 간장 양조장

고시노무라사키 간장 양조장은 1831년에 셋타야 지구에서 창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된장과 간장을 모두 생산했지만, 현재는 전통적인 간장 제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교역로로 이용되던 옛 미쿠니 가도를 따라 입지해 있어 물류업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길가에 한때 길잡이로 사용되었던 작은 지장보살상이 고시노무라사키의 본채 옆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장보살상의 기단에는 ‘오른쪽은 에도, 왼쪽은 산길’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이 뚜렷이 보이며, ‘길잡이 지장보살’이라 불리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장보살 맞은편에는 장사 번성을 기원하는 작은 이나리 신사가 있습니다. 특유한 창고 벽은 간장 제조 과정에서 누룩곰팡이 때문에 검게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 누룩 특유의 깊고 풍부한 향이 느껴집니다.

고시노무라사키 간장

일본 간장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조미료지만, 지역마다 맛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시노무라사키의 이름을 내건 간장은 니가타현에서 선호되는 가다랑어 육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양조장에서는 그 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전통 간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시노무라사키의 조리개 주머니(기프트백)는 전통적으로 술병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천 가방인 ‘진키치 주머니’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 주머니에는 양조장 밖에 모셔져 있는 지장상을 유쾌하게 표현한 양조장의 마스코트 캐릭터 ‘고시노지조’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채와 흰 벽 창고

대목수들이 남긴 상량판에 따르면 ‘고시노무라사키’의 본채는 1877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무거운 눈이 내리는 나가오카의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두꺼운 버팀목이 사용되었습니다. 2004년 주에쓰 지진 때는 지붕의 기와가 무너져 내려 한때 간장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이 구조 덕분에 건물은 최소한의 피해로 끝났습니다. 이 건물에는 매장과 사무실, 회의 공간, 그리고 주요 간장 제조 구역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편, 흰 회반죽과 판자로 마감된 외장을 가진 2층 구조의 흙벽 창고는 남쪽에 있는 본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커다란 벽돌 굴뚝이 서 있고, 굵은 하얀 글씨로 양조장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본채와 창고는 모두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굴뚝은 양조장의 가장 특징적인 설비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된장과 간장 제조에 사용되던 석탄 화로에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굴뚝이 건물에 추가로 설치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933년 이전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에쓰 지진으로 굴뚝은 손상되었지만, 메이지 시대(1868~1912년)부터 남아 있는 귀중한 마지막 굴뚝으로 보존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마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日本語仮訳＞

越のむらさき醤油醸造所

越のむらさき醤油醸造所は 1831 年に摂田屋地区で創業されました。かつては味噌と醤油の両方を製造していましたが、現在は伝統的な醤油製造に特化しています。交易路として利用されていた旧三国街道沿いに立地し、物流に理想的な場所でした。道沿いに、かつて道しるべとして使われていた小さな地藏菩薩の像が、越のむらさきの主屋の横に鎮座しています。地藏菩薩の土台には「右は江戸、左は山道」と刻まれているのがはっきりと見えます、「道しるべ地藏」と呼ばれ親しまれています。地藏菩薩の向かいには商売繁盛を祈願する小さな稲荷神社があります。特徴的な蔵の壁は、醤油の製造工程で麴を作るための麴菌により黒ずんでいて、麴が独特の豊かな香りを漂わせています。

越のむらさき醤油

日本の醤油は今や世界中で人気の調味料ですが、地域ごとに風味や特徴にさまざまな違いがあることを多くの人は知りません。越のむらさきの名を冠した醤油は、新潟県で好まれる鰯だしを含んでいますが、この醸造所では他にも様々な種類の伝統的な醤油を製造しています。越のむらさきの巾着袋（ギフトバッグ）は、伝統的に酒瓶を運ぶために使われていた布製の袋である「甚吉袋」をモデルにしています。この袋には、醸造所の外に祀られている地藏像を遊び心たっぷりに表現した、醸造所のマスコットキャラクター「越の地藏」の姿が描かれています。

主屋と白壁の蔵

大工たちが残した棟札によると、「越のむらさき」の主屋は 1877 年に建設されました。重い雪が降る長岡の冬に耐えられるよう、厚みのある支柱が取り入れられています。2004 年の中越地震では、屋根の瓦が崩れ落ち、一時的に醤油の生産を中断しましたが、この構造のおかげで建物は最小限の被害で済みまし。この建物には、売店や事務所、会議スペース、そして主要な醤油製造のエリアが備わっています。一方、白い漆喰と板張りの外装を持つ二階建ての土蔵は、南側にある主屋と連結しています。隣には大きなレンガ造りの煙突が立ち、醸造所の名前が太い白文字で掲げられています。主屋と蔵はどちらも、国の登録有形文化財に登録されています。

煙突は、醸造所の最も特徴的な設備のひとつです。もともとは味噌や醤油の製造に使われていた石炭の炉から、煙を排出するためのものでした。煙突が建物に付け加えられた正確な時期は不明ですが、1933 年以前に完成し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中越地震で煙突は損壊しましたが、明治時代（1868–1912 年）から残る貴重な最後の煙突として残すこととなり、今でも町のシンボルになっています。

【タイトル】 摂田屋・宮内地区：旧川上邸（江口だんご）/建物の歴史や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

구 가와카미 가문 주택(에구치 단고 셋타야점)

구 가와카미 가문 주택은 셋타야 지구의 귀중한 역사를 전하는 건물로서, 2022 년에 나가오카를 거점으로 하는 인기 과자점 ‘에구치 단고’의 매장으로 새 단장되었습니다. 가와카미 가문은 셋타야 지구에서 1831 년부터 간장 양조를 해온 고시노무라사키의 창업자 가문입니다.

원래 이 저택은 고시노무라사키 간장 양조장과 같은 부지 내에 1916 년에 지어졌습니다. 2004 년 주에쓰 지진으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당시의 건축 자재를 사용해 일부를 재건하였습니다. 옛 저택은 손님이나 직장 동료를 접대하기 위한 주택에 걸맞게, 수수하면서도 기품과 고급스러움을 어우러진 디자인과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건축에는 고가의 느티나무 목재가 사용되었으며, 실내에는 가래산스이(枯山水, 전통적인 일본 정원 중 하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 정원만으로 설계됨) 정원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매장 내 카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응접실에는 엄선된 미술품을 장식하기 위한 큰 도코노마(일본식 방 한쪽에 마련된 마루 부분. 현재는 주로 꽃이나 족자 등을 장식하는 공간으로 이용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에구치 단고 셋타야점으로 새단장하면서 옛 저택의 다다미를 단단한 나무 바닥재로 교체하고, 도코노마에 고마(작은 방)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정원을 바라보는 좌석과 제과용 주방도 정비되며, 일련의 개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옷장과 책상, 조명 기구, 커다란 반죽 그릇 등 과거 저택에 있던 다양한 가구와 장식품들이 현재는 매장 내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느티나무 목재 복도와 조각이 새겨진 란마(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 중 하나. 천장과 상인방<맹장지 등을 넣는 틀> 사이에 만들어진 개구부를 말하며, 바람이나 빛이 통과하도록 설치된 것) 등 원래 저택의 건축적 특징들도 다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맞배지붕이 없던 입구 상단부에는 ‘가와카미(川上)’라는 글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 장식이 있고, 마차나 인력거 승하차에 편리한 원형 포석 등이 남아 있어 외관에서도 옛 저택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구치 단고 셋타야점

주식회사 에구치 단고는 역사가 있는 가와카미 저택을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활기찬 장소로 만들기 위해 셋타야점을 열었습니다. 전통적인 것부터 독창적인 것까지 다양한 과자를 판매하고 있으며, 명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사사단고입니다(찌넨 쑥 경단에 달콤한 팔소가 들어 있으며, 대나무 잎에 싸여 있습니다).

셋타야점은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발효, 양조 재료 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 명물인 일본술, 사프란주, 간장, 된장, 술지게미를 사용한 과자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미타라시 단고(달콤한 간장 양념이 발린 꼬치 형태의 쌀가루 경단), 만주(속에 팔소가 가득 들어 있는 목직하고 달콤한 빵), 도라야키(2 장의 폭신한 팬케이크 사이에 달콤한 팔소를 넣은 과자) 등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갓 만든 경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카페 코너에서는 일반적인 메뉴 외에도 술지게미를 비료로 사용해 키운 차,

채소 누룩 절임, 아이스크림, 계절 디저트 등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카페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라스트 오더 오후 5시)

시연 판매: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휴업일: 화요일

006-010

<日本語仮訳>

旧川上家住宅（江口だんご摂田屋店）

旧川上家住宅は、摂田屋地区の貴重な歴史を伝える建物として、2022年に長岡を拠点とする人気菓子店「江口だんご」の店舗に改装されました。川上家は、摂田屋地区で1831年から醤油醸造を営む越のむらさきの創業家です。

もともとこの邸宅は、越のむらさき醤油醸造所と同じ敷地内に1916年に建てられました。2004年の中部地震により損傷を受けましたが、当時の建材を用いて一部を再建しています。旧邸宅は、客人や仕事仲間をもてなすための住宅にふさわしく、控えめながらも気品と豪華さを兼ね備えたデザインと構造でした。建築には高価なケヤキ材が使われ、室内は枯山水（伝統的な日本庭園の一つ。水を使用せず、石と砂庭だけで設計された庭のこと）の庭園に面していました。現在、店の喫茶スペースとなっている応接室には、厳選された美術品を飾るための大きな床の間（和室の一角に設けられた床の部分。現在は主に、花や掛け軸などを飾るスペースとして利用する）が設けられていました。

江口だんご摂田屋店への改装にあたり、旧邸宅の畳を堅木の床材に張り替え、床の間に小間（小さな部屋のこと）を設置しました。また、庭園を望む客席や製菓用の厨房も整備され、一連の改修が行われました。箆笥や机、照明器具、大きなこね鉢など、かつて邸宅にあったさまざまな調度品が、現在店内の随所に活用されています。また、ケヤキ材の廊下や彫刻が施された欄間（日本の伝統的な建築様式の1つ。天井と鴨居<ふすまなどを入れる枠のこと>との間に作られた開口部を指し、風や光を通すために設けられたもの）など、もとの邸宅の建築的特徴も数多く残されています。切妻の入り口上部には「川上」という文字の木彫りの装飾や、馬車や人力車の乗降に便利な円形の石畳など、外観にも旧邸宅の面影が見て取れます。

江口だんご摂田屋店

株式会社江口だんごは、歴史ある川上邸を市民や観光客で賑わう場所にしようと、摂田屋店を開店しました。伝統的なものから独創的なものまで、さまざまな菓子を販売していますが、名物は地元で親しまれている笹団子です（蒸したヨモギの団子に甘い小豆の餡が詰まっていて、竹の葉で包まれています）。

摂田屋店は、地元企業が生産する発酵・醸造素材の活用に力を入れています。この地区の名物である日本酒、サフラン酒、醤油、味噌、酒粕を使った菓子も取り揃えており、みたらし団子（甘い醤油だれに浸

した串刺しの米粉団子）、まんじゅう（中にあんこが詰まった、ずっしりとした甘いパン）、どら焼き（2枚のふんわりとしたパンケーキで甘いあんこを挟んだお菓子）などがあります。実演販売もしているため、出来立ての団子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カフェエリアでは、通常メニューの他、酒粕を肥料にして育てたお茶や、野菜の麴漬け、アイスクリーム、季節のスイーツなどを注文できます。

営業時間：午前 9 時 30 分～午後 6 時

カフェ営業時間：午前 10 時～午後 6 時（ラストオーダーは午後 5 時）

実演販売：午前 10 時～午後 4 時 30 分

休業日：火曜日

【タイトル】 摂田屋・宮内地区：宮内駅と宮内商店街/宮内地区について、雪国の生活について
(雁木通り、消雪パイプ等)

【想定媒体】 WEB

<韓国語>

미야우치역과 미야우치 상점가

나가오카시의 역사적인 셋타야 지구는 JR 조에쓰선과 JR 신에쓰 본선의 미야우치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970 년대에 자동차 문화가 확산되기 이전, 이 역은 많은 쇼핑객과 직장인, 노동자 외에도 미야우치와 셋타야에 남아 있는 일본술, 간장, 된장의 전통 양조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활기찬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미야우치역 인근에 위치한 옛 미쿠니 가도의 한 모퉁이에는 미야우치 상점가라고 불리는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는 20 세기 초 전성기 때는 영화관과 대중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는 셋타야의 사업가인 이마이 요사부로(今井与三郎)가 발명하여 1961 년에 나가오카시에 처음으로 설치된 제설용 배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제설용 배관에서는 따뜻한 지하수가 나와 도로의 눈을 녹입니다.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며 미야우치 상점가에 늘어선 점포의 수는 점차 감소했지만, 지금도 몇몇 노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점가에는 이발소와 의류점, 쌀집, 약국, 철물점, 그리고 몇 곳의 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미야우치역 근처의 아오시마 식당은 나가오카 명물인 생강 간장 라멘의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리를 따라 있는 건물 대부분은 기둥을 받친 차양이 설치되어 있어, 겨울철 폭설에도 보행자들이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붕이 있는 좁은 길은 전통적인 거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시는 현재, 시민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매력을 소개하는 사업과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宮内駅と宮内商店街

長岡市の歴史的な摂田屋地区は、JR 上越線と JR 信越本線の宮内駅から簡単にアクセスできます。1970 年代に車文化が台頭する以前、この駅は多くの買い物客やビジネスマン、労働者のほか、宮内や、摂田屋に残る日本酒・醤油・味噌の老舗蔵元を訪れる観光客で賑わう、活気ある経済の中心地でした。

宮内駅前の近くに位置する旧三国街道の一角には、宮内商店街と呼ばれる商店が立ち並ぶ通りがあります。その通りには、20 世紀初頭の最盛期には映画館や銭湯もありました。この通りには、摂田屋の実業家である今井与三郎が発明して 1961 年に長岡市に初めて設置された、消雪パイプが埋め込まれています。この消雪パイプからは暖かい地下水が放出され、道路の雪を溶かします。

自動車利用が普及するにつれ、宮内商店街に並ぶ店舗の数は徐々に減少しましたが、今もいくつかの老舗が残っています。現在の商店街には、理髪店や衣料品店、米穀店、薬局、金物店、そして数軒の飲食店などがあります。宮内駅近くの青島食堂は、長岡名物の生姜醤油ラーメンの発祥店と言われています。

通り沿いの建物の多くは、柱で支えられたひさしが張り出しており、冬の大雪でも歩行者が快適に買い物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こうした屋根のある小道は、伝統的な町並みの雰囲気醸し出しています。市は現在、市民と協力してこの地域の魅力を紹介する事業やイベントを支援しています。

【タイトル】 摂田屋・宮内地区：日本酒・味噌・醤油・サフラン酒について/発酵のプロセスなどの製造方法や製品についての解説

【想定媒体】 WEB

<韓国語>

셋타야 지구: 나가오카의 양조업과 발효 산업의 역사적 중심지

셋타야 지구는 천혜의 기후와 양질의 원료를 얻을 수 있어 예로부터 일본술과 발효 식품의 제조로 유명했습니다. 셋타야는 나가오카 사람들의 끈기와 복구에 대한 노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제 2 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견뎌냈고, 더욱이 2004 년에 발생한 주에쓰 지진에 의한 피해도 극복해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년 된 양조장이 대대로 계승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조상들이 사용하던 같은 건물에서 제조 과정을 계속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6 세기에 셋타야의 양조업이 시작된 이후, ‘양조의 마을’이라는 평판은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는 일본술, 된장, 사프란주, 간장 등의 전통적인 상품과 누룩을 사용한 마리네, 크래프트 맥주 등의 새로운 상품도 셋타야 지구 내 각 상점에서 제조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사용한 다양한 요리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특권

셋타야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에도(현재의 도쿄)를 통치했던 도쿠가와 가문의 보다이시 절(菩提寺, 보리사. 대대로 조상들을 모신 묘가 있으며, 돌아가신 가족의 장례와 법요를 맡기고 있는 절)인 우에노 간에이지 절(上野 寛永寺)의 영지로 지정되었던 역사에 있습니다. 우에노 간에이지 절의 영지였던 셋타야 지구는 상업 발전을 위해 과세와 규제가 완화되었고, 영업 허가 취득도 쉬워졌습니다. 많은 농가는 가정용 발효 식품과 간단한 주류를 소량으로 만들었지만, 이 지역의 특별한 경제적 지위 덕분에 일부 사람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 판매에 대한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인으로서 부를 쌓거나 농업에서 다른 생업으로 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셋타야는 오타가와 강(太田川, 시나노가와 강(信濃川) 수계의 일부)과 미쿠니 가도(나가오카와 에도의 막부 중심부로 통하는 간선 도로를 연결하는 교역로)를 통해 주요 도시와의 교통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수상 수송과 육상 수송의 조합 덕분에 세금 물자의 막부 수송이 간소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셋타야의 기업들이 지역과 먼 시장으로 제품을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국’ 나가오카의 축복받은 환경

셋타야가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고는 있었지만, 발효와 양조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의 풍요로운 입지 조건 덕분이었습니다.

나가오카는 혼슈 북서부의 바다와 에치고 산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겨울에는 많은 눈이 쌓이기 때문에, 양조장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계절에는 이러한 환경이 단열과 공기 중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많은 눈은 낮과 밤의 큰 기온 변화를 막아

누룩(특정 곰팡이가 번식한 쌀)과 발효 식품 제조 시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원료인 물과 쌀의 품질이 높은 것도 주조와 된장 등의 발효 식품 제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에치고 산맥의 눈 녹은 물은 지하로 스며들어 미네랄 함량이 적은 연수로 솟아납니다. 이 물은 특히 일본술 제조할 때, 가벼우면서도 섬세한 맛을 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눈이 녹아 생긴 풍부한 물과 온화한 여름 기후가 풍성한 곡물 수확을 가져다줍니다. 니가타현에서 생산된 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식품뿐만 아니라 일본술, 된장, 간장의 제조 원료로서도 높은 품질과 맛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물과 쌀, 그리고 천혜의 기후 조건이 어우러져 셋타야 지구는, 그리고 나가오카 전체로서도 양조와 발효 식품의 생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가오카시에는 15 곳의 사케 양조장이 있으며, 이는 일본 전역에서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발효 식품의 건강 효과

발효 제품은 예로부터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로서 사랑받아 왔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우메보시(절인 매실)와 된장, 쓰케모노(채소 절임), 닛토(발효시킨 대두), 간장, 가쓰오부시(건조, 발효, 훈제시킨 가다랑어) 등이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된장과 간장은 매일의 식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미료입니다. 발효 식품이 그 독특한 풍미와 건강 증진 효과로 인식되면서 최근 된장과 간장도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된장은 고단백으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의 건강 증진과 뇌 기능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간장에는 항산화 물질과 소화를 돕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셋타야의 양조장과 발효 식품 생산자

현재, 셋타야에는 5 곳의 전통 양조장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한 양조장도 1 곳 있지만 건물은 원래 모습으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양조장마다 풍부한 역사와 귀중한 문화재, 주목할 만한 건축물, 인기 있는 발효 제품이 있습니다.

셋타야는 도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은 쇼핑이나 학습, 시식을 즐길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장소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

명물: 사프란주, 지역의 발효 및 양조 제품

영업시간: 오전 9 시~오후 5 시

정기휴일: 화요일, 연말연시(12/9~1/3)

※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영업, 다음 날 휴무

견학: 방문객은 정원과 고테에 창고를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으며, 옛 쌀 창고에 있는 갤러리, 상점, 관광 안내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관과 기타 건물은 토, 일, 공휴일 오전 9 시 30 분부터 오후 3 시 30 분까지 견학할 수 있습니다. 견학은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일본어 이외의 언어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시노가와 사케 뮤지엄 ‘조구라(醸蔵)’

명물: 일본술, 크래프트 맥주

개관시간: 오전 9 시 30 분~오후 4 시 30 분(시음바 라스트 오더는 오후 4 시)

휴관일: 화요일, 연말연시

※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수요일에 휴관

※ 입장료 무료, 예약 필요 없음(단, 10명 이상 방문 시에는 예약 필요)

호시노 혼텐(星野本店)

명물: 간장, 된장, 누룩 베이스의 마리네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정기휴일: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은 부정기 휴무

하세가와 주조(長谷川酒造)

명물: 일본술

영업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정기휴일: 일요일, 공휴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고시노무라사키(越のむらさき)

명물: 간장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정기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미소 호시로쿠(味噌 星六)

명물: 된장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7시

정기휴일: 일요일

006-012

<日本語仮訳>

摂田屋地区：長岡の醸造業と発酵産業の歴史的な中心地

摂田屋地区は、恵まれた気候と良質な原料が手に入ることもあって、古くから日本酒と発酵食品の製造で知られてきました。摂田屋は、長岡の人々の粘り強さと復興への努力を象徴する存在で、第二次世界大戦の戦火を免れ、さらに2004年の中部地震による被害からも回復を果たしました。その結果、何百年も続く醸造所が代々受け継がれてきた技術を用いて、先祖が使っていた同じ建物で、製造工程を守り続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

16世紀に摂田屋の醸造業がはじまって以降、「醸造の町」としての評判は時代とともに発展・進化してきました。現在では、日本酒、味噌、サフラン酒、醤油などの伝統的なものや、麴を使ったマリネやクラフトビールなどの新たな商品も摂田屋地区の各店舗で製造・販売されています。また、地元のレストランやカフェでは、こうした商品を使ったさまざまな料理やスイーツも楽しめます。

経済的特権

摂田屋が経済的に成功した重要な要因の一つは、江戸（現在の東京）を統治していた徳川家の菩提寺（先祖代々のお墓があり、亡くなった家族の葬儀や法要を任せている寺のこと）である上野 寛永寺の御領地に指定された歴史にあります。上野 寛永寺の領地であった摂田屋地区は商売発展のため、課

税や規制が緩和され、営業許可の取得も簡単になりました。多くの農家は、自家用に発酵食品や簡易な酒類を少量作っていましたが、この地域の特別な経済的地位により、一部の人々は商業目的での製造販売の正式許可を得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により、商人として財を成したり、農業から別の生業へと転身する機会が生まれました。

摂田屋は、太田川（信濃川水系の一部）や三国街道（長岡と江戸の幕府中心部へと通じる幹線道路を結ぶ交易路）によって、主要都市との交通の便に恵まれていました。水上輸送と陸上輸送の組み合わせにより、税物資の幕府への輸送を簡素化するだけでなく、摂田屋の企業が地元や遠方の市場へ製品をスムーズに輸送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雪国」長岡の恵まれた環境

摂田屋が経済的な特権を与えられてはいたものの、発酵や醸造の中心地として発展できたのは、その土地の恵まれた立地条件があつてこそでした。

長岡は本州北西部の海と越後山脈に囲まれています。冬は多くの積雪があるため、醸造所の作業が行われる季節には、こうした環境が断熱や空気中の不純物を取り除く働きをしてくれるのです。また、多くの雪は昼夜の気温の大きな変動を抑え、麴（特定のカビが繁殖した米）や発酵食品を作る際の温度も一定に保つのに役立ちます。

主要原料である水や米の質が高いことも、酒造りや味噌などの発酵食品において最も重要な要素の一つです。越後山脈の雪解け水は地下に浸透し、ミネラル分の少ない軟水として湧き出します。この水は、特に日本酒の醸造において、軽やかで繊細な味わいを生み出すのに役立っています。加えて、豊富な雪解け水と穏やかな夏の気候が、穀物の実り豊かな収穫をもたらします。新潟県産の米は何世代にもわたり、食品として、また酒、味噌、醤油の製造原料としても高品質で美味しいと称賛されてきました。

高品質の水と米、そして恵まれた気候条件が相まって、摂田屋地区は一そして長岡全体としても一醸造や発酵食品の生産に理想的な場所となっています。現在、長岡市には 15 の酒蔵があり、これは全国有数の規模です。

発酵食品の健康効果

発酵製品は、古くから日本の伝統的な食文化として親しまれており、代表的なものに梅干し（漬けた梅）や味噌、漬物（野菜を漬けたもの）、納豆（発酵させた大豆）、醤油、かつお節（乾燥・発酵・燻製させたカツオ）などがあります。

地域の名産である味噌と醤油は、日々の食事でよく使われる調味料です。発酵食品がその独特な風味と健康促進効果で認知されるにつれ、近年、味噌と醤油も海外で人気が高まっています。味噌は高タンパクで抗酸化作用のある成分を豊富に含み、ビタミンやミネラルも多く含まれます。また、消化器官の健康促進や脳機能の活性化とも関わりがあります。一方、醤油には抗酸化物質や、消化を助ける有益なプロバイ

オティクスが含まれています。

摂田屋の醸造所と発酵食品生産者

現在、摂田屋には5つの伝統的な醸造所があります。さらに、移転した醸造所も1つありますが、建物はそのままの姿で今も保存されています。醸造所それぞれに豊かな歴史や貴重な文化財、注目すべき建築物、人気の発酵製品があります。

摂田屋は徒歩で簡単に移動することができ、観光客は、買い物や学び、試食を楽しめる以下のスポットを巡ることができます。

旧機那サフラン酒製造本舗

名物：サフラン酒、地元の発酵・醸造製品

営業時間：午前9時～午後5時

定休日：火曜日、年末年始（12/29-1/3）

※火曜が祝日の場合は営業、翌日休業

見学：訪問者は庭園と鰻絵蔵を自由に散策できるほか、旧米蔵にあるギャラリー、ショップ、観光案内所もご利用いただけます。別館とその他の建物は、土日祝日の午前9時30分から午後3時30分まで見学できます。見学は日本語で行われます。日本語以外のサポートを希望される場合は、事前にご相談ください。

吉乃川 酒ミュージアム「醸蔵」

名物：日本酒、クラフトビール

開館時間：午前9時30分～午後4時30分（試飲バーのラストオーダーは午後4時）

休館日：火曜日、年末年始

※火曜が祝日の場合は翌水曜が休業

※入館料無料、予約不要（ただし10名以上で来館の際は要予約）

星野本店

名物：醤油、味噌、麴ベースのマリネ

営業時間：午前9時～午後5時

定休日：日曜日、祝日、土曜日は不定休

長谷川酒造

名物：日本酒

営業時間：午前8時30分～午後5時

定休日：日曜日、祝日、毎月第2・第4土曜日

越のむらさき

名物：醤油

営業時間：午前 9 時～午後 5 時

定休日：土曜日、日曜日、祝日

味噌 星六

名物：味噌

営業時間：午前 9 時～午後 7 時

定休日：日曜日

【タイトル】 照明寺/密蔵院、観音堂、本堂、天井絵、石造など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쇼묘지 절(照明寺)

바다를 내려다보는 이 절은 시인과 서예가로서 유명한 독특한 승려 료칸(良寛, 1758~1831 년)과 인연이 깊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절의 보물에는 진언종의 창시자 구카이(空海, 774~835 년)의 작품으로 알려진 성관음자재보살상과 천장에는 용과 계절의 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6 월 16 일~17 일에 이 절에서 열리는 관음강(관음 설교)은, 지역 주민들이 식사를 하고 축하하며 참배하기 위해 모이는 200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 행사입니다.

역사

쇼묘지 절의 기원은 와카야마현 고야산(高野山)에 안치되어 있던 자비의 보살인 성관음의 작은 불상에서 시작됩니다. 그 불상은 804 년에 구카이가 직접 주조했다고 전해집니다.

1049 년, 승려 에이슈(榮秀)는 꿈에서 받은 계시에 이끌려, 그 관음상을 가지고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일본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데라도마리(寺泊)에 도착했을 때 관음상이 갑자기 무거워졌고, 에이슈는 또 다른 꿈에서 본 관음의 계시에 따라 그곳에 암자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세월이 걸쳐 미나모토노 요시쓰네(1159~1189 년)와 우에스기 겐신(1530~1578 년) 등의 이름난 무장들이 전승 기원을 위해 쇼묘지 절을 찾았고 합니다. 1695 년에는 5 대 도쿠가와 쇼군의 친척 여성이 쇼묘지 절에서 기도를 올린 결과, 눈의 병이 치유되었고, 도쿠가와 막부는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관음당의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는 쇼묘지 절의 경내에 6 개의 탑두 사원(선종 사원에서, 조사나 문도 고승의 사후에 제자가 스승의 덕을 기리며, 큰 절이나 유명한 절 가까이에 지은 탑이나 암자 등의 작은 사원)이 있었으나 1758 년과 1841 년의 화재로 소실되었고, 미쓰조인(密蔵院)만 재건되었습니다.

관음당

본당에는 진언종의 창시자 구카이가 1,000 여 년 전에 주조한 것으로 알려진 성관음상이 본존(本尊)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성관음상은 50 년에 한 번만 공개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후세에 만들어진 성관음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격자 천장에는 중심에 용의 목화가 있고, 그 주위에는 오목하게 들어간 네모난 부분에 200 점이 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대부분은 계절의 꽃들이 그려져 있지만, 불신, 용, 찬불가(사원과 영지를 순례할 때 신자가 부르는 노래), 법륜(바퀴 모양의 불교 상징, 석가의 가르침이 퍼져 나가는 모습을 비유함) 등의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본존을 안치해 둔 내진(内陣)의 좌우에 풍신과 뇌신이 배치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나한(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고승)인 빈두로(賓頭盧, 석가의 제자 중 한 명)상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보통 빈두로상을 자신으로 여기며 아프거나 병든 부분을 빈두로상으로 문지르며, 쇼묘지 절에서는 소원을 빌며 동상 전체를 살짝 들어올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불당은 화재 후 1930 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외부의 목조 조각에는 봉황, 사자, 용

등의 생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쓰조인(密藏院)

시승 료칸(良寛, 1758~1831)은 절의 주지가 된 적이 없으며, 친구와 시주에 의지하며 방랑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료칸의 누이가 데라도마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료칸은 45 세, 70 세, 그리고 72 세에 3 번에 걸쳐 쇼묘지 절의 미쓰조인에 머물렀습니다.

료칸이 절의 과거장에 남긴 와카 ‘히메모스(온종일)’는 승려로서의 활동을 읊은 것입니다.

【와카의 현대어 번역】

주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처의 길을 섬기는 몸이로다.

오늘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경을 읽고 불사를 행하여, 이미 떠난 이의 명복을 빌고자 하노라.

또한, 료칸이 데라도마리를 떠나기 전에 지은 와카(和歌) ‘에니시 아라바(연이 있거든)’는 임시 거처에 대한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와카의 현대어 번역】

무슨 인연이 있다면, 다시 이곳에 찾아와 머물러 살아가리라.

이 귀한 절 앞에 우거진 숲, 그 아래에 지어진 암자를 부디 훼손하지 마시기를.

료칸이 살았던 원래의 탑두는 1841 년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1958 년에 다도의 한 유파에 의해 미쓰조인이 다실풍 암자로 재건되었습니다. 암자 안에는 료칸이 머무를 당시 숭배했다고 전해지는 무한한 빛과 생명을 지닌 부처인 아미타여래와 협시인 두 개의 보살상이 있습니다. 밖에는 늙은 료칸의 조각상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발우를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경내

절 계단의 왼쪽에는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고소다테 지조(육아 지장보살)를 모신 작은 불당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부동명왕상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 옆에 있는 히샤쿠(물뜨개)와 조즈바치(물그릇)를 사용해 부동명왕에게 물을 3 번 끼얹은 후, 치유받고 싶은 부위를 만집니다. 경내에는 료칸이 머무는 동안 지은 와카가 새겨진 비석 5 개가 곳곳에 있습니다. 10 월과 11 월에는 털머위가 선명한 노란 꽃을 피워내며 풍경에 색채를 더해 줍니다.

006-013

<日本語仮訳>

照明寺

海を見下ろすこの寺は、詩人や書家としての才能で名高い風変わりな僧、良寛（1758-1831 年）にゆかりのある場所としてよく知られています。寺の宝物には、真言宗の開祖である空海（774-835 年）作とされる聖観音自在菩薩像や、龍や季節の花を描いた天井画などがあります。6 月 16 日～17 日にこの寺で開催される観音講（観音説教）は、地域住民が食事をし、祝賀し、参拝をするために集まる 200 年以上の歴史がある伝統行事です。

歴史

照明寺の起源は、和歌山県の高野山に安置されていた慈悲の菩薩、聖観音の小さな像から始まります。その像は 804 年に空海自身が鑄造し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

1049 年、僧侶の栄秀は夢のお告げに導かれ、その観音像を持って仏教の教えを広めるために全国を巡りました。伝説によると、寺泊に着くとその像は突然重くなり、栄秀はまた別の夢で見た観音のお告げに従い、そこに庵を建てたとされています。

長年にわたり、源義経（1159-1189 年）や上杉謙信（1530-1578 年）などの名だたる武将が、戦勝祈願のために照明寺を訪れ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1695 年には、五代目徳川将軍の親戚の女性が照明寺で祈禱を行った結果、目の病気が治り、徳川幕府は感謝の意を表して新たな観音堂の建立を支援しました。

最盛期には照明寺の境内に 6 つの塔頭寺院（禅宗寺院で、祖師や門徒高僧の死後に弟子が師の徳を慕い、大寺・名刹に寄り添って建てた塔や庵などの小院）がありましたが、1758 年や 1841 年の火災で消失し、密蔵院のみが再建されました。

観音堂

本堂には、真言宗の開祖である空海が 1000 年以上前に鑄造したとされる聖観音像を本尊として安置しています。聖観音像は 50 年に一度しか公開されないため、通常は後世に作られた聖観音像が展示されています。

格天井には、中心に龍の墨絵があり、その周りには四角い窪みに 200 枚を超える絵画が描かれています。絵画のほとんどは季節の花が描かれていますが、仏神、龍、御詠歌（寺院や霊場を巡礼する際、信者が唱える歌のこと）、法輪（車輪の形をした仏教のシンボルマーク。釈迦の教えが広まる様子を例えている）などの絵も描かれています。風神と雷神が内陣の左右に配置され、右手には羅漢（最高の悟りを得た高僧）である賓頭盧（びんずる・釈迦の弟子のひとり）の像があります。信者は通常、賓頭盧像を自分に見立て、痛みや病気のある部分を賓頭盧像でさすりますが、照明寺では願いを込めて像全体をそっと持ち上げる習慣があります。重く感じると願いが叶うと言われています。

このお堂は火災後、1930 年に再建されました。外側の木彫には鳳凰、獅子、龍などの生き物が描かれています。

密蔵院

詩僧の良寛（1758-1831）は寺の住職になったことはなく、友人や施しに頼りながら放浪の日々を送りました。良寛の妹が寺泊に住んでいたため、良寛は 45 歳、70 歳、そして 72 歳の 3 度にわたって照明寺の密蔵院に滞在しました。

良寛が寺の過去帳に残した和歌「ひめもす」は、僧侶としての活動を詠んだものです。

【和歌の現代語訳】

昼夜を問わず、仏の道に携わっている身である。

今日もこの世の人々のために、読経など仏事を行って、亡き人の冥福を祈ることにしよう。

また、良寛が寺泊を去る前に詠んだ和歌「縁あらば」は、仮住まいへの思いを綴ったものです。

【和歌の現代語訳】

何かの縁があったなら、またやって来て住むことにしよう。

この尊いお堂の前に茂る森の、その下に建つ庵を、どうかひどく荒らさないでくれ。

良寛が暮らしていた元の塔頭は 1841 年の火災で消失しましたが、1958 年に茶道の一派により、密蔵院が茶室風の庵として再建されました。庵内には、良寛が滞在中に信仰していたとされる無限の光と命を持つ仏である阿弥陀如来とその脇侍である二体の菩薩像があります。外には年老いた良寛の像が、柔らかな笑顔を浮かべ、托鉢の鉢を手にして立っています。

境内

寺の階段の左手には、子どもの健康を祈願する子育て地蔵の小さなお堂があります。右手には不動明王像があります。信者はその横にある柄杓と手水鉢を使って不動明王に水を 3 回かけ、癒してほしいところを撫でます。境内には良寛が滞在中に詠んだ和歌を刻んだ 5 つの碑が点在しています。10 月と 11 月には、ツワブキが鮮やかな黄色の花を咲かせ、風景に彩りを添えます。

【タイトル】 白山媛神社/社殿、天井絵、十二神社など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시라야마히메 신사(白山媛神社)

시라야마히메 신사는 해상 안전, 국가 안녕, 지역 번영을 관장하는 여신인 이자나미노미코토(伊弉册尊)와 구쿠리히메노미코토(菊理媛命)를 모시고 있습니다. 정확한 창건 시기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곳은 적어도 수백 년 동안 마을과 바다를 내려다보는 현재의 높은 지대에 자리해 왔습니다. 매년 5월 3일과 4일에 열리는 춘계 대체에서는 미코시(神輿, 일본 신도에서 사용되는 제례 도구. 신사 건물을 본뜬 것을 메고 운반함)와 대규모 행렬이 데라도마리 마을 안을 누비며 행진하고, 본전에서는 가구라(神樂, 신에게 바치는 가무)가 봉납됩니다.

시라야마히메 신사에는 해상 안전을 기원하며 봉납된 52점의 귀중한 후나에마(船絵馬, 기원과 서원 성취를 위해 신사에 봉납되는 그림이 그려진 나무로 된 액자)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본 소장품들에는 1774년부터 1889년에 걸쳐 항해했던 배가 그려져 있으며, 국가의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전(本殿)

현재의 본전은 1758년에 소실된 옛 신사 건물을 대신해 1771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목조 본전 외벽에는 용, 물 위의 국화, 매화, 호랑이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격자 천장에는 구름에 떠 있는 용의 목화를 중심으로 계절의 꽃들이 선명한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신사 건물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천장을 볼 수 있습니다.

본존(本尊)을 안치해 둔 내진(内陣)의 칸막이에 걸려 있는 큰 문패에는 ‘하쿠산구(白山宮)’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시라야마히메 신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이묘(대영주)이자 도쿠가와 막부의 로주슈자(老中首座, 로주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자. 로주란 막부의 정무를 총괄하는 요직)를 맡은 마쓰다이라 사다노부(1759~1829년)의 글을 바탕으로 새겨졌습니다. 그 글자에는 새의 추상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재미있는 발상도 담겨있습니다. 그 밖에 춘계 대체의 오래된 사진과 제등, 데라도마리 항구를 그린 큰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니멘 신사(二面神社): 두 얼굴을 가진 신

시라야마히메 신사의 말사(末社)라고 불리는 부속 신사 중 하나인 니멘 신사에는 데라도마리(寺泊) 특별한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신사는 1391년에 지역 어부들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헤이사부로라는 어부가 꿈속에 나타난 신의 계시를 받아 세운 것입니다. 헤이사부로는 그 신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 바닷속을 탐색하다가 기묘한 양면 형상의 조형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목상은 39cm×82cm 크기의 틀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양면에 서양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으며, 밧줄을 잡고 물고기가 가득 들어 있는 그물을 끌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한쪽 면에는 신비로운 신이 남성의 모습으로, 다른 한쪽 면에는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 니멘(두 얼굴) 신사라고 불리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는 서양 선박의 장식이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헤이사부로는 니멘 신사에 신체(神体)를 모신 이래로, 해상 안전과 풍어 기원의 신으로 숭배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금지되었던 수 세기 동안은, 기독교 유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신상은 오래전부터 비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축제를 하지 않고, 대신 궁사(일본 신사의 직급)와 마을의 대표 어부가 1 년에 2 번, 3 월과 9 월에 신사에서 비밀 의식을 치르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 의식의 일환으로 궁사와 대표 어부는 봄에는 여신의 상을 정면으로, 가을에는 남신의 상을 정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으며, 그 후 마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신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사 경내

시라야마히메 신사에는 니멘 신사 외에도 아마테라스오미카미(태양의 신)와 이나리 신(장사 번성과 농업의 신), 스미요시산진(바다의 수호신), 스사노오노미코토(폭풍의 신), 하치텐구(화재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는 초자연적 존재)를 모시는 부속 신사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내는 10 월에서 11 월 사이에 털머위꽃이 만발하여, 이끼로 뒤덮인 풍경 곳곳에 선명한 노란색이 흩어져 있습니다. 본전 왼쪽에 있는 목조 건물에는, 춘계 대제 때 사용되는 화려한 금박으로 마감된 미코시(제례나 축제 때 신을 모시는 가마)와 신성한 흰말 목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후나에마 수장고 앞에는 에도 시대(1603~1867 년)의 오래된 배의 닻과 배를 묶어두는 화강암 계류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후나에마를 견학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에 신사로 전화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006-014

<日本語仮訳>

白山媛神社

白山媛神社は、海上安全、国家安寧、地域繁栄を司る女神の伊弉冉尊（いざなみのみこと）と菊理媛命（くくりひめのみこと）を祀っています。創建の時期は不明ですが、少なくとも数世紀にわたり、村と海を見下ろす高台の現在の場所に鎮座しています。毎年 5 月 3 日と 4 日に行われる春季大祭では、神輿（日本の神道で用いられる祭礼具。社殿の形をしたものを担いで運ぶ）と大行列が寺泊の町なかを練り歩き、本殿では神楽が奉納されます。

白山媛神社には、海上安全を祈願して奉納された 52 点の貴重な船絵馬（祈願や誓願成就のために神社に奉納される絵が描かれた木製の額のこと）が所蔵されています。本収蔵品庫には 1774 年から 1889 年にかけて航海していた船が描かれており、国の重要有形民俗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本殿

現在の本殿は、1758 年に焼失した旧社殿に代わり、1771 年に建てられたものです。木造の本殿の外壁には、龍、水上の菊、梅の花、虎などが彫られています。格天井には、雲に浮かぶ龍の墨絵を中心に、季節の花々が色鮮やかに描かれています。社殿の扉が閉まっている場合は、開けて中に入り天井を見ることが出来ます。

内陣の仕切りにかかる大きな表札には「白山宮」とあり、これは白山媛神社の別名です。大名（大領主）で徳川幕府の老中首座（老中の中で最も大きな権力を持つ者。老中とは幕府の政務を統括する重職のこと）を務めた松平定信（1759-1829 年）の書をもとに彫られました。その文字には鳥の抽象的な形が隠されているという遊び心があります。その他に、春季大祭の古い写真や提灯、寺泊港を描いた大きな絵などが展示されています。

二面神社：二つの顔を持つ神

白山媛神社の末社のひとつである二面神社には、寺泊特有の神様が祀られています。伝説によれば、この神社は 1391 年に地元の漁師らによって建立されました。平三郎という漁師が夢枕に立った神様のお告げを受け、建てられました。平三郎はその神様の指示に従い、翌日海中を探索したところ、奇妙な二面の像を発見しました。その木像は 39 センチ×82 センチの枠の中に彫られています。両面に西洋人と思われる人物が描かれており、縄を持ち魚が大量に入った網を引き揚げている様子が見られます。片面にはその神秘的な神が男性の姿で、もう片面が女性の姿で描かれているため、二面神社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元々は西洋の船の装飾であった可能性を指摘する学者もいます。

平三郎が二面神社にご神体を祀って以来、海上安全や豊漁祈願の神として崇敬されてきました。しかし、キリスト教が禁じられていた何世紀もの間は、キリスト教の遺物であると誤解されることを恐れ、このご神像は古くから非公開とされていました。そのため、公開の祭りを行わず、代わりに宮司（日本の神社の職階）と村の漁師長が年に 2 回、3 月と 9 月に神社で秘密の儀式を行うのが慣例となりました。その儀式の一環として、宮司と漁師長は、春は女神の像を正面に、秋は男神の像を正面に向ける習慣になっており、それから村人たちを個別に訪ねて神の恩恵を分かち合ったのです。

神社の境内

白山媛神社には、二面神社のほか、天照大御神（太陽の神）や稲荷神（商売繁盛と農業の神）、住吉三神（海の守護神）、須佐之男命（嵐の神）、八天宮（火災や厄災から守る超自然的存在）を祀る末社も並んでいます。境内は、10 月から 11 月にかけてツワブキが咲き乱れ、苔むした風景に鮮やかな黄色が点在します。本殿の左側にある木造の建物には、春季大祭で使用される豪華な金箔張りの神輿と、神聖な白馬の木像が納められています。船絵馬の収蔵庫の前には、江戸時代（1603-1867 年）の古い船の錨と花崗岩の船つなぎ石が展示されています。中にある船絵馬を見学したい場合は、事前に神社へ電話予約できます。

【タイトル】 白山媛神社奉納船絵馬/北前船及び船絵馬の概要など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시라야마히메 신사(白山媛神社): 후나에마(船絵馬)

기타마에부네(北前船)

테라도마리(寺泊)는 한때 기타마에부네라고 불리는 상선이 자주 오가는 항구도시로서 번성했습니다. 에도 시대 중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기타마에부네는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잇는 혼슈 북쪽 연안 항로를 항해했습니다. 세토 내해에서 혼슈 북서부 해안 지역을 왕복하는 기타마에부네는 여러 항구에 들렀으며, 북쪽에서는 청어와 다시마, 서쪽에서는 의류와 술, 설탕, 소금 등의 특산품을 사고팔았습니다. 기타마에부네는 모든 기항지에서 거래를 하고, 가는 길에서도 돌아오는 길에서도 모두 상품을 운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사카에서 에도(현재의 도쿄)까지 태평양 연안에서 짐을 운반하고, 돌아올 때는 선창을 비우고 돌아오던 기존의 방식보다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마에부네의 해운 무역은 항구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해운 상인에게 번영을 가져다주었으며, 일본 전역의 문화 교류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후나에마의 전통

기타마에부네를 소유하거나 기타마에부네에서 일하는 것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위험도 따랐습니다. 이 작은 배들은 폭풍우로 침몰하거나, 해안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좌초되거나, 손상 또는 자연으로 인해 화물과 이익을 잃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신사에 에마(絵馬, 소원을 빌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봉납하는 나무패)를 봉납하고 배와 선원의 안전을 기원하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이 에마는 ‘후나에마’라고 불리며, 보통 특정 배의 그림, 배 이름, 선주와 선원의 이름, 배의 크기, 봉납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테라도마리에서 후나에마를 봉납하는 장소로 가장 인기 있었던 곳이 해상 안전의 신을 모신 시라야마히메 신사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원들과 그 가족, 선주들은 예측할 수 없는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며, 많은 후나에마를 이곳에 봉납했습니다. 이 후나에마들은 이후 배전에서 경내의 전용 공간으로 옮겨져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시라야마히메 신사의 후나에마 수장고

시라야마히메 신사에는 52장의 후나에마가 소장되어 있으며, 언제나 절반 정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774년에 봉납된 ‘에호마루(恵方丸)’이며, 가장 최근 것은 1889년에 봉납된 ‘다카사고마루(高砂丸)’입니다. 이 후나에마는 국가의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그 크기와 기타마에부네의 역사 및 배의 구조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나에마의 대부분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유행과 전통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림에는 돛을 펼치고 항해 중인 기타마에부네가 그려져 있으며, 선원들은 갑판 위나 갑판 아래 등 다양한 장소에 있습니다. 선원들이 배와 관련된 문장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간소한 후나에마는 배경에 하늘만 그려져 있지만, 더 정교한 후나에마에는 해안선이 그려져 있고, 민가와 등대, 도리이(鳥居), 신사 건물 등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사 건물들의 대부분은 특징적인 지붕을 통해 스미요시 다이샤 신사(住吉大社)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미요시 다이샤 신사는 오사카에 있는 큰 신사로, 해상 안전 기원과 널리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후나에마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에 배전에 장식되어 있을 때의 못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나에마 수장고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신사로 전화해서 관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성인 300 엔, 어린이 200 엔입니다.

006-015

<日本語仮訳>

白山媛神社：船絵馬

北前船

寺泊はかつて北前船と呼ばれる商船が頻繁に行き交う港町として栄えました。江戸時代中期から20世紀初頭にかけて、北前船は大阪と北海道を結ぶ本州の北側の沿岸航路を航行していました。瀬戸内海から本州北西部の海沿い地域を往復する北前船は、さまざまな港に立ち寄り、北からはニシンや昆布、西からは衣料品や酒、砂糖、塩などの特産品を売買していました。北前船はすべての寄港地で取引を行い、往路と復路の両方で商品を運びました。これにより、大阪から江戸（現在の東京）まで太平洋沿岸で荷を運んで帰りは船倉を空にして戻る従来の方法よりも、高い利益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ました。北前船の海運貿易は港町の発展を促し、海運商に繁栄をもたらし、全国の文化交流に大きく貢献しました。

船絵馬の伝統

北前船を所有すること、あるいは北前船で働くことは大きな利益を得られる一方で、リスクも伴いました。これらの小さな船は暴風雨で沈没したり、海岸に近づきすぎて座礁したり、損傷や遅延で積荷や利益を失うことも珍しく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ため、地元の神社に絵馬を奉納して船と乗組員の安全を祈願する風習が生まれました。この絵馬は「船絵馬」と呼ばれ、通常、特定の船の絵、船名、船主や乗組員の名前、船の大きさ、奉納日が描かれました。

寺泊で船絵馬を奉納する場所として最も人気があったのが、海上安全の神様を祀る白山媛神社でした。長年にわたり、船乗りやその家族、船の所有者たちは、予測不能な航海の安全を祈願して、多くの船絵馬をここに奉納しました。これらの船絵馬は後に拝殿から境内の専用スペースに移され、保存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白山媛神社の船絵馬の収蔵庫

白山媛神社には52枚の船絵馬が所蔵されており、常時約半数が展示されています。最も古いものは1774年に奉納された「恵方丸」、最も新しいものは1889年に奉納された「高砂丸」です。この船絵馬は国の重要有形民俗文化財に指定されており、その大きさと北前船の歴史や船の構造の変化を知ることができる資料として注目されています。

船絵馬の多くには共通点があり、流行や伝統の移り変わりを示しています。絵には、帆を広げた海上の北前船が描かれ、乗組員は甲板上や甲板下のさまざまな場所にいます。乗組員が船にちなんだ紋章入りの衣を着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簡素な船絵馬は背景に空だけが描かれますが、より手の込んだ船絵馬には海岸線が描かれ、民家や灯台、鳥居、社殿などの詳細が描かれています。これらの社殿の多くは特徴的な屋根から住吉大社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住吉大社は大阪にある大きな神社で、海上安全祈願に広く関係していました。船絵馬をよく見ると、かつて拝殿に飾られていた時の釘穴が残っているのがわかります。

船絵馬の収蔵庫に入るには、事前に神社へ電話し拝観申し込みをしてください。拝観料は大人 300 円、子供 200 円です。

【タイトル】 聖徳寺/本堂、文化財など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쇼토쿠지 절(聖徳寺)

쇼토쿠지 절은 데라도마리(寺泊)의 고지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정토진종 사원입니다. 쇼토쿠지 절의 신성한 보물은 수차례의 화재와 격동의 시대를 극복해 왔습니다. 쇼토쿠지 절의 풍부하고 자세한 역사를 통해 이 해안가 마을에 왜 절이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경내를 방문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문을 열고 본당에 들어가 참배와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쇼토쿠지 절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에 있는 구제이지 절(弘誓寺)의 주지였던 간넨(願念)에 의해 1593 년에 창건되었습니다. 간넨은 교토 히가시혼간지 절(東本願寺)의 주지였던 교노(教如)의 제자였습니다. 간넨은 정토진종의 본산인 혼간지 절(本願寺)의 문도로서, 전국 시대의 무장인 오다 노부나가(1534~1582 년)와 오사카 이시야마 혼간지 절을 거점으로 무가 지배에 반대하는 승려와 농민의 반란 세력이 일으킨 이시야마 전투(1570~1580 년)에 참가했습니다. 이 항쟁에서 공을 세운 간넨은 교노로부터 구제이지 절을 떠나 도호쿠 지방에서 정토진종을 전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간넨은 구제이지 절을 동생에게 맡기고, 30 명의 신도와 함께 새로운 절의 숭배 대상이 될 2 개의 신성한 보물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데라도마리에 잠시 머물 생각이었지만, 간넨이 머문 집에서 3 일 동안 설법을 한 뒤, 마을 사람들은 간넨에게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간넨은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데라도마리에 머물며, 쇼토쿠지 절을 창건했습니다.

쇼토쿠지 절은 에도 시대(1603~1867 년) 중기에 소실되었으며, 이후 현재 위치에 재건되었습니다. 유랑 생활과 예술적인 업적으로 유명한 승려 료칸(良寛, 1758~1831 년)은 쇼토쿠지 절의 9 대 주지였던 엔가(円雅)와 친분을 맺었다고 전해지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시가 남아 있습니다. 보신 전쟁(1868~1869 년)으로 절은 다시 소실되었지만, 두 차례의 화재를 피해 살아남은 두 점의 신성한 보물은 현재도 쇼토쿠지 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본당: 황금의 성역

쇼토쿠지 절의 큰 본당 내부는 불교의 정토를 연상시키는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본존을 안치해 둔 내진 벽에는 금박이 입혀져 있고, 호화로운 제단, 금색 란마(문 위쪽에 설치된 통풍과 채광을 위한 교창)에는 세밀하게 모란 문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흰 코끼리상은 하나마쓰리(관불회/석가강탄회) 때 사용되는 것 외에는 내진 입구 오른쪽에 놓여있습니다. 이 코끼리상은 석가의 어머니가 꿈에서 보았다고 전해지는 흰 코끼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석가의 수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쇼토쿠지 절의 본존은 무한한 빛과 생명을 지닌 부처인 아미타여래상입니다. 쇼토쿠지 절 창건 시의 주목할 만한 보물에는,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親鸞, 1173~1263 년)의 목조 좌상과 쇼토쿠 태자(聖徳太子, 574~622 년)의 그림이 있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행정 통치를 개혁하고,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 불교를 널리 알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견수사(아스카 시대에 일본에서 중국 수나라로 파견한 사절)를 파견하거나, 고구려의 혜자, 백제 승려 혜충과 같은 고승들을 스승으로 모시며 대륙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국가, 황실, 불교의 수호신으로도 숭배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그 밖에 쇼토쿠 태자의 목상과 정토진종의 칠고승이 그려진 족자 등 신성한 물품들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원의 정원

쇼토쿠지 절의 정원은 에도 시대 중기에 오사카에서 배로 데라도마리까지 운반한 야마토석(현재의 나라현에서 생산)을 사용하여, 교토의 숙련된 정원사가 조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원은 잉어와 수련으로 수놓아진 작은 연못을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한쪽 인공 언덕에는 진달래가 심어져 봄에는 분홍색과 흰색 꽃을 피워냅니다. 정원은 사원의 객전 내부에서 볼 수 있으며, 본당 뒤쪽에 있는 작은 대나무 문을 통해 들어가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006-016

<日本語仮訳>

聖徳寺 (しょうとくじ)

聖徳寺は、寺泊の高台から海を望む浄土真宗の寺院です。聖徳寺の神聖な宝物は、幾度もの火災や激動の時代を乗り越えてきました。聖徳寺の豊かで詳しい歴史から、この海岸沿いの村になぜ寺が建てられたのか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境内を訪れる人は、自由に扉を開けて本堂に入り、参拝や見学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歴史

聖徳寺は、石川県能登の弘誓寺の住職であった願念によって 1593 年に創建されました。願念は京都の東本願寺の住職だった教如の弟子でした。願念は、浄土真宗の本山である本願寺の門徒として、戦国武将の織田信長（1534-1582 年）と大阪の石山本願寺を拠点に武家支配に反対する僧侶や農民の反乱を巻き起こした石山合戦（1570-1580 年）に参加しました。この抗争で功績を挙げた願念は、教如から弘誓寺を離れて東北地方で浄土真宗を広めるように指示されました。願念は弘誓寺を弟に託し、30 人の信徒と新しい寺の礼拝対象となる 2 つの霊宝を携えて旅立ちました。寺泊に一時的に滞在するつもりでしたが、願念が宿主の家で 3 日間説法をした後、村人たちは願念に留まるよう懇願しました。願念は村人たちの要望に応じて寺泊に留まり、聖徳寺を創建しました。

聖徳寺は、江戸時代（1603-1867 年）の中期に焼失した後、現在の場所に再建されました。流浪の生活と芸術的な業績で知られる僧、良寛（1758-1831 年）は、聖徳寺の 9 代目住職であった円雅と親交を結んだといわれ、二人の詩のやり取りが残っています。戊辰戦争（1868-1869 年）で寺は再び焼失しましたが、二度の火災を免れた 2 つの霊宝は現在も聖徳寺に安置されています。

本堂：黄金の聖域

聖徳寺の大きな本堂の内部は仏教の浄土を思わせる装飾が施されています。内陣の壁には金箔が貼られ、豪華な祭壇、金色の欄間には細密な牡丹の彫刻が施されています。大きな白象の像は、花まつり（灌仏会／釈迦降誕会）で使われる以外は、内陣の入り口の右側に置かれています。この像は、釈迦の母親が夢で見たとされる白い象を表しており、釈迦の受胎を象徴しています。

聖徳寺の本尊は、無限の光と命を持つ仏、阿弥陀如来の像です。聖徳寺創建時の特筆すべき宝物に

は、浄土真宗の開祖である親鸞（1173-1263 年）の木造坐像と聖徳太子（574-622 年）の絵画があります。聖徳太子は、行政統治を改革し、日本に仏教が伝来した際に仏教を広めた人物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聖徳太子は遣隋使を派遣したり、高句麗の慧慈、百済僧の慧聡といった高僧を師と仰ぎながら、大陸文化を積極的に受け入れていきました。また、国家、皇室、仏教の守護神としても崇拝されています。本堂にはその他に、聖徳太子の木像や浄土真宗の七高僧掛け軸などの神聖な品も安置されています。

寺院の庭園

聖徳寺の庭園は、江戸時代中期に大阪から船で寺泊に運んだ（現在の奈良県産の）大和石を用いて、京都の熟練した庭師が造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庭園は鯉や睡蓮で彩られた小さな池を中心にデザインされています。片側の人工の丘にはツツジが植えられ、春にはピンクと白の花を咲かせます。庭園は寺院の客殿の内部から眺めることができ、本堂の裏手にある小さな竹の門から入って散策することも可能です。

【タイトル】 法福寺祖師像/由来や建物など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호후쿠지 절(法福寺)과 니치렌상(日蓮像)

니치렌의 유산

호후쿠지 절은 기존의 종교 질서에 이의를 제기한 니치렌 쇼닌(日蓮上人, 1222~1282년)에 의해 창시된 일련종에 속하는 사원입니다. 니치렌은 오랜 탐구 끝에 법화경이야말로 부처 자체를 구현하고 있으며, 현대 시대에 적합한 유일한 참된 교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1253년부터 ‘나무묘법연화경’(법화경에 귀의하는 것)을 가르침의 중심에 두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니치렌은 다른 불교 종파를 비난하고, 정부를 비판한 탓에 이즈(伊豆) 반도에 2년간 유배되었습니다. 1263년에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니치렌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1271년, 막부와 관련된 저명한 승려에게 이의를 제기한 일로 인해 사도 섬으로 유배 명령을 받았습니다.

1271년 11월 24일, 니치렌은 사도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데라도마리(寺泊)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강풍으로 인해 출항이 지연되었고, 지역의 유력자였던 이시카와 가문의 환대를 받으며 7일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니치렌은 사도로 향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데라도마리 어서

훗날 ‘데라도마리 어서(寺泊御書)’라고 불리게 된 서신은 니치렌의 충실한 신자였던 도키 조닌(富木常忍, 1216~1299년)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신에서 니치렌은 법화경의 올바름을 신자들에게 재확인시키고,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반론을 반박하기 위해 여러 경전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겪는 박해를 역사상의 부처가 겪은 박해에 비유하며,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도 후회는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니치렌의 지시에 따라 도키 조닌은 서신의 내용을 신자들에게 전하였으며, 이는 니치렌의 유배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사당과 이시카와 가문 주택 옛터

13세기에 니치렌이 머물렀던 이시카와 저택은 현존하고 있지 않지만, 1706년에 이시카와 가문이 인근 호후쿠지 절에 땅을 기증했습니다. 니치렌이 사도(佐渡)로 건너간 장소라는 인연을 기려 호후쿠지 절은 이 부지에 조사당을 건립했습니다. 작은 목조당으로 평소에는 문이 닫혀있지만, 참배객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니치렌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그린 족자, 데라도마리 어서의 사본, 니치렌상을 안치한 금색 제단이 있습니다.

부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반대편에는 ‘연수의 영정’이라고 불리는 소박한 우물이 있습니다. 니치렌이 데라도마리 어서를 쓸 때 이 우물의 물로 벼루에 먹을 갈았다고 전해집니다. 우물은 현재, 간소한 목조 정자로 보호되고 있으며, 정자 지붕 기와는 니치렌의 문장인 우물틀 모양에 둘러싸인 굴나무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1964년에 대형 니치렌상이 우물 옆에 건립되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소매를 바람에 휘날리며 시선을 사도 섬으로 향하고 있는 역동적인 자세로 니치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法福寺と日蓮像

日蓮の遺産

法福寺は、既成の宗教秩序に異議を唱えた日蓮上人（1222-1282 年）によって開かれた日蓮宗に属する寺院です。日蓮は長年の探求の末、法華経こそが仏陀そのものを体現しており、現代の時代に適した唯一の真の教義であると結論づけました。1253 年から、「南無妙法蓮華経」（法華経に帰依すること）を教えの中心に据えて広め始めました。しかし、日蓮は他の仏教宗派を非難し、政府を批判したため、伊豆半島に 2 年間流罪となりました。1263 年に流罪から戻ってからも日蓮は教えを広め続けました。1271 年、幕府に関わる著名な僧侶に異議を唱えたことで、佐渡島への流罪を命じられました。

1271 年 11 月 24 日、日蓮は佐渡へ向かう船に乗るため、寺泊に到着しました。しかし、強風のため出航が遅れ、地元の有力者であった石川家のもてなしを受け 7 日間にわたり滞在を余儀なくされました。この間、日蓮は佐渡へ向かう前に弟子たちに書簡をしたためました。

寺泊御書

後に「寺泊御書」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書簡は、日蓮の忠実な信者であった富木常忍（1216-1299 年）に宛てたものでした。書簡の中で日蓮は、法華経の正しさを信者たちに再確認させ、自らの教えに対する反論を退けるために複数の経典を引用しました。また、自らの迫害を歴史上の仏陀の迫害になぞらえ、今後起こる困難に対しても後悔はないと表明しました。日蓮の指示に従い、富木常忍は書簡の内容を信者たちに広め、日蓮流罪中となっている間、弟子たちにとって大いなる励みと慰めとなりました。

祖師堂と石川家住宅跡地

13 世紀に日蓮が滞在した石川邸は現存していませんが、1706 年に石川家が近くの法福寺に土地を寄進しました。日蓮が佐渡に渡った地としてのゆかりを称え、法福寺はこの敷地に祖師堂を建立しました。木造の小さなお堂で、普段は扉が閉まっていますが、拝観者は自由に入ることができます。内部には、日蓮の渡海を描いた掛け軸、寺泊御書の写し、日蓮像を安置する金色の祭壇があります。

敷地を横切る道路の反対側には、「硯水の霊井」と呼ばれる簡素な井戸があります。日蓮が寺泊御書を書いた際に、この井戸の水で硯を濡らし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井戸は現在、簡素な木造の覆屋で保護されており、その屋根瓦には日蓮宗の紋章である井桁に囲まれた橘の木があしらわれています。1964 年に、大きな日蓮像が井戸の横に建立されました。両手を広げ、袖を風になびかせ、視線を佐渡島に向けているダイナミックなポーズで日蓮を描写しています。

【タイトル】 養泉寺/由来や建物など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요센지 절(養泉寺)

요센지 절은 데라도마리(寺泊) 북쪽에 위치하는 정토진종에 속한 작은 사원입니다. 요센지 절의 인상적인 본당은 극락정토를 나타낸 그림과 금색 장식으로 꾸며져 있으며, 이끼로 덮인 중정은 사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경내를 방문할 경우, 본당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지만, 정원과 객전 견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로 예약이 필요합니다.

역사

요센지 절은 1594년에 시나노국(현재의 나가노현) 출신의 승려 조묘(浄明)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승려가 되기 전에, 조묘는 가나이 도노조 나카하라 야스노리(金井藤之丞中原安範)라는 이름의 무장으로, 전국 시대의 명장인 다케다 신겐(1521~1573년)을 섬겼습니다. 무장으로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1573년 다케다 신겐의 서거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은 그는 칼을 내려놓고 전장에서 숨진 이들을 기리기 위해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조묘라는 이름을 쓰며, 자신도 몇 년 전에 참전했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조코지 절(浄興寺)의 승려가 되었습니다.

20년에 걸친 수행 끝에 조묘는 주지 스님으로부터 조코지 절을 떠나 정토진종 신자가 많고 종교적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야히코(弥彦)로 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행 도중 데라도마리를 지나던 조묘는 그곳에서 요센지 절을 창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당: 극락정토의 광경

현재의 본당은 1999년에 재건된 것입니다. 본당에서는 무한한 빛과 생명을 지닌 부처인 아미타여래상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불상의 정확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약 3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곧게 서 있는 일반적인 불상과 달리 이 불상은 상당히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아미타여래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고 있다고 합니다. 불상 양옆에는 제단이 있으며,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親鸞, 1173~1263년)과 그의 후손이자 정토진종 보급과 세력 확대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는 렌노(蓮如, 1415~1499년)를 그린 족자가 걸려 있습니다. 왼쪽 여간(본존(本尊)을 안치하는 곳인 '내진(内陣)'의 좌우에 마련된 방)의 벽에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쇼토쿠 태자(聖徳太子, 574~622년)와 정토진종의 일곱 선조를 그린 족자도 걸려 있습니다.

본당은 정토진종의 가르침에 따라 아미타여래를 믿고 염불을 외는 것을 통해 사후에 환생하게 된다는 극락정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진의 벽판에는 정토진종 구원의 상징인 연꽃이 그려져 있고, 금색 란마(문 위쪽에 설치된 통풍과 채광을 위한 교창)에는 구름 사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천녀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원과 객전

본당과 객전 사이에는 단풍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연못 정원이 있습니다. 곳곳에 등롱이 놓여 있고, 이끼로 덮인 지면에는 과거 사도 금광에서 사용되었던 돌절구가 놓여 있습니다. 정원은 단풍 명소이기도 하며, 단풍나무의 붉은 단풍과 이끼로 덮인 정원의 녹색이 이루는 대비가 아름답습니다. 고리(승려가 거주하는 곳) 안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객전에 서서 위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요센지 절의 객전은 2층 건물입니다. 2층은 에도 시대(1603~1867년)부터 데라도마리에 있던 명문 료칸 ‘오시키야 고헤이’의 응접실이었습니다. 1932년에 료칸이 문을 닫자, 주지 스님이 건물 일부를 매입하여 요센지 절로 이축하였습니다. 내부에는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으며, 목제 벽걸이 시계, 다 도구 선반, 등근 창, 골동품 좌식 의자, 아래쪽을 불투명하게 해서 손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유리창 등, 20세기 초의 디자인 요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원 경내

나무로 된 문에서 본당으로 이어지는 길 왼쪽에는 두 개의 작은 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장(經藏)으로, 3세기가 넘는 세월에 걸친 문도에 관한 기록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이시도(태자당)로, 쇼토쿠 태자상이 모셔져 있으며, 매년 8월에는 본당으로 옮겨져 공양 행사가 진행됩니다. 두 개의 당 사이에는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의 대형 동상이 서 있습니다.

006-018

<日本語仮訳>

養泉寺

養泉寺は寺泊の北側に位置する、浄土真宗に属する小さな寺院です。養泉寺の印象的な本堂には、極楽浄土を象った絵画や金色の装飾が施されており、苔むす中庭は四季折々の美しさを映し出します。境内を訪れる場合、本堂には自由に入れますが、庭園や客殿の見学を希望する場合は、事前に電話で予約が必要です。

歴史

養泉寺は1594年に、信濃国（現在の長野県）出身の僧、浄明によって開かれました。僧侶になる前の浄明は、金井藤之丞中原安範という名の武将で、戦国時代の名将である武田信玄（1521–1573年）に仕えていました。武将として頭角をあらわしたものの、1573年の武田信玄の逝去に深く心を痛めました。世の無常さに目覚めた彼は、刀を捨てて戦場で亡くなった人々を弔うために出家することを決意しました。それから浄明と名乗り、自身も数年前に参戦し戦火で被害を受けた浄興寺の僧侶となりました。

20年にわたる修行の後、浄明は住職から、浄光寺を離れて浄土真宗の信者が多く宗教的指導者を必要としている弥彦へ向かうよう指示されました。旅の途中で寺泊を通過した浄明は、そこで養泉寺を建立することを決意しました。

本堂：極楽浄土の光景

現在の本堂は1999年に再建されたものです。本堂では無限の光と命を持つ仏である阿弥陀如来像をご本尊として祀っています。この像の正確な年代は不明ですが、約300年前のものと考えられています。まっすぐ立っている一般的な仏像と異なり、この像はかなり前傾しており、阿弥陀如来が目の前の人々を救うために、一歩踏み出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像の両脇には祭壇があり、浄土真宗の開祖である親鸞（1173–1263年）と、その子孫で浄土真宗の普及と勢力の拡大に貢献したと評価される蓮如

（1415-1499 年）を描いた掛け軸が飾られています。左側の余間（本尊を安置する場所である「内陣」の左右に設けられた部屋のこと）の壁には、日本に仏教を広めたとされる聖徳太子（574-622 年）と、浄土真宗の七祖を描いた掛け軸も掲げられています。

本堂は、浄土真宗の教えに基づき、阿弥陀如来を信じて念仏を唱えることにより、死後に生まれ変わるという極楽浄土を表現しています。内陣の壁板には、浄土真宗の救いの象徴である蓮の花が描かれ、金色の欄間には雲の中で楽器を演奏する天女の姿が彫られています。

庭園と客殿

本堂と客殿の間には、モミジの木陰になる池泉の庭園があります。各所に灯籠が置かれ、苔むした地面にはかつて佐渡の金山で使用された石臼が据えられています。庭園は紅葉の名所でもあり、モミジの紅葉と苔むした庭園の緑のコントラストが美しいです。庫裡（僧侶の居住する場所）の中から眺めることも、客殿に立って上から眺めることもできます。

養泉寺の客殿は 2 階建てです。2 階は、江戸時代（1603-1867 年）から寺泊にある名門旅館「於しきや五平」の応接間でした。1932 年に旅館が廃業すると、住職が建物の一部を買い取り、養泉寺に移築させました。内部には和室と洋室があり、木製の掛け時計、茶道具の棚、丸窓、アンティークの座敷椅子、下半分が曇っていて客人を通行人の視線から守るガラス窓など、20 世紀初頭のデザイン要素が見られます。

寺院の境内

木製の門から本堂へと続く道の左手には、二つの小さな堂があります。一つ目は経蔵で、三世紀以上にわたる御門徒に関する記録を所蔵しています。もう一つは太子堂で、聖徳太子の像があり、毎年 8 月には本堂へ移されて供養行事が行われます。二つの堂の間には、浄土真宗の開祖である親鸞の大きな像が立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寺泊御朱印街道/白山媛神社、照明寺、法福寺、聖徳寺など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테라도마리 신사(寺泊神社) 불각 고슈인(御朱印) 순례

신사 불각의 고슈인 수집

일본 전역의 종교 법인이 발행하는 사원 인장은 ‘고슈인’이라고 불립니다. 역사적으로 고슈인은 종교적인 귀의의 증표로서 순례자에게 수여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취미나 기념품으로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슈인은 양식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순례지 사원명, 날짜, 때로는 상서로운 말씀과 기도, 시 등을 검은 먹을 사용해 수기로 적고, 그 위에 큰 진홍색 인장을 찍습니다. 고슈인은 ‘고슈인 첩’이라 불리는 전용 책자에 수집합니다.

원래 고슈인은 순례자가 경전을 옮겨 적어 신사와 절에 봉납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문을 옮겨 적는 사경은 공덕을 쌓는 행위로, 환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사후에는 고슈인 첩도 시신과 함께 화장되었습니다. 자신이 경전을 옮겨 적을 수 없는 사람은 대신 돈을 지불하고 신사나 절에 대필을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경보다 고슈인의 대가로 돈을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었고, 현재는 많은 신사와 사원에서 고슈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사와 절의 부속 신사의 말사와 역사적 건축물, 계절 명소가 있는 사찰과 신사에서는 장소마다 다른 고슈인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슈인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1 장에 300 엔에서 1,000 엔 정도입니다.

정토진종의 법어인

정토진종의 사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슈인을 배포하지 않지만, 최근 그 인기가 높아지며 현재는 대신에 ‘법어인(호고인)’을 수여하는 사원도 생겨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고슈인에서 볼 수 있는 신사나 절의 이름과 주인 대신, 다양한 불교의 가르침과 말씀이 적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테라도마리에서(寺泊)의 고슈인 수집

12 세기 후반부터 14 세기 초에 걸쳐 현재의 가나가와현에 있던 막부의 본거지인 가마쿠라에서는 무사들에게 사랑받은 수많은 사원이 번성했습니다. 테라도마리도 사원이 많았기 때문에 한때 ‘북쪽의 가마쿠라’라고 불렸습니다. 항구 도시로 무역선과 호코쿠 가도(간토 지방 남동부와 혼슈 북서부의 바다 쪽을 연결한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이 자주 테라도마리에 들렀으며, 이 지역의 문화와 종교 보급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테라도마리에는 예로부터 주요 가도를 따라 많은 불교 사원이 건립되어 있었고, 바다에 면한 언덕에는 그 지역의 수호신을 모신 신사가 있어 이 사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테라도마리의 거리 풍경 대부분은 수 세기에 걸쳐 변화했지만, 테라도마리를 지나는 약 1km의 길에는 옛 경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가와 상점 사이사이에 시라야마히메 신사와 10 곳의 불교 사원으로 이어지는 도리이(鳥居), 돌계단, 목조 문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신사와 사원을 순례하며 고슈인을 모으려는 관광객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본전과 불당에서 참배한 후 신사 사무소와 사원 사무소에 고슈인 첩을 가지고 가서 고슈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테라도마리에서는 5 곳의 신사와 절에서 고슈인과 법어인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사와 사원에서는 관계자가 고슈인의 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원활한 고슈인 순례를 위해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묘지 절(照明寺) (고슈인)

전화번호 : 0258-75-2301

참배시간: 오전 8시~오후 12시, 오후 1:00~오후 5:00

주차장: 있음

비고: 사전에 전화로 관계자 근무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경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시라야마히메 신사(白山媛神社) (고슈인)

전화번호 : 0258-86-8758

참배시간: 오전 8:00~오후 5:00

주차장: 있음

비고: 사전에 전화로 관계자 근무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사 사무소 옆에 있는 용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봉투에 돈을 넣어 새전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슈인은 후일 우편으로 발송됩니다(일본 국내 주소 한정).

호후쿠지 절(法福寺) 조사당(고슈인)

전화번호: 없음

참배시간: 오전 8:00~오후 5:00

주차장: 있음

비고: 예년 10월 중순~11월 초에 열리는 쓰와부키 축제 기간에만 고슈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을 거행할 때 승려가 앉는 고좌 앞에 놓인 쟁반에 미리 작성된 고슈인이 준비됩니다. 참배를 마친 후 300엔을 새전함에 넣고 직접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쇼토쿠지 절(聖徳寺) (고슈인)

전화번호 : 0258-75-2029

참배시간: 오전 9:00~오후 5:00

주차장: 있음

비고: 사전에 전화로 관계자 근무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센지 절(養泉寺) (범어인)

전화번호 : 0258-75-2210

참배시간: 오전 10:00~오후 3:00

주차장: 있음

비고: 범어인 수령은 예약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한해 추후 우편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당 참배 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6-019

<日本語仮訳>

寺泊神社仏閣御朱印巡り

神社仏閣の御朱印を集める

全国の宗教法人が発行する社寺印は「御朱印」と呼ばれています。歴史的には、御朱印は宗教的な帰依の証として巡礼者に授けるものでしたが、現在では趣味や記念品として集める人も多くいます。御朱印は

様式に多少の違いがあるものの、通常は、札所名、日付、時には縁起の良い言葉や祈り、詩などが手書きによる黒墨で記され、その上に大きな深紅色の印が押されます。御朱印は「御朱印帳」と呼ばれる専用の冊子に収集します。

もともと御朱印は、巡礼者が経典を書き写して寺社に奉納したことを証明するためのものでした。写経は功德を積む行為で、生まれ変わる際に役立つとされ、死後には御朱印帳も遺体とともに焼かれました。自分で経典を書き写せない人は、代わりにお金を払って寺社に代筆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時が経つにつれ、写経よりも御朱印の見返りとしてお金を寄付することが一般的になり、現在では多くの神社や寺院で御朱印をいただけます。多くの末社や末寺、歴史的建造物、季節の名所を有する寺社では、場所ごとに異なる御朱印を頒布し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御朱印の値段は一般的に 1 枚 300 円から 1,000 円程度です。

浄土真宗の法語印

浄土真宗の寺院では、通常御朱印を頒布していませんが、近年その人気が高まっていることもあり、現在ではその代わりに「法語印（ほうごいん）」を授与する寺院も出てきました。これは、通常の御朱印に見られる寺社名や朱印の代わりに、さまざまな仏教の教えや言葉が書かれているのが特徴です。

寺泊での御朱印収集

12 世紀後半から 14 世紀初頭にかけて現在の神奈川県にあった幕府の本拠地の鎌倉では、武士に好まれた多数の寺院が栄えました。寺泊も寺院の多さから、かつて「北の鎌倉」と呼ばれていました。港町として、貿易船や北国街道（関東地方南東部と本州北西部の海側を結んでいた道路）を行き交う人々がよく寺泊に立ち寄り、この地域の文化や宗教の普及に大きく貢献しました。寺泊には昔から主要街道沿いに多くの仏教寺院が建立されており、海に面した丘にはその地域の守り神を祀る神社があり、これらの寺院を見下ろしています。

寺泊の町並みの多く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変化してきましたが、寺泊を通る約 1 キロの道には昔ながらの景色が残っています。民家や商店に混じり、白山媛神社や 10 箇所の仏教寺院へと続く鳥居や石段、木造の門が点在しています。この地域一帯は、神社や寺院を巡り御朱印を集めたい観光客にぴったりです。

本殿やお堂で参拝した後、社務所や寺務所に御朱印帳を持参して御朱印を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現在、寺泊では 5 つの社寺で御朱印や法語印を受け付けています。一部の神社や寺院ではスタッフが御朱印の記入に対応できるよう予約制になっているので、スムーズな御朱印巡りを実現するために、以下の情報を確認してください。

照明寺（御朱印）

電話番号：0258-75-2301

参拝時間：午前 8:00～午後 12:00、午後 1:00～午後 5:00

駐車場：あり

備考：事前に電話でスタッフの空き状況を確認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写経は要予約です。

白山媛神社（御朱印）

電話番号：0258-86-8758

参拝時間：午前 8:00～午後 5:00

駐車場：あり

備考：事前に電話でスタッフの空き状況を確認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書き手が不在の場合は、社務所脇にある用紙に必要事項を記入し、封筒にお金を入れて賽銭箱に入れてください。御朱印は後日郵送されます（日本国内の住所のみ。）。

法福寺 祖師堂（御朱印）

電話番号：なし

参拝時間：午前 8:00～午後 5:00

駐車場：あり

備考：例年 10 月中旬～11 月上旬のつわぶき祭開催時のみ御朱印をいただけます。儀式を行う際に僧侶が座る高座の前に置かれるトレイに書置きのお朱印が用意されます。お参りしてから 300 円を賽銭箱に入れて、手を伸ばしてお取りください。

聖徳寺（御朱印）

電話番号：0258-75-2029

参拝時間：午前 9:00～午後 5:00

駐車場：あり

備考：事前に電話でスタッフの空き状況を確認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養泉寺（法語印）

電話番号：0258-75-2210

参拝時間：午前 10:00～午後 3:00

駐車場：あり

備考：法語印の受け取りは要予約のため、事前に連絡をしてください。書き手が不在の場合は、日本国内であれば後日郵送対応が可能な場合もあります。本堂お参り時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タイトル】 寺泊の温泉/寺泊温泉、寺泊海岸つわぶき温泉、寺泊岬温泉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데라도마리(寺泊) 온천

바다와 산의 온천

많은 관광객은 유명한 데라도마리 어시장 거리에서 쇼핑을 하거나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역사적인 사원에 참배하거나 가을에 피어나는 털머위를 보기 위해 데라도마리에 들립니다. 이 밖에도 해변 마을에는 즐길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볼거리는 천연 온천으로 3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온천에는 독특한 특징과 건강 효과가 있으며,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한 식사도 각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 저무는 아름다운 석양 등 온천 주변의 멋진 경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쓰와부키 온천 쓰미요시야와 사우나 'ART'

데라도마리가 어항과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17세기 후반부터 이어져 온 것이 온천 료칸 '쓰미요시야'입니다. 객실은 30실이며, 이자카야와 스낵 바도 갖춰져 있고, 식사는 인근 데라도마리 어시장에서 들여온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변에 위치해 있어 편백 노천 온천에서는 데라도마리 항구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넓은 목욕탕은 나트륨 탄산수소염천과 염화물 냉광천의 천연 온천입니다. 이 온천들은 피부를 매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피로와 류머티즘, 신경통, 상처, 냉한 체질, 피부 건조증 등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쓰미요시야는 'ART'라는 핀란드식 사우나도 운영하고 있는데, 2시간 예약이 가능하고, 요금은 1인당 5,500엔입니다. 사우나는 본관과 긴 복도로 연결되어 있어, 옷을 갈아입거나 시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우나는 프라이빗 시설이기 때문에 혼욕이나 문신이 있는 분의 이용도 허용됩니다.

데라도마리 온천 호쿠신칸

이 온천 료칸의 목욕탕에서는 녹음이 우거진 산들의 풍경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소박한 분위기를 가지면서도 관광 중심지에서 차로 10분 이내라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객실은 9실로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2종류의 천연 온천이 있으며, 수질은 나트륨 염화물 강염천과 염화물·탄산수소염 냉광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천은 약 37℃로 지하 약 1,000m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물의 색은 갈색이 감도는 빨간색입니다. 염화물 온천은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건성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며,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냉천은 14℃로 호텔 뒤편에 있는 지하 2m의 얕은 원천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10종류 이상의 이온을 함유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탄산천은 최근 분석을 통해 새롭게 요양천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혈액 순환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라도마리 미사키 온천 호텔 아스카

데라도마리 미사키 온천 호텔 아스카는 신선한 해산물을 듬뿍 넣은 요리를 자랑하고, 코스 디너와 조식 뷔페를 만끽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비교적 큰 숙박 시설로 3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 라운지, 연회장, 마사지 룸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입욕 시설은 '야마히코'와 '우미히코' 두 곳으로,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매일 번갈아 운영됩니다. ‘우미히코’는 바다를 볼 수 있으며, 맑은 날에는 멀리 사도 섬이 보입니다. ‘야마히코’는 바다와 북쪽에 위치한 야히코 산(弥彦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두 목욕탕에는 1인용 도기 욕조와 사우나가 있으며, 대욕장도 있습니다. 수질은 나트륨·칼슘 염화물 온천이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건성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며,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숙박하지 않는 분도 두 곳의 목욕탕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욕료는 성인 800 엔, 어린이 400 엔이며, 목욕 타월 대여도 가능합니다. 문신이 있는 분은,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6-020

<日本語仮訳>

寺泊温泉

海と山の温泉

多くの観光客は有名な寺泊魚市場通りで買い物をしたり、新鮮な海の幸を食べたり、また、歴史ある寺院へ参拝したり、秋に咲くツワブキを楽しむために寺泊に立ち寄りますが、この海辺の町には他にも楽しみがあります。この地域のもう一つの見どころは天然温泉で、3か所で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それぞれの温泉には独自の特徴と健康効果があり、新鮮な海産物を使った食事各施設で提供されています。また、海に沈む美しい夕日など、温泉周辺の素晴らしい景色も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

つわぶき温泉 住吉屋とサウナ「ART」

寺泊が漁港や貿易港として賑わった17世紀後半から続くのが、温泉旅館「住吉屋」です。客室は30室あり、居酒屋やスナックも併設され、食事は近くの寺泊魚市場で仕入れた新鮮な海の幸が楽しめます。海辺に位置するため、檜の露天風呂からは寺泊港と海が一望できます。広々としたお風呂は、ナトリウム-炭酸水素塩泉と塩化物冷鉱泉の天然温泉です。これらの温泉は、肌を滑らかにするほか、疲労やリウマチ、神経痛、きりきず、冷え性、皮膚乾燥症などの症状の緩和に効果があるとされています。

住吉屋は「ART」というフィンランド式サウナも運営しており2時間の予約が可能で、料金は1人あたり5,500円です。サウナは本館と長い廊下でつながっているため、服を着替えたり施設を出る必要はありません。このサウナはプライベート施設なので、混浴やタトゥーも許可されています。

寺泊温泉 北新館

この温泉旅館のお風呂では、緑豊かな山々の景色を眺めながらくつろげます。素朴な雰囲気を持ちつつ、観光の中心地から車で10分以内という好立地にあります。客室は9室と比較的小規模ですが、2種類の天然温泉があり、泉質はナトリウム-塩化物強塩泉と塩化物・炭酸水素塩冷鉱泉から選ぶことができます。

温泉は約37℃で、地下約1,000メートルから湧き出しています。水の色は茶褐色がかった赤です。塩化物温泉は、傷の治癒を促し血行を改善し、乾燥肌に保湿効果を与え、寒さに対する抵抗力を高めるとされています。冷泉は14℃で、ホテルの裏手にある地下2メートルの浅い源泉から湧き出しています。10種類以上のイオンを含み、肌をしっとり滑らかにする効果があるとされています。この炭酸泉は最近の分析で、また新たに療養泉として認められました。血行促進に役立つとされ、神経痛、筋肉痛、関節痛などの改

善が期待できます。

寺泊岬温泉 ホテル飛鳥

寺泊岬温泉 ホテル飛鳥では、新鮮な海の幸をふんだんに取り入れた料理が自慢で、コースディナーや朝食バイキングでご堪能いただけますこの地域では比較的大きな宿泊施設で、37 室のキャパシティがあります。さらに、レストラン、ラウンジ、宴会場、マッサージルームも完備しています。入浴施設は「山彦」と「海彦」の 2 つがあり、女性用と男性用に日替わりで入れ替わります。「海彦」は海を望むことができ、晴れた日には遠くに佐渡島が見えます。「山彦」は海と北側に位置する弥彦山を一望できます。両方の浴場には、個別の陶器風呂とサウナがあり、大浴場もあります。泉質はナトリウム・カルシウム塩化物温泉で、血液の循環を良くし、乾燥肌に潤いを与え、寒さに対する抵抗力を高めるとされています。

ご宿泊以外の方も、どちらの浴場も利用できます。入浴料は大人 800 円、子供 400 円で、バスタオルのレンタルもあります。タトゥーのある方はご利用を控え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しています。

【タイトル】 長岡市寺泊民俗資料館/施設の概要、展示紹介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테라도마리 민속자료관(시설 개요)

테라도마리 민속자료관은 테라도마리 항구에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간 논밭과 산기슭에 위치한 옛 초등학교 2 층에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20 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테라도마리에서의 생활을 전달하기 위해 생활 및 작업 환경의 재현, 골동품, 식품 모형 등을 실물 크기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 당시부터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옛 초등학교 1 층에 있는 ‘도키와 자연 학습관’과 길 건너편에 있는 관람동 ‘도키미테’는 따오기(일본어로 ‘도키’라고 함)에 초점을 맞춘 시설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따오기는 니가타현의 마스코트이기도 하며, 조에쓰 신칸센의 열차 이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료관 견학 후에는 따오기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쌓고, 실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9 년을 마지막으로 따오기가 더 이상 목격되지 않아 멸종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19 년 5 월 방사되며, 야생 복귀를 목표로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따오기는 현재도 한중일에만 존재하는 새로서,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시 룸

2 층 전시 공간은 ‘농업’, ‘생활’, ‘어업’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뉜 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쇼와 시대 초기부터 중기(1926 년부터 1964 년경)에 이르는 테라도마리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유한 주민들은 비교적 우아한 생활을 즐겼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이나 어업,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각 전시 공간의 입구에는 재현된 환경과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소개하는 손그림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도구, 가구, 개인 소유물, 기타 잡화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용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재현된 공간에는 사람의 모습도 그려져 있으며, 마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연출되어 있습니다. 테마 룸 밖에 있는 홀에는 철제 물펌프가 달린 전통적인 소방차와 쟁자리를 찌는 도구 등 큼직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테라도마리 민속자료관의 전시는, 농기구와 가전제품이 일상생활과 노동을 바꾸기 이전의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개관시간: 오전 9 시 30 분~오후 4 시 30 분(입관은 오후 4 시까지)

휴관일: 월요일, 연말연시(12 월 29 일~1 월 3 일)

입장료: 무료

<日本語仮訳>

寺泊民俗資料館 (施設概要)

寺泊民俗資料館は、寺泊港から少し内陸に入った田畑と山のふもとにある、旧小学校の2階に位置しています。この施設では、20世紀初頭から中頃の寺泊での生活を伝えるために、生活・作業環境の再現、古道具、食品模型などを実物大で展示しています。資料館を訪れた人は、当時からこんなにも変化したのかと驚くかもしれません！

旧小学校の1階にある「トキと自然の学習館」と通りの向かいにある観覧棟「トキみ〜て」は、トキに焦点を当てた施設です。絶滅の危機に瀕しているトキは、新潟県のマスコットや上越新幹線の電車の名前にもなっています。資料館の見学後は、トキについての知識を深めたり、実物を間近で観察することもできます。韓国では1979年にトキの目撃が途絶え、絶滅したとされていました。しかし、2019年5月に放鳥され、野生復帰を目指す取り組みが開始されました。現在でも日中韓のみに存在する鳥として、協力のシンボルとされています。

展示ルーム

2階の展示スペースは、「農業」「暮らし」「漁業」の3つのテーマに別れた部屋から成り立っています。展示は昭和初期から中期（1926年から1964年頃）にかけての、寺泊の庶民の日常生活に焦点を当てています。裕福な住民は比較的優雅な生活を楽しんでいましたが、当時の多くの人々は農業や漁業、あるいはその両方に従事していました。各部屋の入り口には、再現された環境とそこにある品々を紹介する手描きのパンフレットが置かれています。パンフレットには道具、家具、個人の所有物、その他の雑貨が記載されており、その用途についての簡単な説明が添えられています。再現された空間には人間の姿も描かれており、あたかもそこに住む人たちがほんの少し前までそこにいたかのような演出が施されています。テーマルームの外にあるホールには、鉄製の水ポンプ付きの伝統的な消防車や、藁の敷物を編む道具などの大きな品々が展示されています。

寺泊民俗資料館の展示は、農機具や家電製品が日常生活や労働を一変させる以前の、地域住民の暮らしぶりを伝える貴重な資料です。

開館時間：午前9時30分～午後4時30分（入館は午後4時まで）

休館日：月曜日、年末年始（12月29日～1月3日）

入場料：無料

【タイトル】 長岡市寺泊民俗資料館/展示紹介

【想定媒体】 アプリ&QRコード

<韓国語>

데라도마리 민속자료관(전시)

농업

이 전시실에서는 농가의 창고를 실물 크기로 재현해 약 40 종류의 농기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구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배되던 쌀과 대두 재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크고 값비싼 도구들 중에는 공동으로 구매해 길거(곡식의 겉에서 맨 처음 벗긴 굵은 겨)를 분리하거나 대두를 가는 등의 작업에 여러 집이 돌아가며 사용하던 도구들도 있습니다.

발효 식품은 식생활의 중요한 일부였기 때문에 남성들이 논일을 하거나, 어선 또는 무역선에서 일을 하는 동안 발효 식품 생산은 가정 내 여성들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창고 안의 큰 통 등은 대두를 발효시켜 된장으로 만들거나 생선을 소금에 절이거나 채소를 절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시실 한쪽에는 논 옆의 좁은 용수로로 다니기 위한 얇은 여울용 배와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 수확한 벼를 말리기 위한 사다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생활

일본 전통 화로인 이로리 화로(요리와 난방에 사용하는 난로)를 둘러싼 생활을 재현한 주거 공간의 실물 크기 모형이 이 전시실의 주요 전시물입니다. 냄비와 주전자 등 이로리 화로 위에 있는 냄비 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납공간을 겸한 나무 계단은 2층과 다락방으로 이어지며, 문 위에는 신단이 놓여 있고 벽에는 서양식 벽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전시실의 다른 구역에는 주방용품과 밥을 짓기 위한 작은 화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의류와 제례 용품, 계절 장식품 등을 수납하는 창고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식품 모형 전시를 통해서 일상적인 식사와 특별한 날을 위한 요리 모두에 제철 식재료가 풍부하게 사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업

이 전시실의 중심에는 전통적인 배 창고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것이 있으며, 약 230 점의 어업 도구와 제염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배 창고 안에는 다양한 그물과 돛, 배 수리 도구, 물고기를 운반하는 통, 로프, 부표, 등롱 등이 있습니다.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두꺼운 유리병이 배 모양의 나무 틀에 들어 있으며, 양옆에 도끼 조각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틀에 있는 틀은 그물이나 어구에 부착되어 도자기가 병에 부딪히는 소리로 어부들은 어둠 속에서도 그 도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실의 다른 코너에는, 손상되면 일일이 손으로 고쳐야 했던 옛날식 어망과 얇은 여울용 어선 모형,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 챙겨간 음식과 도구, 그리고 해변 주민들이 집에서 사용한 제염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생산한 소금은 팔아서 수입에 보탬이 수 있었습니다. 데라도마리 연안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꾸리거나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日本語仮訳＞

寺泊民俗資料館（展示）

農業

この展示室では、農家の倉庫を実物大で再現し、約 40 種類の農具を展示しています。農具の多くは、一般的に栽培されていた米や大豆の栽培に関するものです。展示されている大型で高価な道具の中には、共同で購入し、もみ殻（穀物の最も外側にある硬い皮）の吹き分けや大豆のすりつぶしなどの作業に、何軒かで順番に使っていたものもあります。

発酵食品は食生活の重要な一部だったため、男性が田んぼ仕事をしたり漁船や貿易船を操っている間、発酵食品造りは家庭の女性に任されていました。蔵の中の大きな樽などは、大豆を発酵させて味噌にしたり、魚を塩漬けにしたり、野菜を漬けたりと、さまざまな方法で食品を保存するために使われました。展示室の一角には、水田脇の狭い用水路を進むための浅瀬舟や、小魚を捕るための仕掛け、収穫後の稲を干すための梯子などが展示されています。

暮らし

囲炉裏（調理や暖房に使うストーブ）を囲んだ暮らしを再現した住空間の実物大模型が、この展示室の主役となっています。鍋やかんは囲炉裏の上にある自在鉤で吊るされていました。収納スペースを兼ねた木製の階段は、2 階や屋根裏部屋へと続き、戸口の上には神棚が置かれ、壁には洋風の掛け時計が掛けられています。展示室の他のエリアには、台所用品や米を炊くための小さなかまどが展示されています。反対側には衣類や祭礼用品、季節の調度品などを収納する蔵が再現されています。色とりどりの食品模型の展示では、日々の食事やハレの日の料理の両方に季節の食材がふんだんに使用され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ます。

漁業

この展示室の中心には、伝統的な船小屋を実物大で再現したのがあり、漁具や製塩用具などが約 230 点展示されています。船小屋の中には、さまざまな網や仕掛け、船の修理道具、魚を運ぶ桶、ロープ、ブイ、灯籠などがあります。ひときわ興味を引くのは、厚いガラス瓶が舟形の木枠に収められ、両脇に陶器のかけらが吊るされたものです。この浮き枠は網や仕掛けに取り付けられ、陶器が瓶に当たる音で漁師は暗闇でもその道具の場所を確認できました。展示室の他のコーナーには、傷んだら手作業で丹念に修理する必要のあった昔ながらの漁網や、浅瀬用の漁船模型、漁師が海に出る日に持っていく普段の食事や道具、さらに海辺の住人が家で使用した製塩用具などが展示されています。作った塩は売って収入の足しにできました。寺泊の沿岸地域の多くの人は、生計を立てるため、または食料を補うために漁業に従事していました。

【タイトル】 長岡市の概要/長岡市の風土や歴史、文化等の概要やアクセス情報

【想定媒体】 WEB

<韓国語>**나가오카시(長岡市)**

나가오카시는 니가타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혼슈 북서부의 바다에 면해 있으며, 사도(佐渡) 섬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 세기 동안 농업과 제조업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벼농사, 주조, 발효 식품 생산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나가오카는 역사적인 신사와 사원, 맛있는 향토요리,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 온천 료칸, 문화 행사,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꽃축제로 유명합니다.

역사

나가오카시는 17 세기 초에 도쿠가와 막부의 번 중 하나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다이묘(대영주) 호리 나오요리(1577~1639 년)가 현재 나가오카역이 있는 부근에 나가오카 성(長岡城)을 세우기 시작한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618 년에 성 축조를 이어받은 마키노 가문이 대대로 250 년 넘게 다이묘로서 나가오카를 다스렸습니다.

보신 전쟁(1868~1869 년)의 혼란 속에서 나가오카는 막부(무사가 통치하는 정부)를 지지하는 여러 번들과 동맹을 맺었으나, 조정(천황과 귀족이 통치하는 정부)을 지지하는 신정부군 세력에 패배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나가오카는 큰 피해를 보았지만, 19 세기 후반부터 20 세기 초에 걸쳐 빠르게 부흥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의 격렬한 공습으로 도시의 대부분이 또 다시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 부흥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나가오카시 안에는 논밭, 산, 삼림, 바다 등 매우 다양한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광활한 논, 구불구불한 하천, 연안 어업, 풍부한 삼림, 급경사의 계단식 논과 저수지, 눈 덮인 산들, 그리고 선명한 색의 단풍 정원 등 사시사철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

나가오카는 예로부터 양조 명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시내에서는 15 곳의 양조장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셋타야 지구는 발효 식품 생산과 많은 전통 양조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데라도마리 지구는 데라도마리 어시장 거리에서 신선한 해산물이 판매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멘 애호가들은 추운 기후를 견디기 위해 나가오카에서 개발된 생강과 간장을 사용한 독특한 지역 스타일의 라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헤기 소바(헤기라는 그릇에 담아내며, 반죽할 때 청각채라는 해조류를 넣어 만든 소바), 도치오 유부(두툽한 튀김두부), 사사단고(대나무 잎에 싸인 팔소를 넣은 썩떡 형태의 화과자) 등 지역 명물들이 있습니다.

불꽃놀이의 땅

8월 2일과 3일에 열리는 나가오카 불꽃축제에서는 시나노가와 강(信濃川, 니가타현과 나가노현을 흐르는 일본에서 가장 긴 강)의 밤하늘을 20,000 발이 넘는 불꽃이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이 쇼에는 매년 100 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일본 내에서 손꼽히는 불꽃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시는 길

나가오카는 도쿄에서 조에쓰 신칸센으로 단 1 시간 40 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특급 열차를 이용하면 일본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나가오카로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006-023

<日本語仮訳>

長岡市

長岡市は、新潟県で二番目に大きな都市で、本州北西部の海に面し、佐渡島の向かいに位置しています。何世紀にもわたり農業と製造業の中心地であり、特に米作り、酒造り、発酵食品の生産に重点を置いてきました。長岡は、歴史的な神社や寺院、美味しい郷土料理、息をのむような風景、温泉旅館、文化イベント、そして世界に誇る花火大会で知られています。

歴史

長岡市は 17 世紀初頭に徳川幕府の藩の一つとして設立されました。その歴史は、大名（大領主）の堀直奇（1577-1639 年）が現在長岡駅のある辺りに、長岡城の築城を始めた時期に端を発すると言われています。1618 年に築城を引き継いだ牧野家が、代々 250 年以上にわたり大名として長岡を治めました。

戊辰戦争（1868-1869 年）の混乱の中で、長岡は幕府（武士が統治する政府）寄りの諸藩と同盟を結び、朝廷（天皇や貴族は統治する政府）寄りの新政府軍の勢力に対して敗北しました。この影響で長岡は大きな被害を受けましたが、19 世紀後半から 20 世紀初頭にかけて急速に復興しました。第二次世界大戦中に激しい空襲で、市の大部分は再び瓦礫と化しましたが、再び立ち上がり、復興と繁栄を遂げました。

自然の美

長岡市内には、田畑、山、森林、海など非常に多様な地形が広がっています。広大な水田、曲がりくねった河川、沿岸漁業、豊かな森林、急傾斜の棚田やため池、雪に覆われた山々、そして色鮮やかな紅葉の庭園など、四季折々にさまざまな風景を楽しめます。

料理

長岡は、古くから酒造りの名産地として知られており、現在市内では 15 軒の酒造が営業しています。摂田屋地区は発酵食品の生産と多くの老舗蔵元で知られ、一方、寺泊地区は寺泊魚市場通りで新鮮な海産物が販売されていることで有名です。

ラーメン愛好者は、寒冷な気候に耐えるために長岡で開発された、しょうがと醤油を使った独自の地域スタイルのラーメン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他にも、へぎそば（へぎといわれる器に盛り付けた、つなぎに布海苔という海藻を使った蕎麦）、栃尾あぶらげ（厚い揚げ豆腐）、笹団子（竹の葉に包まれたあんこ入りのヨモギもちの和菓子）などの地元名物があります。

花火の地

8月2日と3日に開催される長岡花火大会では、信濃川（新潟県と長野県を流れる日本一長い川）の夜空を20,000発以上の花火が華やかに彩ります。2時間近く続くこのショーには、毎年100万人以上が訪れ、国内屈指の花火大会とされています。

アクセス

長岡は、東京から上越新幹線でわずか1時間40分の距離にあります。また、特急列車を利用すれば、全国の主要都市から長岡へのアクセスも容易です。

地域番号	007	協議会名	廿日市市宮島地域多言語解説協議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07-001	宮島歴史民俗資料館 資料館全体概要	431	web
007-002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保存民家）	497	パンフレット
007-003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展示館A）	572	パンフレット
007-004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展示館B）	540	パンフレット
007-005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展示館C）	420	パンフレット
007-006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展示館D）	560	パンフレット
007-007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代表民家）	462	パンフレット

【タイトル】 宮島歴史民俗資料館 資料館全体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이쓰쿠시마 신사 출구 방면의 주요 관광 코스에서 다소 벗어난 장소에 위치해 있는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은 방문할 가치가 높은 자료관입니다. 독자적인 문화를 키워온 미야지마 섬의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은 부유한 상인들의 생활상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간직한 19 세기 초의 보존 민가와 미야지마 섬의 일반 민가, 몇 개의 전시관 등 여러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느껴지는 다채로운 공예품과 기록 문헌, 미술품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주로 에도 시대(1603~1868) 이후 미야지마 섬에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미야지마 섬의 지리와 연중 행사, 전통 목공예, 교토 귀족과의 관계 등 미야지마 섬에 대해 폭넓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시관 D 에서 상영하는 영상은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자막과 함께 드라마틱한 미야지마 섬의 역사를 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시품을 한차례 둘러본 후, 국가 등록유형문화재인 보존 민가의 다다미 방에서 한숨 돌리면서 자료관 건물에 둘러싸인 작은 안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宮島歴史民俗資料館**

宮島歴史民俗資料館は厳島神社の出口側、主な観光ルートからやや外れた場所にありますが、訪れる価値のある資料館です。独自の文化を育んできた宮島の歴史を分かりやすく紹介しています。資料館は裕福な商人たちの暮らしを当時の姿そのままにした 19 世紀初頭の保存民家と宮島の一般的な民家、いくつかの展示館など、様々な建物で構成されています。歴史を感じる多彩な工芸品、記録文書、美術品などが展示され、主に江戸時代（1603～1868）以降の宮島での生活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展示館では宮島の地理、年中行事、伝統木工芸、京都の貴族との関係など、宮島に関して幅広く紹介しています。中でも、展示館 D で上映される映像はぜひご覧ください。英語の字幕付きで、ドラマチックな宮島の歴史を映像でわかりやすく説明しています。展示品を一通り見て回ったら、国の登録有形文化財である保存民家の畳の部屋でひと休みしながら、資料館の建物に囲まれた小さな中庭を見渡せます。

【タイトル】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保存民家）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보존 민가(대규모 상인 저택)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중 하나인 보존 민가는 2 층 건물로 과거 미야지마 섬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 중 하나였습니다. 1800 년대 초에 지어진 본 가옥은 간장 양조로 재산을 축적한 거상 예가미 가문의 저택이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8) 후기, 미야지마 섬에 살았던 거상의 삶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넓은 현관에 들어서면 왼쪽에는 다다미 방이 있습니다. 다다미 방의 바닥은 현관 바닥보다 상당히 높게 지어져 있는데, 이처럼 간소하면서도 기능성을 갖춘 공간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방은 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벽에 족자나 미술품을 장식한 방도 있습니다. 또한, 가옥 중앙 천장에 수평으로 뻗어 있는 굵은 대들보에서도 가문의 부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굵은 대들보는 한 그루의 소나무를 통으로 잘라 사용한 것으로 당시에는 매우 가격이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관람을 마친 후에는 안뜰에 면한 방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1900 년대 초, 예가미 가문이 간장 사업을 그만둔 후 이곳을 료칸 사업자가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안뜰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원에 있는 연못에서는 잉어를 볼 수 있는데, 4 월부터 10 월까지는 잉어에게 먹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宮島歴史民俗資料館：保存民家（大規模商人の家）

宮島歴史民俗資料館の中の一つである保存民家は2階建てで、かつて宮島で最も豪華な家の1つでした。1800年代初頭に建てられたこの家屋は、醤油の醸造で財産を築いた豪商、江上家のものでした。江戸時代（1603～1868）後期に宮島の裕福な商人がどのような暮らしを送っていたかを感じ取れます。

広い玄関を入ると、左手に畳の部屋があります。座敷の床は玄関の床よりかなり高く建てられています。が、このように簡素ながらも機能性を備えた空間でお客様をお迎えしました。他の部屋はより華やかで、壁に掛け軸や美術品を飾った部屋もあります。また、家屋中央の天井に水平に走る太い梁からも家門の裕福さが感じられます。建物全体を支えるこの太い梁は1本の松の木から切り出されたもので、非常に高価だったと思われます。

室内を観覧した後は中庭に面した部屋で一休みできます。1900年代初頃、江上家が醤油事業を辞めた後、ここを旅館の事業者が別荘として使うようになり、中庭が作られました。庭園にある池では鯉が見られますが、4月から10月までは鯉に餌をあげ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展示館 A）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전시관 A

에가미 가문의 흙벽 창고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성된 전시관 A에서는 미야지마 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다양한 도구들을 전시합니다. 보존 민가와 인접한 전시관 A의 내부는 석조 바닥과 매우 두꺼운 벽, 화재에 내성이 있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용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향아리, 가마솥, 버섯 채집용 바구니, 톱, 다양한 농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톱은 그 지역 나무꾼들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에도 시대(1603~1868)에는 나무꾼들이 나무를 잘못 베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번의 다이묘가 미야지마 섬의 숲을 소유하면서 섬에서의 벌목은 엄격히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나무를 베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미야지마 섬은 섬이 특별 명승 및 특별 사적,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오늘날에도 벌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도구들을 보면 농기구의 수가 톱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메이지 시대(1868~1912)까지 미야지마 섬에서 농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섬 자체가 신이 머물고 있는 땅으로서 숭배의 대상이었기에 토지 경작을 금기로 여겼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수 세기에 걸친 농사 금지가 해제되었지만, 이후에도 농업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의 밭이 개척되었지만, 사슴과 멧돼지에 의한 피해로 농업 관계자들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日本語仮訳>

宮島歴史民俗資料館：展示館 A

展示館 A は江上家の土蔵をそのまま使用したもので、宮島の日常生活で使用されたさまざまな民具が展示されています。保存民家に隣接する展示館 A の内部は石造の床と非常に厚い壁、火災に耐性のある天井で造成され、重要な物品を保管するために使われたものと見られますが、正確な用途は知られていません。壺、釜、きのこ狩り用のかご、鋸、さまざまな農具などが展示されています。

鋸は地元の木こりによって使用されていたものです。江戸時代（1603~1868）には、木こりは間違った木を伐採しないように注意する必要がありました。当時、広島藩の大名が宮島の森を所有し、島での伐採は厳しく制限され、これにより住民は木を切ることが許されませんでした。宮島は島が特別名勝・特別史跡及び自然公園に指定されており、今日でも伐採に規制がかけられています。展示されている道具を見る

と、農具の数が鋸より少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が、その大きな理由は、明治時代（1868～1912）まで宮島では農業が完全に禁止されていたためです。島自体が神が宿る場所として崇拝されていたため、土地を耕すことは禁忌とみなしました。1800年代後半に数世紀間にわたる禁止が解除されましたが、その後も農業は大きく発達しませんでした。小さな畑は開拓されましたが、シカやイノシシによる被害が農業関係者を困らせてきました。

【タイトル】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展示館 B）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전시관 B

두 번째 전시관 B에서는 수 세기에 걸쳐 미야지마 섬 주민들이 소중히 계승해온 여러 연중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축제는 이쓰쿠시마 신사나 섬에 있는 다른 종교 시설과 관련된 종교를 기원으로 두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속 행사도 있습니다.

종교를 기원으로 두고 있는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행사가 간젠사이 축제(管絃, 일본어로 ‘간젠’이라 발음하며 일본 전통 관악기와 현악기를 의미)입니다. 간젠사이 축제는 음력 6월 17일 밤에 개최됩니다. 양력의 경우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에 해당합니다. 정교하게 장식된 배에 올라 관악기와 현악기로 고전 궁중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쓰쿠시마 신사와 미야지마 섬 및 일본 본토의 신사 사이를 항해합니다. 간젠사이 축제와 관련된 전시품 중에는 축제에 참여하는 배의 축척 모형도 있습니다.

크기는 간젠사이 축제에 사용되는 배보다 훨씬 작지만, 가을에 개최되는 축제인 ‘다노모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업이 금지되어 있던 미야지마 섬의 주민들은 한때 식량을 제공해 주었던 본토의 농민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노모산’에서는 각 가정에서 만든 작은 배로 시노미야 신사에서 액막이 의식을 치른 후, 일몰이 지나면 이쓰쿠시마 신사에서 바다로 띄워 보냅니다. 이때 작은 등불을 밝힌 배들이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日本語仮訳>

宮島歴史民俗資料館：展示館 B

2番目の展示館 B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宮島の島民が大切にしてきた数多くの年中行事や催し物を紹介しています。祭りの多くは宗教を起源としており、厳島神社や島にある他の宗教施設に関連したものです。が、地域社会が中心となって行われる民俗行事もあります。

宗教を起源とする行事の中で最も壮大で有名なものが管絃祭（管絃：日本語で「カンゲン」と発音し、日本の伝統管楽器と弦楽器を意味する）です。管絃祭は、旧暦 6 月 17 日の夜に行われます。現在の暦だと 7 月中旬から 8 月上旬あたりです。精巧な装飾が施された船に乗り、管楽器と弦楽器で古典的な宮廷音楽を合奏しながら厳島神社と宮島や本土の神社の間を航行します。管絃祭に関連する展示品の中には、お祭りに参加する船の縮尺模型もあります。

船の大きさは管絃祭よりずっと小さいですが、秋に行われる祭り「たのもさん」でも船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す。古くから農業を禁じられていた宮島の住民は、かつて食料を提供してくれる本土の農民たちに感謝のしるしとして小船を作りました。「たのもさん」では家々が小さな船を作って四宮神社でお祓いを受け、日没後に厳島神社から海に流します。この時、小さなちょうちんが灯された船が幻想的な光景を生み出します。

【タイトル】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展示館 C）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전시관 C

전시관 C에서는 자료관 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흙벽 창고를 활용하여 미야지마 섬 목공예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관련 전시품들을 소개합니다. 목공예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발전하며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미야지마 섬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섬에서 자생하는 대부분의 나무는 다이묘(영주)의 소유물이었고 주민들에게는 벌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목공예 장인들은 대부분의 목재를 본토에서 들여와 사용했습니다.

전시품 중에는 미야지마 세공(미야지마 섬의 전통 목공예)의 공예품 중 하나인 ‘샤쿠시(주걱)’도 있습니다. 밥을 섞거나 뜸 때 사용하는 주걱입니다. 샤쿠시는 1700년대 후반에 미야지마 섬에서 개발되면서 이후 일본 전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섬세한 조각으로 디자인된 다양한 쟁반과 식기를 비롯해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도 호평받는 대형 샤쿠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예품 관람 외에도 목공예 전통 물레와 그 밖의 도구를 통해 목공예의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宮島歴史民俗資料館 : 展示館 C

展示館 C では資料館敷地の端に位置した小さな土壁倉庫を活用して宮島の木工芸の伝統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関連展示品を紹介します。木工は地元住民の間で発展し、1800年代から1900年代初期まで宮島の重要な産業でした。しかし、島の木のほとんどは大名（領主）の所有物だったため、住民は島での木の伐採を禁止されていました。その結果、地元の木工職人が使う木材のほとんどは、本土から持ち込まれました。

展示品の中には宮島細工（宮島の伝統木工芸）の工芸品のひとつである「飯杓子」もあります。飯を混ぜたり、すくったりする時に使用されるしゃもじのことです。飯杓子は 1700 年代後半に宮島で開発され、以降全国に広ま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細かい彫刻で装飾されたさまざまな盆や食器をはじめ、記念品やギフト用に喜ばれる巨大な飯杓子も展示されています。工芸品を鑑賞するだけでなく、木工用の伝統ロクロやその他の道具から木工の製作工程について学べます。

【タイトル】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展示館 D）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전시관 D**

현대적인 2 층 건물의 전시관 D에서는 12 세기 이후의 이쓰쿠시마 신사의 역사와 미야지마 섬에 관한 예술품, 토기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1 층에는 이쓰쿠시마 신사를 비롯해 미야지마 섬과 깊은 인연이 있는 무장 다이랴노 기요모리(1118~1181)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요모리는 교토의 귀족 문화를 미야지마 섬에 들여오면서 도읍의 상류 계층에 이쓰쿠시마 신사의 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헤이안 시대(794~1185)의 유력한 무장이자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영상 시어터에서는 기요모리의 공적과 미야지마 섬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영어 자막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야지마 섬과 헤이케모노가타리(※)와의 연관성을 소개하는 전시도 선보입니다.

(※)헤이케모노가타리: 12 세기 후반의 다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의 전투를 그린 영웅소설.

2 층에서는 미야지마 섬에 관한 회화와 지도, 사진, 가이드북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 작품 중 대부분은 에도 시대(1603~1868)에 제작되었는데, 지도처럼 섬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병풍과 에도 시대에 미야지마 섬에서 상연된 가부키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가 우타가와 히로시게(1797~1858)와 그의 계보를 잇는 20 세기 화가 가와세 하스이(1883~1957)의 우키요에(일본의 전통 목판화)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宮島歴史民俗資料館 : 展示館 D**

展示館 D は近代的な 2 階建ての建物であり、12 世紀以降の厳島神社の歴史と、宮島に関連した芸術品や土器などの資料が展示されています。

1 階は厳島神社および、宮島にゆかりのある武将・平清盛（1118～1181 年）に関する資料が展示されています。清盛は、京都の貴族文化を宮島にもたらし、都の上流階級のあいだで厳島神社の格を高めるの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平安時代（794～1185）の有力な武将で政治家でもありました。映像シ

アターでは、清盛の功績と宮島のドラマチックな歴史が、英語の字幕付きで詳しく紹介されています。他に、宮島と平家物語（※）との関わりを紹介する展示もあります。

（※）平家物語：12 世紀後半の平家と源氏の戦いを描いた英雄小説。

2 階では、宮島に関する絵画、地図、写真、ガイドブックなどを観覧することができます。展示作品のほとんどは江戸時代（1603～1868 年）に制作されており、地図のように詳しく島を描いた屏風、江戸時代に宮島で上演された歌舞伎に関する資料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画家の歌川広重（1797～1858 年）とその系譜をつなぐ 20 世紀の画家川瀬巴水（1883～1957 年）の浮世絵（日本の伝統木版画）も展示しています。

【タイトル】 宮島歴史民俗資料館 各展示館概要（代表民家）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미야지마 역사 민속 자료관: 대표 민가

보존 민가에서는 부유한 상인들의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 대표 민가에서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대표 민가는 에도 시대(1603~1868)에 일반 서민들이 미야지마 섬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전하기 위해 일반 민가를 복원한 것입니다. 미야지마 섬의 옛 민가는 길쭉한 모양새에 입구가 좁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슴이나 다른 야생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나무문을 달았습니다. 미야지마 섬에 있는 대부분의 민가는 해안과 산에 둘러싸인 길고 좁은 지역에 나란히 줄지어 들어서 있었습니다. 평평한 땅이 제한적이었던 섬에 되도록 많은 민가를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 민가에는 3 개의 방이 있습니다. 입구 옆방은 작업장이나 가게로 사용했습니다. 중간 방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었고 이곳에는 가족의 신단을 설치했습니다. 안쪽 방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안쪽 방문을 열면 집 뒤편에 있는 안뜰에서 햇볕을 실내로 들이거나 환기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안뜰에는 화장실과 목욕탕, 부엌도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입구에서 안뜰로 이어지는 봉당을 걸어 그 옆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宮島歴史民俗資料館：代表民家

保存民家が裕福な商人の暮らしを紹介する一方、この代表民家では一般的な庶民の暮らしをのぞくことができます。代表民家は江戸時代（1603～1868 年）に一般的な庶民が宮島でどのように暮らしていたかを伝えるために一般的な民家を復元したものです。宮島の古い民家は、細長く入り口が狭いのが特徴でした。また、鹿や他の野生動物が中に入らないよう、木の門扉を備えています。宮島の民家のほとんどは、海岸と山に挟まれた細長いエリアに並んで建っていました。平らな土地が限られていたため、そこにできるだけ多くの民家を建てようとしてのことでした。

代表民家には 3 つの部屋があります。入口の横の部屋は作業場または店舗として使われました。中の部屋は特別な機会にのみ使われ、ここには家族の神棚がありました。奥の部屋は居住の空間として使われたのです。奥の部屋の戸を開けると、家の裏手にある中庭から日差しと空気を取り入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

中庭には便所、風呂、台所もありました。これらの部屋は中に入ることにはできませんが、入口から中庭に至る土間を歩いてそばを通ることができます。

地域番号	011	協議会名	豊後高田市多言語解説協議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11-001	豊後高田市	1609	Web サイト
011-002	富貴寺	2698	Web サイト
011-003	真木大堂	1243	Web サイト
011-004	熊野磨崖仏	686	Web サイト
011-005	天念寺耶馬	1270	Web サイト
011-006	田染荘小崎地区	780	Web サイト
011-007	国東半島峯道ロングトレイル	545	Web サイト
011-008	豊後高田昭和の町	549	Web サイト
011-009	長崎鼻	403	看板・簡易リー フレット
011-010	富貴寺	986	看板・簡易リー フレット
011-011	真木大堂	658	看板・簡易リー フレット
011-012	熊野磨崖仏	398	看板・簡易リー フレット
011-013	天念寺耶馬	423	Web サイト
011-014	豊後高田市 概要	608	Web サイト
011-015	豊後高田市 季節の楽しみ方	480	Web サイト
011-016	長崎鼻 長崎鼻リゾートキャンプ場	936	Web サイト
011-017	長崎鼻 花の岬のオイル	411	Web サイト
011-018	長崎鼻 アート作品群	565	Web サイト
011-019	長崎鼻 長崎鼻ビーチリゾート	326	Web サイト
011-020	夷 夷の風景	679	Web サイト
011-021	夷 夷谷の寺社群	395	Web サイト
011-022	夷 六所神社	211	Web サイト
011-023	夷 夷谷温泉と寒晒しそば	276	Web サイト
011-024	鬼会 鬼会の里 歴史資料館	461	Web サイト
011-025	鬼会 天念寺耶馬	350	Web サイト
011-026	豊後高田昭和の町 概要	704	Web サイト
011-027	豊後高田昭和の町 食べ歩き	324	Web サイト
011-028	豊後高田昭和の町 一店一宝	294	Web サイト
011-029	豊後高田昭和の町 一店一品	297	Web サイト
011-030	豊後高田昭和の町 昭和ロマン蔵	551	Web サイト
011-031	豊後高田昭和の町 ボンネットバス	152	Web サイト

011-032	豊後高田昭和の町 駄菓子屋の夢博物館	547	Web サイト
011-033	豊後高田昭和の町 昭和の夢町三丁目館	426	Web サイト
011-034	豊後高田昭和の町 チームラボギャラリー昭和の町	429	Web サイト
011-035	豊後高田昭和の町 昭和時代とは	959	Web サイト

【タイトル】 豊後高田市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분고타카다시 신비롭고 기이한 마을

분고타카다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규슈 오이타현 구니사키 반도에 자리한 분고타카다시에는 시대를 초월해 이어져 온 유산과 놀라운 자연, 그리고 문화적인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교토나 도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은 확립화된 현대사회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매력과 독특한 풍토가 짙게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1,300 여 년 전 불교와 일본 고유의 신앙이 융합되어 탄생한 훌륭한 문화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구니사키 반도를 둘러볼 때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분고타카다시입니다. 분고타카다시는 인구가 많은 해안 지역에서부터 내륙을 향해 펼쳐져 있어서 푸릇푸릇한 농경지 사이를 오르다 보면 차츰 낮지만 험준한 산속을 헤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산들이 빗어낸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골짜기의 풍경은 수천 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의 화산암은 옛부터 석공들이 끌로 파내기에 가장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문이나 장엄한 절벽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로변이나 가택의 정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석공들의 예술적인 기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니사키 반도는 석조문화재의 보고라고 일컬어질 만큼 고대와 현대의 밀접한 연관성을 느끼게 하는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지역입니다.

도로와 영어 표지판이 잘 정비되어 있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목적지까지 이동하기에도 편합니다. 만약 좀 더 도전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기복이 심한 산속 도로를 본인의 발로 직접 걸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거에 짚신을 신은 수행자들이 걸었던 험준한 산길은 현재, 거리와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트레킹 코스로 정비되었습니다.

분고타카다시는 일본 국내에서도 손길이 닿지 않은 채로 보존된 숨겨진 보물창고로서 심오하고 수수께끼로 가득 찬 문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로쿠고만잔(六郷満山) 신앙에 기반한 독자적인 문화

구니사키 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쿠고만잔(六郷満山)’이라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쿠고만잔이란 이 지역에 산재한 천태종 사원군과 이곳에서 탄생해 번성한 문화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로쿠고는 ‘六郷(여섯 마을)’이라고 쓰는데 산맥으로 구분된 구니사키 반도의 6개 지역을 가리킵니다. 만잔은 ‘満山(많은 산)’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산’은 실제 산이 아니라, 바위 봉우리 속의 천연 동굴을 활용해 만든 ‘이와야(岩屋, 바위굴 집)’라는 이름의 수행장부터 2.5m가 넘는 호화로운 대형 불상을 모시고 승려들이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 조직했던 대규모 사찰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무수히 흩어져 있는 신앙의 장을 의미합니다. 구니사키 반도에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신앙이 융합되어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밀교와 산악신앙의 융합

구니사키 반도에서는 8~9세기경에 밀교와 고대의 산악신앙이 공존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인접한 우사시에 있는 우사 신궁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사 신궁은 일본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신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밀교와 고대 산악신앙이 유사한 특정 신을 숭배하고 참배하는 장소도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교리와 계율에도 양쪽 모두의 것이 뒤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 불교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전설 속의 요괴가 불교의 종교의례에서도 중심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원시적인 것부터 정교한 것까지 인상적인 디자인의 가면은 요괴를 구현한 것으로 여겨지며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요괴 가면은 지금도 지역의 일부 행사에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의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니사키 반도에 퍼진 독특한 정신성

과거 구니사키 반도에는 65곳 이상의 사찰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세 지역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 서쪽의 사찰은 학문 연구를, 중앙부의 사찰은 수행을, 동쪽의 사찰은 포교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사찰의 수는 감소했지만, 아직도 천태종의 밀교 사찰 31곳이 남아 있는 등 로쿠고만잔을 특징짓는 고유의 정신성은 이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011-001

<日本語仮訳>

豊後高田市 神秘的で不思議な町

豊後高田市によこそ。九州・大分県の国東半島に位置する豊後高田市には時代を超えて受け継がれてきた遺産と素晴らしい自然、そして文化的な見どころが数多くあります。京都や東京からは離れているこの地は、画一化された現代社会の影響を受けることなく、まるで時間が止まったかのような静かな魅力と独特な風土が色濃く残っています。どこでも、美しい自然の景観と、1300年以上前に仏教と日本固有の信仰が融合して生まれた素晴らしい文化の痕跡に出会うことができます。

文化的にも歴史的にも、国東半島を探索するときに拠点となるのは、豊後高田市です。豊後高田市は、人口の多い沿岸地域から内陸に向かって広がっており、青々とした農地の間を登っていくと、徐々に低いながらも険しい山々に分け入っていきます。山々が織りなす、底が見えないほどの深い谷の風景は数千年もの間、変わっていません。この山の火山岩は、昔から、石工がのみを振るうのに最適な材料でした。そのため、寺院の門や荘厳な断崖だけでなく、時には道端や家庭の庭先など様々な場所で、石工たちの芸術的な技巧を目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国東半島は石造文化財の宝庫と言われており、古代と現代の密接な結びつきを感じさせてくれる魅惑的で神秘的な所です。

道路と英語の標識がよく整備されているため、車でのドライブもしやすく、目的地へ容易にアクセスす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さらに挑戦的なことを経験したい方は、山中の起伏の多い道を自らの足で歩いてみるのをおすすめします。かつてはわらじを履いた修行者が歩いた険しい山道は、現在は、さまざまな距離と難易度を選べるトレッキングコースとして整備されています。

豊後高田市は、日本国内でも手つかずの知られざる宝の宝庫であり、奥深く、謎に満ちた文化があふれています。

六郷満山 信仰に基づく独自の文化

国東半島を理解するうえで、「六郷満山」を絶対に忘れてはなりません。六郷満山とは、この地域に展開した天台宗寺院群と、ここで誕生して栄えた文化の両方を指す言葉です。六郷（6つの郷）は「六郷」と書き、山筋によって隔てられた国東半島の6つの地域を指しています。満山（たくさんの山）は「満山」ですが、この「山」は山の意味ではなく、岩峰の中につくられた天然の洞窟を使って作られた「岩屋」と呼ばれる行場から、2.5メートルを超す豪華で大型の仏像を祀り、僧侶達が学問を修めるために組織されていた大規模な寺院に至るまで、この地域に無数に点在する信仰の場を表しています。国東半島では、長い年月を経る中でさまざまな信仰が融合し、独自の文化が形成されました。

密教と山岳信仰の融合

国東半島では、8～9世紀頃に、密教が古来の山岳信仰と共存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信仰の形は隣接する宇佐市にある宇佐神宮を中心として始まったものです。宇佐神宮は、日本国内で最も重要な神社の1つ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知名度は高くありません。密教と古来の山岳信仰は、共通の特定の神を崇拝し、参拝する場所も共有するという共通点を持つに至り、この信仰の形が日本中に広がっていきました。教義と戒律は両者のものが入り混じり、例えば、仏教時代以前からの伝説上の鬼が、仏教の宗教儀礼において中心的な存在となっています。原始的なものから精巧なものまで、印象的なデザインの面は、鬼を具現化したものとして長きに渡り使われてきました。鬼の面は、今も地元の一部の行事において、邪気を払い、幸運をもたらす儀式でみることができます。

国東半島に広がる独特な精神性

かつて国東半島には65を超える寺院が点在し、異なる機能を担う3つの地域に大きく分かれていました。そのうち西側の寺院は学問研究を、中央部の寺院は修行を、東側の寺院は布教活動を中心におこなっていました。寺院の数は今日では減少してしまいましたが、今なお31の天台宗の密教寺院が残っており、六郷満山を特徴付ける精神性は、この地域の隅々まで行き渡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富貴寺

【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후키지 절(富貴寺) 고대 미학의 연구

후키지 절 오도(大堂, 대당) 산문 사찰을 지키는 인왕상

후키지 절로 들어가는 입구는 시 중심부에서 남동쪽으로 차를 타고 15분 정도 거리의 작은 계곡 사이 구석진 곳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 양 옆에는 에도 시대(1603~1867)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2구의 인왕상이 대좌 위에 무서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인왕상은 지역의 특산물인 안산암이라는 암석에 새긴 것인데, 안산암은 그 부드러운 성질 때문에 조각에 가장 이상적인 암석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문에 안치되는 인왕상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상은 입을 벌린 ‘아(阿)’ 모양을, 왼쪽 상은 입을 다문 ‘흠(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와 ‘흠’은 각각 산스크리트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불교 세계에서 ‘아흠’이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뜻합니다.

인왕상은 지붕 아래에서 보호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닳고 색이 바랜 모습은 문 너머의 오래되고 아름다운 사찰 경내의 풍경을 미리 알려주는 듯합니다.

오도와 아미타여래상

둘레단을 올라가면 두 그루의 거대한 나무가 나타납니다. 왼쪽의 비자나무, 오른쪽의 은행나무는 차분하면서도 장엄한 오도를 지키듯이 우뚝 서 있습니다. 오도는 구니사키의 불교 유산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승배의 대상입니다. 오도는 헤이안 시대(794~1185) 후기에 아미다도(阿彌陀堂, 아미타당)로 창건되었으며 그 안에는 신자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아미타여래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인근 우사 신궁의 최고위 신관인 대궁사의 지시로 지어졌다고 추정되는데, 호를 그리는 듯한 지붕의 선은 불교의 신성한 동물 중 하나인 봉황의 날개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후키지 절은 규슈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이와테현 주손지 절의 곤지키도(金色堂, 금색당), 교토부 묘도인 절의 호오도(鳳凰堂, 봉황당)와 함께 3대 아미다도 중 하나로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도 자체와 내부에 안치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상은 비자나무로 제작되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비자나무는 높이가 3,000m에 가까워서 마을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합니다. 나무꾼들이 나무를 베어내려 했지만, 아무리 베어도 매일 밤이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간신히 나무를 베어내는 데 성공했고 아미다도를 지은 후 남은 목재는 소의 등에 실어 다른 사찰로 옮겨졌다고 전해집니다.

후키지 절의 오도는 나무들로 둘러싸인 숲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아미다도의 내부 옛 모습

아미다도의 내부는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창건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아미타여래가 인도하는 극락정토의 세계에 걸맞게 모든 장소에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녹색 등의 밝은 색채가 사용되었고 벽면 대부분에는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덮인 높이 86cm의 아미타여래좌상은 낮이면 처마 밑으로 새어 들어오는 은은한 빛에 휩싸이고 밤이면 흔들리는 촛불의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며 빛났을 것입니다.

아미타여래상 주변을 둘러싼 4개의 기둥에서는 현재 비자나무의 나뭇결만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화려한 불화로 뒤덮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 뒤편의 벽에는 아름다운 극락정토의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참배객들은 중앙에 안치된 아미타여래상 주변을 시계방향으로 돌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장에는 극락정토의 모습을 묘사한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색이 바랜 탓에 잘 보이지 않지만, 눈이 어둡게 익숙해지면 서서히 떠오르듯 눈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미의식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불교의 선(禪)과 다도의 미의식에 영향을 받아 예술이나 건축에서도 보다 차분하면서 세련된 양식이 중시되었던 것입니다. 밝은 색채의 사용은 꺼려진 반면, 오래되고 허름한 정취를 칭송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찰 등의 건물도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노후화를 그대로 살리려 애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근처에 폭탄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크게 손상되는 일 없이 수리와 보호라는 노력을 통해 변함없는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현재에 전하고 있습니다.

※인근 우사시에 있는 오이타현립 역사박물관에는 창건 당시의 영화로움을 재현한 후키지 절 오도의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화려한 사당 내부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찰의 경내 요괴 가면과 다양한 석조물

문을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매일 의식이 치러지는 본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초가지붕이었던 쇼와 30년대(1955~1964)의 본당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2027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당 왼쪽 방에 장식된 3개의 오래된 가면은 산악신앙 시대부터 전해진 것으로 요괴의 춤에 사용됩니다. 요괴는 이 지역의 독특한 종교적 유산과 관련이 있어서 인근의 텐넨지 절에서 매년 성대하게 치러지는 종교의례에도 등장합니다.

후키지 절 경내와 주변에는 구니사키 반도의 석조 역사와 예술성을 보여주는 여러 불상과 조각들이 있습니다. 건물 왼쪽 방향에는 희귀한 석조물이 서 있습니다. 자그마한 석조물에는 사후 세계에서 생전 죄의 무게에 따라 지옥으로 보낼지 윤회시킬지를 결정한다는 10명의 왕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경내에도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개의 석탑이 있습니다. 큰 쪽의 입탑과는 꼭대기 부분이 수행자의 삿갓을 본뜬 듯한 모습입니다. 작은 쪽의 오른탑은 당시 왕성한 신앙이었던 밀교 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구체와 삼각형 등 5개의 돌을 쌓아 올려 만들었습니다. 이 5개의 요소는 아래에서부터 땅, 물, 불, 바람, 하늘을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비자나무 전설

오래전 옛날, 머위가 우거진 다시부 마을의 조용한 골짜기에 비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비자나무는 매우 커서 아침에는 강까지, 저녁에는 논까지 그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설 속의 승려, 님몬은 이 영험한 곳에 영지(기도처)를 열기로 결심하고 아미타여래상을 안치할 사당을 건립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이 사당을 지을 재료로 삼기 위해 거대한 비자나무를 베려고 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베어도 다음날이면 나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해했는데, 어느 날 이 나무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하던 식물이 ‘매일 매일 그날 생긴 톱밥을 불태워라. 그리 하면 나무를 베어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언을 그대로 따른 덕분에 마침내 나무를 베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님몬 스님의 명령에 따라 이 한 그루의 거대한 비자나무로 훌륭한 사당과 아미타여래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던 나무는 소의 등에 실어 옮기려 했지만, 소가 현재의 마키오도(眞木大堂, 진목대당)가 있는 곳에 멈춰 선 채 더 이상 앞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국보인 후키지 절에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현재 이 성스러운 장소에는 비자나무가 다시 크게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평온을 주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011-002

<日本語仮訳>

富貴寺 古代美学の研究

富貴寺大堂山門 寺院を守る仁王像

富貴寺への入口は、市の中心部から南東へ車で15分ほどの小さな谷間の片隅に静かにたたずんでいます。門の両脇には、江戸時代（1603～1867）に作られたとされる2体の仁王像が、台座の上に恐ろしい形相で立っています。この仁王像は地元特産の安山岩という岩石に彫っており、安山岩は、柔らかい性質により、彫刻には理想的な岩石とされています。一般的に寺院の門に安置されている仁王像と同様に、右の像は口を開いた「阿」（あ）の形、左の像は口を閉じた「吽」（うん）の形をしています。「阿」と「吽」はそれぞれサンスクリット文字の最初と最後の文字であり、このことから、仏教の世界で「阿吽」は、すべての物事の始まりと終わりを表しています。

仁王像は屋根の下で守られてはいますが、年月を経てすり減り、色褪せた姿は、その先にある境内全体の古びた美しさを予感させてくれます。

大堂と阿弥陀如来像

石段を上がりきると2本の巨木があります。左側のカヤの木、右側のイチヨウの木は、落ち着いた荘厳な大堂を守るようにそびえ立っています。大堂は国東の仏教遺産の中でも特に重要な崇敬対象です。大堂は、平安時代（794～1185）後期に阿弥陀堂として創建され、その中に信者を極楽浄土へ導く阿弥陀如来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この建物は近隣にある宇佐神宮の最高位の神官である大宮司の指示に従って建立されたと考えられており、弧を描くような屋根のラインは、仏教における神聖な動物の1つである鳳凰の翼を思わせる姿で描写されています。

富貴寺は、九州において現存する最古の木造建築物です。岩手県の中尊寺金色堂、京都府の平等院鳳凰堂と並ぶ三大阿弥陀堂の1つとされ、国宝に指定されています。大堂自体と、内部に安置されている阿弥陀如来像はカヤ材で制作されていますが、伝説によると、このカヤの木は高さが3,000m近くあり、村全体に影を落としていました。木こりたちが木を伐り倒そうと試みましたが、いくら切っても切っても、毎晩元通りの姿に戻ってしまいました。しかし、努力の結果なんとか伐り倒すことに成功し、阿弥陀堂を建てた後に余った木材は、牛の背に載せられて別のお寺へ運ばれてい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

富貴寺の大堂は、森の木々に囲まれた中で、四季の移ろいを静かに見守りながら堂々と立っています。

阿弥陀堂の内部 往時の姿

阿弥陀堂の内部は長い年月を経ており、創建当時の様子はどうであったかを想像するの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元々は、阿弥陀如来が導く極楽浄土の世界に相応しく、あらゆる所に、赤、黄、青、緑といった明るい色彩が使われ、壁面の大部分には鮮やかな壁画が描かれていました。金箔で覆われた高さ86cmの阿弥陀如来坐像は、昼は軒下から差し込む穏やかな光に包まれて、夜は揺らめく蠟燭の明かりに照らされて光り輝いていたことでしょう。

阿弥陀如来像の周囲を囲む4本の柱は、現在はカヤの木の木目が見えるのみですが、かつては鮮やかな仏画で覆われ、さらに像の背後の壁には美しい極楽浄土の風景が描かれていました。参拝者は、中央に安置された阿弥陀如来像の周囲を時計回りで回りながら祈りをあげました。天井には、極楽浄土を描いたたくさんの絵が描かれています。これらの絵はとても色あせていて見えにくいですが、目が暗さに慣れてくると徐々に浮かび上がるように見えてきます。

室町時代（1336～1573）になると、日本の美意識に大きな変化が生じました。禅と茶道の美意識の影響を受け、芸術や建築においても、より落ち着いた、洗練された様式が重んじ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明るい色彩の使用は敬遠されて、古びた趣きが称えられるようになり、寺院などの建物は、経年による劣化がそのまま活かされました。第二次世界大戦当時には近くに爆弾が落とされたものの、幸いにして大きな損壊もなく、修理や保護の賜物で、変わらぬ美しさと穏やかさを今に伝えています。

※近隣の宇佐市にある大分県立歴史博物館では、創建当時の栄華を再現した富貴寺大堂の原寸大模型が展示されており、色鮮やかな堂内の様子を体験できます。

寺院の境内 鬼の面と多様な石造物

門を入ってすぐ右側には、毎日の儀式が行われる本堂があります。2025年現在は、茅葺だった昭和30年代（1955～1964）の本堂の形状を復元する工事をしていますが、2027年度には工事が完了する予定になっています。本堂の左側の部屋に飾られている3つの古いお面は、山岳信仰の時代から伝わるもので、鬼の舞で使用されるものです。鬼は、この地域独特の宗教的遺産と結びついており、近隣の天念寺で毎年行われる賑やかな宗教儀礼にも登場します。

富貴寺の境内と周囲には、国東半島の石造りの歴史と芸術性を示す沢山の仏像と彫刻があります。建物の左手方向には、珍しい石造物が立っています。小さいのですが、死後の世界で生前の罪の重さに応じて地獄へ送るか輪廻させるかを決めるという10人の王が精巧に彫られています。また、境内にも亡くなった人を供養するためのさまざまな石塔があります。大きい方の笠塔婆は、頂部が修行者の笠を模した形状になっています。小さい方の五輪塔は、当時盛んに信仰されていた密教の思想に基づくもので、球体や三角形など5つの石が積み上げられています。この5つの要素は、下から上に、地、水、火、風、空を象徴しているとされています。

カヤの木の伝説

昔々、田染村のフキが生い茂る静かな谷に1本のカヤの木が立っていました。このカヤの木は非常に大きな木で、朝は川の方まで、夕方には田んぼの方にまでその影を落としていたそうです。

ある日、伝説の僧侶・仁聞は、この不思議な場所に霊場（祈りの場）を開くことに決め、阿弥陀如来像を安置するためのお堂を建立するよう命じました。しかし、木こりが、お堂を建てる材料にしようと巨大なカヤの木を切ろうとしたときに、奇妙なことが起こりました。いくら切っても次の日には、木は元の状態に戻っているのです。木こりはいったいどうすればよいのかわからず、困り果てていましたが、ある日、この木のせいで日の光を浴びることができない植物が、「毎日毎日、その日に出たおが屑を燃やしなさい。そうすれば木を伐り倒す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というのです。この助言のおかげで、とうとう木を伐り倒す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仁聞の命令に従い、この1本のカヤの巨木から立派なお堂と阿弥陀如来像が建立されました。それでもまだ残った木は、牛の背に載せられて運ばれていきましたが、牛は、現在真木大堂がある場所で止まってしまい、それ以上先へ進まなくなってしまったそうです。

これが、国宝の富貴寺に伝わる伝説です。現在、この聖地にはカヤの木が再び大きく育ち、多くの人に安らぎを与えています。

【タイトル】 真木大堂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마키오도(眞木大堂, 진목대당) 불교의 중요한 보물을 간직한 성지

마키산 덴조지 절은 옛날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던 곳으로 구니사키 반도의 최대 사찰 중 하나로서 크게 융성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후키지 절을 건립하고 남은 거대한 비자나무를 옮기던 소가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곳이 바로 이 자리였다고 합니다. 헤이안 시대(794~1185)에 제작된 최고급 걸작 목조불상이 여러 구 소장되어 있는데, 그 모두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현재에도 매우 중요한 사찰로 여겨집니다. 수장고는 새로 지은 건축물이지만, 소장된 불상의 존재감이 압도적이고 강렬해서 밀교의 숭고한 위상에 걸맞다고 평가됩니다.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는 불상들이지만,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구니사키 반도의 산들에서 탄생한 역사적이면서 신비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미타여래상

수장고 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불상은 아미타여래좌상입니다. 편백나무를 재료로 사용해 요세기즈쿠리(여러 목재를 조합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방식) 기법으로 만들었으며 갑옷을 입은 사천왕이 지키고 있습니다. 높이는 216cm, 차분한 표정으로 명상을 하는 온화한 모습은 사천왕의 움직임이 있는 포즈와는 확연히 대조적입니다. 피부색이 검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금박이 벗겨지면서 옷칠을 입힌 바탕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형태는 일반적인 아미타여래상보다 덜 둥글고 손은 사람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명왕상

아미타여래 오른쪽에는 수호신인 부동명왕의 희귀한 입상이 2구의 시자와 함께 안치되어 있습니다. 목조 부동명왕상으로는 일본 최대급으로 높이가 250cm를 넘습니다. 과장된 모습의 외형은 사악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구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칠은 벗겨져 떨어졌지만, 비스듬히 걸친 가사(승려가 장삼 위에 걸쳐 입는 법의)에는 본래의 남색이 지금도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투명한 오른쪽 눈은 하늘을, 탁한 왼쪽 눈은 땅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번뇌를 끊는다고 전해지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가루라라는 상상 속의 거대한 새가 입에서 불을 내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에도 시대(1603~1867)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위덕명왕상

아미타여래좌상 왼쪽에는 물소를 탄 모습의 목조 대위덕명왕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241cm로 목조 대위덕명왕상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큼니다. 대위덕명왕도 부동명왕과 마찬가지로 밀교의 5대 명왕 중 한 명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이름인 ‘야만타카’가 ‘죽음의 신을 물리치는 자’를 의미하는 만큼 전쟁의 신으로 숭배되는 것도 납득이 가는 존재입니다.

물소의 머리와 몸이 마치 실물처럼 매우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위에 타고 있는 대위덕명왕의 여섯 얼굴, 여섯 팔, 여섯 다리(육면육비육족)라는 과장된 신체적 특징이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 물소는 후키지 절의 비자나무 전설과 관련이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더 오래된 인도나 중국의 전설에도 대위덕명왕이 물소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비자나무 전설과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011-003

<日本語仮訳>

真木大堂 仏教の至宝を収める聖域

馬城山伝乗寺は、その昔、修行者が修行を行う場所であり、国東半島最大の寺院の1つとして隆盛を極めました。伝説によれば、富貴寺建立後に残ったカヤの巨木を運んできた牛が疲れ果て、それ以上先へ進まなくなってしまった場所がここだと言われています。平安時代（794～1185）に作られた最高傑作の木彫仏像が複数収蔵されており、それらがいずれも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現在でも非常に重要な寺院です。収蔵庫は新しい建築物ですが、収蔵されている仏像の存在感は圧倒的かつ強烈で、密教における崇高な地位に相応しいものです。不思議なオーラをまとったこれらの仏像ですが、いつどこから来たのか明確な記録はありません。これもまた、国東半島の山々に育まれた歴史的、神秘的な謎の1つと言えるかもしれません。

阿弥陀如来像

収蔵庫の中で特に注目すべき仏像は、阿弥陀如来坐像です。ヒノキ材の寄木造り（複数の木材を組み合わせて一つの作品を作り上げる方式）で作られており、甲冑をまとった四天王に守られています。高さは216cmあり、落ち着いた表情で瞑想する穏やかな姿は、四天王の動きのあるポーズとは明らかに対照的です。肌の色が黒く見えますが、これは、金箔が剥がれ、漆塗りの地肌が見えているためです。顔の形は、一般的な阿弥陀如来像よりも丸みが少なく、手は、人を極楽浄土へ導くことを意味する形を作っています。

不動明王像

阿弥陀如来の右側には、守護神である不動明王の珍しい立像が、2体の侍者とともに安置されています。木彫の不動明王像としては日本最大級であり、高さは250cmを超えます。誇張した外見は、邪悪さを表しているのではなく、人々を怖がらせて救済を受け入れさせるものです。ほとんど剥げ落ちてしまっていますが、ななめにかけられた袈裟（僧侶が緇衣の上に着る法衣）に塗られていた藍色が今でもわずかに残っているのがわかります。右目は澄んで天を見つめ、左目は濁って地を見下ろし、右手には、煩惱を断ち切ると伝えられる剣を持っています。そして背後には、迦楼羅という想像上の大きな鳥が口から火を吐く様子が表現されています。この部分はおそらく江戸時代（1603～1867）に追加されたもの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

大威徳明王像

阿弥陀如来坐像の左側には、水牛に跨った姿の木彫大威徳明王が安置されています。高さは

241cmで、木彫の大威徳明王像としては日本最大です。大威徳明王も、不動明王と同じく、密教における五大明王の1人です。サンスクリット語での名前「ヤマーンタカ」は、「死の神をも倒す者」という意味で、戦いの神として信じられているのも頷けます。水牛の頭と体がまるで実物のように表現されていることで、上に跨る大威徳明王の6つの顔、6つの腕、6つの脚（六面六臂六足）という誇張された身体的特徴が際立っています。この水牛は、富貴寺のカヤの木の伝説と結びつく存在ですが、さらに古いインドや中国の伝説でも大威徳明王と関連して水牛が登場するため、カヤの木の伝説との関連性は定かではありません。

【タイトル】 熊野磨崖仏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구마노 마애불 암벽에 새겨진 불교 예술

분고타카다 시내에 있는 수많은 석불 중에서도 가장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구마노 마애불일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반에 돌을새김 기법으로 부동명왕과 대일여래 2구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구마노 마애불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보러 올라가려면 약간의 고생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간에 있는 돌계단은 돌이 난잡하게 늘어서 있어 걷기가 힘든데다가 올라갈수록 더욱 경사가 급해지기까지 합니다. 옛날 이 근처에는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는 나쁜 요괴가 살고 있었는데 구마노 신사의 신이 요괴에게 ‘하룻밤만에 신사까지 돌계단을 쌓으면 지금까지의 잘못을 용서해주겠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요괴들이 서둘러 돌을 날라 쌓은 것이 이 돌계단이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에 서 있는 2구의 불상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훌륭해서 힘들게 돌계단을 올라온 고생도 말끔히 잊게 해줍니다.

2구의 마애불 중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부동명왕의 상입니다. 높이는 8m를 넘으며 헤이안 시대(794~1185)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눈을 옮기면 부조의 질이 매우 높아 보이는 대일여래상이 있습니다. 높이는 약 6.8m로 헤이안 시대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일여래는 우주를 상징하는 부처로 여겨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 위에 3개의 만다라가 새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교에서는 힘든 수행과 밀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2구의 마애불은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마애불에서 좀 더 돌계단을 올라가면 구마노 신사가 나타납니다. 마애불로 올라가는 입구는 긴 등산로의 입구이기도 해서 접수처에서는 험한 산길을 좀 더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팡이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熊野磨崖仏 岩壁の仏教芸術

豊後高田市内に数多くある石仏のうち、最も畏敬の念を抱かせるものはなんといっても熊野磨崖仏でしょう。自然の岩盤に仏像が浮き彫りされており、不動明王と大日如来の2体があります。熊野磨崖仏は山中にあるため、鑑賞するためには、ある程度の苦勞が必要です。特に、途中にある石段は石が乱雑に並べられた歩みにくいもので、さらにこの石段が登るにつれて急になっていきます。その昔、この辺りには村人たちが食べる悪い鬼が住んでいて、熊野神社の神が鬼に対し、「一晩のうちに神社までの石段を築いたなら、これまでの過ちを許そう」と言い、それを聞いた鬼たちが急いで石を運び築き上げたのがこの石段だと言われています。しかし、山奥にたたずむ2体の仏像は、目を見張るほどに素晴らしいもので、大変な石段を山奥まで登ってきた疲れも忘れさせてくれます。

2体の磨崖仏のうち、まず目に留まるのは、不動明王像です。高さは8mを超え、平安時代（794～1185）末期に彫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そして、右の方に進んでいくと、浮き彫りの質が明らかに高い大日如来像があります。高さは約6.8mあり、平安時代中期に彫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大日如来は、宇宙を象徴する仏とされています。注意深く見ると、頭上に3つの曼陀羅が彫られているのが分かります。密教では、困難な修行と秘密の教えの実践により、極楽浄土に行けるとされており、この2体の磨崖仏は、それを象徴する存在です。磨崖仏からもう少し石段を登ると熊野神社があります。磨崖仏への登り口は長い登山道の入口でもあり、受付では、険しい道での歩行を助ける杖を貸し出しています。

【タイトル】 天念寺耶馬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텐넨지 절(天念寺) 슈젠도의 유산**

텐넨지 절의 강당은 천연 절벽으로 둘러싸이듯이 서 있는데 이렇게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 건축물은 흔히 볼 수 없습니다. 텐넨지 절은 헤이안 시대(794~1185)에 건립된 이후 수백 년 동안 깨달음을 구하며 혹독한 수행을 하는 슈젠도라는 종교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니사키 반도에서는 로쿠고만잔(六郷満山, 로쿠고는 고대 구니사키 반도의 여섯 마을을, 만잔은 이 지역에 모여 있는 여러 사찰을 의미합니다)의 승려들이 수행을 위해 산에 들어가는 미네이리가 행해졌습니다. 텐넨지 절 뒤편에 펼쳐진 텐넨지야바도 그러한 수행의 장입니다. 체력이 좋은 분께는 험준한 산길을 따라 능선까지 올라가서 텐넨지 절을 내려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좀 더 가볍게 수행을 체험해 보고 싶은 분이라면 능선을 올라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는 두 바위 사이의 좁은 틈에 무묘바시라는 이름의 아치형 돌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미네이리를 위해 산에 들어간 수행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또한 텐넨지 절 앞을 흐르는 강 중앙에는 거대한 바위 표면에 새겨진 부동명왕상이 위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신토(神道, 신도)의 공존

텐넨지 절은 불교 사찰이지만, 커다란 도리이와 더불어 안에는 신사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는 불교와 일본 고유의 정령 신앙인 신토가 융합된 신앙의 한 형태로 신불습합이라고 합니다. 신불습합은 분고타카다시 서쪽에 있는 우사 신궁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며, 불교와 신토가 완전히 융합되지는 않았지만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정부가 둘을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공존해 왔습니다. 구니사키 반도에는 메이지 정부의 분리 정책을 상당 부분 비껴간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텐넨지 절은 이 지역 여기저기에 지금도 흩어져 있는 신불습합 사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례의 하나로 꼽힙니다.

요괴 종교의례 슈조오니에

불교와 신토가 융합된 형태의 오래된 신앙은 사찰과 신사의 공존뿐 아니라, 활기찬 분위기의 전통적인 종교의례에도 그 개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례는 음력 1월 7일에 개최되는데, 법라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신사 앞을 흐르는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시냇물에서 참가자들이 몸을 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횃불을 피워서 텐넨지 절 경내로 옮긴 후, 돌로 된 건물의 바닥에 횃불을 내던지며 횃불끼리 서로 부딪히게 합니다.

슈조오니에의 클라이막스

슈조오니에가 무르익으면 요괴 가면을 쓴 2명이 빙글빙글 돌거나 뛰어오르며 힘차게 춤을 추고 환희에 찬 관중을 향해 횃불의 불뿔을 흠뻑 뿌립니다. 요괴는 사나운 외모를 지녔지만 부처님의 화신으로 온 좋게 불뿔을 맞은 사람들에게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슈조오니에가 최고조에 이르면 요괴는 법력이 담긴 횃불로 신자들의 등과 허리를 치는데, 이를 맞으면 1년 동안 건강하다는 등의 영험이 있다고 해서 신자들은 앞다투어 횃불의 불뿔을 맞으려 줄을 섭니다.

이 종교의례가 수백 년에 걸쳐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와 불꽃에도 이 낡은 목조 건축물이 무사히 보존된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덴넨지 절 근처의 오니에노사토 역사자료관에서 이 종교의례의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어 현장감 넘치는 영상을 통해 슈조오니에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011-005

<日本語仮訳>

天念寺 修験道の遺産

天念寺の講堂は天然の崖に囲まれるように建てられており、これほど周囲の環境と融合した建造物は珍しいです。天念寺は、平安時代（794～1185）に建立されてから数百年もの間、悟りを求めて厳しい修行を行う修験道という宗教から強く影響を受けてきました。国東半島では、六郷満山（六郷とは古代国東半島の6つの郷を、満山とは寺院の集合を意味しています）の僧侶たちが修行のため山に入る峯入りを行ってきました。天念寺の後背に広がる天念寺耶馬もその修行の場です。体力が良い方には、険しい山道を尾根まで登り、天念寺を見下ろしてみ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より気軽に修行を体験してみたいと思う方なら、尾根を見上げてみることで十分です。そこには、2つの岩の狭い裂け目に無明橋というアーチ形の石橋が架けられています。ここが峯入りのために山に入った修行者たちが歩いた道です。また、天念寺の前を流れる川の中央では、巨石の表面に彫られた不動明王像が睨みを利かせています。

仏教と神道の共存

天念寺は仏教寺院ですが、大きな鳥居もあり、その奥には神社の社殿があります。これは、仏教と、日本固有の精霊信仰である神道が融合した信仰形態であり、神仏習合と呼ばれています。神仏習合は、豊後高田市の西にある宇佐神宮で始まったとされており、仏教と神道は、完全に融合することはなかったものの、明治時代（1868～1912）になり、政府が両者を分離する政策を行うまで、数百年にわたって共存してきました。国東半島には明治政府の分離政策を相当部分逸れることができた地域があり、中でも天念寺は、この地域に今も点在する神仏習合の寺院のうち、もっとも優れた例の1つです。

鬼の宗教儀礼 修正鬼会

仏教と神道が融合した古い形の信仰形態は、寺院と神社が共存する構成にあらわれているほか、活気あふれる伝統的な宗教儀礼にも、その概念が息づいています。この宗教儀礼は、旧暦の1月7日に開催され、法螺貝の音が谷に響きわたり、神社の前を流れる凍えるような溪流で参加者が身を清めることから始まります。そして、巨大な松明を焚いて、それを天念寺の境内に運び込んだ後、建物の石製の床に松明を叩きつけ、松明同士もぶつけます。

修正鬼会のクライマックス

修正鬼会が盛り上がってくると、鬼の面を被った2人組が、ぐるぐる回ったり、飛び跳ねたりしながら勢いよく踊り、歓喜にわく観衆に松明の火の粉をまき散らします。鬼は獰猛な外見をしていますが、仏の化身であり、運よく火の粉に触れた人々から邪気を払い、幸福と繁栄をもたらすと言います。修正鬼会が最高潮に達する

と、鬼は法力を込めた松明で信者たちの背中や腰を打ちますが、その事で1年の健康などの霊験があると言われ、信者たちが我先に松明の火の粉を浴びようと並びます。

この宗教儀礼は何百年にもわたって行われてき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熱と炎からこの古い木造建築物が無事に保存されたのは奇跡的なことです。なお、天念寺に隣接する鬼会の里歴史資料館では、この宗教儀礼の様子を撮影したビデオを上映しており、臨場感あふれる映像で修正鬼会を体感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田染荘小崎地区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다시부노쇼 지난날의 번영을 그리다**

분고타카다시에서 세월을 건넌 것은 석조 문화재뿐만이 아닙니다. 시가지에서 차로 조금만 달리면 다시부노쇼라는 농촌 풍경이 펼쳐집니다. 고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이곳의 경관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험준한 산들이 마치 이곳을 지켜준 듯, 논두렁은 완만하게 경사진 지형을 따라 불규칙한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과거 우사 신궁이 소유했던 영지로 신께 봉헌하기 위한 쌀을 생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니사키 반도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시스템은 물을 모아두는 저수지군을 포함한 몇몇 독자적인 특징이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며 세계농업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골짜기를 둘러싼 상수리나무 숲은 비를 여과하는 자연 필터로서의 역할과 함께, 예로부터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 주는 표고버섯의 재배에도 이용되었습니다. 숲속의 나무 그늘을 걷다 보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통나무가 자주 눈에 띕니다. 다시부노쇼는 자연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해 온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이 현재도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 장소입니다.

관음보살의 눈빛

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려면 다시부노쇼를 크게 돌면서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의 최서단에는 아마비키 신사의 도리이가 있는데, 과거에는 봄이 되면 여기에서 샘솟는 물로 아래쪽에 펼쳐진 모든 논에 물을 댔습니다. 불거리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동쪽의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멋진 다시부노쇼의 풍경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2곳의 전망 지점에 닿게 됩니다. 이 2곳의 전망대는 암벽이 움푹 들어간 곳에 새겨진 관음보살상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동쪽의 전망대는 ‘아사히(아침 해)’, 서쪽의 전망대는 ‘유히(석양)’라고 불립니다. 관음은 자신의 깨달음은 뒷전에 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비심 깊은 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풍요로운 지역이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신과 부처님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지켜봐 주신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日本語仮訳>**田染荘 往時の繁栄を偲ぶ**

豊後高田市で年月を経てきたものは石造文化財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市街地から車で少し走ったところ
に、田染荘という農村の風景が広がっています。古地図からも確認できますが、過去1000年以上にわたり景

観の変化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周囲の険しい山に守られるように、水田の畔が、緩やかに傾斜する地形に沿って不規則なカーブを描いています。この地区は、かつて宇佐神宮が所有する領地であり、神に捧げるための米が作られていました。

持続可能な農業システム

国東半島で行われている農業システムは、水を貯めておくための貯水池群と、いくつかの独自の特徴が、世界的に価値あるものとして、世界農業遺産に認定されました。谷を囲むクスギの森は、雨を濾過する自然のフィルターとして機能するとともに、昔から、土地を肥沃にしてくれるシイタケの栽培に利用されています。森の木陰を歩くと、シイタケを栽培するための丸太を多く目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田染荘は、自然の中で数百年にわたり発展してきた持続可能な農業システムが、現在も変わらず行われている場所です。

観音菩薩のまなざし

水田の美しい風景を鑑賞するには、田染荘を広く歩いて回り、さまざまな視点から眺めてみ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地域の最西端には、雨引神社の鳥居があり、かつては春になると、ここから湧く水が、下方に広がるすべての水田に引かれていました。見どころはこ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東側の狭い道を登っていくと、素晴らしい田染荘の風景全体を一望できる2つの展望地点にたどり着きます。この2つの展望台は、岩壁のくぼみに彫られた観音菩薩像の名をとって命名されており、東側の展望台は「朝日」、西側の展望台は「夕日」と呼ばれています。観音は、自身の悟りを後回しにして他者を助ける、慈悲深い菩薩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この自然豊かな地域が存続してきたのは、神様や仏様が慈悲深いまなざしで見守ってくれているおかげなのかも知れません。

【タイトル】 国東半島峯道ロングトレイル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롱 트레일 수행자의 발자취를 더듬다**

구니사키 반도는 과거 1,000년 이상 동안 슈젠도의 수행자들이 수행을 실천해 온 곳입니다. 그 수행의 하나로 검소한 흰 옷차림에 각반과 짚신을 착용하고 여러 사찰을 들르며 끊임없이 걷는 ‘미네이리’(능선 걷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우 고생스러운 이 수행 덕분에 구니사키 반도에는 산들을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하는 훌륭한 길의 유산이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넓은 골짜기와 거의 수직으로 된 화산암 봉우리들을 가로지르는 산길과 옛길을 이은 123km의 길이 ‘구니사키 반도 미네미치 롱 트레일’로 정비되었습니다.

트레킹 루트 선택하기

총 10개의 코스로 이루어진 롱 트레일 중 분고타카다 시내에는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각 코스에는 중요한 장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최남단 코스는 바위 절벽에 불상이 새겨진 구마노 마에불에서 시작해 뛰어난 불상이 모셔져 있는 마키오도(眞木大堂, 진목대당)를 경유한 후, 푸릇푸릇한 논이 펼쳐진 다시부노쇼에 다다르게 됩니다. 또한 후키지 절이나 덴넨지 절 등 역사적인 건축물의 흔적을 더듬어 나가며 걷는 코스도 있습니다. 어느 코스든 10km에서 15km 정도의 거리로, 이 지역 전체에 감도는 영적 연결고리를 느끼면서 인상적인 풍경 속을 걸을 수 있습니다. 코스의 난이도는 다양해서 산책 정도로 부담이 없는 장소도 있지만, 수직 암벽에 박힌 체인에 의지해 올라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ロングトレイル 修行者の足跡をたどる**

国東半島では、過去1000年以上にわたり、修験道の行者たちが修行を行ってきました。その修行の一つに、質素な白装束、脚絆、わらじを着用し、様々な寺院を巡って歩き続ける「峯入り」（尾根を歩く）というものがありました。とても大変なこの修行により、国東半島には、山々を縦横に結ぶ、素晴らしい道の遺産が残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現在、広い谷やほぼ垂直な火山岩の峰々を横切る、山道と古道をつないだ 123kmの道が、「国東半島峯道ロングトレイル」として整備されています。

トレッキングのルート選択

全部で10コースからなるロングトレイルのうち、豊後高田市市内には4つのコースがあります。各コースには重要な場所が多く含まれており、例えば、最南端のコースは、岩の崖に仏像が彫られた熊野磨崖仏から始まり、見事な仏像が祀られている真木大堂を経由して、みずみずしい水田が広がる田染荘に達します。また、富貴寺や天念寺など歴史ある建造物をたどって歩くコースもあります。いずれのコースも、10kmから15km程度の距離で、この地域全体に漂うスピリチュアルな繋がりを感じつつ、印象的な風景の中を歩くことができます。コースの難易度は様々で、散策程度の負担のない場所もある一方で、垂直の岩壁に埋め込まれた鎖を頼りにして登らなければならない箇所もあります。

【タイトル】 豊後高田昭和の町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체험

약간 오래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분고타카다시 중심부에 있는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을 방문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쇼와 시대(1926~1989)에서도 쇼와 30년대(1955~1964)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가 부흥하며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에 있는 많은 가게는 현지인들이 평소에도 이용하는 상업시설이자, 마치 박물관과도 같아서 구식 레코드 플레이어나 텔레비전, 장난감, 옛날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의 피규어 등의 전시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오래 전 시대에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였던 옛날 그대로의 ‘아이스 캔디’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창고 안에 설치된 박물관에서는 장난감이나 막과자, 이야기책, 심지어는 주택의 내부와 가게, 학교 교실, 자동차 등 그 시대와 관련된 전시가 다양하게 열립니다. 주말에는 박물관 앞에서 클래식한 스타일의 보닛 버스를 타고 당시의 복장을 한 가이드의 안내를 들으며 시가지를 둘러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에는 카페나 레스토랑도 있어서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연배가 있는 일본인에게는 당시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한편, 호기심이 왕성한 젊은이들에게는 현대에는 없는 감각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등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에서는 특별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日本語仮訳>

豊後高田昭和の町 ノスタルジックな体験

少し昔の雰囲気が好きの方は、豊後高田市中心部にある「豊後高田昭和の町」を訪れてみるとよいでしょう。長く続いた昭和時代（1926～1989）の中でも、昭和30年代（1955～1964）は、第二次世界大戦後、日本経済が復興し、平和と繁栄を享受し始めた時代でした。豊後高田昭和の町にある多くの店は、地元の人が普段から利用する商業施設でありながら、まるで博物館のようでもあり、旧式のレコードプレイヤーやテレビ、おもちゃ、昔人気の高かったアニメのフィギュアなどの展示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さらに古い時代に子供たちに大人気だった、昔ながらの「アイスクャンデー」を味わうこともできます。

古い蔵の中に設けられた博物館では、おもちゃや駄菓子、物語の本、さらには家の室内や、お店、学校の教室、自動車など、その時代に関連した展示を行っています。週末には、博物館の前からクラシックなスタイルのボンネットバスに乗り、当時の服装を着たガイドの案内を聞きながら市街地を巡ることができます。豊後高田昭和の町にはカフェやレストランもあり、当時、人気の高かったメニュー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年配の日本人は、当時を思い出して懐かしさを感じる一方、好奇心旺盛な若者たちにとっては、現代にはない感覚に魅力を感じる、豊後高田昭和の町はそんな体験ができる場所です。

【タイトル】 長崎鼻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나가사키바나 해변 캠핑장**

분고타카다 시가지에서 북동쪽으로 좀 더 가면 나가사키바나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곳 일대는 하얗고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휴가용 시설을 갖춘 리조트 캠핑장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방갈로와 로그하우스부터 텐트 사이트 등의 숙박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가사키바나의 볼거리는 봄에는 2,700만 송이의 유채꽃, 초여름에는 수국,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는 16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꽃을 피우는 드넓은 꽃밭입니다. 이곳의 유채꽃과 해바라기에서 얻은 기름은 도쿄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사용하며 이 캠핑장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구역에는 많은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아내이기도 한 일본인 예술가 오노 요코의 작품 ‘보이지 않는 벤치’도 있습니다. 평평한 13개의 돌로 구성된 이 작품의 표면에는 그녀가 지은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가사키바나에서는 낚시나 해수욕, 일광욕 등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해변가를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日本語仮訳>**長崎鼻 海沿いのキャンプ場**

豊後高田の市街地から北東へ進むと、長崎鼻と呼ばれる岬に到着します。この岬一帯は、白い綺麗な砂浜と休暇用の施設を備えたリゾートキャンプ場として整備されており、様々なサイズのバンガローやログハウスから、テントサイトなどの宿泊施設が準備されています。長崎鼻の見どころは、春には2,700万本の菜の花、初夏にはアジサイ、夏の終わりには160万本のヒマワリが咲く広大な花畑です。ここの菜の花とヒマワリから取れる油は、東京のグルメレストランでも使用されており、このキャンプ場でも販売しています。リゾートエリアには多くの芸術作品が展示されており、その中にはビートルズのジョン・レノンの妻でもあった日本人芸術家オノ・ヨーコ作の「見えないベンチ」もあります。平たい13基の石で構成されたこの作品の表面には彼女の詩が刻まれています。長崎鼻では、釣りや海水浴、日光浴などを楽しむ以外にも、浜辺をぶらぶら歩いたりしてみてもよいでしょう。

【タイトル】 富貴寺

【想定媒体】 看板・簡易リーフレット

<韓国語>

후키지 절

후키지 절의 오도(大堂, 대당)는 헤이안 시대(794~1185) 후기에 우사 신궁의 최고위 신관인 대궁사 가문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부처인 아미타여래의 상을 모시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오도는 규슈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후키지 절의 문 좌우에는 2구의 인왕상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서 있고, 돌계단을 올라간 곳에는 두 그루의 커다란 나무(왼쪽은 비자나무, 오른쪽은 은행나무)가 사찰 전체를 지키듯 솟아 있습니다. 오도 자체와 내부에 안치된 불상은 모두 비자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호를 그리는 지붕의 디자인은 불교의 신성한 생물인 봉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원래 오도의 내부는 화려한 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섬세하게 묘사된 그림이 벽과 기둥의 대부분을 덮었으며 아미타여래상에는 금박을 입혀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미타여래상을 둘러싼 벽의 높은 위치에는 극락정토의 부처가 그려져 있어서 참배객들은 그 부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계 방향으로 아미타여래상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지만, 지금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의 선(禪)과 다도의 영향으로 좀 더 절제되고 세련된 미의식이 일본 미술과 건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후키지 절처럼 호화롭게 장식된 사찰은 시대와 함께 색이 바래면서 오늘날에는 시간을 초월한 풍취를 느끼게 합니다.

비자나무 전설

오래전 옛날, 머위가 우거진 다시부 마을의 조용한 골짜기에 비자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비자나무는 매우 커서 아침에는 강까지, 저녁에는 논까지 그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설 속의 승려, 님몬은 이 영험한 곳에 영지(기도처)를 열기로 결심하고 아미타여래상을 안치할 사당을 건립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이 사당을 지을 재료로 삼기 위해 거대한 비자나무를 베려고 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베어도 다음날이면 나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해했는데, 어느 날 이 나무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하던 식물이 ‘하루가 끝날때마다 그날 생긴 톱밥을 불태워라. 그리하면 나무를 베어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언을 그대로 따른 덕분에 마침내 나무를 베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님몬의 명령에 따라 이 한 그루의 거대한 비자나무로 훌륭한 사당과 아미타여래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국보인 후키지 절에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후키지 절에는 비자나무가 다시 크게 자라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유대감과 평온을 주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富貴寺

富貴寺の大堂は平安時代（794～1185）後期、宇佐神宮の最高位の神官である大宮司家を極楽

浄土へと導く仏である阿弥陀如来の像を祀るために建立されました。大堂は九州で現存する最古の木造建築物であり、国宝に指定されています。富貴寺の門の左右には2体の仁王像が恐ろしい形相で立ち、石段を上ったところには2本の大きな木（左がカヤ、右がイチョウ）が寺院全体を守るようにそびえています。大堂自体と内部に安置された仏像はいずれもカヤの木で作られており、弧を描く屋根のデザインは、仏教における神聖な生き物である鳳凰を思わせる姿に描写されています。元々大堂の内部は鮮やかな色で装飾され、細部まで描かれた絵が壁や柱の大部分を覆い、阿弥陀如来像は金箔が貼られて光り輝いていました。阿弥陀如来像を取り囲む壁の高い位置には極楽浄土の仏が描かれており、参拝者たちは、その仏たちに見守られながら、時計回りに阿弥陀如来像の周りを回りました。これらの絵はほとんど消えてしまっていますが、今でもかすか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時が経ち、禅や茶道の影響から、より控えめで洗練された美しさが日本の美術や建築に取り入れられました。その結果、富貴寺のように豪華に装飾された寺は、時代とともに色褪せ、今では時を超えた風格を感じさせます。

カヤの木の伝説

昔々、田染村のフキが生い茂る静かな谷に1本のカヤの木が生えていました。このカヤの木は非常に大きな木で、朝は川の方まで、夕方には田んぼの方にまでその影を落としていたそうです。

ある日、伝説の僧侶・仁聞は、ここに霊場を開くことに決め、阿弥陀如来像を安置するためのお堂を建立するよう命じました。しかし、木こりが、お堂を建てる材料にしようと巨大なカヤの木を切ろうとしたときに、奇妙なことが起こりました。いくら切っても次の日には、木は元の状態に戻っているのです。木こりはいったいどうすればよいかわからず、困り果てていましたが、ある日、この木のせいで日の光を浴びることができない植物が、「毎日の終わりに、その日に出たおが屑を燃やしなさい。そうすれば木を伐り倒す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というのです。この助言のおかげで、とうとう木を伐り倒す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仁聞の命令に従い、この1本のカヤの巨木から立派なお堂と阿弥陀如来像が建立されました。

これが、国宝の富貴寺に伝わる伝説です。富貴寺にはカヤの木が再び大きく育ち、多くの人に心のつながりや安らぎを与えています。

【タイトル】 真木大堂

【想定媒体】 看板・簡易リーフレット

<韓国語>

마키오도(眞木大堂, 진목대당)

마키오도의 수장고에는 아미타여래상, 부동명왕, 대위덕명왕을 포함한 9구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불상은 모두 헤이안 시대(794~1185)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목조 불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모두(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아미타여래상은 높이가 216cm로, 편백나무를 재료로 요세기즈쿠리(여러 목재를 조합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방식)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미타여래상의 검은 옷칠을 한 바탕층 위에는 과거에 입혀졌던 금박의 희미한 흔적이 보입니다. 무장한 수호신인 사천왕이 사귀를 발로 짓밟으며 아미타여래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미타여래상 오른쪽에 있는 상은 부동명왕입니다. 입상으로 250cm가 넘는 이 상은 목조 부동명왕상으로는 일본 최대급의 크기입니다. 부동명왕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뒤편에는 화염에 휩싸인 성스러운 가루라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는 에도 시대(1603~1867)에 추가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번뇌를 끊어내는 검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여래상의 왼쪽에 안치된 물소를 탄 모습의 상은 대위덕명왕입니다. 대위덕명왕은 부동명왕과 함께 밀교 오대명왕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대위덕명왕의 여섯 얼굴, 여섯 팔, 여섯 다리(육면육비육족)라는 과장된 신체적 특징과는 대조적으로 마치 실물처럼 조각된 물소가 인상적입니다. 다른 많은 사찰의 주요 불상과는 달리 이 훌륭한 상들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日本語仮訳>

眞木大堂

眞木大堂の収蔵庫には、阿弥陀如来像、不動明王、大威徳明王を含む9体の仏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これらは、いずれも平安時代（794～1185）に作られ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ます。日本の木彫仏像を知る上で非常に重要なもので、全て（国指定）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中央の阿弥陀如来像は高さが216cmあり、ヒノキ材の寄木造り（複数の木材を組み合わせて一つの作品を作り上げる方式）で作られています。阿弥陀如来像に黒漆の下地の上に、かつて貼られていた金箔のかすかな痕跡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武装した守護神である四天王が、邪鬼を足で踏みつけながら阿弥陀如来像を守っています。阿弥陀如来像の右側の像は不動明王です。立像で、250cm以上あるこの像は、不動明王の木彫像としては日本最大級です。不動明王が恐ろしい表情をしているのは、人々を怖がらせ、救いの道へ導くためです。背後には炎に包まれた聖なる迦楼羅を背負っており、これは江戸時代（1603～1867）に追加されたものとされています。また、その手には迷いを断ち切る剣が握られています。そして、阿弥陀如来像の左側に安置された、水牛に跨った姿の像は大威徳明王です。大威徳明王は不動明王と並んで、密教の五大明王の一角を成す存在です。大威徳明王の6つの顔、6つの腕、6つの脚（六面六臂六足）という誇張された身体的特徴とは対照的に、まるで実物のように彫られた水牛が印象的です。多くの他の寺院

の主要な仏像と異なり、これらの素晴らしい像がどこから、そしていつもたらされたのかという決定的な記録は一切残っていません。

【タイトル】 熊野磨崖仏

【想定媒体】 看板・簡易リーフレット

<韓国語>

구마노 마애불

이 절벽에 돌을새김으로 조각된 훌륭한 2구의 불상은 일본 최대급의 마애불입니다. 오른쪽 불상은 우주를 상징하는 부처인 대일여래로 높이는 약 6.8m입니다. 머리 위에 3개의 만다라가 새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나 교토에서 일하던 숙련된 조각가가 11세기경에 조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왼쪽 불상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건강을 바라며 모시는 부동명왕입니다. 대일여래보다 좀 더 큰 이 상의 높이는 8m이며 12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명왕상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상은 드물게도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밀교에서는 힘든 수행과 밀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2구의 마애불은 그러한 밀교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이 마애불로 이어지는 큰 돌이 난잡하게 쌓인 돌계단은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는 나쁜 요괴가 구마노 신사의 신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룻밤만에 급히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日本語仮訳>

熊野磨崖仏

この崖に浮き彫りされた見事な2体の仏像は、国内最大級の磨崖仏です。右側の仏像は宇宙を象徴する仏である大日如来で、高さは約6.8mあります。頭上には3つの曼陀羅が彫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奈良や京都で仕事をしていた熟練の彫刻家により11世紀ごろに彫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左側の仏像は、安全と健康を願って多くの人々が祈願する不動明王です。大日如来よりも大きいこちらの像の高さは8mあり、12世紀に彫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一般的に不動明王像は恐ろしい形相をしています。この像は珍しく穏やかな表情をしています。密教では、困難な修行と秘密の教えを実践することで、極楽浄土に行けるとされており、この2体の磨崖仏は、密教の教えを象徴する強力な存在です。なお、伝説によると、この磨崖仏へと続く、大きな石が乱雑に積まれた石段は、村人たちを食べる悪い鬼が、熊野神社の神の許しを乞うために一夜にして急いで作ったものと言わ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天念寺耶馬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텐넨지 절**

긴 역사를 간직한 텐넨지 절의 오래된 목조 강당은 말 그대로 절벽에 둘러싸인 듯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텐넨지 절이 건립된 시기는 헤이안 시대(794~1185)로, 그 후 수백 년 동안 텐넨지 절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혹독한 고행을 행하는 슈겐도의 수행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걸으며 수행을 실천했던 길은 구니사키 반도의 산과 골짜기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현재는 하이커와 순례자들에게 인기있는 코스로 탈바꿈했습니다. 텐넨지 절은 불교 사찰이지만, 강당 오른쪽에는 도리이가 있고 같은 경내에 신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특징적인 불교와 신토(神道, 신도)가 융합된 신앙 형태를 잘 보여주는데, 음력 1월 7일에 열리는 슈조오니에라는 활기찬 전통 종교의례에도 그 개념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에서는 가면을 쓴 두 요괴가 횃불을 위로 쳐들며 춤을 추고 참가객들에게 불똥을 튀깁니다. 무서워 보이는 요괴지만, 부처가 모습을 바꾼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운 좋게 불똥을 맞은 사람에게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줍니다.

<日本語仮訳>**天念寺**

長い歴史を持つ天念寺の古い木造の講堂が、まさに断崖に囲まれるように建てられています。天念寺が建立されたのは平安時代（794～1185）で、その後、数百年にわたって、天念寺は悟りを得るために厳しい苦行を行う修験道の修行の場でした。彼らが歩き続ける修行を行った道は国東半島の山や谷を縦横に走っており、現在はハイカーや巡礼者に人気のコースとなっています。天念寺は仏教寺院ですが、講堂の右手には鳥居があって、同じ境内に神社が共存しています。これは、この地域に特徴的な仏教と神道が融合した信仰形態をよく表しており、旧暦の1月7日に行われる、修正鬼会と呼ばれる活気溢れる伝統的な宗教儀礼にも、その概念が息づいています。メインイベントでは、面を被った2体の鬼が松明を振りかざしながら踊り、参加者に火の粉を浴びせます。見た目は怖い鬼ですが、仏が姿を変えた存在とされており、運よく火の粉に触れた者には、邪気を払い、幸運や繁栄をもたらします。

【タイトル】 豊後高田市 概要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1. 분고타카다시 개요**

분고타카다시는 규슈 지역의 오이타현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우사시, 동쪽으로는 구니사키시에 접해 있습니다. 스오나다 해역을 마주하고 있는 구니사키 반도 북서부에 위치한 분고타카다는 세토 내해 국립공원과 구니사키 반도 현립 자연공원에 속해 있어서 풍요로운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겨울은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된 토양에서 각종 작물을 풍족하게 자라며 감귤류의 일종인 카보스와 대파가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고타카다에서는 기다란 해안선이나 독특한 모양의 산지 등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바다로 툭 튀어나온 곳인 나가사키바나와 마타마 해안 등 인기있는 명소가 있어 여름에 해수욕을 즐기기도 좋습니다. 한편 내륙의 산지는 기암으로 이루어진 에비스 골짜기의 독특한 풍경이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시 중심부에는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이라고 불리는 그리운 옛 분위기의 상점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쇼와 시대(1926~1989)를 떠올리게 하는 이 상점가에는 일본 각지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분고타카다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구니사키시에 있는 오이타 공항입니다. 오이타 공항에서 분고타카다시 중심부까지는 자동차로 1 시간 정도 걸리며 공항에서 직행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철도는 JR 우사역이 가장 가까운데 오이타시에 있는 오이타역에서는 특급열차로 약 40 분, 신칸센 고쿠라역에서는 특급열차로 약 50 분이 소요됩니다. 우사역에서 분고타카다시까지 자동차로는 10 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日本語仮訳>**1. 豊後高田市 概要**

豊後高田市は、九州の大分県にあり、西は宇佐市、東は国東市に接しています。周防灘に面した国東半島の北西部に位置する豊後高田は、瀬戸内海国立公園と国東半島県立自然公園に属し、豊かな自然を大いに楽しむことができる所です。冬は暖かく、穏やかな気候に恵まれています。ミネラルを豊富に含む土壌は各種の作物を豊かに育み、柑橘類の一種であるかぼすや白ねぎが特産品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

豊後高田では、長い海岸線や独特の形状をした山地など、様々な地形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海沿いには海に突き出した岬の長崎鼻や真玉海岸などの人気スポットがあり、夏には海水浴を楽しむこともできます。一方、内陸の山地では、奇岩で構成された夷谷の独特な風景が広がり、観光客の目を楽しませてくれます。市の中心部には、「豊後高田昭和の町」と呼ばれる昔懐かしい雰囲気の商品街が広がっています。

す。昭和時代（1926～1989）を思い起こさせるこの商店街には、日本各地から多くの観光客が訪れます。

豊後高田に最寄りの空港は、国東市にある大分空港です。大分空港から豊後高田市の中心部までは車で1時間ほどで、空港から直通バスを利用することもできます。鉄道の場合、最寄り駅はJR宇佐駅で、大分市にある大分駅からは特急列車で約40分、新幹線の小倉駅からは特急列車で約50分です。宇佐駅から豊後高田市までは車で10分ほどで到着します。

【タイトル】 豊後高田市 季節の楽しみ方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2. 분고타카다시 계절별 즐길 거리

온화한 기후와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받은 분고타카다는 일 년 중 어느 때든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봄에는 날씨가 좋아서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아와시마샤 신사로 향하는 참배길의 벚나무 가로수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또한 나가사키바나 리조트 캠핑장에서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는 절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시내에 있는 비치에서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수욕이나 SUP 요가 등 여름 바다만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 해변에서의 시간을 좀 더 오래 만끽하고 싶다면 바비큐장과 트레일러 하우스가 마련된 나가사키바나 비치 리조트 캠핑장에 숙박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을에는 특히 에비스 골짜기 주변의 웅장한 바위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고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상록수의 푸른색이 어우러지며 산을 세 가지 빛깔로 물들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이 필수입니다. 분고타카다에는 여러 개의 온천(공중목욕탕)이 있어 추운 날이면 한 번 탕에 들어가 몸 속 깊은 곳부터 따뜻하게 데우기에도 좋습니다.

<日本語仮訳>

2. 豊後高田市 季節ごとの楽しみ

穏やかな気候と豊かな自然に恵まれた豊後高田は、年間を通して訪れるのに理想的な場所です。春は特に天候が良く、桜の美しい眺めを楽しめるスポットが数多くあります。海辺に立つ粟嶋社へ向かう参道の桜並木は、毎年多くの人々が訪れる名所です。また、長崎鼻リゾートキャンプ場からは、黄色い菜の花が咲き誇る絶景を眺めることができます。

夏になると、市内のビーチで、心地よい海風を浴びながら、海水浴や SUP ヨガなど、夏の海ならではのアクティビティ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海辺での夏のひと時をもっと長く過ごしたい方は、バーベキューピットやトレラーハウスが準備されている長崎鼻ビーチリゾートのキャンプ場に宿泊してみるのもよいでしょう。秋は、特に夷谷周辺では雄大な岩山に生える木々が見事に着替えて、それらの赤や黄色と常緑樹の色があわさって山の色が3色に染まります。冬でも雪はそれほど降りませんが、気温は大幅に下がるので、温かい服が必須です。豊後高田には数多くの温泉（公衆浴場）があり、寒い日に一風呂浴びると、体の芯から温まって最高です。

【タイトル】 長崎鼻 長崎鼻リゾートキャンプ場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3. 나가사키바나 꽃 나가사키바나 리조트 캠핑장

아름답고 맑은 경치를 자랑하는 나가사키바나 리조트 캠핑장은 스오나다 해역을 마주보고 나가사키바나라는 작은 곳의 끝부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분고타카다 시가지에서부터 캠핑장까지 해안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으며, 해상 시야가 좋으면 캠핑장에서 가까운 히메시마 섬이나 야마구치현의 섬들까지도 보입니다.

나가사키바나 리조트 캠핑장은 인공 비치와 계절마다 피는 꽃들, 예술 작품, 마린 액티비티 등 어느 계절에 방문해도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득합니다. 봄에는 약 2,700 만 송이의 유채꽃이 주변을 온통 노랗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약 160 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부지 내 레스토랑에서는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숲에서는 나가사키바나에서 난 꽃으로 짜낸 각종 식용유 제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지 내에는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아내이자, 일본인 예술가인 오노 요코와 한국인 그래픽 디자이너인 최정화 등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주목할 만한 설치물이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는 이곳이 2014 년에 개최된 구니사키 반도 예술제의 행사장 중 하나로서 이들 아티스트 2 명의 작품이 전시되었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이후에는 더 많은 설치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코티지, 방갈로, 로그하우스, 텐트 사이트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바비큐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치 가까이에 숙박이 가능한 트레일러 하우스가 있고 스탠드업 패들보드 등 워터 액티비티 장비도 손쉽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바나에는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곳의 맨 끝부분이 최고의 명소입니다. 특히 저무는 노을에 물든 바다 풍경은 여행의 감동을 한층 더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또 하나 방문할 가치가 있는 명소는 나가사키바나의 약간 동쪽에 있는 ‘마노세’입니다. 이곳은 썰물 때면 조금 먼 바다에 있는 작은 섬까지 이어지는 땅이 드러나 걸어서 갈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이 섬은 말(일본어로 ‘마’)의 등(일본어로 ‘세’)처럼 보인다고 해서 ‘마노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나가사키바나의 또 다른 유명한 장소는 오이타현의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된 교자 동굴입니다. 바닷물이 곳의 지형을 천천히 침식하면서 형성된 커다란 동굴로 약 20 여 개 중 가장 큰 것은 산악신앙의 수행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3. 長崎鼻 長崎鼻リゾートキャンプ場**

風光明媚な長崎鼻リゾートキャンプ場は、周防灘に面し、長崎鼻という小さな岬の先端近くに位置しています。天気の良い日は、豊後高田の市街地からキャンプ場まで、海沿いを美しい景色を見ながらドライブすることができ、さらに海上の視界がよければ、キャンプ場から近くの姫島や、山口県の島々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長崎鼻リゾートキャンプ場は人工ビーチ、季節の花々、アート作品、海のアクティビティなど、どんな季節に訪れてもさまざまな楽しみにあふれています。春には約 2,700 万本の菜の花が一面を黄色く染め、夏には約 160 万本のヒマワリが見事に咲き誇ります。敷地内のレストランでは海の景色を眺めながら食事を楽しむことができ、ショップでは長崎鼻の花から搾った各種の食用油製品を購入することもできます。

敷地内には、ビートルズのジョン・レノンの妻でもあった日本人芸術家のオノ・ヨーコや、韓国人グラフィックデザイナーのチェ・ジョンファなど国内外のアーティストによる注目すべきインスタレーションが数多く展示されています。この展示は、ここが 2014 年に開催された国東半島芸術祭の会場の一つとなり、この 2 人のアーティストの作品が展示されたことに始まります。また、その翌年以降にさらに多くのインスタレーションが追加されています。

コテージ、バンガロー、ログハウス、テントサイトなど様々な宿泊施設が準備されており、バーベキュー施設も利用できます。また、ビーチの近くにも宿泊可能なトレーラーハウスがあり、スタンドアップパドルボードなどのウォーターアクティビティも簡単にレンタルすることができます。

長崎鼻にはさまざまな素晴らしい風景がありますが、なんといっても岬の先端部が一番でしょう。特に夕日に染まった海の景色は、旅の感動をいっそう高めてくれます。もう一つ訪れる価値のあるスポットは、長崎鼻の少し東にある「まのせ」です。ここは、干潮時には少し沖にある小さな島まで陸続きになり、歩いていけるようになる興味深い場所です。この島は、馬（日本語で「ま」）の背中（日本語で「せ」）のように見えるということから「まのせ」と名づけられました。

長崎鼻のもう一つの著名なスポットは、大分県の天然記念物にも指定されている行者洞穴です。海水が岬の地形をゆっくりと侵食することで形成された大きな穴で、約 20 個あるうち最大のものは山岳信仰の修行の場としても使用されました。

【タイトル】 長崎鼻 花の岬のオイル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4. 나가사키바나 꽃 꽃의 꽃에서 난 천연 식용유**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꽃이 나가사키바나 일대를 온통 물들이며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한편, 이 꽃들에서 추출한 식용유는 상품으로도 판매됩니다. 모든 꽃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되며, 유채꽃은 ‘나나시키부’라는 순수 일본산 품종입니다.

나가사키바나산 식용유는 추출할 때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로스팅해 압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첨가물이나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정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된 온도에서 씨앗을 로스팅합니다. 로스팅을 마친 후에는 압착하여 제품의 기본이 되는 기름을 추출하고 다시 뜨거운 물로 세척하여 오염과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와시(일본 종이)를 사용해 여과하고 병에 담습니다. 이러한 공정 중에서 낭비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짜내고 남은 찌꺼기는 원예용 비료나 가축의 사료로 이용합니다. 나가사키바나의 숲에서는 요리의 맛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다양한 무첨가 식용유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맛도 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4. 長崎鼻 花の岬の天然食用油**

春には菜の花、夏にはひまわりの花が長崎鼻一面を埋め尽くして訪れる人の目を楽しませる一方、それらの花から抽出された食用油は、商品として販売されています。花々はいずれも農薬を使用せずに栽培され、菜の花は「ななしきぶ」という純国産種です。

長崎鼻の食用油は、抽出する際に溶媒を使わず、伝統的な焙煎と圧搾の手法により処理されるため、添加物や化学物質を含んでいません。最初の工程では、厳密に管理された温度で種子を焙煎します。焙煎が終わったら、圧搾して製品の元になる油を抽出し、それを熱湯で洗って汚れや不純物を除去します。その後、和紙（日本の紙）を使って濾過し、瓶詰めします。この工程の中で無駄になるものは何もなく、搾りかすはガーデニング用の肥料や家畜の飼料として利用されます。長崎鼻のショップでは、料理の味を引き立てる様々な無添加食用油製品を販売しており、味見することもできます。

【タイトル】 長崎鼻 アート作品群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5. 나가사키바나 곳 예술 작품군

나가사키바나 리조트 구역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수많은 예술 작품과 설치물이 상설 전시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바나 리조트 캠핑장은 2014 년에 저명한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개최되었던 구니사키 반도 예술제의 행사장 중 하나로,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수년에 걸쳐 다양한 일본인 아티스트의 작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아내이자, 일본인 예술가인 오노 요코의 ‘보이지 않는 벤치’와 ‘염원의 나무’라는 두 작품입니다. ‘보이지 않는 벤치’는 거기에 걸터앉아 오노의 시를 읽으며 평온한 환경을 즐기자는 의미가 담긴 평평한 돌입니다. ‘염원의 나무’는 소원을 적어 자그마한 월계수 나뭇가지에 묶도록 만든 인터랙티브 작품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한국인 예술가 최정화의 ‘색·색·색’이 있습니다. 작은 피라미드 모양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언덕에 올라서면 나가사키바나와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봄부터 여름에는 유채꽃과 해바라기가 더욱 화려하게 색채를 더합니다.

2016 년 이후에 추가된 작품으로는 후지모토 유키오가 제작한 ‘on the border’라는 이름의 바다를 마주한 유리 벤치, 모리 다카야의 설치물 ‘Dream Egg’, 도다 유스케의 금속 조각 등이 있습니다. 이들 작품이 전시되면서 나가사키바나는 많은 예술 애호가들이 자주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5. 長崎鼻 アート作品群

長崎鼻リゾートエリアには、国際的に有名なアーティストによって制作された数多くのアート作品やインスタレーションが常設展示されています。長崎鼻リゾートキャンプ場は、2014 年に著名なアーティストが参加して開催された国東半島芸術祭において、会場の一つとなり、会期終了後も数年かけて様々な日本人アーティストの作品が追加されました。

中でももっとも注目すべきはビートルズのジョン・レノンの妻でもあった日本人芸術家オノ・ヨーコによる「見えないベンチ」と「念願の木」の二点です。「見えないベンチ」は、そこに腰かけて、オノの詩を読みながら、穏やかな環境を味わうという趣旨の平らな石です。「念願の木」は、願い事を書き、小さな月桂樹の木の枝に結びつけるというインタラクティブな作品です。

もう一つ、注目すべき作品としては韓国人芸術家チェ・ジョンファによる「色・色・色」があります。小さなピラミッド型の丘で構成されており、丘に登って、長崎鼻と眼前に広がる海の雄大な景色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春から夏にかけては、菜の花とヒマワリがさらに鮮やかな彩りを添えます。

2016 年以降に追加された作品には、藤本由紀夫による「on the border」という海に面したガラスのベンチ、森貴也によるインスタレーション「Dream Egg」、戸田裕介による金属彫刻等があります。これらの作品の展示により、長崎鼻は多くの芸術愛好家たちが訪れる場所になりました。

【タイトル】 長崎鼻 長崎鼻ビーチリゾート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6. 나가사키바나 곶 나가사키바나 비치 리조트

나가사키바나 비치 리조트는 바다로 돌출된 곳인 나가사키바나에 위치하며 인공 백사장, 해변 숙박시설, 마린 액티비티, 비치 카페, 릴랙레이션 트리트먼트 등의 특색을 가진 곳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기는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여름철이지만, 비치는 일년 내내 운영되기 때문에 캠핑이나 BBQ 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치에는 6 명까지 숙박할 수 있는 트레일러 하우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트레일러 옆에는 야외 좌석과 그릴이 갖춰진 해변 BBQ 구역이 있습니다.

비치는 방파제로 보호되기 때문에 파도가 매우 잔잔해서 어느 연령대든 상관없이 안심하고 즐겁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탠드업 패들보드, 카약 대여, SUP 요가 클래스 등 다양한 마린 액티비티와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6. 長崎鼻 長崎鼻ビーチリゾート

長崎鼻ビーチリゾートは海に突き出した岬の長崎鼻に位置しており、白砂の人工ビーチ、浜辺の宿泊施設、マリンアクティビティ、ビーチカフェ、リラクゼーショントリートメントなどが特色です。最も多くの人々が訪れる時期は海水浴ができる夏期ですが、ビーチは年間を通して営業しており、キャンプ、BBQ、その他のアクティビティが楽しめます。

ビーチには、6名まで宿泊が可能なトレーラーハウスがあり、トレーラーの横には、屋外座席とグリルを備えたビーチ BBQ エリアがあります。

ビーチは防波堤で守られているため、波はとても穏やかで、どんな世代の方でも安心して楽しく泳ぐことができます。また、スタンドアップパドルボード、カヤックのレンタル、SUP ヨガクラスなど、たくさんのマリンアクティビティや体験も楽しめます。

【タイトル】 夷 夷の風景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9. 에비스 골짜기 에비스 골짜기의 풍경

분고타카다시의 에비스 지구는 에비스 골짜기라고 불리는 계곡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이 지구를 동서로 구분하는 자리에는 나카야마 센쿄라는 낮은 바위산군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기이한 모양의 바위로 잘 알려진 경승지로서 거슬러 올라가면 헤이안 시대(794~1185)의 사료에도 언급되어 있으며, 현재는 등산 루트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 구역은 각력응회암이 (차별)침식되어 형성된 특징적인 바위산을 뜻하는 일본어 ‘야바’라는 단어를 사용해 ‘에비스 야바’라고도 불립니다. ‘야바’라는 단어는 에도 시대(1603~1868)에 일본인 사상가 라이 산요가 같은 오이타현에 있는 야마쿠니 강변의 계곡을 방문했을 때 그 풍경에 감명을 받아 ‘야바케이(야바의 풍경)’라는 한시를 읊은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나카야마 센쿄의 등산 루트를 따라 걷다 보면 멋진 경치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볼만한 곳은 무묘바시라는 이름의 다리입니다. 높다란 바위 사이에 그다지 두껍지 않은 돌이 2개 놓여 있을 뿐, 손잡이 조차도 없어서 매우 신중하게 건너야 합니다(다리를 건너지 않고 우회하는 루트도 있습니다). 등산 루트는 해발 317m의 다카조라는 나카야마 센쿄 최고봉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한 후, 가쿠레우토라고 불리는 동굴을 둘러보는 코스로 이어집니다.

우뚝 솟은 나카야마 센쿄를 올려다보는 에비스 골짜기에도 볼거리가 풍부한데, 유명한 신사와 사원 외에도 노천탕이 포함된 넓은 탕으로 인기가 많은 에비스다니 온천, 주말이면 메밀국수 등 지역의 향토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등이 있습니다. 이치로잇케이 공원의 전망대에서는 나카야마 센쿄만의 독특한 경치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색으로 변하는 산의 나무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9. 夷谷 夷谷の風景

豊後高田市夷地区は、夷谷と呼ばれる谷あいの集落ですが、地区を東西に隔てるようにして中山仙境という低い岩山群が広がっています。ここは奇岩で知られる景勝地で、古くは平安時代（794~1185）の史料にも書かれており、現在は登山ルートとしても人気があります。

このエリアは、凝灰角礫岩が（差別）侵食されて形成された特徴的な岩山を意味する日本語「耶馬」という言葉を使って、「夷耶馬」とも呼ばれています。「耶馬」という言葉は、江戸時代（1603~1868）に日本人の思想家である頼山陽が同じ大分県内の山国川沿いの溪谷を訪れた際、その景色に感銘を受け、「耶馬溪」（耶馬の風景）という漢詩を詠んだことに由来しています。

中山仙境の登山ルートでは、見事な景色を随所で楽しめます。特に見どころなのは無明橋という名の橋です。高い岩の裂け目にさほど厚みのない石が2枚渡されているのみで、手すりもないため、極めて慎重に渡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橋を渡らない迂回できるルートもあります）。登山ルートは、標高317mの高城という中山仙境の最高峰で絶景を眺めた後、隠洞穴と呼ばれる洞窟を巡っていきます。

聳え立つ中山仙境を仰ぎ見る夷谷も見どころは豊富で、著名な神社仏閣があるほか、露天風呂を含む広々とした風呂が人気の夷谷温泉や、週末にそばなどの郷土料理を味わえるレストランなどがあります。一路一景公園の展望台からは、中山仙境の特徴的な景色や、四季を通じて様々な色に変化する山の木々を一望できます。

【タイトル】 夷 夷谷の寺社群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10. 에비스 골짜기 에비스 골짜기의 사찰군

분고타카다시의 에비스 지구에는 2 곳의 사찰과 1 곳의 신사(레이센지 절, 짓소인 절, 로쿠쇼 신사)가 서로 이웃해 있습니다. 구니사키 반도는 일반적인 신불습합[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토(神道,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신앙 형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로, 중세(11 세기 후반~16 세기 후반)에는 에비스 골짜기 전체가 에비스 이와야(岩屋, 바위굴 집)의 경내에 포함되어 있었고 짓소인 절과 로쿠쇼 신사도 그 일부였습니다.

마주 봤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레이센지 절의 입구에는 주홍색 칠을 한 종루문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양쪽에는 2 구의 인왕상이 서서 사찰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높이가 6m 를 넘는 커다란 지장보살상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짓소인 절에는 구니사키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탑인 구니사키탑 중에서 가장 큰 탑이 서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로쿠쇼 신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신사 옆에 늘어서 있는 6 그루의 큰 나무는 이 신사에 모셔진 여섯 신을 상징합니다.

<日本語仮訳>

10. 夷谷 夷谷の寺社群

豊後高田市の夷地区には、2 つの寺院と 1 つの神社（霊仙寺、実相院、六所神社）が隣り合っていて立っています。国東半島では一般的な神仏習合（日本固有の宗教である神道と仏教が融合した信仰形態）の一例で、中世（11 世紀後半～16 世紀後半）には、夷谷全体が夷岩屋の境内に含まれており、実相院と六所神社もその一部でした。

向かって一番左にある霊仙寺の入口には朱塗りの鐘楼門がそびえ、その両側には 2 体の仁王像が立ち、寺院を守っています。境内には、長さが 6m を超える大きな地藏菩薩像も安置されています。中央の実相院には、国東半島で一般的に見られる宝塔である国東塔のうち最大のものが立っています。一番右にあるのは六所神社で、神社の隣に並ぶ 6 本の大木は、この神社に祀られている 6 体の神を表しています。

【タイトル】 夷 六所神社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11. 에비스 골짜기 로쿠쇼 신사

분고타카다의 에비스 지구에 있는 로쿠쇼 신사에서는 신사에 모신 여섯 신을 6 그루의 커다란 나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세(11 세기 후반~16 세기 후반)에는 인접한 레이센지 절, 짓소인 절과 함께 에비스 이와야(岩屋, 바위굴 집)의 경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사 동쪽에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에도 시대 중기 무렵에 지어진 신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굴 오른편에 있는 언덕을 오르면 ‘오쿠노인’이라 불리는 작은 이와야와 마에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11. 夷谷 六所神社

豊後高田の夷地区にある六所神社では、祀られている6体の神を6本の大木で表しています。中世（11世紀後半～16世紀後半）には、隣接する霊仙寺、実相院と共に、夷岩屋の境内に含まれていました。神社の東側に洞窟があり、その中に江戸時代中期頃建てられた社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洞窟右手の坂を上ると、「奥の院」と呼ばれる小さな岩屋と、磨崖像にたどり着きます。

【タイトル】 夷 夷谷温泉と寒晒しそば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12. 에비스 골짜기 에비스다니 온천과 간자라시 메밀국수

에비스다니 온천은 분고타카다 에비스 골짜기에 자리한 소박한 분위기의 천연 온천입니다. 남녀가 구분된 내탕과 노천탕이 있어 이 지역만의 독특한 풍경을 바라보며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철분이 함유되어 탕이 특이하게도 갈색을 띠는데 상처 치유나 신경통, 만성 피부병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비스 지역에서는 2 월부터 3 월경에 간자라시 메밀국수라는 향토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메밀 열매를 겨울의 차가운 물에 며칠 동안 담갔다가 말려서 갈아낸 후, 면으로 만든 특별한 메밀국수입니다. 찬물에 담그면 쓰고 알싸한 맛이 사라져 단맛이 나는 메밀국수가 완성됩니다.

<日本語仮訳>

12. 夷谷 夷谷温泉と寒晒しそば

夷谷温泉は、豊後高田の夷谷にある素朴な天然温泉です。男女別の内風呂と露天風呂があり、この地域独特の風景を眺めながら入浴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鉄分が含まれているためお湯は珍しい茶色で、傷の治癒や、神経痛、慢性皮膚病の症状の緩和に効果があるとされています。

この夷地域では、2 月から 3 月頃に、寒晒しそばという郷土料理を楽しめます。そばの実を冬のとても冷たい水に何日も浸し、乾燥させて挽いた後、麺にした特別なそばです。冷水に浸すことで、苦味やえぐみが無く、甘味のあるそばになります。

【タイトル】 鬼会 鬼会の里 歴史資料館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13. 오니에 오니에노사토 역사자료관

분고타카다에 있는 오니에노사토 역사자료관은 과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인근 덴넨지 절 강당에서 매년 음력 설에 개최되는 슈조오니에에 대해 알려주는 시설입니다.

이 지역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종교의례로 1,000 년 이상 이어져 온 슈조오니에는 붉은 요괴와 검은 요괴로 분장한 승려들이 불타는 횃불을 휘두르며 사악한 영을 물리침으로써 하이라이트를 맞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괴는 무서운 존재이지만, 이처럼 구니사키 반도에서 요괴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집니다. 이 자료관에는 요괴 가면과 의상, 종교의례에 사용되는 소도구가 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슈조오니에의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가 상영되어 이 종교의례의 분위기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관이 위치한 나가이와야 지구에 초점을 맞춘 전시도 진행되는데, VR 영상을 통해 높은 바위 위에 걸쳐져 있음에도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무묘바시 다리를 실제로 건너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에 설치된 식당에서는 손으로 뽑은 메밀국수나 슈조오니에에서 제공되는 구운 떡을 넣은 ‘오니노메(요괴 눈알) 메밀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13. 鬼会 鬼会の里歴史資料館

豊後高田にある鬼会の里歴史資料館は、かつてのこの地域における人々の暮らしと、この近くの天念寺の講堂で毎年旧正月に開催される修正鬼会について知ることができる施設です。

この地域で豊作を祈る宗教儀礼として 1,000 年以上続く修正鬼会は、赤鬼や黒鬼に扮した僧侶が燃えるたいまつを振り回し、邪悪な霊を追い払うことでハイライトを迎えます。一般的に鬼は怖いものですが、このように国東半島では、鬼は人々に幸せをもたらすとされています。この資料館には、鬼の面、衣装、宗教儀礼に使われる小道具が展示されているほか、修正鬼会の様子を撮影したビデオが上映されており、この宗教儀礼の雰囲気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資料館が位置する長岩屋地区に焦点を当てた展示もあり、VR 映像により、高い岩の上にかけるのに転落を防ぐ欄干がないことで知られる無明橋を渡る疑似体験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資料館に併設されている食堂では、手作りのそばや、修正鬼会で提供される焼もち入りの「鬼の目そば」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鬼会 天念寺耶馬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14. 오니에 덴넨지야바**

덴넨지야바는 분고타카다시 동부 나가이와야 지구에 자리한 독특한 경관의 경승지입니다. 이 기이한 바위들이 죽 늘어선 독특한 산악지대는 기록에 남은 것만으로도 1,200 년에 가깝게 수행승들이 수행을 위해 걸으며 길가에 여러 곳의 영지(기도처)를 연 장소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덴넨지 절의 강당에서는 매년 음력 설에 한 해의 오곡 풍양이나 무병장수와 같은 마을 사람들의 기원을 이루기 위해 요괴가 춤을 추는 슈조오니에라는 종교의례가 열립니다.

덴넨지야바의 높은 봉우리에는 무묘바시라고 불리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치형의 자그마한 돌다리도 높은 바위 사이에 놓여 있지만 난간이 없습니다. 맑은 날에는 산기슭에서 그 불가사의한 모습을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오니에노사토 역사자료관에서는 VR 영상을 통해 수행자와 함께 이 다리를 건너고 다리 위에서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14. 鬼会 天念寺耶馬**

天念寺耶馬は、豊後高田市東部の長岩屋地区に位置する、独特の景観が広がる景勝地です。この奇岩が林立する独特な山岳地帯は、記録に残るだけでも1200年近く、修行僧たちが修行で歩き、路傍の多くの霊場（祈りの場）を開いてきた場所です。この地域にある天念寺の講堂では毎年旧正月に、一年の五穀豊穡や無病息災といった里人の願いをかなえるため、鬼が踊る修正鬼会という宗教儀礼が開かれます。

天念寺耶馬の高い頂には無明橋と呼ばれる橋があります。アーチ形の小さな石橋で、高い岩の間にかかけられていますが、欄干がありません。晴れた日にはふもとからその不思議な景観を見上げることができます。近くにある鬼会の里歴史資料館では、VR映像により、修行者と一緒にこの橋を渡り、橋の上から周囲の景観を眺め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豊後高田昭和の町 概要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38.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 개요

분고타카다시 중심부에 있는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은 쇼와 30년대(1955~1964)의 정겨운 분위기를 재현한 상점가입니다. 그리운 풍경을 찾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편,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쇼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8개 구역에 약 50곳의 가게가 늘어선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은 가게나 관광지로 가는 길에 30분 정도면 거리 전체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가게가 1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게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 이후 분고타카다는 해상 수송의 거점으로서 구니사키 반도 내에서도 특히 번성했는데, 쇼와 시대(1926~1989) 초기에는 간사이 지방으로 향하는 수많은 선박이 정박하는 항구였습니다. 또한 내륙의 주요 도시였던 우사로 연결되는 항구 도시이기도 했던 분고타카다는 5개의 간선도로가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쇼와 40년대(1965~1974)에 들어서면서 분고타카다는 점차 밀려드는 근대화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어 쓸쓸히 남겨졌습니다.

쇠퇴 일로를 걸은 상점가였지만, 2001년에 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와 30년대의 활기를 되찾자는 ‘쇼와 타운’ 프로젝트로, 역사적인 상점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먼저 첫 번째로 7개 가게가 ‘쇼와 타운 인증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50곳 이상의 가게가 인증점으로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에는 오늘날 연간 약 40만 명이 방문하며 가게 사람들이 모두가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한 감각에 빠져드는 동시에, 현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가 탄생한 기반을 닦은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38. 豊後高田昭和の町 概要

豊後高田市中心部の「豊後高田昭和の町」は、昭和30年代（1955～1964）の懐かしい雰囲気をも再現した商店街です。懐かしい風景を求めて多くの観光客が訪れる一方で、地元の人々は日常的に買い物に利用しています。8つのエリアに約50のお店が立ち並ぶ豊後高田昭和の町は、お店や観光スポットに立ち寄りながら30分ほどで街全体を散策することができます。最古のお店は100年以上の長い歴史を持ち、その傍ら新店舗も続々仲間入りしています。

江戸時代（1603～1867）以降、豊後高田は海上輸送の拠点として国東半島の中でも特に賑わい、昭和時代（1926～1989）初期には関西地方に向かう多くの船が停泊する港でした。また、内陸の主要な町であった宇佐とを結ぶ港町でもあった豊後高田は、5本の幹線道路が集まる交通の要衝でし

た。しかし、昭和 40 年代（1965～1974）に入ると、豊後高田は徐々に近代化の波に取り残され、だんだんと孤立し、寂しくなりました。

衰退の一途をたどった商店街でしたが、2001 年に一つのプロジェクトが動き出しました。これが昭和 30 年代の活気を蘇らせようという「昭和の町」プロジェクトで、歴史ある商店街に新たな命を吹きこみ、まず初めに 7 店舗が「昭和の町認定店」に指定されました。今では、50 店舗以上が認定店としてプロジェクトに参加しています。

豊後高田昭和の町には今では年間約 40 万人が訪れるようになり、お店の人たちはみな温かく迎え入れてくれます。街を歩くと、まるでタイムスリップしたかのような感覚を覚え、同時に、現代のライフスタイルや文化が生まれる基礎を築いた時代が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感じ取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豊後高田昭和の町 食べ歩き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39.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 먹거리 투어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맛있는 먹거리 투어일 것입니다. 마을 곳곳에 자리한 가게에서는 고로케, 아이스바, 지역산 땅콩, 메밀 전병, 군고구마 셰이크, 빵튀김 등 군침이 도는 간식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모두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한 복고풍 분위기의 거리를 산책하며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식 대부분은 많은 일본인들이 어린 시절, 축제나 특별한 날에 먹었던 그리움이 느껴지는 맛으로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을 거닐며 즐기는 먹거리 투어는 다채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상점가 안에 있는 카페에서는 옛날 학교에서 먹었던 급식 등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메뉴도 제공합니다. 기념품으로 선물하기 좋도록 포장된 간식을 판매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39. 豊後高田昭和の町 食べ歩き

豊後高田昭和の町の楽しみは、なんといっても美味しいグルメ探しでしょう。あちこちのお店で、コロッケ、アイスバー、地元産のピーナッツ、そば煎餅、焼き芋シェイク、揚げパンなどのおいしいおやつに出会えます。これらの商品は、いずれも気軽に持ち帰りできるため、タイムスリップしたかのようなレトロな街並みを散策しながら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

こういったおやつの多くは、多くの日本人にとって、子どもの頃にお祭りや特別な日に食べた懐かしい味で、豊後高田昭和の町での食べ歩きは、いろいろな記憶を呼び覚まさせてくれます。商店街の中にあるカフェでは、昔ながらの学校給食などの懐かしい料理も提供されています。お土産としてプレゼントしやすいように、包装済みのおやつを販売しているお店もあります。

【タイトル】 豊後高田昭和の町 一店一宝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40.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 가게마다의 보물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에는 ‘쇼와 타운 인증점’으로 지정된 가게가 50 개 이상 있습니다. 각 가게에는 쇼와 시대(1926~1989)의 물건이 하나씩 ‘보물’로 전시되어 있어 쇼와 타운을 산책하다 보면 마치 거리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보물들은 모두 가전제품, 가정용품, 저울, 계산대, 간판 등 가게의 역사와 취급하는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지를 이해시켜주는 물건입니다.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 곳곳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를 전하는 물건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가게에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영어로 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QR 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40. 豊後高田昭和の町 一店一宝

豊後高田昭和の町には「昭和の町認定店」として認定されたお店が 50 店舗以上あります。それぞれの店舗には、昭和時代（1926～1989）の品物が一点ずつ「お宝」として展示されており、豊後高田昭和の町を散策すると、街の歴史を詰め込んだ博物館の中を歩いているかのようです。これらのお宝はいずれも、電化製品、家庭用品、秤、レジ、看板など、お店の歴史と扱う商品に関連するもので、これまでどのような歴史を経てきたのかが理解できる品々です。豊後高田昭和の町では、あちこちでこうした歴史を物語る品々を目にすることができ、参加店舗にはスマホで読み取ると英語の情報にアクセスできる QR コードが掲示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昭和の町 一店一品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41.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 가게마다의 상품**

분고타카다에 있는 복고풍 상점가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은 이 지역에서 쇼와 시대(1926~1989)부터 제조되고 판매되어 온 개성적인 상품과 그 당시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상품으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가게에서는 쇼와 시대를 상징하는 상품을 적어도 한 종류 이상 판매합니다. 분고타카다를 방문한다면 이러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개성적인 기념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쿠키나 케이크 등의 디저트부터 당시에 큰 인기를 얻었던 완구나 소품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 메밀국수, 일본의 전통 나막신 게타, 키홀더 등 여러가지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日本語仮訳>**41. 豊後高田昭和の町 一店一品**

豊後高田にあるレトロな商店街「豊後高田昭和の町」は、この地域で昭和時代（1926～1989）から製造・販売されている個性的な商品や、当手を思い起こさせる新しい商品を観光の目玉にしています。このプロジェクトに参加している各店舗では、昭和時代を象徴するような商品を少なくとも一種類以上販売しています。豊後高田を訪れたら、そのような歴史を感じさせる個性的なお土産を探してみるとよいでしょう。

商品の種類は様々で、クッキーやケーキといったスイーツから、当時人気のあった玩具や小物まで多岐にわたります。そのほか、お茶、そば、日本伝統の木履下駄、キーホルダーなど、いろいろなお土産を販売するお店があります。

【タイトル】 豊後高田昭和の町 昭和ロマン蔵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44. 쇼와 로망 창고

쇼와 로망 창고는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에 위치한 자료관과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진 시설입니다. 오이타현 내에서도 손꼽히는 거상이었던 노무라 가문이 과거에 소유했던 3 동의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쇼와 시대(1926~1989)의 귀중한 물건들을 전시하기 위해 복고풍으로 단장된 이 공간은 분고타카다 상점가가 내건 테마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의 창고를 리모델링한 ‘쇼와 꿈마을 3 초메관’에는 효과음이 흘러나오는 초등학교 교실과 지역의 전통적인 민가 등 쇼와 시대의 거리 풍경이 재현되어 있어 총쏘기나 파칭코 등 레트로 게임을 실제로 경험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창고에는 6 만 여점의 방대한 쇼와 시대 물건들을 모아 놓은 ‘과자 가게 꿈 박물관’이 자리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디지털 아트 그룹 ‘팀랩(teamLab)’이 연출한 인터랙티브 전시도 진행되는데, 방문객이 사람을 그려서 색을 칠하면 그 그림이 벽에 비춰져 ‘구사지 오도리’라는 전통 노래와 춤을 선보입니다.

창고 밖에는 1950 년대 보닛 버스를 비롯한 클래식 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무료 관광 투어로 이 보닛 버스를 타고 시가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시설 내 레스토랑에서는 지역의 명물인 도리텐(닭튀김)과 그 밖의 일식 메뉴나 디저트를 맛볼 수 있으며, 매점에서는 복고풍 스타일의 장난감과 과자 등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44. 昭和ロマン蔵

昭和ロマン蔵は豊後高田昭和の町にある資料館と展示スペースからなる施設です。大分県内でも有数の豪商だった野村家がかつて所有していた 3 棟の蔵で構成されています。昭和時代（1926～1989）の貴重な品々を展示するためレトロに改装されたこの空間は、豊後高田の商店街が掲げるテーマにぴったりの場所になっています。

1 つの蔵を改装して作られた「昭和の夢町三丁目館」には、効果音の流れる小学校の教室や、伝統的な地元の民家など昭和の町並みが再現されており、射的やパチンコなどのレトロゲームで実際に遊ぶことができます。また別の蔵には、6 万点余りという膨大な数の昭和時代の品々を集めた「駄菓子屋の夢博物

館」があります。また、ここではデジタルアート集団「チームラボ」によるインタラクティブ展示も行われており、来場者が人の絵を描いて色を塗ると、それが壁に投影されて「草地おどり」という伝統的な歌と踊りを披露してくれます。

蔵の外では、1950年代のボンネットバスをはじめとするクラシックカーが展示されています。また、日祝を中心に開催される無料観光ツアーでは、このボンネットバスに乗って市街地を巡ることができます。施設内のレストランでは地元名物のとり天（鶏の天ぷら）、そのほか和食メニューやデザートを味わうことができ、売店ではレトロなおもちゃやお菓子などの土産物を購入することもできます。

011-031

豊後高田市多言語解説協議会

【タイトル】 豊後高田昭和の町 ボンネットバス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45. 보닛 버스

쇼와 로망 창고 밖에는 1957 년에 제작된 복고풍의 보닛 버스가 전시되어 있어 차 내부에 들어가 사진 촬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이 복고풍 버스를 타고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 구역을 둘러보는 무료 관광 투어도 개최됩니다. 출발 시간은 날짜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쇼와 로망 창고의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011-031

＜日本語仮訳＞

45. ボンネットバス

昭和ロマン蔵の外では、1957 年製のレトロなボンネットバスが展示されており、車内に入って写真撮影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また、日祝を中心に、このレトロなバスに乗って「豊後高田昭和の町」エリアを巡る無料の観光ツアーも開催されています。出発時刻は日によって異なるため、詳しくは昭和ロマン蔵の係員に確認してください。

【タイトル】 豊後高田昭和の町 駄菓子屋の夢博物館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46.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 과자 가게 꿈 박물관**

쇼와 로망 창고의 ‘과자 가게 꿈 박물관’에서는 막과자점에 있는 상품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 어린 장난감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막과자점이란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시작되어 아이들을 위한 저렴한 과자나 장난감을 판매했던 가게를 말합니다. 막과자점에는 이러한 상품 외에도 동전을 넣는 아케이드 게임기나 캡슐토이 판매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막과자점은 서서히 그 수가 줄어 지금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막과자점 장난감 컬렉터인 고미야 히로노부 씨가 수집한 약 6 만 점의 방대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관장이기도 한 고미야 씨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1980 년대 후반에 걸친 막과자점의 아이템이나 팝 컬처를 상징하는 피규어, 오래된 레코드, 잡지 등 총 30 만 점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의 전시를 통해 현재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본 팝 컬처의 초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층 전시실에는 복고풍의 영화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3 개월 동안 개최되는 막과자 기획전에서는 쇼와 시대(1926~1989) 일본 문화의 상징적인 캐릭터나 테마를 조명하는 전시가 진행됩니다. 뮤지엄 습은 옛 모습 그대로의 막과자점에서 쇼핑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46. 豊後高田昭和の町 駄菓子屋の夢博物館**

昭和ロマン蔵の「駄菓子屋の夢博物館」では、駄菓子屋にある商品を思い起こさせるノスタルジックなおもちゃコレクションを展示しています。駄菓子屋とは明治時代（1868～1912）に起源をもつ、子ども向けの安価なお菓子やおもちゃを販売する店のことです。駄菓子屋にはそうした商品のほかに、コイン投入式のアーケードゲームやカプセルトイ販売機も設置してありました。日本全国で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が増えていくにつれ、駄菓子屋は徐々に数を減らし、今では郷愁を誘う存在になりました。

この博物館には国内有数の駄菓子屋おもちゃコレクターである小宮裕宣氏が収集したおよそ 6 万点という膨大な品々が保管されています。この博物館の館長でもある小宮氏は、戦前から 1980 年代後半にかけての駄菓子屋アイテムや、ポップカルチャーを象徴するフィギュア、古いレコード、雑誌など 30 万点を所

有しています。こういった品々の展示を見ることで、現在世界的な人気を博している日本のポップカルチャーの礎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2 階の展示室では、レトロな映画ポスターを展示しています。

通常 3 か月間開催される駄菓子企画展では、昭和時代（1926～1989）の日本文化における象徴的なキャラクターやテーマにスポットを当てた展示が行われます。ミュージアムショップは、昔ながらの駄菓子屋で買い物をしているような雰囲気味わえるようにデザイン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豊後高田昭和の町 昭和の夢町三丁目館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47.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 쇼와 꿈마을 3 초메관

쇼와 로망 창고 3 동 중 1 동은 ‘쇼와 꿈마을 3 초메관’이라는 전시관으로서 쇼와 시대(1926~1989)의 전형적인 가정집, 초등학교 교실 외에도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아케이드 게임이나 오락 시설이 설치된 쇼와 시대의 거리 풍경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특히 쇼와 30~40 년대(1955~1974)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내부에서는 사실적인 효과음이 흘러나와 마치 1950 년대의 거리를 걷는 듯한 감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당시의 전형적인 가정집으로 재현된 전시에서는 일상용품이 놓여진 부엌이나 거실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옛날 아이들이 공부하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파칭코나 총쏘기 등 복고풍 게임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대결에서 이긴 플레이어에게는 경품으로 막과자가 증정됩니다. 이곳은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행의 추억으로 향수 어린 분위기의 사진을 찍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막과자 외에도 현지 오이타현에서 생산된 제품을 기념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47. 豊後高田昭和の町 昭和の夢町三丁目館

昭和ロマン蔵の3棟の蔵のうちの1棟は「昭和の夢町三丁目館」という展示館になっており、昭和時代(1926~1989)の一般的な家の中、小学校の教室のほか、当時人気を博していたアーケードゲームや娯楽施設が置かれた昭和の町並みが再現されています。展示は、特に昭和30~40年代(1955~1974)のものを中心としています。

館内にはリアルな効果音が流れ、1950年代の町並みを歩いているような感覚に浸れます。当時の家の中を再現した展示では、日用品が置かれた台所や居間に入ることができ、小学校の教室では、昔の子供たちが勉強していた様子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年代物のパチンコ台や射的などレトロなゲームに挑戦することもでき、勝ったプレイヤーは景品として駄菓子がもらえます。この場所は写真映えするので旅行の思い出として、ノスタルジックな雰囲気の写真を撮るのに絶好な場所です。駄菓子以外にも地元大分県産の製品をお土産に購入することもできます。

【タイトル】 豊後高田昭和の町 チームラボギャラリー昭和の町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48.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 팀랩(teamLab) 갤러리 쇼와 타운

화려하고 인터랙티브한 빛의 쇼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디지털 아트 그룹 ‘팀랩(teamLab)’이 분고타카다의 ‘쇼와 타운’ 프로젝트와 손을 잡고 예술 작품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쇼와 로망 창고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분고타카다 시내에 설치된 2개의 팀랩 전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는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려 구사지오도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작품은 분고타카다시의 구사지 지구에 에도 시대(1603~1868)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춤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구사지오도리는 매년 여름에 열리는 오봉(추석) 축제에서 조상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추는 춤으로 이 인터랙티브한 공간에서는 벽에 풀숲이 비춰지는데 방문객이 크레용으로 사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스캔되어 벽에 투영됩니다. 투영된 인물들은 마치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벽 위에서 움직이며 서로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면 구사지오도리를 춥니다.

<日本語仮訳>

48. 豊後高田昭和の町 チームラボギャラリー昭和の町

鮮やかでインタラクティブな光のショーで世界的なセンセーションを巻き起こしている日本のデジタルアート集団「チームラボ」が、豊後高田の「昭和の町」プロジェクトと手を組み、アート作品の展示を行っています。昭和ロマン蔵で行われているこの展示は、豊後高田市内に設置された 2 つのチームラボ展示作品の一つです。この作品には、来訪者が一緒になって楽しめるインタラクティブな仕掛けが用意されています。

『お絵かき草地おどり』と名付けられたこの作品は、豊後高田市の草地地区に江戸時代（1603～1868）から伝わる伝統的な踊りをモチーフとしています。草地おどりは毎年夏、お盆のお祭りの中で先祖の魂を供養するために踊る踊りですが、このインタラクティブ空間では壁に草むらが投影され、来訪者がクレヨンで描いた人の絵がスキャンされて壁に投影されます。投影された人物たちは、命を吹き込まれたように壁の中で動き、お互いに交流し始めます。そして音楽が流れ始めると、草地おどりを踊り出します。

【タイトル】 豊後高田昭和の町 昭和時代とは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49.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 쇼와 시대

일본의 시대 구분은 천황의 통치 기간에 해당하는 연호에 따라 나뉩니다. 쇼와 시대는 쇼와 천황(히로히토, 1901~1989)의 시대였습니다. 쇼와 시대는 1926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까지로 매우 길었는데, 쇼와 천황은 역대 천황 중에서도 가장 오래 재위한 천황입니다.

그만큼 1927년의 금융 위기, 제 2차 세계대전, 1954년부터 1972년에 걸친 경제 성장 등 일본사에서 중요한 여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성장기에 일본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현대화와 문화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89년에 쇼와 천황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인 아키히토 상황(당시는 천황, 1933~)이 황위를 계승하면서 헤이세이 시대(1989~2019)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호황기에 들끓었던 버블 경제가 붕괴하며 경제 성장을 이룬 쇼와 시대에서 차츰 멀어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웠던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팝 컬처는 쇼와 시대에 자라났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함께 텔레비전이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1964년 하계 올림픽이나 신칸센의 개통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탄생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쇼와 시대는 분고타카다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쇼와 30년대(1955~1964)의 분위기를 재현한 중심부의 상점가 ‘분고타카다 쇼와 타운’은 일정 이상 연령대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분고타카다는 에도 시대(1603~1868)부터 쇼와 시대까지 간사이 지방을 연결하는 해상 수송의 거점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헤이세이 시대에 들어서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줄면서 한때 번성했던 이 마을은 조용해지고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마을을 지키고 부흥시키기 위해 ‘쇼와 타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참가하는 가게의 수가 늘면서 분고타카다만의 쇼와 시대다운 센스가 돋보이는 토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쇼와 타운 인증점’은 현재 40곳에 이릅니다. 이들 가게에서는 과자나 의류, 완구 등을 판매하며 쇼와 시대의 엔틱한 물건이나 ‘보물’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점가 안에 있는 쇼와 로망 창고에는 쇼와 시대의 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전시나 복고풍 게임, 완구 컬렉션 등을 선보이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49. 豊後高田昭和の町 昭和時代とは

日本の時代区分は、天皇の治世に対応する元号によって区切られています。昭和時代は、昭和天皇（裕仁、1901～1989）の時代でした。昭和時代は 1926 年 12 月 25 日から 1989 年 1 月 7 日までと非常に長く、昭和天皇は歴代天皇の中でも最も長く在位しました。

それだけに、1927 年の金融危機、第二次世界大戦、1954 年から 1972 年にかけての経済成長など、日本史の中でも様々な重要な出来事が起こりました。経済成長期、日本は戦争で疲弊した世の中を建て直し、急速な現代化と文化的復興を経験しました。

1989 年に昭和天皇が世を去った後、彼の息子である明仁上皇（当時は天皇、1933～）が皇位を継いで始まったのが、平成時代（1989～2019）です。この期間には好景気に沸いたバブル経済が崩壊し、経済成長を遂げた昭和時代は次第に遠ざかっていきました。

多くの人が豊かだった時代を懐かしく思い出します。漫画やアニメなど、現代の日本を代表するポップカルチャーは、昭和時代に育まれました。可処分所得の増加とともに、テレビが家庭に普及し始めたのもこの頃です。また、アジアで初めて開催された 1964 年の夏季オリンピックや新幹線の開通など、国として重要な成果が生まれた時代でもありました。

昭和時代は、豊後高田に今も生きています。昭和 30 年代（1955～1964）の雰囲気再現した中心部の商店街「豊後高田昭和の町」は、一定以上の年齢の日本人にとって、郷愁を掻き立てるもので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豊後高田は江戸時代（1603～1868）から昭和時代にかけて、関西地方とを結ぶ海上輸送の拠点であり、交通の要衝として大いに繁栄しました。平成時代に入り、近代化が進むにつれて訪れる人が減り、かつて繁栄したこの町は静まり、寂れていきました。そこで 2001 年に、町を守り、復興させるために「昭和の町」プロジェクトが立ち上がりました。徐々に参加する店舗の数が増え、豊後高田ならではの昭和時代のセンスが香る土産物を購入できる「昭和の町認定店」は、現在 40 店になりました。それらの店舗では、お菓子や衣類、玩具などを購入できるほか、昭和時代のアンティークな品物や「宝物」も展示されています。また、商店街の中にある昭和ロマン蔵には、昭和時代の通りを再現した展示や、レトロなゲーム、玩具コレクションなどを納めた博物館があります。

地域番号	012	協議会名	富士宮市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12-001	白糸ノ滝	564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02	音止めの滝	555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03	お鬢水	375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04	富士山本宮浅間大社：正面入り口	493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05	富士山本宮浅間大社：湧玉池	413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06	村山浅間神社：概要	668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07	村山浅間神社：護摩壇、水垢離場	608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08	村山浅間神社：御神木（杉、銀杏）	529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09	村山浅間神社：大宮・村山口登山道	611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10	村山浅間神社：絹本著色富士曼荼羅図	720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11	山宮浅間神社：参道入口	614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12	山宮浅間神社：遥拝所	498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13	人穴富士講遺跡：概要	675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14	人穴富士講遺跡：溶岩洞穴「人穴」	630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15	人穴富士講遺跡：碑塔群と富士講	457	アプリ QR コード・WEB
012-016	人穴富士講遺跡：人穴浅間神社	418	アプリ QR コード・WEB

【タイトル】 白糸ノ滝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시라이트 폭포

시라이트 폭포는 용천수가 흐르는 폭포로, 높이 20m, 길이 150m에 달하는 절벽 지층에서 수백 갈래의 물줄기가 솟아 나옵니다. 시라이트는 ‘흰 실’이라는 뜻으로, 수많은 물줄기가 아래의 웅덩이로 떨어지는 모습이 비단실 같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절벽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보기 드문 장관입니다. 이곳에서는 후지산의 빗물과 융설이 다공질의 용암반에 스며들어 내려가다가, 투수성이 낮고 단단하게 굳은 진흙 사태층에 다다르게 됩니다. 진흙 사태층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물은 이곳에서 밖으로 솟구쳐 나옵니다. 암반에서 솟구치는 물의 온도는 일 년 내내 12℃이며, 초당 약 1.5톤의 유속으로 흘러 나옵니다.

후지산을 숭배하는 종교 운동이었던 후지코의 창시자로 추앙받는 수행자, 하세가와 가쿠교(1541~1646)는 이 폭포에서 수행을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심신을 정화하기 위해 낮에 세 번, 밤에 세 번 폭포수에 몸을 담그고 하루에 33번 그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후지코 신자들은 후지코의 인기가 특히 절정에 달했던 17~18세기에 이 폭포를 후지산 순례길의 중간 기착지로 삼았습니다. 우측 계단 옆에는 후지코의 대중화에 기여했던 독실한 신자, 지키교 미로쿠(1671~1733)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라이트 폭포는 1936년 일본의 명승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후지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성 자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白糸の滝

白糸の滝は湧水の滝であり、高さ 20メートル、幅 150メートルにわたる岩肌から無数の水流が湧き出ています。「白糸」とは無数の水流が絹糸のように柔らかく流れ落ちる様子を表しています。

崖の側面から直接水が湧き出すのは珍しい現象です。ここでは、富士山に降った雨や雪解け水が古い溶岩の多孔質層を通して地下に浸透し、やがて硬化した泥流の透水性の低い地層に達し、泥流層の斜面を下って流れ、この場所で押し出されるのです。水は年間を通じて摂氏 12度で湧き出し、その量は毎秒約 1500リットルに達します。

富士山を信仰の対象とする宗派の開祖とされた長谷川角行(1541-1646)はこの滝で修行を行いました。角行は昼間に 3回、夜に 3회この水で身を清め、さらに 1日 33회水を飲んで修行し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彼の富士講の信者たちは、特に 17世紀から 18世紀にかけてその宗派が最も盛んだった時期に、富士山参拝の道中でこの滝を立ち寄りの地としました。宗派の普及に尽力した食行身禄(1671-1733)もこの信仰の篤い実践者であり、右手の階段近くには彼を顕彰する碑が建てられています。

1936年、この滝は国の名勝および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ました。また、この滝は富士山のユネスコ世界

遺産の構成資産にも含まれています。

【タイトル】 音止めの滝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오토도메 폭포와 소가 형제의 전설

이곳에서는 시바강의 물줄기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25m 높이의 절벽 아래로 힘차게 쏟아집니다. 시바강은 후지산 기슭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흐르다가 후지강과 합류해 스루가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오토도메 폭포는 ‘갑작스러운 침묵의 폭포’라는 뜻으로, 12세기 소가 형제의 유명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를 처단했습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이 사건은 전쟁 연대기 ‘소가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형제는 은밀히 복수의 칼을 갈며 단련해 오다가 마침내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당시 후지산 기슭에서 쇼군(막부의 최고 권력자)이 주최한 성대한 사냥 행사에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참가한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형제는 복수 계획을 세우려 이 폭포 근처에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폭포 소리가 너무 커서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이에 형제 중 한 명이 폭포의 무심함을 타하며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돌연 폭포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형제가 계획을 다 세울 때까지 꽤 오랫동안 말입니다.

형제는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를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이들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비극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효심과 가문의 명예라는 주제가 담긴 소가 형제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가부키 공연, 목판화, 영화 등 일본 대중문화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졌습니다.

<日本語仮訳>

音止めの滝

ここでは、芝川の水が一気に25メートルの断崖を落下し、轟音を立てて流れ落ちています。芝川は富士山の麓から湧き出し、南へと流れて富士川と合流し、駿河湾に注ぎます。

「音止めの滝」という名は、「曾我物語」などの軍記物に描かれた12世紀の仇討ちの逸話に由来します。物語の中で、曾我兄弟は父の仇を討つために、生涯をかけて密かに仇討ちの修練を積みました。やがて將軍が富士山麓で狩りを催し、ついに復讐の機会を得ます。

伝承によれば、兄弟はこの滝の近くで密かに落ち合い、復讐の計画を練ろうとしました。しかし滝の轟音で会話が聞き取りにくく、兄のがこの滝を「無情だ」と非難したところ、突然、滝の音が止み、二人が計画を立て終えるまで静けさが続いたといわれています。

物語の結末では、兄弟は父の仇を討つことに成功しますが、その直後の混乱の中で命を落とします。親への孝と家名・名譽という強いテーマを持つ曾我兄弟の悲劇は、歌舞伎、浮世絵、映画など、日本の大衆文化に繰り返し描かれてきました。

【タイトル】 お鬢水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오빈미즈 용천

이 천연 용천 연못은 후지산에서 흘러내려 온 물로 채워집니다. 빗물과 눈 녹은 물이 오랜 시간 산 깊은 곳에 있는 다공질의 용암반에 스며들어 투수성이 낮고 단단하게 굳은 진흙 사태층에 모입니다. 그러다 결국 지하의 압력으로 지하수가 솟아오르고, 이곳에서 흘러나온 물은 시라이트 폭포에 합류합니다.

이 연못은 가마쿠라 막부(1185~1333)의 창시자이자 무장이었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1147~1199)의 역사적 일화로 유명합니다. 1193년 5월, 요리토모는 새 정권을 과시하고자 후지산 기슭에서 성대한 사냥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참가자들은 사냥과 무예 기량을 겨루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행사 도중 요리토모의 머리 모양이 흐트러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 연못의 잔잔한 수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귀밑머리를 적신 물’이라는 뜻의 '오빈미즈'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お鬢水

この自然の湧水池は、富士山に降った雨や雪解け水によって生まれています。水は長い年月をかけて古い溶岩の多孔質層を通過して濾過され、やがて透水性の低い硬化した泥流の地層に到達します。そこで水圧によって地下水が押し出され、この場所に湧き出て、白糸の滝へと流れ下ります。

この池は、鎌倉幕府を開いた武将である源頼朝（1147-1199）にまつわる物語にも登場します。

1193年5月、頼朝は新たに確立した政権の威勢を示すため、富士山麓で1か月にわたる大規模な狩りを催しました。参加者たちは狩猟や流鏑馬など武芸の腕前を競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

伝承によれば、この「富士の巻狩り」の最中に頼朝髪が乱れ、この池に映った自らの姿を見て整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ことから、泉の名は「お鬢水」という名がついたと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富士山本宮浅間大社：正面入り口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후지산 본궁 센겐타이샤

후지산 본궁 센겐타이샤는 일본 전역에 약 1,300 개에 이르는 센겐 신사의 총본산(특정 계파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중심지)으로, 활화산인 후지산의 여러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센겐타이샤는 후지산의 화산 활동이 특히 활발했던 시기(11 세기 무렵까지)에 맹렬히 분화하는 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도 시대(1603~1867)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신사는 본래 산에 더 가까운 곳에 있었으나 9 세기 초에 현재 위치인 와쿠타마 연못의 맑은 물가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센겐타이샤는 여러 유력한 사무라이 가문의 후원을 받아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건축물 대부분은 본래 도쿠가와 막부(1603~1867)의 창시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의 명에 따라 1606 년에 건립된 것입니다. 후지산 일부는 이 신사의 공식 경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후지산 정상에 위치한 신사는 오늘날 공식적으로 센겐타이샤의 가장 깊은 성소인 ‘오쿠미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6 세기 후반 후지산을 찾는 순례객들이 크게 늘었으며, 센겐타이샤는 농치지 말고 꼭 들러야 할 장소가 되었습니다. 순례객들은 신사 인근에 머물며 산에 오르기 전 용천 연못에서 심신을 정화하곤 했습니다.

<日本語仮訳>

富士山本宮浅間大社

富士山本宮浅間大社は、富士山の神々を祀る全国約 1,300 社の浅間神社の総本宮です。

富士山は 11 世紀ごろまで活発な火山であり、周辺に暮らす人々の生命を脅かしていました。浅間大社は激しく噴火する富士山を鎮めるため、こうした火山活動が盛んな時代に創建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創建当初は現在よりも富士山に近い場所にありましたが、9 世紀初頭に清らかな湧水をたたえる湧玉池のほとりに移されました。その後の世紀には、多くの有力な武家から寄進を受け、社殿の整備が進められました。現在の主要な建物の多くは、江戸幕府（1603 - 1867）を開いた徳川家康（1543 - 1616）の命により 1606 年に造営されたものです。また、富士山そのものの一部は神社の神域とされており、山頂にある社は浅間大社の奥宮となっています。

富士山は 6 世紀に初めて登頂されたと伝わりますが、巡礼の道としての人気が大きく高まったのは 12 世紀頃のことです。その際、浅間大社は巡礼の重要な拠点となりました。参詣者は社の付近にある宿坊に宿泊し、湧玉池の湧水で身を清めたのちに山へと登って行きました。

【タイトル】 富士山本宮浅間大社：湧玉池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와쿠타마 연못

와쿠타마 연못은 유서 깊은 후지산 본궁 센겐타이샤의 경내에 위치한 천연 용천 연못입니다.

16세기 후반에 후지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순례길이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센겐타이샤는 그 순례길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순례객들은 산에 오르기 전 와쿠타마 연못에 몸을 담가 심신을 정화했는데, 이와 같은 풍습은 신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몇백 년 된 족자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연못의 물은 후지산의 암반 지층으로 스며든 빗물과 눈 녹은 물에서 비롯됩니다. 이 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공질의 용암층을 통과하며 정화된 뒤, 산기슭에서 14℃의 청량한 물로 솟아나옵니다. 매일 약 20만 톤의 물이 꾸준히 와쿠타마 연못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와쿠타마 연못의 면적은 약 2.5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간다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연못 아래편의 섬에는 맛샤(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붉은 아치형 다리 두 개가 섬과 육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와쿠타마 연못은 지질학적 및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1952년에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湧玉池

湧玉池は、歴史ある富士山本宮浅間大社の境内にある、自然湧水の池です。

浅間大社は富士山頂への巡礼路における重要な拠点で、室町時代（1336-1573）にこの巡礼路が非常に人気を集めました。参詣者は登山の前に湧玉池で身を清める義務があり、その様子は社宝となっている数百年前の掛軸にも描かれています。

池の水は、富士山の高地に降った雨や雪解け水が岩質の地層に浸透し、長い年月をかけて多孔質の溶岩層でろ過された後、山麓で約 13 度の湧水として湧きだしたものです。湧玉池には、1 日約 20 万トンの水が安定して流れ込んでいます。

池の面積は約 2.5 平方キロメートルで、神田川へと流れ込みます。池の下流側には小さな末社が島の上に建ち、岸とは日本の朱色の太鼓橋で結ばれています。

湧玉池はその地質学的・文化的価値が評価され、1952 年に特別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ました。

【タイトル】 村山浅間神社：概要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무라야마 센겐 신사

무라야마 센겐 신사는 과거 후지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순례길의 일부였습니다. 이 신사의 다이니치도 본당(대일여래전)은 순례객들이 후지산에 봉납한 것을 포함하여 몇백 년 된 불상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 초기, 반불교 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산 정상까지 가는 길 곳곳에 이 봉납 불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11~12 세기 즈음에 후지산의 빈번한 화산 활동과 간헐적인 분화가 잠잠해져 순례객들이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의 신앙 요소가 결합된 산악 수행의 한 형태인 슈겐도의 수행자들이 후지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슈겐도 수행자들은 종교적 수행의 한 형태로서 신성한 산을 오르는 것을 특히 중시했습니다. 12 세기 무렵, 고승 마쓰다이가 후지산으로 향하는 슈겐도 수행자들을 위해 이곳에 사찰을 건립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찰에는 본래 신도 신사와 불교 사찰이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1868 년, 정부는 신도와 불교를 분리하라는 신불분리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오랫동안 권세를 떨쳐온 여러 불교 사찰에 대한 반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일본 전역의 수많은 사찰과 불교 예술품이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의 사찰 또한 불교 박해의 여파로 공식 폐쇄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신사의 불교 유산은 다이니치도에 남아있습니다. 이곳에는 파괴의 위협으로부터 불상을 지키고자 했던 신자들이 옮겨온 수많은 후지산의 불상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슈겐도의 중심적인 신앙 대상인 대일여래의 목조 좌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좌상은 1259 년에 제작된 것으로, 본래 이 사찰의 본존불이었습니다.

<日本語仮訳>

村山浅間神社

村山浅間神社は、かつて富士山頂への歴史的な巡礼路の一部として位置していました。境内にある大日堂には、長年にわたり巡礼者が富士山に奉納したものを含む、数百年の歴史をもつ仏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明治時代（1868-1912）初期の廃仏毀釈以前は、これらの奉納仏が山中に点在していました。11世紀になると、富士山では頻発していた火山活動や断続的な噴火が次第におさまり、登拝が可能になりました。これを契機に、神道と仏教の要素を組み合わせた山岳信仰である修験道の行者たちが富士山に集うようになります。修行道では、霊峰に登ること自体が重要な宗教行為とされています。12世紀頃、この地に僧・末代（まつだい）が修験道の修行者のために寺院を建立し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寺院は当初、神社と寺院の両方を兼ね備えていました。しかし、1868年からの神仏分離政策、全国の多くの仏教寺院や仏像が破損・廃絶されました。当地の寺院も廃寺となりました。現在でも、仏教の遺産は大日堂に残されており、山中の仏像は破壊を避けるために信者によって堂内に移されました。また、大日

堂には修験道の中心的な仏である大日如来の木造座像も展示されています。この像は 1259 年に制作され、もともとは寺院の本尊として安置されていました。

【タイトル】 村山浅間神社：護摩壇、水垢離場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고마 의식 제단

고마 의식(불 속에 공양물을 던져 번뇌를 태우고 소원을 비는 의식)은 후지산 등반 시즌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의식으로, 전통적으로 매년 7 월과 9 월에 거행됩니다. 이 의식 동안 사람들은 '고마기'라는 나무 막대에 질병과 부상 예방을 기원하는 기도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 고마기를 태우는데, 이때 피어오르는 연기가 기도를 하늘로 실어 나른다고 여겨집니다. 슈겐도 수행자들은 전통적으로 후지산을 등반하기 전과 등반한 후에 이 제단에서 고마 의식을 올렸습니다.

제단 뒤편에는 슈겐도에서 중요한 신격이자 오대명왕의 중심적인 존재인 부동명왕 불상이 놓여 있습니다. 부동명왕은 악귀와 세속적인 욕망을 물리치는 불교의 수호신입니다. 그는 대체로 분노로 일그러진 위협적인 얼굴을 한 채 신성한 불꽃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정화의 연못

20 세기 이전까지 후지산 등반객들은 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연못에 몸을 담가 정화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정화 의식은 이곳과 후지산 본궁 센겐타이샤에 있는 와쿠타마 연못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광경은 후지산 정상으로 가는 길을 묘사한 무로마치 시대(1336~1573)의 비단 족자에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연못의 물은 매년 7 월 10 일에 열리는 후지산 개산 축제 때에만 사용됩니다.

연못을 내려다보는 불상은 부동명왕을 형상화한 것으로, 슈겐도 수행자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 이들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신격이자 악귀를 말살하는 수호신입니다. 불교에서 부동명왕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확고한 결의를 상징하므로 ‘부동의 지왕’이라고도 불립니다.

<日本語仮訳>

護摩壇

護摩の火祭りは、登山シーズンの開山と閉山にあたる毎年 7 月と 9 月に、伝統的に執り行われてきました。この儀式では、病氣や怪我からの守護を願う祈りを「護摩木（ごまぎ）」と呼ばれる木の札に記し、それを焚き上げます。燃え上がる護摩木の煙が、祈りを天へと届けると信じられています。修験道の行者たちは、富士山の登拝の前後に、この護摩修法壇で護摩供を行うのを習わしとしていました。祭壇の背後に安置されているのは、不動明王の像です。

不動明王は修験道において重要な尊格であり、五大明王の中心的存在とされています。怒りの表情で悪を打ち破る守護神で、欲望を焼き尽くすことを象徴する炎に包まれた姿で描かれることが多くあります。

水垢離場

20 世紀に入るまで、富士山登拝の前、巡礼者はまず身を清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この石造の池は、修行者が清めを行った場所の一つで、浅間大社の湧玉池も同様の場として用いられました。この儀式の様子は、室町時代（1336-1573）にかかれた富士山山頂への道程を表す富士曼荼羅図にも残されています。現在、この池の水は、毎年 7 月 10 日に行われる富士山開山祭の神事の際にのみ使用されています。池を見下ろす像は、不動明王で、山中で修行する修験者たちを守護する存在です。仏教において不動明王は衆生を悟りへ導くゆるぎない決意を象徴することから「不動の智王」とも称される尊格です。

【タイトル】 村山浅間神社：御神木（杉、銀杏）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신목 삼나무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에서는 신사 경내에 있는 몇몇 특정 나무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보통 수령이 아주 오래되거나 크기가 압도적이므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신사 본전과 마찬가지로 경외의 대상이 됩니다. 신목에는 흰 종이 장식을 끼운 '시메나와'라는 금줄이 둘러져 있습니다.

무라야마 센젠 신사의 신목은 수령이 1,000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높이는 거의 50m 에 달하며 둘레는 10m 가 넘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1956 년에 시즈오카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목 은행나무

신도에서는 신사 경내에 있는 몇몇 나무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보통 수령이 아주 오래되거나 크기가 압도적이므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또한 흰 종이 장식을 끼운 금줄인 '시메나와'가 둘러져 신성한 나무임을 나타냅니다.

무라야마 센젠 신사의 신목 은행나무는 수령이 300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높이는 16m 에 달하며 둘레는 8m 를 넘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가지에는 혹처럼 부풀어 오른 공중 뿌리가 매달려 있는데, 그 독특한 모양이 여성의 유방을 닮았다고 하여 바늘로 뿌리를 찌르면 모유가 잘 나오게 된다는 지역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 나무는 1968 년에 시즈오카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御神木・杉の木

神道では、神社の境内にある特定の樹木には神霊が宿ると信じられています。こうした樹木は、年齢や大きさ、生命力などにおいて際立ったものが多く、神社の境内にあり、神社と同じように神聖視されます。その存在を示すため、白い紙垂（しで）を下げた注連縄（しめなわ）が巻かれます。

村山浅間神社の御神杉は、樹齢千年以上と推定され、高さ約 50 メートル、幹の周囲は 10 メートル以上あります。1956 年に県の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ました。

御神木・銀杏の木

神道では、神社の境内にある一部の樹木に神や例が宿ると信じられています。特に年齢や大きさ、力強さで際立った木は神聖視され、注連縄でその神聖さが示されます。

村山浅間神社の御神木である銀杏は、樹齢 300 年以上と推定され、高さ 16 メートル以上、幹の周囲は最も太い部分で 8 メートルを超えます。枝からは球状の気根が垂れ下がっており、その形が乳房に似て

いることから、地元では「氣根に針を刺すと母乳がよく出る」と伝わる伝説があります。この銀杏は 1968 年に県の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ました。

【タイトル】 村山浅間神社：大宮・村山口登山道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역사적인 오미야-무라야마 등산로**

후지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등산로의 시작 지점은 해발 1,440m에서 2,380m 사이에 위치하며 차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보급되기 전에는 훨씬 더 아래의 산자락에서 등산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오미야-무라야마 등산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현재는 무라야마 센겐 신사 근처에 남아 있는 등산로 초기 구간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1~12 세기 즈음 후지산의 빈번한 화산 활동이 잦아들자, 사람들은 종교 순례의 한 형태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야-무라야마 등산로는 일본 최대의 역사적 도로 중 하나인 도카이도와 가까웠기 때문에 서쪽에서 후지산에 오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미야-무라야마 등산로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무로마치 시대(1336~1573) 후기의 비단 족자인 후지 참배 만다라도(후지산 신앙의 세계관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낸 종교화)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만다라에는 후지산 본궁 센겐타이샤에서 시작되어 무라야마 센겐 신사를 지나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슈겐자'라는 산악 수행자들이 이 등산로를 관리하며 등반객들에게 소박한 숙소를 제공하고 길을 안내해 주곤 했습니다.

1906년에 무라야마 지역을 거치지 않고 오미야 방면에서 출발하는 새 등산로가 만들어지면서 역사적인 오미야-무라야마 등산로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부 능선부터 위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오늘날 후지노미야 등산로로 남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宮・村山登山道**

現在、富士山頂への登山道は4本あり、その登山口は標高1,440~2,380メートルの地点に位置し、現在は車でアクセスできます。しかし、自動車が普及する以前は、登山道はもっと下から始まっていました。大宮・村山口登山道も例外ではなく、現在では村山浅間神社のそばに残る登山道の初期区間を示す記念碑が建てられています。

富士山は11世紀まで数世紀にわたって頻繁に噴火を繰り返しましたが、その後、人々は宗教的巡礼として山に登るようになりました。大宮・村山登山道は、山の西側に位置し、当時の都・京都に近かったため、山頂への最も一般的なルートとなりました。

この登山道は、室町時代(1336-1573)後期の絹本「富士曼荼羅図」に描かれており、富士曼荼羅図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曼荼羅には、登山者が富士山本宮浅間大社を出発し、村山浅間神社を経て山頂に至る様子が描かれています。修験者と呼ばれる山岳修行者たちは、登山道を整備

し、簡単な宿泊施設や道案内を他の登山者に提供していました。

1906 年には、大宮地区から直接山へ向かう新たな登山道が開かれ、村山地区を経由しないルートが整備されたため、旧大宮・村山登山道の多くは使われなくなりました。しかし、六合目より上の区間は現在も残されており、現代の富士宮ルートとして利用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村山浅間神社：絹本著色富士曼荼羅図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후지 참배 만다라도

이 작품은 후지산 정상으로 향하는 옛 순례길을 오르는 사람들을 그린 비단 족자입니다. 가노 모토노부(1476~1559)의 작품으로 전해지며, 현존하는 후지산 만다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에 속합니다.

만다라는 불교의 교리와 우주관을 추상적 및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8세기 말에 밀교와 더불어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16세기 무렵에는 ‘참배 만다라도’라는 일본 고유의 형식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만다라는 명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순례지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정교하게 묘사하여, 예비 순례객들에게는 여정에서 마주할 풍경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역할을 했습니다.

후지 참배 만다라도는 한때 서일본에서 오는 순례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경로였던 오미야-무라야마 등산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려진 것처럼 스루가만에서 시작하는 경로는 후지산 본궁 센겐타이샤와 무라야마 센겐 신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림에 보이는 후지산의 세 봉우리에는 각각 그곳에 머문다고 전해지는 부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다라는 후지산을 숭배했던 이들의 의식과 풍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속의 순례객들은 후지산 본궁 센겐타이샤에 있는 와쿠타마 연못과 무라야마 센겐 신사에 있는 정화의 연못에서 정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1872년까지 여성들은 정상까지 등반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만다라 속 여성들은 무라야마 센겐 신사 너머의 작은 사당까지만 등장합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 커다란 삼나무에 활을 쏘아 길흉을 점치는 궁수들과, 평안과 풍작을 기원하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야부사메(달리는 말을 타고 활을 쏘아 과녁을 맞추는 일본의 무예) 의식을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만다라는 1977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후지산 본궁 센겐타이샤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富士曼荼羅図

これはかつて富士山山頂へ向かう古い巡礼路に登る人々の姿を描いた絹本の掛軸です。狩野元信(1476-1559)による作とされ、現存する富士山の曼荼羅の中でも最古級のひとつとされています。曼荼羅とは、仏教の教義や宇宙観を抽象的・図像的に表現したもので、8世紀末に日本に伝わりました。16世紀までに、日本独自に発展を遂げた「参詣曼荼羅図」が成立します。参詣曼荼羅は瞑想の対象であると同時に、巡礼者のための道案内としても用いられ、旅の予想図を示していました。富士参詣曼荼羅図には、かつて西日本からの巡礼者に最も人気があった歴史的な大宮・村山登山道が

描かれています。登山道は下部に描かれた駿河湾の海岸から始まり、富士山本宮浅間大社と村山浅間神社を経て山頂へ至ります。富士山は三つの峰で表され、それぞれに仏が鎮座するとされる姿が描かれています。

曼荼羅はまた、富士信仰の儀礼や風習の歴史的記録としての役割も果たしています。例えば、巡礼者が浅間大社や村山浅間神社で清めの儀式を行う様子が描かれています。1872 年まで女性は山頂への登拝が禁じられていたため、女性は村山浅間神社の先にある小さな堂までしか描かれていません。また、弓を持った人物が吉凶を占うため、高い杉に向かって矢を射る姿や平和や豊作を祈るために馬上での流鏑馬（やぶさめ）の儀式に向かう人々は描かれています。

この富士参詣曼荼羅図は 1977 年に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現在は富士山本宮浅間大社の所蔵です。

【タイトル】 山宮浅間神社：参道入口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야마미야 센겐 신사

야마미야 센겐 신사는 현존하는 후지산 신앙 유적 가운데 가장 초기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신사는 성산 후지산을 모시는 후지산 본궁 센겐타이샤의 전신으로 여겨집니다. 센겐타이샤는 현재 전국 센겐 신사의 총본산(특정 계파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중심지)입니다.

야마미야 센겐 신사는 후지산이 연이어 몇 차례 분화한 이후 진정되기를 바라는 염원 속에서 건립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 의식의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신사는 12 세기 무렵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문헌상으로는 16 세기 기록에서 처음으로 확실히 언급됩니다.

야마미야 센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스러운 자연물을 향해 경배를 올리는 장소인 ‘요하이조’입니다. 대부분의 신도 신사와 달리 야마미야 센겐은 본전에 신을 모시지 않으며, 그 대신 후지산 자체가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사의 입지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야마미야 센겐은 과거 후지산 분화로 형성된 고대 용암류의 끝자락, 바위와 화산 쇄설물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신사는 ‘야마미야 고신코(신의 행차)’라는 의식의 목적지였습니다. 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후지산 본궁 센겐타이샤의 신이 신성한 창에 깃든다고 여겼으며, 이 창을 받들어 이곳 야마미야 센겐까지 6km 의 거리를 행차했습니다. 신사로 오는 길 도중에는 창을 잠시 내려놓기 위한 큰 돌들이 놓여 있었는데, 야마미야 센겐으로 진입하는 주요 경로에도 두 개의 돌이 남아있습니다. 이 의식은 1874 년에 중단되었으나 2006 년에 부활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山宮浅間神社（やまみやせんげんじんじや）

山宮浅間神社は、富士山信仰に関連する現存最古級の遺跡の一つです。現在、富士山信仰の全国の総本社である富士山本宮浅間大社の前身に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富士山の噴火を鎮めるために建立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12 世紀には周辺で儀式が行われ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ますが、神社の存在が確実に記録された最初の証拠は 16 世紀の文献にあります。

山宮浅間神社は遥拝所（ようはいじよ）と呼ばれる信仰の場で、遠くから聖地を拝むことができる施設です。一般的な神社のように本殿にご神体を祀っているのではなく、祀られる神は富士山そのもので、山自体を御神体として拝します。また、その立地にも深い意味があります。山宮浅間神社は古い溶岩流の端に位置し、過去の噴火で堆積した噴出物の中に建っています。

歴史的には、この神社は「山宮御神幸（やまみやごしんこう）」という儀式の目的地でもありました。儀式では、富士山本宮浅間大社の神が神聖な鉾に宿るとされ、その鉾をここ山宮まで 6 キロ運んだと伝えられ

ています。参道の途中には、鉾を休めるための大きな石が据えられており、山宮浅間の参道にも二つの石が残されています。この神事は 1874 年に一度途絶えましたが、2006 年に復活し、現在も受け継が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山宮浅間神社：遥拝所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요하이조: 멀리서 경배를 올리는 곳

이 올타리 너머에는 야마미야 센겐 신사의 ‘요하이조’가 있습니다. 요하이조란, 자연물이나 지형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신성한 대상을 향해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를 뜻합니다. 요하이조가 있는 신사에는 본전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신 빈 공간 덕에 숭배의 대상이 되는 자연물을 막힘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탁 트인 공간에서는 신사에서 모시는 가장 핵심적인 숭배 대상인 후지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요하이조는 후지산이 있는 북동쪽을 향해 있어 맑은 날에는 멀리서도 후지산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올타리 너머에 줄지어 놓인 화산석들은 승려와 관리들을 위한 의자 겸 야외 제단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신사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에도 시대(1603~1867) 후기의 문헌에 기록될 당시에도 이미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후지산 등반은 신앙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으나,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신성한 산의 위쪽은 물론, 심지어 일부 사찰에는 발을 들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몰래 산을 오른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하이조 덕에 더 많은 사람들이 후지산 숭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日本語仮訳>

遥拝所：遠くから拝む場所

この柵の向こうに広がっているのが、山宮浅間神社の遥拝所です。遥拝所とは、聖地に直接行かなくても拝むことができる信仰の場を指します。遥拝所を持つ神社では本殿を設けず、代わりに進行対処を一望できる空間が設けられているのが特徴です。ここでは、ご神体である富士山を遮るものなく望むことができます。遥拝所は北東方向、すなわち富士山の方角に向けて配置されており、天氣の良い日には遠くに富士山が望めます。柵の向こうに並ぶ火山岩の列は、かつて神職や役人が座る席や野外祭壇として使われていました。この神社の多くはいまだ謎に包まれており、江戸時代（1603～1867年）の文献に記された頃には、すでに長く廃絶していました。富士山に登拝することも敬意を表す方法の一つでしたが、誰もが行え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例えば女性は、歴史的に聖なる山の上部や特定の寺院への立ち入りが禁止されており、密かに拝した女性もいたとされています。このような遥拝所は、より多くの人々が富士山を信仰することを可能にしました。

【タイトル】 人穴富士講遺跡：概要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히토아나 용암 동굴과 기념비**

히토아나 용암 동굴은 후지산 승배를 기반으로 한 종교 운동인 후지코 수행자들에게 아주 신성한 장소입니다. 후지코는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와 산악 수행 전통인 슈겐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후지코 신자들은 후지산 등반이 영적인 공덕을 쌓는 종교적 수행이라고 믿었으며, 히토아나 용암 동굴은 후지코 순례 중 중요한 기착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신사와 함께, 수세기에 걸쳐 후지코 신자들이 세운 수백 개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후지코는 후지노미야 지역에서 엄격한 고행을 이어 갔던 슈겐도 수행자인 하세가와 가쿠교(1541~1646)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창시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히토아나 용암 동굴 안에서 작은 나무토막 위에 발끝으로 선 채 1,000 일 동안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동굴 안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계시를 통해 후지산이 세계의 '기둥'이며, 혹독한 수행을 통해 전란으로 얼룩진 일본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18 세기 초에 이르러 가쿠교의 후계자들에 의해 후지코는 독립된 종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후지산 정상으로의 반복적인 순례는 신앙의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후지코는 18 세기에 그 인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종교 운동은 특히 에도(현 도쿄)에 거주하던 상인, 농민 등 서민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후지산을 여러 차례 오르는 것은 비용과 시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신자들은 '코'라는 이름의 하위 집단을 만들어 집단의 대표로 여정을 떠날 신자에게 공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히토아나 주변의 수많은 비석은 이러한 대표자들의 순례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日本語仮訳>**人穴と記念碑**

人穴は、富士山信仰を基盤とし、仏教や山岳修行である修験道の影響を強く受けた宗教運動「富士講」の信者にとっての聖地です。この場所には神社や、富士講信者が何世紀にもわたり建立した数百の記念碑が並んでいます。

富士講は、修験道の行者であった長谷川角行（1541-1646）の教えを基礎として成立しました。角行は、過酷な身体的修行を乗り越えることで超自然的な力を得られると信じていたとされています。伝承によれば、この人穴の中で神のお告げを受け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その啓示によれば、富士山が世界の「柱」であり、厳しい修行を通じて戦乱に揺れる日本に平和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と悟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18 世紀初頭になると、角行の後継者たちによって富士講は独立した宗教として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り、富士山頂への繰り返しの巡礼は、信仰の中心的な教義となりました。

富士講が最も盛んになったのは 17~18 世紀で、特に江戸（現在の東京）の町人や農民の間で強い

支持を集めました。しかし、富士山への巡礼は費用も時間もかかるため、誰もが行け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その代わり、信者たちは「講」と呼ばれる小集団を形成し、共同で資金を出し合って代表者を選び、その代表者が集団を代表して巡礼に赴く仕組みを作りました。人穴周辺の石碑の多くは、こうした代参者の巡礼を記念して建立されたものです。

【タイトル】 人穴富士講遺跡：溶岩洞穴「人穴」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히토아나 용암 동굴**

이 83m 길이의 용암 동굴은 몇백 년 동안 후지산 신앙의 성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히토아나 용암 동굴은 8,000 년에서 11,000 년 전 후지산 분화로 형성된 용암 동굴입니다. 용암 동굴은 용암류의 표면이 식어 굳는 동안 내부는 열이 보존되어 여전히 액체 상태일 때 형성됩니다. 분화가 끝난 후에도 내부의 용암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 굳은 외벽 안에 텅 빈 굴만 남게 됩니다.

이 동굴은 13 세기 말 또는 14 세기 초 가마쿠라 막부(1185~1333)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아즈마카가미’에도 등장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 동굴은 불교와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의 신앙 요소가 결합된 후지산 신령의 현현인 ‘센겐 대보살’이 깃든 장소라고 합니다.

후지코 종교 운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하세가와 가쿠교(1541~1646)는 신성한 장소라는 동굴의 명성에 이끌려 이곳을 수행 장소로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8 세기에 쓰여진 전기에 따르면, 그는 동굴에 들어가 작은 나무토막 위에 균형을 잡고 섰다 1,000 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행을 이어가던 도중, 그는 장차 후지코 신앙의 토대가 되는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쿠교는 죽기 직전 이 동굴로 돌아와 생의 마지막을 보냈다고 합니다.

후지코 신자들에게 있어 이 동굴을 비롯해 가쿠교의 삶에서 중요했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은 후지산 순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존경의 표시로 동굴 안에 석조 기념비와 불상, 그리고 작은 사당을 남겼습니다.

참고: 동굴 내부에 들어가려면 사전 등록을 하고 가이드가 동행해야 합니다.

<日本語仮訳>**溶岩洞穴「人穴」**

全長 83 メートルのこの溶岩洞は「人穴」とも呼ばれ、数世紀にもわたり富士山信仰の神聖な場とされてきました。

溶岩洞穴「人穴」は、約 8,000~11,000 年前に起きた富士山の噴火によって形成されました。溶岩洞穴は、溶岩流の表面が冷えて硬化する一方で、内部の溶岩が熱を保ちながら流れ続けることで作られます。噴火が収まった後も内部の溶岩は流れ続け、外側の硬化したトンネルだけが残ります。

この洞窟は、鎌倉幕府（1185-1333）の歴史を記した 13 世紀末から 14 世紀初頭の歴史書『吾妻鏡』にも登場します。書物では、洞窟を「浅間大菩薩」の住まいとして描いており、仏教と神道の要素を融合させた富士山の神霊の顕現とされています。

富士講の開祖とされる長谷川角行（1541-1646）は、人穴が霊地として知られていたことから、修行の

地としてこの洞穴を選ん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18 世紀の伝記によれば、角行は洞窟に入り、わずかな木片の上で 1,000 日間、食事も睡眠もとらずに修行し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その過酷な修行の中で、富士講の教義の基礎となる神のお告げを受けたといえます。伝説では、角行は晩年にも再びこの洞穴に戻り、最期の時をこの地で過ごしたとも語られています。富士講の信者にとって、洞窟や角行ゆかりの重要な場所を訪れることは、富士山巡礼の一部でした。洞窟内には、信者たちが敬意の印として建立した記念碑や仏像、祠が残されています。

※洞窟に入るには事前登録とガイドの同行が必要です。

【タイトル】 人穴富士講遺跡：碑塔群と富士講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후지코의 기념비

히토아나 용암 동굴 입구 부근에는 230 여 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들은 17~18 세기에 크게 번성했던 후지산 숭배 중심의 종교 운동인 후지코의 신자들에 의해 조성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기념비가 후지코 신자들의 종교 순례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후지코는 특히 에도(현 도쿄)의 상인, 농민 등 서민층 사이에서 널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 차례 후지산에 오르는 것이 이들 신앙의 핵심 교리였으나, 이 여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자들은 ‘코’라는 이름의 하위 집단을 만들어 대표자를 선발해 단체를 대표하여 후지산을 순례하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공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는 일정한 형식을 따릅니다. 상단에는 비석을 세운 집단의 문장(紋章)이, 중간에는 집단의 소재지가 새겨져 있으며, 하단에는 소속 구성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세워진 기념비는 20 세기의 것으로, 후지코 산하의 공동체가 근대까지 남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 후지코의 기반을 다진 하세가와 가쿠코(1541~1646)와 같이 후지코의 중요한 인물들을 기리는 비석들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富士講の記念碑

人穴溶岩洞の入口付近には、230 基以上の石碑が立ち並んでいます。これらは、17~18 世紀に栄えた富士山信仰の一派・富士講の信者によって建立されました。

多くの石碑は巡礼の記念として建てられています。富士講は、江戸（現在の東京）を中心に、町人や農民など庶民の間で非常に人気がありました。富士山への繰り返しの登拝は信仰の中心的教義でしたが、多くの人にとって費用も時間もかかり過ぎるものでした。そこで信者たちは「講」と呼ばれる信仰集団を組織し、講のメンバーが代表として富士山へ登拝できるよう資金を提供し、巡礼の記念碑を建立しました。

石碑の刻文には一般的な形式があります。最上部には講の紋章、中段には講の所在地、下部には構成員の名前が記されています。最も新しい石碑は 20 世紀に建てられたもので、富士講が近代以降も存続してき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その他の石碑は、富士講の開祖・長谷川角行（1541-1646）など、富士講における重要人物を顕彰する石碑も建て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人穴富士講遺跡：人穴浅間神社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히토아나 센겐 신사**

히토아나 센겐 신사는 후지산과 관련된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의 여신인 고노하나사쿠야히메를 모시는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과 인연이 깊은 두 역사적 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와 하세가와 가쿠교(1541~1646)를 모시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야스는 최고 권력자인 쇼군으로서 도쿠가와 막부(1603~1867) 체제하에 일본을 통일했으며, 후지산 일대 여러 신사를 후원한 유력 인물이었습니다. 가쿠교는 후지코 종교 운동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이곳에는 원래 불교 사찰이 있었으나, 1868년 정부의 신불분리령에 따라 철거되었습니다. 이를 대신해 최초의 히토아나 센겐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 부대가 이 일대를 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인근 마을인 시바야마로 이전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건물은 계속 시바야마에 남아 현재의 시바야마 센겐 신사가 되었습니다. 1954년, 이곳에 히토아나 센겐 신사를 위해 새 건물이 세워졌으며 현재의 것은 2001년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日本語仮訳>**人穴浅間神社（ひとあなせんげんじんじや）**

この神社は、富士山にゆかりのある神道の女神・木花咲耶姫（このはなさくやひめ）を祀っています。また、この地域に関係の深い歴史的人物である徳川家康（1543-1616）と長谷川角行（1541-1646）も祀られています。家康は江戸幕府（1603-1867）を開き日本を統一した将軍で、富士山周辺の神社の有力な庇護者でした。角行は富士講の開祖とされています。

もともとこの地には仏教寺院がありましたが、1868年の神仏分離令により解体されました。その後、代わりとして最初の人穴浅間神社が建てられました。しかし、第二次世界大戦中にこの地域が戦車の訓練場として使用されたため、神社は近隣の芝山町に移されました。戦後も建物は芝山町に残され、芝山浅間神社として存続することになります。その後、1954年に人穴浅間神社のための新しい社殿がこの地に建てられ、現在の建物は 2001 年に造営されたものです。

地域番号	013	協議会名	長浜市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13-001	「観音の里ストーリー」長浜の観音文化について（概要）	624	看板
013-002	渡岸寺観音堂（向源寺）：概要	609	看板
013-003	渡岸寺観音堂（向源寺）：十一面観音立像（国宝）	740	看板
013-004	渡岸寺観音堂（向源寺）：十一面観音立像（県指定）	397	看板
013-005	安念寺：概要	459	看板
013-006	安念寺：いも観音	545	看板
013-007	赤後寺：概要	521	看板
013-008	赤後寺：千手観音立像	433	看板
013-009	赤後寺：聖観音立像	520	看板
013-010	冷水寺：概要（冷水寺胎内仏資料館）	581	看板
013-011	冷水寺：聖観音坐像（胎内仏）＆十一面観音坐像（鞘 仏）	633	看板
013-012	冷水寺：十一面観音坐像（脇仏）	441	看板
013-013	善隆寺、和蔵堂：概要	388	看板
013-014	善隆寺、和蔵堂：十一面観音立像	383	看板
013-015	大浦腹帯観音堂：概要	457	看板
013-016	大浦腹帯観音堂：十一面観音立像（腹帯観音）	509	看板

【タイトル】「観音の里ストーリー」長浜の観音文化について（概要）

【想定媒体】看板

<韓国語>

나가하마: 관음보살의 땅

시가현 나가하마는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상이 많아 '관음보살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130 점이 넘는 보살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는 약 5km² 당 불상이 하나 있는 셈입니다.

나가하마는 비와호 북쪽 연안을 따라 자리한 도시로, 과거에는 문화 교류와 무역의 주요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700년대 후반부터 불교가 번성하여 나라와 교토의 웅장한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나라 시대 말기(710~794년)와 헤이안 시대 초기(794~1185년)에 제작된 일본 대표 불상 중 일부를 이곳 나가하마의 소박한 지역 사찰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많은 불교 사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버려졌으나 지역의 주민들은 직접 관음보살상을 지켜왔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이 지역을 휩쓴 치열한 전투와 자연재해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관음보살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땅에 묻거나 강물 속에 숨겼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쟁의 폭력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월과 풍파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크고 작은 신사 및 사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가하마의 유명한 관음보살상을 관람하고 싶으시다면 다카쓰키 간논노사토 역사민속자료관 관음보살상 안내 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관음과 십일면관음

관음보살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서원을 세웠으며 일본에서 가장 널리 숭배받는 보살 중 하나입니다. 관음보살은 여섯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며, 그중에는 수많은 팔을 뻗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천수관음과 그 얼굴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상징한다고 여겨지는 십일면관음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長浜：観音の里

滋賀県長浜市は、慈悲の仏・観音菩薩像を多く有することから「観音の里」と呼ばれています。長浜市内の各地に 130 体以上の観音像が祀られており、およそ 5 平方キロメートルに 1 体の割合で存在します。

長浜は琵琶湖の北岸に位置し、かつては文化と交易の重要な拠点でした。仏教は 8 世紀後半からこの地域に広まりました。奈良や京都の大寺院ではなく、長浜の素朴な地域の小さなお堂に、奈良時代後期（710-794 年）や平安時代初期（794-1185 年）の日本を代表する仏像が数多く残されています。

時代の流れの中で、多くの寺院が衰退・廃絶していきながら、地域の人々は観音像を守り続けてきました。長きにわたり地域を苦しめた戦乱や災害の中で、村人たちが観音像を地中に埋めたり、川に沈めたりして、破

壊から守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今日では戦火ではなく時の流れや風雨から、住民たちが大小さまざまな寺院や祠で観音像を大切に守り伝えています。

長浜の名高い観音像を拝観するには、高月観音の里歴史民俗資料館の観音コンシェルジュ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千手観音と十一面観音

観音菩薩は、人々の苦しみを救うという誓願を立てた慈悲の仏であり、観音は日本で最も広く信仰されている仏の一つです。

観音は六つの姿に変化するとされ、その中には、無数の手で人々を救済する「千手観音」や、悟りへの道を象徴するともいわれる複数の顔を持つ「十一面観音」があります。

【タイトル】 渡岸寺観音堂（向源寺）：概要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도간지 절 (도안사)

도간지 절은 불교 장려 정책과 나라 대불 완공으로 유명한 쇼무 천황(701~756) 재위 시절인 736 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도간지 절은 승려 사이초(767~822)가 히에이산에서 창시한 천태종의 주요 사찰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천연두가 고대 수도인 나라를 휩쓸었을 때, 쇼무 천황이 승려 다이초(682~767)에게 해결책을 찾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다이초는 오늘날 도간지 보관소에 모셔져 있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을 조각하고, 도간지 절을 세워 이 불상을 모시고 수도의 평안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16 세기에는 비와호의 북쪽 연안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도간지 절이 파괴되었습니다. 다행히 십일면관음보살상은 마을 사람들이 땅에 묻어두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회복되자 사람들은 불상을 다시 땅에서 파냈고, 이를 안치하기 위해 새로운 불당을 세웠습니다.

1888 년에 궁내청 관리였던 구키 류이치(1852~1931)는 이 관음보살상을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조각상 중 하나로 극찬한 바 있으며, 1897 년에는 일본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불상이 모셔져 있던 작은 법당이 노후되어 전국적인 일어난 기부 운동에 다양한 불교 종파가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1925 년에 새로운 본당이 건설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도 공동체가 본당과 일본 불교 조각의 걸작으로 인정받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이 보관된 수장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장고는 넓은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어 주위를 걸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관음보살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渡岸寺観音堂

渡岸寺観音堂は、聖武天皇（701-756）の御代、736 年に創建され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聖武天皇は仏教の振興や奈良の大仏建立で知られています。比叡山で最澄（767-822）が開いた天台宗の有力な信仰の場となりました。

伝承によれば、奈良の都で天然痘が流行した際、聖武天皇は泰澄（682-767）に対策を求めました。修行僧であった泰澄は、現在の渡岸寺観音堂に安置される十一面観音を彫り、その後この寺を創建し、像を安置して都の平安を祈ったとされています。

16 世紀には、琵琶湖の北岸地域一帯で激しい戦乱が繰り返られ、渡岸寺はその結果荒廃しました。しかし幸いにも十一面観音は地元の村人によって土中に埋められ、難を逃れました。戦乱が収まった後、像は掘り出され、新しくお堂が建てられて安置されました。

1888 年、宮内庁の九鬼隆一（1852–1931）はこの観音像を日本でも屈指の傑作と称賛し、1897 年には国宝に指定されました。当時、像を安置していたお堂は老朽化していたため、全国的な寄付運動が行われ、さまざまな仏教宗派から支援が寄せられました。この広範な支援により、1925 年に新しい本堂が完成しました。

現在では、信仰者のコミュニティが本堂と、日本の仏像彫刻の傑作である十一面観音を安置する収蔵庫を維持しています。収蔵庫は広々とした設計になっており、来訪者は像の周囲を歩きながら、さまざまな角度から鑑賞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渡岸寺観音堂（向源寺）：十一面観音立像（国宝）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도간지 절(渡岸寺, 도안사) 십일면관음보살상(일본 국보)

전승에 따르면 승려 다이초(682~767)는 천연두가 창궐했을 당시 치유와 가호를 기원하기 위해 이 십일면관음보살상을 조각하고 도간지 절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16 세기에 일어난 전란으로 절이 소실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불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땅에 묻었습니다. 전란이 잦아든 후 사람들은 불상을 다시 파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불당을 세웠습니다. 십일면관음보살상은 1897 년 일본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전용 수장고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7 점의 십일면관음보살상 중에서도 도간지 절의 관음보살상은 예술성 면에서 단연 돋보입니다. 노송나무 하나를 통째로 깎아 만든 이 불상은 헤이안 시대(794~1185) 초기의 조각 양식을 잘 보여 주며, 높이는 177.3cm 에 달하고 금박 흔적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아한 자세와 유려한 눈썹선부터 부드럽게 다문 입술까지 표현한 섬세한 디테일은 고요한 품격을 보여 줍니다. 살짝 기울어진 골반과 오른발을 앞으로 내민 자세는 역동성을 더하고, 인물의 전체적인 형태에서는 강인함과 관능미마저 느껴집니다.

불상의 11 개 얼굴 중 하나는 깨달음을 나타내고, 세 개는 자비를 표현하며, 세 개는 분노를 표현하고, 나머지 세 개는 찬탄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보살의 머리 뒤편에는 폭소를 터뜨리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 얼굴은 인간의 부정함과 이기심, 도덕적 모호성에 대한 관음보살의 강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상에는 장식용 귀고리와 본 얼굴 위가 아닌 양옆에 배치된 두 개의 얼굴 등, 일본 불상에서는 보기 드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도와 중국의 불상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줍니다.

더욱이 관음보살의 머리 가장 꼭대기에 있는 얼굴은 일반적으로 관음의 미래성불을 나타내는 ‘여래상’ 이지만, 이 불상에서는 자비를 뜻하는 ‘보살상’ 인 것이 특징입니다.

013-003

<日本語仮訳>

渡岸寺観音堂 十一面観音立像（国宝）

伝承によれば、泰澄（682-767）がこの十一面観音を彫り、天然痘が流行した折に人々の治癒と加護を祈るために渡岸寺観音堂を創建したとされています。

16 世紀の戦いで渡岸寺が焼失した際、地元の村人たちはこの像を破壊から守るために地中に埋めしました。戦いが収束したのち掘り出され、お堂が建てられ、そこに安置されました。1897 年に国宝に指定され、現在は専用の収蔵庫で安置・公開されています。

国宝に指定されている七体の十一面観音の中でも、渡岸寺の観音はその卓越した芸術性で際立っています。檜の一木造で、平安時代（794-1185）初期の仏像様式を示しており、177.3 センチの高さを誇り、現在は一部に金箔がわずかに残っています。その優美な姿勢と、流麗な眉の線から柔らかく閉じた唇に

至るまでの繊細な細部の表現が気品ある静けさを湛えています。腰をわずかにひねり、右足を一步踏み出す姿には躍動感が感じられ、全体では力強さとともに、官能的な美すら漂わせています。

十一面の表情のうち、一面は悟り（仏面）を表し、三面は慈悲（菩薩面）、三面は忿怒（瞋怒面）、三面は賞賛（狗牙上出面）を表しています。後頭部には最後の一面として、人間の不浄さや自己中心性、道徳的な曖昧さに対する観音の驚きと怒りを示す、恐ろしく狂笑する顔（暴悪大笑面）が配されています。

またこの像には、耳飾り（耳当）や、頭上ではなく本面の両脇に二つの頭を置く構造といった日本の仏像にはあまり見られない特徴もあります。これらはインドや中国の仏像彫刻からの強い影響を示しています。さらに、頂上の仏面は、通常は観音の未来成仏を示す如来相であるところ、この像では菩薩相となっている点も特筆されます。

【タイトル】 渡岸寺観音堂（向源寺）：十一面観音立像（県指定）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도간지 절(渡岸寺, 도안사) 십일면관음보살상(현 지정 문화재)

비자나무 목재 하나를 통째로 깎아 만든 십일면관음보살상으로 높이 39cm이며, 12 세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이 불상은 원래 외부에 비공개로 보관된 비불(숨겨진 불상)인 국보 불상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찰 참배객들은 직접 볼 수 없는 더 큰 관음보살상 대신 이 불상에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현재 국보 불상은 본당 옆 수장고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의복은 정교한 무늬로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기리카네라고 알려진 이 정교한 장식 기법은 아스카 시대(552~645)에 아시아 대륙에서 전해졌습니다.

장식용 머리띠인 천관대와 꽃무늬가 있는 보관이 관음보살의 머리 위에 있는 작은 얼굴을 받치고 있습니다. 옷은 매우 정교하게, 불상 뒷부분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장인의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얼굴은 작고 균형 잡혀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있으며 볼은 도톰합니다. 몸은 가늘고 자세는 부드러우며 어깨는 둥그스름합니다.

＜日本語仮訳＞

渡岸寺観音堂 十一面観音立像（県指定文化財）

この十一面観音像は一木造でカヤから彫られ、高さは 39 センチ、12 世紀の作とされています。元々は秘仏として公開されていなかった国宝像に代わって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参拝者は、直接見ることはできない大きな観音像ではなく、この小像に向かって祈りを捧げていたのです。現在、国宝の像は本堂に隣接する収蔵庫で展示されています。

この像の衣には、細かく切った金箔で文様が施されています。この精巧な装飾技法は 截金と呼ばれ、飛鳥時代（552-645）に大陸から伝わった技法です。

天冠台の上に花文様の冠を表し、その上に小面を配します。観音像の衣の彫刻は非常に精巧で、像の背面まで及んでおり、作者の卓越した技量を示しています。顔は小さく均整が取れており、目は伏せられ、頬はふっくらとしています。身体は細身で柔らかな体つき、肩は丸みを帯びています。

【タイトル】 安念寺：概要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안넌지 절 (安念寺, 안념사)

안넌지 절은 쇼겐 호시(생몰년 미상)라는 승려가 쇼무 천황(701~756) 재위 시절인 726년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넌지 절에는 귀중한 불상이 여럿 있었으나, 격동의 시대에 수차례 파괴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16 세기에 무장 오다 노부나가(1534~1582)가 지역 다이묘(영주) 아자이 나가마사(1545~1573)를 공격했을 때 일어난 대규모 전투로 인해 절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란 동안 마을 사람들은 안넌지 절의 관음보살상을 인근 들판에 묻어 지켰습니다. 목상들은 땅속에 묻혀 있는 동안 부식이 진행되어 원래의 특징을 많이 잃었습니다. 땅에서 파낸 후에는 거칠고 투박해진 모습 때문에 ‘감자 관음보살상(이모칸논)’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넌지 절의 현재 본당은 1933년에 지어졌으며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에는 원래 17 점의 관음보살상이 있었지만, 2000 년에서 2003 년 사이 7 점이 도난당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안넌지 이모칸논 보존회가 주도한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노후 건물 보수 자금을 마련하여 천 년의 역사를 지닌 섬세한 보물들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13-005

<日本語仮訳>
安念寺

寺の記録によれば、僧詳嚴法師（生没年不詳）が、聖武天皇（701-756）の御代、726年に安念寺を創建したとされています。安念寺は貴重な仏像を安置していましたが、それは、度重なる戦乱の中で破壊の危機に直面しました。16世紀には大規模な戦乱で寺が焼失したと伝えられており、織田信長（1534-1582）が浅井長政(1545-1573)を攻めた戦いに巻き込まれた可能性があります。

この戦乱の間、村人たちは安念寺の観音像を近くの畑に埋めて守りました。地下に埋められていた木造の仏像は朽ちて特徴の多くを失いました。掘り出された後、その粗く風化した姿から「いも観音」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現在の安念寺本堂は1933年に建てられ、今も村の住民たちが管理を続けています。当初、寺には17体の観音像が安置されていましたが、2000年から2003年の間に7体が盗まれました。近年では、安念寺いも観音保存会による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が行われ、老朽化した建物を修理する資金が集められ、千年の歴史を持つ繊細な宝物の保存に役立て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安念寺 : いも観音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안넌지 절(安念寺, 안념사):감자 관음보살상(이모칸논)

안넌지 절의 감자 관음보살상은 약 천 년의 역사 동안 전란에 휘말리고, 논에 묻히고, 강물에 잠기고, 세월의 풍파에 마모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친숙하고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 따르면 20 세기 초까지 아이들이 여름철에 요고가와 강에서 놀 때 이 불상들을 물놀이용 튜브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애정 어린 친숙함, 불상의 투박한 모습, 그리고 물에 씻는 것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이 감자 관음(이모칸논)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유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자 관음상은 9 세기~11 세기 경에 각각 하나의 노송나무 목재를 통째로 사용해 조각되었으며, 이는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을 보여 줍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불상의 특징이 마모되어 쉽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중심이 되는 불상은 관음보살과 석가모니불(역사상 실존했던 부처) 또는 아미타불(서방 정토를 관장하는 부처)로 여겨집니다.

16 세기에 일어난 전란으로 인해 지역이 황폐해져 가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귀중한 불상들을 땅속 또는 강 속에 숨겨 보호했습니다. 불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묻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1583 년 시즈가타케 전투 이후 파내었다고 하지만 에도 시대(1603~1867) 중후반까지 땅속에 묻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安念寺 : いも観音

安念寺のいも観音像は、数千年にわたる歴史の中で、戦火にさらされ、田んぼに埋められ、川に沈められ、時の経過で風化していくという、数々の困難をくり抜けてきました。それでも、地域の人々にとって長く親しみのある大切な存在であり続けました。村の年長者たちは、20 世紀初頭まで、子どもたちが夏に余呉川で水遊びをしていたときに、いも観音像を浮き具として使ってい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このような身近さ、粗い外見、そして水で洗われることが日常的であったことが、独特の名前「いも観音」の由来になったのかもしれない。

いも観音像は 9~11 世紀に彫られ、いずれも一木造の檜で、極めて高度な技術を示しています。時間の経過により像の特徴は失われ、容易に特定できる状態ではありませんが、中心の像は観音菩薩や仏（歴史的な仏である釈迦如来や、西方浄土を司る阿弥陀如来など）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16 世紀の戦乱で地域が荒廃した際、村人たちはこれらの貴重な像を地中や川に隠して守りました。像がどのくらいの期間隠されていたかははっきりしていません。一説には 1583 年の賤ヶ岳の戦い後に掘り出されたとされますが、江戸時代中期から後期（1603-1867）まで発掘されなかった可能性もあります。

【タイトル】 赤後寺：概要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샤쿠고지 절 (赤後寺, 적후사)**

샤쿠고지 절은 유루기 산 산기슭의 삼나무 숲 속에 자리 잡은 약 70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 가라카와의 사찰입니다. 샤쿠고지 절은 불교 사찰임에도 본당에서 신성한 거울과 소원을 적는 판자인 에마 등, 신도(일본의 전통 종교)의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불교와 신도 신앙이 융합된 이러한 모습은 두 종교가 역사적으로 결합되어 온 방식과 지역사회의 포용적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 사찰에는 헤이안 시대(794~1185)에 제작된 훌륭한 관음보살상 두 점이 모셔져 있습니다. 12 세기와 16 세기에 마을 사람들은 화재와 전쟁으로부터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강에 가라앉혔습니다. 수습된 불상들은 사찰로 다시 옮겨져 비불, 즉 ‘숨겨진 불상’ 으로 모셔졌고, 수 세기 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1969 년부터입니다.

불상들은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에서 가져온, 화려하게 장식된 불감(佛龕)인 ‘즈시’ 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즈시는 닛코 도쇼구 신사의 화려한 요메이몬 문과 유사하며, 같은 17 세기 장인의 작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찰 계단 아래쪽에는 강바닥에서 가져온 마쿠라이시, 즉 ‘베개 돌’ 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돌 두 개가 있습니다. 전쟁과 파괴를 피해 강 속에 가라앉아 있던 불상들이 강바닥에서 이 돌을 베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日本語仮訳>**赤後寺**

赤後寺は、涌出山の麓の杉林に囲まれ、約 70 軒ほどの小さな集落・唐川の人々のための寺院です。本堂は仏教建築でありながら、神鏡や絵馬などの神道要素も備えています。この仏教と神道の融合は、歴史的に両宗教が共存してきた形を示すとともに、地域コミュニティの包摂的な精神を反映しています。

寺には平安時代（794–1185）の優れた観音像が二体安置されています。12 世紀および 16 世紀には、火災や戦乱から守るため、村人たちがこれらの像を近くの川に沈めたといいます。回収された後、何世紀にもわたり、これらの像は秘仏として安置され一般公開されませんでした。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た 1969 年に一般公開されました。

観音像は、厨子と呼ばれる豪華な安置箱に祀られています。この厨子は静岡県浜松市から運ばれたもので、日光東照宮の陽明門のような精巧な装飾を持ち、17 世紀の同じ職人の作と考えられています。

寺の階段の下には、川床から取られた枕石と呼ばれる大きな石が二つあります。かつて観音像が戦火や破壊から守られるために川に沈められていた際に、その頭部は、この枕石の上に置かれていたと伝えられていま

す。

【タイトル】 赤後寺：千手観音立像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천수관음**

이 훌륭한 불상은 9 세기 초에 제작되었습니다. 천 개의 팔을 뻗어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구원하는 관음보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둥근 얼굴, 가느다랗고 긴 눈, 도톰한 입술은 강렬한 표정을 자아내고, 곡선형의 눈썹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자세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상체는 풍만하고 골반은 넓고 단단하며 다리는 길고 가늉니다. 사실적인 신체 묘사와 다리 부근의 입체적인 옷주름 표현은 불상이 헤이안 시대(794~1185) 초기에 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수 세기 동안의 정치적 불안정은 나가하마에 간헐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주민들과 사찰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불상은 화재나 전쟁과 같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 12 세기와 16 세기에 인근 강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평화가 회복되자 불상은 다시 야쿠고지 절의 본당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는 한때 머리 꼭대기를 장식했던 얼굴들은 사라진 상태로, 원래 42 개의 팔 중 12 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이 1960 년대 후반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千手観音**

この仏教美術の傑作は、9 世紀前半に制作されたものです。千本の手を伸ばして困っている人々を救おうとする観音の姿を表しています。

丸みを帯びた顔、細長い目、ふっくらとした唇が力強い表情を生み出し、曲線を描く眉は静謐な厳かさを添えています。像はやや前かがみで、豊かな上半身、しっかりとした腰、長くほっそりとした脚を持っています。体のリアルな描写や、脚周りの衣のひだに彫られた高低の交互の隆起は、平安時代初期の作風を示しています。

長きにわたる戦乱は長浜にも影響を及ぼし、地域の人々や寺院が危険にさらされることがありました。伝承によると、12 世紀と 16 世紀の火災や戦乱から守るために近くの川に沈められたとされています。平和が戻ると赤後寺の本堂に戻されました。現在では頭上面は失われ、元々 42 本あった腕のうち 12 本だけが残っています。この不幸な損傷が、1960 年代後半まで像が一般公開されなかった理由の一つかもしれません。

【タイトル】 赤後寺：聖観音立像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성관음보살상

성관음보살상은 높이 1.82m 로, 9 세기 후반에서 10 세기 초 사이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고 화려한 즈시(불감) 안에 천수관음보살상과 나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관음보살상은 보살의 기본 형태로, 여러 개의 머리카락과 팔과 같은 초자연적인 요소와 같은 특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관음보살과 마찬가지로 한쪽 팔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의 힘을 상징합니다. 다른 한쪽 팔은 살짝 들어 올려 연꽃이나 정병(淨瓶)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두 가지 모두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양손은 소실되었지만 그 외 부분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원래 장식되었던 금박의 흔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눈은 얼굴 중앙 쪽에 위치하며 입술과 코는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잘록하고 팔은 길고 가늘며, 옷주름은 윤곽이 뚜렷합니다. 불상의 비율은 천수관음보살상과 조화를 이룹니다.

사쿠고지 절에 모셔진 성관음보살상과 천수관음보살상은 모두 노송나무 목재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여 조각되었습니다. 어깨에 걸친 장식용 천의 정교한 조각 등 세부 묘사가 매우 뛰어나 헤이안 시대(794~1185) 조각품 중에서도 귀중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불상에 나타난 놀라운 기술력은 나가하마가 불교 문화의 중요한 중심지로서 역사적으로 수행해 온 역할을 보여줍니다.

<日本語仮訳>
聖観音

この 1.82 メートルの聖観音像は、9 世紀末から 10 世紀初頭にかけてつくられたとされています。像は、大きく装飾豊かな厨子の中に安置されている千手観音像の隣に立っています。

聖観音は観音菩薩の基本的な形であり、頭や手が多数あるような超自然的な特徴は持ちません。この像は、聖観音の典型的な姿を示しており、片腕を下げてこの世の苦しみから救う姿を表しています。もう一方の腕はわずかに上げられており、かつては蓮の花や聖なる壺を手にしていたと考えられており、いずれも清浄を象徴するものです。両手先は欠損しているが、美しい姿を留めており、元々の装飾である金箔の痕跡もはっきりと残っています。

聖観音の目は小さく細めで顔の中央に配置され、唇や鼻は精密に彫られています。像の腰は細く、腕は長くほっそりとし、衣のひだも鋭く彫り出されています。聖観音のプロポーションは、千手観音ともよく調和しています。

赤後寺に安置されている聖観音像と千手観音像は、いずれも一木造りの檜材から彫られています。肩から

垂らした装飾布の彫刻技術など、細部にわたる卓越した技術により、平安時代の仏像彫刻の中でも貴重な存在と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像に見られる高度な技術は、長浜がかつて仏教文化の重要な拠点であ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冷水寺：概要（冷水寺胎内仏資料館）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레이스이지 절 (冷水寺, 영수사) 박물관

방 하나로 이루어진 이 작은 박물관은 인근 레이스이지 절의 역사와 절에서 모시는 신비로운 불상을 주제로 합니다.

사찰의 전승에 따르면 레이스이지 절은 승려 교키(668~749)가 창건한 작은 암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583년, 무장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와 시바타 가쓰이에(?~1583)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가하마에서 벌인 시즈가타케 전투로 인해 전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절과 주변 마을은 전투에 휘말려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레이스이지 박물관은 전시의 일부에서 이러한 참사와 마을 사람들의 영웅적이었지만 결실은 거두지 못했던 저항을 소개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과 인근 숲이 불타오르자 레이스이지 절의 관음보살상이 “구해다오! 구해다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불상을 구하려고 달려갔지만, 불상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관음보살상은 전소는 면했으나 심하게 탄 모습 그대로 더 큰 관음보살상 내부에 숨겨져 있다가 최근에 재발견되었습니다. 분할된 사진을 보면 관음보살상이 어떻게 더 큰 관음보살상 안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데, 머리 부분은 더 큰 관음보살상의 배꼽 높이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살아남은 관음보살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기리기 위해, 자칭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박물관’을 구상, 설계, 건설했습니다. 박물관은 상주 직원 없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冷水寺ミュージアム

この小さな一室の博物館は、隣接する冷水寺の歴史と、そこに守られてきた不思議な仏像に捧げられています。

寺の伝承によると、冷水寺は僧・行基（668-749）によって創建された草庵に起源をもつとされています。しかし 1583 年、豊臣秀吉（1537-1598）と柴田勝家（没 1583）が権力を巡って長浜で戦った、賤ヶ岳の戦いという戦火に見舞われます。寺とその周辺の村は戦いに巻き込まれ、焼き払われてしまいました。

博物館の展示の一部では、この惨事と、村人たちの勇敢ながらも実を結ばなかった抵抗の様子が伝えられています。伝説によれば、村と隣接する森が炎に包まれる中、冷水寺の観音像が「助けて！ 助けて！」と叫んだということです。村人たちは急いで救い出そうとしましたが、観音像はすでに炎に包まれていました。

幸いにも観音像は全焼を免れ、ひどく焼け焦げた姿のまま、より大きな観音像の内部に隠されて最近になって再発見されました。二分割の写真には、その像が大きな仏像の内部に収められていた様子が示されており、頭の高さがちょうど大きな仏像のへその位置ほどとなっています。

この博物館は、地域の住民たちによって構想・設計・建設され、自称「世界一小さなミュージアム」として運営されています。常駐スタッフはおらず、24 時間開館しており、戦火をくぐり抜けた観音像の物語を記録し、その存在を称える場とな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冷水寺：聖観音坐像（胎内仏）& 十一面観音坐像（鞆仏）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레이스이지 절(冷水寺, 영수사):관음보살좌상(태내불)과 십일면관음좌상(사야보토케, 덮개 불상)

1583년 시즈가타케 전투에서 원래 불상을 모시던 사찰이 파괴되자 마을 사람들은 관음보살좌상을 보호하기 위해 레이스이지 절을 건립했습니다. 불상은 전쟁 중 화재로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봉안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대로 끝날 수도 있었으나, 17세기 후반에 불상이 우연히 재발견되었습니다.(일부 전승에 따르면 관음보살이 모셔진 불감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상이 훼손된 것에 충격을 받고 힘을 합쳐 불상을 감싸는 ‘덮개 불상(사야보토케)’을 만들었습니다. 불에 탄 관음보살상은 새로 만들어진 십일면 관음 좌상 안에 '태내불'로 들어가 약 3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상 안에 또 다른 오래된 불상이 있다는 사실은 잊혀지고 마을의 전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레이스이지 절의 지붕 보수 공사 중 십일면관음좌상을 대좌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운반 작업을 감독하던 마을 사람들은 불상 안에 오래된 불상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새까맣게 탄 관음보살상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불상을 지키려던 조상들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작은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불에 탄 관음보살상이 완전히 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단단한 느티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큼니다. 관음보살상의 높이는 110cm이며, 양팔의 팔꿈치 아랫부분이 소실된 상태입니다. 둥글고 통통한 얼굴과 큰 눈으로 보아 10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日本語仮訳>

冷水寺：観音坐像（胎内仏）と十一面観音坐像（鞆仏）

地元の村人たちは、1583年の賤ヶ岳の戦いで当初この像を安置していた寺が焼失した後、この座像の観音像を守るために冷水寺を建立しました。戦乱の際の火災で大きく損傷していたため、この像は扉を閉ざしたまま永く人々の目に触れぬよう安置されました。

そのまま物語は終わるはずでしたが、17世紀後半に偶然によって再び姿を現します。（伝承によれば、像が安置されていた厨子の扉がひとりでに開いたともいわれています。）村人たちはその痛ましい姿に驚き、力を合わせて焼損した観音像を包み込む鞆仏を造りました。焼けた観音像は胎内仏として新しい十一面観音坐像の内部に安置され、その約300年もの間、人々の目から隠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やがて「仏像の中にさらに古い仏像がある」という話は、村の中の噂として語り継がれるだけとなりました。

1997年、冷水寺の屋根修復工事の際、十一面観音坐像が台座から降ろされました。そのとき立ち会った村人たちは、中から胎内仏が現れるのを目の当たりにし、大いに驚きました。黒く焦げたその姿に深く胸を

打たれた村人たちは、この観音の物語を記録する小さな博物館をつくり、像を守ろうとした先祖の努力を称えその想いを世の中に伝えることを決めました。

この胎内仏が焼失を免れたのは、櫟の硬い木材で造られていたためと考えられています。像の高さは110センチで、両腕は肘から先が失われています。ふっくらとした丸顔と大きな目の造形から、10世紀頃の作と推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冷水寺：十一面観音坐像（脇仏）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레이스이지 절(冷水寺, 영수사):십일면관음좌상(협시불)

원래 이 십일면관음좌상은 오래되고 손상된 관음보살상을 안에 품고 있던 더 큰 사야보토케(덧개 불상) 관음보살상 옆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불상과 사야보토케 관음보살상은 모두 일본 노송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같은 자세를 한 십일면관음좌상입니다. 현재 이 불상은 나가하마의 다카쓰키 간논노사토(관음 마을) 역사민속자료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본존불 옆에 모시는 '협시불'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 마을 사람들은 사야보토케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이 협시불을 전시해 기부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불상의 팔 부분에는 보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장시간에 걸친 이동에서 비롯된 손상으로 보입니다.

사야보토케와는 달리, 이 불상은 어깨에 천의(장식용 천)를 두르고 있지 않으며 팔꿈치가 각기 다른 각도로 구부러져 있는데, 이는 반복적인 보수 작업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상의 눈은 반쯤 감겨 있으며 오른손의 엄지와 중지, 약지는 안쪽으로 접혀 있고, 왼손에는 연꽃을 쏜 정병(淨瓶, 성수를 담은 병)을 들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冷水寺：十一面観音坐像（脇仏）

この十一面観音坐像は、古く損傷した観音像を内部に納めていた鞘仏観音のそばにもともと安置されていました。鞘仏とこの像はいずれもヒノキ材で造られ、同じ姿勢の十一面観音坐像を表しています。現在は高月観音の里歴史民俗資料館に収蔵・展示されています。本尊のそばに祀られる脇仏の一例であり、寺院では一般的に本尊の左右に配置されます。

17世紀末から18世紀初頭にかけて、村人たちは鞘仏建立の資金を集めるため、この脇仏を各地へ持ち出して公開し、寄進を募ったと伝わっています。そのため腕部には修復の痕跡が残っており、巡行の過程で損傷し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鞘仏とは異なり、この像は肩に装飾的な天衣をまとい、肘の角度も異なっています。これは繰り返しの修理によるものとみられます。この脇仏の目は半眼で、右手の親指と中指・薬指が内側に折りたたまれ、左手には水瓶と蓮華を持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善隆寺、和蔵堂：概要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와쿠라도**

와쿠라도는 나가하마 아마카도 지역의 젠류지 절 경내에 위치해 있지만, 절과는 별개로 와쿠라코라고 불리는 4 개의 가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쿠라도에는 목조 십일면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약 600 년 전, 십일면관음보살상은 인근 마을의 한 사찰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관음보살상이 사찰 관리인의 꿈에 나타나 지금의 위치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옮겨진 불상을 모시기 위해 와쿠라도가 세워졌습니다.

십일면관음은 유명 작가 이노우에 야스시(1907~1991)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노우에 작가는 불상의 모습에 마음을 뺏겨 밤늦도록 자리에 앉아 불상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후 작가는 1972 년 소설 《별과 축제》에서 이를 언급했고, 소설로 인해 불상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불상에는 매년 500~600 명 정도가 찾아오는데, 그중 상당수가 전국 각지에서 와쿠라도를 찾아온 관람객입니다.

<日本語仮訳>**和蔵堂**

和蔵堂は長浜市山門にある善隆寺の境内にありますが、独立したお堂で、和蔵講と呼ばれる4軒の家族によって守られています。現在ここには、有名な十一面観音菩薩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

今からおよそ600年前、この十一面観音像は隣村の寺院に祀られていました。伝承によれば、ある夜、観音像が寺の守り役の夢に現れ、「和蔵堂の現在地へ移してほしい」と告げたといいます。そのお告げに従い、観音像はこの地に移され、和蔵堂が建立されました。

この十一面観音像は、著名な作家・井上靖（1907-1991）によって全国的に知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井上はその姿に心を奪われ、夜遅くまで座して見入ったといいます。その後、1972年の小説『星と祭』の中で言及し、この像は全国的な注目を集めました。現在では、毎年500~600人ほどの参拝者が日本各地から和蔵堂を訪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善隆寺、和蔵堂：十一面観音立像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와쿠라도 십일면관음보살상

와쿠라도에는 11세기 초에 제작된 고대 불상인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높이는 약 1m입니다. 위엄 있는 표정, 균형 잡힌 비율,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되고 고르게 배치된 옷주름은 비교적 아담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실물 크기에 버금가는 위엄을 느끼게 합니다. 통통한 팔과 풍만한 몸은 사실성을 추구했던 헤이안 시대(794~1185) 조각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엄지와 중지를 구부리고 있으며, 왼손은 복부 앞에서 화병을 들고 있습니다. 허리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 무릎은 살짝 앞으로 들려 있어 동적인 느낌을 더합니다.

대부분의 십일면관음보살상은 본체 머리 위에 부처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관음보살의 미래 모습을 상징합니다. 반면 이 불상은 본체 머리 위에 관음보살의 현재 모습을 상징하는 보살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요소에서는 다른 십일면관음보살상과 도상학적 특징이 일치합니다.

＜日本語仮訳＞

和蔵堂の十一面観音

和蔵堂には、11世紀初頭にさかのぼる十一面観音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

十一面観音像の高さはおよそ1メートルです。落ち着いた表情、均整の取れたプロポーション、整然と並ぶ衣のひだの美しさによって、小ぶりながらも等身大の像にも匹敵する存在感を放っています。ふくやかな腕や豊かな体つきは、平安時代（794-1185）の身体表現の写実性を示しています。右手は下げられ、第一指と第三指が曲げられており、左手は腹部前に華瓶（花が入った瓶）を持っています。腰は左にひねられ、右膝がやや前に出ており、動きを感じさせます。

一般的な十一面観音像では、観音の仏面には未来の姿を象徴する仏が配されていますが、この像では代わりに「現在の姿」を意味する菩薩となっています。それ以外の図像表現は他の十一面観音像と同じです。

【タイトル】大浦腹帯観音堂：概要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오우라 십일면관음당**

오우라 십일면관음당은 비와호 북쪽 끝에 있는 나가하마의 작은 마을 오우라에 있습니다. 현재의 관음당은 1931년에 건립되었으며, 헤이안 시대(794~1185)의 걸작인 자비의 보살 십일면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최근의 도난 등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오우라 십일면관음은 안전한 임신과 순산을 지켜주는 보살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사찰에서는 일본에서 임산부들이 전통적으로 착용하는 복대(하라오비)를 준비해 둡니다. 복대는 표백한 흰색 면으로 만들며 18 세기의 목판으로 관음보살의 모습을 찍어냅니다. 복대는 불상의 허리에 감아 약 일주일 동안 그대로 둡니다. 또한 사찰에서는 복대를 감는 의식을 하는데, 방문객들은 사찰 관리인이 관음보살의 허리에 복대를 정성스럽게 감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복대는 전국 각지의 임산부에게 우편으로 배송하기도 합니다. 관음당의 복대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일본의 황족에게도 선물로 증정되었습니다.

오우라 십일면관음당 방문을 예약하시려면 다카쓰키 간논노사토 역사민속자료관의 관음 안내 데스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語仮訳>**大浦腹帯観音堂**

大浦腹帯観音堂は、琵琶湖北端の小さな集落・長浜市大浦に位置しています。現在の観音堂は1931年に建てられ、平安時代（794-1185年）の優れた十一面観音像（慈悲の菩薩）が安置されています。この像は、戦火や自然災害、さらに近年では盗難など、数々の困難を乗り越えて今日まで残されてきました。

大浦の十一面観音は、安産と子授けの守護仏として信仰されています。この信仰により、寺では妊婦が用いる伝統的な腹帯が用意されます。腹帯は漂白した白い木綿布で作られ、18世紀の木版画で観音の姿が刷られています。腹帯は観音像の腰まわりに巻かれ、約1週間そのまま安置されます。また寺では腹帯を巻く儀式が行われ、参拝者は寺の世話役が慎重に腹帯を観音の腰に巻く様子を見学できます。また、この腹帯は全国の妊婦に郵送することも可能です。大浦の腹帯は全国的に知られており、皇族の方々へも献上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

大浦腹帯観音堂の参拝や見学の手配については、高月観音の里歴史民俗資料館の観音コンシェルジュ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タイトル】 大浦腹帯観音堂：十一面観音立像（腹帯観音）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오우라 십일면관음당 십일면관음보살상

사찰의 기록에 따르면 이 불상은 히에이산 엔라쿠지 절(연력사)의 창건자인 사이초(767~822)가 조각했다고 합니다. 비자나무 목재 하나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높이는 약 150cm 입니다. 작지만 표정이 풍부한 얼굴 위에는 열한 개의 더 작은 얼굴들이 얹혀 있습니다.

불상은 16 세기 전쟁 중 훼손을 막기 위해 땅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약 90 년 후, 한 승려가 꿈속 계시로 불상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 마침내 세상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불상을 파냈을 때 불상을 담은 면포를 보살의 보호력이 깃든 복대(하라오비)로 만들어 임산부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무사히 출산했다고 전해지며, 이후 불상을 복대로 감싸는 새로운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2003 년 9 월 23 일, 도둑들이 관음당에 침입하여 복대만 남긴 채 관음보살상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관음보살상의 무사 귀환을 조건으로 3 백만 엔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도둑 중 한 명이 훔친 불상을 은밀히 돌려주고 싶다며 절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2005 년 4 월 23 일에 사찰 관리인은 승려로 위장한 경찰과 함께 교토 내의 약속된 장소로 불상을 찾으러 갔습니다. 도둑들은 체포되었고, 불상은 손상 없이 오우라의 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日本語仮訳>

大浦腹帯観音堂：十一面観音

寺の記録によれば、比叡山延暦寺の開祖・最澄（767-822）が、一本のカヤの木からこの観音像を彫ったとされています。像の高さはおよそ 150 センチで、小さいながらも表情豊かな顔の上に、十一の小さな顔があります。

16 世紀の兵火の際、この観音像は損傷や破壊から守るために土に埋められました。そのおよそ 90 年後、ある僧が夢の中で像の場所を告げられたとして、ようやく引き上げられました。

ある一つの伝説によれば、像が掘り出された際、村人たちは綿布で観音像を清め、その布を妊婦に腹帯として配りました。この布には菩薩の加護が宿るとされ、妊婦たちは無事に出産したといえます。こうして、観音像に腹帯を巻く新たな習慣が生まれました。

2003 年 9 月 23 日泥棒が堂に侵入し、腹帯を残して観音像が盗まりました。観音像の無事な返還を条件に、300 万円の懸賞金がかけられました。寺には、盗まれた像をひそかに返却したいという意向で、盗人の一人から電話がありました。2005 年 4 月 23 日、寺の管理者は、提示された京都の住所に像を受

け取りに向かいましたが、その際僧に扮した警察官が同行していました。窃盗犯は逮捕され、観音像は無傷のまま、大浦のお堂に返還されました。

地域番号	014	協議会名	湖南省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14-001	常楽寺/本堂	795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02	長壽寺/本堂	721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03	常楽寺/三重塔	655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04	西應寺/概要、由来	762	Web
014-005	立志神社（りゅうしんじや）/概要、由来	404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06	長壽寺/弁天堂	202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07	白山神社/拝殿	336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08	平松のウツクシマツ自生地/概要	652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09	三雲城跡/概要	1258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10	常楽寺/木造釈迦如来坐像	532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11	常楽寺/木造二十八部衆立像	661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12	長壽寺/木造阿弥陀如来坐像	566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13	長壽寺/丈六阿弥陀如来坐像	539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14	長壽寺/二天王立像	342	Web
014-015	長壽寺/木造釈迦如来坐像	841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16	西應寺/庭園	700	Web
014-017	西應寺/写経体験	576	Web
014-018	立志神社/立志神社にまつわれている神様たち	1349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19	石部宿場の里/概要	819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20	石部歴史民俗資料館/概要	939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21	立志神社/手水舎	360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22	立志神社/御朱印	447	アプリ QR コード/Web
014-023	長壽寺/概要 (リーフレット)	979	パンフレット
014-024	常楽寺/概要 (リーフレット)	1118	パンフレット

【タイトル】 常楽寺/本堂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조라쿠지 사원 본당

조라쿠지는 8세기 초 천황의 칙령에 따라 아보시산에 자리한 대규모 사원 단지의 일부로서 창건된 사원으로, 본당은 이곳의 중심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사원은 나라 지역 남서쪽에 위치했던 황실과 더불어 일본을 수호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불교 천태종에 속하는 조라쿠지는 자비의 보살인 천수관음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1360년 세워진 현재의 본당은 무로마치 시대(1336~1573)의 일본식 와요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진귀한 현존 건축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관과 건축 양식

헤이안 시대(794~1185) 성행했던 와요 양식은 깔끔한 선과 채색하지 않은 자연 목재를 통해 단순함과 우아함을 강조합니다. 건물의 대표적 특징은 입 모양 함각 지붕입니다. 깊고 완만하게 휘어진 처마는 뚜렷한 수평선을 형성해 건물에 안정감을 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낮고 넓은 외관을 연출합니다. 편백나무 껍질 지붕의 부드러운 질감은 본당 전체에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내부 및 의례 공간

정면 7칸, 측면 6칸 규모의 본당은 무로마치 시대 건축물치고는 큰 편입니다. 전면에는 위아래로 여닫는 격자식 덧문이 달려 있어 겉쇠로 고정하며 채광과 통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천태종 의례 규정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세 개의 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 법당은 일반 신도들을 위한 공간이며, 중심 성역인 내법당은 승려가 밀교 의식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내법당의 제단 감실에는 사원의 주존불인 천수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고, 불법을 수호하는 이십팔부중상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방 공간은 일반적으로 의례 행사 및 의례도구 보관에 이용되지만, 조라쿠지 본당의 경우 12세기 제작된 석가모니불 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보존 및 이용 수칙

사원의 본당은 국보이자 지금도 참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당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입구 근처에 신발장과 슬리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법당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비롯해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日本語仮訳>
常楽寺/本堂

本堂は常楽寺の中心的な建物で、阿星山の大規模な伽藍の一部として、8世紀初頭に勅命により建立

されました。この寺院は国家、および南西方向、つまり奈良地方に位置していた朝廷の双方を守護するために建てられました。常楽寺は天台宗に属し、本尊として観音菩薩の化身である千手観音を祀っています。現在の本堂は 1360 年に建てられたもので、室町時代（1336～1573）の和様建築の貴重な現存例であり、国宝に指定されています。

外観および建築様式

和様は、平安時代（794～1185）に発展し、すっきりとした線と天然の無塗装の木材を生かすことで、シンプルさと優雅さが際立っています。この建物の際立った特徴のひとつは、入母屋造の屋根です。深く緩やかにカーブする軒は、力強い水平ラインを作り出し、建物をしっかりと支えるとともに、低く広い姿で周囲と調和しています。柔らかな質感を持つ檜皮葺の屋根の表面は、本堂全体に洗練された優美な印象を与えています。

堂内および儀式的空間

桁行七間、梁間六間のこの本堂は、室町時代としては大きな造りです。正面には、蝶番で上下に開閉する格子戸が鉤で固定され、光や風通しを調節しています。堂内は三つの明確な区画に分けられており、この配置は天台宗の儀式上の要件に従ったものです。外陣は一般参拝者のためのパブリックスペースとして用いられ、内陣（神聖な中心部）は、特別な儀式を行う僧侶のみが入ることを許されています。本尊である千手観音は、本堂内の内陣の祭壇に安置されており、その両脇には仏教の守護神である二十八部衆の像が並んでいます。後陣は通常、儀式や儀式用具の保管に使われますが、常楽寺本堂内のこの空間には、12 世紀に造られた歴史的な仏陀の坐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

保存と行動規範

本堂は国宝であると同時に、現在も信仰の場として使用されているため、参拝者には以下のガイドラインを守っていただくよう願っています。

- 本堂に入る際は靴を脱いでください。入口付近に靴箱とスリッパが用意されています。
- 本堂内での写真撮影、携帯電話等の使用は固く禁じ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長壽寺/本堂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조주지 사원 본당**

이곳 본당은 고대 덴다이 종파 사원에서 드리는 참배의 중심지로 8 세기에 창건되었습니다. 천황의 칙령으로 건립된 이 가람은 국가와 황실 모두의 영적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본당 건물은 초기 사원 설계 양식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법당

현재의 본당은 가마쿠라 시대 초기(1192~1333)에 지어졌지만 8 세기 건축물의 골조가 접목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커다란 하나의 모임지붕이 건물 전체를 덮고 있는 하나의 법당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초기 사원 설계 양식인 ‘쌍당(나라비도)’ 형태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의 사원은 참배하는 법당과 신을 모시는 법당의 길이가 같고, 좁은 틈으로 두 법당이 분리된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이 배치 방식은 부처를 모시는 신성한 공간과 참배하는 신도들의 세속적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두 법당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지붕의 폭이 좁아 빗물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설계

한 지붕 아래 두 법당을 통합하여 만든 조주지 본당은 사원 설계 양식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12 세기 고안된 숨겨진 지붕 지지 구조 덕분에 두 법당 위에 넓은 지붕을 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붕은 폭우로부터 벽과 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넓은 폭은 점점 늘어가는 신도들에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널찍한 입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법당은 일본의 과도기적 설계 구조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현존 건축물 중 하나로, 초기 불교 건축 양식을 만나볼 수 있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보존 및 이용 수칙

이 법당은 국보이자 지금도 참배를 드리는 곳이므로 방문객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당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입구 근처에 신발장과 슬리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법당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비롯해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日本語仮訳>**長壽寺/本堂**

本堂は、8世紀に建立されたこの天台宗の古刹における礼拝の中心となっています。勅命によって建立さ

れたこの伽藍は、国家と朝廷の双方の靈的な守護神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ました。本堂は、初期寺院建築の発展を伝える重要な一例であり、国宝に指定されています。

一つの屋根、二つの堂

現在の本堂は鎌倉時代初期（1192～1333）に建てられたものですが、8世紀の建物の骨組みを取り入れています。外から見ると、一つの大きな入母屋造の軒が建物全体を覆い、単一の堂のように見えます。しかし、その構造はさらに初期の寺院建築である「双堂」（ならびどう）を継承したものです。この形式では、寺院は同じ長さの二つの堂で建てられ、一つは参拝者用、もう一つは本尊安置用とされ、両堂の間は狭い隙間のみで仕切られていました。この配置は、仏像の神聖な空間と参拝者の世俗的な空間の分離を強調していました。しかし、堂同士が近いいため屋根の幅が狭く、雨を防ぐには限界がありました。

革新的な設計

長壽寺の本堂は、双堂を一つの屋根の下に統合することで、寺院建築における重要な転換点を示しています。12世紀に考案された隠れ屋根支持構造によって、二つの堂の上に大きな屋根を架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により壁や基礎が豪雨からよりしっかりと守られるようになり、屋根の幅が広がったことで広々とした入口が生まれ、増え続ける参拝者のための雨宿りの場としても機能しました。この本堂は、日本に現存するこの過渡期における建築様式の非常に数少ない例の一つであり、初期の仏教建築の貴重な一例とな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常楽寺/三重塔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
삼층탑

조라쿠지 사원 삼층탑은 전통 일본 불교 건축을 대표하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1400 년에 건립된 이곳 삼층탑은 뛰어난 수학적 정밀성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 무결성과 조화로운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건축 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거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았고, 역사 기록에서도 주요 골조나 버팀대의 교체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삼층탑에는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깔끔한 선과 자연 소재로 단순함과 우아함을 강조하는 와요(일본식) 건축 양식이 쓰였습니다. 채색하지 않은 목재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완만하게 흰 지붕선을 통해 섬세한 절제미를 보여줍니다. 각 층을 받치는 삼단 버팀대 등 추가적인 구조적 디테일은 일정한 시각적 리듬을 형성해 탑이 균형감 있고 가볍게 보입니다.

탑의 아름다움과 구조적 무결성은 3 개 층 전체에 걸쳐 '시와리' 비례법을 적용한 덕분입니다. 시와리 비례법이란, 서까래 하나의 높이와 폭의 합을 기준으로 한 측정 단위를 이용해 건축물의 구조 재료 비율을 결정하는 엄격한 수학적 기법입니다. 탑에는 이 단위를 이용해 서까래 중심 간 거리, 기둥 중심 간 거리, 처마 돌출 깊이, 기타 건축물 치수를 산정했습니다. 이는 시와리 비례법이 탑의 삼층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된 초기 사례로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당 뒤 언덕 위에 탑을 배치한 것은 조라쿠지가 속한 천태종의 전형적인 배치 방식입니다. 탑은 부처의 몸과 가르침을 상징하며, 예불의 중심 대상 역할을 합니다. 높은 지대에 탑을 세운 것은 국가의 안정과 수호가 영적인 힘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며, 탑을 올린 높이만큼 주변 지역을 영적으로 수호함으로써 탑의 보호력이 강화된다고 여겨졌습니다.

<日本語仮訳>
常楽寺/三重塔

常楽寺三重塔は、日本の伝統仏教建築の卓越した一例です。1400年に建てられたこの三重塔は、類まれな数学的精度によって実現された構造の完全性と美的な調和で有名です。その古さにもかかわらず、建設以来ほとんど修理を必要とせず、史料によれば、主要な骨組みや組物を交換したことも皆無に等しいと言えます。仏塔は国宝に指定されています。

この三重塔は、装飾を施すのではなく、すっきりとした線や自然素材を用いることで簡素さと優雅さを重んじる、和様建築様式で建てられました。その構造は、無塗装の木材や自然な比率に沿った緩やかで優美な曲線を描く屋根のラインによって、さりげなく控えめな美しさを表現しています。また、各層を支えている簡素

な三段の組物などのその他の構造的細部は、一貫した視覚的リズムを生み出しており、仏塔の外観をバランスよく軽やかなものにしています。

この建物の美しさと構造的な完全性は、三層すべてに枝割という比例の規範を採用した手法に根ざしています。この数学的に厳密な技術は、垂木 1 本の高さと幅の合計に基づいた単位を使用し、建物の構造資材の割合を決定します。この単位は、垂木の中心間の距離、1 つの柱の中心から別の柱の中心までの距離、軒の出幅、およびその他の建物の測定に使用されました。これは歴史的に重要な意義を持ち、この手法が仏塔の三層すべてに均一に適用された初期の例となっています。

本堂の背後の丘にこの塔が配置されているのは、常楽寺が属する天台宗に特有の配置様式に基づくものです。仏塔は、仏陀の身体と教えを象徴し、信仰の中心的な礼拝対象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高台に仏塔を建てたのは、国家の安定と防衛は精神力にかかっているという信念を反映したものでした。その高さは、周囲地域の霊的な守護を通じて、仏塔の守護力を増幅させると考えられていました。

【タイトル】 西應寺/概要、由来

【想定媒体】 Web

<韓国語>

사이오지 사원

사이오지 사원은 조도신슈(정토) 불교 종파 소속으로, ‘무한한 빛과 수명의 부처’인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변화하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흔히 ‘꽃의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방문객은 사원에서 사경을 체험(예약 필수)하며 명상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기원

사이오지는 천황의 칙령으로 8 세기에 창건되어 한때 방대했던 사원 단지인 엔만잔 쇼보다지와 역사적인 연이 있습니다. 이 단지는 국가와 황실 모두의 영적 수호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전성기에는 이곳에 거대한 본당과 3 층탑, 37 개에 이르는 승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20 년 이 승당 중 하나를 다시 지으면서 사이오지 사원으로 재건했습니다. 이후 반세기가 지난 1571 년, 지역 분쟁으로 발생한 화재로 엔만잔 쇼보다지 단지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이오지 역시 소실되었으나 이후 재건되었습니다. 원래 웅장했던 사원 단지의 규모와 구조가 사원 소유의 사적 지도에 묘사되어 있으며, 이 지도는 이따금씩 접견실에 전시되기도 합니다.

건식 정원

사이오지 경내의 한복판에는 근처 산과 숲을 차경으로 활용한 건식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의 특징으로는 산을 형상화한 커다란 언덕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언덕들이 좁고 기다란 마른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는 마른 개울과 마른 폭포를 양쪽에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엇갈리게 놓은 돌다리와 징검다리 돌을 따라 인공 수로를 건넌 뒤, 산책로를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면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평화로운 전망대가 나옵니다.

사경 체험

사원에서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사경 체험을 운영합니다. 방문객은 붓과 먹을 이용해 불교 경전의 일부를 필사합니다. 체험은 암석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사원 서재에서 진행합니다. 단순하지만 한 획 한 획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마치 명상하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집니다. 예약만 하면 되며, 별도의 준비나 일본어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기도구는 모두 사원에서 제공합니다.

<日本語仮訳>

西應寺/概要、由来

西應寺は浄土真宗に属し、本尊として無量光・無量寿の仏・阿弥陀如来を祀っています。この寺は、四季折々の美しさを映し出すように植栽された魅力的な境内から、しばしば「花の寺」と呼ばれています。参

拝者は、この寺院で瞑想的な文化体験として写経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要予約）。

寺院の起源

西應寺は、8世紀に勅命によって建立された、かつての大伽藍である円満山少菩提寺と歴史的なつながりを持つ寺院です。この伽藍は、国家と朝廷の双方の霊的な守護神として建てられました。最盛期には、境内に大本堂や三重塔、37の僧坊を備えていました。これらの僧坊のひとつが1520年に再建され、西應寺として再興されました。その半世紀後の1571年、地域間の争いに伴う火災により、壊滅的な被害を受けました。西應寺もまた焼失しましたが、その後再建されました。この伽藍の当初の壮大な規模と配置は、寺院に伝わる歴史的な絵図に描かれており、現在も入り口に展示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枯山水庭園

西應寺の境内の中心には、隣接する山と森を借景として取り入れた枯山水庭園があります。この庭園には、山を表す大きな築山が、枯滝や細長い枯池へと注ぐ枯流れの両脇を囲んでいます。段差を付けて配置された石橋や飛び石が水景の上を渡る道筋を作り、丘の斜面を取り巻くように登る小道はのどかな展望地点へと続き、境内全体を見渡すことができます。

写経体験

寺院では、ガイド付きの写経体験を体験できます。訪問者は、仏教の教えの抜粋を筆と墨でなぞり写します。この体験は、石庭を見渡せる寺院の書院で行われます。シンプルでありながら、一筆一筆に深く集中することで、瞑想のように心がリフレッシュされます。予約は必須ですが、準備や日本語の知識は必要なく、筆記用具もすべて用意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立志神社（りゅうしじんじや）/概要、由来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류시 신사

류시 신사에서는 신토 신화에서 지상 세계의 터를 닦은 것으로 숭배되는 태초의 신 구니노토코타치노카미를 모시고 있습니다. 구니노토코타치노카미는 만물의 시작을 상징하며,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비롯해 다른 여덟 명도 중요한 신으로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신사 이름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뜻을 세워 목표를 추구하는 신사’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신의 도움을 구하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참배객들은 신 앞에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의지와 결의를 다집니다.

신사의 정확한 창건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6 세기부터 사료에 언급되었습니다. 긴메이 천황(509~571) 재위 중 대기근이 닥치자, 천황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는 전국 12 곳 중 하나로 류시 신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기도에는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천황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이 모여 류시 신사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겠다는 진지한 맹세를 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立志神社（りゅうしじんじや）/概要、由来

立志神社は、地上世界の基盤を築いたとされる神道の原初の神である、国之常立神を本尊として祀っています。この神は万物の始まりを象徴し、幸運と繁栄を授けるとされています。太陽神である天照大御神を含む八柱の神々も、主祭神とともに祀られています。

神社の名前は文字通り、「志を立てて目標に向かうための神社」を意味します。古来より、人々は目標達成のために神の加護を求め、ここを訪れてきました。神社では、参拝者は神々の前で祈りを捧げ、自らの意志と決意を表明します。

神社の正確な創建時期は不明ですが、6 世紀の歴史的記録に神社について記されています。欽明天皇（509~571）の時代、大飢饉の際に天皇に代わって祈りを捧げる全国 12 か所の神社のひとつとして、この神社が選ばれました。この祈りには、飢餓に苦しんでいる民を救いたいという天皇の熱い思いが込められていました。こうした行動により、この神社は命に関わる重要な誓いを立てる場所として建てられました。

【タイトル】 長壽寺/弁天堂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벤텐도 사당

이 작은 사당에서는 물, 시가, 음악, 지혜, 행운 등 흐르는 모든 것의 신인 벤자이텐을 모시고 있습니다. 1484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당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기원을 헤이안 시대(794~1185)에서 찾을 수 있는 와요(일본) 불교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팔각지붕과 노송피 이음 방식이 바로 대표적인 와요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지붕을 장식한 중국풍의 ‘카라하후(둥근 오지형)’ 박공 등에서 후대의 영향도 엿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長壽寺/弁天堂

この小さな堂には、水・詩・音楽・知恵・財福など、流れるものすべてを司る神、弁財天が祀られています。日本各地の神社仏閣で崇拝されています。1484年に建てられたとされるこの建物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この堂は、平安時代（794～1185年）にまで遡る、仏教建築の和様様式で建てられています。入母屋造りの屋根と檜皮葺の使用は、和様の典型的な特徴を示しています。しかし、この堂の屋根には中国風の装飾的な要素である唐破風（丸みのある、葱花線形の切妻）など、後世の影響が認められます。

【タイトル】 白山神社/拝殿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하쿠산 신사 법당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하쿠산 신사 법당은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소하고 가벼운 건축물은 헤이안 시대(794~1185) 초기 와요(일본식)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법당은 소박한 세 칸짜리 정사각형 구조로, 아무런 장식이 없는 배 형상의 까치발과 처마 아래로 넓게 펼쳐진 서까래가 있습니다. 주 기둥의 모서리는 비스듬하게 깎여 있어 건축물에 세련미를 더해 줍니다. 사방에 모두 있는 격자문은 개방감을 높여주는 보기 드문 디자인 요소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주지 사원의 수호 신사 역할을 한 하쿠산 신사는 창건 연대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1287년 기록에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불교 사원 단지 내에 신토 수호신전을 세우는 관습은 헤이안 시대(794~1185) 신토와 불교가 점점 융합되면서 보편화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白山神社/拝殿

白山神社の拝殿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おり、室町時代（1336～1573年）に建立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この建築様式の簡素さと軽快さは、平安時代（794～1185年）の初期和様建築の典型です。

この堂は、簡素な三間四方の構造で、装飾のない舟形肘木と、軒下に見える、広い間隔で置かれた垂木で構成されています。主要な柱の角は面取りが施され、構造に洗練された印象を与えています。四方すべてに備わった格子戸は、開放感を高める珍しい要素となっています。

歴史的には、白山神社は長寿寺の守護神社でした。創建年代は不明ですが、1287年の文書に初めてその神社のことが記されています。仏教寺院の境内に神道の守護神を祀る慣習は、神道と仏教の融合が進む平安時代（794～1185年）に一般的になりました。

【タイトル】 平松のウツクシマツ自生地/概要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

미마츠산의 우츠쿠시마츠 소나무

‘우츠쿠시마츠(Pinus densiflora Sieb et Zucc.form. umbraculifera Miyoshi)’는 아름다운(‘우츠쿠시이’) 다중 줄기 모양에서 이름을 따온 일본 적송 자생종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원래 고난시 미마츠산 남쪽 사면에서만 자생하던 수종입니다. 이 자생 소나무 군락과 서식지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20 분쯤 걸어가면 순환 산책로를 따라 그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묘목과 유목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방문객은 절대 산책로를 벗어나거나 초목을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츠쿠시마츠’의 모습은 보통 곧게 뻗은 외줄기로 자라나는 일반적인 일본 적송과는 아주 다릅니다. 비교해 보면, 이 변종은 지면에서 3m 사이의 낮은 높이에서 여러 개의 줄기로 갈라져 활짝 펼친 부채나 우산을 닮은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 독특한 형상은 현지 소나무 개체군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열성 유전자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1920 년대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군락의 개체 수가 급감, 1924 년 450 그루에 달하던 성목이 2019 년에는 단 86 그루에 불과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지방정부에서는 군락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활동에는 정기적인 제초 작업과 천연 갱신을 촉진하는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우츠쿠시마츠 자생지의 면적은 약 1.9 헥타르입니다. 이 좁은 면적 안에 놀랍도록 오래 사는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최고 고목은 수령이 200~300 년에 이릅니다. 가장 큰 나무는 높이 약 12.7 미터, 둘레 약 2.1 미터입니다.

<日本語仮訳>

平松のウツクシマツ自生地/概要

ウツクシマツ (Pinus densiflora Sieb et Zucc.form.umbraculifera Miyoshi) とは、自生する日本のアカマツの在来種で、その名は美しい多幹の姿に由来しています。現在では世界中で栽培されていますが、自生するものは湖南省の美松山の南斜面に限られています。この自生の松林とその生息地は、国の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ています。周回路が整備されており、20 分ほどで敷地を回ることができます。繊細な苗木や幼木を保護するため、見学者は遊歩道から外れず、植物に触れず、何かを持ち出すことがないよう求められています。

ウツクシマツの外観は、通常単幹で真っ直ぐに成長する日本アカマツとは大きく異なります。対照的に、この変種は、地面から 3 メートルほどの間の低い位置で複数の幹に分かれ、扇や傘を広げたような独特の形を

生み出しています。遺伝子解析では、この独特の形状は、地元のアカマツ個体群に存在する単一の劣性遺伝子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ています。

1920 年代以降、この松林の個体数はマツ枯れ病によって激減し、1924 年に 450 本あった成木は、2019 年にはわずか 86 本にまで減少しました。これを受けて、地方自治体はこの松林を守るための保全活動を行っています。この取り組みでは、定期的な下草刈りや自然再生を促すためのモニタリングなどが行われています。

ウツクシマツの生息地は約 1.9 ヘクタールにわたり広がっています。この小さな区域内的のウツクシマツは非常に長寿で、最も古い個体は樹齢 200～300 年と推定されており、最大の樹木は、高さ約 12.7 メートル、幹周り約 2.1 メートルにも達します。

【タイトル】 三雲城跡/概要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미쿠모 성터**

미쿠모성은 아시카가 막부 통치 시대가 붕괴된 이후 내전이 거의 끊이지 않던 일본 센고쿠(전국) 시대(1467~1568) 건립되었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는 지역 군벌들이 패권을 다투며 비와호 남쪽에 자리한 이 산성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지금은 등산로를 따라가면 이 역사적인 성터에 다다르게 되는데, 토루, 견해자, 석벽 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성까지 도보로는 왕복 약 45 분입니다.

교토 인근의 전략적 요새

미쿠모성은 오미국(현 시가현)의 군사 통치자로 막강했던 롯카쿠 가문이 1487 년 축성했습니다. 롯카쿠 가문은 비와호 연안 인근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있는 본성이 함락될 경우, 지휘관들이 후퇴할 수 있는 제 2 의 요새로 미쿠모성을 지었습니다. 이 성의 관리와 유지에 가신인 미쿠모 가문에 위임했는데, 성의 이름도 이 가문에서 유래했습니다.

남쪽 호숫가를 따라 이어지는 주요 진입로와 비와호가 내려다보이는 미쿠모성은 병사들이 적군의 움직임을 살펴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감시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오미국은 센고쿠 시대의 전략적 요충지로 격전이 벌어졌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 중요성은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일본 동부와 서부를 잇는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기인합니다. 황궁의 수도, 교토로 향하는 ‘관문’이었던 오미국을 장악하는 것은 일본 전역을 지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에 맞선 저항

미쿠모성은 군벌 오다 노부나가(1534~1582)가 일본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토를 장악하려는 공세를 벌이기 시작한 1568 년 패권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시카가 막부에 충성하던 롯카쿠 가문의 지도자 롯카쿠 요시카타(1521~1598)와 그의 아들은 항복을 거부하고 노부나가의 진격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성에서의 패배 후 남쪽으로 후퇴하면서 고카 산악 지대 안 깊숙한 곳에서 계속 저항했습니다.

로카쿠 당주는 미쿠모 가문과 동맹인 고카 닌자의 지원을 받아 미쿠모성을 최후의 요새로 삼았습니다. 게릴라전에 능하다고 알려진 고카 닌자들은 긴밀한 첩보를 제공했고, 노부나가군에 맞서 끈질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완강히 저항하며 고카의 게릴라 전술이 효과를 발휘했음에도 1574 년경 미쿠모성이 노부나가군에 함락되면서 롯카쿠 가문의 권세도 막을 내렸습니다.

요새의 구조

미쿠모성은 산악 지형과 숲을 방어 진영에 활용하도록 설계된 전형적인 ‘야마지로(산성)’였습니다. 이 성에서는 단순한 토루와 수직 참호를 이용해 분산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성의 구조는 능선을 따라 층층이 배치된 5 개의 주요 방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역은 진입로를 방어하고 전략적으로 지역을 정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적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산비탈에 과농은 방어용 도랑과 깊은 해자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본채는 당주의 거주지로 사용될 정도로 넓었고, 장기간 포위되는 상황에 대비해 돌을 쌓아 만든 우물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로 흙과 나무로 만든 요새였지만 일부 구간은 나중에 석벽으로 보강했으며, 정문에는 정교한 상자형 석조문(‘마스가타’)을 설치해 적병의 진입을 늦추고 함정에 빠뜨리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석조 요새는 롯카쿠 가문 몰락 후에 증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14-009

<日本語仮訳>

三雲城跡/概要

三雲城は、日本の戦国時代（1467～1568）に築られました。足利幕府による支配の崩壊後、ほぼ絶え間なく争いが続いた時代です。この動乱の時代、守護大名たちは覇権を争い、全国の拠点に城砦を築きました。そのひとつが琵琶湖の南にあるこの山城です。

現在、ハイキングコースが整備されており、土塁、空堀、石垣などが残っている城の史跡へと続いています。ハイキングコースの所要時間は、登山口の駐車場から往復で約 45 分です。

京都近郊の戦略拠点

三雲城は 1487 年、近江国（現在の滋賀県）で強い勢力を持つ武将であった六角家によって築城されました。六角家は、さらに北方にある琵琶湖畔付近の本拠地が陥落した際、一族のリーダーたちが避難できる第二の城砦としてこの城を築きました。この城の管理と維持は、六角家の家臣であった三雲氏に委ねられ、城の名前は三雲氏に由来しています。

琵琶湖とその南岸の主要街道を見渡せるこの城は、兵士たちが敵軍の動きをいち早く察知し、警告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重要な監視拠点としても機能しました。戦国時代の近江国は、戦略的に最も重要で、激しく争われた領土のひとつでした。その重要性は、この地が日本の中心に位置し、東日本と西日本を結ぶ交通の要所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いたことに由来します。都である京都への「玄関口」である近江を支配することは、国全体の支配への前提条件とされました。

織田信長に対する抵抗

三雲城が覇権争いの中心的な舞台となったのは、1568 年、戦国大名である織田信長（1534～1582）が、天下統一の一環として京都の支配権を奪取する軍事作戦を開始したときでした。足利幕府に忠実であった六角家当主・六角義賢（1521～1598）とその息子は、信長に従わず、その進軍を阻もうとしました。しかし、彼らは本拠地で敗北し、南への退却を余儀なくされ、その後も甲賀山間部の奥地から抵抗を続けました。

六角家は、三雲一族とその同盟者である甲賀忍者の支援を受け、三雲城を最後の砦に選びました。ゲリラ戦の達人として知られる忍者たちは、重要な情報を提供し、信長軍に対して執拗な攻撃を仕掛けました。頑強な抵抗と甲賀の効果的なゲリラ戦術にも関わらず、三雲城は 1574 年頃に信長軍に攻略され、六角家の勢力は終焉を迎えました。

城砦の構成

三雲城は典型的な山城で、山の地形や森林を防御に活用できるように設計されました。三雲城は単純な土塁と竪堀を用いて、分散化された砦を築いています。城は尾根に沿って階層化された 5 つの主要な曲輪で構成され、それぞれが侵攻路を防御し、その地域における戦略的な視界を確保していました。敵の動きを制御するために山腹に掘られた防御溝や深い堀の跡は、現在も残っています。

主郭は領主の住居としては十分な広さがあり、長期的な包囲戦に備えた、石で縁取られた井戸がありました。主に土と木で築かれた砦でしたが、後に一部は石垣で補強され、正門には、洗練された石造りの桁形門が設けられました。これは敵を足止めし閉じ込めるために設計された場所です。これらの高度な石造りの要塞は、六角家が滅亡した後に追加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常楽寺/木造釈迦如来坐像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

석가모니불 좌상 (조라쿠지 사원 본당)

이 도금 불상은 역사적 부처, 석가모니가 연화좌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가슴 높이에서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한 채, 손가락을 위로 쪽 뻗어 두려움을 없애는 무드라 손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무릎 위에 올려 은혜를 베푸는 동작을 상징합니다.

12 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요세기즈쿠리’라는 정교한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편백나무 조각 여러 개를 부분적으로 움푹 파내 접합한 후 조각하는 방식입니다. 조각이 완성되면 조각상에 옷칠을 하고 금박을 덧입혔습니다. 드문드문 금박이 벗겨져 그 아래 검은 옷칠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상은 무릎 아래부터 머리 끝까지 길이가 139.1cm에 달합니다.

이 조각상은 가마쿠라 시대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신흥 지배층인 사무라이 계급이 선호하던 힘과 권력의 과시를 투영하며 발전한 미술 양식 작품입니다. 양식의 대담함은 조각상 전체에 걸쳐 뚜렷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깊은 부조로 새긴 선명한 얼굴 윤곽과 잘 발달된 근육질의 가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옷 주름 장식이 인상적인 깊이감과 입체감을 자아내고, 엄지발가락의 발톱까지 섬세하게 조각하는 등의 세부적인 디테일이 조각상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이 좌상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常楽寺/木造釈迦如来坐像

この金箔貼りの像は、蓮華座上に結跏趺坐する歴史上の仏陀、釈迦如来の姿を表しています。右手のひらを胸の高さで外に向け、指を上方に伸ばしており、恐怖の払拭を表す印相を結んでいます。また、左手を膝の上に置き、手のひらを上方に向けており、恩恵の施しを象徴しています。

12世紀に作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この像は、寄木造と呼ばれる洗練された技法で作られており、複数の檜材の塊の一部をくり抜き、組み合わせたうえで彫刻しています。彫刻が完成した後、像に漆を塗り、金箔を施しています。一部では金箔が剥がれ、黒い漆の下地が見える箇所もあります。この像の膝の付け根から頭頂までの高さは139.1センチメートルです。

この彫刻は、鎌倉時代の躍動感の典型であり、この芸術様式は、新たに台頭した武士階級が好んだ強さと力の投影を反映して発展したものです。この大胆な作風は、深い浮き彫りを施した力強い顔立ちや引き締まった筋肉質の胸部に表れており、像全体にその特徴がはっきりと示されています。衣の鋭い襷は印象的な深みとボリュームを生み出し、親指の爪の丁寧な彫刻などの細部は、像に生き生きとした写実性を与えて

います。この像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常楽寺/木造二十八部衆立像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28 수호신상과 풍신·뇌신상 (조라쿠지 사원 본당)**

조라쿠지의 숨겨진 본존불인 천수관음보살 양옆에는 30 여 점의 목조상이 있습니다. 천수관음보살은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의 화신입니다. 이 목조상에는 모든 신도를 위한 보살의 구원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강력한 불교의 수호자, 28 수호신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수호신은 자비와 지혜부터 힘과 방어까지, 뚜렷하게 다른 영적 역할을 상징합니다. 28 수호신상과 함께 놓인 풍신·뇌신상은 자연의 원초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일부 조각상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두 명 이상의 조각가가 1308 년에서 1314 년 사이에 이 목조상들을 조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 점 중 28 점은 중요문화재로 일괄 지정되었습니다.

각 조각상은 ‘요세기즈쿠리(접합목)’ 기법을 이용하여 편백나무를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법은 그 이전 시대에 성행한 ‘이치보쿠즈쿠리(일목조)’ 기법의 대안으로 11 세기에 등장했는데, 움푹 파인 나무 조각 여러 개를 접합해 조각상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법은 특히 커다란 원목이 불균일하게 건조되어 발생하는 갈라짐, 뒤틀림 현상을 완화하고 여러 조각가가 동시에 각기 다른 부분을 조각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조각상이 잔물결이 이는 근육질에 험악한 표정을 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손에는 무지를 베어내는 검, 악을 물리치는 미늘창, 거짚을 산산조각 내는 ‘바즈라’ 같은 상징적인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상의 눈은 수정으로 상감 장식하여 강렬한 눈빛이 더욱 돋보이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30 점 중 잃어버린 두 조각상은 풍신상과 28 수호신 중 하나입니다. 두 조각상 모두 도난당한 후 아직 되찾지 못했습니다.

<日本語仮訳>**常楽寺/木造二十八部衆立像**

常楽寺の本尊（秘仏）である千手観音像の両側には、30 体の木彫像（一部欠落）が並んでいます。千手観音は観世音菩薩の化身です。これらの像には、すべての信者の救済を菩薩と共に助ける、仏教の強力な守護者である二十八部衆が含まれており、それぞれの守護者は、慈愛や知恵から強さや防御に至るまで、異なる精神的な役割を担っています。二十八部衆とともに、自然の根源的な力を象徴する風神像と雷神像が配置されています。一部の彫像に刻まれた碑文では、この一揃いの仏像は 1308 年から 1314 年の間に少なくとも二人の仏師によって制作された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30 体から成る一連の像のうち 28 体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それぞれの像は、寄木造の技法を用いて檜材から彫刻されたものです。この革新的な技法は 11 世紀に

登場し、それまでの一木造に取って代わるものとなりました。寄木造は、複数の木材をくり抜いて組み立てる工程を経ます。この技法にはいくつかの利点がありました。すなわち、大きな無垢材の乾燥ムラによるひび割れや反りを軽減することや、複数の彫刻家が同時に別々の部位を制作できることなどが挙げられます。

多くの像が隆起した筋肉や陰しい表情で表現され、その守護の役割を体現しています。こうした像の手には、無知を切り裂く剣、悪から身を守る鉾、虚偽を打ち砕く金剛杵など、象徴的な武器が握られています。また、すべての像には水晶の象眼が施されており、その視線の強さを劇的に際立たせています。

この一揃いの像の中で欠落しているものは、風神像と二十八部衆のうちの一体です。どちらも盗難の被害に遭い、未だ行方不明です。

【タイトル】長壽寺/木造阿弥陀如来坐像

【想定媒体】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아미타여래 좌상 (조주지 사원 본당)**

142.5cm 의 이 도금 목조 불상은 무량광명수명불인 아미타불이 합장한 채 결가부좌로 앉아 무드라 명상 자세를 취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좌상은 연화좌 위에 모셔져 있으며, 그 뒤로 부처의 영원한 광채와 깨우침을 상징하는 이중 광배가 둘러져 있습니다. 양식에 비춰 보건대 이 조각상은 12 세기 후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대 조각상으로는 극히 드물게 좌대와 광배가 모두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좌상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살펴보면 부드럽고 섬세한 특징을 선호했던 12 세기 초반 조각상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작품의 디테일이 더 대담하고, 깊은 부조로 새겨 넣은 선들이 특징적입니다. 일례로 외현적으로 보이는 근육질의 가슴과 날카롭게 조각된 옷 주름 장식은 강렬한 깊이감과 입체감을 나타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이 좌상은 부분적으로 움푹 파인 편백나무 조각 여러 개를 조각한 후 ‘요세기즈쿠리(접합목)’ 기법으로 조립해 만들었습니다. 이 기법은 불균일한 건조, 내부 응력 때문에 커다란 통나무 덩어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라짐, 뒤틀림 현상을 완화해 줍니다.

사원의 불단 양쪽에 아미타불상과 역사적인 부처(석가모니) 좌상이 있고, 단힌 문 뒤에 본존불 지장보살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어린아이와 사후 세계의 영혼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상은 왼쪽에, 석가모니상은 오른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長壽寺/木造阿弥陀如来坐像**

この高さ 142.5 センチメートルの金箔を施した木像は、無限の光と生命の仏陀、阿弥陀如来を表しており、蓮華座に座り、両手を合わせて瞑想の印相を結んでいます。蓮華座に安置され、仏陀の永遠の光明と悟りを象徴する二重の光背が背後に配されています。作風から判断すると、この像は 11 世紀後半の作とされています。台座と光背は共にオリジナルであると考えられており、この時代の像としては珍しいものです。この像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彫刻様式の観点から、彫像は、柔らかで繊細な表情が好まれた 12 世紀初期の彫像とは明らかに異なる特徴を示しています。この作品では、細部をより大胆で、深い浮き彫りの線で際立たせています。たとえば、隆起した筋肉質の胸部や鋭く刻まれた衣の襞は、深みと立体感を強く印象付けています。構造的には、複数の檜材を部分的にくり抜いた状態で彫刻され、寄木造の技法を用いて組み立てられています。この技法により、乾燥ムラや内部応力が原因で大きな無垢材の塊にしばしば発生する深刻な割れや反りが緩和されます。

阿弥陀仏と歴史上の仏陀である釈迦如来坐像が祭壇の両脇に鎮座しており、本尊である地藏菩薩はその祭壇の密室に隠されています。地藏菩薩は、子宝と来世の魂を守る慈悲深い存在として崇敬されており、阿弥陀像は左側に、釈迦は右側に配置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長壽寺/丈六阿弥陀如来坐像

【想定媒体】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

아미타여래 좌상 (조주지 사원 수장고)

본당 뒤편 수장고에 안치된 285.5cm 의 이 불상은 무량광명수명불인 아미타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도금 목조 불상은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결가부좌로 앉아 무드라 명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부처의 영원한 광채와 깨우침을 상징하는 이중 광배가 둘러져 있습니다. 양식에 비춰 보건대 이 좌상은 가마쿠라 시대(1185~1333)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품에는 12 세기 후반 상류층이 선호하던 세련된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절제된 이목구비에서는 명상적 평온함과 영적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둥근 얼굴에서는 작고 섬세하게 조각된 입과 기다란 아치형 눈썹 아래 가늘고 게슴츠레하게 뜬 눈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옷자락에서도 우아하게 흐르는 곡선미를 통해 섬세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구조적으로 이 좌상은 ‘요세기즈쿠리(접합목)’ 기법을 이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법은 그 이전 시대에 성행한 ‘이치보쿠즈쿠리(일목조)’ 기법의 대안으로 11 세기에 등장했는데, 움푹 파인 나무 조각 여러 개를 접합해 조각상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법은 커다란 원목이 불균일하게 건조되어 발생하는 갈라짐과 뒤틀림을 완화하고 조각상의 구조적 정합성을 강화하며, 무게를 줄여 보다 쉽게 조각 및 운반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014-013

＜日本語仮訳＞

長壽寺/丈六阿弥陀如来坐像

本堂裏の収蔵庫に安置されているこの高さ 285.5 センチメートルの像は、無量光・無量寿の仏である阿弥陀如来を表しています。この像は、金箔を施した木製であり、蓮華座に座り、両手を膝の上に置いて瞑想の印相を結んでいます。仏陀の永遠の光明と悟りを象徴する二重の光背が背後に配されています。作風から判断すると、鎌倉時代（1185～1333 年）の作と考えられ、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この像は、12 世紀の貴族たちが好んだ洗練された優雅さを体現しています。思慮深く落ち着いた顔立ちをしており、瞑想的な静けさと精神的穏やかさが伝わってきます。丸みを帯びた顔には、小さく繊細に掘られた口と、アーチ型の長い眉の下にある、細くかろうじて開いた目が特徴的です。同様の繊細さは、優雅に流れるような曲線を描く衣服にも反映されています。

構造的には、この像は寄木造の技法を用いて作られています。この革新的な手法は、古い一木造の技法に代わるものとして 11 世紀に登場しました。寄木造は、複数の木材をくり抜き、像を組み立てる工程を経ます。この技法には、大きな無垢材の乾燥ムラによるひび割れや反りを軽減し、像の構造的安定性を高

め、重量を軽くして彫刻や運搬を容易にするといった、いくつかの利点がありました。

【タイトル】 長壽寺/二天王立像

【想定媒体】 Web

＜韓国語＞

두 천왕상 (조주지 사원 본당)

조주지 본당 불단의 아미타불상과 석가모니불상 양쪽에는 다문천과 증장천 신상이 있습니다. 다문천과 증장천은 사천왕(시텐노) 중 두 신으로, 각각 사방 중 한 곳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두 신을 함께 모시는 경우 ‘니텐’이라고 총칭합니다. 두 천왕상은 헤이안 시대(794~1185)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쪽의 수호신 다문천은 석가모니불의 오른쪽 앞에 모셔져 있습니다. 갑옷을 입은 채 오른손에는 미늘창을, 왼손에는 불교의 영적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작은 탑을 들고 있습니다. 다문천만 따로 모시는 경우에는 비사문천이라고 합니다.

남쪽의 수호신 증장천은 아미타불의 왼쪽 앞에 모셔져 있습니다. 다문천처럼 증장천도 갑옷을 입은 채 미늘창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불교법의 불멸성과 악을 물리치는 불교의 힘을 상징하는 삼지창 ‘바즈라’를 쥐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長壽寺/二天王立像

寺院の本堂には、阿弥陀如来と釈迦如来の両脇に、多聞天と増長天の彫刻が安置されています。この二人は四天王のうちの一尊で、それぞれが東西南北の各方位を守護しています。対で安置される場合は、二天と呼ばれています。これらの像は平安時代（794～1185 年）の作とされています。

北方を守る多聞天は、釈迦如来の右前方に安置されています。多聞天は甲冑を身にまとい、右手には戟を、左手には仏教の豊かな精神を象徴する小さな仏塔を持っています。多聞天を単独で祀る場合は、毘沙門天と呼ばれています。

南方を守る増長天は、阿弥陀如来の左前に安置されています。多聞天と同様に、増長天も甲冑を身に付け、戟を手にしています。右手には三叉の金剛杵を握っています。この金剛杵は、仏法の不滅性と邪を制する力を象徴する祭具です。

【タイトル】 長壽寺/木造釈迦如来坐像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석가모니불 좌상 (조주지 사원 본당)**

180cm 의 이 도금 불상은 역사적 부처, 석가모니가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은 가슴 높이까지 들어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위로 꺾어 두려움을 없애는 무드라 손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바깥쪽으로 내민 채 손가락을 아래로 꺾고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무드라 손동작으로도 알려진 이 제스처는 은혜를 베푸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 좌상은 연화좌 위에 모셔져 있으며, 그 뒤로 부처의 깨우침과 지혜를 의미하는 광배가 둘러져 있습니다. 양식으로 보건대 이 조각상은 12 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좌상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기 헤이안 시대 예술에 만연해 있던 미적 특징인 귀족적 우아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부드럽게 둥근 얼굴선, 작은 입, 가늘고 게슴츠레하게 뜬 눈 등 유순하게 표현된 이목구비를 통해 명상에 잠긴 듯한 고요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섬세함은 조각상의 몸과 의복 전체에서 느껴집니다. 가슴은 후기 가마쿠라 시대(1185~1333) 조각상에서 볼 수 있듯 근육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옷은 얇고 우아하게 흐르는 곡선을 그리며 주름 잡혀 있습니다. 짧고 촌촌한 나발을 비롯한 모든 디테일이 헤이안 시대 궁정에서 유행했던 절제된 우아함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좌상은 ‘요세기즈쿠리(접합목)’ 기법을 이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법은 그 이전 시대에 성행한 ‘이치보쿠즈쿠리(일목조)’ 기법의 대안으로 11 세기에 등장했는데, 움푹 파인 나무 조각 여러 개를 접합해서 조각상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법은 커다란 원목이 불균일하게 건조되어 발생하는 갈라짐과 뒤틀림 현상을 완화하고 조각상의 구조적 정합성을 강화하며, 무게를 줄여 보다 쉽게 조각 및 운반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원의 불단 양옆에 석가모니상과 무량광명수명불(아미타불) 좌상이 모셔져 있고, 불단에는 본존불 지장보살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어린아이와 사후 세계의 영혼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상은 오른쪽에, 아미타불상은 왼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長壽寺/木造釈迦如来坐像**

高さ 180 センチメートルの金箔を施したこの像は、歴史上の仏陀である釈迦如来が蓮華座に坐している姿を表しています。右腕を胸の高さまで上げ、手のひらを外に向け、指を上方に伸ばしており、恐怖の払拭を表す印相を結んでいます。また、左手は外側に差し出し、手のひらを前に向け、指を伸ばして下を指しています。このポーズは与願印として知られ、福德や加護を与えることを象徴しています。本像は蓮華座に安置され、仏陀の悟りと知恵を示す光背を帯びています。作風から判断すると、12 世紀の作と考えられてお

り、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その姿は、平安時代後期の美術に広く見られる貴族的な優美さを体現しています。穏やかに丸みを帯びたフォルム、小さな口、細くかろうじて開いている目など、柔らかな表情によって、瞑想的な落ち着きを表現しています。この繊細さは、像の身体や衣服全体にまで及んでいます。胸部には、鎌倉時代（1185～1333年）の彫像に見られるような筋肉質な輪郭はなく、衣は薄く、襷は優美で流れるような曲線を描いています。また、小さくタイトな巻き毛など、あらゆる細部にまで、平安宮廷が好んだ繊細な優雅さが反映されています。

構造的には、この像は寄木造の技法を用いて作られています。この革新的な技法は、古い一木造の技法に代わるものとして11世紀に登場しました。木材を何枚もくり抜いて像を組み立てる手法です。この技法には、大きな無垢材の乾燥ムラによるひび割れや反りを軽減し、像の構造的安定性を高め、重量を軽くして彫刻や運搬を容易にするといった、いくつかの利点がありました。

本尊（秘仏）である地蔵菩薩が安置されている本堂の祭壇の両脇には、釈迦如来坐像と無量光・無量寿の仏である阿弥陀如来坐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地蔵菩薩は、子宝と来世の魂を守る慈悲深い存在として崇敬されており、釈迦如来像は右側に、阿弥陀像は左側に配置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西應寺/庭園

【想定媒体】 Web

<韓国語>

사이오지 사원 정원

사이오지는 정원에 변화하는 계절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꽃이 가득해 흔히 ‘꽃의 사원’으로 불립니다. 정문에서 시작하는 산책로는 본당을 빙 돌아 사원 뒤편의 언덕을 따라 이어집니다. 정원을 느긋하게 한 바퀴 산책하는 데 약 30 분이 걸립니다.

봄에는 봄, 여름, 가을 내내 꽃을 피우는 싸리나무(‘운난하기’)가 유명한데, 길게 휘어진 가지에 분홍색 꽃이 만발하여 정문에서 연결되는 돌계단 위로 그림 같은 꽃길이 만들어집니다. 초여름에는 다채로운 색의 수국으로 정원이 가득 찹니다. 가을에는 짙은 파란색의 용담과 우아한 난초를 닮은 물봉선(*Impatiens textori*)이 정원을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사이오지 사원 경내의 한복판에는 근처 산과 숲을 차경으로 활용한 건식 정원이 있습니다. 산을 형상화한 커다란 언덕들이 좁고 기다란 마른 연못으로 흘러드는 마른 개울과 마른 폭포를 양쪽에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엇갈리게 놓은 돌다리나 징검다리 돌을 따라 인공 수로를 건너고 산책로를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면 평화로운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곳은 특히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산책로는 몇 미터 높이의 커다란 바위 뒤편을 지나 다시 본당 앞으로 이어집니다.

보존 및 이용 수칙

사이오지 사원 정원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누구나 즐거운 경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방문객은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식물군 보호: 지정된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고, 어떠한 식물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산책로 양보: 산책로의 일부 구간은 길이 협소합니다. 특히 단풍이 절정을 이뤄 인파가 몰리는 계절에는 다른 방문객에게 예의를 지키며 길을 양보해 주세요.
- 사진 촬영 에티켓: 사진은 마음껏 찍으시되 다른 방문객을 배려해 주세요.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산책로를 막거나 통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語仮訳>

西應寺/庭園

西應寺は、境内の植栽が四季折々に美しいことから、しばしば「花の寺」と呼ばれています。正門から続く道は本堂の周りをぐるりと巡り、寺院の裏山の一部を通ります。境内は 30 分ほどで、ゆったりと一周できます。

春には、春、夏、秋に咲きほころぶさまざまな雲南萩が有名で、長くアーチ状に伸びた枝にピンク色の花をたくさん咲かせ、正門から続く石段の上に絵のような花のトンネルを形づくりします。初夏には、色とりどりのアジサイの花が境内を埋め尽くします。秋になると、深い青の lindou や、ツリネソウの在来種の ran のような繊細な

花で庭園が輝きます。

境内の中心には、隣接する山や森を借景として取り入れた枯山水庭園があります。山を表す大きな築山が、枯滝や細長い枯池へと注ぐ枯流れの両側を囲んでいます。段差を付けて配置された石橋や飛び石が水景の上を渡る道筋を作り、丘の斜面を取り巻くように登る小道は、のどかな展望地点へと続いています。特に秋の鮮やかな紅葉の撮影に人気のスポットとなっています。小道は高さ数メートルの巨大な岩の背後を通り、本堂前へ戻って終わります。

保存と行動規範

境内の美しさを保ち、参拝者の皆様が気持ちよくお参りできるよう、参拝者の方々には以下のガイドラインをお守りいただきます：

- 植物を守るために：決められた道を歩き、植物に触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 通り道にご注意ください：散歩道は場所によって狭くなっています。特に混雑する紅葉シーズンには、互いに譲り合ってお進みください。
- 写真撮影のマナー：自由に写真撮影をしていただけますが、ほかの参拝者へのご配慮をお願いします。風景を撮影する際は、道をふさいだり進行の妨げになら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

【タイトル】 西應寺/写経体験

【想定媒体】 Web

<韓国語>

사이오지 사원 사경 체험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고찰인 사이오지에서는 누구나 사경(‘샤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경은 사원이 속한 조도신슈(정토) 불교 종파의 경전이나 교리의 발췌문을 필사하는 체험입니다. 예약만 하면 되며 특별한 준비나 일본어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기도구는 모두 제공되므로 참가자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필사를 체험하면 됩니다.

참가자는 고요한 암석 정원이 보이는 조용한 공간인 사원 서재로 안내를 받습니다. 준비된 책상에 앉으면 참가자에게 붓과 먹, 또는 붓펜과 종이 두 장(한 장은 백지, 다른 한 장은 경전이 인쇄된 종이)을 제공합니다. 백지를 인쇄된 종이 위에 얹은 다음, 한자 도안에 따라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필사합니다. 일면 간단해 보이지만, 한 획 한 획에 정성을 들여 집중하다 보면 마치 명상하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들리는 것은 부드럽게 스치는 붓소리와 정원에서 나는 잔잔한 소리뿐입니다.

필사를 끝낸 참가자는 본당으로 이동해 본존인 무량광불・무량수불에 필사한 경전을 공양합니다. 이때 필사한 단어와 구절의 의미를 주지승이 일본어로 설명하는 시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공양이 끝나면 주지승이 필사본에 사원 이름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돌려주므로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약은 일본어로 [사원](#)에 직접 연락하거나, [Jalan](#) 등의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약 시에는 사경 체험 후 근처 응접실에서 말차와 일본 과자를 즐기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西應寺/写経体験

美しい境内で知られる古刹・西應寺で写経を体験してみませんか？この写経体験では、この寺が属する浄土真宗特有の経典や教えの抜粋を、なぞり書きます。予約は必須ですが、その他の特別な準備や日本語の知識は必要ありません。筆記用具はすべて用意されています。あとは参加者の皆様に、心を静め、手を落ち着かせることに集中していただくだけです。

参加者は、寺院の穏やかな枯山水庭園を眺める、静寂な書院に案内されます。用意された机のうちの一席に着くと、参加者は筆と墨、または筆ペンと、白紙の用紙とお手本となる印刷された用紙の2枚が渡されます。お手本が印刷された用紙の上に白紙を置き、お手本の漢字を一文字ずつ丁寧に書き写していきます。一見すると簡単と思いますが、一筆一筆に注意深く集中することで、心がリフレッシュされ、落ち着き、瞑想に似た状態になります。聞こえるのは、筆の柔らかな音と庭の周囲の音だけです。

写経が終わると、参加者は本堂に移動し、無量光・無量寿の仏である本尊への供養として写経を奉納します。奉納には、住職が写経の語句の意味について説明する時間（日本語で行われます）が含まれることもあります。奉納が終わると、住職は写経に西應寺と記し、参加者が持ち帰れるよう返却します。

予約は西應寺に直接連絡するか、じゃらんなどのオンライン予約サイトを通して行うことができます。予約の際参加者は、写経体験の後に近くの客殿で提供される抹茶と和菓子が付いてくるオプションを選ぶこともできます。

【タイトル】 立志神社/立志神社にまつわれている神様たち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

류시 신사에서 숭배하는 신들

구니노토코타치노카미

8 세기에 편찬된 「고지키(고사기)」에 따르면 구니노토코타치노카미는 5 천신(天神)이 나타난 후 가장 먼저 생겨난 신이었습니다. 지상 세계의 기틀을 닦은 신으로 추앙받는데 원시신은 창조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일본 열도를 창조하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세계의 신으로 전해집니다. 구니노토코타치노카미는 땅의 근원이자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며,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됩니다. 류시 신사에서 모시는 주신이 바로 구니노토코타치노카미입니다.

다가노오카미

다가노오카미는 창조신 이나자기와 이자나미를 상징하는 신으로서, 전설에 따르면 하늘과 땅이 나뉘는 후 가장 먼저 나타난 신들 중 하나입니다. 일본 열도를 창조하기 위해 하늘의 부교 위에 서서 보석이 박힌 창으로 태초의 바다를 휘저었다고 전해집니다. 다가노오카미를 숭배하면 사랑과 번영이 충만하여 후손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아츠타노오카미

아츠타노오카미는 신검(神劍) 구사나기노츠루기로 현신한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입니다. 이 전설의 검은 천황의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보물, 즉 3 대 신기 중 하나이며 나머지 두 개는 거울과 곡옥입니다. 아츠타노오카미를 숭배하면 용기를 얻고 장수하며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치만노오카미

하치만노오카미는 15 대 오진 천황(201~310)을 신격화한 신으로, 복중 태아일 때 어머니가 한반도의 고대 왕국들을 평정하기 위해 벌인 정복 전쟁을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하치만노오카미는 일본의 수호신이자 전쟁신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에비스노오카미

흔히 어깨에 낚싯대를 메고 손에 도미를 든 모습으로 묘사되는 에비스노오카미는 바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사이에서 태어난 에비스노오카미는 갈대로 엮은 배를 타고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무사히 표착한 에비스노오카미는 어부들에게 안전한 항해의 신이자 풍어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에비스노오카미는 사업의 번창, 행운, 행복 등의 축복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태양신이자 일본 황실의 조상신이며, 일본 국민의 수호자이자 최고의 수호신입니다. 이 신은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고 가정에 안전의 축복을 내리며, 세상을 밝히고 풍작이라는 신성한 미덕을 베풀어 줍니다.

곤피라노오카미

8세기 편찬된 「니혼쇼키(일본서기)」에 따르면 오모노누시노카미의 또 다른 이름인 곤피라노오카미는 생명과 자연, 땅 등 만물의 기틀을 닦은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사람들을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고 질병의 쾌유를 내리며, 뱃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아타고노오카미

불의 신인 아타고노오카미는 창조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막내아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불타는 몸으로 태어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까닭에 아버지에게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신의 피와 육신은 자연의 다양한 힘, 특히 산과 화산, 천둥을 상징하는 새로운 신들로 태어났습니다. 아타고노오카미는 대장장이와 도공의 수호신으로 숭배되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일과도 관련 있습니다.

우카노미타마노카미

우카노미타마노카미는 붉은 도리이문 및 여우 조각상과 종종 연관되어 언급되는 이나리 신사에서 숭배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식량과 곡식, 특히 일본 국민의 주식이자 전근대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쌀의 수확을 관장합니다. 우카노미타마노카미에게 기도하면 풍작과 사업 번창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014-018

<日本語仮訳>

立志神社/立志神社にまつわれている神様たち

国之常立神

8世紀の古事記によれば、国之常立神は、別天神五柱が現れたのちに最初に出現した神とされています。この原初の神は大地の基盤を形づくたとされ、その後、創造神であるイザナギとイザナミによって日本列島が創造されることにつながります。国之常立神は、大地の源であり、国の安全の守護神であり、福德と繁栄をもたらす神として崇敬されています。この神は、立志神社の本尊として祀られています。

多賀大神

多賀大神は、伝説によれば、天地が分かれた後に最初に出現した創造神とされるイザナギとイザナミを象徴しています。日本列島を創造するため、彼らは天の浮橋に立ち、天沼矛で原初の海をかき混ぜました。多賀大神を祀ると、縁結びや子孫繁栄のご利益があるといわれています。

熱田大神

熱田大神は、太陽神である天照大御神が神剣の草薙神剣として現れた神です。この伝説の剣は三種の神器の一つであり、天皇の神聖な権威を象徴する三つの宝物のうちの一つです。ほかの二つは鏡と玉で

す。熱田大神を祀ると、武運長久、災難除けのご利益があるといわれています。

八幡大神

八幡大神は第十五代応神天皇（201～310 年）の御神霊であり、朝鮮半島の古代王国を平定するための母の軍事遠征を支えたと言われています。その結果、八幡大神は戦いの神、日本の守護神として信仰されています。

恵比寿大神

釣り竿を肩にかけ、鯛を手を抱える姿で描かれることが多い恵比寿大神は、海との結びつきが強い神です。この神は創造神イザナギ・イザナミの間に生まれ、葦で造られた舟に乘せられて海に漂いました。恵比寿大神は無傷で海岸に打ち上げられたため、漁師たちから海上の安全と豊漁をもたらす神として崇敬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また、恵比寿大神は、商売繁盛、開運、幸福などのご利益も授けるとされています。

天照大御神

天照大御神は太陽神であり、皇室の祖先神、さらに日本国民の総氏神として崇敬される神です。この神は国の平安と安寧を守り、家内安全の御利益を授けます。天照大御神は世界を照らし、五穀豊穡の神徳を授けるとされています。

金比羅大神

金比羅大神は、大物主神の別名であり、8 世紀の日本書紀によれば、生命や自然、大地など創造を手助けしたとされています。金比羅大神は、人々を平和と幸福へと導き、病氣平癒のご利益を授け、航海者には安全を守るご加護をもたらします。

愛宕大神

愛宕大神は火の神であり、創造神であるイザナギとイザナミの間に生まれた最後の子です。伝説によれば、出産の際に自ら発せられる火で母親が命を落とし、その報いとして父に首をはねられたといいます。この神の血と体からは、新たな神々が生まれ、特に山、火山、雷などの自然の力を象徴する神々が誕生しました。愛宕大神は、鍛冶職人や陶芸家の守護神として信仰され、家内安全や火難除けのご利益があるとされています。

宇迦之御魂神

宇迦之御魂神は、多数の赤い鳥居や狐の像と結びつけられることが多い、稻荷神社で祀られる神です。この神は、食物や穀物、特に日本の主食であり、近世以前の社会の経済的基盤でもあった米の豊穡を司るとされています。宇迦之御魂神に祈りを捧げることで、五穀豊穡や商売繁盛のご利益があると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石部宿場の里/概要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이시베 슈쿠바 마을

이 야외 박물관은 교토와 에도(현 도쿄)를 잇는 도카이도 도로의 공식 역참이었던 이시베 마을의 분위기를 재현한 곳입니다. 경내에는 전통적인 에도 시대(1603~1867) 양식으로 지어진 여관과 찻집 등의 여러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들은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고, 도구를 비롯한 그 외 일상생활 용품을 전시하여 역사적인 도로를 따라 펼쳐진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역참 마을의 역할

교토에서 약 38km 떨어진 이시베는 에도에서 시작해 도카이도 도로를 따라 세워진 53 개의 역참 마을 중 51 번째였습니다. ‘슈쿠바마치’로 알려진 정식 역참들은 도쿠가와 막부가 도로 이동량을 전수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역참 마을에서는 고위 관료와 다이묘 영주가 묵는 관용 숙소, 일반 여행자가 묵는 여관, 사환 및 관청 사신들을 위한 말 등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시베는 교토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첫째 날 밤에 머무르는 장소였지만, 에도에서 출발하는 사람의 경우 옛 수도까지 가는 492km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와 산킨코타이 제도

도카이도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은 막부 관료와 사무라이부터 노동자, 장인, 상인 등의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세 신궁 등의 성지로 참배하러 가는 사람들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보통 여행자들이 이 길을 끝까지 걷는 데는 일반적으로 13 일에서 17 일이 걸렸습니다.

다이묘 영주들은 ‘산킨코타이(참근교대)’ 제도의 일환으로 대규모 행렬을 이뤄 이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쇼군에게 충성심을 표하기 위해 격년으로 수도였던 에도에 거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렬에는 하인, 병사, 시종, 사환 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시베와 같은 역참 마을에서는 여행자에게 필요한 숙박 시설과 식량,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막대한 물류 조달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도카이도 이시베 역참 마을 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다이묘 영주들을 위해 마련된 공식 숙소 모형을 비롯해 이 행렬을 살펴보는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石部宿場の里/概要

この野外博物館は、京都と江戸（現在の東京）を結ぶ東海道における公式の宿場町であった旧石部宿場の風情を再現しています。敷地内には、伝統的な江戸時代（1603～1867）の様式で建てられた旅

館や茶屋などの模型がいくつか展示されています。建物の内部に入ることができ、道具や日用品が展示されており、歴史ある街道での生活の様子を実際にうかがうことができます。

宿場町の役割

京都から約 38 キロに位置する石部は、東海道 53 宿の 51 番目（江戸から数えて）の宿場町でした。これらの公的な宿場町は徳川幕府が設置したもので、街道を通るあらゆる交通を支援し監視する役割を担っていました。また、宿場町には高官や大名が泊まる本陣、一般の旅人向けの旅籠、人足や幕府の飛脚が利用する馬など、旅に欠かせない設備やサービスが整えられていました。京都から旅を始める旅人にとって石部はしばしば最初の宿泊地となり、江戸から来た旅人にとっては、古都までの 492 キロに及ぶ旅の終わりが近づいたことを知らせる場所でした。

交通と参勤交代制度

幕府の役人や武士から、労働者や職人、商人といった一般庶民まで、さまざまな人々が街道を行き交っていました。また、この街道は、伊勢神宮などへの巡礼を行う人々にも多く利用されました。一般的な旅人がこの街道全体を歩くには、通常 13 日から 17 日かかりました。

大名たちは将軍への忠誠を示すため、幕府のあった江戸に隔年で居住する参勤交代制度の一環として、この街道を大規模な行列で進みました。これらの行列は、家臣、兵士、従者、人足などからなり、時には数千人に及ぶこともありました。そのため、石部のような宿場町では、旅人に必要となる宿泊施設や食糧、労働力を賄うために膨大な物流的負担がかかりました。「東海道石部宿歴史民俗資料館」には、これらの大名行列を紹介する展示があり、大名専用の宿場の模型なども展示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石部歴史民俗資料館/概要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
도카이도 이시베 역참 마을 역사민속박물관

이 박물관은 에도 시대(1603~1867) 일상과 여행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역사적인 도카이도 도로와 옛 역참 마을에 특히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01년 건립된 이시베는 황도인 교토와 막부의 수도인 에도(현 도쿄)를 잇는 53개의 도카이도 역참 중 하나였습니다. 디오라마, 지도, 역사적인 목판화가 진열된 전시실에서 492km 거리의 여정과 유서 깊은 이시베 마을의 구획 및 시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시베 마을

1828년 제작된 지도에는 1.6km가 넘는 길 양쪽으로 집과 상점이 늘어선 전성기 시절 이시베 마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을 양쪽 끝에는 초소를 설치해 여행자의 이동을 감시하고, 보통은 종교적인 성지를 참배하는 경우에만 여행이 허가된 평민의 여행 허가증을 검사했습니다. 길가의 건물 뒤편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경작하던 논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수확한 쌀과 채소를 여관과 상점에 공급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여행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숙박 시설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다이묘 영주와 고위 관료는 이른바 ‘혼진’이라는 전용 여관에 묵었고, 그 외 모든 손님은 ‘하타고’라는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시베에는 ‘혼진’이 2개, ‘하타고’가 36개 있었습니다. 교토에서 하루면 닿는 거리(38km)의 이시베가 이 도로의 마지막 역참 중 하나로 상당히 중요한 물류 거점 역할을 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도카이도 도로

도카이도는 일본 초기 근대 시대에 왕래가 아주 많았던 도로 중 하나인데, 에도 시대에는 연간 이용자 수가 수십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막부 관료, 사무라이, 노동자, 장인, 상인, 순례자 등 다양한 여행자가 오갔습니다. 막부는 지방의 다이묘 영주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 참근교대, 즉 ‘산킨코타이’ 제도를 시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다이묘 영주들은 보통 대규모로 행렬을 지어 2년에 한 번씩 이 길을 따라 영지에서 가족들이 영구 상주하는 막부의 수도 에도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숙소 명부에는 14·15대 도쿠가와 쇼군과 후대의 메이지 천황(1852~1912)을 비롯해 이 마을에 머물렀던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머물렀던 ‘혼진’의 축척 모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료 외에 우타가와 히로시게(1797~1858) 같은 유명 화가의 작품을 포함해 도로변 풍경을 묘사한 여러 목판화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石部歴史民俗資料館/概要

この博物館は、歴史的な東海道と旧石部宿を中心に、江戸時代（1603～1867）の旅と日常生活についての見識を深めることができます。石部宿は1601年に成立し、都であった京都と幕府が置かれた江

戸（現在の東京）を結ぶ東海道の 53 の宿場のひとつでした。ジオラマ、地図、歴史的な木版画の展示は、492km に及ぶ旅の道のりや、歴史的な石部の町の構造と施設について紹介しています。

石部宿

1828 年の地図には、全盛期の石部宿の様子が描かれており、1.6 キロ以上にわたって街道の両側に家や店が立ち並んでいます。町の両端に設けられた番所は、旅人の動きを監視するとともに、当時は主に宗教的な巡礼のための旅行しか許可されていなかった平民の通行手形を確認していました。街道沿いの家々の裏手には、町民が耕す畑が広がっていました。これらの畑では、絶えず訪れる旅人に食料を提供するため、商店や宿屋に米や野菜を供給していました。宿泊は身分によって分けられており、大名や高官は本陣と呼ばれる専用の宿に宿泊しました。それ以外の宿泊客はすべて、旅籠に宿泊しました。地図によれば、石部宿には 2 軒の本陣と 36 軒の旅籠があり、京都からわずか 1 日で到達できる距離（38km）に位置する、街道の最後の宿場町のひとつとして、非常に重要な物流拠点で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

東海道

東海道は近世日本で最も交通量の多い街道のひとつで、江戸時代には年間で数十万を超える旅人が行き来したと推定されています。旅人には、幕府の役人、武士、労働者、職人、商人、巡礼者などがいました。幕府は地方の大名たちの支配を維持するため、隔年での出仕、参勤交代を義務付けました。参勤交代により、大名は 2 年に一度、たいていは大規模な行列を組んで街道を旅し、領地から家族が常住する、幕府が置かれた江戸へと住居を移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館内の宿泊台帳には、この町に立ち寄った著名人の名前が記録されており、そこには徳川 14 代将軍・15 代将軍、さらに後には明治天皇（1852～1912）も含まれています。また、彼らが滞在した本陣の縮尺模型も展示されています。歴史的な資料だけでなく、歌川広重（1797～1858）などの著名な画家による街道沿いの風景を描いた木版画も非常に数多く残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立志神社/手水舎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

정화의 샘

류시 신사 방문객들은 정화의 샘에 멈춰 서서 불운과 부도덕을 씻어낸 뒤 본당에 들어가 기도를 드립니다. 신사에 있는 이 샘은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성한 꽃이 피어 그 아름다움이 배가됩니다. 초여름 수반 위에 뜬 다채로운 수국부터 가을철 단호박 옆으로 코스모스가 흐드러진 수화의 풍경까지, 꽃 장식을 통해 전통 신토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본당에 들어가기 전 몸을 정화하기 위해 샘 위 오른손 쪽에 놓인 바가지를 집니다. 수반 가운데에 놓인 꽃은 건드리지 말고 바가지에 물을 받아 샘 바깥에서 왼손에 붓습니다. 바가지를 왼손으로 바꿔 잡고 오른손을 씻어 냅니다. 그런 다음, 왼손바닥에 물을 조금 받아 입안을 행굽니다. 바가지가 입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입을 행군 물은 샘 안에 뱉는 것이 아니라 샘 아래쪽 배수구에 뱉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손을 다시 씻어 냅니다. 다 씻었으면 바가지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日本語仮訳>

立志神社/手水舎

立志神社の参拝者は、本殿で参拝する前に、手水舎で立ち止まり、ここで厄や穢れを洗い流します。この神社の手水舎は、四季折々の神聖な花で美しく飾られています。初夏の水盤に浮かぶ色とりどりのアジサイの花から、秋のカボチャとともに揺れる収穫の風景まで、これらの生け花は、伝統的な神道信仰に見られる自然界への深い神道的敬意を映し出しています。

本殿に参拝する前に身を清めるためには、まず水鉢に置かれた柄杓を取り、右手に持ちます。水鉢の中央にある花を動かさないように注意しながら、柄杓に水を汲み、水鉢の外で左手にかけます。柄杓を左手に持ち替え、右手を清めます。次に、左手の手のひらに少量の水を汲み、口をすすぎます。柄杓を口につけないように注意し、水は手水鉢の中に戻さず、鉢の縁元にある流しに捨てます。最後に、もう一度左手をすすぎ、終わったら柄杓を戻します。

【タイトル】 立志神社/御朱印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고슈인 도장**

일본의 신사와 사원에서는 '고슈인' 도장이라고 불리는 스탬프 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도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장소 고유의 주홍색 스탬프 위에 승려가 붓으로 남기는 강렬한 서체가 특징입니다. 고슈인 도장은 예불의 징표이자, 모셔진 신과 맺은 영적 유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표 역할을 합니다.

류시 신사에서 고슈인 도장은 방문객이 목표를 세우고 숭배하는 신에게 자신의 결심을 언명하도록 장려한다는 신사의 핵심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의지를 세운다”라는 뜻을 지닌 이 신사의 한자 이름(立志)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신사가 창건된 6세기 이래, 사람들은 자신의 결심을 언명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결심을 실현한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결심을 다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류시 신사에서는 특별한 계절별, 월별 고슈인 도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별 도장은 투명 시트에 꽃무늬 디자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디자인과 한정 수량으로 제공되는 고슈인 도장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앙심을 장려하고 영적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立志神社/御朱印**

御朱印と呼ばれるお守りは、日本各地の神社や寺院で授与されるものです。こうした神聖なお守りには、通常、各神社特有の朱印の上に、神職による力強い筆跡が施されています。御朱印は参拝の証であり、ご祭神との精神的な絆を形にした証でもあります。

立志神社では、御朱印は神社の理念である「参拝者が目標を立て、神に決意を表明することを奨励する」と結びついています。この理念は、神社の名前である立志、すなわち「志を立てる」という意味に反映されています。同神社には、6世紀の創建以来、人々が決意を表明し、経過を報告し、成就に感謝するために訪れてきました。定期的にこの信仰心を強めたい方のために、立志神社では季節ごとや月ごとに特別な御朱印を授与しています。月ごとの御朱印は、透明なシートに花のデザインが印刷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御朱印は種類が豊富ですが授与期間に制限を設けており、継続的な参拝を促すとともに、霊的な目標の達成を助けることを意図しています。

【タイトル】長壽寺/概要 (リーフレット)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조주지 사원

조주지는 8 세기에 황실의 안녕과 국가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창건된 고대 사원입니다. 천태종에 속한 이 사원에서는 어린아이와 사후 세계의 영혼을 가엾게 여기는 수호자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경내에 지은 여러 건축물과 소장 중인 불화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본당과 사원의 본존불을 모신 작은 신사는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수의 사원

729 년에서 748 년 사이에 창건된 이 사원은 천황이 아이를 갖게 해 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후 딸의 장수를 기원하며 지었다고 합니다. 조주지라는 이름은 ‘장수의 사원’이라는 뜻으로, 천황이 이름을 붙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의 축복이 찾아오고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건축적 희귀성

현재의 본당은 가마쿠라 시대 초기(1185~1333) 건립되었습니다. 외관상 하나의 모임지붕으로 이루어진 단일 구조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기 ‘쌍당(나라비도)’ 형태의 사원 설계 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의 사원은 길이가 같은 두 법당을 좁은 틈으로만 분리해 하나는 참배객을 위한 공간으로, 다른 하나는 모신 불상을 위한 공간으로 지었습니다. 조주지 본당은 한 지붕 아래 두 법당이 통합돼 있어 사원 설계 양식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이 과도기적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현존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불교 예술품

사원의 보물 중에는 성스러운 불상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12 세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앉거나 선 자세의 다양한 신을 묘사하고 있으며, 제례 도구를 들고 있는 불상과 상징적인 손동작(무드라)을 취하고 있는 불상도 더러 있습니다. 본당에는 아미타불과 무량광명수명불, 그리고 역사적인 부처 좌상이 사원의 불단 양쪽에 있으며, 불단에는 본존불인 지장보살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당 뒤편의 수장고에는 가마쿠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85.5cm 의 아미타불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조주지 사원 즐기기

- 조주지 사원은 국보로 지정된 곳이자 현재도 신도들이 예배를 올리는 곳이므로, 방문객은 사원의 신성함을 지키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원을 즐길 때는 지정된 산책로를 벗어나거나 초목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사진 촬영 시 다른 방문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산책로나 출입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 본당 안에서는 사진 촬영 및 휴대전화와 기타 기기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 정원이나 본당 안 어디에서도 식음료 섭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日本語仮訳＞

長壽寺/概要 (リーフレット)

長壽寺は、皇室の安寧と国家の安泰を祈願するために8世紀に建立された古刹です。天台宗に属し、子どもや死後の魂を慈しみ守る地蔵菩薩を本尊としています。境内に建ついくつかの建造物と、そこに安置

されている仏教美術品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本堂と、本尊を安置する厨子は国宝に指定されています。

長寿の寺

729 年から 748 年にかけて建立されたこの寺院は、当時の天皇が子宝を授かったことへの感謝として、その長寿を願って建立を命じ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長壽寺という名前は「長寿の寺」という意味で、天皇から授かったものとされています。子宝祈願、子どもの健康を願い、多くの人が参拝に訪れます。

建築上の希少性

現在の本堂は鎌倉時代初期（1185～1333）に建てられたものです。外観はつながった入母屋造の屋根をもつ一つの建物のように見えますが、実際の構造は、より初期の寺院建築様式である「双堂形式」を継承したものです。この形式では、寺院には、狭い隙間で仕切られた同じ長さの二つの堂が建てられ、一つは参拝者用、もう一つは本尊安置用とされていました。長壽寺の本堂は、この双堂を一つの屋根の下に統合しており、寺院建築における重要な転換点を示しています。これは、日本に現存する数少ない過渡期の建造物のひとつです。

仏教美術品

寺の宝物の中には、12 世紀にさかのぼる神聖な仏像のコレクションも含まれています。これらの像は、儀式用の持物を手にしたものや象徴的な手ぶりを示す（印相を結ぶ）ものなど、さまざまな神々を座る姿や立つ姿で表現したものです。本堂では、本尊（秘仏）である地蔵菩薩が安置されている本堂の祭壇の両脇に、無量光・無量寿の仏である阿弥陀如来と歴史的な仏陀の坐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本堂の裏にある収蔵庫には、鎌倉時代のもと思われる 285.5 センチの阿弥陀如来坐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

長壽寺を楽しむ際のお願い

長壽寺は国宝に指定され、また現在も信仰の場として使用されています。寺院の神聖さを守り、寺院を傷つけないためにも、訪問者には以下のガイドラインを守っ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しています。

- 境内を散策する際は、指定された通路から外れたり、草木に触れたりすることはご遠慮ください。
- 写真撮影の際は、他の観光客に配慮し、通路や入り口を塞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 本堂内での撮影や携帯電話等の使用は、固く禁じられています。
- 境内および本堂内での飲食は禁止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常楽寺/概要 (リーフレット)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조라쿠지 사원

8세기 초 천황의 칙령으로 창건된 조라쿠지 사원은 아보시산에 자리한 대규모 사원 단지의 일부로 건립되었습니다. 이 사원 단지는 나라 지역 남서쪽에 있었던 황실과 국가의 영적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 천태종 소속인 조라쿠지는 자비의 보살인 천수관음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원 건물들은 전통적인 일본 사원의 건축 양식과 장인 정신이 잘 드러나는 최고의 본보기로, 본당과 삼층탑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당

1360년 세워진 본당은 무로마치 시대(1336~1573)의 일본식 와요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진귀한 현존 건축물입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고전적인 소박함과 우아함은 간결한 선, 색을 덧입히지 않은 천연목으로 완성했습니다. 내부는 천태종 의례 규정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세 개의 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전은 일반 신도가 참배를 드리는 공적 공간의 역할을 하는 반면, 내전은 승려들이 밀교 의식을 거행하는 신성한 핵심 공간으로 쓰입니다. 사원의 본존불인 천수관음보살은 내전의 불단 위 신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후전은 보통 수장고 겸 의례 준비 공간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 역사적 부처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삼층탑

1400년 축조된 삼층탑은 탁월한 수학적 정확성을 바탕으로 구조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미적 조화를 이루어 최소한의 보수 작업만 필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탑은 본당과 마찬가지로 색을 덧입히지 않은 나무와 노송피로 만든 지붕을 사용해 부드러우면서 유기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탑의 구조적 예술성은 격조와 안정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아한 처마 곡선과 3단 지지대가 만들어 내는 일정한 시각적인 패턴은 탑에 날렵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불상

본당에는 수많은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중 일부는 12세기에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28수호신상입니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이 목조 불상들은 숨겨진 보존불, 천수관음보살상의 양쪽에 있습니다. 28수호신상은 모든 신도를 구원하기 위한 보살의 헌신을 옹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강력한 수호자를 나타내며, 각 불상은 서로 다른 영적 역할을 상징합니다. 1308년~1314년 사이에 편백나무로 조각된 이 불상들은 대부분 잔물결이 이는 근육질 몸매에 험악한 표정을 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수호자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조라쿠지 사원 즐기기

조라쿠지는 국보로 지정된 사원이자 현재도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므로, 방문객은 사원의 신성함을 지키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원을 즐길 때는 지정된 산책로를 벗어나거나 초목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사진 촬영 시 다른 방문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산책로나 출입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 본당 안에서는 사진 촬영 및 휴대전화와 기타 기기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 정원이나 본당 안 어디에서도 식음료 섭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日本語仮訳>

常楽寺/概要（リーフレット）

常楽寺は、8世紀初頭に勅命により、阿星山の大規模な伽藍の一部として建立されました。この伽藍は国家、および南西方向、つまり奈良地方に位置していた朝廷の双方を、霊的に守護する役目を担っていました。常楽寺は天台宗に属し、本尊として観音菩薩の化身である千手観音を祀っています。寺院の建物は、日本の古典的な寺院建築と職人技を示す、素晴らしい実例となっています。本堂と三重塔は国宝に指定されています。

本堂

本堂は1360年に建てられたもので、室町時代（1336～1573）の和様建築の稀少な現存例のひとつです。古典的なシンプルさと優雅さがある外観で、すっきりとした線と無塗装の天然木が使用されています。堂内は三つの明確な区画に分けられており、この配置は天台宗の儀式上の要件に従っています。外陣は一般参拝者のためのパブリックスペースとして用いられ、内陣（神聖な中心部）は、特別な儀式を行う僧侶のみが入ることを許されています。寺の本尊である千手観音は、内陣の祭壇にある厨子に安置されています。後陣は、通常は倉庫や儀式的準備のために確保されており、歴史的な仏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

三重塔

1400年に建立された三重塔は、建物の修理の必要性を最小限に抑えた類まれな数学的精度により造られ、構造の完全性と美的な調和で知られています。本堂と同様に、この塔も無塗装の木材と檜皮葺屋根を用いることで、柔らかく自然な印象を与えています。しかし、その構造上の美はリズムと安定性に基づいています。軒の優雅な曲線と三段の持送りの複合体が生み出す一貫した視覚パターンにより、バランスが取れた軽やかな印象を塔に与えています。

仏像

本堂には数多くの仏像が安置されており、中には12世紀のものもあります。中でも注目すべき作品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二十八部衆像です。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これらの木像は、秘仏かつ本尊である千手観音像の左右に配置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仏像は、すべての信者を救済するという菩薩の献身を支える、力強い守護者を表しており、それぞれが異なる精神的役割を象徴しています。1308年から1314年にかけて檜から彫られたもので、像の多くは隆起した筋肉や険しい表情で表現され、それぞれの守護の役割を反映しています。

常楽寺を楽しむ際のお願い

常楽寺は国宝に指定され、また現在も信仰の場として使用されています。寺院の神聖さを守り、寺院を傷つけないためにも、訪問者には以下のガイドラインを守っ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しています。

- 境内を散策する際は、指定された通路から外れたり、草木に触れたりすることをご遠慮ください。
- 写真撮影の際は、他の観光客に配慮し、通路や入り口を塞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 本堂内での撮影や携帯電話等の使用は、固く禁じられています。
- 境内および本堂内での飲食は禁止されています。

地域番号	015	協議会名	湊川神社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15-001	楠木正成公/祭神・ご利益・歴史上の人物	2447	その他
015-002	湊川神社/概要	626	パンフレット
015-003	湊川神社/概要	827	看板
015-004	殉節地/文化財史跡・由来	739	Web
015-005	嗚呼忠臣楠子之墓/文化財史跡・由来	505	Web
015-006	嗚呼忠臣楠子之墓/文化財史跡・由来	766	看板
015-007	殉節地・嗚呼忠臣楠子之墓/文化財史跡・由来	1242	その他
015-008	宝物殿/概要	370	Web
015-009	宝物殿/刀剣について	1147	看板
015-010	栗原信秀「太刀 銘 信秀」/宝物品	312	Web
015-011	段威腹巻/宝物品・重要文化財	315	Web
015-012	段威腹巻/宝物品・重要文化財	746	看板
015-013	法華経奥書/宝物品・重要文化財	377	Web
015-014	法華経奥書/宝物品・重要文化財	682	看板
015-015	宝物殿・段威腹巻・法華経奥書/宝物品・重要文化財	1243	その他
015-016	横山大観筆「大楠公像」/宝物品	552	看板/Web
015-017	前田青邨筆「大楠公」/宝物品	401	看板/Web
015-018	宝物殿/大楠公御一代記	2180	看板
015-019	神能殿/世界遺産「能楽」の祖の祖	493	Web
015-020	神能殿/世界遺産「能楽」の祖の祖	807	その他
015-021	楠本稻荷神社/ご利益	378	Web

015-022	菊水天満神社/ご利益	512	Web
015-023	楠本稻荷神社・菊水天満神社/ご利益	720	その他
015-024	本社社殿/本社社殿	414	Web

【タイトル】 楠木正成公/祭神・ご利益・歴史上の人物

【想定媒体】 その他

<韓国語>**구스노키 마사시게: 이상적인 무사**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무사 가운데 한 사람인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주제의 상징인 천황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황실이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로부터 통치권을 되찾으려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보여준 굳건한 헌신 덕분에 구스노키는 그리스의 레오니다스 왕과 프랑스의 잔 다르크와 같은 영웅적 인물들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14 세기의 영웅 구스노키에 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그의 역사적 유산은 오늘날 일본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미나토가와 신사

구스노키는 고베에 있는 미나토가와 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신사는 구스노키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으로 유명한 미나토가와 전투 격전지에 지어졌으며, 사후 약 500 년이 지난 1872 년 그의 용기와 충성을 기리기 위해 창건되었습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와 철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구스노키를 추앙하며 그의 이상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장 구스노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신사를 방문합니다. 지혜와 전략적 통찰력, 굳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에 대한 헌신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 만큼 그에게 기도를 드리면 다양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학문과 직업적 성공, 강한 정신력, 리더십 향상 등을 기원합니다.

충성스러운 무사의 삶과 죽음

구스노키의 생애 초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나, 1294 년경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정보는 14 세기 후반에 완성된 역사 서사시 「태평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태평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문학적 요소가 가미된 작품으로, 고다이고 천황을 섬긴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지략을 갖춘 지휘관으로서 구스노키를 묘사한 핵심 사료입니다.

구스노키의 이야기는 1331 년 시작됩니다. 당시는 고다이고 천황이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을 타도하고 왕정 복고를 시도하던 시기였습니다. 1185 년에 세워진 막부는 그 이전까지 이어져 오던 천황 통치의 명맥을 단절시키고 약 200 년 동안 정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막부 정권이 국가의 안녕과 황실의 전통적 권위보다

사리사욕에 치중한다고 믿었습니다. 천황의 대의에 깊이 공감한 구스노키는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그를 충실히 보좌하였습니다.

1331년 고다이고 천황의 계획이 발각되자, 천황은 교토의 궁을 떠나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황은 산중의 사원에 몸을 숨겼지만 결국 막부군에 붙잡혀 유배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도 구스노키는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천황의 대의를 따랐습니다. 막부군은 이에 응해 구스노키의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이 함락 직전에 이르자 구스노키는 전사한 것처럼 꾸민 뒤 남은 병력을 이끌고 산중으로 철수했습니다. 이후 그는 병력을 규합, 막부를 상대로 3년에 걸친 장기 게릴라전을 전개했습니다. 보급로와 전초기지를 끊임없이 공격한 덕분에 막부의 자원이 묶이게 되었고, 이는 결국 막부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반란의 큰 원천이 되었습니다.

1333년 초에 고다이고 천황은 유배지에서 탈출했고, 그해 말, 위세를 떨치던 아시카가 다카우지 장군을 비롯한 주요 무장들이 막부를 이탈해 황제의 대의에 동참하면서 가마쿠라 막부는 몰락했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구스노키와 같은 충신들의 보좌에 힘입어 왕정 복고에 성공하며 겐무 신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되찾은 황실의 권위는 곧 다카우지를 포함한 일부 무사 계층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사태는 다카우지를 중심으로 한 무사 세력의 노골적인 반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스노키는 황실군이 수적으로 크게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고다이고 천황에게 직접 교전을 피할 것을 진언했지만, 천황의 측근들은 정면 대결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구스노키는 끝까지 충직하게 황명을 따랐습니다.

구스노키의 희생

1336년,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을 직감한 구스노키는 출정에 앞서 병력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대부분의 병사에게 귀향을 명하고는, 황제를 향한 충성을 지키며 싸움을 이어가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아들과의 이 애절한 작별은 일본인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 장면을 묘사한 수많은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구스노키는 고작 700명의 기병만을 이끌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그의 군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용맹하게 싸웠으나, 결과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비록 다카우지의 군대를 격파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을 벌어진 덕분에 구스노키측 연합군 총사령관이 퇴각할 수 있었고, 교토에 있는 천황에게 돌아가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구스노키의 군대는 다카우지의 군대에 포위되어 전멸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히는 불명예를 피하고자 구스노키와 그의 아우, 그리고 가신들은 할복을 택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아우는 일곱 번이라도 다시 태어나

싸우겠노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은 '시치쇼 호코쿠(칠생보국: 나라를 위해 일곱 번이라도 다시 태어나련다)'라는 말은 훗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병사들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미나토가와 전투에서 구스노키의 패배로 겐무 신정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 영웅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이야기는 에도 시대(1603~1867)에 「태평기」의 내용이 새로운 문학과 예술 형태로 각색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민적 상징으로서 공식적인 위상을 회복한 것은 19 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중앙집권적 군주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메이지 신정부는 구스노키를 국민 영웅으로 추앙했습니다. 천황에 대한 충성을 몸소 실천한 그는 신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유하고자 했던 이상을 상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 고쿄 근처에는 그의 기마 동상이 세워졌고, 그의 생애는 국가 교육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구스노키

오늘날에도 구스노키는 깊은 존경을 받는 역사적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미나토가와 신사를 찾는 이들은 여전히 그의 업적을 기리며, 그의 삶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특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태평기」에 담긴 이야기는 수세기에 걸쳐 천황과 국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게 해 주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가, 정치적 이상주의자, 혹은 비극적인 영웅까지. 어떤 시각에서 그를 보건, 구스노키는 세대를 초월해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015-001

<日本語仮訳>

楠木正成公/祭神・ご利益・歴史上の人物

日本史上最も有名で崇敬される武将の一人、楠木正成は、世界最古の君主制の象徴である天皇への揺るぎない忠誠で知られています。楠木が仕えていたのは、鎌倉を拠点とする武家主導の幕府に対し、朝廷が主権回復を図っていた時代でした。その揺るぎない献身は、ギリシャのレオニダス王やフランスのジャンヌ・ダルクといった英雄たちと並び称されるほどです。この 14 世紀の英雄についての詳細の多くは不明であるものの、楠木の遺産は現代の日本に生き続けています。

湊川神社

楠木は神戸の湊川神社に祀られています。この神社は、湊川の戦いの舞台に建てられており、彼が天皇のために命を捧げたことでよく知られている場所です。楠木の死後およそ 500 年を経た 1872 年に創建され、彼の勇氣と忠誠を記念しています。

現在、政治的指導者や哲学者など、多くの人々が楠木を崇敬し、彼の理想に従って自らの人生を生きたいと願っています。彼らは湊川神社を訪れ、この高名な武將に敬意を表しています。その知恵、戦略的な

洞察力、不屈の精神、正義への献身で知られる楠木に祈ることで、学業・仕事の成功、精神力、指導力の向上など、さまざまな御利益があるとされています。

忠義の武将の生涯と死

楠木の初期の人生について確実にわかっていること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が、1294年頃に生まれたと信じられています。知られていることの大部分は、14世紀後期に完成した歴史叙事詩である『太平記』に由来します。『太平記』は歴史的記述と文学的脚色が混合したものです。これは、彼を後醍醐天皇の鋭敏な武将であり、忠実な臣下として描く主要な史料となっています。

楠木の歴史は1331年、後醍醐天皇が日本初の武家主導政権の打倒を通じて直接的な皇室統治を復活させようとした時代から始まります。1185年に成立した幕府は、天皇による統治というかつての連綿と続く伝統を打ち破り、およそ200年にわたり政権を握りました。後醍醐天皇は、幕府が国家の繁栄や朝廷の伝統的な権威よりも、私利私欲を優先させていると考えていました。楠木は天皇の大義を強く信じ、この激動の時代に天皇に忠誠を尽くしたのです。

1331年に後醍醐の計画が発覚すると、彼は京都の皇宮からの逃亡を余儀なくされました。彼は山中の僧院に逃げましたが、最終的に幕府軍に捉えられ、配流されました。この危機的状況でも、楠木は天皇の大義に忠実に仕えました。これに対し、幕府軍が彼の城を包囲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自分の城が陥落寸前となった楠木は、死を装い、残った軍勢と共に山中に撤退しました。そこから彼は兵を募り、3年間にわたり幕府に対するゲリラ戦を展開しました。補給線や小規模な前哨基地への絶え間ない攻撃により、徐々に幕府の資源が滞っていき、政権崩壊につながった反乱に大きく寄与しました。

1333年初頭、後醍醐天皇は配流から逃れました。同年後半、鎌倉幕府は、強大な将軍足利尊氏などの主要な武将たちが政権を放棄し、天皇の大義に加わったため、崩壊しました。傍らで仕える楠木などの忠臣たちに支えられ、後醍醐は皇室統治の復活に成功し、建武の新政が始まりを迎えました。しかし、朝廷の新たな権威はまもなく、尊氏をはじめとする一部の武士階級からの抵抗に直面しました。状況は公然の対立へと発展し、尊氏が武士側を率いることとなりました。天皇側の武力が圧倒的に劣勢であったため、楠木は後醍醐に直接対決を避けるよう進言しましたが、天皇の側近らは正面決戦を主張しました。最後まで忠義を貫いた楠木は天皇の命令に従いました。

楠木の犠牲

1336年、最期の戦いになると知った楠木は、その戦いを前に、軍勢を分割しました。彼は息子と彼の軍勢の大半に帰郷を命じ、天皇に忠実であり続け、戦いを続けるよう懇願しました。息子との感傷的なこの別れは、日本人の心に永く刻み込まれ、この場面を描いた多くの芸術作品が生まれました。

楠木は残された700騎というわずかな部隊と共に出陣しました。彼の劣勢な軍勢は朝から夕方まで勇ましく戦ったものの、結果は避けられませんでした。彼らは尊氏軍を打ち負かす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が、楠木の同盟軍の総大将が退却するまで尊氏軍を占領することに成功しました。これにより、彼は京都にいる天皇のもとへと戻り、次の戦いに備え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

6時間にわたる戦いを経て、楠木軍は尊氏軍に包囲され、打ち砕かれました。捕虜になる不名誉に直面するよりも、楠木は弟や家臣たちと共に切腹することを選びました。伝説によると、弟は戦いを続けるために七度生まれ変わりたいという最期の願いを表明しました。この心情である「七生報国」（「七たび生まれて国に報いん」）は、後に国のために自らを犠牲にする兵士たちの戦いのスローガンとなりました。湊川の戦いにおける楠木の敗北は、建武の新政の終焉を告げるものでした。

国民的英雄

江戸時代（1603～1867）に『太平記』の物語は新たな文学や芸術作品へと翻案され、楠木正成の生き様は絶大な人気を得ました。しかし、国民的象徴としての楠木の地位が正式に復活したのは、19世紀後期の明治維新の時代でした。日本が中央集権的君主制に移行するにつれ、明治新政府は楠木を国民的英雄として称えました。彼は天皇への忠誠を体現しており、これは国家が国民と共有したいと願った理想でした。その結果、東京の皇居近くには騎馬姿の彼の銅像が建立され、彼の生涯の物語は国の学校教育のカリキュラムに組み込まれました。

現代の楠木

現在でも楠木は、深く尊敬される歴史上の人物であり続けています。湊川神社の参拝者は今でも彼のレガシーに敬意を表しており、彼の生涯は日本人の想像力の中で独特の地位を占めています。彼に関する詳細の多くは不確実なままですが、『太平記』に保存された物語は、天皇と国に仕える意味について何世紀にもわたる思想を形づくってきました。優れた戦術家、政治的理想主義者、あるいは悲劇的英雄のどれと見なされるにしても、彼は世代を超えて尊敬を集める人物であり続けています。

【タイトル】 湊川神社/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미나토가와 신사

14 세기에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 세워진 미나토가와 신사는 존경받는 무장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곳으로 유명합니다.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보였던 구스노키는 이상적인 무사도의 전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신사 경내에는 구스노키가 최후를 맞은 장소와 그의 묘, 그리고 그의 신령을 모신 본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872 년 메이지 천황이 창건한 이 신사는 남북조 시대(1336~1392) 초 구스노키가 고다이로 천황에게 보인 용맹과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당시는 황실이 계파 간 분열로 상호 대립하며 권력 다툼, 동맹의 이동 및 내전이 이어지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구스노키는 1333 년 고다이로 천황이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고 잠시나마 왕정 복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장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직접 막부를 세우기로 결심, 천황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스노키는 천황에게 전략적 후퇴를 진언했으나, 끝내 다카우지와 맞서 싸우라는 명을 받고 1336 년 미나토가와 전투에 출진했습니다. 병력에서 크게 열세였음에도,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황명을 따랐습니다.

패배가 자명해지자 구스노키와 그의 형제, 그리고 가신들은 포로가 되는 대신 모두 할복(자결 의례)을 선택했습니다. 최후의 순간 그의 형제는 "나라를 위해 일곱 번이라도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구스노키는 전장에 묻혔으며, 현재 그곳에는 미나토가와 신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과 갑옷을 비롯한 그의 유품들도 신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湊川神社/概要

湊川神社は、崇敬される武士楠木正成が天皇のために命を捧げたことで知られている 14 世紀の重要な戦いの跡地に建っています。揺るぎない忠誠と自己犠牲により、楠木は理想的な武士の行いの典型として日本全国で称賛されています。境内には楠木の終焉の地、彼の墓所、そして彼が祀られている本殿が含まれています。

1872 年に明治天皇によって創建されたこの神社は、南北朝時代（1336–1392）の開幕における後醍醐天皇への楠木の勇気と献身を記念しています。南北朝時代は権力闘争、忠誠の変転、そして二つの対立する皇室朝廷間の内戦という動乱の時代でした。

この内戦の勃発以前、楠木は後醍醐天皇の鎌倉幕府打倒と 1333 年より短期間の皇室統治復活を

支援する上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しかし、この新政は、天皇のかつての盟友である武将足利尊氏が反乱を起こし、自らの軍事政権を樹立したため短命に終わりました。天皇に戦略的撤退を進言していたものの、天皇から足利と対峙するよう命じられた楠木は、1336年の湊川の戦いに挑みました。圧倒的に劣勢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彼は重い心を引きずりながらも忠実に皇命に従いました。

敗北が避けられなくなった時、楠木と彼の弟、そして生き残った兵士たちは捕虜になることよりも切腹（儀礼的自殺）を選びました。最期の時に、彼の弟は「七生報国」（「七たび生まれて国に報いん」）という有名な言葉を述べました。

楠木は、現在湊川神社が建っているこの戦いの地に埋葬されています。刀や甲冑を含む彼の遺品もまた、この神社の宝物殿に保存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湊川神社/概要

【想定媒体】看板

<韓国語>

미나토가와 신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4 세기에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 세워진 미나토가와 신사는 존경받는 무장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곳입니다.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보였던 구스노키는 이상적인 무사도의 전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신사 경내에는 구스노키가 자결 의례를 행한 장소와 그의 묘, 그리고 그의 신령을 모신 본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872 년 메이지 천황이 창건한 이 신사는 남북조 시대(1336~1392) 초 구스노키가 고다이고 천황에게 보인 용맹과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당시는 황실이 계과 간 분열로 상호 대립하며 권력 다툼, 동맹의 이동 및 내전이 이어지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구스노키는 1333 년 고다이고 천황이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고 잠시나마 왕정 복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장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직접 막부를 세우기로 결심, 천황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스노키는 천황에게 전략적 후퇴를 진언했으나, 끝내 다카우지와 맞서 싸우라는 명을 받고 1336 년 미나토가와 전투에 출진했습니다. 병력에서 크게 열세였음에도,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황명을 따랐습니다.

구스노키와 그의 군대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용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패배가 자명해지자 구스노키와 그의 형제, 그리고 가신들은 포로가 되는 대신 모두 할복(자결 의례)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순절은 고다이고 천황은 물론, 무가 일족들의 사익보다 공적 의무를 우선시했던 그의 통치 이념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명망 높은 무장을 추모하고 그의 뛰어난 지략과 강직한 성품, 정의를 향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에게 기도를 올리면 나라의 평안,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취, 강인한 정신, 뛰어난 통솔력 등 다양한 축복이 찾아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사의 보물관에는 구스노키와 관련된 귀중한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전시물로는 검과 갑옷이 있으며 구스노키의 삶을 조명하는 자료들과 그가 생전 소유했던 유물, 그의 업적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湊川神社/概要

湊川神社は 14 世紀の重要な戦いの地であり、崇敬される武将、楠木正成（1294～1336 年）が自身の仕える天皇のために命を捧げた場所です。彼の揺るぎない忠誠と自己犠牲の心により、楠木は理想

的な武士道の模範として称えられています。神社の境内には楠木が切腹した場所、彼の墓所、そして彼が祀られる本殿があります。

1872年に明治天皇により創建されたこの神社は、朝廷が皇室の二つの対立する系統に分かれた南北朝時代（1336～1392年）の幕開けに、後醍醐天皇に示した楠木の勇気と忠誠を称えるものです。これは権力闘争、離反、内乱が渦巻く時代でした。

楠木は、後醍醐天皇の鎌倉幕府打倒を支え、1333年に短期間で天皇の権威を回復する上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しかし、この復権は短いものでした。武將の足利尊氏が天皇に背き、自らの幕府を開こうと決意したためです。楠木は後醍醐天皇に戦略的撤退をするよう進言したものの、1336年の湊川の戦いで尊氏と対峙するよう命じられました。多勢に無勢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彼は重い心を引きずりながらも天皇の命令に従いました。

彼と彼の軍勢は朝から夕方遅くまで勇ましく戦いました。しかし敗北が避けられない状況となった時、楠木は彼の弟や家臣たちと共に、捕らえられるよりはと、切腹（または英語で儀式的な自殺）することを選びました。この殉死の行為は、後醍醐天皇への忠誠の証であり、また、武家氏の私利私欲よりも公の義務を重んじた後醍醐天皇の治世観となりました。

今日、多くの人々がこの神社を訪れて、この高名な武將に敬意を表しています。彼の知恵、戦略的洞察力、揺るぎない信念、そして正義への献身を称え、彼に崇敬の念を捧げているのです。彼に祈りを捧げると、国家の平和、学業や仕事の成功、精神的な強さ、そしてリーダーシップ能力の向上など、様々な御加護がもたらされると信じられています。

神社の宝物殿は、この伝説の武將に関連する貴重な遺物が収蔵されている場所です。展示品には刀や鎧、楠木正成の生涯を紹介する展示、楠木個人が所有していた品々、そして彼の功績に因んで制作された作品などがあります。

【タイトル】 殉節地/文化財史跡・由来

【想定媒体】 Web

<韓国語>**구스노키 마사시게가 순국한 곳**

미나토가와 신사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장소는 충성스러운 무사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가신들과 함께 할복한 곳입니다. 1336년 7월 5일, 운명을 가른 미나토가와 전투에서 구스노키와 그의 가신들은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도 용맹하게 싸운 후 포로가 되는 대신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순절은 사익보다 공적 책무를 중시하는 통치 이념을 지닌 고다이오 천황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입증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전투는 천황에게 충성하는 군대와 반란을 일으킨 무장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군대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서 비롯된 격돌이었습니다. 1333년 최초의 막부를 타도한 후 고다이오 천황은 무사 가문의 사적인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황실 친정 체제를 복고했으나, 다카우지는 자신이 이끄는 새로운 막부의 수립을 꾀했습니다.

병력의 현저한 열세를 인식한 구스노키는 천황에게 후퇴 후 게릴라전을 펼칠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천황의 측근들은 정면 대결을 명하였고, 구스노키는 충성을 다하여 결국 왕명에 따라 열세인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패배가 자명해지자, 구스노키는 아우 마사스에를 포함한 72명의 가신들과 함께 할복을 택했습니다. 최후의 순간, 마사스에는 다시 태어나 황실의 적과 계속 맞서 싸우겠다고 맹세하며 칠생보국(七生報國: 나라를 위해서라면 일곱 번이라도 다시 태어나련다)”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구스노키도 이에 동의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칼을 뽑았습니다.

구스노키의 장렬한 항전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다카우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다카우지는 황도 교토를 장악했으며, 이후에 무사 정권인 아시카가 막부를 수립하여 1573년까지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순절지는 국가 지정 문화재이자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명사들이 기증한 많은 석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殉節地/文化財史跡・由来**

湊川神社で最も神聖な場所は、忠義の武将、楠木正成と彼の家臣たちの殉節地です。1336年7月

5 日、湊川の戦いにおいて、彼らは多勢に無勢である中、果敢に戦い抜き、捕虜になることよりも切腹を選びました。この殉死は、後醍醐天皇に対する彼らの揺るぎない忠誠心と、私利私欲よりも公務を重んじる彼の統治理念の証でした。

この重要な戦いは、天皇の忠臣軍と反乱軍の足利尊氏の軍勢との間で繰り広げられました。この衝突は、国の将来に対する双方の相反する見解から生じました。1333 年、初代幕府を倒した後、後醍醐天皇は天皇親政を復活させ、武家の私的利益から解放されるべきだと考えました。しかし、尊氏は自らの指揮で新たな幕府を築こうとしていたのです。

自軍が圧倒的に劣勢であることを知った楠木は、天皇に退却してゲリラ戦術を採用するよう進言しました。しかし、天皇の側近たちは対決を命じました。至上の忠誠心から、楠木は最終的にそれに従い、劣勢な軍勢を率いて戦いに臨みました。敗北が避けられなくなった時、彼の弟正季を含む 72 人の家臣と共に切腹（儀礼的自殺）を行いました。この最期の時の前に、正季は有名な「七生報国」（「七たび生まれて国に報いん」）を宣言し、朝廷の敵との戦いを続けるために生まれ変わることを誓いました。楠木もこれに同意し、そして最後の刀を振いました。

楠木の勇敢な戦も虚しく、尊氏が戦いに勝利しました。この勝利により、帝都である京都を占領できたのです。その後、彼は武家主導の足利幕府を成立させ、1573 年まで統治しました。現在、楠木正成の殉節地は国指定の文化財史跡となっており、著名人物が寄贈した石灯籠が置か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嗚呼忠臣楠子之墓/文化財史跡・由来

【想定媒体】 Web

<韓国語>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묘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의 유해는 1336년에 그가 황제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으로 유명한 미나토가와 전장에 묻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가 묻힌 곳을 표시해 조용히 돌봐왔으며, 실제 위치는 16세기 후반 국토 측량 중 비로소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아마가사키번(오늘날 효고현)의 영주가 묘소 위에 오륜탑을 세웠습니다.

이 오륜탑은 1692년 현재의 기념비로 교체되었는데, 도쿠가와 막부 미토 번의 수장인 도쿠가와 미쓰쿠니의 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일본사」 편찬을 이끈 것으로 유명한 미쓰쿠니는 구스노키를 충성스러운 무사의 전형으로 기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필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게 함으로써 구스노키가 충성의 최고 상징이자 깊은 국민적 존경을 받는 인물로서 갖는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구스노키의 묘는 미나토가와 신사 경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의 묘소는 물론 할복을 행한 현장, 그리고 그의 신령을 모신 본전에도 자주 참배합니다.

구스노키를 기리는 또 다른 장소로는 오사카부의 간신지 사원이 있으며, 이곳에는 그의 머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전투 후 적들은 당시 관례에 따라 구스노키의 머리를 잘랐으나, 그의 용맹함을 깊이 존경하는 뜻에서 현재의 오사카 지역에 살던 유가족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日本語仮訳>

嗚呼忠臣楠子之墓/文化財史跡・由来

楠木正成(1294~1336年)は天皇にその生涯を立派に捧げた後、その亡骸は1336年に湊川の戦いの地に埋葬されました。近隣の人々は埋葬地を記し、国土調査で正式に特定される16世紀後半まで、ひっそりと手入れしていました。その後、尼崎藩(現在の兵庫県)の藩主がこの埋葬地に五輪の供養塔を建立しました。

この供養塔は1692年に現在の記念碑に改築されました。水戸徳川家当主の徳川光圀がこの建立を命じました。『大日本史』(大日本の歴史)の編纂で知られる光圀は、忠義を貫く武将の模範として楠木を称えようとしたのです。自らの筆で刻まれた記念碑を建てることで、光圀は究極の忠誠の象徴、そして深い国民的尊敬を集める人物像として楠木正成の功績を確固たるものにしました。

楠木の墓は湊川神社の境内内にあります。参拝者は、彼の墓所、彼が切腹を行った跡地、神格化される彼の御霊が祀られている本殿にも、頻繁に訪れて敬意を表しています。

楠木を祀る別の参拝地として、ほかに大阪府にある観心寺もあり、ここには楠木の首が埋葬されています。戦いの後、敵軍は当時の慣習に従い首級を斬り取りましたが、彼の勇敢さに深く敬意を表し、現在の大阪にある楠木家のもとに送り返したのです。

【タイトル】 嗚呼忠臣楠子之墓/文化財史跡・由来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묘

이곳에는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1336년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는 미나토가와 전투에서 할복 후 이곳에 매장되었습니다. 다만 그의 머리는 오사카부에 위치한 간신지 사원에 따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적들은 당시 관례에 따라 구스노키의 머리를 잘랐으나, 그의 용맹함을 깊이 존경하는 뜻에서 유가족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현재의 기념비는 도쿠가와 막부 미토번의 수장 도쿠가와 미쓰쿠니의 명에 따라 1692년 세워진 것입니다. 「대일본사」 편찬을 이끈 것으로 유명한 미쓰쿠니는 구스노키를 충성스러운 무사의 전형으로 기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기념비를 세우게 함으로써 구스노키가 충성의 최고 상징이자 깊은 국민적 존경을 받는 인물로서 갖는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받침대 위에 거북이와 닮은 상상의 동물인 '비시'가 조각되어 있고, 그 등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시는 거북의 등딱지를 지닌 중국 신화 속의 용으로 도덕적 미덕과 권위를 상징하며, 유력 인물들의 장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비시의 상징물 외에도 구스노키의 이야기에 담긴 소재들을 반영한 세 종류의 석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사각형의 받침대에는 운명의 전장이었던 고베산 화강암이, 용거북 조각에는 그의 주군인 고다이코 천황이 거쳐했던 교토산 화강암이, 비석에는 그의 출생지인 오사카산 사암이 쓰였습니다.

비석에는 이곳이 구스노키의 최후의 안식처임을 밝히는 미쓰쿠니의 친필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새 기념비가 완공된 이후 그 명성은 빠르게 퍼졌으며, 매일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경의를 표하고 비문의 탁본을 떠 갔습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덕망 있는 학자와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곳에 이어졌으며, 그중에는 독일의 식물학자이자 의사인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1796~1866), 황실 충성과 사무라이 사카모토 료마(1836~1867), 그리고 그리스계 아일랜드 작가 라프카디오 헨(1850~1904)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嗚呼忠臣楠子之墓/文化財史跡・由来

楠木正成の亡骸はここに埋葬されています。この武將は 1336 年の湊川の戦いで天皇のために命を捧げ、切腹した後、ここに埋葬されました。しかし、彼の首は、大阪府の観心寺にて別々に埋葬されています。これは慣例として、彼の敵対者がその勇敢さに深く敬意を表して彼の首を切り落とし、楠木家のもとに

送ったのです。

現在の記念碑は、1692年に水戸徳川家当主である徳川光圀の命により建立されました。『大日本史』（大日本の歴史）の編纂で有名な光圀は、忠義を貫く武将の模範として楠木を称えようとしたのです。この記念碑を建てることで、光圀は忠誠の至高の象徴、そして深い国民的尊敬を集める人物像として楠木の功績を確固たるものにしました。

この記念碑は台座の上に亀のような生き物（鼈負）が表現されており、その背中には碑が立っています。この生き物は、亀の甲羅を持つ中国の神話上の龍で、善行と権威を表す一般的な象徴として、著名な人物の墓域によく見られます。

鼈負の象徴性に加えて、記念碑には楠木の物語の重要な側面に対応する三種類の石材が使用されています。四角い台座は運命の戦場となった地を示す神戸から産出された花崗岩で、鼈負は主君である後醍醐天皇が住んだ京都から産出された花崗岩で、そして碑は彼の生誕の地である大阪から産出された砂岩です。

碑には、この地が楠木の永眠の地であることを示す、光圀の筆跡による碑文が刻まれています。新しい記念碑が完成すると、その評判は瞬く間に広まり、毎日何千人もの参拝者が訪れ、敬意を表して墓石の碑文に拓本を取りました。その後も数世紀にわたり、この地は高潔な学者や政治家を惹きつけ続けました。その中にはドイツの植物学者・医師であるフィリップ・フランツ・フォン・シーボルト（1796～1866年）、天皇を忠実に支持する武士の坂本龍馬（1836～1867年）、そしてギリシャ系アイルランド人作家ラフカディオ・ハーン（1850～1904年）がいます。

【タイトル】 殉節地・嗚呼忠臣楠子之墓/文化財史跡・由来

【想定媒体】 その他

<韓国語>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순절

고베의 미나토가와 신사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무사 중 한 명인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모시는 곳입니다. 이 신사는 존경받는 14 세기 장군이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보였던 구스노키는 이상적인 무사도의 전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신사 경내에는 구스노키가 할복한 장소와 그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스노키의 마지막 선택

신사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장소는 운명을 가른 1336 년 미나토가와 전투에서 구스노키가 그의 아우를 비롯한 가신들과 함께 할복한 곳입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용맹하게 싸운 후, 포로가 되는 대신 자결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순절은 사익보다 공적 책무를 중시하는 통치 이념을 지닌 고다이코 천황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입증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결전은 천황에게 충성하는 군대와 반란을 일으킨 무장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군대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서 비롯된 격돌이었습니다. 1333 년 최초의 막부를 타도한 고다이코 천황은 무사 가문의 사적인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황실 친정 체제를 복고했으나, 다카우지는 자신이 이끄는 새로운 무사 정권 막부의 수립을 꾀했습니다.

병력의 현저한 열세를 인식한 구스노키는 천황에게 후퇴 후 게릴라전을 펼칠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고다이코 천황의 측근들은 정면 대결을 명했습니다. 구스노키는 충성을 다하여 결국 왕명에 따라 열세인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패배가 자명해지자, 구스노키는 아우 마사스예를 포함한 72 명의 가신들과 함께 할복(자결 의례)을 택했습니다.

구스노키의 장렬한 향전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다카우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다카우지는 황도 교토를 장악했으며, 이후 무사 정권인 아시카가 막부를 수립했습니다. 이 막부는 명목상으로는 1573 년까지 존속했으나 오닌의 난(1467~1477)으로 대표되는 내부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이후 센고쿠 시대(전국시대, 1467~1568)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순절지는 국가 지정 문화재이자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명 인물들이 기증한 석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스노키의 묘

미나토가와 전투에서 할복한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유해는 같은 전장에 묻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가 묻힌 곳을 표시해 조용히 돌봐왔으며, 실제 위치는 16 세기 후반 국토 측량 중 비로소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의 영주가 그 자리에 오륜탑을 세웠습니다.

이 오륜탑은 1692 년 도쿠가와 막부 미토번의 수장인 도쿠가와 미쓰쿠니의 명에 따라 현재의 기념비로 대체되었습니다. 「대일본사」 편찬을 이끈 것으로 유명한 미쓰쿠니는 구스노키를 충성스러운 무사의 전형으로 기리고자 했습니다. 미쓰쿠니는 기념비를 세우게 함으로써 이 무사가 충성의 최고 상징이자 깊은 국민적 존경을 받는 인물로서 갖는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받침대 위에 거북이와 닮은 상상의 동물이 조각되어 있고, 그 등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물은 거북의 등딱지를 지닌 중국 신화 속의 용으로 도덕적 미덕과 권위를 상징하며, 덕망 있는 학자와 정치인들의 장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015-007

<日本語仮訳>

殉節地・嗚呼忠臣楠子之墓/文化財史跡・由来

神戸の湊川神社は、日本を代表する名将の一人、楠木正成を祀っています。この神社は、14 世紀に敬愛された武将が天皇のために自身の命を捧げた、重要な戦いの地に建てられています。彼の揺るぎない忠誠と自己犠牲の心により、楠木は理想的な武士道の模範として称えられています。神社の境内には、楠木が切腹した場所と彼のお墓があります。

楠木の最期の行動

神社で最も神聖な場所は、1336 年の決定的な戦いの場となった湊川の戦いで、楠木と彼の弟、家臣たちが切腹を行った場所です。多勢に無勢である中、勇敢に戦った後、彼らは捕らえられるよりも自死を選びました。この殉死の行為は、後醍醐天皇への彼らの揺るぎない忠誠の証であり、また、私利私欲よりも公の義務を重んじた後醍醐天皇の治世観となりました。

この重要な戦いは、天皇に忠誠を誓う軍勢と、反乱軍の長である武将 足利尊氏率いる軍勢との間で繰り広げられました。この衝突は国の将来をめぐる両者の対立する理想から生じたものでした。1333 年に初代将軍を打ち倒した後、後醍醐天皇は武家氏の私利私欲から離れるべきだと自身が考える、天皇直轄の統治を復活させました。しかし、尊氏は自らの指揮下で武家による新たな幕府を開こうと企てました。

自身の軍勢では多勢に無勢であることを認識していた楠木は、撤退して遊撃戦術を採るよう天皇に強く勧

めました。しかし、後醍醐天皇の側近たちが対決を命じたのです。楠木は究極の忠誠を示す行動をもって最終的にこれに従い、数的に劣る軍勢を率いて戦場へと赴きました。敗北が避けられない状況となった時、楠木は弟の正季を含む 72 名の家臣と共に、切腹という儀式的な自殺を行いました。

楠木の勇敢な抵抗にもかかわらず、尊氏はこの戦いに勝利しました。この勝利により尊氏は京都の朝廷を掌握することに成功し、その後武家による足利幕府を開きました。この幕府は名目上、1573 年まで続きましたが、壊滅的な応仁の乱（1467～1477）に代表される内紛が続き、その後、戦国時代（1467～1568）の幕開けとなったのです。現在、楠木正成の死地は国により文化財ならびに史跡に指定されています。著名な人物から寄贈された石灯籠が並んでいます。

楠木の墓

楠木正成の亡骸は、彼が切腹を行った後、湊川の戦いの場に埋葬されました。近隣の人々は埋葬地を記し、国土調査で正式に特定される 16 世紀後半まで、ひっそりと手入れしていました。その後、この地域の藩主がこの地に五輪の供養塔を建立しました。

この供養塔は 1692 年、水戸徳川家当主の徳川光圀の命により、現在の記念碑に改築されました。『大日本史』（英語で大日本の歴史の意味）の編纂で知られる光圀は、忠義を貫く武将の模範として楠木を称えようとしたのです。記念碑を建てることで、光圀は忠誠の至高の象徴、そして深い国民的尊敬を集める人物像として、この武将の功績を確固たるものにしました。

記念碑は台座の上に亀のような生き物が表現されており、その背中に碑が立っています。この生き物は、亀の甲羅を持つ中国の神話上の龍で、善行と権威を表す一般的な象徴として、高潔な学者や政治家の墓域によく見られます。

【タイトル】 宝物殿/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
보물전

이 신사의 보물전에는 14 세기 장군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와 관련된 귀중한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스노키는 충성과 용맹의 전형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보물전은 신사의 후원자이자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존경했던 지역 사업가 시오타 도미조의 후원으로 1963 년 완공되었습니다.

보물전에는 사무라이의 검과 갑옷이 전시되어 있으며, 구스노키의 삶을 조명하는 자료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소장품 중에는 구스노키가 생전 소유했던 유물 및 그의 업적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구스노키가 착용했던 갑옷과 친필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둘 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나토가와 신사를 창건한 메이지 천황(1852~1912)이 기증한 검과 유명 화가인 요코야마 다이칸(1868~1958), 그리고 마에다 세이손(1885~1977)이 그린 구스노키의 초상화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宝物殿/概要

この神社の宝物殿は、武士の忠誠と勇気の典型として敬慕される14世紀の武将楠木正成（1294～1336）に関する貴重な遺物の宝庫です。宝物殿は、神社の後援者であり、名声を博した武将楠木の崇拜者でもあった地元の実業家塩田富造の寄附により、1963年に完成しました。

宝物殿には、楠木の生涯に関する展示とともに武士の刀・甲冑が展示されています。コレクションの中には楠木が個人的に所有していた品物と、彼のレガシーに着想を得た作品があります。これらの中には、楠木が着用した甲冑と直筆の書状が含まれ、それらはいずれも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さらに、このコレクションには湊川神社の創建者である明治天皇（1852-1912）から寄贈された刀、そして著名な画家横山大観（1868-1958）と前田青邨（1885-1977）による楠木の肖像画が収蔵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宝物殿/刀剣について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현신의 흔적: 미나토가와 검 컬렉션**

보물관에 소장된 많은 검들은 유명한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 장군의 신령을 기리기 위한 공물로 신사에 기증된 것들입니다. 신사를 창건한 메이지 천황(1852~1912)의 명으로 만들어진 ‘타치’, 그리고 도쿠가와와 마지막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1837~1913)가 기증한 ‘카타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컬렉션에는 구스노키가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을 포함한 중세 시대의 검들도 있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검

일본의 검(일본도)은 뛰어난 장인 정신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의미로도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도 전통에서 일본도는 강함과 순수함, 그리고 악을 물리치는 힘을 상징하기에 신에게 바치는 공물이나 신성한 보물로 자주 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神体)로 간주되어 신령이 깃들거나 신을 상징하는 사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무사들은 전투 전에 서약을 지키거나 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검을 신사에 헌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관행에 따라 검은 무사의 현신을 보여주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본도의 제작과 종류

일본도(니혼토)의 역사는 8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통적으로 일본도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탄소를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 탄소 함량이 높은 ‘다마하가네’라는 철강을 수 차례 반복해 접고 단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공들 정제된 강철을 여러 겹으로 겹쳐 절삭 날에는 단단한 고탄소 강철을, 중심부에는 부드러운 저탄소 강철을 사용하여 날카롭고 강인한 칼날을 완성했습니다.

일본도는 무기로서뿐만 아니라 예술품으로서도 높이 평가됩니다. 검의 형태, 담금질 무늬, 각인뿐만 아니라 칼집, 쓰바(칼날과 손잡이 사이 보호판), 칼자루와 같은 화려한 장식 부속품 등 다양한 미적 특징을 자랑합니다. 특히 쓰바는 철, 구리 등 다양한 재료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예술적 가치를 더해 줍니다.

검은 용도와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타치’는 10 세기에서 16 세기 사이에 널리 사용된 길고 휘 칼로, 기마 전투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기마전보다 보병전이 더 보편화되면서, 보병전을 위해 개발된 더 짧은 칼 ‘카타나’가 타치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짧은 ‘와키자시’는 카타나와 함께 휴대해 근접전이나 할복 시 쓰였고, 가장 짧은 칼은 단토(단검)입니다. 현존하는 구스노키 시대의 일본도는 극히 드뭅니다.

컬렉션에 소장된 명검들

박물관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여러 검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노부히데가 새긴 타치’는 메이지 천황이 제작을 명해 신사에 헌납한 검으로, 금속 세공술로 저명했던 장인 구리하라 노부히데(1815~1881)가 만든 것입니다. 그 밖의 전시품으로는 구스노키가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후지로쿠 사콘 구니즈나의 각인 타치’, 그리고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기증하고 일본미술검보존회가 ‘중요한 검’으로 지정한 ‘구니토키의 각인 탄토’가 있습니다.

015-009

＜日本語仮訳＞

宝物殿/刀剣について

宝物殿所蔵の刀の多くは、この高名な武将 楠木正成（1294～1336 年）の神格化される御霊への奉納品として神社に寄進されたものです。その中には本殿の創建者である明治天皇（1852～1912 年）の命により作られた太刀や、最後の徳川将軍である徳川慶喜（1837～1913 年）が寄進した刀もあります。収蔵品にはまた、中世の刀もあり、その中には楠木が実際に佩用したと伝えられるものもあります。

日本文化における刀剣

日本の刀剣（日本刀）は、その卓越した技法と美しさだけでなく、また、深い精神的意義から世界的に有名です。神道の伝統において、刀は力、清らかさ、そして悪を退ける力を体現することから、よくみられる神聖な宝物、あるいは神への供物です。場合によっては、刀は神体、すなわち神が宿ると信じられる物と見な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史実に基づくと、武士たちは大勝利を祝うため、あるいは戦いの前に立てた誓いを果たすために、しばしば刀を神社に奉納しました。この慣習により、刀は武士の献身を示す具体的な証となりました。

日本刀の技法と種類

日本刀の歴史は 8 世紀に遡ります。日本刀は伝統的に、不純物を取り除き炭素を均等に分散させるために、繰り返し折り畳まれ、鍛接された玉鋼という炭素を豊富に含む鋼材から作られていました。鍛冶師たちはこの精錬された素材を層状に重ねて、刃先には硬く高炭素の鋼を、芯には柔らかく低炭素の鋼を用いることで、極めて鋭利かつ強靱な刀身を実現しました。

日本刀は武器として、また芸術作品としても高く評価されており、その形状、焼き入れ模様、彫刻、鞘、鐔柄などの装飾的な金具など、美的特徴を備えています。特に鐔は、鉄や銅、またはその他の素材を用いて施されたデザインを有する芸術的な装飾の対象となっています。

刀はその機能と形状によって分類されます。太刀は、10 世紀から 16 世紀にかけて広く用いられ、馬上で戦うために設計された長く湾曲した刀です。その後、室町時代（1336-1573）に開発された、より短い刀に取って代わられました。刀は歩兵戦用に設計され、騎馬戦よりも次第に一般的になっていきました。さらに短いのが脇差で、接近戦や切腹用に刀と共に携行されました。最も短い刃を持つものは短剣です。ごくわずかな刀が楠木の時代から現存しています。

所蔵される著名な刀

宝物殿には、歴史的に重要な刀が数点展示されています。明治天皇の命により作られ神社に下賜され、金属加工の技で知られる鍛冶の名匠 栗原信秀（1815～1881 年）によって鍛造された太刀「銘 信秀」が展示されています。その他の展示品には、楠木が佩用したとされる太刀「銘 藤六左近国綱」や、徳川慶喜から寄贈され日本美術刀剣保存協会により重要刀剣に指定された短刀「銘 国時」などがあります。

【タイトル】 栗原信秀「太刀 銘 信秀」/宝物品

【想定媒体】 Web

<韓国語>

노부히데가 새긴 타치

1870 년 제작된 '노부히데가 새긴 타치'는 '타치' 양식의 일본도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칼날 길이는 66.8cm 이며, 1.62cm 의 완만한 곡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치는 10 세기부터 16 세기까지 무사들이 주로 차던 검으로, 긴 칼날과 더불어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해 보통 허리에 끈으로 매어 착용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타치는 메이지 천황(1852~1912)의 명으로 제작되어 미나토가와 신사에 창건 봉납품으로 바쳐진 것으로, 천황을 위해 수많은 검을 제작한 도검 명장 구리하라 노부히데(1815~1881)의 작품입니다. 노부히데의 뛰어난 기술력은 단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금속공예에도 조예가 깊어 다양한 신사에 기념 거울을 제작, 봉납한 장인으로도 유명합니다.

<日本語仮訳>

栗原信秀「太刀 銘 信秀」/宝物品

1870 年に鍛造された太刀「銘 信秀」は太刀の型を取る日本刀の優れた見本です。刃の長さは 66.8 センチメートル、そして 1.62 センチメートルのわずかな湾曲が特徴です。太刀は 10 世紀から 16 世紀にかけて武士が携行した主流の刀で、その長さ、しばしば紐で腰から吊るして、刃を下にして着用するという点で際立っていました。

この特別な太刀は明治天皇（1852～1912 年）の命により鍛造され、創建者の献納として湊川神社に寄進されました。制作者は栗原信秀（1815～1881 年）で、天皇のために数多くの刀を鍛えた名匠です。信秀の技量は鍛冶の域を超えていました。彼は金属加工の専門家としても知られ、な神社に記念の鏡を制作し、献納しました。

【タイトル】 段威腹巻/宝物品・重要文化財

【想定媒体】 Web

<韓国語>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착용했던 복권 흉갑

이 복권 흉갑(단오도시 하라마키)은 명장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가 착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갑옷입니다. 다쓰노번(오늘날 효고현)을 다스렸던 와키사카 가문의 가보로 3세기 동안 보관되어 오다 1891년 미나토가와 신사에 기증되었으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몸통에 두르고 등 뒤에서 끈으로 여미는 형태의 이 갑옷은 옷칠하여 굳힌 수많은 작은 미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미늘 조각들을 가로로 길게 엮어 만드는데, 이 기법을 ‘단위(단오도시)’라고 부릅니다. 보행 시 기동성과 속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활동하기가 편했으며,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구조는 기마전에서 보병전 위주로 전투 양상이 변화하면서 실용성을 중시했던 14세기의 풍조를 잘 보여줍니다.

<日本語仮訳>

段威腹巻/宝物品・重要文化財

この紐で締める胴鎧（段威腹巻）は、高名な武将 楠木正成（1294～1336年）が着用したものとされています。龍野藩（現在の兵庫県）藩主の脇坂家が家宝として3世紀にわたり保存した後、1891年に湊川神社に寄進されました。この鎧は国宝に指定されています。

胴体に巻き付けて背中で紐で締めるこの鎧は、漆を塗り硬化させた無数の小さな鱗札で構成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鱗札は水平方向に幾重にも重ねてつながり合われています；段威という名前で知られる技法です。徒歩での機動性と速度を重視した設計となっているこの鎧は、より自由に動くことを可能にしました。軽量でありながら頑丈な構造は、戦が騎馬戦からもっと頻繁な歩兵戦へと移行していく中で、14世紀の戦場に実戦的な設計が反映されたものです。

【タイトル】 段威腹巻/宝物品・重要文化財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착용했던 복권 흉갑

이 복권 흉갑(단오도시 하라마키)은 명장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가 착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갑옷입니다. 다쓰노번(오늘날 효고현)을 다스렸던 와키사카 가문의 가보로 3세기 동안 보관되어 오다 1891년 미나토가와 신사에 기증되었으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사 갑옷의 진화

무사 갑옷은 전술의 변화를 반영하며 수 세기에 걸쳐 크게 진화했습니다. 헤이안 시대(794~1185)의 육중한 상자형 ‘오오요로이?’와 같은 초기형들은 주로 기마 궁술에 알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들어 보병전이 보편화되면서 더 가볍고 유연한 유형의 갑옷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복부를 방어하는 복권(하라마키)은 등 뒤를 끈으로 여미는 형태의 갑옷으로, 옷칠하여 굳힌 수많은 작은 미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미늘 조각들을 가로로 길게 엮어 만드는데, 이 기법을 ‘단위(단오도시)’라고 부릅니다. 기능적인 동시에 장식적이었으며, 서로 다른 색을 번갈아 넣은 계층형 연출이 많았습니다. 작은 미늘을 층층이 엮은 ‘하라마키?’는 예의 크고 단단한 판형 갑옷과 달리 무사의 몸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둘러서 착용하는 형태라 ‘오오요로이?’보다 팔과 허리 부분을 덜 조였으므로, 몸을 비틀거나 굽히고 달리는 등 보병전에 꼭 필요한 동작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모든 계급의 사무라이가 착용한 이 갑옷의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구조를 보면 당시 보병전의 빈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후반, 화기의 등장으로 갑옷의 개념은 다시 한번 변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하라마키와 찰갑은 총탄을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강철판을 사용한 ‘당세구죽(현대식 갑옷)’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단단한 ‘오오요로이?’에서 유연한 ‘하라마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금 기반의 당세구죽에 이르는 변천사는 일본의 갑옷들이 변화하는 전장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줍니다.

<日本語仮訳>

段威腹巻/宝物品・重要文化財

この紐で締める胴鎧（段威腹巻）は、高名な武将 楠木正成（1294～1336年）が着用したものとされています。龍野藩（現在の兵庫県）藩主の脇坂家が家宝として3世紀にわたり保存した後、1891年に湊川神社に寄進されました。この鎧は国宝に指定されています。

武具の進化

武具は、戦の変遷を反映して、数世紀にわたって大きな進化を遂げてきました。平安時代（794～1185年）の重厚な箱型大鎧などの初期の武具は、主に騎射向けに設計されていました。しかし、14世紀に歩兵戦が主流となるにつれて、軽量でより柔軟な種類の武具が登場したのです。

腹部を保護し、背中で紐で締める腹巻は、漆を塗り硬化させた無数の小さな鱗札で構成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鱗札は水平方向に幾重にも重ねてつなぎ合わされました。機能性と装飾性を兼ね備えた段威という名で知られる技法で、しばしば色を交互に配することで階段状の見た目を創り出していました。従来の鎧に見られる大型で硬質の板とは異なり、小さな鱗札が重なり合うことで、腹巻は武士の身体の動きに合わせて柔軟に曲がることを可能にしました。巻き付けるようなデザインは、大鎧と比べて腕や腰周りの動きを制限せず、徒歩での戦闘に必要な体を捻る動作、屈伸、走りを容易にしたのです。あらゆる階級の武士に着用された腹巻は、軽量でありながら頑丈な構造を特徴とし、当時の歩兵戦の増加を反映しています。

16世紀後半には火器の導入によりさらなる変化が求められました。古い腹巻や薄片鎧は、弾丸に対する抵抗性を高めるために固い鉄板を用いた当世具足（現代の鎧）に取って代わられました。硬い大鎧から柔軟な腹巻へ、そして最終的に板物を使用する当世具足への進化は、日本の鎧が戦の現実の変化にどう対応したかを示しています。

【タイトル】 法華經奥書/宝物品・重要文化財

【想定媒体】 Web

<韓国語>**구스노키 마사시게 친필 발문**

이 친필은 미나토가와 신사의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로,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가 필사한 법화경 사본의 발문입니다. 알기 쉽고 반듯한 필체인 해서체로 쓴 그의 필적이 현존하는 유일한 사본입니다.

구스노키는 고다이로 천황이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황실 친정을 복고한 후, 천황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1333년 이 법화경을 필사했습니다.

구스노키는 발문에서 반란을 잠재우고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되찾은 데 대해 신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황권의 성공적인 복고를 크나큰 신의 은총이자, 오랜 염원의 성취로 여겼습니다. 이렇듯 법화경 필사는 그가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정신적인 은혜를 갚는 행위였습니다. 이 기록물은 그의 군역이 세속적 충성심을 넘어, 천황의 대의는 정당하며 신의 가호를 받았다는 깊은 종교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해당 발문은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法華經奥書/宝物品・重要文化財**

これは湊川神社の最も貴重な宝物の1つです。楠木正成（1294～1336年）が写経した法華經の跋文です。明瞭で角ばった文字で知られる、漢字の正式な楷書体で書かれた彼の筆跡が現存する唯一の写本です。

楠木は、主君である後醍醐天皇が日本初の武家政権の打倒に成功し、天皇直轄の政治回復という勝利を手にした後、その忠誠の証として1333年にこの法華經を完成させました。

跋文で楠木は、反乱鎮圧、国の安定と平和を神々に感謝しています。彼は、天皇の権威が成功裏に回復したことを、長年抱いてきた願いの直接的な成就であり、また神からの計り知れない恩恵であると考えました。したがって、經典の写経は、彼の感謝の念を正式かつ具体的な形で表す行為であり、そしてこの精神的恩義に報いる行為となるものだったのです。この書は、彼の武将としての活動が世俗的な忠誠心だけでなく、天皇の大義こそが正義であり、また神聖なる御加護に浴しているという深い宗教的信念にも根ざしていたことを明確に示しています。

この跋文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法華經奥書/宝物品・重要文化財

【想定媒体】看板

<韓国語>
구스노키 마사시게 친필 발문

이 친필은 미나토가와 신사의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로,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가 필사한 법화경 사본의 발문입니다. 구스노키의 현존 필적 중 남아있는 유일한 해서체 정자로서, 해서체는 또렷하고 각진 글씨체가 특징입니다. 이 정교한 글씨체 자체는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강한 집중력과 깊은 신앙심을 보여 주며, 이러한 자질은 불교 교육을 통해 함양되어 평생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구스노키는 고다이로 천황이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을 무너뜨린 후, 천황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1333년 이 법화경을 필사했습니다. ‘겐무 신정?’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50년간의 무사 정권에 마침표를 찍고 잠시나마 황실 친정을 복고했습니다.

법화경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로, 천태종과 일련종을 비롯한 일본 불교 종파에서 근간을 이루는 경전입니다. 무사에게 있어 경전을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필사하는 행위는 전장에서 필요한 집중력과 맞닿아 있는 정신 수양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는 주군의 장수와 성공, 나아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며 공덕을 쌓기 위해 꼭 필요한 종교적 수행이었습니다.

구스노키는 발문에서 반란을 잠재우고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되찾은 데 대해 신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황권의 성공적인 복원을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품어 온 자신의 염원이 직접적으로 실현된 크나큰 신의 가호로 여겼습니다.

법화경 필사는 그가 예를 갖추어 실제로 감사를 올리고 영적으로 보답하는 뜻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이 기록물은 구스노키의 군사적·정치적 활동이 세속적 충성심을 넘어, 천황의 대의는 정당하며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깊은 종교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해당 발문은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法華經奥書/宝物品・重要文化財

これは湊川神社の最も貴重な宝物の1つです。楠木正成（1294～1336年）が写経した法華經の跋文です。明瞭で角ばった、そして非常に読みやすい文字が特徴の、漢字の正式な楷書体で書かれた楠木の筆跡が現存する唯一の写本です。その精密で美しい筆跡そのものが、楠木の強い集中力と深い信仰心の証であり、彼の仏教教育を通じて培われ、その生涯を通じて維持された資質を示しています。

楠木は、主君である後醍醐天皇が日本初の武家政権の打倒に成功した後、その忠誠の証として 1333

年にこの法華經を完成させました。建武の親政として知られるこの出来事は、150 年に及ぶ武家政権を終わらせ、天皇直轄の統治を一時的に回復させました。

この法華經は仏教において最も重要な經典の 1 つで、天台宗や日蓮宗を含む日本の仏教宗派の根本となる經典です。武士にとって、經典を写經するという緻密な行為は、戦で必要とされる集中力を映しだした精神修養でした。仕える主君の長寿と成功、そして国家の精神的安寧に捧げるべく宗教的功德を積むために必要な修行だったのです。

跋文で楠木は、反乱鎮圧、国の安定と平和を神々に深く感謝しています。彼は、天皇の権威が成功裏に回復したことを、単なる政治的な勝利だけではなく、長年抱いてきた願いが直接成就された、神からの計り知れない恩恵であるとみなしました。

經典の写經は、彼の感謝の念を正式かつ具体的な形で表す行為であり、そしてこの精神的恩義に報いる行為となるものだったのです。この書は、彼の武将かつ政治としての活動が世俗的な忠誠心だけでなく、天皇の大義こそが正義であり、また神に認められているという深い宗教的信念にも根ざしていたことを明確に示しています。

この跋文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宝物殿・段威腹巻・法華經奥書/宝物品・重要文化財

【想定媒体】 その他

<韓国語>

영웅을 기리다: 미나토가와 신사의 보물

미나토가와 신사 보물관에는 14 세기의 명장 구스노키 마사히게와 관련된 귀중한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널리 존경받는 무인인 그는 1336 년 미나토가와 전투에서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보였던 구스노키는 이상적인 무사도의 전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신사 보물관에는 도검과 갑옷이 전시되어 있으며, 구스노키의 삶을 조명하는 자료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소장품 중에는 구스노키가 생전 소유했던 유물 및 그의 업적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구스노키가 착용했던 갑옷

이 복권 흉갑(단오도시 하라마키)은 구스노키가 착용했다고 전해지는 갑옷입니다. 유력 다이묘 가문의 가보로 3 세기 동안 보관되어 오다 1891 년 미나토가와 신사에 기증되었으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갑옷은 몸통에 두르고 등 뒤에서 끈으로 여미는 형태로, 옷칠하여 굳힌 수많은 작은 미늘을 가로로 길게 엮어 만들었습니다. 보행 시 기동성과 속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종전 갑옷류보다 활동이 편했으며, 가볍고도 견고한 구조는 기마전에서 보병전으로 전투 양상이 변화하며 실용성을 중시했던 14 세기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구스노키의 필적

이 신사의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는 구스노키의 친필 필적으로, 그가 필사한 법화경 사본의 발문입니다.

구스노키는 고다이로 천황이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 천황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1333 년 이 법화경을 필사했습니다. ‘겐무 신정?’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50 년간의 무사 정권에 마침표를 찍고 잠시나마 황실 친정을 복고했습니다.

구스노키는 반란을 잠재우고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기원했던 그의 기도를 들어준 신들에게 발문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황권의 복고를 정치적 승리이자 지대한 신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법화경 필사는 그가 예를 갖추어 감사를 올리고 영적으로 보답하는 뜻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이 글은 구스노키의 군역이 ‘천황의 대의는 정당하며 신의 뜻을

따른다?’는 깊은 신념에 뿌리를 두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구스노키의 업적에서 영감을 받은 유물

보물관에는 구스노키의 업적을 기리는 예술 작품들도 전시되어, 지금도 변함없는 그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전시품 중에는 장검 ‘타치?’, 그리고 일본의 저명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 두 점도 있습니다.

외날 도검인 타치는 1872년 미나토가와 신사 창건을 기념해 메이지 천황의 명으로 제작 후 신사에 봉납된 것으로, 천황을 위해 수많은 검을 제작한 도검 명장 구리하라 노부히데의 작품입니다.

구스노키를 기리는 유명한 초상화 두 점. 요코야마 다이칸은 구스노키 서거 600주년을 맞은 1935년 이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미나토가와 전투를 앞두고 정갈한 의복 차림으로 차분히 앉아 있는 무인 구스노키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1945년 마에다 세이손이 완성한 두 번째 초상화는 갑옷을 모두 갖추 입고 말에 올라 출정하는 구스노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은 구스노키의 군사적 기량을 잘 보여주며, 1889년 만들어져 도쿄 고쿄 앞에 세워진 구스노키 기마 동상의 위용을 그대로 옮긴 모습입니다. 본래 일본 해군병학교의 의뢰로 그려진 이 초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미나토가와 신사에 기증되었습니다.

015-015

<日本語仮訳>

宝物殿・段威腹巻・法華經奥書/宝物品・重要文化財

湊川神社の宝物殿は、14世紀の著名な武将 楠木正成に関連する貴重な遺物を収蔵している場所です。この崇敬される武将は、1336年の湊川の戦いで天皇のためにその命を捧げました。彼の揺るぎない忠誠と自己犠牲の心により、楠木は理想的な武士道の模範として称えられています。神社の宝物殿には、刀や鎧などの武具に加え、楠木の生涯に関する展示もあります。収蔵品には、楠木個人が所有していた品々や、彼の功績に因んで制作された作品もあります。

楠木が着用した鎧

この紐で締める胴鎧は、楠木が着用したとされています。有力な大名家の家宝として3世紀にわたり保存された後、1891年に湊川神社に寄進されました。この鎧は国宝に指定されています。

この鎧は胴体に巻き付けられ、背中で紐で締め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漆を塗り硬化させた無数の小さな鱗札を、水平方向に幾重にも重ねてつなぎ合わせて作られています。地上での機動性と速度を重視した設計となっているこの鎧は、従来の型よりも自由に動くことを可能にしました。軽量でありながら頑丈な構造は、戦が騎馬戦から歩兵戦へと移行していく中で、14世紀の戦場に実戦的な設計が反映されたもので

す。

楠木の直筆

この神社が所蔵する最も貴重な遺物の 1 つが、この直筆の書簡です。楠木により書かれた法華經写經の跋文です。

楠木は、主君である後醍醐天皇が日本初の武家政権の打倒に成功した後、その忠誠の証として 1333 年にこの法華經を完成させました。建武の親政として知られるこの出来事は、150 年に及ぶ武家政権を終わらせ、天皇直轄の統治を一時的に回復させました。

跋文で楠木は、反乱鎮圧、国の安定と平和を願う彼の祈りの成就に対して神々に感謝しています。彼は、天皇の権威の回復を、政治的な勝利だけではなく、神からの計り知れない恩恵であるとみなしました。經典の写經は、彼の感謝の念を正式な形で表す行為であり、そしてこの精神的恩義に報いる行為となるものだったのです。この書は、彼の武将としての活動が、天皇の大義こそが正義であり、また神に認められているという深い宗教的信念に根ざしていたことを明確に示しています。

楠木の功績に因んで制作された遺物

宝物殿はこの武将の功績に捧げられた芸術的作品も展示しており、彼の永続的な魅力を明らかにしています。これらの品々には太刀と、著名な日本画家による 2 点の肖像画があります

この片刃の太刀は明治天皇の命で制作され、1872 年に湊川神社の創建を記念して寄進されました。制作者は栗原信秀で、天皇のために数多くの刀を鍛えた名匠です。

2 点の肖像画は楠木を記念する作品です。横山大観は 1935 年に楠木の没後 600 年を記念してこの肖像画を制作しました。この作品には、湊川の戦いを前に、精巧な衣装をまとった武将が静かに座る姿が描かれています。

2 つ目の肖像画は、前田青邨が 1945 年に制作したもので、全身を鎧に包まれた楠木が自身の馬に跨り出陣する姿を描いています。この肖像画はこの武将の軍人らしい勇敢さを伝えており、東京の皇居前に立つ 1889 年制作の有名な楠木の銅像を彷彿とさせます。元々は日本海軍兵学校からの依頼で制作されましたが、肖像画は第二次世界大戦終結時に湊川神社に寄贈されました。

【タイトル】 横山大観筆「大楠公像」/宝物品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코야마 다이칸의 구스노키 마사시게 초상화

이 초상화는 요코야마 다이칸(1868~1958)이 1935년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 서거 600주년을 기념해 완성한 작품입니다. 미나토가와 전투를 앞두고 정갈한 의복과 갑옷 차림으로 차분히 앉아 있는 무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요코야마는 자신의 아들에게 갑옷을 입혀 명장을 위한 초상화의 모델로 삼았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초상화 속 구스노키는 주군 고다이코 천황을 수호하기 위해 전장으로 떠나기 전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든 부채는 충성과 군사를 지휘하는 그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특히 위쪽의 소나무 가지 사이에 구스노키 가문의 문장인 ‘기쿠스이(수면에 떠 있는 천황가의 국화)’가 눈에 띄는데, 이 문장은 고다이코 천황이 그의 용맹과 충심을 높이 사는 뜻으로 직접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요코야마 다이칸은 일본 근대미술사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일본의 고전적인 기법에 서구의 영향을 접목시켜 일본화(니혼가) 양식을 새롭게 부흥시킨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미술학교를 졸업한 요코야마는 일본 미학의 틀 안에서 그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장려한 미술평론가 오카쿠라 가쿠조(1863~1913)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코야마의 작품은 20세기 초 일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미술원을 공동 설립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수많은 영예를 안았습니다.

<日本語仮訳>

横山大観筆「大楠公像」/宝物品

この肖像画は、横山大観（1868～1958年）が、楠木正成（1294～1336年）の没後600年を記念して1935年に完成させたものです。湊川の戦いを前に、上質な衣と鎧を身にまとい、鎮座する尊き武将を描いています。横山は、鎧を身にまとった自身の息子をその武将のモデルにしたことで知られています。

肖像画で楠木は、自身の主君である後醍醐天皇を守るため、戦いに臨もうと備える静かな表情を湛えています。彼が右手に扇を握りしめる姿は、忠臣たちの軍勢に対する彼の権威を象徴しています。特筆すべきは、楠木の家紋である菊水紋（皇室の菊が水面に浮かぶ様子をあしらったもの）が上部の松の枝の間から確認できることです。この家紋は後醍醐天皇が楠木の勇敢さと忠誠心を称え、彼に自ら授けたものと伝えられています。

横山大観は日本の近代美術において重要な人物で、日本の古典的な技法と西洋の影響を融合させることで日本画の様式を再活性化させたことで非常によく知られています。東京美術学校で学んだ後、彼は美術評論家の岡倉天心（1863～1913 年）に深い影響を受けました。岡倉は、日本の美学の枠組みの中での彼の革新的なアプローチを奨励したのです。横山の作品は 20 世紀初頭に日本画を国際的な認知を得る上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彼は日本美術院の共同設立者であり、その功績により数々の栄誉を受けました。

【タイトル】 前田青邨筆「大楠公」/宝物品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마에다 세이손의 구스노키 마사시게 초상화

존경받는 무장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의 모습을 담은 이 초상화는 마에다 세이손(1885~1977)의 1945년 작품입니다. 갑옷을 갖춰 입고 검과 활, 화살을 손에 든 채 말을 타고 출정하는 구스노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강렬한 이미지는 구스노키의 군사적 기량을 잘 보여주며, 특히 1889년 도쿄 고쿄의 니주바시 인근에 세워진 구스노키 기마 동상과 같은 다른 영웅적 묘사와도 상통합니다.

일본 전통의 회화 양식, 일본화의 대가인 마에다는 정교한 붓놀림과 섬세한 색감, 우아한 구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역사적 사건이나 고전문학, 고요한 풍경 속의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도쿄 미술학교를 졸업한 마에다는 20세기 일본 미술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자리 잡았고, 급격한 근대화 시기의 문화 보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 초상화는 본래 일본 해군병학교의 의뢰를 받아 그린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미나토가와 신사에 기증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前田青邨筆「大楠公」/宝物品

崇敬される武將、楠木正成（1294～1336年）を描いたこの肖像画は、前田青邨（1885～1977年）により1945年に制作されました。鎧を全身にまとい、刀と弓矢を手にした楠木が馬に乗り、出陣する様子が力強く描かれています。この力強い肖像画はこの武將の軍人らしい勇敢さを表現し、東京の皇居の二重橋近くにある1889年制作の著名な楠木の銅像など、その他の立派な英雄の姿を彷彿とさせます。日本画という伝統的な絵画様式の巨匠である前田は、彼の緻密な筆致、繊細な色彩、優雅な構図で高く評価されました。彼の作品は歴史的出来事や、古典文学の場面、静謐な風景をよく題材としています。東京美術学校で学んだ後、前田は20世紀の日本美術における影響力ある人物となり、急速な近代化の時代において文化の保存に大きく貢献しました。

肖像画は元々は日本海軍兵学校からの依頼で制作されましたが第二次世界大戦終結時に湊川神社に寄贈されました。

【タイトル】宝物殿/大楠公御一代記

【想定媒体】看板

<韓国語>**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생애 주요 장면들**

이 전시는 충성과 용맹의 전형으로 존경받는 명장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의 삶 속 주요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구스노키는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에 맞서 고다이교 천황(1288~1339)을 옹위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천황은 황실 통치라는 오랜 전통을 복고하기 위해 막부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구스노키와 같은 충신들의 도움을 받아, 고다이교 천황은 1333년 막부를 무너뜨리고 이른바 겐무 신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황실의 권위가 다시 강해지자, 당시 맹위를 떨치던 아시카가 다카우지(1305~1358) 장군을 필두로 무사 계급 안에서 곧 저항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등은 다카우지의 지휘 아래 1336년 공개적인 반란으로 번졌으며, 같은 해 미나토가와 전투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중요한 전투에서 구스노키는 수적 열세였음에도 다카우지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용맹히 맞서 싸웠고, 그 덕분에 핵심 요인들은 무사 퇴각해 황실의 대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웅적인 분투를 벌였음에도, 구스노키의 군대는 결국 다카우지의 병력에 포위되어 섬멸당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히는 불명예를 피하고자 구스노키와 그의 형제, 그리고 가신들은 자결 의례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최후의 희생과 주군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심으로, 구스노키는 무사도 정신의 궁극적인 본보기로서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시된 13점의 디오라마는 14세기에 쓰인 연대기 「태평기」에서 발췌한 것으로, 구스노키의 생애 속 장면들을 상상해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기

오늘날 오사카현에 있는 간신지 사원의 류가쿠보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어린 구스노키.

구스노키는 어린 시절부터 불교 교육을 받았으며 평생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2. 고다이교 천황의 부름

그림의 전경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구스노키. 오늘날 교토에 있는 가사기 사원에서 고다이교 천황을 알현하는 모습.

천황은 가마쿠라 막부에 맞서 충성과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 비밀리에 교토를 벗어났습니다. 구스노키는 원조를 청하는 천황의 칙령에 응답한 몇 안 되는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구스노키는 충성을 다해 천황과 국가를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3. 시모아카사카성 전투

오늘날 오사카현에 있는 자신의 작은 산성에서 막부의 대군세에 맞설 준비를 하는 구스노키.

적에게 바위를 떨어뜨리고 끓는 물을 붓는 등 기략이 넘치고 치밀하게 계획한 방어 전술을 펼쳤음에도, 구스노키의 소규모 병력으로 영원히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약 3주간 지속된 공성전 끝에 구스노키는 대담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남은 병력에게 집단 자살을 가장하고 성에 불을 지르도록 명한 다음, 혼란을 틈타 역시 오늘날의 오사카에 있는 더 견고한 지하야성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4. 지하야성 전투

10 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부의 대군에 맞서 지하야성을 방어하는 구스노키의 병력.

고작 1,000 명 가량의 병사를 수하에 둔 구스노키는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위장 공격, 함정 설치, 허수아비 군대 만들기 등의 게릴라 전술로 몇 달이나 적을 골탕 먹이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하야성 공성전은 막부 주력군의 대부분을 그곳에 묶어 자원을 고갈시키고 정권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실패가 널리 알려지자, 아시카가 가문 등 중요하던 다른 여러 유력 무사 가문이 마침내 미나모토 가문이 이끄는 막부를 버리고 황실의 대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무사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7.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배신

천황의 고문들에게 무장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격파할 방안을 제시하는 구스노키.

다카우지는 본래 막부에 맞서 황실의 편에 섰지만, 이후 반기를 들고 스스로 쇼군이 되어 새로운 막부를 세우려 했습니다. 다카우지의 병력이 수도로 다가오자, 구스노키는 다카우지와 정면으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교토를 비워 다카우지가 들어오게 한 후 고립된 아시카가의 병력을 전략적으로 포위해 봉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천황의 고문들은 이 계획이 비겁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당장 수도를 즉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사쿠라이의 결별

어린 아들이자 후계자인 마사쓰라(1326~1348)에게 작별을 고하는 구스노키.

마사쓰라는 다카우지와의 일전에 아버지를 따라 참전하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가슴 아픈 장면은 구스노키의 고향 가와치에서 제국의 수도 교토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사쿠라이 역참에서 펼쳐집니다.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임을 알고 있던 구스노키는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남아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고 황실의 대의를 잇는 데 일생을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9. 미나토가와 전투

1336 년 5 월 25 일 미나토가와 전투에서 구스노키와 그의 군대가 공세를 취하자 전장에는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고, 다카우지는 달아납니다.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음에도,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다카우지의 병사들과 용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자 구스노키의 병력은

기병 몇 명만 남게 되었고, 결국 패배가 자명해졌습니다.

10. 구스노키 가문의 순교자들

동생 마사스에가 자결 의례를 행하기 전 최후의 순간을 함께하는 구스노키.

포로로 붙잡히는 불명예를 피하고자 구스노키와 그의 형제, 그리고 살아남은 가신들은 북쪽으로 향했고, 오늘날의 미나토가와 신사 터에서 최후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칼을 뽑아 든 마사스에는 다시 태어나 황실의 적과 계속 맞서 싸우겠다고 맹세하며 “나라를 위해 일곱 번이라도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구스노키도 이에 동의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칼을 뽑았습니다.

015-018

<日本語仮訳>

宝物殿/大楠公御一代記

この展示は、高名な武将、楠木正成（1294～1336 年）の生涯の重要な場面を紹介しています。彼は忠誠心と勇敢さの象徴として崇められている人物です。

楠木は当初、鎌倉幕府という日本初の武家政権に対する後醍醐天皇（1288～1339 年）の闘争を支援することで名を上げました。天皇は、長きにわたる天皇統治の伝統を復活させるため、幕府を打ち倒そうとしました。そばで仕える楠木などの忠臣たちに支えられ、後醍醐天皇は 1333 年に幕府を倒すことに成功し、建武の親政として知られる時代を迎えました。

しかし、朝廷の権威回復はすぐに、有力な武将、足利尊氏（1305～1358 年）率いる武士階級内部からの抵抗に直面したのです。1336 年までに、この対立は尊氏の指揮下で公然たる反乱へと発展し、最後はその同じ年に湊川の戦いとなりました。この重要な戦いにおいて、楠木は多勢に無勢でありながら、尊氏の進撃を遅らせるべく勇敢に戦い、要人の安全な撤退と天皇が掲げる大義の存続を確かなものにしました。

しかし、その英雄的な奮闘にもかかわらず、楠木の軍勢はついに尊氏の軍に包囲され、壊滅してしまいました。捕らえられるという不名誉に直面するよりも、楠木、その弟、そして家臣たちは切腹を行ったのです。この最期の犠牲と彼の主君への揺るぎない忠誠により、楠木は武士道の究極の模範として永遠に記憶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ここに展示されている 13 のジオラマは、14 世紀の年代記『太平記』を基に、楠木の生涯における美化された出来事を描写しています。いくつかの主な場面は以下の通りです：

1. 少年時代

若き楠木は、現在の大阪府に位置する観心寺にて、僧 龍覚坊のもとで学びました。

楠木は幼い頃から仏教の教えを受けて、生涯を通して敬虔な仏教徒であり続けました。

2. 後醍醐天皇による召還

この絵の最前面でひざまずいている楠木は、現在の京都にある笠置寺で後醍醐天皇に侍っています。

天皇は鎌倉幕府に対抗する忠臣の軍を募るため、密かに京都を離れていたのです。楠木は天皇による支

援の命に応じた数少ない武将の 1 人でした。この場面で、楠木は天皇と国家に尽くすことを誓っています。

3. 下赤坂城の戦い

楠木は、現在の大阪府にあたる山間の小さな拠点で、幕府の大軍を迎え撃つ準備を整えています。岩石を落したり、煮えたぎる湯を敵兵にかけたりする戦術など、自身が周到に計画して機知に富んだ防御策を講じましたが、少数の兵力ではいつまでも持ちこた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およそ 3 週間に及ぶ包囲攻撃の後、楠木は大胆な脱出を計画しました。自身の残存兵に集団自殺を装わせて城を焼き払わせ、その混乱に乗じてより堅固な千早城（同じく現在の大阪府内）へ脱出することに成功したのです。

4. 千早城の戦い

楠木の軍は、10 万人以上と推定される幕府の大軍に対抗し、千早城を守り抜きます。わずか 1,000 名ほどの兵を指揮して、楠木は険しい地形を利用し、偽装攻撃や仕掛け罠、偽装軍の展開といった遊撃戦術を駆使して、数か月にわたり攻撃者らを翻弄し、足止めしました。千早の包囲攻撃は幕府主力軍の大半を拘束し、彼らの資源を消耗させ、政権の脆弱性を露呈させました。この失敗は広く知れ渡るようになり、特に足利氏をはじめとする有力で揺れ動く武家氏に対し、ついに源氏主導の幕府を見捨てて皇室側に加わる決断を促し、結果として武家政権の崩壊へとつながったのです。

7. 足利尊氏の裏切り

楠木は天皇の側近たちに計画を持ち掛け、戦国大名 足利尊氏を打ち破るにはどうすればいいか助言を提供します。

尊氏は当初、幕府に対抗する皇室側を支持していましたが、後に反旗を翻し、自らを首班とする新たな幕府の樹立を目論みました。尊氏の軍が都に迫る中、楠木は正面から戦わないように注意しました。その代わりに、彼は京都から退去して、尊氏を都に入らせた後、孤立した足利軍を戦略的に包囲・封鎖すべきだと主張しました。しかし、天皇の側近たちはこの計画を臆病かつ政治的に不適切だと退け、直ちに都を直接防衛することを主張したのです。

8. 桜井の別れ

楠木は自身の幼い息子で後継者の正行（1326～1348 年）に別れを告げます。政匡は父と共に尊氏との戦いに赴きたいと懇願しました。この切ない別れの場面は、楠木の故郷から都の京都へと続く街道沿いの宿場町、桜井で起きました。

死に向かって進んでいることを覚悟した楠木は、息子に帰郷して生き延び、父の仇討ちと皇室の存続にその生涯を捧げるよう命じました。

9. 湊川の戦い

1336 年 5 月 25 日の湊川の戦いにおいて、楠木とその兵らが攻勢に出ると、矢の雨が戦の場に降り注ぎ、尊氏を退却させます。

数では大きく劣勢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彼らは勇敢に戦い、早朝から午後の刻の遅くまで、尊氏の軍と交戦しました。しかし、戦いが終盤に差し掛かる頃には、楠木の軍は少数の騎馬隊にまで減少し、敗北は

避けられない状況となっていました。

10. 楠木家の殉死

楠木とその弟の正季は、切腹の前に最後の時を共に過ごしました。

捕らえられるという不名誉を前にし、楠木とその弟、そして生き残った家臣たちは北へと逃れ、現在の湊川神社の地にたどり着きました。そこで彼らは最後の決行の場を見つけたのです。刀を抜く際、正季は「7度生まれ変わって、自国のために捧げられんことを」と有名な格言を残し、朝廷の敵との戦いを続けるため、生まれ変わることを誓いました。楠木はこれにうなずくと、最期のために刀を抜きました。

【タイトル】 神能殿/世界遺産「能楽」の祖の祖

【想定媒体】 Web

<韓国語>

신노덴 노 극장

미나토가와 신사의 노 공연은 무장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와 노 배우이자 극작가인 간아미 기요쓰구(1333~1384), 그리고 그의 아들 제아미 모토키요(1363~1443)의 가족 간 유대를 기리는 무대극입니다. 간아미는 구스노키의 조카였고, 제아미는 종손자였습니다.

간아미와 제아미 부자는 ‘사루가쿠?’라는 민속 공연 예술을 고도로 세련된 무용극인 노로 탈바꿈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존경을 받았으며, 종종 초청받아 극단과 함께 천황 앞에서 공연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창설한 유파인 간제류는 노 5 대 유파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큼니다. ‘간제?’라는 이름은 간아미와 제아미 부자의 이름에서 각각 앞글자를 따왔습니다.

1972년 노송나무로 지어진 이 극장은 전형적인 노 무대 배치를 갖추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주무대가, 왼쪽에는 다리가 있으며 무대 뒤쪽 판벽에는 푸른 소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 관람석을 포함해 총 489석이 주무대를 중심으로 L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대는 구스노키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 본전을 마주 보고 있으며, 그를 기리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간사이 지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 극장으로, 노는 물론 다양한 기타 예술 공연을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립니다.

<日本語仮訳>

神能殿/世界遺産「能楽」の祖の祖

湊川神社の能楽堂は、武将楠木正成（1294–1336）と能楽師兼作家の観阿弥清次（1333–1384）とその息子世阿弥元清（1363–1443）の血縁関係を記念しています。観阿弥は楠木の甥、世阿弥は楠木の大甥にあたります。

観阿弥と世阿弥は猿楽として知られる大衆演劇を、能と呼ばれる高度に洗練された舞踊劇に変貌させました。この父子は非常に尊敬され、しばしば一座とともに天皇のために公演するよう招かれました。彼らが創設した流派である観世は、能の伝統的五流派の中で最古かつ最大のものです。その名称は、彼らの名前の最初の部分を組み合わせたものです。

1972年に檜で建てられたこの劇場は、典型的な能舞台の配置になっています。本舞台が右側、橋掛かりが左側にあり、舞台奥の羽目板には緑の松の絵が描かれています。特別な桟敷席を含む 489 席が、本

舞台を囲んで L 字型に配置されています。舞台は楠木が神として祀られている神社の本殿に面しており、彼に敬意を表して公演が行われています。これは関西地方で最大の能楽堂です。この劇場では能楽をはじめとする様々な芸術的な催しが定期的に上演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神能殿/世界遺産「能楽」の祖の祖

【想定媒体】 その他

＜韓国語＞

미나토가와 신사의 신노텐 노 극장과 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공연 예술 중 하나인 노 극의 역사는 14 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는 연극, 음악, 무용이 고도로 양식화된 형태로 어우러진 공연입니다. 느린 흐름과 정교하게 연출한 움직임, 독특한 창과 악기 반주가 어우러져 깊은 감정과 충충이 쌓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노는 흔히 고전 문학, 역사, 초자연적인 일화에서 영감을 얻어 의무와 그리움, 삶의 덧없음과 같은 심오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노는 신도 전통과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노 공연은 축제 중 신에게 바치는 제물 삼아 신사 경내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연극 예술과 종교의식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공연의 내용 자체도 신령을 공경하고 조상을 기리며, 인간 세상과 영적 세상의 조화를 유지하려는 신도의 주제와 맥을 같이합니다.

미나토가와 신사의 신노텐

미나토가와 신사의 노 공연은 14 세기 무장 구스노키 마사시게와 노 배우이자 극작가인 간아미 기요쓰구, 그리고 그의 아들 제아미 모토키요의 가족 간 유대를 기리는 무대극입니다. 간아미는 구스노키의 조카였고, 제아미는 종손자였습니다.

간아미와 제아미 부자는 ‘사루가쿠?’라는 민속 공연 예술을 고도로 세련된 무용극인 노로 탈바꿈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존경을 받았으며, 종종 초청받아 극단과 함께 천황 앞에서 공연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창설한 유파인 간제류는 노의 다섯 전통 유파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큼니다. ‘간제?’라는 이름은 간아미와 제아미 부자의 이름에서 각각 앞 글자를 따왔습니다.

1972 년 노송나무로 지어진 이 극장은 전형적인 노 무대 배치를 갖추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주무대가, 왼쪽에는 다리가 있으며 무대 뒤쪽 판벽에는 푸른 소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 관람석을 포함하여 총 489 석이 주무대를 중심으로 L 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대는 구스노키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 본전을 마주 보고 있으며, 그를 기리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간사이 지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 극장으로, 노는 물론 다양한 기타 예술 공연을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립니다.

＜日本語仮訳＞

神能殿/世界遺産「能楽」の祖の祖

能楽は、日本最古の舞台芸術の 1 つで、その起源は 14 世紀にまでさかのぼります。演劇、音楽、舞踊を高度に様式化された型で融合するものです。そのゆったりとした展開、入念に構成された動き、独特の歌声と楽器の表現が、深い感情と重層的な意味を伝えます。能は古典文学、歴史、そして怪談を題材とし、義務、憧憬、人生の儚さといった深遠なテーマを探究することが多いのが特徴です。

能は古くからずっと、神道の伝統と深く結びついてきました。歴史的には、演技は神社の境内で行われることが多く、祭事における神々への奉納として上演されてきました。これが、演劇芸術と宗教的儀式を融合したのです。物語そのものも、精霊などを敬い、祖先を称え、人間界と霊界の調和を保つという神道のテーマに沿うものです。

湊川神社の神能殿

湊川神社で行われる能楽は、14 世紀の武将、楠木正成と、能楽師兼作家の観阿弥 清次とその息子である世阿弥 元清との家門の絆を祝うものです。観阿弥は楠木の甥、世阿弥は二世代違いの甥にあたります。

観阿弥と世阿弥は、猿楽という名で知られる民間芸能を、能と呼ばれる高度に洗練された舞踊劇へと発展させました。この父子は非常に尊敬され、その劇団を率いて天皇のために演じるようたびたび招かれました。彼らが創設した流派の観世流は、5 つある伝統的な能の流派の中で最も古く、最大の流派です。流派の名は、2 人の名前の最初の部分を組み合わせた名称です。

1972 年にヒノキ材で建てられたこの舞台は、いかにも能舞台らしい配置になっています。主舞台は右側に、橋掛りは左側にあり、舞台後方の鏡板には緑の松の木が描かれています。特別ボックス席を含め、489 席が主舞台を囲むように L 字型に配置されています。舞台は楠木が神として祀られている神社の本殿に面しており、彼に敬意を表して公演が行われています。関西地方で最大の能楽舞台です。この舞台では能楽やその他の舞台芸術が定期的に上演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楠本稲荷神社/ご利益

【想定媒体】 Web

<韓国語>

구스모토 이나리 신사

구스모토 이나리 신사는 1336 년에 벌어진 운명적인 미나토가와 전투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존재해 온 곳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여러 차례 위치가 바뀌었지만, 19 세기 후반 미나토가와 신사가 세워진 이래 줄곧 신사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구스모토 이나리 신사는 일본에서 가장 널리 숭배받는 신(카미) 중 하나인 이나리오카미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나리오카미는 음식, 풍성한 수확, 그리고 곡식(특히 근세 일본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쌀)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풍년과 사업 번창, 전반적인 행운을 기원합니다.

일본 전역의 다른 많은 이나리 신사와 마찬가지로, 구스모토 이나리 신사의 입구도 여우 석상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우는 이나리오카미의 신성한 전령이자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이나리 여우는 종종 쌀 창고의 열쇠나 덕을 내리는 마법 구슬, 벼 이삭, 경전 두루마리 등 상징적인 물건을 입에 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日本語仮訳>

楠本稲荷神社/ご利益

楠本稲荷神社は古くから存在し、1336 年の運命的な湊川の戦いよりもさらに古い歴史があります。その所在地は数世紀の間に移り変わりましたが、湊川神社が 19 世紀後半に創建されて以来、その一翼を担ってきました。

楠本稲荷は、日本で最も広く崇敬される神様の 1 柱である稲荷大神を祀っています。稲荷大神は五穀豊穰、特に稲作の神様で、稲は近世日本社会の経済的基盤を形成しました。したがって、参拝者は豊作、商売繁盛、そして全般的な幸運をここで祈願します。

全国の稲荷神社でよく見られるように、石造りの狐の像が楠本稲荷の入口を護っています。狐は神様の神聖な使いであり守護者と考えられています。稲荷狐はよく、米倉の鍵や徳を授ける魔法の宝珠、稲束、經典の巻物といった象徴的な物を口にくわえている姿が描か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菊水天満神社/ご利益

【想定媒体】 Web

<韓国語>**기쿠스이 텐만구 신사**

1876년 세워진 기쿠스이 텐만구 신사는 미나토가와 신사의 일부입니다. 이곳에서는 뛰어난 학자이자 우다 천황(재위 887~897)의 신뢰받는 고문이었던 스가와라 미치자네(845~903)를 모십니다. 미치자네는 인품이 고결하고 일본 문화와 정치에 막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존경받았습니다. 귀족으로서의 특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며 교육과 사회 분야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치자네의 막강한 영향력은 당시 권세를 떨치던 후지와라 가문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미치자네가 직위와 권력을 남용했다고 모함하며 허위 고발했고, 미치자네는 그 벌로 황실과 멀리 떨어진 규슈의 다자이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재산과 후원을 모두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과 거처, 그리고 옷가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치자네는 품위를 잃지 않고 난관을 견뎌냈으며, 좌절하지 않고 90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황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미치자네는 사후 10 세기에 이르러 텐진으로 신격화되었고, 오늘날은 학문과 문화, 예술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기쿠스이 텐만구 신사는 학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학생과 평생교육 학습자들이 텐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찾는 수많은 텐만구 신사 중 한 곳입니다.

<日本語仮訳>**菊水天満神社/ご利益**

菊水天満神社は1876年に創建され、湊川神社の一部を構成する神社です。菊水天満神社は菅原道真(845~903年)を祀っています。卓越した学者であり、宇多天皇(在位887~897年)の信頼する側近であった道真は、彼の高潔な人柄と日本文化・政治への多大な貢献により崇敬されました。彼は教育と社会改革を推進し、貴族の特権よりも優秀な実力をもっていることを重視しました。

しかし道真の大きな影響力は、権勢を振るう藤原氏を脅かしました。その藤原氏が道真に職権乱用という無実の罪をかぶせる政略を企てました。罰として彼は、朝廷から遠く離れた地である九州の太宰府へと追放されました。その地での彼の生活は過酷を極めました。富と支援は剥奪され、かろうじて足りる程度の食料と、最低限の住居や衣服があるばかりでした。こうした困難にもかかわらず、道真はその苦難を立派に耐

え抜き、絶望に陥ることなく、903年に亡くなるまで天皇への忠誠を貫きました。

彼の死後、道真は10世紀に天神として神格化され、現在では学問・文化・芸術の神様として崇められています。菊水天満神社は、学生や生涯学習者が学業成就を願って天神様の御加護を求める数ある天満宮の1社です。

【タイトル】 楠本稻荷神社・菊水天満神社/ご利益

【想定媒体】 その他

<韓国語>

수확, 학문, 그리고 충심: 미나토가와와 부속 신사들

고베의 미나토가와 신사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존경받는 무사 중 한 명인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모시는 곳입니다. 이 신사는 명장 구스노키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일전, 미나토가와 전투가 벌어진 곳에 세워졌습니다. 본전 외에도, 신사 경내에는 작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신사인 구스모토 이나리, 기쿠스이 텐만구 두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스모토 이나리 신사는 1336년 미나토가와 전투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존재해 온 곳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인근 지역에서 미나토가와 신사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이 신사는 일본에서 가장 널리 숭배받는 신(카미) 중 하나인 ‘이나리오카미?’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나리오카미는 음식, 풍성한 수확, 그리고 곡식(특히 근세 일본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쌀)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구스모토 이나리 신사의 입구도 일본 전역의 다른 많은 이나리 신사와 마찬가지로 여우 석상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우는 이나리오카미의 신성한 전령이자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기쿠스이 텐만구 신사는 19세기 학자인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기리기 위해 1876년 세워졌습니다. 천황의 신뢰받는 고문이었던 미치자네는 교육과 사회 분야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의 막강한 영향력은 다른 관료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급기야 모함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위와 권력을 남용했다는 허위 고발에 미치자네는 규슈의 다자이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혹독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90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황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망 후 미치자네는 ‘텐진?’으로 신격화되었고 이제는 학문과 문화, 예술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기쿠스이 텐만구 신사는 학업적 성공을 기원하는 학생과 평생교육 학습자들이 텐진의 축복을 빌고자 즐겨 찾는 곳입니다.

<日本語仮訳>

楠本稻荷神社・菊水天満神社/ご利益

神戸の湊川神社は、日本を代表し、崇敬される名将の1人、楠木正成を祀っています。この神社は、高

名な武将が天皇のために自身の命を捧げた、重要な湊川の戦いの地に建てられています。本殿に加え、境内には規模は小さいながらも歴史的に重要な 2 つの神社があります。楠本稲荷神社と菊水天満神社です。

楠本稲荷神社は古くから存在し、1336 年の湊川の戦いよりもさらに古い歴史があります。19 世紀後半に湊川神社の近くから移築されました。楠本稲荷は、日本で最も広く崇敬される神様の 1 柱である稲荷大神を祀っています。稲荷大神は五穀豊穡、特に稲作の神様で、稲は近世日本社会の経済的基盤を形成しました。全国の稲荷神社でよく見られるように、石造りの狐の像が楠本稲荷の入口を護っています。狐は稲荷大神の神聖な使いであり守護者と考えられています。

菊水天満神社は、9 世紀の学者である菅原道真を祀るため、1876 年に建てられました。道真は天皇の信頼される側近で、教育や社会改革を推進したことで崇敬されました。しかし、彼の大きな影響力は次第に同輩の脅威となり、政略が企てられるに至りました。職権乱用という無実の罪をかぶせられ、道真は九州の太宰府へと流され、そこで過酷な環境の中で最期を迎えました。そのような困難にもかかわらず、彼は 903 年に亡くなるまで、天皇への忠誠を貫きました。

彼の死後、道真は天神として神格化され、現在では学問・文化・芸術の神様として崇められています。菊水天満神社は、学生や生涯学習者が学業成就を願って天神様の御加護を求める有名な場所です。

【タイトル】 本社社殿/本社社殿

【想定媒体】 Web

<韓国語>
본전

미나토가와 신사의 본전은 14 세기 명장 구스노키 마사시게(1294~1336)를 기리는 영적 중심지입니다. 1336 년 미나토가와 전투에서 황제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궁극적인 헌신을 보여준 구스노키는 이상적인 무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본전은 1952 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재건된 것으로, 1945 년 공습에 소실된 목조 건물을 대신하여 세워졌습니다. 내부는 세 개의 신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앙 신전에는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오른쪽 신전에는 그의 부인을, 왼쪽에는 그의 아들과 아우, 그리고 기타 16 명의 일가 친족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문의 남성들은 천황을 섬기며 보여준 헌신적인 희생을 기려 모셔져 있습니다. 구스노키와 그의 일족은 미나토가와 전투에서 포로가 되는 대신 할복을 선택했고, 그의 아들 또한 1348 년의 또 다른 전투에서 유사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본전의 격자천장은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대형 용 그림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150 여 명의 화가들이 기증한 164 점의 장식 패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本社社殿/本社社殿

本殿は湊川神社の信仰の中心であり、14 世紀の高名な武将、楠木正成（1294～1336 年）に捧げられています。彼は天皇への揺るぎない忠誠と 1336 年の湊川の戦いでの究極の自己犠牲により、理想的な武将として敬慕されています。

現在の本殿は 1945 年の空襲で破壊された木造建築を、1952 年に鉄筋コンクリートで再建したものです。内部は三つの神殿に分かれています：中央が楠木のため、右側がその妻のため、左側が息子、弟、そして他の 16 人の家族に捧げられています。一族の男性たちは天皇への奉仕における自己犠牲で称えられています；楠木とその一族は湊川の戦いで捕虜になることよりも切腹を選び、息子も後の 1348 年の戦いで同様の運命をたどりしました。

本殿の格天井は美術品で飾られています。中央の大きな龍の絵を、全国から 150 人以上の芸術家によって寄贈された 164 枚の装飾パネルが囲んでいます。

地域番号	016	協議会名	世界遺産大峰奥駟道多言語化事業推進協議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16-001	金峯山寺/木造童子立像 2 軀	812	アプリ QR コード
016-002	金峯山寺/木造釈迦如来立像	430	アプリ QR コード
016-003	金峯山寺/薬師如来坐像（日光菩薩・月光菩薩共） 3 軀	472	アプリ QR コード
016-004	金峯山寺/木造役行者と前鬼・後鬼 3 軀	875	アプリ QR コード
016-005	金峯山寺 /役行者と前鬼・後鬼の話	699	アプリ QR コード/その他
016-006	金峯山寺/釈迦如来坐像	455	アプリ QR コード

【タイトル】 金峯山寺/木造童子立像 2 軀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韓国語>**동자 입상**

중요문화재

가마쿠라 시대(1185~1333)

이 조각상 한 쌍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세월이 흐르면서 소실되었지만, 두 동자가 누구를 형상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보성과 보견

사찰의 전승에 따르면, 이 조각상들은 중국의 거사인 부대사(497~569)의 아들 보성과 보견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대사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불교 수행에 정진했던 거사로, 존경받는 불교 지도자가 되어 정기적으로 양나라 무제(464~549)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부대사와 그의 아들들이 신성한 불교 경전의 수호자로 숭상받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나, 긴푸센지 절(금봉산사)과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에구리 황자와 야마시로 왕

최근 연구에서는 동자상의 신체적 특징이 서로 닮았다는 점에서 본래 긴푸센지 절의 자오도(자오당)에 있는 목조 쇼토쿠 태자 입상과 함께 삼존상을 이루었을 가능성도 시사되었습니다. 쇼토쿠 태자(574~622)는 일본 불교 진흥의 핵심 인물로, 토착신 신앙(훗날의 신도(神道))이 지배적인 종교 관습이었던 시대에 불교 사찰을 창건하고 경전 주석을 저술했으며 토착 신도 신앙과 함께 불교를 수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쇼토쿠 태자를 묘사한 대부분의 회화와 조각품은 태자의 생애 속 중요한 일화들을 그린 것입니다. 자오도에 있는 목조 쇼토쿠 태자 입상은 어린 태자가 병든 아버지 요메이 천황(540~587)의 쾌유를 기원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쇼토쿠 태자와 어린 시종들의 근엄한 표정과 건장한 체격과 같은 양식적인 공통점으로 인해 세 조각상이 삼존불을 이루었다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쇼토쿠 태자의 또 다른 유명한 초상에서는 태자의 양옆에 남동생인 에구리 황자와 장남인 야마시로 왕이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자들은 에구리 황자와 야마시로 왕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삼존상은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기는 반불교 운동이 일어나 많은 신성한 불상이 파괴되거나 흩어지는 등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日本語仮訳>**木造童子立像**

重要文化財

鎌倉時代 (1185-1333)

この一対の像にまつわる詳細の多くは、時の流れとともに失われている。この童子たちが誰を象徴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は、主に2つの説が存在する。

普成と普建

寺伝によれば、これらの像は傳大士（497-569）の息子である普成と普建を表しているとされる。傳大士は、昼は農作業に従事し、夜は仏教の勉強に励み、梁武帝（464-549）に定期的に仏教の教説を説いた尊敬すべき人物であった。傳大士とその息子たちは、しばしば仏教聖典の守護者として崇められるが、金峯山寺との明確な関連については判然としていない。

殖栗皇子と山背大兄王

近年の研究では、これらの童子像はその像容の類似などから現在金峯山寺蔵王堂に安置されている「木造聖徳太子立像」とともに三尊像を構成していた可能性が示唆されている。聖徳太子（574-622）は、日本における仏教振興の中心となった人物で、在来の神々への信仰（後の神道）が主流であった時代に、寺院建立や経典注釈を通じ、仏教を推進した。

聖徳太子の絵画や彫刻の多くは、その生涯における重要な場面を描いたものである。蔵王堂の「木造聖徳太子立像」は、若き日の太子が父である用明天皇（540-587）の病氣平癒を祈る姿を表し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しかし、太子と童子たちの間に見られる様式的な共通点（厳しい表情やたくましい体格など）から、本来はこの三体が三尊形式として作られ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新たな仮説が立てられている。

聖徳太子の肖像として他に有名なものに、弟の殖栗皇子と長男の山背大兄王を両脇に従えた姿がある。この場合、童子たちは殖栗皇子と山背大兄王を表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もしそうであれば、この三尊像は明治時代（1868-1912）に引き離された可能性がある。明治時代は、廃仏毀釈運動によって多くの神聖な像が破壊・散逸された混乱の時代であった。

【タイトル】 金峯山寺/木造釈迦如来立像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韓国語>

목조 석가여래 입상

현 지정 문화재

가마쿠라 시대(1185~1333)

이 불상은 실존 인물이었던 부처, 석가모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오도(자오당)에 가쿠부쓰, 즉 '객불(客佛)'로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본래 요시노에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사찰 법당의 본존불이었기 때문에 객불로 불립니다. 1870 년대에 새로 수립된 메이지 정부는 불교보다 일본의 민속적인 신앙 체계인 신도를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전국에서는 반불교 운동이 일어나 수많은 사찰이 파괴되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귀중한 유물들이 분실되거나 흩어졌습니다. 이 불상은 안전을 위해 긴푸센지 절(금봉산사)로 옮겨져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미간에 솟아오른 부분은 백호(하얀 곱슬 털)를 상징하는데, 세상을 밝히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백호는 정수리의 붉은 육계주와 함께 석가모니의 높은 정신적 경지를 나타냅니다. 코와 입이 뚜렷하고, 길고 가는 눈썹을 가지고 있으며, 나발(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이 큼직하고 턱이 낮은 특징으로 볼 때 13 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日本語仮訳>

木造釈迦如来立像

県指定文化財

鎌倉時代 (1185-1333)

この釈迦如来像は、歴史上の釈迦牟尼仏を表している。本像はかつて吉野山に存在した寺院堂宇の本尊であったことから、現在は金峯山寺・蔵王堂に「客仏」として安置されている。1870 年代、神道を優遇する政策導入の影響を受け、日本各地で廃仏毀釈運動が広まり、多くの寺院や貴重な仏像が破壊・散逸した。本像はその際、保護のために金峯山寺へ移されたことで今日まで伝わっている。

釈迦如来像の額に埋め込まれた丸いふくらみは白毫（白い巻き毛）を表し、そこから放たれる光が世界を照らすと伝えられる。頭頂部の赤色の肉髻珠とともに、釈迦如来の高い精神性を示している。鼻や口はくっきりとし、眉は細長く、髪は大きく巻き、顎は低い。これらの特徴から、13 世紀後半の作と考えられている。

016-003

世界遺産大峰奥駟道多言語化事業推進協議会

【タイトル】 金峯山寺/薬師如来坐像（日光菩薩・月光菩薩共） 3 軀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韓国語>

약사여래좌상과 협시

약사여래좌상: 남북조 시대(1336~1392)

협시: 에도 시대(1603~1867)

약사여래상 좌우에는 협시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있습니다. 약사여래는 일본에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보살로 널리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약사여래 신앙은 특히 7 세기에서 13 세기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불상은 좌상으로 오른손은 안심과 보호를 상징하는 시무외인을 맺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본래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약사여래의 양옆에는 협시로 햇빛과 달빛을 상징하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불상은 함께 불교 미술 도상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약사삼존을 이룹니다.

본존불 안에 있는 명문에 따르면 이 약사여래상은 불교 조각가 고조(생몰년 미상)가 1353 년에 제작했다고 합니다. 고조는 요시노에 거점을 둔 남조 조정을 위해 많은 작품을 제작했는데, 긴푸젠지 절(금봉산사) 니오몬 문의 인왕상(2028 년까지 복원 중)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찰 기록에 따르면 약사여래상은 긴푸젠지 절 북쪽에 있었으나 19 세기에 철거된 미네노 야쿠시도(약사당)의 본존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협시는 비교적 후세인 18 세기에 조각되었습니다.

016-003

<日本語仮訳>

薬師如来坐像（日光菩薩・月光菩薩共）

薬師如来：南北朝時代（1336-1392）

両脇侍：江戸時代（1603-1867）

本尊は薬師如来で、両脇には侍者である日光菩薩と月光菩薩が安置されている。薬師如来は病苦を癒す仏として日本において広く信仰され、特に7世紀から13世紀にかけて厚く崇敬された。

薬師如来は坐像で、右手で安心の印を結んでいる。左手に持っていたはずの薬瓶は失われている。両脇侍の日光菩薩、月光菩薩は、太陽と月の光を象徴している尊格であり、三尊で「薬師三尊像」という仏教美術における典型的な尊像構成を成す。

本像の内部に残された銘文によれば、薬師如来像は1353年に大仏師・康成（生没年不詳）によって制作された。康成は吉野にあった南朝のために多くの作品を手がけ、金峯山寺二王門（2028年まで改

修中) の巨大な仁王像もその一つである。本像はかつて吉野にあった峰の薬師堂の本尊であ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両脇侍は後世の作で、18 世紀に制作されたものである。

【タイトル】 金峯山寺/木造役行者と前鬼・後鬼 3 軀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韓国語>
엔노교자, 젠키, 고키의 목조 조각상

엔노교자: 에도 시대(1603~1867)

젠키와 고키: 가마쿠라 시대(1185~1333)

이 조각상들은 긴푸젠지 절(금봉산사)을 창건한 엔노교자와 그를 양옆에서 보좌하는 충실한 시종이자 부부 요괴인 젠키와 고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각상의 채색은 대부분 바랬지만, 젠키와 고키는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 피부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엔노교자

엔노교자(634~701)는 현재의 나라현 고세시에서 태어나 가쓰라기, 구마노, 오미네 등 인근 산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련한 수행자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엔노교자가 산조가타케 산에서 수련하고 있을 때 무시무시한 모습의 금강 자오곤젠(산악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슈겐도의 수호신)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신성한 만남에 깊이 감복한 엔노교자는 벚나무를 깎아 신상을 만들어 자오도(자오당)에 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노교자가 창건한 긴푸젠지 절의 기원이자 슈겐도 산악 수행 전통의 기원이라고 전해집니다.

엔노교자는 일반적으로 석좌에 앉아 있는 승려복, 두건, 나막신, 도롱이 차림의 노인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엔노교자는 초자연적인 존재까지 지휘할 수 있는 법력을 지녔다고 전해지며 그래서 젠키와 고키와 함께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젠키와 고키

젠키와 고키는 상대적으로 큰 코와 눈을 가지고 있어, 엔노교자상의 엄숙한 표정과는 대조적으로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얼굴입니다. 젠키는 도끼를 들고 있고, 고키는 물병을 들고 있습니다. 두 물건은 부부가 엔노교자를 위해 했던 일, 즉 나무를 베고 물을 길는 일을 상징합니다.

젠키와 고키의 조각상은 비자나무로 조각되었으며, 13 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부부상은 희귀합니다. 사찰 기록에 따르면 젠키와 고키 부부상은 한때 또 다른 엔노교자상과 함께 삼존상을 이루었으나, 중앙에 있던 본래의 조각상은 현재 소실되었습니다. 현재의 엔노교자상은 후세에 추가된 것입니다.

자오도에 안치된 엔노교자, 젠키, 고키 상 앞에서는 고마쿠(호마 의식)라고 불리는 고대의 불 의식이 거행됩니다. 고마쿠는 독경 소리와 북소리, 나각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목재 기도판을 태우며 진행됩니다. 이 의식은 매일 정오에 열리며, 일반에 공개됩니다.

<日本語仮訳>

木造役行者と前鬼・後鬼像

役行者：江戸時代（1603-1867）

前鬼・後鬼：鎌倉時代（1185-1333）

本像は、金峯山寺を創建した役行者と、その忠実な従者である鬼の夫婦、前鬼と後鬼を表している。彩色の多くは退色しているが、前鬼は赤、後鬼は青い肌で表現されている。

役行者

役行者（634-701）は現奈良県御所市で生まれ、近隣の葛城、熊野、そして大峯の山々で長年にわたり修行を重ねた修行者である。伝承によれば、役行者が山上ヶ岳で修行していた際、金剛蔵王大権現の凄まじい姿を感得したといわれている。この神聖な出会いに深く感銘を受けた役行者は、その尊容をシロヤマサクラの木に刻み、蔵王堂を創建して安置した。これが金峯山寺の起源であり、役行者によって開かれた修験道の始まりであると伝えられている。

役行者は通常、岩座に腰掛けた老相の姿で表される。頭巾を被り、袈裟、蓑、そして高下駄を身に纏っている。役行者は、鬼神をも使役するほどの法力を持っていたと伝えられることから、本像のように前鬼・後鬼を従えた姿で多く表される。

前鬼と後鬼

前鬼と後鬼は、比較的大きな鼻と目を持ち、活き活きとした表情を見せる。厳しい面持ちの役行者とは対照的な造形である。前鬼は斧を、後鬼は水瓶を持ち、木を伐ったり水を運んだりといった、役行者のために行った仕事を象徴している。

前鬼・後鬼像は、日本の榎の木で13世紀末に制作されたと考えられる。この時期に作られた夫妻像は稀少である。寺院記録によれば、本来は別の役行者三尊像の一部であったが、当初の本尊像は現在行方不明である。現在の役行者像は後世の作である。

蔵王堂では、本像の前で護摩供と呼ばれる古来の法要が行われる。読経や太鼓、法螺貝の響きとともに、祈願を込めた木札が炎の中で焼かれる。法要は毎日正午に開催され、一般公開されている。

【タイトル】 金峯山寺 /役行者と前鬼・後鬼の話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その他

<韓国語>
엔노교자와 그의 충실한 시종 젠키와 고키

이 이야기는 산악 수행인 슈젠도의 시조이자 긴푸센지 절(금봉산사)을 창건한 엔노교자를 요괴 부부가 개심하여 섬기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요시노 지역의 산속에 요괴 부부가 다섯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아버지 요괴는 “인간 아이들을 잡아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굶주린 요괴들은 곧 겁에 질린 많은 마을 사람들의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사람들의 탄식은 산속에서 수년간 영적 능력을 갈고닦아 온 수행자 엔노교자에까지 닿았습니다.

엔노교자는 마을 사람들의 간청에 응하여 요괴의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문을 외우고 지팡이를 휘둘러 아이 요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를 잡아 손바닥 크기로 줄였습니다. 그러고는 사로잡힌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해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소굴로 돌아온 요괴 부부는 소굴이 텅 빈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 것을 돌려나라!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운명을 맞게 해주지!” 분노에 휩싸인 요괴 부부는 그렇게 소리치며 엔노교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악마들은 수행자의 힘에 맞설 수 없었고, 이내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왜 인간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인가?” 엔노교자는 엄하게 물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은 떨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엔노교자는 요괴를 벌하는 대신 품을 열어 무사한 요괴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함에 벅차오른 요괴 부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모시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겠습니다.”

엔노교자는 이를 받아들여 요괴 부부에게 젠키와 고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후 젠키와 고키는 새 주인을 충실히 섬기며 요시노의 산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役行者と二人の従者（前鬼・後鬼）

本作は、修験道の祖であり、金峯山寺の開祖でもある役行者に、鬼の夫婦が改心して役行者に仕えるようになった物語である。

昔、吉野の山中に、五人の子を持つ鬼の夫婦が住んでいた。食べ物が尽きると、父鬼は「人間の子どもを

食べよう」と言い、飢えた鬼たちは村人の息子や娘を次々とさらっていった。人々の嘆きは、長年山中で修行を重ね、験力を身につけていた役行者のもとに届いた。

村人の訴えに応え、役行者は鬼の巣へと向かった。呪文を唱え、杖を振ると、鬼の末子を捕らえ、手のひらほどの大きさに縮めた。さらわれていた子どもたちの泣き声を辿り、無事に救い出して安全な場所へと導いた。

巣に戻った鬼の夫婦は、何もない巣穴を見て激怒した。「我らのものを返さねば、恐ろしい報いを受けるぞ！」と叫び、役行者に襲いかかった。しかし鬼たちは役行者の力には敵わず、すぐに命乞いをした。

「なぜ人間の子供を連れ去るのか？」役行者は厳しく問いただした。

「お腹が空いていたのです」と震えながら鬼たちは認めた。「お許してください」

役行者は鬼を罰する代わりに、衣を開いて無傷の末子を見せた。そしてその子を鬼の母の腕に戻した。感謝の念に打ちひしがれた鬼たちは頭を下げた。「どうかお仕えさせてください。これからは人を傷つける代わりに守ります」

役行者は承諾し、鬼たちに「前鬼」「後鬼」という名を授けた。以来、鬼たちは新たな主に忠実に仕え、吉野の山々を見守るようになった。

016-006

世界遺産大峰奥駟道多言語化事業推進協議会

【タイトル】 金峯山寺/釈迦如来坐像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韓国語>

석가여래좌상

현 지정 문화재

헤이안 시대(794~1185)

이 불상은 실존 인물인 석가모니를 묘사한 것으로, 1,000 여 년 전에 조각되었습니다. 긴푸젠지 절(금봉산사)에 모셔진 불상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자오도(자오당)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19 세기에 철거된 옛 지쓰조지 절(실성사)의 본존불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편백 목재 하나를 통째로 깎아 만든 이 불상은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석가모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안심과 보호를 상징하는 시무외인을 맺고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 조각상의 특징인 길쭉한 귀, 뚜렷한 눈, 둥근 뺨, 그리고 머리 꼭대기의 커다란 돌출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뒷머리를 생략한 표현, 옷자락에 주름이 없는 점, 목에 있는 세 개의 주름과 같은 세부적인 특징에서는 작가의 개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석가여래상은 긴푸젠지 절에 있는 남조 묘법전의 본존불입니다. 남조 묘법전에서는 격동의 남북조 시대(1336~1392)에 요시노에 거주했던 천황들을 기립니다. 또한 제 2 차 세계 대전 중 목숨을 잃은 15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영혼도 이곳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016-006

<日本語仮訳>

釈迦如来坐像

県指定文化財

平安時代 (794-1185)

この釈迦如来像は、歴史上の釈迦牟尼仏を表したもので、1000 年以上前に造立された。金峯山寺で最も古い仏像であり、かつては蔵王堂の西側に位置した実城寺の本尊であったが、この寺は 19 世紀に取り壊された。

像はヒノキの一木造であり、釈迦如来が結跏趺坐で座す姿を表している。右手は、人々を安心させる印を結んでいる。平安時代彫刻の特徴である長い耳、大きく張った目、丸みのある頬、そして頭頂の大きな隆起（悟りの象徴）が見られる。また、後頭部の髪を省略した表現、衣の裾に襷が見られない点、首元に刻まれた三本の皺などは、作者の個性を示している。

現在、この釈迦如来像は金峯山寺・南朝妙法殿の本尊となっている。同殿は、南北朝時代（1336－92）の動乱期に吉野に都をおいた南朝の天皇を顕彰する場所であり、第二次世界大戦において命を落とした15万人以上の霊位も祀られている。

地域番号	017	協議会名	長谷寺地域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17-001	長谷寺/長谷寺とは（概要）	393	看板、アプリQRコード /Web
017-002	長谷寺/本堂	899	看板、アプリQRコード /Web
017-003	長谷寺/本尊十一面尊	1183	看板、アプリQRコード /Web
017-004	長谷寺/内々陣の壁画と天井絵	665	看板、アプリQRコード /Web
017-005	長谷寺/難陀龍王	560	看板、アプリQRコード /Web
017-006	長谷寺/雨宝童子	489	看板、アプリQRコード /Web
017-007	長谷寺/阿弥陀如二十五菩薩来迎図	502	看板、アプリ・QRコード、Web
017-008	長谷寺/阿弥陀如二十五菩薩来迎図	943	アプリQRコード /Web
017-009	長谷寺/登廊	1559	看板/アプリQRコード /Web
017-010	長谷寺/花の御寺	1113	看板/アプリQRコード /Web

017-011	長谷寺/長谷寺に見る神仏習合 (三社権現社よりタイトル変更予定)	1006	看板/アプリ QR コード /Web
017-012	長谷寺/五重塔	328	看板/アプリ QR コード /Web
017-013	長谷寺/蔵王堂	612	看板/アプリ QR コード /Web
017-014	長谷寺/観音大画軸	599	看板
017-015	長谷寺/観音大画軸	1116	アプリ QR コード /Web
017-016	長谷寺/長谷寺縁起絵巻 6 巻本	382	看板、アプリ QR コード /Web
017-017	長谷寺/長谷寺縁起絵巻 6 巻本	1768	アプリ QR コード /Web
017-018	長谷寺/「だだおし」法要	469	Web
017-019	長谷寺/本長谷寺	525	看板、アプリ QR コード /Web
017-020	長谷寺/開山堂	611	看板、アプリ QR コード /Web
017-021	長谷寺/朝の勤行、法要	925	アプリ QR コード /Web
017-022	長谷寺/ほら貝	410	看板、アプリ QR コード /Web
017-023	長谷寺/紀貫之と歌碑	547	看板、アプリ QR コード /Web

017-024	長谷寺/おこもり	546	アプリ QR コード/Web

【タイトル】 長谷寺/長谷寺とは（概要）

【想定媒体】 看板、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하세데라 절(長谷寺, 장곡사)**

하세데라(長谷寺) 절은 신의진언종 풍산파의 본산으로 본존은 자비의 보살인 높이 10m의 십일면관음보살 목조상입니다. 관음보살상의 원형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으나 처음으로 봉안된 것은 727년이며, 많은 영험한 일들과 관련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후대에 만들어진 재현품들도 원형과 같이 신성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관음보살상은 국보로 지정된 본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하세데라 절에는 지금도 승려들이 매일 수행하는 활발한 승원이 있습니다. 정오와 오후 8시에는 나각을 불어 시간을 알립니다. 매일 아침에 승려들은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본당 외전에서 주변 산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하세데라 절은 ‘꽃의 사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본당으로 이어지는 399개 단으로 이루어진 지붕 덮인 계단 양쪽에는 수천 그루의 모란과 수국을 비롯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경내 어디에서나 보이는 오층탑은 가을 단풍이나 봄 벚꽃으로 둘러싸였을 때 특히 아름답습니다.

<日本語仮訳>**長谷寺**

長谷寺は真言宗密教豊山派の総本山である。本尊は高さ10メートルの木造十一面観音像で、慈悲の菩薩である。本来の彫像は現在は失われているが、神亀4年（727年）にここに安置され、多くの靈驗がそれに帰せられている。後世に作られた替えの像も、同様の神聖な存在感を宿していると信じられている。この観音像は国宝である本堂に安置されている。

この寺院には現在も使われている僧院があり、僧侶たちが日々の修行に従事している。正午と午後8時には、時刻を告げるために法螺貝（ほらがい）が鳴らされる。毎朝、僧侶たちは本堂の外舞台から谷を見下ろしながら、周囲の山々に鎮座する神々へ祈りを捧げている。

長谷寺は「花の寺」として知られている。本堂へと続く399段の屋根付き階段には、数千株の牡丹やアジサイをはじめとする花々が並んでいる。境内ほぼどこからでも見える五重塔は、紅葉や桜の景色に囲まれるとき、とりわけ美しい。

【タイトル】 長谷寺/本堂

【想定媒体】 看板、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
본당(관음당)

국보

본당은 본래 747 년에 건립되었으며, 하세데라(長谷寺) 절의 본존인 십일면관음 목조상을 모시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본래 불상의 높이는 10m 가 넘었으며 불교 승려 도쿠도(656~735)의 의뢰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찰 기록에 따르면, 도쿠도는 꿈에서 하쓰세야마 산의 남쪽 경사면에 이 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쓰세야마 산에 도착한 도쿠도는 불상의 발에 딱 맞는 흙이 파인 돌 토대를 발견했습니다. 본당은 그 대좌를 둘러싸도록 지어졌습니다. 현재 이곳에 모셔진 불상은 원형과 동일한 높이로, 같은 신성한 존재를 모시기 위해 봉안되었습니다.

본당은 실제로 두 개의 평행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정기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법당이고, 다른 하나는 가끔만 개방되는 정당(正堂)입니다. 본존인 관음보살상은 정당 내부의 불전에 모셔져 있으며, 삼면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정교한 벽화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일반적으로 정당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법당에서 관음보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법당은 내진과 외진으로 나뉩니다. 수 세기 전 일본의 순례자들은 꿈속에서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며 종종 법당의 운이 나는 마루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날 운이 나는 이 마루는 주로 공연, 연극, 관음보살 앞에서 열리는 불교 결혼식에 쓰입니다.

법당의 외진은 절벽에 건물을 지을 때 쓰이는 가케즈쿠리 양식의 예를 보여줍니다. 하세데라 절은 일본에서 최초로 이러한 건축 방식을 사용한 사찰 중 하나로, 이 양식에서는 나무 기둥과 들보로 이루어진 골조가 건물과 기반을 지지합니다. 이 구조는 목재 요소가 마모되거나 손상될 경우 개별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외진에서는 하세 지역 이름의 유래가 된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 ‘하세(長谷)’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긴 계곡’을 의미합니다. 이곳 외진에서는 주변 산에 머문다고 여겨지는 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세데라 절의 본당은 여러 차례 보수 및 재건축을 거쳤습니다. 2003 년 태풍으로 인한 정당 지붕 수리 작업 중, 작업자들은 현재의 본당 건물이 1650 년에 도쿠가와 막부의 3 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1623~1651)의 지원을 받아 완공되었다는 문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하세서가 발견된 이듬해 본당은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本堂 (観音堂)

国宝

本堂はもともと、747 年に長谷寺の本尊である木造十一面観音菩薩像を安置するために建立された。

本来の像は現在は失われているが、オリジナルの像は高さ 10 メートルを超え、僧・徳道（656-735）によって制作が依頼されたものである。寺伝によれば、徳道は「初瀬山の南斜面にこの像を建立せよ」との、指示を含む霊夢を受けた。初瀬山に到着した徳道は、像の足にぴったり合う溝が刻まれた石の台座を発見。本堂はその台座を囲むように建てられた。現在安置されている像は、オリジナルの像と同じ高さで、同じ神聖な存在を宿すよう落慶供養されたものである。

本堂は実際には二つの平行した構造物から成る：定期的に一般公開されている礼拝堂と、時折のみ開かれる正堂である。本尊の観音像は正堂の奥の内陣に安置され、三方を床から天井まで続く精緻な壁画に囲まれている。参拝者は通常、正堂の中に入ることはできないが、礼拝堂から観音像を拝観することができる。

礼拝堂はさらに内陣と外陣に分かれている。何世紀も前、巡礼者たちは礼拝堂の内陣にある磨かれた木製の床で夜を明かすことがよくあった。彼らは夢の中で観音様の導きを得ようと訪れていたのである。これらの磨かれた床は、現在、主にコンサートや演劇公演、観音様の御前で執り行われる仏教式の結婚式などに利用されている。

長谷寺の本堂外舞台は、懸造り・崖沿い建築の一例である。長谷寺は、建物や舞台を木製の梁と柱の骨組みで支えるこの建築様式を日本で最初期に採用した寺院の一つである。この骨組みにより、木部材は個別に交換が可能だ。長谷寺の舞台からは、長谷（はせ）の名の由来となった「長い谷」の景観を見渡すことができる。周囲の山々に鎮座すると信じられている神々は、この舞台から礼拝される。

長谷寺の本堂は、幾度も修復と再建を繰り返してきた。2003 年、台風により正堂の屋根が損傷した。修復作業中、作業員が発見した記銘（証拠）から、現在の建物が徳川家光（1623-1651）の支援を得て 1650 年に完成したことが判明した。この発見の翌年、本堂が国宝に指定された。

【タイトル】 長谷寺/本尊十一面尊

【想定媒体】 看板、アプリQRコード/Web

<韓国語>**십일면관음보살****중요문화재**

하세데라(長谷寺) 절의 본존은 우뚝 솟은 십일면관음보살 목조상입니다. 일본 전역 수백 개의 불상들이 이 불상의 독특한 형상과 도상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통칭 ‘하세 관음보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상의 신성한 기원과 그 후 일어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는 수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하세 관음보살에게 도움과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세데라 절의 관음보살상은 727년 처음 조각된 이후 화재로 소실되어 여러 차례 다시 만들어졌으나 이후 만들어진 모든 불상에도 동일한 영험함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존하는 불상은 1528년에 제작된 것으로 높이가 10.18m에 달해 일본 최대급 목조 불상 중 하나입니다. 두 개의 중앙 기둥이 불상의 머리와 몸체를 땅에 고정시키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탑 건축 방식과 유사합니다.

법당에서는 불상의 상반신만 보이지만, 봄과 가을에 열리는 특별 행사 기간에는 방문객들이 안쪽 법당에 들어가 불상의 발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방식은 신자와 관음보살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해준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은 누구인가?

관음보살은 자비의 보살입니다. 관음보살은 모든 보살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길을 걸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부처가 되도록 돕기 위해 열반에 드는 것을 유보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법화경에서 관음보살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승려, 어린아이, 용, 천녀(天女)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한 관음보살의 일반적인 모습 중 하나가 십일면관음보살입니다. 각 얼굴은 온화함부터 분노까지 다양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신성한 불상의 기원

처음 만들어진 하세 관음보살상은 신성한 녹나무를 조각하여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녹나무는 큰 홍수가 일어난 후 비와 호숫가로 떠밀려 왔는데 사람들이 목재를 취하려고 할 때마다 화재와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승려 도쿠도(656~735)는 나무에 깃든 신묘한 힘을 선한 힘으로 바꾸기 위해 나무를 조각하여 관음보살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는 도상

관음보살을 묘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세데라 절의 관음보살상은 십일면관음보살이 석장(승려가 짚는 지팡이)을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최초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세관음보살상들의 공통적인 특징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하세데라의 관음보살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오른손에는 석장과 염주를 쥐고 있고, 왼손에는 연꽃을 쏜 꽃병을 들고 있다.

- 대부분의 관음보살상은 연꽃 모양의 연화좌 위에 서 있지만, 하세데라 절의 관음보살상은 간소한 돌판 위에 서 있다. 이는 관음보살이 아직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채 신자들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 남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불상의 오른발은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좌우에는 관음보살을 모시는 두 명의 협시가 있는데, 관음보살의 오른쪽에는 우호 동자가, 왼쪽에는 난다 용왕이 있다. 두 조각상은 주 불단 옆 벽감에 서 있다.

017-003

<日本語仮訳>

十一面観音

重要文化財

長谷寺で本尊とされるのは、そびえ立つ十一面観音の木造像である。日本各地に数百体存在するこの像は、この像（イメージ）とその特異な図像様式を模したものである。これらの像（仏像）は、総称して「長谷観音」像と呼ばれる。幾世紀にもわたり、この像の神聖な起源とその後もたらされた奇跡の物語は、多くの人々を惹きつけ、長谷観音に救いと導きを求めるよう促してきた。

長谷寺の観音像は、727年に初めて彫られて以来、火災で焼失し再造されることを繰り返してきたが、その後の像はいずれも同一の仏の靈性を宿すとみなされている。現在の像は1528年に造られ、その高さは10.18メートルで、日本最大級の木造仏像の一つである。頭部と胴体を地面に固定する二本の中心柱は、日本の塔にも用いられている伝統的な建築手法に類似している。

十一面観音像は礼拝堂からは上半身のみが見えるが、春と秋に行われる特別行事の際には、参拝者は内拝堂に入り、像の足に触れることができる。この礼拝の行為は、巡礼者の観音とのつながりを深めると言われている。

観音とは誰か？

観音は慈悲の菩薩である。全ての菩薩と同様、観音も仏となる道を歩んでいるが、すでに悟りに達しており、他者が仏となるのを助けるために涅槃に入ることを先送りすることを誓っている。『法華経』では、観音は人々の祈りに応え、僧侶、子供、龍、天女など、助けとなるあらゆる姿で現れる存在として描かれている。観音の最も一般的に描かれる化身の一つが十一面観音である。各頭部の表情は穏やかなものから猛々しいものまで様々で、それぞれ異なる感情を示している。

神聖なる起源（像の起源）

伝承によれば、最初の長谷観音は神聖なクスノキから彫られたという。この木は大洪水の後、琵琶湖の近くへ流れ着いたが、人々がその木材を伐採しようとするとき必ず火災や疫病が発生した。徳道（656-735）という名の僧は、この木の神聖な力を善なる力へと変えるため、（像を）彫らせることを決意した。

非伝統的な図像

観音像の表現方法は様々だが、長谷寺の観音像は十一面観音でありながら錫杖（修道僧の杖）を持つ姿を初めて描いた。これが長谷観音像の共通の特徴となった。長谷寺の観音像は次の特徴でも知られる：

- 右手に錫杖と数珠を、左手には蓮を挿した花瓶を持っている。
- 多くの観音像は蓮華座に立つが、長谷寺の観音像は簡素な石板の上に立つ。これは観音様がまだ仏の境地に入らず、信者を救うためにこの世に留まっていることを表している。
- 像の右足がわずかに前に出ている姿勢は、人々の祈りに応える準備ができ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 二体の脇侍が観音に付き添っている：稚児の侍者である雨宝童子（観音の右側）と、龍王である難陀龍王（観音の左側）である。彼らは正堂の中にある、主祭壇脇の壁龕（へきがん）に安置されている。

【タイトル】 長谷寺/内々陣の壁画と天井絵

【想定媒体】 看板、アプリQRコード/Web

<韓国語>**벽과 천장 벽화**

하세데라(長谷寺) 절의 10m 높이의 관음보살상은 본전 내부의 좁은 불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불전에는 개구부가 있어 불상의 상반신을 올려다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벽과 천장은 거대한 벽화로 덮여 있으며 이 벽화들은 불전 내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벽화는 오랜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존재 자체가 잊혀 있었습니다.

하세데라 절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이 신성한 공간은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간혹 순례자들이 안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설령 관음보살상의 발치에 서서 벽의 그림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었다고 해도 불당 내부가 어둡고 천장이 높아 천장의 그림은 전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7 년, 전등 설치 공사 중 뜻밖에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천장부 벽화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벽화는 본당 건물(1650 년경)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벽화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며 관음보살을 보호하는 사천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장 벽화에는 천녀(天女)들과 악기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마치 음악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 불상의 귓가에 닿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벽화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관음보살상이 있는 이 공간에 신성하고 입체적인 세계를 만들어 냅니다.

이처럼 어둡고 들어가기 힘든 곳을 화려한 그림으로 장식하는 것은 언뜻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숨겨진 장식’은 일본 전통 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기모노 안감처럼 아무도 볼 수 없는 부분에도 섬세한 디테일이 더해집니다. 일본의 많은 예술가들은 신성한 공간과 사물의 눈에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공간은 봄과 가을의 특별 개방 기간 동안 일반 공개되며, 별도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日本語仮訳>**壁と天井の壁画**

長谷寺の本堂奥の狭い仏堂には、高さ 10 メートルの観音像が安置されている。仏堂にある開口部により、礼拝堂から像の上半身を見上げることができる。内部の壁と天井は巨大な壁画で覆われているが、これらは仏堂内部からしか見ることができない。その存在は長い歴史の大部分において忘れ去られていた。

長谷寺の歴史の大半において、この聖域は立ち入り禁止であった。巡礼者が時折入ることを許されることはあったが、観音の足元に立って壁の絵を垣間見たとしても、背の高い仏堂内は暗く、天井の芸術作品を目に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っただろう。しかし 2007 年、電気照明の設置により、本堂（1650 年頃）と同

時代のもものと推定される、驚くほど良好な状態で保存された壁画が予期せず発見された。

部屋の壁面には四天王の絵が描かれており、四方の方角を守護する彼らは観音菩薩を四方から護っている。天井の壁画には天女や楽器が、音楽が天から降り注ぎ、観音像の耳元近くまで届く様子を表現するように描かれている。これらの壁画が一体となり、観音様が鎮座する神聖な立体的な世界を創り出している。

暗く入り込めない部屋をこれほど色鮮やかな絵画で飾るのは奇妙に思えるかもしれないが、このような「隠れた装飾」は日本の伝統芸術に共通する特徴である。誰も目にする事のない場所、例えば着物の裏地にも細やかな細工が施される。芸術家たちは、目に見える聖なる空間や物だけでなく、目に見えないものに対しても等しく注意を払ったのである。

特別拝観期間中（春と秋の各回）、この施設は一般公開される。別途入場料が必要。

【タイトル】 長谷寺/難陀龍王

【想定媒体】 看板、アプリQRコード/Web

<韓国語>

난다 용왕상

중요문화재

가마쿠라 시대(1185~1333)

난다 용왕은 불교 교리를 수호하는 여덟 명의 신인 팔대용왕 중 우두머리입니다. 팔대용왕들은 역사상의 부처인 석가모니가 범화경을 설법하는 것을 듣고 불교에 귀의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세데라(長谷寺) 절의 역사서에 따르면 십일면관음보살상이 하세데라 절에 봉안될 때, 난다 용왕을 비롯한 팔대용왕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난다 용왕은 비를 내려 풍작을 가져다주는 물의 신으로도 숭배됩니다.

관람객의 시점에서 보면 난다 용왕상은 고대 중국 궁정 관리들이 입던 옷과 모자를 쓴 노인의 모습으로 관음보살상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공물대에서 튀어나오는 용들은 용왕의 진짜 모습을 암시합니다.

난다 용왕 앞에는 작고 둥근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거울은 일반적으로 신사에서 신을 형상화한 물리적 상징물로 쓰이는데, 하세데라 절에 이러한 거울이 있다는 것은 이 사찰의 종교적 전통이 불교와 신도(일본의 전통 종교)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도(神道)와 불교가 융합된 신불습합 측면에서 하세데라 절의 난다 용왕은 가스가타이샤 신사(나라현에 있는 유서 깊은 신사)의 신(가스가다이묘진)의 다른 형태로 모셔집니다. 가스가타이샤 신사는 하세데라 절 창건에 도움을 준 후지와라 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상과 거울을 함께 모시는 것은 난다 용왕이 신도와 불교적 모습 모두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日本語仮訳>

難陀龍王像

重要文化財

鎌倉時代 (1185-1333)

難陀龍王は八大龍王の首領であり、仏教の教えの守護神として広く崇敬される八神の一柱である。龍王たちは、歴史上の仏陀である釈迦が法華經を説くのを聞き、仏法に皈依したと言われている。長谷寺の歴史によれば、難陀龍王ら龍王たちは長谷寺に十一面観音像が安置された際、その場に列席していた。難陀龍王は、雨を降らせ豊作をもたらす水の神としても崇敬されている。

拝観者の視点から見て、観音像の右側に難陀龍王の像が立っている。この神は、古代中国宮廷の役人が着用する衣と綿布の帽子をまとった老人の姿で描かれている。その手に持つ供物台から龍が現れ、眞の姿を示唆している。

難陀龍王の前には小さな丸い鏡が置かれている。こうした鏡は通常、神社の神々の具現として用いられ、長谷寺にこれがあることは、同寺の宗教的伝統が仏教と神道の要素を併せ持つことを示している。寺院の神仏習合の慣習において、難陀龍王は春日大社の神（春日大明神）の別の姿として祀られている。春日大社は、長谷寺の建立を助けた藤原氏と深い関わりを持つ。このように像と鏡を共に安置することは、難陀龍王が神道的側面と仏教的側面の両方の姿を併せ持つと信じら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タイトル】 長谷寺/雨宝童子

【想定媒体】 看板、アプリQRコード/Web

<韓国語>**우호 동자상**

중요문화재

무로마치 시대(1336~1573)

우호(雨宝, 우보) 동자상, 또는 ‘비를 내리는 아이’상은 하세데라(長谷寺) 절의 십일면관음보살상을 옆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우호 동자는 하쓰세야마 산과 관음상이 서 있는 석단을 지키는 팔대동자 중 한 명입니다. 하세데라 절의 관음보살상과 관련된 기적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호 동자는 흔히 사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우호 동자는 오른손에는 석장을, 왼손에는 소원을 이루어 주는 여의보주를 들고 있습니다. 외견은 궁정 예복과 전통적인 검은색 머리 장식을 착용한 귀족 아이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미즈라’라고 불리는 고리 모양의 머리는 당시 사춘기 때의 소년들이 흔히 하는 머리로, 고리의 길이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머리카락을 귀 가까이에 묶지만, 우호 동자의 고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므로 귀족 신분임을 보여줍니다.

하세데라 절은 불교와 신도의 요소를 모두 받아들이는 종교적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신인 우호 동자는 황실의 선조로 여겨지는 일본의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화신으로도 숭배됩니다. 황실은 하세데라 절의 본당과 십일면관음보살상 제작 자금을 지원했으며, 우호 동자상은 당시 황실의 지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日本語仮訳>**雨宝童子像**

重要文化財

室町時代(1336-1573)

雨宝童子像、または「雨を降らせる子」は、長谷寺十一面観音の付き添いとして立っている。彼は、初瀬山と観音様が立つ石壇を見守る八童子の一人である。長谷寺観音にまつわる奇跡の物語において、雨宝童子は一般的に使者として務める。

雨宝童子は右手に錫杖、左手に如意宝珠(願いを叶える宝珠)を持っている。彼は、宮廷風の衣裳と伝統的な黒い冠をまとった高貴な少年として描かれている。角髪(みずら)と呼ばれる輪状の髪型は思春期の男の子に一般的で、その輪の長さが社会的地位(身分)を示していた。低い身分の者は髪の輪を耳の近くに作るものだが、雨宝童子の肩まで届く輪状の髪は貴族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長谷寺は、その宗教的信仰に仏教と神道の両方の要素を取り入れている。仏教の神である雨宝童子は、

神道の太陽の神であり、皇室がその家系を遡る祖先とする天照大神がとった姿としても崇敬されている。皇室は長谷寺の本堂と十一面観音像の建立に資金援助を行い、雨宝童子像の存在はその支援を今に伝える証である。

【タイトル】 長谷寺/阿弥陀如二十五菩薩来迎図

【想定媒体】 看板、アプリ・QRコード、Web

<韓国語>

정토의 성대한 환영

본당 안쪽 나무 격자에 있는 작은 창문에서는 천상의 정토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벽화는 십일면관음보살을 모신 불당의 외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미타여래 이십오보살 내영도’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아미타불과 보살의 행렬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망자를 정토로 데리러 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를 내영(마중 나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영도는 사후 구원에 대해 전함으로써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불교 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벽화는 본당 건물과 같은 시기(1650 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벽화와 격자창 사이에는 작은 십일면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일본어로 우라칸논, 즉 ‘뒷쪽의 관음보살’이라고 불립니다. 이 작은 불상의 복제품이 제작된 1769 년 당시, 10m 크기의 관음보살상 본존은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찰을 찾은 순례자들은 실물 크기의 관음보살상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창살 사이로 내영도의 천상 배경 앞에 서 있는 작은 불상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벽화는 봄과 가을 특정 기간 동안 본당 뒤쪽이 일반 공개되는 시기에만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벽화의 역사와 묘사된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浄土への盛大な歓迎

本堂の奥、木製の格子窓から見える小さな隙間が、天上の浄土における再生の様子を垣間見せてくれる。

十一面観音を祀る堂の外壁に描かれた「阿弥陀仏と二十五菩薩来迎図」は、阿弥陀仏と菩薩の行列が、亡くなったばかりの者を浄土へ迎えに来る様子を描いたもので、これを「来迎（らいごう）」と呼ぶ。来迎図は、死後の救済を信者に伝えることで慰めを与えることを意図しており、仏教美術における一般的な主題である。この壁画は、本堂自体と同じくらい古い（約 1650 年頃）と考えられている。

壁画と格子窓の間に十一面観音の小像が祀られている。この像は「裏観音」、または「背後の観音」と呼ばれる。このミニチュアの複製が制作された 1769 年当時、高さ 10 メートルの本尊は一般公開されず隠され続けていた。参拝者は本尊の等身大の姿を拝むことは叶わなかったが、格子越しに覗き込むと、来迎壁画

の天界という背景の前に立つ小さな観音像を目に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ある。

この壁画は、春と秋の特定の期間に本堂の裏側が一般公開される際に、全体を見ることができる。壁画の歴史や描かれた詳細について詳しく知りたい方は、以下のリンクよりアクセスできる。

【タイトル】 長谷寺/阿弥陀如二十五菩薩来迎図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아미타여래 이십오보살 내영도**

국보

에도 시대(1603~1867)

이 벽화는 아미타불과 25 명의 보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살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지만 타인을 돕기 위해 열반에 드는 것을 미루기로 선택한 존재입니다. 아미타불과 그의 수행단은 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망자들을 천상의 정토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영(마중 나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영도는 사후 구원에 대해 전함으로써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1100 년대 일본 불교 미술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세테라 절의 본존은 자비의 보살인 10m 높이의 관음보살상입니다. 이 벽화는 관음보살상이 있는 불당의 뒷벽에 그려져, 아미타불은 정확히 관음보살상 뒤편 벽 반대편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신자들이 현세에서는 관음보살의 도움을 구하고 내세에서는 아미타불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내영도에서 관음보살은 지혜의 보살인 대세지보살과 함께 아미타불의 수행원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벽화에서는 관음보살의 자리를 지장보살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장보살은 여행자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아미타불의 왼쪽에서 한 손에는 석장을, 다른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든 채 서 있습니다.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의 오른쪽에 서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하단에는 두 보살이 연꽃 모양 좌대와 양산을 펼쳐 망자를 맞이하고 정토로 인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뒤로는 보살들이 화려한 행렬을 이루며 춤을 추고, 옷자락을 나무깁니다. 발밑에는形形色색의 연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라, 징, 피리, 작은 북, 비파, 쟁을 들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신도들의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쁘게 축하할 일입니다. 아미타불의 낙원에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여래 이십오보살 내영도’는 본당 건물(1650 년경)만큼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건물의 국보 지정 시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열과 습기에 노출되어 일부 물감이 벗겨진 탓에 안타깝게도 보살들의 얼굴 중 많은 수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벽화를 기록하고 후세까지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주의: 본당의 해당 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봄과 가을의 특별 개방 기간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화의 일부는 본관 뒤쪽 창문을 통해 연중 내내 감상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阿弥陀如来二十五菩薩来迎図（細部）

国宝

江戸時代（1603-1867）

この壁画は、天界から降り立つ阿弥陀仏と二十五尊の菩薩の随行団を描いている。菩薩とは、悟りを開いた存在でありながら、他者を救うために涅槃に入ることを先送りしている存在である。阿弥陀仏とその随行団は、亡くなったばかりの者を天上の浄土へ導く「来迎（らいごう）」の役目を担うと伝えられている。来迎の場面は、死後の救済を信者に伝えることで慰めを与える意図があり、1100年代には仏教美術の主要な題材となった。

長谷寺の本尊は、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菩薩の10メートルの像である。この壁画は観音を祀る部屋の裏側の壁、つまり壁の反対側の、観音のちょうど後ろにあたる位置に描かれている。この配置は、信者が現世では観音の助けを求め、来世では阿弥陀の救済を期待できるという考えを反映している。

ほとんどの来迎図では、観音は智慧の菩薩である勢至菩薩とともに阿弥陀の随行として描かれる。しかしこの壁画では、観音の代わりに地蔵菩薩が配置されている。地蔵菩薩は日本で旅人の守護神として知られる。地蔵菩薩は阿弥陀の左側に立ち、片手に錫杖、もう片方に如意宝珠を持つ。勢至菩薩は阿弥陀の右側に立ち、両手を合わせて祈りを捧げている。

絵の右下では、二人の菩薩が蓮華台と天蓋を差し出し、亡き人を迎え浄土へ導く。その背後では、菩薩たちが華やかな行列の中で舞い、流れるような衣を翻し、足元には色とりどりの蓮の花が咲き乱れる。彼らはシンバル、ゴング、笛、手鼓、琵琶、箏を携えている。阿弥陀仏の信徒の死は悲しむべき出来事ではなく、喜びに満ちた祝いの契機なのである。それは、阿弥陀の極楽浄土では最終的な悟りが約束されているからだ。

「阿弥陀如来と二十五菩薩来迎図」は、本堂自体（約1650年）と同時代に制作されたとされ、建物の国宝指定に含まれている。長年にわたる高温多湿の影響で絵の具が所々剥がれ始め、多くの菩薩の顔は残念ながら判別不能となっている。後世に伝えるため、壁画の記録保存作業が進められている。

注：本堂のこの区域は、春と秋の特別拝観期間を除き、一般の方の入場はご遠慮いただいているが、壁画の一部は本堂裏側の窓越しに年間を通じて見る事ができる。

【タイトル】 長谷寺/登廊

【想定媒体】 看板/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지붕이 있는 계단

하세데라(長谷寺) 절본당으로 가는 길에는 지붕이 있고 둥근 등을 밝혀 놓은 긴 계단이 있습니다. 399 개의 계단은 세 구간으로 나뉘어 지붕이 덮여 있으며, 구간을 올라갈수록 가팔라집니다. 이 계단은 약 천 년 동안 하세데라 절의 상징적인 특징 중 하나였으며, 절 주변에는 명소도 많습니다.

치명적인 병, 뱀, 까마귀

지붕이 덮인 계단은 가스가타이샤(春日大社) 신사의 구지(宮司, 신사의 최고 책임자) 인 나카토미노 노부키요가 1039 년에 처음 지었습니다. 하세데라 절의 기록에 따르면, 노부키요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아들 사네치카를 기적적으로 회복시킨 하세데라 절의 관음보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계단을 짓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노부키요는 가스가타이샤 신사의 신들에게 아들 사네치카의 발에 생긴 환부를 고쳐달라고 간청했으나 신사의 신들은 사네치카가 전생에 나쁜 업보를 쌓아 생긴 병이라고 설명하고는 노부키요에게 신성한 비쭈기나무 가지를 주며 하세데라 절에서 관음보살께 기도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노부키요의 손에서 나뭇가지를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사경을 헤매던 아들 사네치카에게 까마귀 한 마리가 뒷마루로 내려와 발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상처에서 뱀 한 마리를 끄집어내어 부리에 물고 날아갔습니다. 잠에서 깨자, 사네치카의 환부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노부키요는 하세데라 절에 지붕이 있는 계단을 지었습니다.

계단 꼭대기에는 까마귀가 뱀을 물고 있는 모습이 새겨진 목판이 있습니다.

관음보살에게 가는 길

지붕이 덮인 계단은 마치 번개처럼 직각으로 배치된 세 개의 독립된 복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계단은 저명한 학자이자 관료였으며 사후에 학문의 신 ‘텐진’으로 신격화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845~903)가 처음 개척한 길을 따라 본당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세데라 절의 방문객들은 예전에는 동쪽에서 본당으로 향했지만, 미치자네는 초인적인 속도로 하쓰세야마 산의 남쪽 경사면을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텐진이 번개와 천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위층 복도는 계단에서 현존하는 부분 중 가장 오래된 부분이며, 본당과 같은 시기(1650 년경)에 재건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 두 부분보다 장식이 덜 화려하며, 목재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측면 기둥이 각 기둥과 만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자국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수 세기 동안 방문객들이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서 들보를 잡았던 흔적입니다.

아래쪽과 중간 단의 회랑은 1889 년에 재건축되었습니다. 가장 아래층 회랑의 측면 기둥에는 조롱박 모양이 조각된 곳도 있습니다. 표주박은 도교의 불로불사와 관련이 있으며,

회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덴구 삼나무

지붕이 덮인 계단 위로는 덴구 삼나무라 불리는 삼나무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덴구는 일본 민속 설화에 등장하는 인간과 비슷한 모습의 요괴로, 길고 붉은 코와 날개를 가졌으며 장난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때 하세데라 절 주변에 덴구들이 삼나무 숲에 살면서 석등을 넘어뜨리고 계단에 등불 기름을 뿌려 놓는 등 말썽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가쿠라는 젊은 스님이 삼나무를 전부 베어내어 덴구를 쫓아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에이가쿠가 사소한 일에 몰두하느라 수행을 소홀히 한다며 질책했습니다. 이후 에이가쿠는 수행에 전념하며 출세한 후에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이가쿠는 고위 승려가 된 후 일본 전역에서 나무꾼들을 모아 삼나무를 베어내고 사찰을 확장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몇몇 덴구들이 사과하며 에이가쿠에게 벌목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지막 삼나무를 베어내려는 순간, 에이가쿠는 나무꾼을 멈추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덴구가 아니었다라면 저는 배움을 사랑하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한 그루 정도는 남겨둬도 되겠지요.” 그리하여 이 나무는 ‘덴구 삼나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017-009

<日本語仮訳>

屋根付きの階段

長谷寺の本堂へ続く道は、大きな丸い提灯に照らされた長い屋根付き階段である。399 段の階段は三つの屋根付き区間に分かれており、区間が進むにつれて傾斜が次第にきつくなる。この階段は約千年にわたり長谷寺で最も象徴的な特徴の一つであり、沿道には多くの名所が点在している。

命に関わる病、蛇、烏

この屋根付き階段は、春日大社の宮司であった中臣信清によって 1039 年に初めて造られた。長谷寺の記録によれば、信清は息子の実親が命にかかわる病から奇跡的に回復した恩返しとして、この階段を建立したのである。

信清は春日大社の神々に、実親の足にできた有害な患部を治してほしいと願った。神々は、その病は実親の前世の悪業に起因すると説明し、信清に神聖な神の枝を与え、長谷寺で観音様に向かって祈るよう指示した。祈りを始めて三日目に、一羽のカラスが飛んできて、信清の手からその枝を奪い取った。

一方、実親が死に瀕していた時、一羽のカラスが縁側に降り立ち、少年の足をつつき始めた。カラスは患部から蛇を引きずり出すと、くちばしに蛇をくわえたまま飛び去った。実親は目を覚ますと、完全に回復していた。感謝の念から、信清は長谷寺に屋根付きの階段を造らせた。

階段の頂上には、くちばしに蛇をつかむ烏が彫られた木の板が置かれている。

観音への道

屋根付きの階段は、稲妻のように直角に交わる三つの通路で構成されている。伝説によれば、この階段は寺院への道を最初に切り開いた名高い学者官僚・菅原道真（845-903）の道を辿っている。没後に学問の神である天神として神格化された道真にちなむこの道ができるまで、長谷寺の参拝者は東側の道から本堂へアプローチしていたが、道真は超人的な速さで初瀬山の南斜面を登ったと伝えられる。これは雷や学問を司る天神としての彼の身分を暗示している。

上部の回廊は階段で最古の現存部分であり、本堂（約 1650 年）と同時に再建された。下部の二つの区間より装飾は控えめで、木材には何世紀にもわたる摩耗の跡が刻まれている。よく見ると、側梁が各柱と接合する部分に手の形をした窪みが確認できる。これらは何世紀にもわたり、参拝者が急勾配の階段を下りる際に梁を握ったことで形成された痕跡である。

下段と中段の回廊は 1889 年に再建された。最下段の回廊を縁取る側梁の一部にはひょうたん形が彫られている。ひょうたんは道教の不老不死の象徴とされ、回廊の永遠の存続を祈願する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とされる。

天狗杉

天狗杉と呼ばれる木は屋根付きの階段を見下ろすようにそびえ立ち、本堂の縁側からも眺めることができる。天狗とは日本の民間伝承に登場する、翼と長い赤い鼻を持つ人間に似た悪戯好きな妖怪で、かつては長谷寺周辺の杉の木々に棲み、石灯籠を倒したり階段に灯明の油を撒いたりして悪戯を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

ある日、若き僧・英岳は天狗を追い出すため杉の木を全て伐採するよう提案した。住職はこの案を却下し、英岳を叱責した。それ以来、英岳は修行に専念し、出世して自らの計画を実行に移すことを決意した。

高僧となった英岳は、日本各地から木こりを集め、杉の木を伐採して寺院を拡張した。数人の嘆き悲しむ天狗が謝罪し、英岳に再考を懇願した。最後の杉が伐採されようとしたその時、英岳は木こりを止め、「考えて見れば天狗たちのおかげで勉強が好きになったのだ。一本くらい残してもいいだろう。」と宣言した。この一本が後に「天狗杉」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

【タイトル】 長谷寺/花の御寺

【想定媒体】 看板/アプリQRコード/Web

<韓国語>

꽃의 사찰

하세데라(長谷寺) 절은 '꽃의 사찰'(하나노미테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명소들은 꽃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사찰의 다채로운 역사와 전설 또한 담고 있습니다.

모란꽃 공양

사찰 경내에는 약 7,000 송이의 모란이 심겨 있으며, 특히 지붕이 덮인 계단과 혼보(승려들의 거처) 주변에 많습니다. 개화 절정기는 4 월에서 5 월 사이이지만 일부 품종은 겨울에도 꽃을 피웁니다. 경내에는 150 여 종의 모란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세데라 절의 모란은 당나라(618~907) 시대 황제의 후궁이었던 마두(馬頭, 말머리) 부인이 보낸 씨앗에서 자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두 부인은 길쭉한 얼굴과 코가 말을 닮았으나, 친절하고 우아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마두 부인의 성품에 매료되어 그녀만을 사랑했습니다. 이에 그의 다른 후궁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마두 부인의 못난 외모를 폭로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대낮에 연회를 열면 황제가 그녀의 매력 없는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마두 부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어떤 약도 그녀의 외모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두 부인은 기적의 힘을 지닌 자비로운 보살인 하세데라 절의 관음보살에게 기도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마두 부인은 멀리서 7 일 밤낮으로 기도했고, 마침내 승려 복장을 한 신성한 존재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가 마두 부인의 얼굴에 향유를 뿌리자,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에 내면의 우아함이 드러났습니다.

연회에서 마두 부인은 극진한 찬사를 받았고, 황제의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마두 부인은 여러 가지 보물과 모란 씨앗을 작은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고, 그녀의 기도 덕분에 그 공양물들은 하세데라 절에 닿았습니다.

종루 동쪽에는 마두 부인을 모시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수국과 폭풍의 언덕

수국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5 월 말부터 7 월 중순까지의 장마철입니다. 이 시기 하세데라 절은 약 3,000 송이의 수국이 만개해 진한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아름답게 물듭니다. 감상 명소 중 하나는 아라시노사카(폭풍의 언덕)라고 불리는 돌계단입니다. 계단 양쪽에는 키 큰 수국나무가, 특별 행사 기간에는 약 300 개의 수국 화분이 전시되어 색색의 꽃들이 길을 물들여 장관을 이룹니다.

아라시노사카는 비탈면을 따라 붙어오는 차가운 산바람(야마오로시)으로 인해 붙은 이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궁중 귀족이자 저명한 시인인 미나모토노 도시요리(1055~1129)의 짝사랑에 관한 유명한 시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시에서는 한 방문객이 짝사랑하는 여인의 애정을 얻기 위해 하세데라 절(당시에는 하쓰세라고 불림)을

찾아가 기도하지만, 그녀는 그를 더욱 차갑게 대합니다.

우카리케루
히토오하쓰세노
야마오로시요
하게시카레
이노리라누모노오

괴롭구나
마음이 없는 그 이가
하쓰세의 산바람과도 같이
더 매서워지게 해달라는 것은
기도한 적이 없었던만...

017-010

<日本語仮訳>

花のお寺

長谷寺は「花の寺」として知られている。以下に挙げる景勝地は、ただ花で知られているだけでなく、寺の色彩やかな歴史や伝説を反映している。

牡丹の献花

境内には約 7,000 本の牡丹が植えられており、特に屋根付き階段と本坊（僧侶の住居）周辺に多く見られる。見頃は 4 月から 5 月だが、冬に咲く品種もある。境内全体では約 150 種類の牡丹が栽培されている。

長谷寺の牡丹は、唐王朝の時代の皇帝の妃である馬頭夫人（ばとうふじん、直訳：「馬の頭の婦人」）が送った種から育てられたと伝えられている。

伝説によれば、馬頭夫人の長い顔と鼻は馬に似ていたが、彼女は優しく優雅な女性であった。皇帝は馬頭夫人の人柄に魅了され、彼女は皇帝の唯一の寵愛の対象となった。これに対し、他の妃たちは嫉妬から馬頭夫人の醜さを暴き出そうと画策した。昼間に宴会を開くことで、皇帝に彼女の不細工な顔をはっきりと見せようとしたのである。

馬頭夫人は医者助けを求めたが、どんな薬も彼女の容貌を変え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そこで彼女は、奇跡の力を持つ慈悲深い菩薩である長谷寺の観音様に祈るよう教えられた。馬頭夫人は七日七晩、遠くから祈り続けた。すると、僧侶の衣をまとった神聖な姿が彼女の前に現れた。その人物は馬頭夫人の顔に香油を注ぎかけると、彼女の顔立ちは瞬く間に内面の美しさを映し出した。

宴席で、馬頭夫人は称賛を浴び、皇帝の愛情はさらに深まった。感謝の印として、馬頭夫人は様々な宝物と牡丹の種を小舟に乗せ、海に流した。彼女の祈りが届いたおかげで、その供物は長谷寺にたどり着いた。

小さな祠が、馬頭夫人を祀るために鐘樓の東側にある。

アジサイと嵐の坂

アジサイの見頃は梅雨の時期、5月下旬から7月中旬にかけてだ。これらの月には、長谷寺には約3,000株のアジサイが咲き誇り、鮮やかな青、ピンク、紫で彩られる。最も見事な鑑賞スポットの一つが「嵐の坂」と呼ばれる石段だ。両側に生い茂るアジサイの茂みが、特別行事時には約300鉢のアジサイが飾られ、色とりどりの花々が連なる滝のように道全体を彩る。

嵐の坂は、斜面を吹き下ろす冷たい山風（やまおろし）に因んで名付けられた。この現象は、廷臣であり名高い歌人である源俊賴（1055–1129）による片想いを詠んだ有名な歌の題材となった。その歌では、巡礼者が女性の愛情を祈願するため長谷寺（当時は初瀬と呼ばれていた）を訪れるが、彼女はかえって冷たくあしらうという。

うかりける	“つらい、心ないあの人を
人を初瀬の	初瀬の
山おろしよ	山おろしのように
はげしかれ	もっと激しくなれと
祈らぬものを	祈らなかったのに”

Translation by Joshua S. Mostow in *Pictures of the Heart: The Hyakunin Isshu in Word and Imag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6).

【タイトル】 長谷寺/長谷寺に見る神仏習合

(三社権現社よりタイトル変更予定)

【想定媒体】 看板/アプリQRコード/Web

<韓国語>

하세테라(長谷寺) 절의 신도 요소

공존하는 신념의 역사

하세테라(長谷寺) 절은 신의진언종 풍산과의 본산이지만, 이곳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전통에는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神道)의 요소도 섞여 있습니다. 일본에서 불교는 6세기부터 널리 퍼지면서 도착 신도 신앙 및 관습과 공존해 왔으며, 종종 서로 섞이기도 했습니다. 신사가 불교 사찰 경내에 세워지는 일도 잦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으며, 신도의 신과 불교의 신을 나란히 모시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들은 두 종교 모두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서면서 혼란에 빠졌는데, 1868년 신도를 격상시키고 불교와 분리하려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반불교 정서가 일본 전국을 휩쓸면서 많은 사찰의 토지가 몰수되고 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세테라 절은 이러한 파괴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경내에 신도 요소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세테라 절의 신자들은 불교의 신과 신도의 신 모두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신도의 신이 거처하는 곳

지붕이 덮인 계단 아래쪽의 두 기둥에는 ‘모든 부처가 명상하고 모든 천신들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새겨진 목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하세테라 절의 기록에 나오는 직접 인용문으로, 신도의 신인 ‘자오곤젠’이 하세 지역을 신성한 공덕의 땅으로 선포하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자오곤젠은 신도, 불교, 산악 수행주의의 여러 측면이 결합된 일본 전통 종교인 ‘슈겐도(修験道)’의 주요 신 중 하나입니다. 하세테라 절에서는 지붕이 덮인 계단 중간쯤에 위치한 자오당에 자오곤젠이 모셔져 있습니다.

본당 동쪽 언덕에는 ‘산샤 곤젠’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작은 신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세 지역의 수호신인 ‘다키노쿠라곤젠’, ‘신구곤젠’, ‘이와쿠라곤젠’을 모십니다. 매년 2월이면 인근 주민들은 술과 떡을 공양하고 각 신사의 신성한 금줄(시메나와)을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신도의 전통은 본당 내부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일부 불상 앞에는 둥근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거울은 신사에서 신을 상징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십일면관음보살 양 옆에는 이러한 거울을 든 신이 서 있습니다. 바로 우호 동자와 난다 용왕입니다. 둘 다 불교의 신이지만, 신도의 신이라는 제 2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부동명왕을 보좌하는 팔대동자 중 하나인 우호 동자는 신도의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팔대용왕 중 하나인 난다 용왕 또한 유력한 후지와라 가문의 수호 신사인 가스가타이샤의 신들이 현현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日本語仮訳>

長谷寺における神道の要素

共存する信仰の歴史 長谷寺は真言宗豊山派の本山であるが、ここで実践される宗教的伝統には神道の要素が含まれている。6世紀に普及して以来、日本の仏教は土着の神道信仰や慣習と共存し、しばしば混交してきた。仏教寺院の境内に神社の建立が頻繁に行われ、その逆もまた然りであった。神道の神々と仏教の神々が並んで祀られることも珍しくなく、多くの神々が両信仰において崇敬の対象となっていた。

この関係は明治時代（1868–1912）に混乱に陥った。1868年に神道を仏教から切り離すための新たな国家政策が実施された。その後数年間、国を席卷した反仏教的な風潮により、多くの寺院が土地を没収され、宝物を破壊された。長谷寺はこうした破壊を免れただけでなく、境内の神道的な要素を維持した。今日、長谷寺の信徒たちは仏教と神道の両方の神々を崇拝し続けている。

仏と神が鎮座する地 屋根付き階段の下にある二本の柱には、「諸佛経行砌」、「諸天神祇在」と刻まれた木札が掲げられている。これは長谷寺縁起記に記された、蔵王権現が長谷の地を聖なる功德の地と宣言した言葉の直接引用である。蔵王権現は、神道、仏教、山岳修行の要素を組み合わせた宗教伝統である修験道の中心的神の一柱である。長谷寺では、屋根付きの階段の中腹に位置する蔵王堂に祀られている。

本堂の東側の丘には、三社権現と呼ばれる三つの小さな神社が並んでいる。ここには長谷地域の守護神である瀧蔵権現、新宮権現、石蔵権現が祀られている。毎年二月には、近隣の住民が酒や餅を供え、各神社の神聖なしめ縄を新しいものと取り替える。

神道の伝統は本堂内にも反映されており、仏教の仏像のいくつかには丸い鏡が前に置かれている。このような鏡は神社の神々を表すためにしばしば用いられる。十一面観音の傍らには、このような鏡を持つ二柱の神が立っている。雨宝童子と難陀龍王である。彼らは仏教の尊像ではあるが、神道の神としての第2の身分も持つ。不動明王を補佐する八大童子の一人である雨宝童子は、同時に太陽神・天照大神がとった姿でもある。八大龍王の一人である難陀龍王は、強大な藤原氏の氏社（守護神社）である春日大社の神々がとった姿でもある。

【タイトル】 長谷寺/五重塔

【想定媒体】 看板/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오충탑**

하세데라(長谷寺) 절의 오충탑은 제 2 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파괴된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일본 전국 300 만 명의 기부자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54 년에 세워진 탑으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 세워진 최초의 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탑은 쇼와 시대(1926~1989)에 만들어졌으므로 ‘쇼와 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은 불교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성한 유물, 경전 또는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탑에는 우주를 나타내는 부처인 대일여래의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갈색 삼나무 껍질로 만든 지붕널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탑은 사찰 경내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언덕 중턱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낮은 오충탑입니다.

<日本語仮訳>**五重塔**

長谷寺の五重塔は、第二次世界大戦による破壊の後、世界平和の記念碑を建立したいと願った全国三百万人の寄付者の願いを反映している。1954年に建立され、戦後に日本で最初に建てられた五重塔という特徴を持っている。この塔は、建立された時代である昭和（1926-1989）にちなんで「昭和の塔」という愛称で親しまれている。

仏塔は仏教寺院に多く見られ、通常は聖なる遺物、経典、または仏像を祀る。この塔には宇宙の仏である大日如来像が祀られている。茶色の檜皮葺きの屋根は周囲の自然景観と調和しており、境内どこからでも塔が見えるように敷地が選ばれた。山腹の景観の中でひととき目を引く存在であるが、長谷寺の塔は日本国内で二番目に低い五重塔である。

【タイトル】 長谷寺/蔵王堂

【想定媒体】 看板/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자오(蔵王)당**

자오(蔵王)당은 신도, 불교, 산악신앙의 요소를 결합한 ‘슈겐도(修験道)’라는 수행 종교의 중심적인 신 중 하나인 ‘자오곤젠’을 모시는 곳입니다. 자오곤젠은 남쪽으로 약 18.5km 떨어져 있는 요시노 지역의 신성한 긴푸센(金峯山) 산의 수호신입니다.

자오곤젠은 하세테라(長谷寺) 절이 창건되기 이전의 하쓰세야마 산에 자주 나타났다고 여겨집니다. 사찰 기록에 따르면, 자오곤젠이 하쓰세야마 산을 신성한 장소로 선포하여 이것이 훗날 이곳에 사찰을 창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오곤젠은 요시노와 연결된 황금 다리를 건너 하쓰세야마 산으로 갔으며, 그는 매일 이 길을 따라 하세테라 절의 관음보살상에 기도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17 세기에 자오곤젠이 방문할 때 그를 모시기 위한 장소로 지어졌습니다.

자오당에는 거의 똑같이 생긴 자오곤젠상 세 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각각의 자오곤젠상은 자오곤젠이 현현하는 신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과거를 상징하는 역사적 부처인 석가모니가 중앙에, 현재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이 오른쪽에, 미래를 상징하는 미륵이 왼쪽에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 모두에서 자오곤젠은 마치 도약 도중 멈춘 듯한 역동적인 자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짙은 파란색 피부에 곤두선 머리카락과 위풍당당한 모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세력을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오른손에는 삼고저를 들고 있는데, 삼고저는 불법의 불멸성과 악을 소멸시키는 힘을 상징합니다. 자오당 밖에 있는 돌로 만든 커다란 삼고저는 만지면 재앙을 막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집니다.

<日本語仮訳>**蔵王堂**

この堂は、神道、仏教、山岳信仰の要素を組み合わせた修験道と呼ばれる修行における中心的な神の一柱である蔵王権現を祀る。蔵王権現は、南へ約 18.5 キロメートル離れた吉野地域にある聖なる峰、金峯山の守護神である。

彼はまた、長谷寺が建てられる以前から初瀬山に頻繁に現れていたと信じられている。寺伝によれば、蔵王権現は初瀬山を聖地であると宣言し、これが後にここに寺院を建立する動機となった。権現は吉野と結ぶ黄金の橋を渡って初瀬山に至ったとされ、毎日この道を辿り、長谷寺の観音像参拝に赴くと伝えられる。この堂は 17 世紀に、権現の巡礼時に祀るための場所として建立された。

蔵王堂には三体のほぼ同一の蔵王権現像が祀られている。各像は一体となって蔵王権現として現れる神

仏の三柱：過去を表す歴史上の仏である釈迦牟尼を中央に据え、右側に現在を表す観音、左側に未来を表す弥勒が配されている。

三つの表現すべてにおいて、蔵王権現は躍動感あふれるポーズ、まるで跳躍の瞬間を捉えたかのような姿で描かれている。彼は紺碧の肌を持ち、髪は逆立っている。彼の憤怒の相は、悟りの道を阻む悪しき勢力を退けるためのものである。右手に三叉の金剛杵（三鈷杵）を握る。この法具は仏法の不滅性と悪を滅する力を象徴する。堂外には石造りの巨大な三鈷杵が安置されており、これに触れると災いを払い幸運を招くと信じられている。

【タイトル】 長谷寺/観音大画軸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하세테라(長谷寺) 절의 대관음보살 두루마리(복제품)

하세테라(長谷寺) 절의 대관음보살 두루마리는 일본 나라현에 있는 하세테라 절의 본존을 거의 실물 크기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원본 두루마리는 제작된 지 500 년이 넘었습니다.

그림의 중심인물은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의 십일면관음보살상입니다. 이 그림의 바탕이 된 10m 높이의 불상처럼 관음보살은 석장과 꽃병을 들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도상은 ‘하세 관음보살’로 알려지게 되었고, 후대의 작품들에서도 자주 모방되었습니다. 관음보살 양옆에는 두 명의 협시가 있는데, 우호 동자(관람객 기준 왼쪽)와 난다 용왕(오른쪽)입니다.

727 년에 완성된 하세관음보살상 원본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당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원본은 소실되었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재건되었습니다. 1495 년에 이러한 복제품 제작을 돕기 위한 설계도로 이 두루마리가 제작되었습니다. 불상과는 달리 두루마리는 운반하고 전시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 두루마리는 일본 전역에 불교를 전파하는 데 쓰이는 시각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세 관음보살이 널리 명성을 얻게 된 이유 중 일부입니다.

이 복제품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졌으므로 운반을 위해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종종 관음보살의 실물 크기 발 모형과 함께 전시되어 신자들이 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신과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게 한다고 여겨집니다.

원본 두루마리와 복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QR 코드를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語仮訳>
長谷寺大観音 掛軸（複製品）

長谷寺大観音立像掛軸は、奈良県長谷寺における本尊をほぼ等身大で描いた作品である。原画は500 年以上前のものとなる。

巻物の中央には、長谷寺本尊十一面観音菩薩が描かれている。この画の基となった 10 メートルの像と同様に、観音は錫杖と花瓶を手にしている。この特有の図像は「長谷観音」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り、後の作品でもしばしば模倣された。観音の両脇には、童子（拝観者から見て左）の雨宝童子と龍王（右）の難陀龍王という二体の従神が配されている。

727 年に完成した初代の長谷観音像は、数多くの靈験がそれに帰せられている。悲劇的なことに、本堂で火災が発生した際に焼失し、歴史の中で幾度も再建を余儀なくされた。1495 年に、これらの再製作を助けるための設計図としてこの掛軸が制作された。本尊とは異なり、この掛軸は移動・展示が可能であったため、後に日本各地で仏教を説く際の視覚教材として用いられた。これが長谷観音が広く名声を得る一因となっている。

このレプリカの巻物は合成繊維製のため、運搬時に簡単に折りたたむことができる。参拝者が観音様の聖なる足に触れ、観音様との絆を深めると言われる慣習を行えるよう、十一面観音の足部の実物大模型

と共に展示されることがしばしばある。

原本の巻物とその複製方法について詳しく知るには、QRコードをスキャンしてください。

【タイトル】 長谷寺/観音大画軸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하세데라(長谷寺) 절의 대관음보살입상 두루마리**

하세데라(長谷寺) 절의 대관음보살 두루마리에는 하세데라 절의 본존인 십일면관음보살(자비의 보살)상이 거의 실물에 가까운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8 세기에 조각된 이 불상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승려들은 이 그림을 일본 전역으로 가지고 다니며 불상의 영험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은 한 손에는 염주와 석장을, 다른 한 손에는 꽃병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관음보살상을 묘사한 것은 하세데라 절의 관음보살상이 최초였으므로, 이 도상은 ‘하세 관음보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양쪽에 서 있는 협시는 시동인 우호동자(관람객 기준 왼쪽)와 난다 용왕(오른쪽)입니다. 두 신 모두 하세데라 절에 십일면관음보살상이 봉안될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두루마리의 역사와 물리적 특징

하세데라 절의 대관음보살 두루마리는 500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1495 년 화재로 초기 관음보살상이 소실된 후, 이 두루마리는 재건을 위한 설계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본래 430 장의 종이에 단순한 선으로 그려졌지만, 1665 년에 채색되어 표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루마리는 일본 전국 각지로 운반되어 전시될 수 있었고, 하세데라 절의 관음보살의 영험함을 알리는 데 중요한 시각 자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존 목적으로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는 16.46m, 너비가 6.22m 로 일본에서 가장 큰 그림 두루마리로 여겨집니다.

문화재 재현

2019 년에는 대관음보살입상 두루마리 원본을 고해상도로 스캔하여 복제본을 제작했습니다. 스캔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원본 두루마리의 무게는 125.5kg 에 달하여 15 명의 승려가 힘을 합쳐 사찰 경내를 가로질러 하세데라 절의 강당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그 후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부분별로 스캔했습니다. 작업은 이동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프레임에 매달린 맞춤형 스캐너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프레임을 설치해 스캐너를두루마리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한 번에 한 부분씩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작업은 3 일이 걸렸습니다.

복제본은 크기, 색상 및 세부 사항까지 원본을 충실하게 재현했습니다. 이 복제본은 가볍고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접으면 여행 가방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세데라 절의 승려들은 더 쉽게 두루마리를 국내외로 운반하고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루마리는 관음보살상의 발 모형과 함께 전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른발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은 관음보살이 적극적으로 중생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세데라 절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관음보살의 발을 만지는 형태의 예배를 통해 관음보살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원본 불상과 마찬가지로 복제품도 현재 사람들이 계속 만진 부분의 금박이 많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017-015

<日本語仮訳>

長谷寺大観音立像大画軸

長谷寺大観音大画軸は、同寺の主尊である慈悲の菩薩・十一面観音像（高さ 10 メートル）の、ほぼ等身大の絵を収めている。この像はもともと 8 世紀に彫られたもので、奇跡を起こしたと考えられていた。僧侶たちがこの二次元の複製を日本中に運び、像の霊験あらたかな効能を広めたのである。

観音は片手に数珠と錫杖（修道僧の杖）を持ち、もう一方の手には花瓶を捧げている。長谷寺に安置された像がこの属性で観音を描いた最初であったため、この図像は「長谷観音」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両脇に控える侍者は、稚児の侍者である雨宝童子（拝観者から見て左）と、龍王である難陀龍王（右）である。両神は、長谷寺に十一面観音像が安置された際、その場に居合わせたといわれている。

巻物の歴史と物理的特性 長谷寺大観音掛軸は 500 年以上前の作品である。1495 年に火災で以前の姿の観音像が焼失した後、再建のための設計図として制作された。当初は 430 枚の和紙に線画のみで描かれていたが、1665 年に彩色され額装（マウント）された。これにより全国への巡礼展示が可能となり、長谷寺観音の霊験を広める重要な視覚資料となった。現在は保存の目的で収蔵庫に保管されている。

原画の巻物は長さ 16.46 メートル、幅 6.22 メートルである。日本最大の図解入り画軸と考えられている。

文化財の再現 2019 年、長谷寺大観音立像掛軸の複製が、原画の高解像度スキャンを用いて印刷された。このスキャン画像の取得には、かなりの肉体労働を要した。

原本の巻物は重量 125.5 キログラムあり、15 人の僧侶チームが寺境内を横断し、長谷寺の講堂まで運ぶ必要があった。その後、巻物は慎重に広げられ、部分ごとにスキャンされた。この作業には、専用フレームに吊り下げられた特注スキャナーが用いられた。このフレームはスキャナーを左右に誘導し、巻物を横断しながらデータを部分ごとに収集した。全工程には 3 日間を要した。

複製版は原画と同じ寸法、色彩、細部まで忠実に再現されている。軽量で合成繊維製のため折り畳むことができ、スーツケースに収納可能だ。これにより長谷寺の僧侶たちは画軸を国内外へ容易に運搬・展示できるようになった。

画軸はしばしば観音像の足部の立体レプリカと共に展示される。この足部が重要な理由は二つある。第一に、右足がわずかに前方に踏み出されており、観音様が積極的に救いの手を差し伸べる姿勢を示している点である。次に、この複製は、長谷寺を訪れることができない人々が、観音との絆を深めると言われる礼拝

形式で、観音の足に触れることを可能にする。本尊と同様に、この複製も繰り返し触られることで金箔の大部分が剥がれ落ちている。

【タイトル】 長谷寺/長谷寺縁起絵巻 6 巻本

【想定媒体】 看板、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

하세데라 절 창건사 그림 두루마리

《하세데라 엔기 에마키(하세데라 절 창건사 그림 두루마리)》는 하세데라 절의 설립 과정을 묘사한 총 여섯 개의 두루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일반 방문객들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찰의 역사를 전합니다.

두루마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펼쳐서 읽습니다. 이야기는 33 개의 생생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식적인 안개구름은 장면 전환을 나타냅니다. 묘사된 장면의 수는 사찰의 본존이자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의 33 가지 현현과 일치합니다. 두루마리 그림의 전체 길이는 약 53.8m 입니다.

그림은 궁정 화가인 도사 미쓰모치(1496~?)의 작품입니다. 미쓰모치의 장식적인 구도, 섬세한 선 처리, 표현이 풍부한 캐릭터는 하세데라 절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십일면관음보살상 제작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여러 신과 역사적 인물들이 관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長谷寺縁起絵巻

長谷寺縁起絵巻は、長谷寺の創建を描いた六巻からなる巻物である。子供を含む一般の参拝者にも分かりやすく、親しみやすい形で寺の歴史を伝えている。

巻物は右から左へ広げて読む。そこに描かれる物語は三十三の鮮やかな場面で構成され、様式化された霧の雲が場面転換を示す。場面の数は、この寺の本尊である慈悲の菩薩・観音の三十三の化身に一致する。巻物の全長は約 53.8 メートルである。

巻物は宮廷画家・土佐光茂（1496-?）によって描かれた。光持の装飾的な構図、繊細な線描、表現豊かな人物描写が長谷寺の歴史を生き生きと伝えている。物語の大半は、十一面観音像の建立と、いかに多くの神々や歴史的人物たちが、その過程に関わったかを中心に展開している。

【タイトル】 長谷寺/長谷寺縁起絵巻 6 巻本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하세테라 절 창건사 개요****두루마리 제 1 권**

1 권에서는 하세테라(長谷寺) 절의 역사에 중요한 세 명의 역사적 인물, 스가와라노 미치자네(845~903), 도묘(생물년 미상), 도쿠도(656~735)를 소개합니다. 미치자네는 저명한 관료이자 시인, 학자였습니다. 사망 후에는 학문과 예술의 수호신인 ‘텐진’으로 숭배받게 되었습니다. 도묘는 현재 하세테라 절의 전신인 모토하세테라 절을 창건한 승려입니다. 도쿠도는 도묘의 제자였습니다. 1 권에서 소개되는 사건들은 훗날 '하세'라고 불리게 될 하쓰세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장면 1

미치자네는 책상에서 잠이 들었다가 긴푸센(金峯山)이라는 신성한 산의 수호신인 ‘자오곤젠’으로부터 신탁을 받습니다. 이 꿈에서 자오곤젠으로 세 화신은 황금 다리를 건너 미치자네에게 나타나 이렇게 전합니다. “하쓰세는 많은 천신들이 거처하는 공덕의 장소이니라.” 이 계시는 미치자네에게 영감을 주어 하세테라 절의 창건사를 집필하게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림들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장면 2

북방의 천왕 비사문천이 들고 있던 불탑이 강에 빠져 떠내려가 하쓰세에 이르렀습니다. 300 년 후, 도묘는 그 탑을 발굴하여 모토하세테라 절에 세웠습니다. 도묘는 덴무 천황(631~686 추정)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제작한 청동판인 ‘법화경 설법도’ 앞에 서 있습니다.

장면 3~8

도쿠도는 태어나 나중에 승려로 출가합니다. 도쿠도가 수행에 매진하는 동안, 황금색 빛이 그를 북쪽 하쓰세야마 산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도쿠도는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상을 조각해야겠다는 영감을 얻습니다. 도쿠도는 도묘에게 불상을 만들 신성한 나무를 찾고 있다고 전합니다.

두루마리 제 2 권**장면 9~13**

도쿠도는 대홍수 이후 오쓰(현재 시가현 비와 호수 연안 도시) 지역 연안으로 밀려온 신성한 녹나무에 대해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베려고 하자 화재와 역병이 발생했고, 결국 나무는 하쓰세에 버려졌습니다. 도쿠도는 나무의 신기한 힘을 선한 힘으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그 나무를 십일면관음보살상으로 조각합니다. 나무의 수호신도 구름을 타고 나타나 하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제 3 권**장면 14~17**

도쿠도는 나무를 요키 산(현재의 텐진산)으로 가져가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후지와라노 후사사키(681~737)라는 귀족이 우연히 기도를 듣게 되고, 황실에 불상 제작을 위한 재정 지원을 청원합니다.

장면 18, 19

승려는 나무를 정화시켰습니다. 보살들은 인간 조각가의 모습으로 나타나 단 사흘 만에 나무를 관음보살의 형상을 조각해 냅니다.

장면 20~23

도쿠도는 계시몽에서 하쓰세야마 산에 불상을 모시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고 불교 신들이 산의 모양을 바꾸어 관음보살의 발에 맞는 흙이 파인 돌 받침대를 드러냅니다. 도쿠도의 관음보살상을 세우고 싶다는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불상이 완성되자 그는 기뻐합니다.

두루마리 제 4 권

장면 24~26

저명한 승려 교키(668~749)가 불상을 봉안합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形形色색의 구름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꽃이 떨어지며, 관음보살의 이마에서 황금색 빛이 납니다. 그날 밤, 부동명왕의 사자인 팔대동자가 도쿠도를 찾아옵니다. 동자들은 하쓰세야마 산을 수호하고 관음보살의 신자들을 정도로 인도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장면 27

팔대동자 중 한 명이 교키를 방문하여 하쓰세가 신도(神道)와 불교 신들이 모이는 장소임을 밝힙니다.

두루마리 제 5 권

장면 28, 29

교키와 동자는 신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교키는 하쓰세야마 산과 인접한 요키산이 각각 불교의 금강계와 태장계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면 30, 31

교키는 관음보살상을 모실 불당을 지어 달라고 조정에 청원하고, 도쿠도는 불상의 제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을 합니다. 불당은 747 년에 완공되었고, 불상 봉안 의식이 열렸습니다. 하쓰세야마 산 전체에 천녀(天女)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두루마리 제 6 권

장면 32, 33

퇴위한 쇼무 천황(701~756)이 하세테라 절을 방문하여 직접 필사한 경전을 공양합니다. 수백 명의 승려들이 공양에 참석하고, 궁중 무용 부가쿠가 공연됩니다. 그날 밤, 쇼무 천황은 꿈에서 관음보살상을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 소수의 후원자나 승려들만이 가까이서 참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다음날 쇼무 천황은 승려들에게 관음보살상 앞에 비단 휘장을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017-017

<日本語仮訳>

長谷寺図説史 概要

第一巻

本章では、長谷寺の物語において重要な三人の歴史的人物を紹介する：菅原道真（845-903）、道明（生没年不詳）、徳道（656-735）。道真は著名な官僚、詩人、学者であった。死後、学問と

芸術の守護神である天神として崇敬されるようになった。道明は現在の寺の前身である元長谷寺を建立した僧侶である。徳道は道明の弟子であった別の僧侶である。本章の出来事は後に「長谷」と呼ばれるようになる初瀬地区で起こった。

シーン 1

道真は机で眠りにつき、金峯山と呼ばれる聖なる山の守護神である蔵王権現から神託を受ける。この夢の中で、蔵王権現の三つの化身が黄金の橋を渡って道真のもとに現れ、こう告げる。「初瀬は多くの天の御神々が住まれる功德の成就地なり」この啓示に触発された道真は『長谷寺縁起文』を執筆する。その詳細は以下の挿絵に描かれている。

シーン 2

北方の天王・毘沙門天が持つ仏塔が川に落ち、下流の初瀬へと流れ着いた。三百年後、道明が仏塔を発掘し、元長谷寺に安置する。道明は、天武天皇（ca. 631-686）の病氣平癒を祈願して制作したブロンズの飾り板である「銅板法華説法図（法華経説法図）」の前に立つ。

シーン 3～8

徳道は生まれ、後に出家して僧となる。徳道の修行（苦行）中、黄金の光が彼を北の初瀬山へと導く。そこで彼は慈悲の菩薩・観音像を彫る靈感を得る。徳道は道明に、像を彫るための聖なる木を探すことを伝える。

第二巻

シーン 9～13

徳道は、大津（現在の滋賀県にある琵琶湖畔の都市）で起こった壊滅的な洪水の後、岸辺に打ち上げられた神聖なクスノキの存在を知る。村人たちがその木を伐採しようとする火災と疫病が発生し、木は初瀬に運ばれ放置された。徳道は、この神木の霊力を善なる力へと転化すべく、十一面観音像を彫ることを決意する。神木の守護霊もまたこの巻に現れ、雲に乗って下界の出来事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

第三巻

シーン 14～17

徳道は木を与喜山（現在の天神山）に運び、そこで祈祷を行う。これを耳にした藤原の房前（681-737）という貴族が、仏像建立のための資金援助を朝廷に請願する。

シーン 18～19

木は一人の僧侶によって加持が行われた。複数の菩薩が人間の彫刻家の姿で現れ、わずか三日で観音像へと彫り上げる。

シーン 20～23

徳道は霊夢を見て、初瀬山に像を祀るよう示される。目覚めると激しい嵐が吹き荒れ、仏神たちが山の形を変えて、観音の足形にぴったり合うように形作られた溝を持つ石台を現す。観音像を建立したいという徳道の願いはついに叶い、像が完成すると彼は歓喜にわいた。

第四巻

シーン 24～26

高僧・行基（668-749）が像を供養する。その儀式中、五色の雲が現れ、天から花が降り注ぎ、黄金の光が観音の額から放たれる。その夜、徳道は不動明王の八大童子に訪れられる。童子たちは初瀬山を守護し、観音の信者を浄土へ導くと約束する。

シーン 27

八大童子の一人が行基を訪問し、初瀬が神仏両方の神々が集う場所であることを明かす。

第五巻

シーン 28～29

行基と童子は、神々を見ることができる世界に足を踏み入れる。そこで行基は、初瀬山と隣接する与喜山がそれぞれ仏教の金剛界と胎蔵界を表していることに気づく。

第六巻

シーン 32～33

聖武上皇（701-756）が長谷寺を訪れ、写経を供養した。数百人の僧侶が供養の法要に参列し、舞楽が披露された。その夜、聖武上皇は霊夢の中で、観音像を人目から隠すよう示される。これにより、貴族や僧侶のみが至近距離で拝観できる特権を改め、全ての民衆が平等に仏の存在を感じ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であった。翌日、聖武上皇は僧侶たちに命じ、観音像の前に絹の幕を垂れ下げるよう指示した。

【タイトル】 長谷寺/「だだおし」法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불교 의식 ‘다다오시’**

매년 2 월에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다가오는 한 해를 정신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7 일 동안 불교 의식이 거행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악령을 쫓아내고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다다오시’라는 의식을 합니다.

다다오시는 참회 의식, 본례, 악귀(오니) 쫓기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례 시간에는 십일면관음보살상에 신성한 보물을 봉안합니다. 보물 중에는 엄라대왕이 하세데라(長谷寺) 절 창건자에게 맡겼다는 인장이 있습니다. 이 인장은 부적에 날인을 하거나, 질병과 기타 액운으로부터 방문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이마를 상징적으로 찍는 데 사용됩니다.

본례가 끝나갈 무렵, 나각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빨강, 파랑, 초록 가면을 쓴 세 악귀가 등장합니다. 승려들은 도장이 찍힌 부적이 달린 의식용 지팡이를 차분하게 휘두르며 건물 내실에서 악귀들을 쫓아냅니다. 패배한 악귀들은 본당을 맴돌며 거대한 횃불을 든 자원봉사자들의 추격을 받습니다. 불꽃이 튀고 불씨가 사방으로 흩날리는 극적인 추격전 끝에 악귀들은 다음 음력 설날까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현재 다다오시는 매년 2 월 14 일에 정기적으로 공연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だだおし仏事**

毎年 2 月、人々の罪を赦し、心身を清め、新たな年への精神的な備えをするため、7 日間にわたる仏教儀式が行われる。最終日には「だだおし」と呼ばれる儀式が行われ、悪霊を追い払い、幸運を招き入れる。

だだおしは三部構成である：懺悔の儀式、本尊供養、そして鬼祓い。本尊供養では、十一面観音像に御宝物が奉納される。その中には、閻魔大王（仏教における地獄の主）が長谷寺開祖に託した御印も含まれる。この印章は御守りに押印するほか、参拝者の額に病や災いから守る印として象徴的に押される。

本堂の法要が終わりに近づくと、法螺貝と太鼓の音が響き渡り、赤・青・緑の面をつけた三体の鬼が現れる。他の僧侶たちは刻印された紙のお札をつけた儀式用の杖を静かに振り、内陣から鬼を追い出す。敗れた鬼たちは本堂をぐるりと回り、巨大な松明を掲げた志願者たちに追い立てられる。炎がはげ、火花が飛び散る劇的な追跡劇の後、鬼たちは次の旧正月まで闇の中へ退散していく。

ただおしは現在、定期的に 2 月 14 日に開催されており、来訪者の参加を歓迎している。

【タイトル】 長谷寺/本長谷寺

【想定媒体】 看板、アプリQRコード/Web

<韓国語>**모토하세데라(本長谷寺) 절**

모토하세데라(本長谷寺, ‘본래의 하세데라’라는 뜻) 절은 하쓰세야마 산에 세워진 최초의 사찰 터에 있는 소박한 목조 건물입니다. 최초의 하세데라 절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묘사한 부조 조각인 ‘법화설상도(훗케셋소즈)’를 봉안하기 위해 창건되었습니다.

법화설상도는 686년 불교 승려 도묘의 감독하에 제작된 동판으로 법화경 제 11장의 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가 군중에게 법화경을 설법하고 있을 때, 땅에서 보석으로 장식된 거대한 탑이 솟아오릅니다. 탑 안에서는 석가모니를 칭송하며 그의 가르침이 진실임을 선언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는 법화경이 설법될 때마다 나타나 그 진리를 보증하겠다고 서원한 다보여래의 목소리입니다. 동판에는 다보여래(왼쪽)와 석가모니(오른쪽)가 탑 안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상서로운 도상은 본래 병약한 덴무 천황(631~686 추정)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근처에 있던 3층 탑에 봉안되었으나 1876년 탑은 화재로 소실되고, 법화설상도 동판만이 무사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원본 동판은 현재 나라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복제품은 모토하세데라 절의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복제 명판은 금박이 덮여 있어 법화설상도가 처음 구조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日本語仮訳>**本長谷寺**

本長谷寺(「もとの長谷寺」の意)は、初瀬山に建てられた最初の寺院の跡を示す質素な木造建築である。その最初の寺院は、「法華説相図」(「法華經の説法の図」の意)と呼ばれるレリーフ彫刻(浮彫)を祀るために建立された。現在はその複製が本長谷寺に安置されている。

法華説相図は、686年に僧・道明の監督の下で製作された銅板である。法華經第十一品の場面を描いている。歴史上のブッダである釈迦牟尼が群衆に法華經を説いていると、巨大な宝塔が地中から現れる。塔内から釈迦を讃え、その教えが真実であると宣言する声が響く。これは多宝如来の声であり、彼は法華經が説かれる度に現れてその真実を証する誓いを立てていた。銅板には塔内に並んで座す多宝如来(左)と釈迦(右)が表現されている。

この吉祥な画像は、もともと病床にあった天武天皇(ca. 631-686)のために作られた。後に、近くに立っていた三重塔に安置されたが、1876年に塔は焼失。しかし法華説相図の銘板は無事であった。

国宝である元の青銅の銘板は、現在、奈良国立博物館に所蔵されているが、本長谷寺では窓越しに複製を見ることができる。この複製銘板は金箔で覆われており、法華説相図が最初に鑄造された当時の姿を伝えている。

【タイトル】 長谷寺/開山堂

【想定媒体】 看板、アプリQRコード/Web

<韓国語>

가이산도(開山堂, 개산당)와 서일본 33 개 순례지

가이산도(開山堂, 개산당)는 하세데라(長谷寺) 절 본당에 십일면관음보살상을 세운 불교 승려 도쿠도(656~735)를 기리는 곳입니다. 또한 가이산도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관음보살 순례지인 ‘사이고쿠 산주산쇼(서일본 33 개 순례지)’의 축소판 역할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쿠도가 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잠들어 있는 사이에 지옥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은 도쿠도에게 33 개의 인장을 맡기고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을 모시는 33 개의 사찰을 지으라고 명했습니다. 이 운명적인 꿈속 계시는 서일본 순례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정토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며 각 사찰을 방문하고 필사한 경전을 공양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봉납을 증명하기 위해 각 사찰 인장의 날인을 모았습니다.

이 순례길은 에도 시대(1603~1867)에 인기가 급증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세데라 절은 현재 1,000km 에 걸쳐 7 개 지역을 통과하는 순례길의 여덟 번째 순례지입니다.

물론 경이롭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이 순례 여정을 누구나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이산도에서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곳에는 33 개 사찰 순례길의 축소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당 앞쪽에는 33 개 사찰을 상징하는 관음보살상이 오색 밧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밧줄을 잡으면 상징적으로 순례를 완료한 셈이 되어 정토에 다시 태어나는 데 필요한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日本語仮訳>

開山堂（かいざんどう）と西国三十三所巡礼

開山堂は、長谷寺本堂に十一面観音像を建立した僧・徳道（656-735）を称える堂である。さらに、開山堂は国内最古の観音巡礼である西国三十三所（Saigoku Sanjūsansho）の縮図としての役割も担っている。

伝説によれば、徳道はかつて病に倒れ昏睡状態に陥った。眠っている間に、彼は仏教における地獄の主である閻魔の訪問を受けた。閻魔は徳道に 33 の印を託し、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に捧げる 33 の寺を建立するよう命じた。この運命的なビジョン（靈視）が西国巡礼の礎となった。巡礼者たちは各寺を巡り、手書きの経文を捧げながら、浄土に生まれ変わり、痛みや苦しみから解放されることを願った。その寄進の証として、巡礼者たちは各寺院の印章の押印（朱印）を集めたのである。

巡礼の人気は江戸時代（1603–1867）に急上昇し、今日でも参拝者を惹きつけている。長谷寺は現在の霊場の本尊における第八番目の巡礼地であり、この霊場の本尊は 1,000 キロメートルに及び、七つの都道府県を跨いでいる。

この重大でありながら肉体的に過酷な巡礼を完遂できる者は限られている。開山堂は、そうした人々へ代わりの選択肢を提供している。堂内には三十三ヶ所の霊場の本尊を縮小した像が置かれている。三十三ヶ所の各寺院を代表する観音像が、堂の正面に設置された五色の縄と繋がっている。この縄を握ることで、参拝者は象徴的に巡礼を完遂し、浄土往生の功德を得ることができる。

【タイトル】 長谷寺/朝の勤行、法要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하세테라(長谷寺) 절의 일상****아침 의식**

하세테라 절에서는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침 의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의식은 새해 첫날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열리며,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졌더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승려들은 본당에 모여 본존인 높이 10.18m의 십일면관음보살상 앞에서 경전을 낭송합니다. 하세테라 절의 승려들은 큰 목소리와 독특한 리듬으로 독경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염불은 커다란 북소리와 승려들이 바닥에 금속 고리를 달고 두드리는 석장의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우러집니다. 승려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저 높은 곳에 계신 관음보살의 귀에 닿도록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합니다.

독경이 끝나면 아침 의식 참여자들은 본당 외진으로 이동하여 요배(멀리서 참배하는 것)를 합니다. 승려들은 나란히 일렬로 서서 경내에 있는 불당과 하세테라 절을 둘러싼 산속의 사찰과 신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그곳에 모셔진 신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기도를 마친 승려들은 설법을 위해 본당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아침 일과는 일반적으로 최소 45 분 이상 계속됩니다.

4 월~9 월: 오전 6 시 30 분

10 월~3 월: 오전 7 시

등록은 행사 시작 30 분 전에 시작됩니다.

참가비 500 엔은 본관 접수처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불에 적합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 주십시오.

종과 나각 소리

사찰의 종은 흔히 시간을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곳에서도 그 점은 같지만, 하세테라 절에서는 종과 소라껍데기로 만든 나각(호라가이)이 함께 사용됩니다. 이러한 관습은 <마쿠라노소시(베갯머리 서책)>의 저자인 세이 쇼나곤(966~1025)의 저서에 묘사되어 있는데, 하세테라 절을 방문했을 때 정오에 갑자기 들려 온 나각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전 6 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사찰 종이 홀로 울려 퍼집니다. 정오가 되면 종과 나각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집니다. 저녁 8 시가 되면 나각 소리만이 울리며 하루의 끝을 알립니다. 종소리와 나각 소리는 계곡 전체에 울려 퍼지는데, 때로는 하세테라역에서도 들리곤 합니다.

종을 울리고 나각을 부는 일은 일반적으로 수행 중인 젊은 승려들에게 맡겨집니다. 정오 직전이 되면 승려들이 높은 계단 나막신을 신고 종루의 가파른 사다리를 재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각 불기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한 어려운 기술로, 종루 주변에 모인 많은 방문객들이 승려들을 응원합니다. 동영상 및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日本語仮訳>

長谷寺での日課

朝の勤行（あさのごんぎょう）

朝の勤行は、長谷寺で千年以上も続けられてきた。元旦を除く毎朝行われ、あらゆる宗教背景を持つ方々の参加を歓迎している。

早朝、長谷寺の僧侶たちは本堂に集い、高さ 10.18 メートルの十一面観音像という本尊の前で読経を行う。長谷寺の僧侶たちは、経文を唱える際の声の大きさと独特のリズムで知られている。その唱和には大きな太鼓と、金属の輪が地面に打ち付けられて鳴る錫杖（しゃくじょう）の響きが伴い、僧侶たちは、遥か高い場所にある観音様の耳に祈りが届くよう声を張り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

読経の後、参列者は本堂の外舞台に移動し、遥拝（遠くからの礼拝）を捧げる。僧侶たちは整然と列をなし、境内にある他の堂や長谷寺を取り囲む山々の神社に向かい、そこに祀られた神々へ敬虔に頭を垂れる。祈りが終わると、僧侶たちは本堂に戻り、法話を説く。

朝の勤行は通常少なくとも 45 分ほど続く。

4 月～9 月：午前 6 時 30 分

10 月～3 月：午前 7 時 00 分

受付は式典開始 30 分前より開始。

参加費 500 円は本堂受付にてお支払い。

宗教行事に参加するのにふさわしい、控えめな服装で。

鐘と法螺貝の音

寺では鐘が時刻を知らせるのに用いられる。長谷寺でも同様だが、鐘は法螺貝と共に用いられる。この慣習は『枕草子』の作者・清少納言（966–1025）の著述にも記されており、長谷寺を訪れていた際、正午に突然鳴り響く法螺貝の音に驚いたと記している。

午前 6 時、一日の始まりを告げるために寺の鐘だけが鳴る。正午には鐘と法螺貝が共に鳴らされる。そして午後 8 時、法螺貝だけが一日の終わりを告げる。鐘と法螺貝の音色が谷間に響き渡り、時には長谷寺駅まで聞こえることもある。

鐘や法螺貝を鳴らす役目は、通常修行中の若い僧侶に割り当てられる。正午直前になると、彼らは下駄を履き、鐘楼の急な梯子を軽やかに登っていく姿が見られる。法螺貝を吹くのはかなりの練習を要する難しい技であり、鐘楼の周りに集まる参拝客の多くが僧侶たちを声援で励ます。動画や写真の撮影は許可されている。

【タイトル】 長谷寺/ほら貝

【想定媒体】 看板、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

나각(호라가이)

소라껍데기로 만든 나각은 예로부터 종교적 목적, 군사 작전, 실용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나각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1 세기의 것이지만 아시아 대륙에서 불교문화가 전파된, 그보다 수 세기 전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교에서는 나각의 깊고 울림 있는 소리가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데 더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나각은 불교, 신도, 산악 수행의 여러 요소를 결합한 종교인 ‘슈겐도(修験道)’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슈겐도에서 나각은 수행자가 먼 거리에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오늘날 나각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하세데라(長谷寺) 절, 도다이지(東大寺) 절, 야쿠시지(薬師寺) 절 등 나라 시대(710~794)에 창건된 국가 지원 불교 사찰에서는 여전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세데라 절에서는 정오와 오후 8 시에 나각을 불어 시간을 알립니다. 또한 독경과 불교 의식에도 쓰입니다.

<日本語仮訳>

法螺貝 (ホラガイ)という巻貝の角笛

法螺貝と呼ばれる巻貝の角笛は、宗教儀式や軍事作戦、実用的な通信手段として古くから用いられてきた。日本における使用の最も古い文献記録は 11 世紀のものだが、その楽器は数世紀前にアジア大陸から仏教文化が伝来した際に導入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密教においては、法螺貝の深く響き渡る音色は歴史上の仏陀である釈迦牟尼の教えを表し、その音を聞く者は俗世の思いを清められ、より悟りを得やすくなるとされている。

法螺貝は、仏教、神道、山岳修行の要素を融合した宗教である修験道と深く結びついている。修験道において法螺貝は、修行者が長距離にわたって意思疎通を図るために欠かせない楽器である。

今日、法螺貝が使われることは稀だが、奈良時代（710–794）に建立された国営仏教寺院、例えば長谷寺、東大寺、薬師寺などでは今も聞くことができる。長谷寺では正午と午後 8 時の時刻を告げるために法螺貝が吹かれる。長谷寺での読経や仏事にも法螺貝が伴奏として用いられる。

【タイトル】 長谷寺/紀貫之と歌碑

【想定媒体】 看板、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기노 쓰라유키의 고향에 있는 매화나무**

기노 쓰라유키(868~945)는 정치가이자 저명한 시인으로, 일본 고전 문학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쓰라유키는 일본 최초의 황실 시집인 <고금화가집>의 주요 편집자 중 한 명이었으며,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한문으로 글을 쓰던 시대에 일본어 산문의 발전을 제창했습니다.

지역 전승에 따르면, 쓰라유키는 하세테라(長谷寺) 절과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쓰라유키는 열네 살에 교토의 황실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삼촌의 손에 자랐습니다. 몇 년 후 하세테라 절에 돌아오자, 삼촌은 쓰라유키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에 쓰라유키는 근처의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히토와 이사
고코로모 시라즈
후루사토와
하나조 무카시노
가니 니호히케루

사람이란, 글썄요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옛 마을에서는
꽃이 예전과 같이
좋은 향기를 냅니다

즉 ‘사람은 변해도 매화 향기는 언제나처럼 나를 반겨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쓰라유키의 삼촌은 이에 대한 답으로 시를 지었는데, 자신도 매화나무처럼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쓰라유키의 시는 나중에 13 세기에 편찬된 유명한 와카 시집인 <백인일수>에 수록되었습니다. 이 시에 영감을 준 나무는 죽고 말았지만, 후손 격인 나무가 자오당 옆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紀貫之の故郷の梅の木**

紀貫之(868-945)は、政治家であり名高い歌人であり、古典日本文学に多くの重要な貢献をした。貫之は日本初の宮廷詩歌選集『古今和歌集』の中心的な編纂者の一人であり、当時の知識人のほとん

どが漢文で執筆していた時代に、日本語による散文を提唱した。

地元の伝承によれば、貫之は長谷寺と深い縁がある。十四歳で京都の朝廷に入る前、叔父に育てられた場所である。数年後に貫之が長谷寺を訪れると、叔父はいかに久しぶりの来訪であるかを述べた。それに対し貫之は近くの梅の木を眺め、次の歌を詠んだ：

人はいさ	人はさあ、どうでしょうか。
心も知らず	お気持ちはわかりません。
ふるさとは	でも、昔なじみのこの土地では、
花ぞ昔の	梅の花が昔のまま
香ににほひける	いい香りをただよわせています。

つまり「人は変わっても、梅の香りは相変わらず迎えてくれる」という意味だ。貫之の叔父はこれに応えて、自分も梅の木ように変わらぬままであると詠んだ。こうして二人の友情は再び深まったのである。

貫之の歌は後に『百人一首』に収められた。この和歌集は 13 世紀に編纂された有名な歌集である。原木は枯れたが、この歌の題材となった梅の木の子孫が蔵王堂の脇に育っている。

【タイトル】 長谷寺/おこもり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

중세 일본의 사찰 방문

하세데라(長谷寺) 절의 십일면관음보살상은 적어도 10 세기부터 기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순례자들이 하세데라 절에 모여 관음보살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꿈속에서 신성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본의 민담 <지푸라기 장자> 또한 그러한 순례자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소년은 하세데라 절을 방문하여 관음보살상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몽을 꿀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려 합니다. 3 주 후, 한 승려가 소년의 꿈에 나타나 절을 나설 때 가장 먼저 만지는 물건을 집어 들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그 말을 따랐고, 그때 집어든 지푸라기 한 가닥을 점점 더 값비싼 물건들과 교환하게 되면서 마침내 큰 재산을 얻게 됩니다.

하세데라 절은 당시 황궁이 있었던 수도 교토에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으므로 많은 귀족들, 특히 귀족 여성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사회적 지위나 적절한 결혼과 같은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관음보살에게 기도했습니다. 특히 세간에 이름이 알려진 순례자들에게는 본당 내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병풍으로 만든 작은 공간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림막 덕분에 당시 상류 계층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순례자들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관음보살에게 소원을 올렸으므로 잠을 자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日本語仮訳>

中世日本の寺社巡礼

長谷寺にある十一面観音像は、少なくとも 10 世紀以来、奇跡と結びつけられてきた。あらゆる背景を持つ巡礼者が長谷寺に集い、観音のそばで夜を明かすことで、夢の中で神聖な導きを得られると信じていた。

民話『わらしべ長者』は、そんな巡礼者の一人を描いた物語である。物語の中で、一人の少年が長谷寺を訪れ観音像の前で祈りを捧げ、霊夢を授かるまでその場を離れようとしなかった。三週間後、夢の中で少年の前に現れた僧侶は「寺を出る時、最初に触れたものを拾え」と告げる。主人公はその言葉通り、見つけた一本の藁を次々と価値の高い品物と交換し、ついに莫大な富を受けられるに至った。

長谷寺は京都の都からわずか数日の旅路にあったため、多くの貴族、特に女性たちが、社会的地位の向上や良縁といった現世利益（世俗的な利益）を求めて観音様に祈願に訪れた。特に身分の高い巡礼者には、本堂の内舞台に屏風で作られた小さな囲いが設けられた。この囲いは、上流階級の人々が周囲の目を気にせず休むことを可能にした。しかし他の参拝者たちが夜通しおしゃべりしたり、声を出して祈った

り、観音様に願い事を捧げたりするため、眠るのはおそらく困難であっただろう。

地域番号	018	協議会名	西ノ京地域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解説文一覧

NO.	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18-001	薬師寺/法相宗	596	看板/Web
018-002	薬師寺/薬師寺における写経	580	看板/Web
018-003	薬師寺/写経体験	985	看板/Web
018-004	薬師寺/写経道場	514	看板/Web
018-005	薬師寺/舍利和讃（東塔の心柱を削り取った木片を使った用紙の写経）	596	看板/Web
018-006	薬師寺/般若心経	627	看板/Web
018-007	薬師寺/薬師経	501	看板/Web
018-008	薬師寺/唯識三十頌	591	看板/Web
018-009	薬師寺/細川護熙と慈恩殿の壁画	592	看板/Web
018-010	薬師寺/壁画：東と西の融合	1125	看板/Web
018-011	薬師寺/慈恩殿	889	看板/Web
018-012	薬師寺/祚蓮・行基像坐像	1039	看板/Web
018-013	薬師寺/東塔：水煙相輪装飾	491	看板/Web
018-014	薬師寺/東塔：相輪の基部	602	看板/Web

【タイトル】 薬師寺/法相宗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법상종(法相宗)

일본에서 법상종(法相宗)으로 알려진 유가행파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종파 중 하나입니다. 유가행파의 가르침은 5 세기경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 세기에 일본에서 현장 삼장(삼장법사)으로 알려진 중국의 승려 현장(602~664)은 17 년에 걸친 인도 여행을 마치고 650 년에 유식의 가르침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이 중국어로 번역한 유식의 가르침은 법상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법상종은 중국에서 현장의 가르침을 받은 일본 승려 도쇼(629~700)를 통해 일본에 소개되었습니다.

법상종은 의식의 본질과 그 다양한 형태, 그리고 의식이 현실 인식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탐구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의식과 그들이 내리는 선택이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각자의 세계관은 고유한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또한 의식을 ‘말나식’과 ‘아뢰야식’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했습니다. 말나식은 자아에 집착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아뢰야식은 행위, 경험, 전생이 업의 종자(산스크리트어: bīja) 형태로 저장되는 곳으로, 이것이 현생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두 가지 모두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마음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는 선종을 비롯한 후대 불교 종파에 큰 영향을 끼친 개념입니다. 법상종 사상에서는 자신의 의식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日本語仮訳>

法相宗

日本の仏教宗派の中で最も古い歴史を持つうちの 하나가、法相宗です。これは、5 世紀頃のインドに起源を持つ瑜伽行唯識学派が日本に伝わったものです。7 世紀、日本では玄奘三蔵として知られる中国の僧侶、玄奘（602–664）は、17 年間にわたるインドへの旅に出て、650 年に唯識の教えと共に中国へ帰国しました。玄奘が中国語に訳した唯識の教えが、法相宗の礎となったのです。法相宗が日本に伝来したのは、日本人僧侶の道昭（629–700）によるものです。道昭は中国で玄奘のもとで学びました。

法相宗の教えは、意識の性質、その様々な形態、そしてそれが私たちが現実を認識する方法において果たす役割を探求することにあります。唯識派の教えでは、人々の意識と彼らの選択が、外の世界に対する認識を形作ることを説いています。なぜなら、一人ひとりの世界に対する認識は、彼ら自身の独自の経験から生まれるため、ある人にとって真実だと感じられることが、別の人にとってはそうではない場合があるからです。また、この教義には「末那識」と「阿頼耶識」という 2 つの識があります。末那識は、自己に執着し、世界の見方に影響を与えます。阿頼耶識は、行為、経験、そして過去の生涯が、カルマ的な「種子」（サンスクリット語名：bīja）という形で蓄えられる場所であり、これがその人の人生の出来事に影響を与えます。この二つの識は、現実を形作る上での心の役割を強調しており、これは後に禅宗を含む仏教の諸派に大きな

影響を与える概念となりました。法相宗の思想では、自分自身の意識を注意深く観察し、理解することを通してニルヴァーナに達することができると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薬師寺/薬師寺における写経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야쿠시지 절(약사사)의 사경**

경전을 필사하는 수행인 사경은 6 세기에 불교와 함께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습니다. 대량 인쇄술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에는 경전을 손으로 필사해야 했으며, 이는 불교 교리를 널리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황실은 불교 교리 전파를 위해 경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필사할 전문 서기관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헤이안 시대(794~1185)에 이르자 경전 필사는 귀족들 사이에서도 신앙적인 수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2 세기에는 감색으로 염색한 종이에 금색 먹을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경전을 필사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이처럼 경전 필사는 수행의 한 형태이자 신앙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공덕을 쌓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경은 불교 수행의 한 형태로 여겨집니다.

야쿠시지 절은 한때 거대한 사찰 단지였지만, 16 세기 중반에 대부분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 신앙과 수행의 중심지 역할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68 년에 다카다 고인 주지(1924~1998)는 야쿠시지 절 재건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적인 사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카다 주지는 직접적인 기부 요청 대신 경전을 필사하고 바치는 데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다카다 주지는 경전 필사라는 명상적인 과정이 누구에게나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정신 건강의 증진, 자기 성찰, 마음의 평온, 또는 집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경전을 필사합니다.

<日本語仮訳>**薬師寺における写経**

経典を書き写すこと、すなわち「お写経」の実践は、6 世紀に仏教とともに中国から日本へ伝わりました。大量印刷技術が存在しなかった時代、経典は手で書き写さなければならず、仏教の教えを広く普及させる上で鍵となりました。朝廷は、この目的のために、迅速かつ効率的な写経を行う専門の写経生を雇用していました。しかし、平安時代（794~1185）に入ると、写経は貴族の間で信仰的な行いへと変わっていきます。12 世紀には、紺色の紙に金色のインクなど、豪華な材料を使って写経することが流行になるほどでした。写経は修行の一環であり、信仰心を表す方法であり、また功德を積む行いでもありました。今日でも、写経は仏教の修練の一種と考えられています。

16 世紀半ばまでに、薬師寺はその伽藍のほとんどを火災で失いました。しかし、仏教への信仰と修行の中心としての役割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続いてきました。1968 年、当時の管主であった高田好胤（1924-1998）は、薬師寺再建のための資金を集めるべく、全国的な写経勧進の運動を主導しました。高田管主は、単に寄付を募るのではなく、写経を行うのに小額の費用を納めてもらう方法をとりました。彼は、写経という瞑想的な過程が、誰にとっても有益であると考えたのです。

今日、多くの人々が精神的な安寧を求め、集中を通じて内省し、心を静め、自分自身を見つめ直すために写経を実践しています。

【タイトル】 薬師寺/写経体験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사경 체험**

야쿠시지 절에서는 신앙 및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분의 사경 체험을 환영합니다. 사경 소요 시간은 약 90 분입니다.

체험을 원한다면 사경 도장의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받아 사경할 경전을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전으로는 『반야심경(般若心經)』, 『약사경(藥師經)』,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 그리고 역사적 부처인 석가모니께 바치는 특별 경전인 『샤리와산(舍利和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선택한 경전의 인쇄본 위에 올려놓고 글자를 따라 쓸 수 있는 사경 용지를 받습니다.

사경 인쇄본과 사경 용지를 받으신 후에는 건물 안쪽에 있는 사경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 앞 탁자에 놓인 구리 용기에서 정향 하나를 꺼내 씹거나 통째로 삼킵니다. 정향은 몸을 속부터 깨끗하게 한다고 하여 기원전 300 년경 중국에서도 정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경실 안에는 목에 두르는 영대의 일종인 ‘와게사’가 있습니다. 와게사는 몸을 정화하고 사경에 앞서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코끼리 모양의 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향로를 넘는 행위는 사경을 하는 데 앞서 몸을 더욱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 안에는 필요한 사경 도구들이 마련된 책상이 가득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모든 전자기기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사경은 명상과도 같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불문하고 사경을 할 때는 진심을 담아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각 책상에는 먹 가는 법에 대한 안내문이 놓여 있습니다. 먹의 향긋한 냄새와 벼루에 먹을 가는 반복적인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명상하는 마음으로 사경에 임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직원에게 선택하신 경전을 받으신 후 사경 용지의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실수하지 않도록 천천히 따라 씁니다. 글자를 잘못 썼을 경우, 해당 글자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옆에 올바른 글자를 쓰면 됩니다. 경전의 마지막 행에는 원하시는 언어로 소원을 적을 수 있는 빈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적으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사경 용지는 들고 방 앞으로 나와 신성한 족자 앞에 바칩니다. 바칠 때는 사경 용지를 향로 연기 위에서 흔들며 정화하고, 쌓여 있는 경전 위에 올려놓습니다. 원한다면 경의의 표시로 목례를 하시거나 합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날에는 스님들이 본당의 약사여래 앞에서 독경을 하고, 봉헌된 사경에 적힌 성함과 소원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필사한 경전은 이후에도 절에서 보관합니다.

사경 도장은 연중무휴이며, 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른과 어린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写経体験（お写経）

薬師寺では、信仰や宗教を問わず、どなたでも仏教の写経を体験できます。所要時間は約 90 分です。

お写経道場の受付で申込用紙を受け取り、写経する経典を選びます。選択肢は、『般若心経』、『薬師経』、『唯識三十頌』、そして歴史上の仏陀である釈迦牟尼仏に捧げる特別な経典『舍利和讃』です。写経用紙を受け取り、これを、選んだ経典の印刷版の上に重ねて文字をなぞります。

写経用紙を受け取ったら、建物の奥にある写経室へ進みます。部屋の入り口前の台にある銅の容器から丁子の一つ取り、噛むか、あるいはそのまま飲み込みます。丁子を食すことは内側から身を清めると言われ、紀元前 300 年頃の中国でも浄化のために使われていました。

写経室に入ったら、首に掛ける輪袈裟があります。これは体の外側を清め、写経に取り組む心を整え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部屋の中央には象の形をした香炉があります。この香炉をまたぐことは、写経という作業のために体をさらに清めることになります。

机にはすべての道具が用意されています。席に着いたら、電子機器の電源をすべて切ってください。写経は瞑想的な行いであるためです。どのような信仰をお持ちでも、心を込めて誠実に写経に取り組むことが大切です。

墨の磨り方が説明されていますので、墨の香りを楽しみ、墨を硯に磨る反復的な動きに集中することで、瞑想的な作業として写経に取り組む心を整えます。係員から選んだ経典を受け取ったら、写経用紙に文字をなぞり始めます。右から左へ、上から下へと文字をなぞり、間違いを避けるために、ゆっくりと書き進めましょう。もし間違えた場合は、その文字の上に二重線を引き、隣に正しい文字を書き直します。経典の最後の数行には空白があり、そこに任意の言語で願い事を書くことができます。最後に日付と自分の名前を記入して完成です。

完成した写経用紙を持って静かに部屋の正面へ進み、聖なる掛軸の前に捧げます。香炉の煙の上で写経用紙をかざして清め、積み重ねられた山の上に置きます。希望すれば、お辞儀をしたり、合掌したりして敬意を表しても構いません。

翌日、僧侶たちは本堂で薬師如来を前に読経し、それぞれの写経に書かれた名前と願い事を読み上げます。写経用紙は、その後も寺に保管されます。

お写経道場は年中無休で、予約は不要です。大人も子供も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薬師寺/写経道場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사경 도장

사경 도장은 다카다 고인 주지(1924~1998)의 주도로 1972 년 건립되었습니다. 사경은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소실되었던 야쿠시지 절 금당의 재건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카다 주지는 1967 년 야쿠시지 절의 주지가 된 후 본격적인 사찰 단지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후원자가 없었던 야쿠시지 절은 일반 대중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카다 주지는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는 대신 후원자들이 소정의 보시금을 내고 직접 사경을 하면 절에 봉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카다 주지는 사경 100 만 권 봉납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경을 하길 원했지만, 야쿠시지 절에는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다카다 주지는 사경 도장이 재건 사업과 절 자체에 필수적인 시설이 될 것이라고 믿고 도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지는 신자들이 경전을 필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경 100 만 권 목표는 금당이 완공된 해인 1976 년에 달성되었습니다. 이 무렵 경전 필사는 야쿠시지 절의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야쿠시지 절의 사경 도장은 하쿠호 가람 복원과 같은 절의 다른 부분 수리 및 재건 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 필사실 밖에는 다카다 고인 주지를 기리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お写経道場

お写経道場は、高田好胤管主（1924–1998）の発案により 1972 年に建立されました。写経は、室町時代（1336–1573）に焼失した金堂をはじめとする伽藍の再建資金を賄う上で、薬師寺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

高田が 1967 年に薬師寺の管主に就任すると、彼は寺の本格的な復興事業を主導しました。有力な支援者を欠いていたため、薬師寺は一般の人々に援助を求めました。しかし、高田は単に寄付を募るのではなく、少額の寄付と引き換えに、支援者が写経を行い、それを寺に奉納する機会を提供しました。彼は 100 万部の目標を設定しました。

多くの参加者が薬師寺で写経をしたいと望みましたが、施設が不十分でした。そこで高田は、お写経道場を建設することを決意し、これが復興事業と寺そのものの両方にとって不可欠な存在になると考えました。また、参拝者が快適に写経に取り組める環境を提供したいとも願っていました。

高田が掲げた 100 万部の目標は、金堂が完成したのと同じ 1976 年に達成されました。この頃までに、写経は薬師寺の伝統としてしっかりと根付いていました。今日でも、お写経道場は白鳳伽藍の復興などの寺の他の修復や再建のための資金集めの柱となっています。高田好胤の献身を顕彰し、写経室の外には彼の像が建立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薬師寺/舍利和讃（東塔の心柱を削り取った木片を使った用紙の写経）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샤리와산(舍利和讃)

『샤리와산(舍利和讃)』은 석가모니불의 사리를 추앙하고, 그 본질, 즉 불교의 궁극적인 진리가 영원하다고 선언하는 시가입니다. 샤리와산의 샤리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의미하고, 와산은 불교 경전에서 흔히 쓰이는 산스크리트어나 중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쓰인 종교적인 시가의 한 형태입니다. 샤리와산은 장례식이나 고인의 임종 시에 자주 독송됩니다.

야쿠시지 절에서는 샤리와산의 사본만 동탑 2층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보이자 1,300 년의 역사를 지닌 동탑은 2020 년에 대대적인 해체 수리 공사를 마치고 복원되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벌레가 심주 아랫부분의 속을 파먹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심주의 썩은 부분은 교체 후 폐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쿠시지 절에서는 손상된 목재를 사경 용지로 만들어 역사 깊은 동탑에 남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목재는 일본 전통 종이 제조로 유명한 후쿠이현 에치젠시로 보내졌고, 사경 용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샤리와산 사경을 신청하시면 바로 이 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샤리와산 사경을 마친 종이는 다음 날 스님들이 약사여래에게 바치며 종이에 적힌 소원을 전합니다. 그 후 사경한 종이가 동탑에 봉안됨으로써 종이에 섞인 목재 조각들은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 동탑과 하나가 됩니다. 동탑에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어, 방문객이 사경한 종이는 여기에 봉납됨으로써 석가모니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샤리와산 사경 시 내는 보시금은 향후 동탑의 유지 보수 및 보존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日本語仮訳>

舍利和讃

『舍利和讃』は、歴史上の仏陀である釈迦牟尼仏の遺骨（仏舍利）を称え、その本質（サンスクリット語名：ダルマカーヤ）、すなわち仏教の究極の真理が永遠であると宣言する詩歌です。「舍利」は釈迦牟尼の遺骨を指し、「和讃」は、仏教經典の多くがサンスクリット語や中国語で書かれているのに対し、日本語で書かれた宗教的な詩歌形式を意味します。この和讃は、葬儀や臨終の床で読誦されることがよくあります。

薬師寺では、この舍利和讃の写経のみが、東塔の二階に納めら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国宝である築1,300年の東塔は、2020年に完了した大規模な解体修理により修復されました。その際、職人たちは心柱の根元が虫に食われて空洞になっているのを発見しました。腐朽した柱の部分は交換され、廃棄される予定でした。しかし、薬師寺は、損傷した木材を写経用紙の形にして歴史ある塔に留めることを提案しました。寺はその木材を、和紙の生産で有名な福井県の都市、越前に送り、そこで写経用の紙に生まれ変わりました。舍利和讃の写経を希望すると、あなたが使う紙がこの紙となります。

翌日、僧侶たちは写経された和讃を薬師如来に捧げ、そこに書かれたあなたの願いを伝えます。その後、和紙に漉き込まれた古材の木片が、もともとあった東塔に戻る形で、写経は塔内に納められます。仏塔は釈迦牟尼仏の墓を象徴し、この東塔には釈迦牟尼の仏舎利が実際に納められています。そこに『舎利和讃』の写経が納められることで、仏陀と個人的な縁を結ぶことができるのです。

『舎利和讃』の写経に納められた志納料は、東塔の今後の維持管理と保存に役立てられます。

【タイトル】 薬師寺/般若心経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반야심경(般若心經)

『반야심경(般若心經)』으로도 알려진 반야바라밀다심경은 단 266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전은 석가모니의 지혜의 완성에 대한 가르침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대승불교의 ‘공’과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2 세기에서 4 세기 사이에 인도에서 쓰였으며 일본에서는 현장 삼장(삼장법사)으로 알려진 중국의 승려 현장(602~664)이 650 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져온 수백 개의 산스크리트어 두루마리 경전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현장의 번역본은 일본에서 주요 경전으로 여겨지며, 야쿠시지 절에서 사경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불교 종파에서 가장 많이 낭송되는 경전이며, 그 간결함 덕에 야쿠시지 절의 사경 체험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경전에서는 제자 사리불이 석가모니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석가모니는 깊은 명상에 잠겨,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이 대신 이에 답합니다. 관음보살은 공의 가르침, 실상의 본질,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음보살은 만물이 공(空)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경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에 담긴 개념입니다. 관음보살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물, 사람, 관념 등 그 어떤 것도 독립적인 실체를 지닌다는 생각을 부정합니다. 관음보살은 이원론을 거부하며 탄생과 죽음, 존재와 무존재처럼 겉보기에 정반대인 것들이 모두 하나라고 말합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은 삶을 물질세계에 묶어두는 죽음과 환생의 순환, 즉 윤회로부터의 해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日本語仮訳>

般若心経

『般若心経』、正式には『般若波羅蜜多心経』として知られるこの経典は、わずか 266 文字のものです。それにもかかわらず、釈迦牟尼仏が説いた「智慧の完成」という教えの本質をとらえ、大乘仏教における空と悟りの概念を深く説いています。

この経典は、2 世紀から 4 世紀の間にインドで書かれました。日本では玄奘三蔵として知られる中国の僧侶、玄奘（602–664）が 650 年にインドから中国へ持ち帰った数百巻のサンスクリット語経典の一つです。玄奘が翻訳したこの経典は今なお日本で主要な版として用いられており、薬師寺で写経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奥深さから、仏教学者や一般の人々が何世紀にもわたり、その意味について論書や注釈を著してきました。『般若心経』は、東アジアや中央アジアの仏教宗派で最も多く唱えられている経典であり、その簡潔さから、薬師寺での写経でも人気のある選択肢となっています。

この経典では、弟子の舍利弗が、智慧を得る方法について釈迦牟尼に問いかけます。釈迦牟尼は深い瞑想に入ったままで、代わりに観音という慈悲の菩薩がその問いに答えます。観音は、空の教え、現実のあり方、そして悟りへと至る発見の旅について説き明かします。

観音は、いかにすべてのものが空であるかについて語ります。経典の中で最もよく引用される「色即是空、空即是色」という一文は、この概念をさらに展開しています。観音は、物体、人間、思想など、いかなるものも独立した実体を持つという考えを否定します。また、生と死、有と無といった二元論も否定し、これらは別々のものではなく、本質的に同じものであると述べています。経典の最後の真言は、物質世界に縛り付ける死と再生のサイクルである輪廻からの解脱を説いています。

【タイトル】 薬師寺/薬師経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약사경(藥師經)

『약사경(藥師經)』은 중국의 승려 현장(602~664)이 650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불교 경전 중 하나입니다. 정식 명칭은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즉 약사(의술의 부처)의 서원과 공덕에 관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야쿠시지 절에서 모시는 본존불인 약사여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 전승에 따르면 약사여래는 깨달음을 얻으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고, 장수를 베풀고, 두려움을 없애고, 재난을 막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부처인 석가모니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하겠다는 12가지의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약사여래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모두 치유하는 부처로 널리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부정직함, 의심, 분노,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포함되는데, 이는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약사경에서 석가모니는 초월적인 지혜를 지닌 문수보살에게 약사여래의 공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는 약사여래의 이름을 부르면 재앙을 막고 나라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약사경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지켜주는 경전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약사경의 축약본은 약 800 자입니다. 이 경전을 사경하면 병이 낫고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薬師經

『薬師經』は、650年に僧侶の玄奘三蔵（中国名：Xuanzang; 602-664）がインドから中国に持ち帰った仏教經典の一つです。正式名称は『薬師瑠璃光如来本願功德經』といい、薬師寺のご本尊である薬師如来について説かれています。

仏教の伝承によれば、薬師如来は十二大願を立てました。悟りを開いた暁には、病苦を和らげ、寿命を延ばし、恐怖を取り除き、災害をなくし、食料や衣服を与え、釈迦牟尼仏への信仰を深めることを誓いました。

薬師如来は、身体的な病気と精神的な病気の両方を癒す仏として広く尊崇されています。飽くなき欲望、不誠実、疑い、怒り、恨みといったネガティブな感情もまた、悟りへの妨げ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薬師經』の中では、釈迦牟尼が文殊菩薩に、薬師如来のこれらの功德について説いています。薬師如来の名号を称えて讃嘆することで、災害は防がれ、国に平和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と説いています。このため、

歴史的に国家を守護する経典として崇められてきました。

『薬師経』の略本は、およそ 800 文字ほどの長さです。この経典を写経することは、病からの回復や、健康の約束をもたらすと信じ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薬師寺/唯識三十頌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종파 중 하나인 법상종(法相宗)의 기본서입니다. 4 세기 또는 5 세기에 인도에서 쓰여 7 세기 중반에 중국의 승려 현장(602~664)이 산스크리트어에서 한문으로 번역했습니다. 본문은 총 600 자이며, 5 글자씩 4 행으로 구성된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식삼십송은 일정한 운율을 가진 운문 형식의 논서로, 법상종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형태의 의식 등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법상종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아뢰야식’과 ‘말나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뢰야식’은 기억, 경험, 인과와 관련이 있는 반면, ‘말나식’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그릇된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마음의 본질과 작용 방식, 의식과 마음이 어떻게 다양한 왜곡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경험이란 삶과 죽음처럼 단순한 대립 개념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매우 철학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나왔으며, 많은 불교학자들이 여전히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식삼십송은 자신의 의식을 이해함으로써 열반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식삼십송은 야쿠시지 절에서 필사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전 중 법상종 교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식과 마음에 관한 개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경전을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日本語仮訳>

唯識三十頌

『唯識三十頌』は、日本で最も古い仏教宗派の一つである法相宗の根本的な論書です。この論書は、4 世紀または 5 世紀にインドで書かれ、後に僧侶の玄奘三蔵（中国名：Xuanzang; 602–664）によって 7 世紀半ばにサンスクリット語から翻訳されました。この著作は、1 つあたり 5 文字の 4 行で構成される約 600 文字の作品です。

この詩的な論書は、私たちが世界を理解する方法に影響を与える、様々な識といった法相宗の核心的な概念を説いています。これには、法相宗の思想の基盤をなす「阿頼耶識」と「末那識」の概念が含まれます。阿頼耶識は記憶、経験、そして因果と結びついており、末那識は、悟りを妨げる自我意識と誤った認識と関連しています。

この偈頌は、心の性質とその働き、識と心がどのようにしてさまざまな錯覚を生み出すか、そして経験が、生と死のような単なる対立概念の幻想に過ぎないということを説いています。この論書の持つ難解な哲学的性

質から、様々な解釈が生まれ、多くの仏教学者は今なおその真の意味について議論を重ねています。この論書は、自身の意識の理解を通じてニルヴァーナに到達するための指針となります。

薬師寺で提供されている4つの写経用經典の中で、『唯識三十頌』は最も法相宗の教義と密接に関連しています。意識や心の概念に深く向き合いたいと考える人々におすすめの写経です。

【タイトル】 薬師寺/細川護熙と慈恩殿の壁画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호소카와 모리히로와 지온텐 벽화**

호소카와 모리히로(1938 년 출생)는 한때 구마모토번(지금의 구마모토현)을 통치했던 사무라이 가문의 호소카와 가문의 18 대 당주입니다. 호소카와는 신문 기자로 활동했다가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1993 년 일본의 제 79 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60 세에 정계에서 은퇴하고 예술에 전념하여 도자기, 서예, 유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2001 년에는 일본, 파리,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야쿠시지 절과 호소카와의 인연은 주지 다카다 고인(1924~1998)의 설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호소카와가 야쿠시지 절을 방문했을 때, 다카다 주지는 겐조산조인(현장삼장원) 탑 입구 위 현판에 새겨진 부동(不東)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동은 ‘동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일본에서는 현장 삼장(삼장법사)으로 알려진 중국의 승려 현장(602~664)이 인도로 떠날 때 한 맹세입니다. 성스러운 불교 경전을 찾을 때까지 동쪽(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 문구는 오늘날 인내와 흔들림 없는 결의를 상징합니다. 호소카와는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가나가와 작업실 이름을 후토안(부동암, 不東庵)이라고 지었습니다.

호소카와는 2020 년에 완료된 동탑 복원을 기념하기 위해 지온텐(慈恩殿, 자은전) 건물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동서양의 융합’이라는 제목의 이 벽화는 인도에서 동아시아로 전파된 불교와 실크로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日本語仮訳>**細川護熙と慈恩殿の壁画**

細川護熙（1938 年生まれ）は、かつて熊本藩（現在の熊本県）を治めた武家、細川家の第 18 代当主です。細川氏は当初、新聞記者として活動していましたが、後に政界へと転身しました。1993 年には第 79 代内閣総理大臣に就任しました。60 歳で政界を引退した後、陶芸や書、油絵など、様々な芸術分野に専念しました。2001 年には、日本、パリ、ニューヨークで初の個展を開催しました。

細川氏が薬師寺と縁を持ったのは、高田好胤管主（1924-1998）がきっかけでした。細川氏が薬師寺を訪れた際、高田管主は玄奘三蔵院の塔の入り口に掲げられた扁額に書かれた「不東」という言葉の意味を説明しました。「不東」というのは、日本では玄奘三蔵として知られる中国の僧侶、玄奘（602-664）がインドへ出発する際に立てた誓いです。それは、「聖なる仏教経典を見つけるまでは、決して東（中国）へ戻らない」という決意を表すものでした。この言葉は、今では不退転の決意や揺るぎない覚悟を象徴しています。細川氏は深く感銘を受け、神奈川の自らのアトリエを「不東庵」と名付けました。

細川氏は、2020 年に完了した東塔の修復を記念する慈恩殿のための壁画の制作を決意しました。この壁画は、『東と西の融合』（Higashi to nishi no yugo）と題され、シルクロードと、インドから東アジア

へと仏教が伝わった歴史から着想を得ています。

【タイトル】 薬師寺/壁画: 東と西の融合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벽화: 동서양의 융합**

‘동서양의 융합’이라는 제목의 이 벽화는 66 개의 패널, 총 113 장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길이는 157.72m 로 지온덴(慈恩殿, 자은전)의 벽면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1938 년 출생) 전 총리는 6 년에 걸쳐 이 벽화를 그렸으며 2019 년에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듬해에 완료된 동탑 복원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호소카와는 일본에서 현장 삼장(삼장법사)으로 알려진 중국의 승려 현장(602~664)이 불교 경전을 찾아 인도로 떠났던 여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현장은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법상종 철학의 기초가 되는 경전을 들여왔습니다. 벽화에는 현장의 험난한 대륙 횡단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벽화 중앙에는 석가모니불이 보리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리수는 석가모니가 아래에 앉아 명상을 했던 신성한 나무로,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부처의 왼쪽에는 공물을 들고 있는 신자들이 서 있는데, 그들 위에 그려진 끈으로 묶인 경전 두루마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처의 오른쪽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동물과 사람들이 고대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요한 베른하르트 슈타우트(1654~1712)가 작곡한 예수회 극 『무니에르 포르티스(Mulier fortis, 강인한 여인)』의 악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악보는 호소카와의 조상인 호소카와 가라샤(1563~1600)의 삶을 묘사하는 것으로, 가라샤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받은 끝에 자결을 강요당했습니다.

위쪽 패널과 천장의 그림은 불교의 낙원인 정토(淨土)를 묘사하는 것으로, 하늘을 나는 천녀(天女)를 비롯해 사람의 머리와 새의 몸통, 길게 뻗은 꼬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는 불멸의 존재 가릉빈가(산스크리트어로 갈라빈카)가 날아다닙니다. 정면 벽 양쪽에는 바람의 신인 풍신과 천둥의 신인 뇌신이 있습니다. 바깥 회랑의 오른쪽 벽에는 사후 세계에서 영혼을 심판하는 십대왕상이 서 있습니다.

왼쪽 안쪽 벽에는 이 건물의 이름이 유래된 법상종(法相宗)의 창시자 중 한 명인 규기(자은대사, 632~682)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규기가 어깨 너머로 지온덴 뒤편 탑에 모셔진 스승 현장의 동상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벽화는 여름에서 겨울로 점차 바뀌는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데, 정면 벽에는 봄에 떨어지는 벚꽃이, 중앙에는 여름의 연꽃이, 안쪽 벽에는 좌우로 붉게 물든 단풍나무가 있는 가을 풍경이,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겨울의 어둠과 추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호소카와는 유럽 기독교 교회의 프레스코화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회화 기법을 사용했는데, 우선 종이에 흰 점토를 바르고 이탈리아산 안료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 스케치의 윤곽이 보입니다.

이 벽화는 4 월 말부터 5 월 초까지, 그리고 10 월 말부터 11 월 초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日本語仮訳＞

壁画『東と西の融合』

『東と西の融合』(Higashi to nishi no yugo) と題されたこの壁画は、66 枚のパネル、計 113 枚の板から構成され、全長は 157.72 メートルに及びます。この壁画は、慈恩殿の壁面全体を覆っています。元総理大臣の細川護熙氏（1938 年生まれ）が 6 年をかけて描き、2019 年に完成させました。この作品は、翌年に完了した東塔の修復を祝うものでした。

細川氏は、聖なる經典を求めてインドへ旅した中国の僧侶、日本では玄奘三蔵として知られる玄奘（602-664）の旅路から着想を得ました。玄奘は、法相宗の教学に貢献するもととなった經典を中国へ持ち帰りました。壁画を制作するにあたり、細川氏の作品は大陸を横断する玄奘の過酷な旅路を記録しています。

壁画の中央には、菩提樹によって釈迦牟尼仏が表現されています。この木は、仏陀が瞑想し、悟りを開いた菩提樹であり、彼の悟りの象徴として描かれています。仏陀の左側には、贈り物を携えた人々が描かれ、その上にはリボンで結ばれた經典の巻物が、仏教の教えを象徴しています。仏陀の右側には、古代の楽器を奏でる様々な文化の動物や人々が描かれています。彼らの上には、オーストリアの作曲家ヨハン・ベルンハルト・シュタウト（1654-1712）が作曲したイエズス会演劇『ムリエール・フォルティス（強勇敢な婦人）』の楽譜が浮かんでいます。この楽譜は、キリスト教に改宗したために迫害され、最終的に自害を強いられた細川氏の先祖、細川ガラシャ（1563-1600）の生涯を描いたものです。

上部のパネルと天井の絵は、浄土（仏教の楽園）を表しており、そこには、天女や、人間の頭、鳥の胴体、優雅な尾を持ち、美しい声を持つサンスクリット語で迦陵頻伽として知られる伝説の生き物が飛び交っています。正面の壁の両側には、それぞれ風神と雷神が描かれています。外回廊の右壁には、死後の魂を裁く十大明王が立っています。

左奥の壁には、この建物の名の由来となった法相宗の創始者の一人、慈恩大師（中国名：Kuiji; 632-682）の絵が描かれています。彼は、慈恩殿の背後にある塔に立つ師である玄奘の像の方向を向くような姿で描かれています。

壁画では、季節の移り変わりも描かれており、夏から冬へと徐々に変化します。正面には春の舞い散る桜が描かれ、中央には夏の蓮の花が、奥の壁には左右に紅葉するカエデが秋を、そして一番奥の壁には冬の闇と寒さが描かれています。

細川氏は、ヨーロッパのキリスト教会でフレスコ画に使われる技法に似た描画法を採用しました。白い粘土を紙に塗り、イタリア産の顔料で描いたものです。近くで見ると、下書きのラフスケッチの輪郭が見て取れます。

この壁画は、4 月下旬から 5 月上旬、そして 10 月下旬から 11 月上旬にかけて一般公開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薬師寺/慈恩殿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지온텐(자은전)

지온텐(慈恩殿, 자은전)은 17 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의 이름은 중국의 승려 규기(窺基, 632~682)에서 유래했습니다. 일본에서 자은대사로 알려진 규기는 스승인 현장(602~664)과 함께 법상종을 창시했습니다. 야쿠시지 절(약사사)은 현재 일본 법상종(法相宗)의 본산입니다.

2019 년에는 예술가이자 전 총리인 호소카와 모리히로(1938 년 출생)가 지온텐에 ‘동서양의 융합’이라는 제목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넓은 본당을 66 개의 패널이 둘러싸듯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삼장이 불교 경전을 찾아 인도로 떠난 고된 여정과 실크로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현장이 중국으로 돌아오며 가져온 경전들은 법상종의 초석이 되었고, 후에 그의 제자인 규기가 이를 전파했습니다. 왼쪽 안쪽 벽에는 규기가 어깨너머로 스승인 현장의 동상을 바라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현장 동상은 지온텐 뒤편의 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탑 안에는 현장의 두개골 조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온텐은 본래 오사카에 위치한 조큐지 절(長久寺)의 본당이었습니다. 1962 년 조큐지 절이 대규모로 축소되면서 지온텐은 야쿠시지 절로 이전되었습니다. 1984 년에 다시 이전되어 야쿠시지 절의 새로운 건물이었던 겐조산조인(현장삼장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전 작업은 1988 년에 완료되었으며, 건물은 지온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온텐의 건축 양식과 건축 기법을 바탕으로 건물이 17 세기 초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판으로 덮인 전통적인 양식의 팔작지붕은 건물의 격조 높은 유래를 짐작하게 합니다. 건물이 원래 있었던 조큐지 절의 기록에 따르면 지온텐은 유력한 무장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의 측실 요도도노(1567~1615)의 후원으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요도도노는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1593~1615)의 무운을 기원하기 위해 이 건물을 짓게 했으며, 건축에는 오사카성 건축 당시에 남은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의 오사카성은 1615 년에 파괴되었지만, 역사의 흔적은 오늘날 지온텐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온텐은 벽화 ‘동서양의 융합’ 전시를 위해 매년 4 월 말부터 5 월 초, 그리고 10 월 말부터 11 월 초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日本語仮訳>

慈恩殿

慈恩殿は、17世紀初頭に建立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この建物は、師である玄奘（602-664）、あるいは玄奘三蔵とともに法相宗を創立した中国の僧侶、日本では慈恩大師として知られる窺基（632-682）にちなんで名付けられました。薬師寺は、現代における日本の法相宗の大本山です。

2019 年、芸術家で元総理大臣である細川護熙氏（1938 年生まれ）は、この慈恩殿に『東と西の融

合』と題された壁画を制作しました。この作品は、66 枚のパネルからなり、広大な本堂を囲むように描かれています。壁画は、シルクロードと、仏教経典を求めてインドへ向かった玄奘三蔵の過酷な旅路から着想を得ています。玄奘が中国に持ち帰った経典は法相宗の礎となり、後に弟子の慈恩によって宗派が広められました。左奥の壁には、慈恩大師の絵が描かれており、彼は、慈恩殿の背後にある塔に安置された師、玄奘の像の方向を向いた姿で描かれています。この塔には、玄奘の頭蓋骨の破片が納められています。

慈恩殿は、もとは大阪にあった長久寺の本堂でした。1962 年の長久寺の大規模な区画整理に伴い、慈恩殿は薬師寺へ移築されました。さらに 1984 年には、薬師寺の境内から現在の場所に移され、新設された玄奘三蔵院伽藍の一部となりました。移築工事は 1988 年に完了し、建物は「慈恩殿」と改名されました。

その建築様式や工法から、専門家は慈恩殿が 17 世紀初頭に建立されたと推測しています。銅板で覆われた伝統的な入母屋造りの屋根は、この建物が格式高い起源を持つことを示唆する建築的特徴です。長久寺の記録によれば、この建物は、著名な武将豊臣秀吉（1537–1598）の側室である淀殿（1567–1615）の寄進によって建てられたとされています。淀殿は息子の豊臣秀頼（1593–1615）の武運を祈願するためにこれを建立させ、大阪城の建築で余った資材が使用されました。もとの大阪城は 1615 年に破壊されましたが、その歴史の一部は今日、この慈恩殿に現存しています。

慈恩殿は、壁画『東と西の融合』が展示される 4 月下旬から 5 月上旬と、10 月下旬から 11 月上旬に一般公開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薬師寺/祚蓮・行基像坐像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소렌과 교키의 목조각상**

동쪽 법당에 모셔진 주존불인 성관세음보살의 양옆에는 두 고승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승려 소렌(祚蓮, 639~710), 왼쪽에는 승려 교키(行基, 668~749)의 좌상을 모셨습니다.

소렌(높이 74.5cm, 편백)

소렌은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 명상을 상징하는 수인(무드라)을 맺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소렌은 지토 황후(645~702)의 쾌유를 기원했으며, 680년에 야쿠시지 절을 세우라는 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소렌은 명상 중 일본 민속 설화에 나오는 용왕의 수중 궁궐을 연상시키는 용궁 양식으로 지어진 사찰 단지의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동상 내부에서 발견된 목패에는 소렌이 71세의 나이로 입적했다고 적혀 있지만, 그 외에 그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교키(높이 78cm, 편백)

교키는 중국계라고 전해지는 법상종의 승려입니다. 오사카 남부 즉 지금의 사카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승려들이 사찰에 틀어박혀 기도하던 시대에 교키는 널리 포교 활동을 하며 사회 복지 활동에도 헌신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구빈원을 지었고, 다리와 도로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공사를 돕기도 했습니다. 일본 황실은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의 포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교키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교키는 논을 조성하는 등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기나이 지역(지금의 나라, 오사카, 효고, 교토, 와카야마)에 40개가 넘는 사찰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교키를 매우 존경하여 교키 보살이라고 불렀는데, 보살이란 자신이 열반에 드는 것을 미루고 다른 이들의 깨달음을 돕는 존재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결국 당시 일본 조정은 교키의 업적을 인정하여 743년에 그에게 도다이지 절의 대불 제작을 맡겼습니다. 교키는 대불이 완성되기 3년 전인 74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교키는 스승에게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받아 야쿠시지 절 동탑에 모셨다고 합니다. 교키 조각상은 교키가 야쿠시지 절과 일본 불교에 남긴 큰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조각상은 오른손에 염주를, 왼손에는 여의를 들고 있습니다.

기타가와 운초

2010년 보수를 위해 조각상을 해체하자 그 안에서 목패가 발견되었습니다. 목패에는 1753년에 교토의 조각가였던 기타가와 운초(1755년 사망)가 이 조각상을 조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타가와는 ‘요세기’라는 목공예 기법에 정통했으며, 두 조각상은 바로 그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요세기 조각상이란 목재 하나를 통으로 깎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을 따로 조각한 후 하나로 합쳐서 완성하는 조각상을 뜻합니다.

<日本語仮訳>

祚蓮・行基像坐像

東院堂の聖観世音菩薩像の両脇には、二人の高僧、右に祚蓮（639 頃–710）、左に行基（668–749）の坐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

祚蓮（像高 74.5cm、ヒノキ）

祚蓮は、結跏趺坐し、禪定の象徴的な手印（ムドラ）を結んでいます。古文書によると、彼は持統天皇（645–702）の病氣平癒を祈願し、680 年に薬師寺の創建を託されたと記されています。伝説では、彼が瞑想中に、日本の民間伝承に登場する竜王の海中の宮殿を思わせる「竜宮造り」の伽藍のビジョンを見たと言われています。像の内部から発見された木片には、祚蓮が 71 歳で亡くなったと記されていますが、彼に関する詳しいことはほとんど分かっていません。

行基（像高 78cm、ヒノキ）

行基は、中国系であると伝えられる法相宗の僧です。彼は現在の堺市にあたる大阪の少し南で生まれました。ほとんどの僧侶が寺院にこもり、祈り以外で外に出ることが稀だった時代に、行基は広く布教活動を行い、社会事業に尽力しました。彼は貧しい人々に宿泊と食事を提供する慈恵院を建て、橋や道路の建設といった土木事業にも関わりました。朝廷は彼の増大する影響力を恐れ、布教活動を禁止しました。

しかし、行基と彼の支持者たちはひるむことなく活動を続けました。彼は、田畑の開発などの大規模な事業を進めるとともに、畿内地方（奈良、大阪、兵庫、京都、和歌山部分にまたがる）に 40 以上の寺院を建立しました。一般の人々は彼を深く尊敬し、悟りを開いた後も他の人々が悟りを開くのを助けるために、涅槃に入ることをあえて遅らせた存在である菩薩（ぼさつ）に与えられる称号「行基菩薩」と呼びました。最終的に、朝廷も彼の功績を認め、743 年に東大寺の大仏造立を彼に託しました。彼は大仏が完成する 3 年前の 749 年に亡くなりました。

ある話によると、行基は師から仏舎利の一部を譲り受け、それを薬師寺の東塔に納めたとされています。この像は、薬師寺と日本仏教への彼の大きな貢献を記念するものです。ここで、行基は右手に数珠を、左手には如意を持っています。

北川運長

2010 年の修理のために解体された際に、像内に木片が発見されました。その木片には、像が 1753 年に北川雲長（1755 年没）によって彫られたと記されていました。彼は京都を拠点に活躍した仏師でした。北川は、これら二体の像にも用いられている寄木造の技術に長けていました。寄木造の像は、一本の木材から彫り出すのではなく、像の各部分を別々に彫刻した後、それらを組み合わせて作られます。

【タイトル】 薬師寺/東塔：水煙相輪裝飾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동탑: 수연 상륜부 장식

높이 33.6m의 동탑은 730년 나라 지역에 야쿠시지 절(약사사)을 재건했을 당시부터 남아 있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불탑은 역사상의 부처인 석가모니의 무덤을 상징하며, 일설에 따르면 동탑에 석가모니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탑 꼭대기의 장식물인 상륜부는 2020년에 완료된 대대적인 보수 공사 중 교체되었으며, 기존의 상륜부는 사찰 경내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교체된 부분은 원본의 녹슨 무늬까지 충실히 재현한 복제품입니다.

상륜부 꼭대기는 투조 기법으로 만든 4개의 주물 조각이 수연(水煙, 물 연기)을 이루는데, 화재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수연은 음악, 꽃, 춤이 어우러진 불교의 낙원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4개의 주물 장식판은 모티프는 같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면에는 3명의 비천(飛天, 천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각 피리를 불거나 꽃바구니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있거나 연꽃 봉오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옷자락은 구름과 어우러져 하늘을 나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빛나는 금동 장식은 역사적으로 불교 학문의 중심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사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멀리서 탑을 바라보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日本語仮訳>

東塔：水煙相輪裝飾

高さ33.6メートルの東塔は、薬師寺が730年に奈良で再建された時から唯一現存する建造物です。仏教の考えでは、仏塔は歴史上の仏陀である釈迦牟尼仏の墓を表しており、言い伝えによれば東塔には仏舎利が納められています。塔の頂部を飾る装飾である相輪は、2020年に完了した大修理の際に新しいものに交換されましたが、元のは境内に保存されています。交換されたものは、鋳の模様まで忠実に再現されたレプリカです。

相輪の最上部にある飾りは、透かし彫りの鍍金製で、四つの面からなる「水煙」と呼ばれるものです。これは（文字通りには「水の煙」を意味し）、火災からの象徴的なお守りとなっています。この水煙は、音楽、花、舞踏にあふれる仏教の楽園を表していると信じられています。四つの鋳造された板は、それぞれ同じモチーフですが、デザインは異なります。それぞれの面には三人の天人が描かれています。一人は横笛を吹き、一人は花かごとと思われるものを持ち、もう一人は蓮のつぼみを持っています。彼らの衣と雲は絡み合い、飛翔する様子が表現されています。

歴史的に、金銅製の輝く相輪は、仏教の教えの中心地を示す目印でした。当時は、一般の人は寺院の中に入ることを許されていなかったため、遠くから相輪に向かって手を合わせ、仏様に敬意を払っていました。

【タイトル】 薬師寺/東塔：相輪の基部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동답: 상륜부 받침대**

덴무 천황(?~686)은 680 년에 병을 앓던 우노노 사라라 황후의 쾌유를 기원하며 야쿠시지 절(약사사)의 건립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천황은 절의 부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황후는 건강을 회복하여 천황의 뒤를 이어 지토 천황으로 즉위했고, 8 세기 초 덴무 천황을 위해 야쿠시지 절을 완공했습니다. 오늘날 동답은 야쿠시지 절에 남아 있는 유일한 8 세기 건축물입니다.

탑의 최상단 금속 장식 상륜부는 2020 년에 완료된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서 충실하게 재현한 복제품으로 교체되었으며 본래의 상륜부 및 상륜부 받침대는 사찰 경내 다른 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상륜부는 받침대 무게만 해도 150kg 이 넘습니다.

받침대에는 덴무 천황이 세운 서원을 기리는 지토 천황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금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황실의 수레는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구절로 덴무 천황의 죽음을 암시하며 자신이 덴무 천황의 소원을 이루어 나라에 영원토록 구원을 가져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약사여래에게 비는 기원이 이어집니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약사시여, 자비와 자애를 베푸시겠다고 맹세하셨으니 저희는 당신의 신성한 가호를 구합니다. 당신의 가람은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그 가르침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찰은 장엄하며, 법의 도시는 고요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당신의 은덕은 대대로 빛날 것입니다.’

이 비문을 통해 지토 천황은 야쿠시지 절의 역할을 자신의 쾌유를 기원하는 곳에서 모든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日本語仮訳>**東塔：相輪の基部**

天武天皇（686 年没）は、病に伏した皇后の鸕野讃良（645-703）の病氣平癒を祈願して、680 年に薬師寺の建立を発願しました。しかし、天皇は寺院の建立地がまだ議論されている最中に崩御されました。その後、病から回復した鸕野讃良は、夫の跡を継いで持統天皇となり、夫の遺志を継いで 8 世紀初頭に薬師寺を完成させました。今日、東塔は薬師寺で唯一現存する 8 世紀の建造物です。

東塔の頂部にあった相輪は、2020 年に完了した大規模な修理で、忠実に再現されたレプリカに置き換えられ、元の相輪と、その基部は現在、境内の別の場所に保存されています。基部だけでも 150 キログラム以上の重さがあります。

この基部には、持統天皇による、天武天皇が立てた誓いを称えるメッセージが記されています。銘文は「黄金の鍍金が未完成のまま、龍駕は天に昇った」という一文で夫の崩御に言及し、彼女が夫の願いを果たし、未来永劫にわたる国の救済をもたらしたと述べています。続いて、薬師如来への祈願が記されていま

す。「広大なる薬師如来よ、あなたは慈悲と慈愛を広めると誓われました。私たちはあなたの神聖な加護を求めます。あなたの寺は美しく飾られ、教えは守られています。寺は壮麗にそびえ立ち、仏法の都は穏やかです。喜びは溢れ、あなたの祝福は代々称えられるでしょう。」

この銘文を通じて、持統天皇は薬師寺の役割を、自身の病氣平癒を祈る場所から、すべての人々の幸福と健康を願う場所へと変えたのです。

地域番号	019	協議会名	古都奈良の文化財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19-002	春日大社/古神宝太刀類（概説）	599	アプリ QRコード
019-003	春日大社/若宮御料古神宝類 毛抜形太刀	528	アプリ QRコード
019-004	春日大社/若宮御料古神宝類 銀鶴及磯形	450	アプリ QRコード
019-005	春日大社/古神宝銅鏡類（概説）	429	アプリ QRコード
019-006	春日大社/古神宝銅鏡類 牡丹唐草尾長鳥八稜鏡 藤花松喰鶴円鏡	512	アプリ QRコード
019-007	春日大社/本宮御料古神宝類 紫檀地螺鈿飾剣	365	アプリ QRコード
019-008	春日大社/八足案	544	アプリ QRコード
019-009	春日大社/本宮御料古神宝類 黒漆平文根古志形鏡台	406	アプリ QRコード
019-010	春日大社/鹿座仏舎利及び外容器	582	アプリ QRコード
019-011	春日大社/本宮御料古神宝類 黒漆平文唐櫛笥	388	アプリ QRコード
019-012	春日大社/若宮御料古神宝類 蒔絵弓（2張）	611	アプリ QRコード
019-013	春日大社/沃懸地獅子文毛抜形太刀	547	アプリ QRコード
019-014	春日大社/若宮御料古神宝類 銅造狛犬	417	アプリ QRコード
019-015	春日大社/若宮御料古神宝類 白磁獅子	456	アプリ QRコード

【タイトル】春日大社/古神宝太刀類（概説）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1100년대~1400년대의 다치

다치는 가타나의 전신에 해당하는 일본도입니다. 다치는 9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전쟁 무기이자 신분의 상징으로 널리 휴대되었습니다.

칼날을 위로 향하게 하여 허리띠에 꽂아 착용했던 가타나와 달리, 다치는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검집에 달린 금속 장식에 연결된 고리를 이용해 허리에 매달아 착용했습니다. 말에 탄 채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검집에는 나가카나모노라고 불리는 좁고 긴 원통형의 장식이 상감되어 있었는데, 보통 투각 조각이나 귀중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장식은 나중에 가느다란 금속 띠 한 쌍(하루비가타)으로, 1200년대 이후로는 하트 모양의 구멍이 있으며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의 띠 한 개(헤이지가타)로 대체되었습니다.

의장용 다치

일본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검을 소지할 권리가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치는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황실 일상복의 일부였습니다. 궁정 관리들이 착용했던 의장용 다치인 ‘가자타치’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장식되었으며 자개, 금 또는 은 상감, 정교한 조각, 옷칠 등으로 장식된 자단목 검집에 들어가 있어 매우 화려했습니다. 궁정 제도 자체와 마찬가지로 의장용 다치의 디자인 역시 중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군용 다치

다치는 본래 전쟁 무기로, 가스가타이샤 국보전에는 전투용으로 제작된 다양한 다치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군용 다치는 대체로 검집에 어두운색 옷칠을 했으며 선물용이나 공식 행사에서 착용하는 의장용 검보다 장식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日本語仮訳>

1100年代から1400年代の太刀

太刀は刀の前身であり、9世紀から15世紀にかけて、戦の武器や身分を示す象徴として広く用いられました。刃を上にして帯に通して差す刀とは異なり、太刀は刃を下にして鞘の金具に取り付けられた掛金で腰から吊るして佩用されました。これは、太刀が馬上での使用を想定して設計されていたためです。

初期の鞘には長金物と呼ばれる細長い筒状の金具が象嵌されており、これらには透かし彫りや宝石が施されることが一般的でした。やがてこの装飾は細い足金物（はるびがた）で巻き留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1200年代以降は、ハート形の透かしを持つ、先細りの金属帯（へいじがた）が用い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飾太刀（かざたち）

日本において、刀を帯びる権利は社会的地位と結びついていました。太刀は権威の象徴であり、宮廷に仕える人々の日常的な装束の一部でもありました。宮廷官人が佩用した儀礼用の太刀は、精緻な装飾が施され、鞘は紫檀で作られ、螺鈿や金銀の象嵌、彫刻、精巧な漆工によって飾られていました。宮廷制度そのものと同様に、飾太刀の意匠もまた、中国文化から大きな影響を受けていました。

軍用太刀

太刀はもともと戦の武器として生まれ、春日大社宝物館にはいくつかの軍用太刀が所蔵されています。軍用太刀は、濃い漆で塗られた鞘を備えることが多く、儀礼や贈答用の装飾太刀に比べると装飾は控えめでした。

019-003

古都奈良の文化財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タイトル】春日大社/若宮御料古神宝類 毛抜形太刀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일본 국보

와카미야 신의 신성한 고대 보물

은띠를 두른 게누키가타 양식의 다치

전승에 따르면 이 화려한 다치는 후지와라노 요리나가(1120~1156)의 것이라고 합니다. 후지와라 가문은 황실의 유력 가문이었으며 요리나가는 황실 섭정 후지와라노 다다자네(1078~1162)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리나가가 이 검을 소유하게 된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131년 황실 행렬을 호위했을 당시 이 검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단목으로 만들어진 검집에 새겨진 금테를 두른 은 상감 장식입니다. 은장식에는 물떼새와 조릿대가 어우러진 풍경이 조각되어 있고, 섬세한 조각 기법을 돋보이게 하려고 검은색 옷칠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늬와 장식 기법은 와카미야 신사의 또 다른 신성한 보물인 **은도금 자단목 평호록**(화살통의 일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이 검과 화살통이 **소나무, 학, 물떼새 무늬가 장식된 활과 한 세트**였음을 알려줍니다.

황궁의 경비병들은 일반적으로 제복의 일부로 검, 활, 화살통을 휴대했습니다. 요리나가는 황궁 경비대의 고위 간부였으므로 이러한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황궁 경비병들이 착용했던 검은 일반적으로 손잡이를 따라 세로로 틈이 나 있었고, 그 모양이 족집게(게누키)와 닮았다고 하여 게누키가타라고 불렸습니다.

019-003

<日本語仮訳>

国宝

若宮御料古神宝類 毛抜形太刀

この精巧に装飾された太刀は、藤原頼長（1120-1156）の所持品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藤原氏は朝廷の中枢を担う有力な一族で、頼長は摂政・藤原忠実（1078-1162）の子でした。この太刀がいつ頼長の手に渡ったのかは正確には分かっていませんが、1131年の行幸を護衛した際、頼長がこれを佩用してい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

この太刀の最も特徴的な部分は、紫檀製の鞘に施されている、金で縁取られた銀象嵌装飾です。銀の上には、チドリや笹といった景色が彫刻され、細やかな彫りの表現を際立たせるために黒漆が塗り込まれています。この文様や装飾技法は、若宮神社のもう一つの神宝である銀鍍金紫檀製の平胡録にも見られます。これらの類似性から、この平胡録と太刀は、チドリや鶴に松枝文様の弓とともにセットで用いられた可能性が示唆されます。宮中護衛は、装束の一部として太刀・弓・平胡録を携行していました。頼長は近衛の中でも高位の地位にあつ

たため、これらの品を所持していたことは妥当といえます。宮中護衛が佩用する太刀は、柄の部分に細長いスリットがあり、その拵の形が毛抜きに似ていたことから「毛抜形」と呼ばれていました。

019-004

古都奈良の文化財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タイトル】春日大社/若宮御料古神宝類 銀鶴及磯形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일본 국보

와카미야 신의 신성한 고대 보물

해안의 학 한 쌍

이 유물은 젓가락 받침으로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마리의 학은 서로 마주 보게 배치되었고, 젓가락은 마치 다리처럼 날개 밑부분에 걸쳐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용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헤이안 시대(794~1185)에 쓰인 이야기와 귀족의 일기에 묘사된 비슷한 장식품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학과 함께 한 쌍의 거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과 거북은 일본 미술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티프로, 전통적인 수목화 등에서도 자주 그려집니다. 두 모티프는 도교의 전설에서 불로불사의 선인이 산다고 전해지는 봉래산에서 유래했습니다. 봉래산에는 학이 머물며, 이 산은 상서로운 거북의 등 위에 위치해 있다고 전해집니다. 거북과 학은 모두 장수를 상징하므로, 이 장식품은 축하 연회나 기념행사에 어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 장식에서는 특히 목의 부드러운 곡선과 깃털 및 솜털의 조각을 통해 뛰어난 금속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연광과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작업해야 했던 장인은 이 한 쌍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019-004

<日本語仮訳>

国宝

若宮御料古神宝類

銀鶴及磯形

この一対の鶴は、箸を置くために作られた可能性が高いと考えられています。鶴を向かい合わせに配置し、翼の付け根の部分に、箸を橋のように渡して使われたと推測されています。ただし、実際の用途についての明確な記録は残っていません。

平安時代（794-1185）の王朝物語や貴族の日記には、同様の飾り物についての記述があり、鶴に合わせて亀の一対が添えられていた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ます。鶴と亀の文様は日本美術においてよく見られ、伝統的な墨絵などにも描かれます。これは、道教の伝説で不老不死の仙人が住むとされる蓬莱山に由来する寓意です。蓬莱山には鶴がとり、その山自体は古い亀の背中の上にあるとされます。鶴と亀はともに長寿の象徴とされてきました。この飾り物は祝宴や記念行事にふさわしい装飾品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

この鶴には金工の高度な技術が示されています。特に首のなだらかな曲線や、羽毛や綿毛の彫刻の精緻さにそれが見て取れます。自然光やわずかな蠟燭の明かりのもとで作業した場合、この一対の鶴を完成させるには、

職人にとって非常に長い時間を要したと考えられます。

【タイトル】春日大社/古神宝銅鏡類（概説）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일본 중요문화재****중국풍 장식이 새겨진 청동 거울**

1939 년 가스가타이사 신사 보물전 천장 내부에서 청동 거울 15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청동 거울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본에서 처음 제작된 것은 2 천 년 이상 전입니다. 청동 거울이 어떻게 처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인 신도(神道)의 신이 깃든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형상화한 청동 거울은 일본의 3 종 신기 중 하나입니다.

중국 유래의 화조문

이 청동 거울은 중국의 거울을 본떠 주조된 것으로 뒷면의 장식을 보여주기 위해 뒤집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대체로 단순하며 연마되어 있습니다.

일부 거울에는 꽃잎 모양의 돌출부가 여덟 개 있습니다. 숫자 8 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신도에서는 무한을 상징합니다. 거울 중에는 모란과 기타 상서로운 꽃, 양식화된 봉황, 정교한 소용돌이무늬가 함께 주조된 것도 있습니다. 학이 부리에 소나무 가지를 물고 있는 모습이 표현된 거울도 있는데, 이는 장수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日本語仮訳>**重要文化財****中国様式の文様を施した銅鏡**

1939 年、春日大社宝庫の天井内部から十五面の銅鏡が発見されました。この様式の銅鏡は中国に起源を持ち、日本では 2000 年以上前から製作されていました。銅鏡が最初にどのように使用されたかについての記録は残っていませんが、伝統的に、神道の神々が宿と考えられる聖なる物としての意味を持ってきました。例えば、太陽神・天照大神を表す銅鏡は、日本の三種の神器の一つに数えられています。

大陸由来の花鳥文銅鏡

これらの銅鏡は、中国本土から伝わった作品を模して鑄造されたものです。ここでは装飾の意匠を見せるため、裏面を上にして展示されています。表面はほとんど装飾がなく、磨き上げられています。

一部の銅鏡には八枚の花びら状の突起があります。東アジア文化において「八」という数字は特別な意味を持ち、神道では無限の象徴としての意味合いがあります。鏡には、牡丹やその他の縁起の良い中国の花々、さらに意匠化された鳳凰や精巧な渦文が鑄込まれ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また、口に松の枝をくわえた鶴を描いたものもあり、長寿と平和の象徴とされています。

019-006

古都奈良の文化財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タイトル】春日大社/古神宝銅鏡類 牡丹唐草尾長鳥八稜鏡

藤花松喰鶴円鏡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일본 중요문화재

당초무늬 팔릉형 청동 거울

이 청동 거울은 가스가타이샤 국보전 소장품 중에서도 훌륭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뒷면의 장식을 보여주기 위해 뒤집어서 전시되어 있으며, 반대쪽 면에는 장식이 없습니다. 표면을 연마하여 거울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울을 사용할 때는 뒷면의 손잡이에 끈을 꿰어 걸어 두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울은 물까치와 활짝 핀 꽃을 표현한 중국식 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서화서조(瑞鳥瑞花)’라고 불리는 이 무늬는 웅장함과 길조를 나타냅니다.

일본 중요문화재

등나무꽃과 소나무 가지를 문 학 무늬 원형 청동 거울

이 청동 거울은 와카미야 신사의 신성한 보물들 중 하나로 검은색 칠기 상자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보기 드문 평평한 디자인이라는 점과 정확하게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유물입니다. 내부 테두리에는 1141년에 인근 고후쿠지 절(흥복사)의 승려였던 겐슈가 기증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거울에는 등나무꽃 외에도 부리에 소나무 가지를 물고 있는 학(마쓰쿠이즈루)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무늬는 9 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당나라 시대(618~907)에 제작된 금속 공예품에서 흔히 보이는 ‘꽃을 문 새(하나쿠이도리, 함조문)’ 무늬를 일본 고유의 방식으로 변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019-006

<日本語仮訳>

重要文化財

牡丹唐草尾長鳥八稜鏡

この銅鏡は、春日大社宝物殿の収蔵品の中でも最上級の一つです。ここでは裏面を上にして展示されており、鏡の反対側は磨き上げられ鏡面として使用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使用時には、中央の突起部分に通した紐で吊るして用いられたと推測されます。

鏡の鑄造装飾は、中国に影響を受けた長尾鳥と花の文様です。この文様は「瑞花瑞鳥」と呼ばれ、壮麗さと吉兆を表しています。

重要文化財

藤花松喰鶴円鏡

こちらの銅鏡は、若宮神社の御神宝の一つとして、黒漆塗の箱の中から発見されました。極めて平らな形状という点と、正確に制作年代を特定できる数少ない銅鏡のひとつである点において重要です。内縁部には銘文が記されており、近隣の興福寺の僧・玄修によって、1141年に奉納されたことが記されています。

鏡の背面には、藤の花の他、松の小枝をくわえた鶴（松喰鶴）の姿があしらわれています。この意匠は9世紀に初めて現れたもので、唐代中国（618～907）で盛んに制作された金工に見られる花喰鳥の文様を、日本独自に解釈・発展させ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ます。

019-007

古都奈良の文化財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タイトル】春日大社/本宮御料古神宝類 紫檀地螺鈿飾剣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일본 국보

주신(主神)의 신성한 고대 보물

나전 장식 자단목 검집과 다치

전승에 따르면 이 다치는 황실 섭정 후지와라노 다다자네(1078~1162)가 그의 아들 다다미치(1097~1164)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검의 장식은 가스가타이샤 신사 창건에 크게 기여한 후지와라 가문의 지위와 권력을 보여줍니다.

자단목으로 만든 검집은 자개로 정교한 당초무늬가 장식되어 있고, 금으로 된 장식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검 자루 끝은 커다란 수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검집 양쪽 금속 장식 사이에는 자개로 앵무새가 상감되어 있습니다. 앵무새는 일본 토종 동물은 아니지만,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물품들의 장식 무늬 등을 통해 일본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희귀하고 이국적인 앵무새는 고위 관료들의 검 장식으로 선호되었습니다.

이 검은 헤이안 시대(794~1185)에 제작된 의장용 다치 중에서 자단목을 사용한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019-007

<日本語仮訳>

国宝 本宮御料古神宝類 紫檀地螺鈿飾剣

この太刀は、藤原忠実（1079-1162）がその子・忠通（1097-1164）に贈ったものと伝えられています。精緻な装飾は、春日大社の創建に深くかかわった藤原氏一門の権勢と格式を示しています。

鞘は紫檀製で、螺鈿による華麗な唐草文様が施されています。鞘に配された金具にはかつて宝石が嵌め込まれており、柄頭には大きな水晶が据えられています。

鞘の金具の間には、左右両面にオウムが螺鈿で象嵌されています。オウムは日本の在来種ではありませんが、シルクロードを経て渡来した工芸品の文様などを通じて知られていました。珍しく、また異国的な存在であったオウムは、高位の公家の太刀装飾として好まれたのです。

紫檀の装飾を施した平安時代（794-1185）の作例としては、本品が唯一のものと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春日大社/八足案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팔각 공물대

다리가 8 개인 팔각 공물대는 가스가타이샤 신사에서 900 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신도 의식인 순사이(旬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물대 자체는 오래되거나 희귀한 것이 아니며, 20 년마다 교체됩니다. 그러나 이 공물대는 가스가타이샤 신사와 일본 황실을 잇는 오랜 의식의 전통을 상징합니다.

순사이 의식은 매달 1 일, 11 일, 21 일에 열립니다. 아침에는 신관들이 본전 밖에 모여 그 안에 모셔진 네 명의 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화려한 천이 깔리고 그 위에 다리가 8 개인 탁자가 놓입니다. 다음으로 신관이 제철 과일과 채소를 가져와 쌀이나 술과 같은 전통적인 공물과 함께 올립니다. 구지(최고 신관)는 참배객을 대신하여 기도를 올리고, 이어서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화의 말을 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녀들이 고토(일본 전통 현악기), 피리, 박자목 반주에 맞추어 가구라 춤을 춥니다. 이 의식은 매달 21 일에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으나, 1 월 21 일에 참여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최초의 순사이는 1121 년에 일본 황실의 제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신관들에 의해 거행되었으며, 최초의 공물대는 황궁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사이는 황실의 지속적인 힘과 번영, 더 나아가 온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순사이와 같은 의식은 가스가타이샤 신사, 후지와라 가문, 그리고 황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日本語仮訳>

八足案

この八脚の机は、春日大社で 900 年以上にわたり行われてきた神事旬祭の中心的な道具です。物としては古代のものでも珍しいものでもなく、20 年ごとに新調されます。それでも、この台は春日大社と皇室を結ぶ長い儀礼の系譜を象徴しています。

旬祭は毎月 1 日、11 日、21 日に行われます。午前中、神職たちは本殿の外に集まり、そこに祀られた四柱の神々に供物を捧げます。まず華やかな布を敷き、その上にこの八足案が置かれます。次に神職が季節の果物や野菜を用意し、米や酒といった伝統的な供物とともに捧げます。宮司が参拝者を代表して祈りを捧げ、その後、参列者全員で浄めの言葉を唱えます。巫女たちは琴・笛・拍子木の演奏とともに神楽舞を奉納することもあります。この儀式は毎月 21 日に一般参観が可能ですが、1 月 21 日に参加する場合には事前の申し込みが必要となります。

最初の旬祭は 1121 年に皇祀省の神職によって執り行われ、最初の供御台はおそらく皇居から運ばれたもの

と考えられています。旬祭は皇室の安寧と繁栄、ひいては国全体の安泰を祈るものとされてきました。このような儀礼は、春日大社と藤原氏、さらに皇権との結びつきをより一層強固にする役割も果たしてきました。

019-009

古都奈良の文化財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タイトル】春日大社/本宮御料古神宝類 黒漆平文根古志形鏡台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일본 국보

주신(主神)의 신성한 고대 보물

흑칠기 접이식 경대

일본에서 청동 거울은 궁중 귀족의 저택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대는 무게가 3kg에 달하기도 하는 무거운 청동 거울을 지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거울은 중앙 기둥에 끈을 둘러 매달았으며, 거울 아래에 방석을 놓아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일본 귀족 저택의 가구는 일반적으로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해야 했는데, 시간대에 따라 이부자리, 낮은 탁자, 화로 및 기타 가구들을 끊임없이 꺼내거나 치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대 또한 수납이 용이하도록 접이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상단과 하단 부분은 중앙 기둥을 따라 자유롭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팔과 다리 부분을 몸체 쪽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다리 부분을 펼치면 각 부분이 금속 핀으로 고정됩니다. 굽은 나무줄기처럼 생긴 중앙 기둥으로 인해 이 받침대는 네코지가타, 즉 '뿌리 뽑힌 나무 모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받침대는 본래 검은색 옷칠을 하고 새, 나비, 구름 무늬를 은으로 상감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장식이 벗겨졌습니다.

019-009

<日本語仮訳>

国宝 本宮御料古神宝類 黒漆平文根古志形鏡台

銅鏡は、貴族の邸宅で日常的に使用されていました。このような鏡台は、重い金属製の鏡（中には3キログラムにもなるもの）を支えるために必要でした。鏡は、真ん中の柱に紐を掛けて吊るし、その下に座布団などを置いて角度を調整しました。

貴族の邸宅では、布団や低机、火鉢などの調度品を時間帯に応じて出したり片付けたりしていたため、一般的に調度品は軽量でコンパクトである必要がありました。この鏡台も収納の便を考えて折り畳めるように設計されていました。中央の柱にある上下の部分は自由に動き、腕や脚を本体に沿って折りたたむことができます。脚部分を広げると、各部が金属製の栓で固定されます。この種類の鏡台は、中心の柱が幹のように太く引き抜かれた木のような形をしていることから根古志形（ねこじがた）と呼ばれています。

かつてこの鏡台は黒漆で覆われ、鳥蝶雲文が銀象嵌で装飾されていましたが、年月の経過とともに装飾は剥落しています。

【タイトル】春日大社/鹿座仏舎利及び外容器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사슴 모양 사리함과 흑칠기 덮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사슴을 표현한 이 목조각품은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신불습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사슴, 안장, 가지에 거울이 달린 신성한 비쭈기나무는 가스가타이샤 신사의 주신(主神)인 다케미카즈치노미코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작품의 도상이 신도적인 데 반해, 조각의 용도는 분명히 불교적입니다.

거울 안쪽 공간에는 석가모니불의 성유물로 숭배되는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리함의 칠기 덮개에도 불교적인 무늬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개화 단계가 각기 다른 연꽃들이 하단에 둘러 있으며 한쪽에는 석가모니가 설법했다고 전해지는 영축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가스가타이샤 신사 동쪽에 있는 신성한 산인 미카사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도와 불교 이미지의 융합

불교는 6세기 중반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지역 신들을 중심으로 한 의식이 이미 수세기 동안 거행되어 온 상태였고, 불교는 점차 기존의 신도 관습에 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융합 과정을 통해 신도의 신과 불교의 부처는 동일한 신성한 존재의 다른 형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존 인물인 석가모니와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은 모두 신도의 신인 다케미카즈치노미코토의 불교적 모습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리함은 인근 고후쿠지 절(흥복사)의 한 승려가 1652년에 와카미야 신사에 기증한 것입니다. 승려의 기증품이라는 점 또한 신도와 불교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日本語仮訳>**鹿座仏舎利及び外容器**

雲上に座る鹿を木彫したこの作品は、歴史的な神仏習合を象徴しています。白鹿、鞍、枝に鏡を据えた神聖な神の木は、春日大社の主祭神である武甕槌命と強く結びついています。しかし、この神道的な意匠にもかかわらず、彫刻の目的は明確に仏教的です。

鏡の内部の空間には、釈迦牟尼仏の聖遺物として崇敬される舎利が安置されています。舎利容器の漆塗りの覆いにも多くの仏教的モチーフが施されており、底部には異なる開花段階の蓮華が円状に描かれ、一方の面には釈迦が説法を行ったとされる霊鷲山の図が描かれています。反対の面には、春日大社の東に位置する神聖な山である御蓋山が描かれています。

神道と仏教意匠の結びつき

仏教は6世紀半ばまでに、中国や朝鮮半島を経由して日本に伝来しました。その頃には、すでに地域の神々を中心とする祭祀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行われており、仏教は徐々に既存の神道の慣習に取り込まれていきました。この取り込みを通じて、神道の神と仏教の仏は、同じ神性の異なる姿として捉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たとえば、歴史上の仏である釈迦如来と、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菩薩は、武甕槌命の仏教的な姿として崇拝されました。

この舎利容器は、近隣の興福寺の僧侶が所有していたもので、1652年に若宮神社へ寄進されました。この寄進行為自体も、神道と仏教が密接に結びついていた関係を示す例となっています。

019-011

古都奈良の文化財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タイトル】春日大社/本宮御料古神宝類 黒漆平文唐櫛笥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일본 국보

주신(主神)의 신성한 고대 보물

흑칠 빗집

이 2단 빗집에는 헤이안 시대(794~1185) 궁중 여성에게 필요한 머리단장 도구와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얇은 위쪽 칸에는 작은 청동 거울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빗집은 새로이 가정을 꾸려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여성의 혼수품에 흔히 포함되곤 했습니다.

이 빗집은 가스가타이사 신사의 주신 중 하나인 히메가미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빗집에는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철가루나 얼굴을 하얗게 하는 납과 수은 성분이 들어간 백분과 같은 화장품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관은 원래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무라사키 시키부(978~1014)가 쓴 일본 문학 고전인 <겐지 모노가타리>에도 이와 유사한 빗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당시에도 이러한 빗집의 디자인은 고풍스럽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큰 빗집은 이후 더 작고 칸이 하나인 단순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019-011

<日本語仮訳>

本宮御料古神宝類 黒漆平文唐櫛笥

この二段式の化粧箱は、かつて平安時代（794-1185）の貴婦人に必要な髪飾りや各種化粧道具を収めるためのものでした。浅い上段には小さな手鏡が入っ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このような化粧箱は、若い女性の婚礼道具の一つとして、新しい家庭での生活を始める際に用意されることが多くありました。

特に本品は春日大社の主祭神の一柱である比売神に捧げられたものです。その中には、歯を黒く染めるための鉄粉や、顔を白くする鉛や水銀を用いた化粧料がかつて入っ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外装はもともと銀で装飾されていましたが、現在はその痕跡がわずかに残るのみです。

このような化粧箱は、紫式部（978-1014）が著した日本文学の古典『源氏物語』にも記述されています。当時ですでに、この箱の形式はやや古風と見な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大きな二段式の化粧箱は、最終的により小型で簡素な一段式の化粧箱に置き換えられていきました。

【タイトル】春日大社/若宮御料古神宝類 蒔絵弓（2 張）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일본 국보

와카미야 신의 신성한 고대 보물

학과 물떼새 마키에 무늬 의례용 느티나무 활

전승에 따르면 이 의장용 활은 가스가타이샤 신사 창건에 기여한 가문의 후손인 후지와라노 요리나가(1120~1156)의 것이라고 합니다. 활은 느티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겹의 검은색 옷칠이 되어 있습니다. 활의 각 부분은 유연한 나무를 보강하기 위해 끈으로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활의 몸체는 물떼새와 학 무늬의 마키에(옷칠 위에 금·은가루를 뿌리고 무늬를 그려 장식하는 일본 전통 공예)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무늬는 학 주변의 여백에 옷칠을 하고 그 위에 금가루를 뿌린 후 여분의 금가루를 털어내어 금빛 바탕에 새의 실루엣이 드러나도록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은도금 자단목으로 만든 납작한 화살통과 은띠를 두른 계누기가타 양식 다치**의 디자인과도 일치하여, 세 물건이 세트를 이루었음을 알려줍니다.

일본 국보

와카미야 신의 신성한 고대 보물

모란 마키에 무늬 의장용 느티나무 활

이 의장용 활은 본래 황궁 경비병들이 휴대하던 활을 본떠 만들어졌으나, 오로지 의례용 봉납품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느티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겹의 검은색 옷칠이 되어 있습니다. 활의 각 부분은 본래 붉은색 끈으로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활에는 옷칠 위에 금가루를 뿌린 마키에 기법으로 섬세한 모란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란무늬는 선 주변의 여백에 옷칠을 하고 그 위에 금가루를 뿌린 후 여분을 털어내면 옷칠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는 금가루가 붙지 않아 모란의 윤곽이 드러나는 기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国宝

若宮御料古神宝類 蒔絵弓 松喰鶴千鳥文

この儀式用の弓は、春日大社を創建した藤原氏一族の藤原頼長（1120-1156）の所有物と考えられています。櫟の丸木弓で、湿潤な日本の気候から守るために何層もの黒漆が施されています。弓の一部はかつて堅く組巻が施され、しなやかな木を補強していました。

弓の表面には、鶴と千鳥の蒔絵が施されています。これは、鳥の姿を余白空間として漆で描き、その上から金粉を撒き、余分な粉を払うことで、金地に鳥のシルエットが浮かび上がるように表現したものです。この意匠は平

胡籥および毛抜形太刀と一致しており、一揃いの品で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国宝

若宮御料古神宝類 蒔絵弓 沃懸地牡丹文

このような儀式用の弓は、かつて宮中護衛武官の弓を模して作られましたが、あくまでも儀式の献上品としてのみ用いられていました。弓の本体は櫟材を芯とし、湿潤な日本の気候から守るために何層もの黒漆が施されています。弓の一部はかつて赤い紙巻が堅く施されていました。

弓には、金粉を撒いた漆（蒔絵）による牡丹の文様が精緻に施されています。牡丹の文様は、輪郭の余白部分に漆を塗り、その上から金粉を撒き余分な粉を払うことで、漆のない部分に粉が定着せず、牡丹の姿が浮かび上がるという技法で表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春日大社/沃懸地獅子文毛抜形太刀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일본 국보****중국 사자 무늬와 계누기가타 양식 장식이 있는 다치**

이 다치는 1939 년 가스가타이샤 신사 보물전 천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794~1185)의 것으로, 원래는 족집게(일본어로 계누키)와 유사한 형태의 투각 손잡이가 달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의 검에는 족집게 모양은 유지하면서도 구멍은 없는 장식용 손잡이(메누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양식은 이 다치가 만들어진 지 수 세기 후인 가마쿠라 시대(1185~1333)에 유행했던 것으로, 대대로 집안의 가보였던 검을 새롭게 장식하여 가스가타이샤 신사에 봉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집에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사자(일본어로 시시) 여섯 마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정신적인 강인함과 지도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각각의 사자는 가키와리라는 장식적인 마키에(옷칠 위에 금가루를 뿌리고 무늬를 그려 장식하는 기법)로 그려졌는데, 옷칠한 부분에 틈을 남겨 윤곽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얇은 종이에 사자를 그려 검집 표면에 옮겨 그린 후 윤곽선 주변 공간에 조심스럽게 옷칠을 하고, 금가루를 도안 전체에 고르게 뿌립니다. 여분의 금가루를 털어내면 사자의 선명한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 유물에서는 특히 칼자루 부근에 배치된 사자의 방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집의 한쪽 면에는 사자의 앞모습이, 반대쪽 면에는 사자의 뒷모습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日本語仮訳>**国宝****沃懸地獅子文毛抜形太刀**

この太刀は、1939 年に春日大社の宝物庫の天井裏から発見されました。刀身は平安時代（794-1185）に遡り、もともとは毛抜のような形状をした透かし柄を備え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現在は、毛抜形の意匠を残しつつも透かしのない装飾的な柄（目貫）を備えています。この様式は、刀身が作られた時代から数世紀後の鎌倉時代（1185~1333）に流行したものであることから、刀身は代々家伝の宝刀として受け継がれ、のちに新たに拵が施され、春日大社に奉納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鞘には、中国由来の霊獣である獅子（しし）が六頭あしらわれています。獅子は精神的な強さや指導力の象徴とされます。これらの獅子は描割と呼ばれる精緻な蒔絵技法で表現されています。この技法では、模様を余白部分を用いて表現します。まず薄紙に獅子の図柄を描き、それを鞘の表面に写します。その後、線画の余白

部分に漆を丁寧に塗り、金粉を均等に蒔きます。余分な粉を払うと、漆のない部分が文様として残り、獅子の力強い輪郭が浮かび上がります。

特に、柄に最も近い位置の獅子の向きには細部への工夫が凝らされています。鞘の片面には正面を向く獅子、反対の面には背面の獅子が描かれています。

019-014

古都奈良の文化財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タイトル】春日大社/若宮御料古神宝類 銅造狛犬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일본 국보

와카미야 신의 신성한 고대 보물

은도금 청동 고마이누 조각상

이 작은 청동상은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마이누 조각상 중 하나입니다. 고마이누는 상상의 생물로, 고마이누 조각상은 흔히 신사나 사원의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자(중국 신화 속 생물, 일본어로 시시)와 쌍을 이루어 마주 보게 배치되며, 이 조각상은 아마도 그 한 쌍의 조각상 중 하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고마이누들은 와카미야 신사의 창건에 깊이 관여했던 도바 천황(1103~1156)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조각상의 다리와 꼬리는 별도로 주조되어 금속 못으로 본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앞다리는 또 다른 못으로 청동 받침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마이누의 외뿔은 남성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다문 입은 '음'이라는 음절의 발성을 나타냅니다. 고마이누와 쌍을 이루는 사자는 뿔이 없으며, 입을 벌린 모습으로 '아'라는 음절의 발성을 표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어의 오메가와 알파처럼 이 소리들은 각각 끝과 시작을 나타내며, 둘이 함께 삼라만상을 상징합니다.

019-014

<日本語仮訳>

国宝

若宮御料古神宝類 銅造狛犬

この小像は、日本に現存する狛犬の作例として最古級の一つです。狛犬は、神社や寺院の入口を護る霊獣としてよく見られる存在です。通常は獅子と対で置かれ、この像も一対のうちの一体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伝承によると、それはかつて鳥羽上皇（1103-1156）の所有であったとされ、鳥羽上皇は若宮神社の創建に深く関わった人物であると伝えられています。

狛犬の脚部と尾は別に鑄造され、金属の鉋によって胴体に取り付けられています。さらに、前脚は鉋で台座に固定されています。額の一本角は雄性を表し、閉じた口は「ウン」の音を示しています。対となる獅子像は角を持たず、開いた口で「ア」の音を示したと考えられます。「ア」と「ウン」はギリシャ語のアルファとオメガのように始まりと終わりを表し、両方で森羅万象を象徴するものです。

019-015

古都奈良の文化財多言語解説整備推進協議会

【タイトル】春日大社/若宮御料古神宝類 白磁獅子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일본 국보

와카미야 신의 신성한 고대 보물

중국 도자기 사자 조각상

이 순백색 도자기 조각상은 중국 신화 속 사자(시시)를 묘사한 것으로, 발치에는 자수를 놓은 공이 놓여 있습니다. 표면은 얼룩져 있는데, 이는 아마도 오랜 세월 쌓인 먼지와 그을음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각상의 받침대는 향로를 덮어 연기가 사자 몸 안의 통로를 통해 입으로 나오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각상은 중국에서 제작되었으며 송나라 시대(960~1279 년) 또는 그 이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1220 년 이전에 와카미야 신사에 봉헌된 물품 기록에도 이와 유사한 물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조각상이 1135 년에 와카미야 신에게 봉헌된 이래로 신사에 보관되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당시에는 송나라 도자기로 만든 물건들이 매우 귀하게 여겨졌으므로, 수입된 조각상 또한 기증자가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사자는 일본에서 적어도 700 년대부터 힘과 용기를 상징했습니다. 사자는 무시무시한 수호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조각상은 둥근 엉덩이, 커다란 눈, 가슴에 방울이 달린 띠를 두른 모습에서 확연히 장난스러움이 느껴집니다.

019-015

<日本語仮訳>

国宝

若宮御料古神宝類 白磁獅子

純白の磁器で作られたこの置物は、蹴鞠に足をかけた唐獅子を表しています。表面は長年にわたる埃や煤によって黒ずんだと考えられます。台座の形状から、この置物は香炉の上に据えられ、香煙が獅子の体内を通して口から立ちのぼるように設計されたと考えられます。

本作は中国製で、遅くとも宋時代（960–1279）にさかのぼるとみられます。1220 年以前に若宮神に捧げられた若宮一社御遷宮記にも類似の品が記されており、この置物が1135 年に若宮神に奉納されて以来、若宮神社に所蔵されてきた可能性を示しています。宋代の磁器は当時きわめて珍重され、この輸入品も奉納者にとって特別に大切な宝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

唐獅子は、日本において少なくとも8世紀以来、勇猛と武勇の象徴とされてきました。威厳のある守護者として表されることの多い獅子像の中で、この置物はむしろ愛らしく、丸みを帯びた腰つき、大きな目、胸に斜めにかけられた鈴飾りなどが特徴的です。

地域番号	020	協議会名	三朝町日本遺産活用推進協議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20-001	三徳山/三徳山の歴史と特徴	807	アプリ QR コード/Web
020-002	三徳山/三徳山の行者道（ぎょうじゃみち）	1260	アプリ QR コード/Web
020-003	三徳山/役行者と修験	694	Web
020-004	三佛寺奥院（投入堂）/投入堂（不動堂、愛染堂）	1021	アプリ QR コード/Web
020-005	三徳山の建物/三佛寺 本堂	921	アプリ QR コード/Web
020-006	三徳山の建物/文殊堂	606	アプリ QR コード/Web
020-007	三徳山の建物/地藏堂	508	アプリ QR コード/Web
020-008	三徳山の建物/鐘楼堂	344	アプリ QR コード/Web
020-009	三徳山の建物/三佛寺納経堂、観音堂（胎内くぐり）、元結掛堂	682	アプリ QR コード/Web
020-010	木造蔵王権現立像（奥之院安置）、木造蔵王権現立像/蔵王権現	1092	アプリ QR コード/Web
020-011	三佛寺 宝物殿/宝物殿の展示物	1512	アプリ QR コード/Web
020-012	三朝温泉/三朝温泉の歴史と特徴	1121	アプリ QR コード/Web
020-013	三朝温泉/三朝温泉のラドン泉	895	アプリ QR コード/Web

【タイトル】 三徳山/三徳山の歴史と特徴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정신 수양을 위한 산, 미토쿠산**

미토쿠산(三徳山)은 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정신 수양의 성지입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산악신앙은 육근청정을 수행하는 의식으로 수세기에 걸쳐 발전하였고 일본 내 순례자들을 매료시킵니다. 미토쿠산은 순례자들이 등산하기 전에 몸을 정화할 수 있는 미사사온천과 함께 최초로 일본 유산에 등록된 곳이 되었습니다.

승배와 경배의 장에서 수행의 장으로

일본에서 산은 선사시대부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은 산이 많은 나라로 사람들은 언제나 식량과 물을 비롯해 여러 자원을 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산을 감사와 경배의 대상인 신의 몸으로 여기고 숭배하였습니다. 1000 년대 후반, 신비주의자와 수행자들은 의식을 통해 영험한 능력을 얻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자연 경배와 정신 수행의 전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합되고, 지역에서 일본 전국의 신앙 및 신앙의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미토쿠산은 이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세 신을 숭배합니다. 이 세 신은 자오곤젠(蔵王権現), 갓테곤젠(勝手権現), 고모리곤젠(子守権現)으로 일본 신도의 곤젠은 부처와 보살의 화신으로 믿는 신을 말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현재도 이용되는 나게이레도(投入堂)로 연결되는 수행의 길을 포함하여 미토쿠산 남쪽의 간무리이와(冠巖) 등의 다른 장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미사사 온천이 발견된 이후, 수행자들은 온천에서 목욕재계한 후에 산중턱에 있는 영험한 영장(靈場)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미토쿠산과 일본 전역의 산악 신앙의 역사를 재조명할 새로운 사실들을 미사사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영적 체험

지금도 미토쿠산은 정신 수행의 장입니다. 수행의 길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등산로가 아닙니다. 5 가지 인지 기능과 마음을 포함한 6 가지 근원을 청정하는 ‘육근청정’을 향한 내적 정진을 육체적으로 표현한 곳입니다. 미토쿠산을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지각이 정화되면 깨달음, 부처와 신의 융합, 정신적 재생이 일어나고 이 경지에 이른 순례자들은 새로운 목적 의식을 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日本語仮訳>**精神修行の山、三徳山**

三徳山（英語で「三徳山」）は、千年以上の歴史を持つ精神修行の聖地です。古代から伝わる山岳信仰は、認知の6つの根源を清めて修験の儀式へと数世紀をかけて発展し、日本中から巡礼者を惹きつけています。巡礼者が登山前に体を清める場所となっている三朝温泉とともに、三徳山は日本遺産に登録さ

れた最初の場所の一つとなりました。

崇敬の場から修行の場へ

日本において山は先史時代から神聖な場所と考えられていました。日本は山が多い国で、人々は常に山に食料、水、その他資源を依存しています。やがて、山は感謝と崇敬の対象となる神体（神々）として見な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1 千年紀の後半に、神秘主義者や修験者が儀式を通じて霊力を得ようと入峰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うした自然崇拝と精神修行の伝統が時間の経過とともに融合し、地域的、そして全国的な信仰と実践のネットワークへと発展していきました。

三徳山はそうしたネットワークの中心地で、次の三神を崇拝の中心としています：蔵王権現、勝手権現、そして子守権現です。（権現は仏や菩薩の化身と信じられている神。）このネットワークには、現在も使われている投入堂へと続く行者道のような場所だけでなく、三徳山南側にある冠巖（英語で「冠の岩」）のようなその他の場所も含まれていました。三朝温泉が発見されると、修行者はそこで禊をしてから、その上の斜面にある霊場に入るようになりました。考古学者は現在も三朝で新たな発見をしており、三徳山と日本全国の山岳信仰の歴史に新たな光を当てています。

現代の霊的体験

現在も、三徳山は精神修行の場です。行者道はただ山頂への登山道ではなく、六根清浄、つまり「認知の 6 つの根源の浄化」への内なる道を物理的に表現しており、認知の 6 つの根源とは「五感」の器官に「意識」を加えたものです。三徳山の自然の美しさの中で知覚を浄化することは、悟り、仏や神との融合、精神的な再生をもたらす、そうした境地に達した求道者は新しい目的意識を持って生活に戻ると言われています。

【タイトル】 三徳山/三徳山の行者道 (ぎょうじゃみち)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미토쿠산의 수행의 길**

교자미치(行者道)로 불리는 수행의 길은 산부쓰지 절에서 나게이레도(投入堂)까지 미토쿠산을 등산하는 코스입니다. 수행의 길을 걸어서 왕복하면 신과 부처와 한 몸이 되는 신불일체가 되어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쿠이리바시, 몬주도, 지조도

수행의 길은 산부쓰지 절 뒤의 입봉 수행 접수처에서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이곳에서 등산 희망자들이 적절히 장비를 준비했는지, 2인 이상의 그룹(단독 산행은 불허)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후, 등산객에게 흰색 띠, 와게사(輪袈裟)를 나눠줍니다. 이것은 수행자가 착용하던 백색의 전통 의상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접수처를 지나면 등산객들은 나무에 신성한 시메나와(注連縄) 끈이 늘어져 있는 참나무인 시메카케스기(注連掛杉)를 지난 후, 붉은 색이 선명한 시쿠이리바시(宿入橋) 다리를 건넙니다. 이 나무와 다리는 모두 영계로 가는 입구를 의미합니다.

수행자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가즈라자카(根登り) 언덕과 구사리자카(鎖登り) 언덕으로 불리는 육체적으로 힘든 구간입니다. 전통적으로 등산객들은 염불을 읊으며 이 구간에서 정신을 집중합니다. 염불은 ‘산게, 산게, 록곤 쇼조(懺悔,懺悔! 六根清淨)’로 ‘참회, 참회, 근본 6근의 인지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관문은 몬주도(文殊堂)와 지조도(地藏堂)라고 하는 문수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신 2개의 법당입니다. 등산객은 각 법당의 회랑을 시계방향으로 한바퀴씩 돌면서 문수보살의 지혜와 지장보살의 자비를 구합니다. 법당에서 바라보면 주변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고 서쪽으로 다이센(大山) 산도 멀리 보입니다.

나게이레도에 도착

쇼로도(鐘樓堂)라 불리는 종탑에서 종을 울려 도착을 알린 후, 우마노세(馬の背), 우시노세(牛の背)라는 각각 말과 소의 등을 형상화한 2개의 크고 평평한 바위를 지나면 등산객들은 수행의 길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섭니다.

과거에 경문을 봉헌한 노쿄도(納経堂)를 지나, 등산객들은 관음보살을 모신 법당인 관음당의 뒤를 돌아 좁은 통로를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영적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그 후, 그들은 모토유리카케도(元結掛堂)를 지나갑니다. 이곳은 과거에 새롭게 수행자가 된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그 머리를 봉헌했던 곳으로, 이는 부처님이 현세를 뒤로 한 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등산객들은 영계에 들어가서 자신의 강함과 용기를 증명하면서 문수보살의 지혜와 지장보살의 자비를 구합니다. 등산객들은 신의 영역에 도착했음을 알려,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영적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수행자의 길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나게이레도가 보입니다. 나게이레도는 자오곤젠(蔵王権現)을 모신 작은 배전으로 높은

절벽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나게이레도는 인간의 예술성과 영원히 손에 닿지 못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의 조화로움이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서 참배를 마친 후, 등산객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이곳의 경험으로 변화되어 속세로 돌아갑니다.

등산 요건

단독 등산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스파이크가 달린 신발, 트레킹용 폴, 그 밖에 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에서의 음식 섭취는 불가능하지만,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허용됩니다. 나게이레도까지는 왕복으로 약 3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020-002

<日本語仮訳>

三徳山の行者道

行者道（ぎょうじゃみち）は、三佛寺から投入堂まで三徳山に登るコースです。行者道を歩いて往復することで、儀式的に精神の領域に入り、神仏と一体となって、精神的に生まれ変わって世に戻ることができます。

宿入橋、文殊堂、地藏堂

行者道は、三佛寺の裏手にある参拝登山受付所から始まり、ここでは、スタッフが登山希望者に装備が適切であることと、2人以上のグループであること（単独での登山は許可されていません）を確認します。その後、登山者には白い帯（輪袈裟）が渡されます。これは、修験者が着用していた伝統的な白い装束を表しています。

受付所を過ぎると、注連掛杉という神聖な注連縄が巻かれた杉の木があり、登山者はそこを通り過ぎて鮮やかな朱色の宿入橋を渡ります。これらは共に、霊界への入り口を意味します。

行者道の始めには、カズラ坂（根登り）とクサリ坂（鎖登り）といった肉体的な試練の場があります。伝統的に、登山者は掛け念仏を唱えてこの区間に意識を集中させます：「懺悔、懺悔！六根清浄！」（文字通りの意味は、「悔い改め、悔い改め！認知の6つの根源の浄化！」）

登山者は次に、文殊堂と地藏堂という、文殊菩薩（マンジュシュリ）と地藏菩薩（クシティガルバ）を祀った2つの礼堂を通ります。登山者は、それぞれのお堂の廻り縁を時計回りに歩いて一周することで、文殊菩薩の知恵と地藏菩薩の慈悲を授かります。お堂からは周囲の景色を一望でき、はるか西には大山も見えます。

投入堂に到着

鐘楼堂という鐘を吊るす塔で鐘を鳴らして到着を知らせ、馬の背、牛の背という、それぞれ馬と牛の背中のような形をした2つの大きな平らな岩を渡ると、登山者は行者道の最上段に入ります。

かつて経文が奉納されていた納経堂を過ぎ、登山者は観音菩薩（アヴァローキテーシュヴァラ）を祀ったお

堂である観音堂の後ろにある狭い通路をくぐり抜けます。これは靈的な生まれ変わりを象徴します。次に、登山者は元結掛堂という、新しい修行者がかつて頭髪を剃った際の鬘を納めた小さな祠を通過しますが、これは歴史上の仏陀が現世を捨てたことを再現するものです。

この時点で、登山者は靈界に入り、自身の強さと勇気を証明し、文殊の知恵と地蔵の慈悲を授かっています。彼らは神の領域に到着したことを知らせ、前世を捨て、靈的に生まれ変わっています。行者道の最終盤に入ると、投入堂が見えてきます；それは、蔵王権現を祀る小さな拝殿で、断崖の高い場所にある割れ目に建てられています。投入堂には、人間の芸術性と永遠に手の届かない自然の美しさが相まった魅力があります；下から参拝した後、登山者は行者道を戻って、経験を通して変化した俗世に戻ります。

登山の要件

単独での登山は許可されていません。スパイク付きの靴、トレッキングポール、その他山を傷つける可能性のある装備も禁止されています。食べ物を山で摂取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飲料水は許可されています。投入堂までは往復で約 3 時間かかります。

【タイトル】 三徳山/役行者と修験

【想定媒体】 Web

<韓国語>**엔노교자와 슈겐도**

미토쿠산에서 슈겐도(修験道)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706년 전설적인 주술사였던 엔노교자(役行者)가 이곳을 방문한 때부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엔노교자는 3장의 연꽃잎을 공중에 뿌리면서 이 꽃잎이 떨어지는 장소로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꽃잎 한 장은 에히메현의 이시즈치산(石鎚山), 한 장은 나라현의 요시노산(吉野山), 마지막 세번째 꽃잎이 여기 미토쿠산에 떨어졌습니다.

엔노교자에 관한 역사적 사실

엔노교자는 634년에 태어난 역사상 인물입니다. 본명은 엔노오즈누(役小角)라고 알려졌지만 그와 관련된 것이 사실인지는 전설 속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엔노교자는 현재 나라현의 가쓰라기산(葛城山)에 머물던 승려였다고 합니다. 주술을 사용하여 ‘영(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능력을 질투한 경쟁자들은 699년에 이즈 오시마의 멀리 떨어진 섬으로 그를 추방하였고, 그 후의 삶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엔노교자는 자연 숭배 사상인 신도와 밀교 등의 요소와 불교를 합친 신불습합(神仏習合)의 전통을 가진 슈겐도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슈겐도는 특정 바위나 산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을 수양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의식이나 수행을 치룹니다.

본지수적: 동일한 진리의 화현

슈겐도는 신과 부처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본지수적(本地垂迹) 사상을 담습니다. 엔노교자가 미토쿠산에 모신 것으로 알려진 세 화신(権現, 곤겐)에는 갓테곤겐(勝手権現, 문수보살과 동일시하며 비와 가뭄과 연관), 고모리곤겐(子守権現, 지장보살과 동일시하며 물의 흐름과 마시는 물과 연관), 자오곤겐(蔵王権現, 부처, 관음보살, 미륵과 동일시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여 두렵고 힘센 모습)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役行者と修験道**

三徳山の修験道の歴史が始まったのは、706年に伝説的な呪術者である役行者が訪れたときからだとされています。伝説によると、役行者は三つの蓮の花びらを空中に投げ、それが着地した場所に行くことを誓いました。一つの花びらははるか北の羽黒山に、もう一つの花びらは奈良の吉野山に、そして3つ目の花びらは三徳山に着地しました。

役行者に関する史実

役行者（行者の役（えん））は、634年に生まれた歴史上の人物です。本名は役小角といいますが、彼の人生に関する事実を伝説から解き明かすのは困難です。彼は現在の奈良県にある葛城山に住んでいた僧侶だったようで、魔術を使って霊を意のままに操る能力があったとされています。嫉妬したライバルたちによって699年に伊豆大島という遠く離れた島に追放されましたが、その後彼がどうなったかについては明確ではありません。

他にも実績はありますが、役行者はとりわけ修験道の開祖として知られており、修験道とは、自然崇拝に神道や密教などの要素を組み合わせた神仏習合の伝統です。修験者は、特定の岩や山全体を信仰の対象として扱い、精神を研ぎ澄ませ、悟りを得るための儀式や修行を行います。

本地垂迹：同じ真理の顕現

修験道は、神と仏を同じ本質的な真実の異なる顕現と見なす本地垂迹の思想も取り入れています。役行者が三徳山にお祀りしたとされている3つの化身（権現）は、勝手権現（文殊菩薩（マンジュシュリ）と同一視され、雨と干ばつに関連付けられている）；子守権現（地藏菩薩（クシティガルバ）と同一視され、水流と飲料水に関連付けられている）；蔵王権現（歴史上の仏陀、観音菩薩（アヴァローキテーシュヴァラ）、弥勒（マイトレーヤ）と同一視され、過去、現在、未来を象徴し、恐ろしく、力強い姿をしている）です。

【タイトル】 三佛寺奥院（投入堂）/投入堂（不動堂、愛染堂）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나게이레도**

나게이레도(投入堂)는 수행의 길이 끝나는 지점의 높은 산중턱에 갈라진 틈 사이에 건축된 배전입니다. 미토쿠산에 모셔진 슈겐도의 삼신 중 가장 중요한 자오곤겐(蔵王権現)을 모십니다. 12 세기에 축조된 이 건물은 현존하는 일본 신사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놀라운 위치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술성과 자연의 아름다움

나게이레도의 왼쪽에는 아담한 아이젠도(愛染堂)가, 멀리 오른쪽으로 다른 절벽면에는 후도도(不動堂)가 있습니다. 이 참배당은 자오곤겐의 협시 보살인 애염명왕과 부동명왕을 각각 모십니다. 이 세 건물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외관을 형성하고, 인간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더해져 험난한 주변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수 세기 전, 나게이레도에는 7 구의 자오곤겐 목상과 수호동물인 2 마리의 고마이누가 보관되었습니다. 현재 이것들은 안전을 위해 산부쓰지 절의 보물전(宝物殿)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오곤겐의 본존은 일부는 옷칠 위에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오곤겐의 몸 안에서 나게이레도가 창건되었던 1168 년경에 작성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이로운 건축물

나게이레도의 건축은 수세기에 걸쳐 많은 참배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공학적인 위업입니다. ‘나게이레도(投入堂)’는 ‘던져 넣은(投入) 사당’을 뜻하며 엔노교자가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던져 넣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건축했을 것으로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식 명칭은 오쿠노엔(奥の院), 산부쓰지 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게이레도 건설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건축자들은 기능성과 더불어 아름다움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아래쪽에서 위를 올려다볼 것을 상정하고 설계되었습니다. 법당의 지주는 원근감을 연출하기 위해 교묘하게 길이가 조정되어 있고 광활한 주변 자연을 강조합니다. 건물의 처마는 위를 향해 커브를 그리며 동일한 구조의 일반 처마와 비교해 길게 솟아나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려보아도 잘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젠도는 나게이레도가 가리지 않도록 조금 앞으로 나온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나게이레도를 세우기 위해 선별된 장소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바위가 튀어나와서 눈과 비를 막아주고 아래쪽 물흐름이 공기를 자유롭게 순환시켜 곰팡이와 부식을 방지합니다. 이런 환경 조건이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 현재까지 나게이레도가 보존될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投入堂

投入堂は、行者道の終点の高い山腹の割れ目に建てられた拝殿です。三徳山に祀られた修験道三神の中で最も重要な蔵王権現を祀っています。12世紀に建てられたこの建物は、現存する日本の神社建築のうち最も古いものの一つで、国宝に指定されており、その美しさと驚くべき立地が高く評価されています。

人間の芸術性と自然の美しさ

投入堂の左側には小さな愛染堂があり、はるか右側の別の崖には不動堂があります。これらのお堂には、蔵王権現の脇侍である愛染明王と不動明王が祀られています。これら3つの建造物が一体となって美観を作り出しており、人間の芸術性と独創性が周囲の荒々しい自然の美しさとシームレスに調和しています。

数世紀前、投入堂には7体の蔵王権現の木像と2匹の狛犬という守護獅子犬が安置されていました。これらは現在、安全のために三佛寺宝物殿に保管されています。蔵王権現の本尊は今も一部は漆の上に金箔が施されています。体内には、投入堂が建立された1168年頃の文書が発見されました。

驚異的な建造物

投入堂の建築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多くの参拝者を驚嘆させてきた工学的偉業です。「投入堂」は「投げ入れられたお堂」を意味し、役行者が人知を超えた方法で投げ入れたに違いないという考えを反映していますが、これは、人の手では建てられたはずがないとされたためです。（正式名称は奥の院で、三佛寺の「最も奥のお堂」を意味します。）

投入堂の建設に関する記録は残っていませんが、建築者は明らかに機能だけでなく美しさも重視していました。ほとんどの人がはるか下方から見ること意識した、工夫された設計になっています。お堂の支柱は、遠近感を演出するために巧みに長さが調整されており、広大な周囲の自然を強調しています。お堂の庇は上向きにカーブしており、このような構造の一般的な庇よりも長く突き出ているため、下からもよく見え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同様に、愛染堂は投入堂に遮られないように、少し前に出た位置に建てられています。

投入堂を建てるために選ばれた場所は実用性がないように見えますが、実用的な利点もあります。岩の張り出しがお堂を雨や雪から守り、下方の水流が空気を自由に循環させ、カビや腐食を防いでいます。こうした環境条件が、平安時代後期から現代まで、投入堂の保存を支えています。

【タイトル】 三徳山の建物/三佛寺 本堂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산부쓰지 절: 본당**

산부쓰지(三佛寺) 절은 미토쿠산이 위치한 천태종 사원으로 849 년에 건축되었습니다. 본당은 수행자의 길 기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당은 축 300 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곳의 건축과 전통은 미토쿠산의 역사와 더불어 슈겐도의 특징인 신불습합의 신앙색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변영을 누렸던 산악사원

산부쓰지 절을 개산한 사람은 엔노지(円仁)라 불리던 승려로 천태밀교 발전에 큰 공헌을 세운 중요 인물입니다. 미토쿠산은 8 세기부터 엔노교자(役行者)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수행을 하던 곳이었지만, 절을 최초로 건립한 사람은 엔노지입니다. 산부쓰지 절이란 이름은 ‘3 구의 불상이 있는 절’을 의미하고 엔노지가 절에 안치한 3 구의 성상인, 아미타여래, 대일여래,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그 후 몇 세기에 걸쳐 산부쓰지 절은 화려한 변영을 이루었습니다. 최전성기 당시 절의 영역은 약 81㎢까지 확장되었고 38 채의 법당과 3,000 개 이상의 승방이 있었습니다. 절에는 3,000 명을 먹이기에 충분한 쌀이 매년 헌품되었고, 다이센 산의 다이센지(三佛寺) 절과의 영역 다툼이 있을 때는 승병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산부쓰지 절의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지만, 본당보다 위쪽 영역인 수행자의 길과 나게이레도를 포함함 지역도 현재 절의 경내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신불습합과 분리

슈겐도를 비롯한 산악 수행은 산부쓰지 절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영향 중 하나가 ‘미유키교례쓰(御幸行列)’로, 산의 신들인 자오곤젠, 갓테곤젠, 고모리곤젠을 ‘미코시(神社)’라고 부르는 가마에 태워 미토쿠산에서 미사사 마을까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 행렬은 보통 신도(神道)의 행사지만 산부쓰지 절에서의 미코시는 본당 안의 제단 양쪽에 위치한 특별 구역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19 세기 후반에 신도와 불교를 강제로 분리할 때, 산부쓰지 절은 다른 많은 사원들보다는 더 많은 신불습합의 전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두 영역 사이에서 이미 암묵적인 분리가 존재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산부쓰지 절의 본당은 전통적으로 위쪽은 산의 영적 세계이고 아래쪽은 불교 사원으로 하는 경내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삼았습니다.

수행의 길을 걷는 참배자는 길을 들어서면 전과 후에 본당에 들어가 잠시동안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갖도록 권장합니다. 산에서 수행을 한 전후에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日本語仮訳>

三佛寺：本堂

三佛寺は三徳山にある天台宗の寺院で、849年に創建されました。本堂は、行者道のふもとにあります。本堂築300年以上と推定されており、その建築と伝統は、三徳山の歴史を通じて修験道の特徴づけた神仏習合の信仰を色濃く残しています。

栄華を誇った山岳寺院

三佛寺の開祖は円仁という僧侶で、天台密教の発展に大きく貢献した重要人物です。三徳山は、8世紀から役行者の信奉者の修行の地となっていたましたが、寺を初めて建立したのは円仁でした。三佛寺という名前は「3体の仏像の寺」を意味し、円仁が寺に安置した3つの聖像に由来します；阿弥陀如来（アミタバ）、大日如来（ダイニチヤナ）、釈迦牟尼（歴史上の仏陀）です。

その後の数世紀にわたり、三佛寺は繁栄を極めました。最盛期には、寺域は約81 km² 20,000エーカーに広がり、38棟のお堂と3,000軒の僧房を有していました。寺には3,000人を養うのに十分な米が毎年納められ、大山寺と領地をめぐって争うための僧兵も擁していました。現在、三佛寺の規模は大幅に縮小されましたが、本堂より上のエリアの、行者道や投入堂を含む広域が今も境内の一部と見なされています。

神仏習合と分離

修験道をはじめとする山岳修行は、三佛寺の歴史に強い影響を与えてきました。この影響の一例が「御幸行列」です；これは、山の神々である蔵王権現、勝手権現、子守権現を、御輿と呼ばれる持ち運びできる神社に乗せて三徳山から三朝の町へと担ぎ下ろすものです。このような行列は通常は神道の行事ですが、三佛寺では、御輿は本堂内の祭壇の両側にある特別な区画に安置されています。

明治政府が19世紀後半に神道と仏教を強制的に分離した際、三佛寺は他の多くの寺院よりも多くの習合の伝統を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は、2つの領域の間にはすでに暗黙の分離が存在していたからです。三佛寺の本堂は伝統的に、上の山の霊的世界と下の仏教寺院の境内とを分ける境界線と見なされていました。

行者道を歩く参拝者は、道に入る前と後に本堂に入り、しばし瞑想にふけることが推奨されています。山での修行の前後で、物の見方が大きく変わるかもしれません。

【タイトル】 三徳山の建物/文殊堂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문주도**

문주도(文殊堂)는 미토쿠산 수행의 길을 맞이하는 첫 주요 건축물로 구사리자카(鎖登り坂) 언덕을 오르기 전에 있습니다. 갓테곤겐(勝手権現)이라는 문수보살의 화신(지혜의 보살)을 모십니다. 모든 등산객들은 등산을 재개하기 전에 회랑을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일주하며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주도는 1580 년에 건축된 중요문화재입니다. 간결한 직사각형 모양 전각으로 약 4x6 미터 면적이며, 사방을 따라 좁은 회랑이 있습니다. 문주도보다 조금 먼저 세워진 지조도(地藏堂)를 충실히 모방해 건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조도를 모신 곳이 신앙의 중심이었었던 거대한 암석 바로 위에 세워진 것과 달리, 문주도는 산 줄턱에 튀어나온 평평한 바위 위에 서있고, 약 5.5m 높이로 유연한 격자 모양의 지주가 받치고 있습니다.

문주도의 회랑에서는 산으로 둘러싸인 절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토쿠가와(三徳川) 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의 삼림지대는 과거 미토쿠산 사원군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명칭은 센겐바라(千軒原)로 ‘1,000 채의 건물이 있는 평지’라는 뜻입니다. 서쪽으로 멀리 보면 위아래로 솟은 풍경을 따라 센조산(船上山)과 영봉다이센(大山) 산도 볼 수 있습니다.

등산할 때의 매너

회랑에 올라갈 때에는 신발을 벗으세요. 다른 등산객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회랑은 두 명이 서로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日本語仮訳>**文殊堂**

文殊堂は三徳山の行者道にある最初の主要建造物で、クサリ坂（鎖登り）の先にあります。勝手権現という、文殊菩薩（マンジュシユリ）の化身とされる知恵の菩薩が祀られています。引き続き山に登る前に、すべての登山者は、廻り縁を時計回りに歩いてお堂を一周し、文殊菩薩の知恵（単なる知識ではなく、善悪を区別し、それに従って行動する能力）を象徴的に授かります。

文殊堂は1580年に建てられた重要文化財です。シンプルな長方形のお堂で、広さは約4×6メートル、四方には狭い廻り縁があります。文殊堂より少し古い、地藏堂をよく模倣して建てられているようです。しかし、地藏堂が鎮座しているのが信仰を集めていた巨大な岩の上であるのに対し、文殊堂は山腹から突き出

た台座の上に建てられ、高さ約 5.5 メートルの柔軟な格子状の支柱に支えられています。

文殊堂の廻り縁からは、山々に囲まれた絶景を眺めることができます。三徳川を挟んで北側の森林地帯には、かつては三徳山寺院群の中でも多くの人々が住んでいました。その地域の名前は千軒原といい、「千軒の建物の平原」という意味です。はるか西には、起伏のある風景の向こうに、船上山と霊峰大山も見えます。

登山時のマナー

廻り縁に上がる前に靴を脱いでください。他の登山者に気を配り、歩行の流れを妨げないでください；廻り縁は 2 人がすれ違うには狭すぎます。

【タイトル】 三徳山の建物/地蔵堂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

지조도

지조도(地蔵堂)는 미토쿠산의 수행의 길에서 두번째로 큰 건축물로 문주도(文殊堂)를 지나면 바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이곳은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여기는 고모리곤겐(子守権現)을 모십니다. 등산객은 지조도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지장보살의 자비를 받습니다.

문주도와 마찬가지로 지조도는 약 4x6 미터 면적에 사방으로 회랑이 있습니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문주도가 건축된 비슷한 시기인 대략 16 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바위 위에 바로 세워져 있어, 이 바위가 신앙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조도의 회랑을 한바퀴 도는 것은 고대 수행자들이 수행하며 돌던 바위 전체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지조도의 회랑에서는 산으로 둘러싸인 절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토쿠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의 삼림지대는 과거에 미토쿠산 사원군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명칭은 센겐바라(千軒原)로 ‘1,000 채의 건물이 있는 평지’라는 뜻입니다. 서쪽으로 멀리 보면 위아래로 솟은 풍경을 따라 센조산(船上山)과 영봉다이센(大山) 산도 볼 수 있습니다.

등산할 때의 매너

회랑에 올라갈 때에는 신발을 벗으세요. 다른 등산객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회랑은 두 명이 서로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日本語仮訳>

地蔵堂

地蔵堂は行者道で2番目に大きな建物で、文殊堂を過ぎてすぐのところにあり、地蔵菩薩(クシティガルバ同上です。)の化身と考えられている子守権現を祀っています。登山者は地蔵堂を一周することで、地蔵の慈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文殊堂と同様に、地蔵堂は約4×6メートルで、四方には廻り縁があります。重要文化財であり、16世紀(おおそ文殊堂と同じ時代)に建て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巨大な岩の上に直接鎮座しており、その岩が信仰を集めていた可能性が高いです; 地蔵堂の廻り縁を一周することは、古代の修験者が行ったように、岩自体を一周することになります。

地蔵堂の廻り縁からは、山々に囲まれた絶景を眺めることができます。三徳川を挟んで北側の森林地帯には、かつては三徳山寺院群の中でも多くの人が住んでいました。その地域の名前は千軒原といい、「千軒の

建物の平原」という意味です。はるか西には、起伏のある風景の向こうに、船上山と霊峰大山も見えます。

登山時のマナー

廻り縁に上がる前に靴を脱いでください。他の登山者に気を配り、歩行の流れを妨げないでください；廻り縁は2人がすれ違うには狭すぎます。

【タイトル】 三徳山の建物/鐘楼堂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쇼로도(종루)**

쇼로도(鐘樓堂)는 수행자의 길 도중에 위치한 2톤 무게의 청동종이 있는 종루입니다. 모든 등산객들은 이 종을 쳐서 자오곤겐(藏王権現)이 모셔진 나게이레도(投入堂)가 있는 참배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종을 치지 않고 쇼로도를 통과하는 것은 현관에서 노크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최초의 쇼로도는 12세기 후반 가마쿠라 막부를 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의 명으로 세워졌습니다. 현재의 종은 1691년에 주조되어 설치된 것입니다. 무거운 청동종을 500m 근처의 산중턱까지 운반한 것이 미토쿠산의 역사 속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은 종이 수행자의 길 중계점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가로대에 앉아 종을 치고 잔향이 사라질 때까지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인지의 6가지 근원 중 하나인 청각이 정화될 것입니다.

<日本語仮訳>**鐘楼堂（鐘を吊るす塔）**

鐘楼堂は行者道の途中にある2トンもある青銅の鐘を収めている鐘楼です。すべての登山者はこの鐘を鳴らして、蔵王権現が祀られている投入堂がある参道の最高地点に進む前に、到着したことを知らせます。鐘を鳴らさずに鐘楼堂を通過することは、ドアをノックせずに家に入るようなものです。

最初の鐘楼堂は、鎌倉幕府を開いた源頼朝の命により、12世紀後半に建てられました。現在の鐘は1691年に鑄造され、設置されました。重い青銅の鐘が500メートル近くの山腹まで運ばれたことが、三徳山の歴史の中で一度だけでなく二度もあったという事実は、鐘が行者道の中継点としていかに重要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横木に座って、鐘を突き、反響音が消えるのを聞くことで、心を静め、認知の6つの根源の一つである聴覚を浄化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三徳山の建物/三佛寺納経堂、観音堂（胎内くぐり）、元結掛堂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

노교도, 관음당, 모토유이카케도

수행자의 길에서 이곳은 등산객들이 나게이레도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건물군에 속합니다. 확 트인 산중턱에 세워진 문주도(文殊堂)와 지조도(地藏堂)와는 달리, 이 건물들은 튀어나온 바위 밑에 있고, 이와쿠라(磐座)라고 하는 동굴 같은 공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와쿠라는 수행자들이 명상과 의식을 치르는 중요한 장소로, 현재의 수행자의 길과 미토쿠산의 초기 수행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교도(納経堂), 경전을 모셔 놓은 사당)는 수세기 전에 순례자들이 경전을 공물로 바친 곳입니다. 이 건축물은 11 세기 후반, 나게이레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고 일본에 현존하는 목조 신사 건축물 중 오래된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근대에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이곳에 전국에서 가져온 경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미토쿠산이 정신 수행의 장으로 널리 유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관음당(觀音堂)은 17 세기 초기에 건축된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을 모신 곳입니다. 등산객들은 관음당 앞이 아닌 뒤를 지나서 법당과 암벽 사이의 좁은 통로에 몸을 구부려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뱃속 아기처럼 몸을 구부린다는 의미의 ‘태내 통과(胎内くぐり)’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산 속에서 영적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모토유이카케도(元結掛堂)는 이곳의 이름대로 ‘머리끈(元結)을 맨(掛) 법당(堂)’입니다. 모토유이(元結)는 많은 남성들의 전통적 상투 머리 스타일인 촌마케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끈으로 모토유이카케도는 새롭게 입문한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남은 촌마케를 놓아둔 작은 사당입니다. 이 건물은 깨달음을 얻은 후 자신의 머리를 밀고 승려들의 본이 되신 석가모니를 모십니다. 관음당과 동일한 17 세기 초반에 건축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納経堂、観音堂、元結掛堂

行者道のこの部分には、登山者たちが投入堂に到達する前の最後の建物群があります。開けた山腹に建てられた文殊堂や地藏堂とは異なり、これらの建物は岩の張り出しの下にあり、磐座と呼ばれる洞窟のような空間を形成しています。この磐座は修験者が瞑想や儀式を行う場として重要であり、現在の行者道と三徳山における初期の修行との間に途切れることのないつながりがあることを物語っています。

納経堂（お経を納めるためのお堂）は、何世紀も前の巡礼者がお経を供物として納めた場所です。この建物は 11 世紀後半に建てられたもので、投入堂とほぼ同時期であり、日本で現存する木造の神社建築

の最古の例の一つです。近代の調査では、全国から持ち込まれていたお経が見つかり、三徳山が精神修行の場として広く知られていたことを証明しています。

観音堂は17世紀初頭に建てられ、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菩薩（~~アヴァローキテーシュヴァラ~~）を祀っています。登山者は観音堂の前ではなく後ろを通り、お堂と岩壁の間の狭い通路をくぐり抜けます。これは「体をくぐる」という意味の胎内くぐりと呼ばれ、山そのものから霊的に生まれ変わることを象徴しています。

元結掛堂の文字通りの意味は「元結を吊るすお堂」です。元結とは、多くの男性がしていた伝統的な丁髷の髪型を固定するために使われる紐のことで、元結掛堂は寺院の新しい入門者が頭を剃った後に丁髷を残した小さな祠です。この建物は、悟りを開いた後に自らの頭髪を剃り、その後の僧侶の手本となった釈迦牟尼（~~歴史上の仏陀~~）を祀っています。観音堂と同様に、17世紀初頭に建てられました。

【タイトル】 木造蔵王権現立像（奥之院安置）、木造蔵王権現立像/蔵王権現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자오곤젠**

자오곤젠(蔵王権現)은 갓테곤젠(勝手権現), 고모리곤젠(子守権現)과 함께 미토쿠산의 본존입니다. 현재는 산부쓰지 절의 보물전에 7 개의 자오곤젠 목조상이 안치되어 있지만, 이들은 원래 수행자의 길 끝에 위치한 나게이레도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1 개가 나게이레도의 숭배 대상의 불상(본존)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현재 7 개 모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 세기 후반 헤이안 시대 말기 경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의로운 분노의 화신

슈겐도는 신과 부처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본지수적(本地垂迹) 사상을 수용하여 민간 토착신을 대륙의 부처와 보살의 화신(곤젠)에 대입했습니다. 자오곤젠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한 석가모니, 관음, 미륵의 세 부처와 동일시합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자오곤젠이 최초로 슈겐도의 창시자인 엔노교자의 앞에 나타났던 것은 엔노교자가 세상을 구체해주기를 기원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석가모니, 관음, 미륵이 그의 앞에 나타났지만 엔노교자는 세 부처가 그다지 친절하고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이 세 부처의 모습이 사라지고 자오곤젠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오르는 듯한 눈, 튀어나온 이빨, 위로 솟아오른 머리를 한 무서운 모습을 합니다. 자오곤젠상은 대부분 삼지창 모양의 금강저를 가진 팔을 휘두르며 한쪽 발을 올리고 발 아래의 무언가를 밟고 있는 모습을 합니다. 이 노여움의 대상은 인지의 6 가지 근원을 가리는 무지, 망상,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자오곤젠과 나게이레도

나게이레도(投入堂)의 숭배 대상인 조각상(본존), 자오곤젠상은 115cm 의 높이에 옷칠을 하고 일부는 금박을 입혔습니다. 다른 6 개의 불상과 마찬가지로 편백나무를 조각한 것입니다. 그는 매우 역동적이며 조화를 이룬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오곤젠은 대담하게 앞으로 나서며 오른쪽 발을 올리고 오른쪽 팔(예전에 손에 들고 있던 금강저는 소실)을 위로 들어올리고 왼손은 허리에 올려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검인(劍印)을 맺고 있습니다. 20 세기 연구자가 발견한 불상 안 문서에는 이 불상이 1168 년에 조각되었다고 적혀 있으며, 이는 헤이안 시대 후기의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이 조각상의 조각가가 유명한 불사였던 운케이(運慶)의 스승이었던 코케이(康慶)였다고 전합니다.

나게이레도에서 발견된 6 개의 조각상도 헤이안 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7 개 모두 현존하는 자오곤젠 목조상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높이는 84 cm 에서 140 cm 로 조금씩 다른 자세로 서 있습니다. 머리 뒤의 불꽃 같은 ‘광배’가 있는 조각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게이레도 내부에 6 개의 조각상이 3 개씩 나뉘어 황금빛의 본존 양쪽에 나란히 세워져 있어서, 사당에 들어서면 두려우면서도 저절로 경외심을 불러오는 광경을 연출했었습니다.

<日本語仮訳>

蔵王権現

蔵王権現は、勝手権現、子守権現と並ぶ三徳山の本尊です。三佛寺の宝物殿には 7 体の蔵王権現の木像が安置されており、これらはもともと、行者道の最後にある投入堂に安置されていました。1 体が投入堂の崇拜対象の像（本尊）として祀られ、7 体すべてが重要文化財であり、12 世紀後半の平安時代末期頃に彫られたものです。

正しい怒りの化身

修験道では、本地垂迹という思想を取り入れ、土着の神を大陸の仏や菩薩の化身（権現）として扱っています。蔵王権現は、過去、現在、未来を統合する次の三仏と同一視されています：釈迦牟尼（~~歴史上の仏陀~~）；観音（~~アヴァローキテシュヴァラ、現世で苦しむ人々を助ける菩薩~~）；弥勒（~~マイトレーヤ、未来の仏陀~~）です。

ある伝承によると、蔵王権現が初めて修験道の開祖である役行者の前に現れたのは、彼が世界の救済を祈っていたときでした。最初は、釈迦牟尼、観音、弥勒が彼の前に現れましたが、役行者はこの三仏はあまりにも親切で穏やかな姿であると考えました。この三仏は姿を消し、蔵王権現に取って代わられました；燃えるような目、むき出しの歯、逆立てた髪の毛の恐ろしい姿です。蔵王権現像は、多くの場合、三叉の金剛杵（稲妻）を持った腕を振り上げ、片足を上げて足下の何かを蹴ったり踏みつけたりしています。その憤慨の対象は、認知の 6 つの根源を曇らせる無知、妄想、恐れで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

蔵王権現と投入堂

投入堂の崇拜対象の像（本尊）である蔵王権現像は高さ 115 cm で、漆塗りで一部はまだ金箔で覆われています。他の 6 体の像と同様に、檜を彫ったものです。そのポーズは非常にダイナミックでバランスがとれています：蔵王権現は大胆に前へ踏み出し、右足を上げ、右手を高く上げ（かつて手に持っていた金剛杵は失われています）、左手は腰の位置で不屈の意志を表す剣印を結んでいます。20 世紀の研究者によって発見された像内の文書は、この像が 1168 年に彫ら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示しており、これは平安時代後期のものであることを意味します。また、その文書は、この像の作者を名高い仏師運慶の師と考えられている康慶としています。

投入堂で発見された他の 6 体の像も平安時代後期のものと考えられており、これら 7 体のすべてが、現存する蔵王権現の木像の中で最も古いものとなっています。高さは 84 センチから 140 センチで、少しずつ異なるポーズで立っています。頭の後ろに炎のような「光背」がある像もあります。

投入堂内で、かつてこれら 6 体の像は 3 体ずつ 2 組に分かれて金色の本尊の両側に並んでおり、お堂に上がった人にとっては、恐ろしく、畏敬の念を抱かせる光景を作り出していました。

【タイトル】 三佛寺 宝物殿/宝物殿の展示物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산부쓰지 절의 보물전**

산부쓰지(三仏寺) 절의 보물전(宝物殿)에는 불구(佛具)와 신구(神具)를 포함한 산부쓰지 절의 귀중한 불상, 공예품, 문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물전은 산부쓰지 절의 주 참배길에서 약간 떨어진 수행자의 길 입구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 전시품들은 미토쿠산의 역사를 밝히고 수 세기에 걸쳐 숭배해 온 사람들에게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보물전의 입장료에는 미토쿠산의 참관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각상

소장품의 중심은 나게이레도에 예전부터 보관되어 있던 7 구의 자오곤겐(蔵王権現)상입니다. 7 구의 조각상 모두 헤이안 시대(794~1192) 후기에서 12 세기 말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본존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X 선 사진과 본존의 몸 안에서 발견된 문서가 특징입니다.

또한, 원래 나게이레도(投入堂)에 설치되어 있던 고마이누(狛犬, 해태)라는 수호사자견 3 개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 중 한 쌍을 이루는 2 개는 비자나무를 조각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가마쿠라 시대(1192~1333 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세번째 상은 짝이 없으나 헤이안 시대 후기의 것입니다.

보물전에 있는 다른 불상들 중에는 등신대 크기의 십일면관음입상(十一面觀音立像)도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 후기의 것으로 이것 또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불상은 수행길이 끝나는 지점 근처에 있던 관음당의 본존입니다.

보물전에는 남녀 한 좌씩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좌불 신상과 각각 1523 년과 1542 년에 제작된 말을 탄 고모리곤겐(子守権現)과 갓테곤겐(勝手権現)의 목조상이 있습니다.

문서와 지도

보물전에는 몇몇 중요 문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본존인 자오곤겐(蔵王権現)의 몸 속에서 발견된 문서의 확대 사진, 노쿄도(納経堂)의 경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나게이레도에 보관 중이던 목간에는 1376 년에 마무리한 수리 작업에 관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토쿠산이 과거에 산 정상 양쪽으로 북쪽의 기타자(北座)와 남쪽의 미나미자(南座)로 나뉘게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흥미롭습니다.

벽의 한쪽 면의 대부분은 그 주변 지역을 손으로 그린 지도를 복제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지도 자체는 오래된 것이 아니지만 고문서에 있던 그림 지도가 전해진 것으로 나게이레도로 가는 영적 순례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 줍니다.

청동과 목재

청동 거울은 고대 일본에서 정치적·정신적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보물전에는 10 세기에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제 청동 거울 1 장이 있습니다. 거울 뒷면에는 당나라

시대의 디자인인 부리에 꽃장식을 물고 있는 두 마리의 앵무새가 가운데 손잡이 주위를 선회하고 있는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거울면에는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의 일부가 새겨져 있는데 대일여래가 연잎을 타고 8 좌의 부처와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살 배치는 표준적인 만다라와 미묘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 대일(大日)보살과 함께 ‘석가삼존상(釈迦三尊像)’을 이루기 위해 이동하고, 대일여래는 역사 속 부처인 석가모니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화경과 밀교의 가르침을 같은 것으로 여긴 원밀일치(圓密一致)란 천태종의 불교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울에 새겨진 명문에는 997 년에 ‘여제자 헤이잔(平山)’이 기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헤이잔은 엔유 천황(969~984)의 왕비로 추정되며, 후에 불교로 출가합니다. 이 거울을 기증한 점은 미토쿠산과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보물전에서 가장 독특한 전시는 ‘만질 수 있는 국보’, 나게이레도의 목재입니다. 이 나무는 원래 법당 밑을 받치던 기둥의 일부였던 것을 20 세기 들어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 일부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부쓰지 절 보물전을 방문하는 사람은 수행자의 길 종점인 나게이레도를 천 년 가까이 지탱해 온 나무 기둥을 만져 볼 수 있습니다.

020-011

<日本語仮訳>

三佛寺宝物殿

三佛寺宝物殿には、仏具と神具両方を含む、三佛寺の貴重な仏像、工芸品、文書が展示されています。宝物殿は三佛寺へのメインの参道から外れた、行者道への入り口の下にあります。この展示品は三徳山の歴史を明らかにし、何世紀にもわたって崇拝をしてきた人々に関する新たな観点を提示しています。宝物殿への入場料は、三佛寺の拝観料に含まれています。

像

所蔵品の中心は、投入堂にもともと保管されていた 7 体の蔵王権現像です。7 体の像はすべて平安時代後期から 12 世紀末にかけてのもので、重要文化財です。展示は、本尊の内部構造を示す X 線画像と、本尊の体内で発見された文書を特色としています。

また、もともとは投入堂内に設置されていた狛犬という守護獅子犬も 3 体展示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うち対になっている 2 体はカヤ材から彫られており、おそらく鎌倉時代（1192~1333 年）に作られたものです。3 番目の像は対になっておらず、平安時代後期のものです。

宝物殿にある他の像には、等身大の十一面観音立像もあります。平安時代後期のもので、これも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おり、もともとこの像は行者道の終点の近くにある観音堂の本尊でした。

宝物殿には、男女一体ずつの詳細不明な座位の神像と、それぞれ 1523 年と 1542 年に作られた馬に乗った子守権現と勝手権現の木像もあります。

文書と地図

宝物殿にはいくつかの重要な文書が展示されており、本尊の蔵王権現像の体内で発見された文書の拡大画像や、納経堂からのお経も含まれています。以前は投入堂内に保管されていた木製の札（棟札）には、1376年に完了した修理作業についての記述があります。これらは、三徳山がかつて山頂の両側に北と南の「座」（北座と南座）に分かれていたことについての情報を提供していることから、歴史的に興味深いものです。

壁の一面は、大部分が行者道とその周辺地域を描いた手書きの地図の複製で占められています。この地図自体は古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が、古文書にあった絵図を伝えていると考えられており、投入堂への霊的な巡礼の歴史的継続性を示しています。

青銅と木材

銅鏡は、古代日本においては政治的・精神的権力の象徴でした。宝物殿には、10世紀に鑄造されたとされる中国製の銅鏡が1枚あります。鏡の背面には、唐の時代のデザインである、くちばしに花綬をくわえた2羽のオウムが中央の柄の周りを巡回している柄が施されています。鏡の面には、胎蔵曼荼羅の一部が刻まれており、大日如来（ヴァイロージャナ）が蓮の葉に乗った8体の仏と菩薩に囲まれている様子が描かれています。菩薩の配置は標準的な曼荼羅とは微妙に異なっています：普賢菩薩（サマンタパドラ）は、文殊菩薩（マンジュシュリ）と大日とともに「釈迦三尊像」をなすために移動しており、大日は歴史上の仏陀である釈迦牟尼と同一視されています。これは、法華経と密教の教えを調和させる円密一致という天台宗の仏教哲学を反映しています。

鏡の銘文には、997年に「女弟子平山」によって寄進されたと記載されています。平山は円融天皇（在位：969～984年）の元妃だと考えられており、後に出家しました。この鏡の寄贈は、三徳山と朝廷との密接なつながりを示しています。

宝物館で最もユニークな展示は、「触れることができる国宝」：投入堂の木材です。この木はもともとお堂の下から支える支柱の一部でしたが、20世紀に建物の倒壊を防ぐために一部交換されました。そのため、三佛寺宝物館を訪れた人は、行者道の終点にある投入堂を千年近くにわたって支えてきた木の支柱に触れ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三朝温泉/三朝温泉の歴史と特徴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미사사 온천과 온천의 역사**

미사사 온천은 영봉 미토쿠산의 산기슭에 있는 온천 마을입니다. ‘마셔도 좋고, 입욕을 해도 좋고, 증기를 마셔도 좋다’라는 이 온천은 12 세기에 발견된 이후 미토쿠산의 정신 수행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미사사 온천의 발견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미사사 온천은 이곳을 방문한 무사에게 흰 늑대가 가르쳐 주어 발견되었으며 이 흰 늑대는 사실 묘젠보살의 종자(從者)였다고 합니다. 묘젠은 ‘약의 부처’인 약사여래가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약사여래는 미사사 온천을 지키는 부처인 동시에 언제나 이 온천의 치유능력의 근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온천이 발견될 때까지 미토쿠산은 수 세기에 걸쳐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미사사 온천을 처음 방문한 사람도 이런 수행자들이며, 그들은 미토쿠산의 영계에 들어가기 전, 목욕재계를 하기 위해 온천을 이용했습니다. 미사사는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해 오랜 시간동안 수행자들이 주로 찾던 곳이었습니다. 에도 시대 초기 1666 년에 돗토리번이 명한 ‘접대세’를 지불하도록 한 마을 명단에 미사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편리한 곳에 위치한 다른 온천 마을처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돈을 사용할 매력적인 곳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대에 이룬 번영

에도 시대도 시간이 흐르고 일본 전역에 걸쳐 평화가 찾아오자 여행자와 순례자들이 증가하였고 미사사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돗토리번은 미사사와 같은 온천 마을에 요금 제한을 실시한다는 포고를 내리고 다른 지방에서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현지 주민과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명했습니다. 미사사에는 현지의 젊은이들에게 도박을 비롯한 악습을 금지시킨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19 세기 후반까지 미사사 온천은 관광지로 번영했습니다. ‘미사사(三朝)’라는 지명은 문자 그대로 ‘3 개의 아침’을 의미하며 일·월·년이 동시에 밝아오는 신년의 아침을 지칭합니다. 미사사에서 3 박을 한 방문자는 3 일째 아침이 되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 세기 후반에 들어와 방사능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이후 미사사의 물에서 라돈이 발견된다는 사실로 마을은 유럽의 ‘라돈 욕탕’과 같은 건강 효과를 선전하게 되었습니다. 1929 년, ‘미사사 고우타(三朝小唄)’라는 노래가 유행하면서 마을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고 이 노래로 마을에서 무성 영화가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마을과 미토쿠산의 강한 연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토쿠산으로 가는 순례자가 육근청정, ‘인지의 6 가지 근원’, 즉 오감을 느끼는 기관과 의식 정화의 이념을 추구하듯이 미사사 온천은 방문자들에게 육감치유, 즉 ‘6 가지 감각의 치유(6 번째 감각은 마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에게 온천물을 마시거나 입욕하거나 증기로 마시는 것들을 통해 온천의 치유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풍경, 맛, 향, 질감도 릴렉스 효과에 상승효과를 더해서 더욱 심오한 힐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三朝温泉とその歴史

三朝温泉は、霊峰三徳山（英語で「三徳山」）の麓にある温泉街です。「飲んでよし、浸かってよし、蒸気として吸ってよし」とされるこの温泉は 12 世紀に発見され、以来その歴史は三徳山での精神修行と結びついてきました。

三朝温泉の発見

地元の伝説によると、三朝温泉は、この地を訪れた武士に白狼が教えたことにより発見され、その白狼は実は妙見菩薩の従者であったとされています。妙見（バイシヤジャグル）は「薬の仏」である薬師如来の顕現であるため、薬師如来は三朝温泉の守護仏であり、ずっと温泉の治療力の源だと考えられてきました。

温泉が発見された頃までに、三徳山で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修験者が修行を実践していました。三朝温泉の最初の客は修験者で、彼らは三徳山の霊界に入る前の禊を行うために温泉を利用しました。三朝は結構な遠隔地にあるため、その後何世紀にもわたって主に修験者が訪れるための場所となりました。たとえば江戸時代初期の 1666 年に、鳥取藩が「接待税」を支払うよう命じられた町のリストに三朝は含まれておらず、より便利な場所にある他の温泉街のように自由にお金を使う観光客を惹きつけるような場所では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近代における繁栄

江戸時代がさらに進んで日本中が広く平和になると、旅行者や巡礼者の増加は三朝にまで及びました。鳥取藩は三朝のような温泉街に料金制限を設けるという布告を出し、他の地方からの訪問者を地元住民と同じように尊重するよう命じました。三朝では、地元の若者のギャンブルやその他の悪習を禁止する文書が見られます。

19 世紀後半まで、三朝温泉は観光地として栄えていました。「三朝」という地名は文字通り「3 つの朝」を意味し、日・月・年が同時に明ける新年の朝を指しています。三朝に 3 泊した訪問者は 3 日目の朝にはすべての病気が治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した。19 世紀後半における放射能に関する科学研究と、その後三朝の水からラドンが発見されたことで、町はヨーロッパの「ラドン風呂」と同じ健康効果を謳うようになりました。1929 年に「三朝小唄」が全国的にヒットしたことで町の人気はさらに高まり、町内で無声映画が撮影されるきっかけにもなりました。

町と三徳山との強いつながりは保たれました。三徳山への巡礼者が六根清浄という「認知の 6 つの根源」、つまり五感の器官と意識の浄化の理想を追い求めるように、三朝温泉は訪問者に六感治癒、つまり「六つの感覚の癒し」（6 つめの感覚は心）を提供しています。訪問者は、温泉を飲んだり、入浴したり、蒸気として吸い込んだりして、湯治を体験することが奨励されています。町の景色、音、味、香り、質感も、リラクゼーションの効果と相まって、深いレベルでの癒しをもたらすと言われています。

【タイトル】 三朝温泉/三朝温泉のラドン泉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미사사 온천의 라돈 온천**

미사사 온천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라돈 온천 중 한 곳입니다. 미토쿠산의 순례자들은 예전부터 영험한 산을 오르기 전에 미사사 온천에서 목욕재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여행자들이 오감 전체와 마음을 치유하는 육감 치유를 위하여 이곳을 방문합니다.

미사사 온천의 온천물은 고온(42 도 이상)으로 pH 중성의 염화온천으로 분류되며, 매우 미약한 방사능 특성을 가집니다. 이 방사능은 라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라돈은 라듐 226 의 알파 붕괴로 생성된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입니다.

라돈은 라듐보다 아주 방사성이 낮은 물질입니다. 미사사 온천에 한 번 입욕해서 쬔 방사량은 0.001mSv 로 매우 미미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배경 방사량(약 0.006 mSv/일)의 몇 분의 1, 흉부 엑스레이 검사(0.06mSv)의 60 분의 1, 1 일 비행기 여행(0.1 ~ 0.3mSv)의 100 분의 1 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선량의 방사선을 쬔면 ‘슈퍼옥시드 디스무타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고, 효소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일부 질병과 노화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입욕하면 효과가 축적되어 몸의 자연 치유력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미사사 온천에 오면 최소한 3 박은 머물러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의 입욕 방법

미사사 온천의 라돈 온천 전문가, ‘라지무리에’의 설명에 의하면 온천에 포함된 라돈을 접하는 방법에는 입욕, 마시기, 증기 쬔기가 있다고 합니다. 온천이 고온이기 때문에 방문객은 전신욕은 2 번만 실시하고 1 회당 1~4 분만 몸을 담글 것, 그 사이 3 분간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쿨다운할 것을 권장합니다. 족욕은 최장 30 분, 또는 몸이 따뜻해지기 전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미사사 온천의 온천물은 무색무취로 마시기 좋습니다. 대부분의 온천 여관에서 미사사 온천물을 마실 수 있고 ‘야쿠시노 유(薬師の湯)’ 외에도 여럿 공공 온천수 시음장이 있습니다. 마시는 횟수는 1 일 1~3 잔 정도라고 합니다.

입욕 중에는 자연스럽게 증기로 마시지만 일부 온천 여관에는 사우나 또는 기타 스팀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하 온천(すーはー温泉)은 ‘천연 라돈 증기욕 온천’으로 증기를 깊이 들이마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日本語仮訳>**三朝温泉のラドン泉**

三朝温泉は、世界で最も有名なラドン温泉の一つです。三徳山への巡礼者は昔から霊峰に登る前に三朝温泉で禊を行ってきました；最近では、日本中や世界中からの旅行者が、五感すべてと心を癒す六感治癒を求めて訪れています。三朝温泉水に含まれるラドンの発見は、多くの人が報告している湯治の効果の科学的根拠を示唆しています；それは、微量の放射線はかえって体に良いとするホルミシスという考え方です。

三朝温泉のお湯は高温（42℃以上）で pH 中性の塩化物泉に分類され、非常に穏やかな放射能の特性を含んでいます。この放射能はラドンに由来するもので、ラドンとはラジウム 226 のアルファ崩壊によって生成される無色無臭の希ガスです。

ラドンはラジウムよりもはるかに放射性が低いものです；三朝温泉の一度の入浴での放射線量はわずか 0.001mSv です。これは、地球のバックグラウンド放射線（1 日あたり約 0.006mSv）の数分の 1、胸部 X 線検査（0.06mSv）の 60 分の 1、1 日の飛行機旅行（0.1～0.3mSv）の 100 分の 1 に相当する放射線量です。

ラドン温泉には有益な効果が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このメカニズムとして考えられているのが放射線ホルミシスで、微量の放射線によって免疫系と代謝が刺激され、健康を改善するという現象です。最近の研究では、低線量の放射線を浴びることで、スーパーオキシジスムターゼという酵素が活性化し、その抗酸化作用によって一部の病気や老化の症状を緩和できる可能性が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さらに、長く滞在することで効果が蓄積され、体の自然治癒力が高ま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これが、三朝温泉には最低でも 3 泊するべきだと信じられている由来かもしれません。

三種類の入浴方法

三朝温泉の「ラジムリエ」（ラドン風呂の専門家）の説明によると、温泉に含まれるラドンとの関わり方には、浸かる、飲む、蒸気として吸うという方法があるとされています。温泉の温度が高いため、訪問者は全身浴を 2 回だけ行い、1 回につき 1～4 分浸かり、その間に 3 分間の休憩を取ってストレッチし、クールダウンすることが推奨されています。足湯は最長で 30 分、または体が温まり始めるまで楽しめます。

三朝温泉のお湯は透明で無臭なので、飲みやすいです。ほとんどの温泉旅館では三朝温泉のお湯を飲むことが可能で、薬師の湯や町の他の場所には公共の温泉噴水があります。飲む回数は 1 日に 1～3 杯といわれて推奨されています。

入浴中は自然に蒸気を吸い込みますが、一部の温泉旅館にはサウナやその他のスチーム設備も用意されています。すーはー温泉は公営の「天然ラドン熱気浴泉」で、蒸気を深く吸い込むことのできる施設です。

地域番号	021	協議会名	石見銀山多言語解説協議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21-001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準備する	427	Web
021-002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間歩に入る	526	Web
021-003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掘る	511	Web
021-004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運ぶ	356	Web
021-005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落盤を防ぐ	424	Web
021-006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水を汲みだす	492	Web
021-007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空気を送る	324	Web
021-008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鉱石を選別する	374	Web
021-009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品位を定める	280	Web
021-010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輸送する	488	Web
021-011	石見銀山遺跡/銀：今と昔の価値と使われ方	1125	Web
021-012	石見銀山遺跡/銀：まだ残っているのか	357	Web
021-013	石見銀山遺跡/視点場：町並みを眺めて	517	Web
021-014	石見銀山遺跡/視点場：町並みから山城と鉱山を遠望して	480	Web
021-015	石見銀山遺跡/石見銀山の地質	668	Web
021-016	石見銀山遺跡/石見銀山の文化的景観	790	Web
021-017	石見銀山遺跡/海外とのつながり：ベトナム（ホイアン）	905	Web
021-018	石見銀山遺跡/海外とのつながり：ポーランドの鉱山	784	Web
021-019	石見銀山遺跡/海外とのつながり：台湾の鉱山	885	Web
021-020	石見銀山遺跡/龍源寺間歩：坑道内の見どころ	271	看板
021-021	石見銀山遺跡/用語：ひおい坑	343	Web
021-022	石見銀山遺跡/用語：四つ留	233	Web
021-023	石見銀山遺跡/用語：螺灯	296	Web
021-024	石見銀山遺跡/用語：疏水	259	Web
021-025	石見銀山遺跡/用語：ヘビノネコザ	205	Web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準備する

【想定媒体】 Web

<韓国語>**옷차림**

에도 시대(1603-1867)에 이와미 은광(Iwami Ginzan)의 광부들은 일반 주민과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긴 소매 기모노 대신, 무릎까지 오는 민소매의 회색 면 로브를 입고 허리에 밧줄을 둘러 묶었다. 이러한 복장은 가볍고 움직이기 편했으며, 좁고 먼지가 많은 채굴 갱도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 기능도 제공했다.

광부들은 흔히 머리에 면 두건을 감아 썼고, 허리의 밧줄에 매단 짚주머니에는 망치, 끌과 같은 공구를 넣어 다녔다. 또 작업 중 앉기 위해 둔부에 둥근 짚자리를 끈으로 고정해 착용했다. 발에는 밑창의 앞부분만 덮는 짚신을 신었다. 이 짚신의 주된 목적은 광산 내부의 습한 바위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 손에는 조개껍데기로 만든 기름 램프를 들었다. 모든 작업은 이 등불의 빛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빛은 어둠 속 몇 미터 정도밖에 닿지 않았다. 1800년대 후반부터는 광부들이 때때로 절인 매실을 넣은 천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다. 매실의 구연산이 지하에서 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마스크는 갱도 내 먼지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日本語仮訳>**坑夫の服装**

江戸時代（1603-1867）、石見銀山の坑夫は一般市民と容易に見分けがついた。通常の袖付き着物の代わりに、灰色の袖なし膝丈の綿製の服を身に着け、紐で締めていた。この服装は軽量で動きやすく、寒く埃っぽい坑道内である程度の保護も提供した。

多くの坑夫は頭に綿のバンダナを巻き、腰の紐にはトンカチやノミなどの道具を入れる藁袋を下げた。また、作業中に腰掛けるための丸い藁マットをお尻につけていた。足元には前足部のみを覆う藁製の半草履を履いていた。この履物の主な目的は、坑内の湿った岩盤で滑るのを防ぐことだった。

片手には貝殻で作られた油ランプを持ち、暗闇の中わずか数メートル先までしか届かないその灯火の下で全ての作業を行った。1800年代後半には、梅干しを詰めた布製マスクを着用する坑夫も現れた。梅に含まれるクエン酸が坑内での覚醒を助け、マスクは坑道の粉塵から身を守る役割を果たし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間歩に入る

【想定媒体】 Web

<韓国語>**갱도 진입**

이와미 은광(Iwami Ginzan)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채굴 갱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산비탈에 있는 낮고 칙칙같이 어두운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 폭은 광부가 겨우 몸을 비집고 들어가야 할 만큼 좁았다. 광산 입구는 붕괴 위험이 가장 큰 지점이었기 때문에, 갱도에 들어서는 순간은 광부의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 중 하나였다.

입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네 개의 기둥이 받치는 두꺼운 보강 대들보를 입구 위에 설치했다. 이 구조물은 요쓰도메(*yotsudome*, 직역하면 ‘네 곳 고정’)라 불렸으며, 광산을 바깥 세계와 구분하는 표지였다. 그것은 물리적 경계이자 영적 경계이기도 했다. 요쓰도메 위에는 보통 작은 감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광부들은 갱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모셔진 신에게 안전을 빌었다.

요쓰도메라는 이름은 광부들이 광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넘어야 했던 또 하나의 장벽에도 사용되었다. 갱도 입구 옆에 위치한 요쓰도메 검문소는 막부의 통제하에 운영되던 검문소였다. 이곳에 배치된 관리들은 산속에서 작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출입을 허락했으며, 광부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운반한 은광석의 무게를 계량했다.

기도를 올리는 것 외에도, 광부들은 갱도로 향하는 길에 담배를 피우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와미 은광에서 발견된 담뱃대의 수는 흡연이 널리 퍼진 관습이었음을 보여준다.

<日本語仮訳>**間歩に入る**

石見銀山の歴史の大半において、間歩に入ることは山腹の低く真っ暗な開口部に足を踏み入れることを意味し、坑夫が辛うじて通り抜けられるほどの幅しかなかった。間歩への進入は坑夫にとって一日のうち最も危険な瞬間の一つであった。間歩の入口こそが崩落の危険が最高い場所だったからだ。

間歩の入口の崩落を防ぐため、入口上部には四本の柱で支えられた太い補強梁が設置された。この構造物は四ツ留（よつどめ）と呼ばれ、鉱山と外界の境界を画していた。これは物理的境界であると同時に精神的境界でもあった。通常、四ツ留の上部には小さな祠が設けられ、坑夫たちは山の闇へと足を踏み入れる前に、ここに祀られた神に安全を祈願した。

この四ツ留の名は、鉱山へ入る途中に坑夫が通過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別の障壁にも受け継がれた。四

ツ留役所とは、幕府の直接管理下にある間歩の入口で運営された検問所である。ここに配置された役人は、山中で働く許可を得た者のみが入ることを確認すると同時に、帰還する坑夫が運ぶ銀鉱石の重量を量った。

祈りに加え、坑内へ向かう坑夫たちは煙草で気持ちを落ち着かせた。石見銀山で出土した煙管の数から、喫煙は広く行われていたことが窺える。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掘る

【想定媒体】 Web

<韓国語>**갱도 굴착**

현대식 천공 장비와 다이너마이트가 도입되기 이전에 채굴 갱도를 파는 일은 고되고 극도로 시간 소모가 큰 작업이었다. 갱도는 오로지 망치와 끌만으로 뚫었으며, 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 광부들이 한 줄로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만 만들어졌다. 이와미 은광의 암반은 비교적 취약했기 때문에, 광부 두 명이 하루 종일 파면 약 30 센티미터 정도 전진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기술로는 놀라운 성과였다.

그들이 사용한 철제 끌(갓, gads)은 쉽게 마모되어 자주 교체해야 했다. 아직 사용하기에 충분한 길이가 남아 있는 끌은 광산 밖에 상주하던 대장장이들이 수리했다. 이 전문 기술자들은 광부들이 끌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데 사용한 집게 등 다른 공구도 제작하고 수리했다. 새 도구를 만들고 기존 도구를 유지보수하는 일은 끝이 없는 작업이었다. 대장장이 작업장에 공구용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 주고쿠 산지(오늘날 시마네현 남부 경계)의 용해로에서 생산된 대량의 철이 정기적으로 반입되었다.

류젠지 마부 갱도의 벽면에는 수세기 전 광부들의 끌질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다만 손으로 다듬어 형상을 잡은 구간의 벽면은 비교적 매끈하다. 한편 갱도의 다른 구간에는 메이지 시대(1868-1912)에 통로를 넓히기 위해 사용한 근대적인 보다 거친 확장 굴착 기법의 흔적이 남아 있다.

<日本語仮訳>**坑道を掘る**

近代的な掘削機やダイナマイトが導入される以前、鉱山坑道の掘削は過酷で非常に時間のかかる作業であった。坑道はトンカチとノミだけを用いて掘られ、その労力と時間のかかる性質から、坑夫が単列で通れるだけの幅しか確保されなかった。石見銀山の岩盤は比較的脆かったので、坑夫 2 人が丸一日掘削して、進捗は約 30 センチメートルに進めた。当時の技術ではなかなかできたことである。

彼らが使用した鉄製のノミは摩耗が激しく、頻繁に交換が必要だった。まだ使用可能な長さの工具は、鉱山外に常駐する鍛冶屋によって修理された。これらの専門家は、ノミを固定するための鉗子など、他の道具の製作・修理も担当した。新たな道具の製作と古い道具の維持は終わりのない仕事であった。中国山地（現在の島根県南端）の製鉄所から大量の鉄が定期的に運ばれ、鍛冶屋の工房に供給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

龍源寺間歩の坑道壁には、何世紀も前の坑夫のノミが刻んだ痕跡が今も残っている。ただし、手作業で

削られたこの部分の壁は比較的滑らかだ。坑道の他の箇所には、明治時代（1868-1912）に通路を
拡幅するために用いられた、より近代的で粗い掘削技術の痕跡が刻まれている。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運ぶ

【想定媒体】 Web

<韓国語>

광석 운반

갱도에서 암석을 밖으로 운반하는 일은 허리가 휘는 고된 노동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이었으며, 암석의 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작업자들에게 배정되었다. 광부들은 보통 자신이 채굴한 은이 함유된 광석을 직접 운반했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암석은 12 세 정도에 불과한 어린 조역들이 광산 밖으로 실어 나르기도 했다.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에서 이들은 밧줄로 최대 15 킬로그램에 달하는 암석을 등 뒤에 맨 채, 폭이 좁고 울퉁불퉁한 갱도를 경우에 따라 수백 미터씩 이동하며 운반했다. 더 작은 암석과 자갈은 거친 천으로 만든 배낭을 사용해 나르기도 했다.

1858 년의 류젠지 마부 갱도 작업 기록에 따르면, 운반과 채굴 작업은 주간과 야간 두 교대로 나뉘어 총 39 명이 수행했다. 이 가운데 24 명은 광부였고, 5 명은 암석 운반 인부였으며, 10 세 전후인 어린이 10 명은 공구 운반, 등불 들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광부들의 작업을 보조했다.

<日本語仮訳>

鉱石を運ぶ

間歩から鉱石を運び出す作業は、骨の折れる終わりのない仕事であり、岩石の価値に応じて異なる労働者に割り当てられた。坑夫たちは通常、自ら掘り出した貴重な銀を含む鉱石を運ぶことを引き受けたが、鉱山内で価値なしと見なされた石は、12 歳ほどの若い助手たちによって運び出された。

薄暗い灯油ランプの光の中で、労働者たちはロープで最大 15 キロの岩を背中に縛り付け、場合によっては狭く凹凸のある坑道を数百メートルも運んだ。小石や砂利を運ぶ際には粗い布製のリュックサックを使用した。

1858 年の龍源寺間歩の記録によれば、作業は昼夜二交替制で、総勢 39 名の労働者が従事していた。内訳は坑夫 24 名、岩石を運搬する者 5 名、そして 10 歳前後の子供 10 名で、彼らは坑夫の道具運搬やランプ保持などの補助業務を担当してい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落盤を防ぐ

【想定媒体】 Web

<韓国語>

갱도 보강

이와미 은광에서는 붕괴가 항상 우려되어 광산의 역사 전반에 걸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목수들은 울퉁불퉁한 갱도 벽에 맞도록 튼튼한 지지 구조물을 제작 및 설치하여 채굴 갱도를 떠받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지지대는 주로 밤나무를 비롯한 특히 내구성이 강한 목재로 만들었다. 목수들은 갱도 내부의 정기적인 보수 작업을 맡기도 했다.

19 세기 전반에는 채굴 갱도를 보강하는 새로운 공법이 이와미 은광에 도입되었다. 새로운 갱도를 팔 때에는 목수들이 먼저 내부를 목재 골조로 둘러 세웠다. 그런 다음 갱도 입구 쪽에서 안쪽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 석축 기술자들이 이 목재 구조 안쪽에 미리 규격에 맞게 다듬어 둔 곡면 석재 조각(세그먼트)을 하나씩 끼워 넣었다. 이는 오늘날 터널을 보강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링 세그먼트와 비슷한 방식이었다.

이와 비슷한 공정은 현대 터널 공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실드(shield)’라 불리는 임시 지지 구조물을 사용해 굴착 중인 구간을 먼저 지지한 뒤, 그 안쪽을 콘크리트 세그먼트로 라이닝하는 방식을 취한다.

<日本語仮訳>

落盤を防ぐ

石見銀山では間歩の崩落が常に懸念され、鉱山史を通じてその防止に多大な努力が払われた。木工職人は坑道を支える支柱を作るという重要な役割を担った。これらの専門家は、鉱山の凹凸のある壁面に合う頑丈な支え材を製作・設置する任務を負っていた。支柱は通常、栗やその他の特に耐久性の高い木材で作られていた。木工職人は坑道内の定期的な保守作業も担当した。

19 世紀前半、石見銀山では坑道を補強する新たな手法が導入された。新たな坑道が掘削されると、木工職人はまず木枠で内壁を覆った。この枠組みの中で、坑道の入口から内側に向かって作業する専門の作業員が、あらかじめ適切な曲線形状に切断された石材を配置した。その形状は、現代のトンネル補強に用いられるコンクリート製の「リングストーン」にやや似ていた。

同様の技術は現代のトンネル工学にも使われている。現代では、掘削中のトンネル区間をコンクリートセグメントで覆う前に、しばしば「シールド」と呼ばれる仮設支持構造を用いて区間を固定する。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水を汲みだす

【想定媒体】 Web

<韓国語>

배수 작업

광산에서 물을 퍼내는 일은 이와미 은광의 역사 전반에 걸쳐 광부들에게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갱도가 산속으로 더 깊고 깊게 뚫릴수록 암반 속 지하수층을 피할 수 없었고, 지하수가 갱도로 유입되어 침수되면 채굴 작업이 방해를 받았다.

수세기에 걸쳐 갱도 내 물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펌프가 사용되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펌프는 1600년대 초에 도입된 것으로 여겨지며, 목재와 대나무로 제작되었다. 일부는 주사기와 유사한 작동 원리를 갖추었고, 다른 일부는 계단식 구조로 설치한 네모난 물통을 연속적으로 배열한 형태였다. 이러한 펌프를 통해 작업자들은 실제 물통을 들고 옮기지 않더라도 배수로 또는 집수정으로 물을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물통 운반을 병행하기도 했다.

침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존 채굴 지점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수평 갱도를 굴착한 뒤, 그 지점까지 수직 갱을 내려 연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물이 새로 뚫은 하부 갱도로 흘러 들어가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방류되었다. 류젠지 마부 갱도의 배수용 수직 갱은 약 100미터 더 아래에 있는 ‘영구갱도’라는 갱도와 수갱 네트워크로 이어졌다. 이 네트워크는 1693년부터 1787년 사이에 굴착되어 일대의 여러 채굴 지점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日本語仮訳>

排水する

石見銀山の歴史を通じて、鉱山の排水は坑夫たちにとって最大の課題の一つであった。間歩が山深く長く掘られるにつれ、坑夫たちは岩盤内の地下水溜まりに必ず遭遇し、坑道が浸水して鉱石の採掘を妨げた。

数世紀にわたり、坑道から水を汲み出すために様々なポンプが使用された。最も初期のポンプは 1600 年代初頭に導入されたと考えられており、木と竹で作られていた。スポイトのような構造を持つものもあれば、四角いバケツを階段状に積み上げた構造のものもあった。これらのポンプにより、作業員は実際にバケツで運ぶことなく、水を排水路や排水ピットへ上方へ移すことが可能となった。しかし、バケツで運ぶこともあった。

水没問題への別の解決策は、既存の採掘場より低い標高で水平坑道と合流する立坑を掘削することだった。水はこれらの新たな坑道へ流れ込み、川へ放流された。龍源寺間歩の疏水坑は、さらに地下約 100 メートルに位置する「永久坑道」と呼ばれる坑道網へと繋がっていた。この坑道網は 1693 年から 1787

年にかけて掘削され、周辺地域の複数の間歩を支えるために整備され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空気を送る

【想定媒体】 Web

<韓国語>

환기

채굴 갱도 깊숙한 곳의 공기는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광석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 입자와 광부들이 들고 다니던 기름등의 그을음까지 섞여 매우 먼지가 많았다. 이 때문에 광산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흔했다.

수세기에 걸쳐 이와미 은광의 관리 당국은 광산 내부의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환풍구와 통풍 수갱을 굴착했으며, 1700년대 이후에는 농사를 지을 때 곡식과 겨를 분리하는 데 사용하던 환풍구를 개조한 장치를 이용해 신선한 공기를 수갱 아래로 보내는 방식도 도입했다. 길이가 긴 갱도에는 공기가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를 서로의 간격을 고려해 여러 대 배치했다.

또한 많은 갱도 측면을 따라 설치된 배수로도 공기 질 개선에도 활용되었다. 이 배수로도 목재 판자와 점토를 덮어 환기구 역할을 겸하도록 만들었다.

<日本語仮訳>

空気を送る

間歩の奥深くの空気は、鉱石採掘時に放出される粒子や坑夫が携行する灯油ランプの煙により、酸素濃度が低く粉塵に満ちていた。呼吸器疾患は坑夫の間で蔓延していた。

何世紀にもわたり、石見銀山の管理者たちは坑内の空気質改善のために多くの対策を講じた。換気用の穴や坑道を掘削し、1700年代以降は改良型唐箕（農業で粃殻と穀粒を分離するために使用される機械）を用いて新鮮な空気を坑道内に送り込んだ。長い坑道では、空気の末端まで届くよう、これらの機械を慎重に計算された間隔で複数設置した。

さらに、多くの坑道沿いに設けられた排水路を活用することで空気の質を改善した。排水路は板と粘土で覆われ、空気導管としての役割も果たし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鉱石を選別する

【想定媒体】 Web

<韓国語>

광석 감정

이와미 은광에서는 광산 밖으로 반출되는 모든 광석이 전문 인력의 감정을 거쳐 가치가 판정되었다. 먼저 광석에 섞인 잔돌과 흙을 제거한 뒤, 망치와 끌로 광석을 부수었다. 이어서 생긴 조각들을 선별하여 은이 함유된 부분만을 가려냈다.

한편 채광 구역에 거주하던 여성과 아이들은 광부들이 저품위로 판단해 갱도와 수갱 밖에 더미로 버려 둔 광석 조각을 분류하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은 차세대 광부들에게 광석을 평가하는 기술과 감각을 익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광산의 일부 구역에서는 광석을 감정한 후에 분배했다. 독립적인 탐광자가 관리하던 수갱에서 채취된 광석은 광부와 이와미 은광 전체를 관장하던 정부 기관인 봉행소가 나눠 가졌다. 이 분배 비율은 광산의 역사 속에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1747년 문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일부 구역에서는 봉행소가 광석의 3분의 1을, 광부가 3분의 2를 받았다.

<日本語仮訳>

鉱石を選別する

銀山から運び出された鉱石は、専門の作業員によって一つひとつ評価された。まず鉱石から小石や土砂を取り除き、トンカチやノミで砕いた。次に砕いた石をふるい分け、銀を含む部分を選別した。

一方、銀山の山内に住む女性や子供たちは、坑夫によって低品位と判断され、間歩の外に捨てられた鉱石の破片を選別する作業に従事させられた。この一見卑しい仕事は、次世代の坑夫を育成し鉱石を評価する能力を養うという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

鉱山の一部では、鉱石が評価された後、分配が行われた。山師（独立採掘者）が管理する間歩から採掘された鉱石は、採掘者と石見銀山全体を管轄する政府機関である代官所との間で分けられた。この配分比率は鉱山の歴史を通じて変動した。1747年の文書によれば、最も生産性の高い鉱区では代官所が鉱石の3分の1を受け取り、採掘者が3分の2を受け取ってい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品位を定める

【想定媒体】 Web

<韓国語>

은의 가치 판정

이와미 은광에서 은이 채련 및 정련되면, 오토리로 옮겨져 전문 관원이 무게를 달고 품위를 판정했다. 이후 은에는 이와미 은광을 관할하던 정부 관리인 봉행의 인장이 찍혔고, 운송을 위해 포장되었다.

이와미 은광에서 교토와 에도(오늘날의 도쿄)의 주전소로 출하된 은은 화폐 주조를 위한 원재료가 되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지배자였던 도쿠가와 막부가 유통되는 은의 양과 은화의 가치를 통제했는데, 이는 현대 정부가 시행하는 통화정책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막부는 금, 은, 동을 고정 환율을 설정했고, 경기를 부양하려 할 때는 은화를 더 많이 발행했으며,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는 주조 화폐에서 은과 동을 비율을 낮추어 대응했다.

<日本語仮訳>

品位を定める

鉱山で銀が精錬されると、大森の町へ運ばれ、専門の役人によって純度を測定するために計量された。その後、銀山を管轄する役人である代官の印が押され、輸送用に梱包された。

石見銀山から京都や江戸（現在の東京）の銀座（造幣局）へ運ばれた銀は、貨幣の原料となった。江戸時代（1603-1867年）には、徳川幕府が流通銀の量と銀貨の価値を規制した。幕府は現代政府と同様の金融政策を駆使した。金・銀・銅の固定交換レートを設定し、景気刺激時には銀貨の発行を増やし、財政悪化時には貨幣における銀と銅の比率を引き下げ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絵巻 説明：輸送する

【想定媒体】 Web

<韓国語>**은 운송**

이와미 광산에서 채굴 및 정련된 은을 옮기는 일은 수 세기에 걸쳐 말과 소,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물류 작업이었다. 광산 초기에는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인부들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1560년대부터 1600년대 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와미 은광의 은은 오늘날 유노쓰 마을 인근의 작은 만에서 일본 국내와 해외 시장으로 선적되었다. 이 항구들은 구릉 지대를 넘어 약 14킬로미터의 길로 광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은 상자를 등에 지고 이 울퉁불퉁하고 때때로 진흙투성이가 되는 이 길을 버텨낼 만큼 힘이 센 것은 소가 유일했다.

1600년대 초, 이와미 은광은 에도(현재의 도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중앙정부,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막부는 해안으로 향하던 은 운송을 중단하고, 세토 내해의 오노미치 항까지 육로로 옮기게 한 뒤, 그곳에서 오사카를 거쳐 교토와 에도로 보내도록 물류 경로를 재편했다. 산악 지대에서는 여전히 소를 이용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말이 은을 운반했으며 이 이동에는 나홀이 걸렸다. 처음에는 해마다 여러 차례 운송이 이루어졌으나 1670년대부터 1865년까지는 최대 300필의 말과 400명의 인부들이 1년치 은을 운반하는 연 1회의 대규모 운반 행렬만이 이어졌다.

<日本語仮訳>**銀を輸送する**

石見銀山で採掘・精錬された銀の輸送は、何世紀にもわたり馬や牛、そして人間によって成し遂げられた物流上の偉業であった。鉱山の初期の歴史において、これらの働き者たちが重い荷物を運ぶために移動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距離は短かった。1560年代から1600年代初頭にかけて、石見銀山の銀は現在の温泉津付近の小さな入り江から国内外の市場へ出荷された。これらの港は丘陵地帯を横断する14キロの道で鉱山と結ばれていた。牛だけが、銀箱を背負ってこの起伏に富み、しばしばぬかるんだ道を移動できるほど強靱だった。

1600年代初頭、石見銀山は江戸（現在の東京）に本拠を置く新たな中央政府である徳川幕府の支配下に入った。幕府は銀の海岸輸送を廃止し、代わりに瀬戸内海の尾道港まで陸路で運び、そこから大阪を経て京都や江戸へ輸送するよう指示した。山岳地帯では依然として牛が使われたが、4日間の旅路の大半は馬が銀を運んだ。当初は年に数回の輸送があった。しかし1670年代から1865年まで、300頭もの馬と400人の人々が1年分の銀を運ぶ、年1回の行列のみとなっ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今と昔の価値と使われ方

【想定媒体】 Web

<韓国語>**은의 활용과 가치**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된 은은 세계 경제로 흘러 들어가 265 년에 걸친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 금속은 수세기 동안 일본에서 화폐로 사용되며 경제와 사회의 흐름을 형성했다.

대외 교역에서의 활용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와미 은광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기는 1527 년 광산이 발견된 직후부터였다. 1500 년대 중반 이후, 광산을 지배하던 지역의 전국시대 영주들은 이와미의 은을 대외 교역에 활용했다. 특히 은본위제도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명나라에서 수요가 컸다. 명은 북서쪽에서 압박해 오던 몽골 세력에 대비해 제국의 방위를 뒷받침할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은이 직접 유입되었으나, 이 교역은 곧 유럽 세력이 주도하게 되었다. 마카오를 거점으로 한 포르투갈 상인들은 중국의 비단을 사들여 일본산 은과 교환한 뒤, 이를 다시 명나라에 팔았다. 이 교역 구조는 포르투갈에 큰 부를 가져다주었고, 그들은 일본을 ‘은의 섬’이라 부르며 이와미 은을 자국의 해상 제국 전역에 유통시켰다. 1500 년대 후반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이 세계적 교역망을 확장하면서 은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상품이 되었다. 이 시기 전 세계에서 거래된 은의 약 10 퍼센트가 이와미 은광에서 산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내 경제에서의 활용

이와미 은의 국제적 교역은 1500 년대 후반까지 번성했으나, 남아메리카 산 은이 세계 경제로 대거 유입되면서 일본 상인들의 수익성이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의 양이 늘어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 정권은 일본 최초의 표준화된 은화를 도입했다. 히데요시의 후계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는 은화 사용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금, 은, 동의 교환 비율을 무게 기준의 고정 환율로 설정했다. 은화는 에도 시대(1603-1867) 내내 핵심적인 교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와미 은광을 포함한 일본 각지 광산의 은 생산량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도쿠가와 막부는 1760 년대 이후 일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은을 수입해야 했다.

무게 기반 통화 체제와 은의 중심적 지위는 1868 년 메이지 유신 이후 종언을 맞이했다. 메이지 천황(1852-1912)의 신정부는 은화와 함께 서양식 금화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1897 년에는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채택했다. 그럼에도 은화는 이후 수십 년간 유통되었으며, 마지막 은화는 1966 년에 주조되었다.

오늘날의 은

일본에서 상업적 규모의 은 채굴은 반세기 이상 전에 중단되었지만, 산업용으로서의 일본 수요는 여전히 크다. 은은 뛰어난 전기전도성, 항균성, 반사율 덕분에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에 널리 사용된다. 이 밖에도 정수, 거울 코팅,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보석, 식기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멕시코, 페루, 한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은을 수입하고 있다.

＜日本語仮訳＞

銀の価値と使われ方

石見銀山で採掘された銀は世界経済に流入し、徳川幕府の 265 年にわたる支配を支えた。銀は何世紀にもわたり日本の通貨として用いられた。

対外貿易における利用

国際的な観点から見ると、石見銀山の歴史において最も重要な時期は、1527 年の鉱山発見直後に訪れた。1500 年代半ば以降、鉱山を支配した地元の戦国大名は、この銀を対外貿易に活用した。需要は明の国から生じた。同国は銀本位経済に移行したばかりで、北西から侵攻するモンゴル軍に対する帝国防衛の資金として膨大な資金を必要としていた。

当初、銀は日本から中国へ直接流れたが、この貿易はすぐにヨーロッパ人によって掌握された。マカオに拠点を置くポルトガル商人は中国絹を購入し、それを日本銀と交換して明に販売した。この貿易パターンはポルトガル人を大いに富ませ、彼らは日本を「銀の島々」と呼び、その海上帝国全体に石見銀を流通させた。1500 年代後半にスペインとポルトガルの帝国が世界貿易を拡大するにつれ、銀はおそらく世界で最も需要の高い商品となった。当時の全世界で取引された銀の約 10%が石見銀山産であったと推定されている。

国内経済における利用

石見銀の国際取引は 1500 年代後半まで隆盛を極めたが、南米産銀の世界経済への流入により日本商人の利益率が低下した。その結果、国内で大量の銀が利用可能となり、豊臣秀吉（1537–1598）政権は国内初の標準化された銀貨を導入した。秀吉の後継者である徳川家康（1543–1616）は銀貨の使用を正式に定め、金・銀・銅の重量に基づく固定為替レートを設定した。銀貨は江戸時代（1603–1867）を通じて主要な交易手段であり続けた。しかし、石見銀山を含む鉱山での銀産量の漸減により、1760 年代以降、徳川幕府は国内需要を満たすために銀を輸入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重量基準の通貨制度、そしてそれに伴う銀の優位性は、1868 年の明治維新後に終焉を迎えた。明治天皇（1852–1912）の新政府は西洋式の金貨と銀貨の発行を開始し、1897 年には正式に金本位制を採用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銀貨は数十年にわたり流通を続け、最後の銀貨は 1966 年に製造された。

現代の銀

日本における商業規模の銀鉱山採掘は半世紀以上前に終了したが、国内産業における銀の需要は依然として大きい。銀は優れた電気伝導性、抗菌性、反射性を有するため、電子機器、自動車部品、医療機器などに広く使用されている。その他の用途には浄水、鏡面コーティング、そしてより身近な宝飾品や食器類が含まれる。日本はメキシコ、ペルー、韓国、オーストラリアなどから銀を輸入している。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まだ残っているのか

【想定媒体】 Web

<韓国語>

이와미 은광에 남아 있는 은

약 400 년에 가까운 채굴이 이루어진 뒤에도, 이와미 은광의 중심부에 있는 센노야마 산 내부에는 여전히 상당량의 은이 남아 있다. 다만 광석이 넓게 분산되어 있고 접근이 어려운 데다, 과거에 확인된 풍부한 은 광맥은 이미 오래전에 대부분 채굴되었다. 따라서 채산성 있는 규모의 은을 다시 채굴하려면 현실적으로는 극도로 어렵고 비용 또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와미 은광의 상업적 채산 채굴은 1923 년에 막을 내렸으며, 제 2 차 세계대전 중 잠시 시도된 재가동 계획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2007 년 이후에는 광산 자체와 더불어 채광 취락, 운송로, 항구 등 이와미 은광과 직접 연관된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와미 은광의 탐광 및 채굴권은 만료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있다.

<日本語仮訳>

石見銀山に残っている銀

約 400 年にわたる採掘後も、石見銀山の中心をなす仙ノ山には豊富な銀が残存している。しかし銀は分散しており、採掘が困難である。鉱山で発見された豊富な鉱脈はすべて既に掘り尽くされており、有意義な量の銀を採掘しようとする試みは極めて困難で、実施には莫大の費用がかかる。

こうした事情から、1923 年に石見銀山の商業採掘は終焉を迎え、第二次世界大戦中に短期間試みられた操業再開も阻まれた。2007 年以降、銀山そのものと鉱山集落から輸送路・港に至る直接関連施設は、ユネスコの世界遺産として保護されている。石見銀山における全ての探鉱権及び採掘権は失効、もしくは地方自治体へ移管されており、この遺跡が将来の世代のために確実に保存されることが保証されている。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視点場：町並みを眺めて

【想定媒体】 Web

<韓国語>**광산 마을 조망**

언덕 위 관세음사(觀世音寺)의 전망대에 오르면 오모리긴잔(大森銀山) 역사 지구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이 옛 광산 마을은 1600년대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와미 은광의 행정과 상업을 담당한 중심지 역할을 했다.

오모리에는 사무라이, 상인, 서민의 주거가 신사와 사찰 사이에 가깝게 뒤섞여 자리하고 있었다. 사회 계층이 다르면 서로 다른 구역에 거주하던 에도 시대(1603-1867)의 일본에서 이러한 도시 구조는 드문 사례였다. 1800년 화재로 마을 대부분이 소실되었음에도, 패치워크처럼 분포된 이 독특한 토지 배치는 오늘날까지 오모리의 뚜렷한 특징으로 남아 있다. 마을을 위에서 바라보면 대다수의 건물 지붕이 지역의 철분이 풍부한 점토로 구운 붉은 기와로 덮여 있고, 일부 규모가 큰 건물의 지붕은 회색이었다. 후자는 전통적인 사무라이 저택이나 행정 시설인 경우가 많았으며, 회색 기와는 무사 계층이 권위를 상징하는 요소로 선호하던 재료였다.

관세음사의 북동쪽으로는 특히 눈길을 끄는 건축물이 있다. 길상 동물의 부조 장식으로 꾸민 경장(경전 보관고)으로 유명한 중세의 사이쇼지 사원, 도쿠가와 막부의 대리인이 은광과 주변 지역을 감독하던 봉행소 터에 세워진 박물관,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오모리와 주민을 재액으로부터 지켜 준다고 전해지는 기가미 신사가 그 대표적인 예다.

<日本語仮訳>**町並みを眺めて**

観世音寺のある丘の頂上にある展望台からは、大森銀山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全景を一望できる。この旧鉾山町は 1600 年代初頭から 20 世紀初頭まで、石見銀山の行政・商業の中心地として機能していた。

大森では、武士・職人・庶民の家屋が神社や寺院と共に密集して混在していた。江戸時代（1603-1867）の日本では、通常は身分別に居住区が分かれていたため、このような都市構造は稀であった。1800 年の火災で町の大半は焼失したが、土地のパッチワーク状の分布は今も大森の特徴として残っている。町を上から見下ろすと、ほとんどの建物の屋根が地元の鉄分豊富な粘土で作られた赤みがかった瓦で覆われているのがわかる。一方、大きな建物の一部は灰色の屋根をしている。後者の建物は伝統的な武家屋敷や行政施設である傾向がある。灰色の瓦は権威の象徴として武士階級に好まれた。

観世音寺の北東には特徴的な建造物が並ぶ。中世の西性寺は、吉祥の動物を漆喰浮き彫りで飾った経

蔵で知られる。石見銀山の代官所（徳川幕府の代官が銀山と周辺地域を監督した場所）跡に建てられた博物館、そして町の入口にある、町とその住民を災いから守ると信仰されている城上神社がある。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視点場：町並みから山城と鉾山を遠望して

【想定媒体】 Web

<韓国語>

광산 조망

관세음사 전망대에서 남서쪽을 바라보면, 오모리 마을 너머로 숲이 우거진 산의 능선이 완만하게 치솟은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 산이 바로 이와미 긴잔 은광의 중심을 이루는 고대 화산, 센노야마 산이다. 약 400 년에 걸친 광산의 역사 속에서 산 곳곳에 있었던 수백 개의 갱도와 수갱은 오늘날 사면을 뒤덮은 녹음으로 대부분 가려져 있다. 정상 부근에는 키가 낮은 풀로 덮인 비교적 평탄한 단구형 지대가 부분적으로 보이는데, 이곳이 1600 년대 초 거대한 광산 마을이 번성했던 이시가네 지역이다. 센노야마를 둘러싼 수많은 좁은 계곡에도 취락이 흩어져 있었으며, 그중에는 천 여명이 거주한 곳도 있었다.

앞쪽의 오모리 마을 안에서는 두 채의 큰 건물이 특히 눈에 띈다. 왼쪽의 구 가와시마 가문 저택은 에도 시대(1603-1867)에 오모리에서 가장 번영했던 사무라이 가문 중 하나의 거처였다. 가와시마 가문에는 이와미 은광 광부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고위 관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저택은 1800 년 화재로 마을 대부분이 소실된 직후에 지어진 것이다. 오른쪽에는 긴잔강 건너편에 1888 년 건립된 구 오모리 재판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역사적 마을 경관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노력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日本語仮訳>

鉾山を遠望して

観世音寺の展望台から南西を見渡すと、大森の町を越えて、森に覆われた山の緩やかに登る尾根が見えてくる。これが石見銀山の中心にある古代火山、仙ノ山である。その斜面は緑に覆われ、400 年にわたる鉾山の歴史の中で山全体に掘られた数百もの間歩や坑口を今やほとんど隠している。山頂付近に部分的に見える、低い草に覆われた比較的平坦な段丘状の広地が石銀集落跡である。ここには 1600 年代初頭に主要な鉾山集落が栄えた。千人を擁する集落も含まれる他の集落群は、仙ノ山を取り囲む数多くの細い谷間に点在していた。

手前の大森町では二つの大きな建物が目を引く。左側が旧河島家住宅で、江戸時代（1603-1867 年）に大森で最も繁栄した武士家の一つが住んでいた。河島家には、石見銀山で坑夫を監督する高官も含まれていた。彼らの屋敷は、1800 年に町の大半を焼き尽くした火災の直後に建てられた。右側、銀山川の対岸には、1888 年に建てられた旧大森区裁判所が立っている。現在は博物館として利用され、歴史的な町並みを保存するための地域の取り組みを紹介している。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石見銀山の地質

【想定媒体】 Web

<韓国語>**이와미 은광의 지질**

1500 년대 중반 이후 광산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고대 화산 센노야마 산의 독특한 지질적 조건은 이와미 은광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생산성 은광으로 만든 핵심 배경이었다. 센노야마 산은 약 150 만 년 전의 화산 분화로 분화구 주변에 초고온 화산재와 부분적으로 고화된 용암 덩어리 등 화쇄물이 퇴적되면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새롭게 형성된 산꼭대기는 거대한 모래더미처럼 쉽게 허물어졌다.

화산 활동은 산 안쪽에서도 계속되었다. 마그마가 아래에서 지하수를 가열해 열수로 바꾸었는데, 200℃가 넘는 온도지만 지하 깊은 곳의 높은 압력 때문에 증발하지 않았다. 이 과열된 열수는 주변 암석과 마그마에서 은과 동 등 여러 원소를 용출시켰다. 금속을 함유한 이 유체는 기반암의 균열을 따라 위로 스며들어 산의 다공질 암석 내부를 관통하며 사면 전반에 걸쳐 은 성분을 운반했다. 이 액체가 온도와 압력 변화로 점차 냉각되고 굳으면서, 거친 암석 속에는 무수한 은맥이 남게 되었다.

16 세기에 탐광자들이 센노야마 산에서 채굴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발견된 여러 은맥이 지표면 가까이에 분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물이 잘 통과하는 산체 내부를 열수가 광범위하게 퍼진 결과였다. 이러한 지질적 특성 덕분에 많은 은맥은 순도가 높으면서도 비교적 접근이 쉽고, 폭약이 사용되기 이전 광부들이 망치와 끌만으로 산비탈을 파 들어갔던 조건에서도 채굴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와미 은광이 번영할 수 있었던 수천 년에 걸친 지질 과정의 산물인 이 다공질 암석은 400 년에 이르는 광산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재해를 가져왔다. 센노야마 산의 지질적 성질은 빗물이 땅속으로 비교적 쉽게 침투하고 물이 계곡으로 쉽게 흘러들어 심각한 홍수와 산사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日本語仮訳>**石見銀山の地質**

石見銀山が世界有数の高生産性を誇る銀山となったのは、1500 年代半ば以降に鉾山と中心となった古火山・仙ノ山の特異な地質的特徴によるものである。この山は約 150 万年前に形成が始まった。火山噴火により火口周辺に高温の火山灰や部分的に固化した溶岩塊などの火砕物が堆積したのだ。新たに形成された山頂は巨大な砂の山のように脆さが特徴だった。

山体の地下では火山活動が続き、マグマが地下水を温め、200℃以上の高温でありながら地下深部の高圧環境により蒸発しない熱水へと変化させた。この熱水の熱により、岩石やマグマから銀や銅などの元素が

溶け出した。金属を含むこの流体は基盤岩の割れ目を上方に浸透し、多孔質の仙ノ山を貫通して銀を山全体に運んだ。温度と圧力の変化により液体が冷却・固化すると、粗い岩石中に無数の銀脈が形成された。

1500 年代に仙ノ山で採掘を始めた探鉱者たちは、発見した銀脈の多くが地表近くに存在することに気づいた。これは熱水が脆い山体を広く流れた結果であった。この特性により、多くの鉱脈は銀を豊富に含み、かつ比較的容易に採掘可能であった。鉱夫たちは火薬時代以前、山腹を掘削するためにノミやトンカチを使用していた。

しかし、この多孔質の岩盤は、石見銀山が繁栄する基盤となった数千年にわたる地質作用の前提条件であった一方で、400 年に及ぶ鉱山の歴史の中で幾度となく災いをもたらした。仙ノ山の地質的特性ゆえに、雨水は山体を比較的容易に浸透し、谷へ流れ込むことが多く、繰り返し壊滅的な洪水や土砂崩れを引き起こしたのである。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石見銀山の文化的景観

【想定媒体】 Web

<韓国語>**이와미 은광의 문화적 경관**

이와미 은광이 2007 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 그 가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첫째, 16 세기부터 17 세기 초에 걸쳐 세계 경제에 미친 광산의 영향, 둘째, 지역 전반에 걸쳐 잘 보존된 은 생산 관련 고고학적 자료, 셋째, 광산 자체와 더불어 광산 마을과 종교 유적, 운송로, 성곽, 항구에 이르기까지 광산과 연결된 장소들이 하나의 체계로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광산과 그 주변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룬 전체 모습을 흔히 ‘이와미 은광의 문화적 경관’ 이라 부른다.

이 경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오늘날에도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갭도와 수갱은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고, 광산에서 일본해(동해)로 이어지는 수백 년 된 길도 걸어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부를 축적했던 상인 가문의 옛 저택은 오히려 마을에서 방문할 수 있다. 이 유적들은 중세부터 1920 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광산 공동체의 역사를 한데 엮어 보여 준다. 시대에 따라 광산이 어떤 목적에 맞춰 확장되고 변형되었는지, 광산을 중심으로 얼마나 고도로 전문화된 경제가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약 400 년에 걸친 은 채굴의 흐름 속에서 행정 체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미 은광의 문화적 경관을 따라가다 보면, 이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 광산의 번영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해(동해) 연안의 항구 마을 유노쓰와 가까웠던 덕분에 16 세기에는 광산에서 채굴된 은을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으로도 직접 출하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이와미 은광은 종종 ‘온천 은광’(유노 긴잔, *yuno ginzan*) 이라 불렸다. 이 별칭은 1527 년 이 일대에서 은이 발견되기 전까지 온천으로만 알려져 있던 유노쓰와 광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온 관계를 반영한다. 비록 1600 년대 초에는 유노쓰를 통한 은 운송이 중단되었지만, 유노쓰는 에도 시대(1603-1867) 내내 광산의 주요 물자 공급지이자 지역 해상 교역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갔다.

<日本語仮訳>**石見銀山の文化的景観**

2007 年に石見銀山がユネスコの世界遺産に登録された際、その評価は主に三つの理由に基づいていた。16 世紀から 17 世紀初頭にかけて世界経済に与えた影響、地域全体に保存された銀生産の考古学的証拠、そして鉱山本体と関連遺跡（鉱山集落、宗教施設、交通路、山城、港湾など）の完全性である。この鉱山とその付属施設が一体となった有機的な全体は、しばしば「石見銀山の文化的景観」と呼ばれている。

この景観を構成する主要な要素は、今日でもそのまま残されている。間歩や坑道の一部には入ることができ、鉱山から日本海へと続く何世紀も前の道は今も歩むことができ、大森町ではここで富を築いた商人家族の旧宅を見学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らの遺跡群は、中世から 1920 年代に至る鉱山社会の変遷を物語っている。時代ごとに異なる目的のために鉱山が拡張・改変された経緯、鉱山を核とした高度に専門化された経済の発展、そして銀が産出された 400 年間にわたる鉱山行政の変遷が浮かび上がる。

この文化的景観を探究することで、石見銀山の地理的条件が鉱山の繁栄を可能にしたことが鮮明に浮かび上がる。例えば日本海に面した港町・温泉津への近接性は、16 世紀に銀を国内・海外市場へ直接出荷することを可能にした。この時期、石見銀山はしばしば「湯の銀山」と呼ばれた。この異名は、鉱山と温泉津の共生関係を指す。温泉津は 1527 年に銀が発見されるまで、温泉でしか知られていなかった町である。温泉津経由の銀の輸送は 1600 年代初頭に終焉を迎えたものの、町は江戸時代（1603-1867）を通じて鉱山の主要な物資供給源であり、海運貿易の地域拠点であり続け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海外とのつながり：ベトナム（ホイアン）

【想定媒体】 Web

<韓国語>**이와미 은광과 호이안의 연결고리**

16 세기에는 이와미 은광에서 대량으로 채굴된 은이 스페인, 포르투갈 제국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은이 먼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던 교역 거점 가운데 하나가 베트남의 도시 호이안(Hội An) 이었는데, 당시 남중국해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항구로 손꼽혔던 곳이다.

이와미 은에 대한 수요는 막 은본위 경제로 이행한 명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명나라는 1567 년에 오랜 해상무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공식적인 무역 협정이 없었던 탓에, 포르투갈이 중개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들은 중국 비단을 일본 은과 교환한 뒤, 그 은을 호이안으로 운송하여 중국 상인들에게 판매했다. 이 거래로 축적된 부는 투본강(Thu Bồn River) 연안의 이 도시를 국제적인 교역 거점으로 번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1600 년대 초반에 새로 들어선 도쿠가와 막부가 해외로 은 판매를 제한하면서 이와미 은광과 호이안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은 끊어졌다. 그럼에도 호이안과 일본 사이의 상업적 교류는 막부와 베트남 당쥬(Dàng Trong) 왕국 간 조약에 따라 계속되었다. 1604 년부터 1635 년까지, 막부로부터 해외 무역을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붉은 인가장(朱印狀)을 지녔다고 하여 ‘주인선(朱印船)’이라 불린 배가 최대 70 척까지 나가사키에서 호이안으로 항해했다. 이 배들은 비단, 설탕, 그리고 향과 약용 가치로 높이 평가되던 열대산 침향(沈香) 등을 조달했다.

이러한 교류는 호이안에 일본인 거주 구역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1600 년대 전반에는 마을 서쪽 가장자리의 이 지구에 수백 명의 상인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강을 따라 일본식 가옥 수십 채가 줄지어 서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1630 년대 후반 도쿠가와 막부가 쇄국적 대외 정책을 채택하고 베트남과의 직접 무역을 종료하면서 일본인 거주 구역은 점차 쇠퇴했다. 이후 이 구역을 이어받은 중국 상인들은 중심부에 있던 일본식 다리를 중국식으로 개조하는 등 지역의 모습을 서서히 바꾸어 갔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와미 은광과 호이안의 인연은 2007 년 이와미 은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일본 다리’가 위치한 호이안의 구시가지 또한 1999 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호이안에서는 연례 일본 축제가 2024 년까지 개최되었다.

<日本語仮訳>**石見銀山とホイアンの関係**

1500 年代、石見銀山で採掘された膨大な量の銀は、スペインとポルトガルの帝国が支配する世界経済

を支える原動力となった。銀が遠方の市場へと流れ込んだ交易拠点の一つが、当時の南シナ海で最も重要な商業港であったベトナムのホイアンであった。

石見銀への需要は、銀本位制経済へ移行したばかりの明の国から生じた。同国は 1567 年、長きにわたる海上貿易禁止令を解除した。中国と日本の間に正式な貿易協定が存在しなかったため、ポルトガル人が仲介役を担うようになった。彼らは中国の絹で日本の銀を購入し、ホイアンへ輸送して中国商人に販売した。この交易が生んだ富により、トゥボン川沿いのこの都市は国際的な交易拠点として繁栄した。

1600 年代初頭、新たに成立した徳川幕府が海外への銀販売を制限したことで、石見銀山とホイアンの直接的な繋がりは断たれた。しかし、同市と日本の間の商業的交流は継続した。今度は幕府とベトナムのダンジョン王国との間の条約のもとである。1604 年から 1635 年の間に、最大 70 隻の「朱印船」――その名は、外国貿易に従事するための徳川家から発行された朱印の許可状を運んでいたことに由来する――が長崎からホイアンへと航海した。そこで彼らは絹、砂糖、そして芳香と薬効で高く評価された熱帯産品である沈香などの物品を調達した。

この交流によりホイアンに日本人街が出現した。1600 年代前半、町の西端に位置するこの地区には数百人の商人が居住し、川沿いに数十軒の日本家屋が並んでいたと考えられている。1630 年代後半、徳川幕府が鎖国政策を採用しベトナムとの直接貿易を断絶すると、日本人街は衰退した。この地区を引き継いだ中国商人たちは、日本人によって築かれた中心部の橋を中国様式に改築するなど、徐々にその様相を変えていった。

2007 年に石見銀山がユネスコの世界遺産に登録されたことを契機に、長らく途絶えていた石見銀山とホイアンの関係が再燃した。前述の「日本橋」が位置するホイアン旧市街は 1999 年に世界遺産となっていた。ホイアンでは 2024 年まで毎年「日本祭り」が開催されてい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海外とのつながり：ポーランドの鉱山

【想定媒体】 Web

<韓国語>**이와미 은광과 폴란드 타르노프스키에구리 은광의 인연**

이와미 은광에서는 1527 년에 은이 발견되었고, 광산은 1923 년까지 운영되었다. 약 400 년에 가까운 채굴 기간은 1526 년에 개광해 1913 년에 폐광한 폴란드의 타르노프스키에구리(Tarnowskie Góry) 은광의 역사와 거의 비슷하다. 두 광산은 오늘날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양 지역의 행정 관계자와 학계가 교류를 촉진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타르노프스키에구리 은광은 개광부터 16 세기 말까지 납과 은의 중요한 산지였는데, 이 두 금속은 갈레나(방연석) 광석에서 함께 채취되었다. 채굴된 은은 주로 지역 통치자들이 주화 재료로 사용했고, 납의 약 80 퍼센트는 중부 유럽의 다른 광업 중심으로 수출되어 금과 은의 제련용 등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타르노프스키에구리도 이와미 은광처럼 배수가 어려운 과제였다. 갱도가 더 깊고 깊어지면서 암반 속 지하수층을 만나 침수가 발생했고, 이는 광석 채취를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타르노프스키에구리는 유럽의 주요 광산들에 비해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유입수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 150 킬로미터가 넘는 갱도, 통로, 수갱, 운반 회랑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배수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이 광산의 잘 보존된 수리, 배수 관리 체계는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타르노프스키에구리 은광은 18 세기 후반 이후 프로이센 통치하에서 근대화와 기계화가 진행되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금속은 19 세기 독일 중공업 발전에도 공헌했다. 그러나 20 세기 초에 갈레나 매장량이 고갈되면서 결국 광산은 폐광되었다.

이와미 은광과 타르노프스키에구리 사이의 본격적인 교류는 2017 년 폴란드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시작되었다. 2023 년에는 이와미 은광이 위치한 오다시 관계자들이 타르노프스키에구리를 방문해, 광산을 관리하고 보존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NGO 인 ‘타르노프스키에구리 향토애호가협회’와의 연대를 돈독히 했다.

<日本語仮訳>**石見銀山とタルノフスキエ・グリ銀山の関係**

1527 年、石見銀山で銀が発見され、鉱山は 1923 年まで操業を続けた。この約 400 年にわたる活動期間は、1526 年に開坑し 1913 年に閉山したポーランドのタルノフスキエ・グリ銀山とほぼ重なる。両鉱山は現在ユネスコの世界遺産に登録されており、両地域の行政関係者や学者の交流を促進する取り組みが進行中である。

タルノフスキェ・グリ銀山は創設から 16 世紀末まで、方鉛鉱（鉛光鉱）から鉛と銀を採掘する重要な鉱山であった。銀は主に地方支配者による貨幣鑄造に用いられ、鉛の約 80%は中央ヨーロッパの他の鉱山拠点へ輸出され、金銀精錬などの目的に使用された。

しかしタルノフスキェ・グリと石見銀山の両鉱山において、坑内の排水は困難な課題となった。坑道がより長く深く掘られるにつれ、坑夫たちは岩盤内の地下水溜まりに必ず遭遇し、坑道が浸水して鉱石の採掘が妨げられた。この水との闘いはタルノフスキェ・グリで特に顕著であり、同鉱山はヨーロッパの他の主要鉱山と比べて約 3 倍の湧水量を経験した。この結果、150 キロメートル以上に及ぶ坑道、通路、立坑、輸送路からなる排水システムが構築された。この鉱山の水管理システムが良好な状態で保存されていたことが、世界遺産登録の主要な理由の一つとなった。

タルノフスキェ・グリ鉱山は 18 世紀後半以降、プロイセン支配下で近代化・機械化が進められた。ここで採掘された金属は 19 世紀のドイツにおける重工業発展に貢献した。20 世紀初頭までに方鉛鉱の埋蔵量が枯渇し、鉱山は閉鎖を余儀なくされた。

2017 年にポーランドの銀山が世界遺産に登録されたことを受け、石見銀山とタルノフスキェ・グリ間の交流が始まった。2023 年には石見銀山のある大田市から代表団がタルノフスキェ・グリを訪問し、鉱山の管理と保存に尽力する NGO「タルノフスキェ・グリュ土地愛好家協会」との連携を深め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海外とのつながり：台湾の鉱山

【想定媒体】 Web

<韓国語>

이와미 은광과 대만의 광산

이와미 은광과 대만 북부의 두 역사적 광산 사이의 인연은 100 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까지도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1880 년대 후반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이 관계의 씨앗을 뿌렸고, 현재는 양국의 박물관이 함께 수행하는 역사 연구와 공동 사업으로 그 연대가 확장되고 있다.

식민지 배경

청일전쟁(1894-1895)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만 섬을 포함한 중국의 영토를 획득하며 식민지 종주국이 되었다. 이 시기 이와미 은광은 1886 년에 은광 채굴권을 획득하고 일본 각지의 광산을 경영하던 후지타구미(Fujita-gumi)의 관리하에 있었다. 그러나 후지타구미는 광산들의 수익성이 충분치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896 년, 새로 획득한 식민지의 개발을 서두르던 일본 정부는 대만의 유망 광산 두 곳에 대한 채굴권을 배분했고, 후지타구미는 이를 기회로 삼아 대만 북부 지우펀 인근의 루이팡 금동 광산의 채굴권을 확보했다.

대만에서의 일본 광업

후지타구미는 대만의 광산 경영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이와미 은광에서 개발 및 축적된 기술을 포함한 최첨단 채굴, 제련 설비와 기술을 도입했다. 이와미 은광에서 역량을 입증한 많은 기술자들과 전문 인력들이 루이팡으로 진출하면서 두 광산 사이에서는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지우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활기찬 광산 도시로 발전했으며, 1923 년 후지타구미가 대만 사업을 돌연 철수하는 위기를 겪고도 도시로서의 생명력을 이어 갔다. 같은 해 세계 시장의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후지타구미는 이와미 은광의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다.

대만에서의 일본 광업은 지우펀 근처의 긴카세키(진과시) 금광에서 계속되었다. 1935 년 긴카세키는 일본 제국 내에서 동종 시설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금광으로, 연간 최대 2.6 톤의 금을 산출했다. 이 광산은 1987 년까지 가동되었으며, 현재는 지정 사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우호적 연대

오늘날 지우펀 지역의 광산 역사는 루이팡의 신베이시 황금박물관에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이 박물관의 연구진은 2010 년부터 이와미 은광 세계유산 센터와 협력해 왔으며, 양 기관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최근 수년간 다수의 공동 전시와 행사를 개최해 왔다. 또한 두 기관은 2025 년 7 월 자매박물관 협정을 체결했다.

<日本語仮訳>

石見銀山と台湾の鉱山

石見銀山と台湾北部の二つの歴史的鉱山との結びつきは、一世紀以上に遡り、今日まで強固に続いている。1880 年代後半の日本の植民地政策がこの関係の礎を築き、現在では両国の博物館間での共同歴史研究や共同事業など様々な形で結実している。

植民地時代の背景

日清戦争（1894-1895 年）における日本の勝利は、台湾島を含む中国領土の獲得をもたらし、日本を植民地支配国へと変えた。当時、石見銀山は藤田組によって運用されていた。同社は 1886 年に銀山の権利を取得し、国内の他の地域でも鉱山を運営していた。しかし藤田組は鉱山の収益性が低く財政難に陥っていた。1896 年、新たに獲得した植民地の開発を急ぐ日本政府は台湾の有望鉱山 2 か所の採掘権を分配。藤田組はこの機会を捉え、島北部九份町近郊の瑞芳金銅鉱山の採掘権を獲得した。

台湾における日本の鉱業

藤田組は台湾事業に多額の投資を行い、最先端の採掘・精錬設備と技術を導入した。その一部は石見銀山で開発されたものだった。多くの技術者や専門家も石見銀山で実績を積んだ後、瑞芳に転属し、両鉱山間で活発な人材交流が行われた。九份は活気ある町へと発展したが、1923 年に藤田組が突如として台湾事業から撤退した危機的状況も乗り越えた。この年は世界市場の銅価格低迷により、同社が石見銀山の操業を停止した年でもあった。

台湾における日本の鉱業は、九份近郊の金瓜石金鉱山で継続された。1935 年、金瓜石は帝国最大の金鉱山となり、年間最大 2.6 トンの金を産出した。1987 年まで操業を続け、現在は史跡に指定されている。

友好関係

現在、九份地域の鉱業史は瑞芳にある新北市立黄金博物館で学ぶことができる。同博物館の研究者らは 2010 年より、石見銀山世界遺産センターの研究者らと協力関係を築いている。両施設は積極的に情報を交換し、近年では数多くの共同展示やイベントを開催してきた。両機関は 2025 年 7 月に姉妹博物館協定を締結し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龍源寺間歩：坑道内の見どころ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류젠지 마부 갱도

지금부터 들어가실 이 갱도는 끈기와 인내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공간입니다. 이 갱도는 망치와 끌만으로 10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굴착되었습니다. 하루에 전진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0 센티미터에 불과했지만, 작업은 세대를 이어 지속되었고 마침내 갱도는 산속으로 거의 600 미터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내부 벽면에는 당시 작업자들이 남긴 공구 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광부들이 찾아 나섰던 은맥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맥은 대체로 주변 암석보다 색이 더 짙게 나타납니다. 특히 주 갱도에서 은맥을 따라 파 들어간 작은 가지갱들이 갈라져 나가는 지점에서는 그 모습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龍源寺間歩

これから入る間歩は、粘り強さの証だ。100年以上の歳月をかけ、トンカチとノミだけで掘り進められた。作業員が1日で進めるのはわずか30センチほどだったが、何世代にもわたり掘り続け、ついに坑道を山の中へ600メートル近くまで延ばしたのである。

内部の壁には今も彼らの道具の痕跡が残っており、坑夫たちが探していた銀脈の痕跡も見られる。これらは通常、周囲の岩よりも色が濃く、銀脈を追って掘られた小坑道が本坑から分岐する地点で容易に見分けがつく。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用語：ひおい坑

【想定媒体】 Web

<韓国語>**용어집: 가지갱(Branch Shafts, *hioiko*)**

이와미 은광의 채굴 갱도에는 주 갱도에서 갈라져 나오는 수평 또는 경사 방향의 가지갱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지갱들은 산을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은맥을 추적하기 위해 굴착된 것으로, 은맥의 연장 방향을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대개 광부가 한 줄로 몸을 비집거나 기어가야 빠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아, 당시 작업 환경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열악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일부 가지갱은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데, 이는 붕괴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적할 가치가 있을 만큼 순도가 높은 은맥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어떤 가지갱은 주 갱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짧은데, 이는 특정 은맥의 품질을 감정하고 확인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파 들어갔다가, 광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곧바로 폐기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日本語仮訳>**用語：ひおい坑**

石見銀山の間歩には、主坑道から分岐する水平または傾斜した坑道が数多く存在する。これらの坑道は銀脈を追って掘られたもので、そのほとんどが山を斜めに貫いている。坑道幅は坑夫が一人ずつ這うか、かろうじて通り抜けられる程度にしかなく、坑夫たちが極めて狭隘な環境で働いてい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坑道の中には数十メートルに及ぶものもあり、崩落の危険を冒しても追跡する価値のある特に豊富な鉱脈が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一方、本坑からほとんど離れていない坑道もあり、これらは特定の鉱脈の質を評価するために掘削され、鉱脈が期待外れだと判明すると放棄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 用語：四つ留

【想定媒体】 Web

<韓国語>

용어집: 요쓰도메(*Yotsudome*)

이와미 은광의 갱도 입구는 붕괴 위험이 가장 큰 지점이었기 때문에, 특히 세심하게 보강되었다. 입구 위에는 네 개의 기둥이 받치는 두꺼운 목재 보를 설치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구조물이 바로 요쓰도메로 직역하면 ‘네 곳 고정’이라는 뜻이며, 광산과 바깥 세계를 구분하는 표지이자 경계였다. 요쓰도메는 단순한 물리적 안전장치일 뿐만 아니라, 영적 경계이기도 했다. 대개 요쓰도메 위에는 작은 감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광부들은 갱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모셔진 신에게 무사와 안전을 빌었다.

<日本語仮訳>

用語：四つ留

石見銀山の間歩入口は、崩落の危険が最も高いため入念に補強されていた。入口は四本の柱で支えられた太い木製の梁で補強されていた。この構造物は四つ留めと呼ばれ、鉱山と外界の境界を画していた。それは物理的境界であると同時に精神的境界でもあった。四つ留めの上部には通常小さな祠が設けられ、坑夫たちは山に入る前に祀られた神に安全を祈願し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用語：螺灯

【想定媒体】 Web

<韓国語>**용어집:기름 램프 (Oil Lamps, *rato*)**

이와미 은광의 역사 대부분에서 기름 램프는 광부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조명 수단이었다. 이 램프는 식용 해산 달팽이의 일종인 소라 껍데기를 등잔으로 가공해 만들고, 그 안에 들기름이나 유채기름을 채워 사용했다. 작업 중 광부들은 갱도 벽면의 흠이나 선반 같은 곳에 기름 램프를 놓아 주변을 비추었다. 한편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을음은 광부들에게 흔했던 호흡기 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당시 광부들은 이 기름 램프에서 피어오르는 그을음의 흐름을 안전 신호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공기 중 산소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면 그을음 기둥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하게 움직여서, 질식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日本語仮訳>**用語：螺灯**

石見銀山の歴史の大半において、坑夫が利用できる唯一の光源は油ランプであった。これらはサザエの貝殻を加工して作られ、紫蘇油または菜種油が注がれていた。作業中、坑夫たちはランプを坑道の壁面の穴や窪みに置き、周囲を照らした。灯りが燃える際に発生する煤は、坑夫に蔓延した呼吸器疾患の主要原因であった。しかし一方で、坑夫たちは窒息から身を守るため、自らの灯りから立ち上る煤の煙柱を頼りにしていたとも伝えられる。空気中の酸素濃度が危険なほど低下すると、その煙柱が揺らめいたという。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用語：疏水

【想定媒体】 Web

<韓国語>**용어집: 배수 수갱(Drainage Shafts, *sosui*ko)**

이와미 은광에서는 지하수가 갱도로 유입되어 채광을 방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광산 곳곳에 배수 수갱을 굴착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비교적 효과적인 방식은 기존 채굴 지점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수평 배수 갱도를 먼저 굴착한 다음, 그 지점까지 수직의 배수용 수갱을 내려 연결하는 공법이었다. 이렇게 하면 지하수가 수직 수갱을 따라 아래로 흘러 하부 배수 갱도에 모이고, 마침내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류젠지 마부 갱도의 배수 수갱은 더 깊은 약 100 미터 아래에 형성된 갱도, 수갱 네트워크로 물을 흘려보냈다.

<日本語仮訳>**用語：疏水**

石見銀山の坑夫たちは、地下水が坑道を浸水させ鉱石の採掘を妨げるのを防ぐため、坑内全体に疏水坑を掘削した。比較的効果的な方法は、垂直の疏水坑を掘り進め、既存の採掘場よりも低い標高の水平坑道と接続させることだった。水はこれらの排水坑道へ流れ込み、河川へ放流された。例えば龍源寺間歩の疏水坑は、さらに約 100 メートル地下にある坑道網へと水を導いてい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用語：ヘビノネゴザ

【想定媒体】 Web

<韓国語>**용어집: 뱀고사리 (*Hebino-negoza; Athyrium yokoscense*)**

뱀고사리는 밝은 연녹색의 낮게 자라는 양치식물로, 아치형으로 휘어지는 잎이 특징이다. 이 종은 아연, 납, 구리, 은과 같은 중금속 농도가 높은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이와미 은광의 탐광자들은 이 식물을 잠재적 채굴 지점을 알려 주는 자연의 지표로 믿고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날에도 이 일대에서 흔히 관찰되며, 센노야마 산 자락 아래에 여전히 상당한 은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日本語仮訳>**用語：ヘビノネゴザ**

ヘビノネゴザ (*Athyrium yokoscense*) は、低く茂る鮮やかな緑色の植物で、葉は弓形に反り返る。亜鉛、鉛、銅、銀などの重金属を多く含む土壌でよく育つ。石見銀山の探鉱者たちは、この植物を鉱脈の指標として信頼していたことで知られている。今日でもこの地域に広く見られることから、地中にまだ豊富な銀が残さ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地域番号	022	協議会名	津山まちじゅう博物館コンソーシアム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 (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22-001	津山城跡/五番門と土堀	229	Web/その他
022-002	津山城跡/腰巻櫓	194	Web/その他
022-003	津山城跡/七番門と虎口	316	Web/その他
022-004	津山城跡/多聞櫓	253	Web/その他
022-005	津山城跡/長局と到来櫓	254	Web/その他
022-006	津山城跡/京橋門	260	Web/その他
022-007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1/天守閣構造	209	Web/その他
022-008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2/湯殿と便所	303	Web/その他
022-009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3/貴重な資料 天守最上階にある珍しい上段の間	213	Web/その他
022-010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4/重装備な天守	502	Web/その他
022-011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5/天守への入り口	143	Web/その他
022-012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6/天守最上階の南蛮鐘	434	Web/その他
022-013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7/天守北側の七番門周辺/天守南側、五番門周辺の入り組んだ枡形虎口	313	Web/その他
022-014	津山城跡 8 天守閣内部再現太鼓壁/防弾と省力化から生まれた 太鼓壁	243	
022-015	津山城跡 堀 1/壮大な一重の堀	320	Web/その他
022-016	津山城跡 堀 2/外堀の櫓	269	Web/その他
022-017	津山城跡 堀 3/大手門（京橋御門）及び両側の屏風折れ土堀	281	Web/その他
022-018	津山城跡 堀 4/田町門周辺の景観	261	Web/その他
022-019	津山城跡 堀 5/北門周辺の景観/宮川にかかる大橋の景観/翁橋たもとの大番所	277	Web/その他
022-020	中山神社/中山神社 概要	444	Web/その他
022-021	中山神社/神門	266	Web/その他
022-022	中山神社/拝殿	456	Web/その他
022-023	中山神社/幣殿	188	Web/その他
022-024	中山神社/本殿	311	Web/その他
022-025	高野神社/高野神社 概要	387	Web/その他
022-026	高野神社/木造隨身立像（国指定重要文化財）	277	Web/その他
022-027	高野神社/木造神号額（国指定重要文化財）	338	Web/その他

022-028	高野神社/木造獅子 2 対（国指定重要文化財）	267	Web/その他
022-029	作楽神社/作楽神社 概略	277	Web/その他
022-030	作楽神社/院庄館跡（児島高德伝説地）（国指定史跡名勝天然記念物）	515	Web/その他
022-031	作楽神社/太刀「銘国行」 （国指定重要文化財）	378	Web/その他
022-032	本源寺/本源寺 概要	737	Web/その他

022-001

津山まちじゅう博物館コンソーシアム

【タイトル】 津山城跡/五番門と土堀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고반문과 토담

쓰야마성의 고반문은 빗추 야구라의 북쪽에 위치하며, 성의 천수각으로 들어가는 남쪽 입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옛 도면에는 기와 지붕을 얹은 문으로 묘사되었고, 발굴된 유적을 통해서도 문이 기와지붕 구조였음을 보여줍니다.

2006년에는 축성 400 주년을 기념하여 문 남쪽의 석축을 신중하게 해체하고 재건했습니다. 옛 사진에서 석축 상단에 2m 높이의 토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주보는 두개의 토담과 그 사이의 빈 공간에 쇠석과 와류를 채운, ‘다이코(太鼓)’ 형태의 담(太鼓塀)으로 재건되었습니다.

022-001

<日本語仮訳>

五番門と土堀

津山城の五番門は備中櫓の北側に位置し、城の天守閣への南側の入口として使用されていました。古い図面では瓦葺きの門として描かれており、発掘跡地も門が瓦葺きだ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2006年には築城 400 周年を記念して、門の南側にある石垣が慎重に解体・再建されました。古写真からは、石積みの頂上に高さ 2 メートル強の土堀が築かれていた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向かい合う 2 つの土堀と、堀の間の空洞に碎石や瓦礫を詰めた「太鼓」型の塀（太鼓塀）として再建されました。

022-002

津山まちじゅう博物館コンソーシアム

【タイトル】 津山城跡/腰巻櫓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고시마키 야구라

고시마키 야구라는 평지붕 형태의 망루로 성의 중심 구역인 혼마루 북쪽 석축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1890 년, 이 망루를 지탱하던 석축이 붕괴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석축은 원래보다 작은 규모로 재건되었습니다. 이 붕괴는 성터 보존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유적지의 유지·관리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방문객들은 최하단의 돌담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지지 구조를 견학할 수 있습니다.

022-002

<日本語仮訳>

腰巻櫓

腰巻櫓は、平屋根の櫓で、城の中心区画（本丸）の北側の石垣の上に建てられている建物です。1890 年に、この櫓を支えていた石垣が崩落しました。それから間もなく、石垣は元のものよりも小規模ながら再建がされました。この崩落が大衆からの城跡の保存を求める声を喚（よ）び、跡地の維持管理と保護の必要性に対する意識を高めました。現在では、入場者は、最下段の石積みと、その背後の支持構造を見学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津山城跡/七番門と虎口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나나반문의 요새**

성의 나나반문은 천수각보다 한 단 낮은 위치의 돌계단 기점부에서 서쪽을 향해 서 있습니다. 발굴로 이 문의 주춧돌이 확인되었고, 현재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의 석축은 역사 기록에서 확인된 치수에 따라 복원된 것입니다.

이 문은 한 단 아래에 있는 두 번째 구역인 니노마루(二の丸)으로 연결되지만, 두 구역 사이에는 약 3m의 높낮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막부의 재무 담당 관리가 쓴 1811년 6월 8일자 일기에는 ‘나나반문의 밖에 있는 사다리’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두 구역을 잇는 목조 계단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은 번주나 가신들이 자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이 계단을 철거하고 침입로를 차단하여 천수각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七番門の砦**

城の七番門は天守閣より一段低いところに、石段の基部に西向きにそびえています。発掘により礎石が確認され、現在もそ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周囲の石垣は、歴史の記録で確認される寸法に基づいて復元されています。

この門は、一段下がった第二の区画（二の丸）と通じていましたが、この二つの段は約3メートルの高低差で隔てられていました。勘定奉行が付けていた日記の1811年6月8日の記述には「七番門の外にあるはしご」と残されています。これはおそらく、二つの段をつなぐ木製の階段を指していた可能性があります。

この門は藩主や家臣が頻繁に使用し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しかし、攻撃を受けた時には、この階段を取り外して侵入を遮断し、天守閣の防衛に役立ったということもあり得ます。

【タイトル】 津山城跡/多聞櫓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다문 야구라**

다문 야구라는 방어와 감시를 목적으로 성벽 위에 축조한 연립 건물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쓰야마성에는 천수각의 남서쪽, 서쪽, 북서쪽에 이와 같은 망루가 세 동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단층 구조이며, 서쪽 망루가 길이 약 43m, 폭 5.5m 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북쪽과 남쪽 끝에는 팔작지붕 양식의 2층 망루가 세워졌습니다. 건물 전체에는 방어 기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도록 한 총안과 사혈이 있었으며, 돌을 던져 공격하기 위한 ‘이시오토시’라 불리는 개구부가 있었습니다. 망루들은 전체적으로 천수각을 둘러싸며 매우 견고한 방어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日本語仮訳>**多聞櫓**

多聞櫓とは、防衛と監視を目的として城壁の上に築かれた、長屋形式の構造物です。津山城では、天守閣の南西側、西側、北西側にこの櫓が三基建っていました。いずれも平屋建てで、西の櫓が一番大きく、長さ約 43メートル、幅 5.5メートルでした。

北と南の端には、入母屋造りの二重櫓が築かれていました。建物全体に防衛機能が施されていました。銃兵や弓兵用の狭間や、攻撃者に石を落とすための石落としと呼ばれる開口部がありました。これらの櫓は全体として、天守閣を囲む非常に優れた障壁を形成していました。

【タイトル】 津山城跡/長局と到来櫓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남향 망루**

길게 이어진 다몬 야구라가 한 때 성의 혼마루 남쪽 끝 석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석회로 마감한 벽은 다른 방어용 건축물과 동일했지만,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성의 궁녀들이 지내던 처소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서쪽으로 빗추 야구라와 연결되어 있어, 성주 가족의 사적인 공간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쪽 끝은 2층 높이의 망루인 도라이 야구라와 이어져 있습니다. ‘도착’이나 ‘접근’을 의미하는 이 ‘도라이(到来)’라는 단어는 이 망루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전망이 좋은 이 자리에서 성주들은 성문을 통해 혼마루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들을 빠짐없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日本語仮訳>**南向きの櫓**

長い多聞櫓がかつて、城の本丸南端の石垣に建っていました。漆喰仕上げの壁は他の防衛建築物と同様ですが、歴史の記録によれば城の女中たちの居住室だったとされています。

西側ではこの建物は備中櫓に通じており、城主の家族の私室として使用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東端は、(二重)二階建ての見張り塔(到来櫓)につながっていました。「到着」や「接近」を意味するこの到来という言葉はこの塔の役割を反映しています；この見晴らしの良い場所から、城番たちは門を通過して本丸へと続く主要道をはっきりと視界に納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

【タイトル】 津山城跡/京橋門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교바시문**

이 유적지는 쓰야마성의 정문인 교바시문이 원래 있던 장소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석축은 옛날 일본 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상자 모양의 방어선으로 마스가타 고구치(枳形虎口)의 일부분입니다.

마스가타 설계는 직각으로 배치된 두 개의 문을 특징으로 하며, 높은 석축과 그 위에 세워진 망루로 둘러싼 공간을 만듭니다. 외문으로 침입한 공격자들은 좁은 안마당에 포위되고, 나가기 위해서는 급히 방향을 바꿔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을 지키던 수비병들은 갇힌 적들을 향해 집중 포화를 가하거나 직접 돌을 던질 수 있는 동시에, 이 좁은 공간은 적들이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日本語仮訳>**京橋門**

この跡地は津山城の正門である京橋門が元々あった場所です。現在残っている石垣はかつて日本の城によくみられた箱型をした防衛線となる入口の枳形虎口の一部でした。

枳形設計は直角に配置された二つの門を特徴とし、高い石垣とその上に建つ櫓で囲まれた空間を形成するものです。外門に侵入した攻撃者たちは狭い中庭に閉じ込められることになり、急転回して前進せ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城番側は閉じ込められた兵士に集中砲火を浴びせたり、直接石を落としたりできたと同時に、その狭い空間が攻撃者たちの武器の有効な使用を封じ込めたのです。

022-007

津山まちじゅう博物館コンソーシアム

【タイトル】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1/天守閣構造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천수각의 구조

덴슈(天守)는 쓰야마성에서 가장 큰 건조물입니다. 전체 높이는 22m, 석조 기반 높이는 6m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도 몇 안 되는 5층 규모의 천수각으로, 성 아래 마을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최상층을 제외하고는 외관에 박공이 없는 전형적인 다층 구조의 천수각입니다. 혼마루 서쪽 끝에 지어졌으며, 석축으로 격리되어 있어 두 개의 문을 통해서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계 덕분에 경우에 따라 수비대들은 천수각 주변으로 퇴각하여 마지막까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022-007

<日本語仮訳>

天守閣の構造

天守（英語で「天守閣」）は津山城で最も大きな建造物でした。その高さは22メートルで、石造りの基礎の高さは6メートルです；日本でも有数の高さを誇る五階建ての天守閣であり、城下町の象徴的建物です。最上階を除いて外に破風がない、典型的な多層構造の天守閣です。本丸の西端に築かれ、石垣で隔てられており、二つの門を通過のみたどり着く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設計により城番側は、必要に応じて天守閣周辺に退却して最後の抵抗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022-008

津山まちじゅう博物館コンソーシアム

【タイトル】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2/湯殿と便所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성의 욕실과 변소

천수각의 1 층과 2 층을 연결하는 계단참(踊り場)은 12 조(다다미 12 장) 정도의 넓이로, 중 2 층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 2 층 아래에는 두 개의 변소와 욕실, 탈의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두 성만이 천수각 내부에 욕실과 변소를 모두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쓰야마성과 규슈 북부의 고쿠라성입니다. 그외 히메지성, 마쓰에성, 구마모토성 같은 다른 주요한 성에는 변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야마 성의 천수각에서 긴 시간을 버티며 방어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 설비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현재 이 시설들은 천수각 내부 사람들이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것은 천수각의 욕실을 최초로 CG 로 재현한 것입니다.

022-008

<日本語仮訳>

城の湯殿と便所

天守閣の1階と2階をつなぐ階段の踊り場は12畳ほどの広さで、中2階が設けられていました。この中2階の下には、二つの便所と、湯殿と更衣室がありました。日本の2つの城のみが唯一、天守閣の中に湯殿と便所の両方を有していたと知られています：津山城と九州北部の小倉城です。その他の、姫路城、松江城、熊本城などの主要な城では、便所のみが設置されていました。これらの設備はとても重要でした；津山城の天守閣を長期にわたる籠城に万全の態勢に整えたからです。今日では、天守内部の人々が緊急時にはどのように生活していたかを知ることができる貴重な情報を提供しています。これは、天守閣の湯殿をCGで初めて再現したものです。

022-009

津山まちじゅう博物館コンソーシアム

【タイトル】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3/貴重な資料 天守最上階にある珍しい上段の間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천수각의 최상층

쓰야마성의 천수각은 일본의 여러 다른 성들과 마찬가지로 규슈 북부에 있는 고쿠라성의 천수각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성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쓰야마성의 자료는 고쿠라성과 같은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원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최상층 중앙에 설치된 높은 마루식 방인, 조단노마(上段の間)입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는 일본의 많은 성에서 볼 수 있는 최상층 구조와는 크게 달라, 천수각 설계에 있어 나타나는 건축상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022-009

<日本語仮訳>

天守閣の最上階

津山城の天守閣は、日本のいくつかの他の城と同様に、九州北部の小倉城の天守閣を手本にしていることで知られています。他の城に関する記録がほとんど残っていないことから、津山城の資料は小倉城のような型を理解する上で重要な情報源となっています。一番の特徴は、最上階の中央に設けられた高床式の部屋（上段の間）です。この珍しい間取りは日本の多くの城の最上階の間取りとは大きく異なり、天守閣の設計における建築上の多様性を示しています。

【タイトル】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4/重装備な天守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천수각 방어 시설

쓰야마성의 천수각은 층탑형(層塔型) 천수각 설계 전형적인 사례로, 최상층을 제외하면 장식용 박공은 전혀 없습니다. 천수각은 매우 훌륭한 방어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대포를 쏘기 위한 포혈 101 개와 화살을 쏘기 위한 사혈 59 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기록에서 이들 방어 시설의 정확한 배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천수각은 이 역사적 증거를 기반으로 디지털 복원된 것입니다.

층탑형은 각 지붕층이 아래층보다 안쪽으로 들어간 구조로, 최상층에서만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1600 년대 초반 설계 당시 최신타 설계로 압도적인 존재감과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상층이야말로 쓰야마성 천수각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었습니다. 하층부에는 견고한 방어벽이 없고 드문 개방적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쇼지(창호지)창을 통해 밝은 빛이 드는 실내 바닥에는 전체적으로 다다미를 깔았고, 그 공간 위에는 격자 천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높은 바닥식 방(上段の間)이 있었는데, 이는 성주가 사용하는 어진 특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이 철거되기 전인 1874 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에는 바깥 뒷마루를 둘러싼 간소한 목재문이 찍혀 있으며, 이는 실용성을 형식보다 우선시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日本語仮訳>

天守閣の防衛設備

津山城の天守閣は、層塔型（英語で「層型の塔」）天守閣設計の典型例で、（最上階を除いて）装飾的な破風がまったくありません。天守閣は非常に優れた防衛を発揮できるよう設計され、101 の鉄砲狭間と 59 の矢狭間を備えていました。現存する記録がこれらの防衛設備の正確な配置を示しており、天守閣の復元はこの歴史的な証拠に基づいてされています。

層塔型では、屋根層がそれぞれ一つ下の層より奥まる造りで、最上階からのみ開放的な眺望が得られます。これは 1600 年代初頭の建設当時では最先端の設計で、圧倒的な存在感と強力な防衛能力を兼ね備えていました。

しかし最上階こそが津山城天守閣の最も特筆すべき特徴でした。下層部に堅牢な防衛壁がなく、珍しい開放的な間取りを特徴としていました。障子窓が明るい光を多く採り入れる室内を作り出し、畳が床全体に敷き詰められ、その空間の上には格天井が張られていました。その中心には高床式の部屋（上段の間）がありました；城主が使用する御殿特有の特徴です。しかし、城が取り壊される 1874 年以前に撮影

された写真には外側の廻縁を囲む簡素な木製の戸が写っており、この場合、実用性が形式性を上回っていた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

022-011

津山まちじゅう博物館コンソーシアム

【タイトル】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5/天守への入り口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천수각 입구

쓰야마성의 천수각은 혼마루의 서쪽 끝에 서있었지만, 현재는 우뚝 서 있던 망루를 지탱하던 거대한 주춧돌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각형 기초에는 천수각의 지하층이었던 지하실이 있고, 건축 구조를 지탱했던 당시의 석축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문헌에 따르면, 천수각으로의 입성은 바로 이 지하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022-011

<日本語仮訳>

天守閣への入り口

津山城の天守閣は本丸の西端に立っていましたが、今は、そびえ立つ櫓をかつて支えていた巨大な礎石だけが残っています。この四角い基礎の中には、天守閣の地階であった地下室があり、建築構造を支えていた当時の石積みが見られます。歴史文書によれば、天守閣への入城はこの地下室からされていた。

【タイトル】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6/天守最上階の南蛮鐘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남반 종

쓰야마성과 고쿠라성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증거로, 과거 천수각 최상층에 걸려 있던 남반 양식의 종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반 (南蛮)이란 외국, 특히 서양 예술 등의 영향을 받은 양식을 말합니다. 삿갓 형태의 이 종은 쓰야마성이 1609년에 완성되었을 때, 쓰야마번의 번주 모리 다다마사(1570~1634)에게 고쿠라번의 번주 호소카와 다다오키(1563~1646)가 선물한 것입니다.

종에는 호소카와 가문의 문장인 구요문(九耀紋)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다다오키의 아내이자 기독교 신자였던 가라샤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1600년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적이 그녀의 남편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그녀를 인질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신앙심 때문에 스스로 자결할 수 없었고, 대신 자신의 손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종은 성에 걸려 1874년 천수각이 철거되기 전까지, 대대로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는 오사카의 남반 문화 관련 박물관인 '남반문화관'의 소장품 중 하나로 보관 중입니다. 성터 바로 남쪽에 위치한 쓰야마 향토 박물관에는 종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南蛮鐘

津山城と小倉城のつながりを示す証拠に、かつて天守閣の最上階に吊られていた南蛮様式の釣鐘がみられます(南蛮とは外国、特に西洋の芸術などに影響を受けた様式を指します)。編み笠のような形をしたこの鐘は、津山城が1609年に完成した折に、津山藩の藩主・森忠政(1570~1634年)に小倉藩の藩主・細川忠興(1563~1646年)から贈られたものです。

鐘には細川家の九耀紋が入っており、忠興のキリスト教徒の妻ガラシャを偲ばせます。彼女は1600年に悲劇的な最期を迎えました; 敵が彼女の夫に圧力をかける手段として彼女を人質にとろうとしたのでした。彼女は信仰により切腹することが叶わなかったため、家臣の手で死ぬことを選びました。

この鐘は城に吊られ、1874年に天守閣が取り壊されるまで世代にわたり町中に響き渡りました。現在は大阪の南蛮文化に関する博物館「南蛮文化館」の収蔵品の一つとなっています。鐘のレプリカが、城跡のすぐ南に所在する津山郷土博物館に展示されています。

022-013

津山まちじゅう博物館コンソーシアム

【タイトル】 津山城跡 天守閣内部再現 7/天守北側の七番門周辺/天守南側、五番門周辺の入り組んだ枡形虎口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천수각 방어문

성의 방어 시설에는 여러 개의 마스가타 양식의 성문 출입구 등 정교하게 고안된 출입구들이 있었습니다. 천수각을 지키던 이러한 성문 중 하나가 고반문에서 가까운 천수각 남쪽에 있었습니다. 마스가타는 정사각형 모양의 공간으로, 보통 석축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곳을 통과하여 전진하려면 90 도로 방향을 틀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적의 진군을 늦추고 세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방어용으로 설계된 또 다른 입구는 북쪽에 있는 나나반문입니다. 이 문은 혼마루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세워졌으며 층을 연결하는 목조 계단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이 계단을 철거하여 적이 상층으로 침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높은 석축 덕분에 천수각은 성의 다른 구역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있었습니다.

022-013

<日本語仮訳>

天守閣の防衛門

城の防衛設備には、複数の枡形様式の虎口など、うまく工夫された出入口がありました。天守閣を守っていたそうした虎口の 하나가、五番門も近い天守閣南側にありました。枡形は正方形の空間で、通常石垣で囲まれており、ここを通過して前進するには 90 度転回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の構造が敵の進行を遅らせて、三方からの攻撃にさらします。

防衛用に設計されたまた別の入口が、北側にある七番門です。本丸の段よりわずかに低い位置に築かれ、段をつなぐ木造階段があります。攻撃を受けた時には、階段を取り外すことで敵による上層段への侵入を阻止できました。これらの構造的特徴と高い石垣により、天守閣は城の他の区画から完全に隔絶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

【タイトル】 津山城跡 8 天守閣内部再現太鼓壁/防弾と省力化から生まれた 太鼓壁
【想定媒体】

<韓国語>

노동력 절감과 방탄 기능을 갖춘 ‘태고(太鼓, 드럼)’의 담

빗추 야구라의 서쪽에는 적들로부터 천수각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태고식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은 자갈, 기와 파편, 그 밖의 와락으로 채워진 틈으로 나뉘, 비교적 얇은 두 겹의 평행 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고(太鼓)라는 단어는 두 겹의 북 가죽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모양과 비슷한 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설 양식은 17 세기 초반에 개발되었습니다. 적은 노동력으로도 뛰어난 방어력을 발휘했는데, 총탄의 충격을 와락이 채워진 빈 공간에서 흡수하여 성 내부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日本語仮訳>

省力化と防弾能力を備えた「太鼓」(英語で「ドラム」) 塀

備中櫓の西側には、城の天守閣を攻撃者たちから守るために築かれた太鼓様式の塀が立っています。これは、小石、瓦の破片、その他の瓦礫で埋められた隙間で隔てられた、二枚の比較的薄い並行の塀で構成されています。(太鼓(英語で「ドラム」)という言葉は、2枚の太鼓の皮の間に空洞がある様子に似ていることに由来します。)この建設様式は17世紀初頭頃に開発されました。少ない労働力で済みつつも、優れた防御力を発揮しました；銃弾の衝撃を瓦礫が詰められた空洞に吸収させることで城の内部への被害を最小限に抑えることができたからです。

【タイトル】 津山城跡 堀 1/壮大な一重の堀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해자의 구조**

쓰야마성은 단일 인공해자(성을 감싸는 도랑)로 둘러싸인 거대한 평산성이지만, 같은 시대에 축조된 대부분의 성이 이중 이상으로 해자를 두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단일 해자를 설계한 것은 축성을 감독한 성주 모리 다다마사의 전략적 계획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지였습니다. 세 개의 강이 성이 세워진 언덕인 쓰루야마산을 감싸듯 흐르며, 자연스럽게 외해자 기능을 합니다. 동쪽으로는 미야가와 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이다가와 강이 무사 저택 단지를 에워싸듯 우회하며, 남쪽으로는 요시이가와 강이 방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성의 주요 성벽 바로 바깥쪽에 인공 ‘해자’가 파여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진과 지도를 통해 이 해자의 안쪽은 토담으로 강화하고 그 위에는 팔작지붕 양식의 이중 망루가 다수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堀の構造**

津山城は一重の人工堀に囲まれた大型の平山城でした；それとは対照的に、同じ時代に築かれた多くの城が二重以上の堀を設けていました。堀を一重だけ築くという設計の採用は、築城を監督した城主・森忠政の戦略的計画を織り込んだことでした。その位置が重要でした：3本の川が、城が築かれた丘である鶴山を囲むように流れており、これらが城の外堀として機能していたのです。東に向かって宮川が流れ、藺田川が西側の武家屋敷を囲むように迂回し、吉井川が南から保護機能を強化しました。城の主たる堀のすぐ外側に人工の「内堀」が掘られました。歴史的な写真や地図からは、この堀の内側が土居で補強され、その上に入母屋造りの二重櫓が数多く建っ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

【タイトル】 津山城跡 堀 2/外堀の櫓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해자의 망루**

성 상층부 구역의 망루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자를 따라 세워진 망루는 모두 같은 크기와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각각 이중 일계의 맞배지붕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이는 외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는 이례적으로 크기가 컸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성의 다른 부분에 사용된 석축이 아닌, 해자에 토담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성을 건설하면, 보통 상층 구역의 석축을 가장 먼저 완성한 후, 계속해서 천수각과 거주 공간을 건설합니다. 해자 주변 구역은 성의 방어 시설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석축이 아닌 토담이 사용된 점은 공사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日本語仮訳>**堀の櫓**

城の上部区画の櫓にはそれぞれ独自の特徴がありました。しかし堀沿いに立っていた櫓はすべて、同じ大きさかつ同じ設計で建てられていたのです。それぞれが二重一階切妻造りで、外郭の防御を目的とする設備としては珍しい大きさでした。もう一つの対照的な特徴は、城の他の部分で使用されている石垣ではなく、堀に土居が使用されていたことです。城の建設では通常、上層区画の石垣が最初に完成し、続いて天守閣と本居が建設されます。堀周辺区域は城の防衛設備の中でも特に最後に築かれた可能性が高く、石垣ではなく土居が使用されたのは工期や予算の削減によるもの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

022-017

津山まちじゅう博物館コンソーシアム

【タイトル】 津山城跡 堀 3/大手門（京橋御門）及び両側の屏風折れ土堀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교바시문의 견고한 설계

이곳은 과거 성의 정문이었던 교바시문이 있던 장소로 성의 해자를 건널 수 있는 정식 목조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남아 있는 석축은, 직접 통과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마스가타 양식의 방어용 호구가 설치되었던 터가 있던 곳입니다. 다리를 건너 쳐들어온 적들은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90도 방향을 틀어야만 했고, 이 때문에 전진이 지연된 적들을 성의 수비병들은 세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석축 터의 남쪽에는 약 24m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의 가장자리를 따라 축조된 토담은 병풍접이(屏風折れ) 양식으로, 급격하게 꺾인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꺾인 담장 구조로 성의 수비군은 광범위하게 집중 포화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022-017

<日本語仮訳>

京橋門の堅固な設計

ここはかつて城の正門である京橋門があった場所で、堀を渡る公式の木造の橋が架かっていました。今日残っている石垣は直接の通過を遮断するように設計された枡形式の防衛虎口跡です。橋を渡った攻撃者たちは通過するために右に90度転向する必要があり、これが前進を遅延させ、城番側に三方からの攻撃を許してしまうのです。石垣跡の南側には、幅約24メートルの堀がありました。縁に沿って土堀が築かれており、屏風折れ（英語で「屏風」）様式で急角度で曲がっていました。この急角度の堀により、城番側は広範囲にわたって集中砲火を浴びせ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

【タイトル】 津山城跡 堀 4/田町門周辺の景観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다마치문 주변**

다마치문에 가까운 성의 서쪽에 있는 해자는 거의 직선 형태로, 방향을 틀어 문을 우회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문밖에는 다마치 지구가 있고 무사 저택과 상인들의 구역이 정연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근처의 이다가와 강은 1600년대 초반 다마치 지구의 외곽을 우회하도록 강물의 유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인공적인 곡류 공사로 강은 성의 ‘외해자’의 일부가 되었고, 마을과 성의 서쪽을 방어했습니다. 남쪽에서 문에 도착한 에도 시대(1603~1867) 방문객들에게 해자의 토담위에 병풍처럼 흰 토담과 망루가 이어지고, 그 너머 멀리 성의 천수각이 우뚝 서 있는 풍경은 매우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日本語仮訳>**田町門周辺**

田町門に近い城の西側にある堀は、ほぼ直線状で、転進して門を迂回するだけの造りになっています。門の外には田町地区があり、武家屋敷や商家の区画が整然と造られていました。近くの蘭田川は 1600 年代初頭に、田町地区の外側を曲がるように流路が変更されました。この人工的な曲流工事によって川は城の「外堀」の一部となり、町と城の西側を防衛しました。南から門へと到着した江戸時代（1603～1867 年）の来訪者たちは、堀の土居の上に屏風折れ土塀と櫓が建ち並び、そして遠くには城の天守閣がそびえ立つという印象的な光景を目にしていたことでしょう。

【タイトル】 津山城跡 堀 5/北門周辺の景観/宮川にかかる大橋の景観/翁橋たもとの大番所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미야가와문 주변

미야가와문은 성내를 통과하는 여섯 개의 문들 중 하나입니다. 동쪽의 미야가와 강을 끼고 위치해 있으며, 인접한 문과 함께 방어 시설인 마스가타 양식의 호구를 형성합니다. 이는 침입자들을 가두고 발을 묶는 목적으로 설계된 상자형 공간입니다.

성의 동쪽을 흐르는 미야가와 강은 천연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강은 큰 미야가와하시 다리로 건널 수 있었지만, 다리의 서쪽 끝에는 초소였던 번소(番所)가 설치되어 성하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감시자가 배치되었습니다.

당시의 석축 일부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쓰야마번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번주 일가는 가끔 이 문의 석축 위에 모였고, 마을의 가을 축제 때 열리는 행사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日本語仮訳>

宮川門周辺

宮川門は城内に通じる6つの門の1つでした。南東側の宮川沿いに位置し、隣接する門と共に防衛設備となる枡形の虎口を形成していました；侵入者を閉じ込めて足止めする目的で設計された箱型空間です。

城の東側を流れる宮川は、天然の防衛線となっていました。川は大きな宮川橋で渡ることができましたが、橋の西端には番所が設けられ、城下町の秩序を維持する目的で見張りが配置されていました。

当時の石垣の一部は今でも残っています。津山藩が残した記録によれば、藩主一家は時にはこの門の石垣の上に集まり、町の秋祭りで行われる祭事を眺めていたのだそうです。

【タイトル】 中山神社/中山神社 概要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나카야마 신사의 참배길**

미마사카국에서 오랜 기간 가장 유서 깊은 신사로 여겨져 온 나카야마 신사(中山神社)는 쓰야마 시가지 바로 북쪽에 위치합니다. 이 신사의 주 제신은 거울 제작과 금속 가공을 관장하며, 장인과 그들의 일을 수호하는 신으로 모셔집니다.

참배자는 수령 800 년의 느티나무 옆을 지나 신사로 이어지는 참배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기둥을 관통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이음목(들보) 구조를 가진 도리이가 표식으로 서 있습니다. 참배길 오른쪽에는 거대한 청동 소 동상이 서 있는데, 이는 농업과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축인 소와 말의 수호신으로 신사의 역사적 역할을 보여 줍니다. 이 지역은 소와 말 거래의 중심지로 유명하며, 문 밖에는 장이 서기도 합니다. 길을 따라 더 나아가, 전통적인 데미즈야(手水舎, 손 씻는 곳)를 지나면, 전설 속 사자 모습의 한 쌍의 수호 동물상인 고마이누(狛犬, 해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1874 년 쓰야마성에서 이곳으로 이축된 신문(神門)은 튼튼한 지지 구조와 히와다부키(檜皮葺, 편백나무 껍질 지붕) 양식의 완만한 경사 지붕을 가진 건축물로, 신사 경내에는 격식 있고 엄숙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日本語仮訳>**中山神社参道**

美作国で最も由緒ある神社と長く考えられてきた中山神社は、津山市街地のすぐ北に在ります。主祭神は鏡作りと金属加工の神様で、職人とその仕事の守り神として奉られています。

参拝者は樹齢 800 年のケヤキの脇を抜けて神社へと続く参道に入ります ; 支柱を貫通していない珍しいつなぎ梁の鳥居が目印です。参道右側には巨大な青銅製の牛の像が立っており、農業や運搬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家畜である牛馬の守護神として神社の歴史的役割を映し出しています。この地域は牛馬取引の中心地として知られ、門の外では市が開かれていました。さらに進んで、伝統的な手水舎の先に、一対の像があります ; 狛犬と呼ばれる伝説上の獅子の姿をした守護動物です。

1874 年に津山城からここに移築された神門は、頑丈な支持構造と檜皮葺の緩やかな傾斜の屋根がある建造物で、神社境内には格式を感じる厳粛な雰囲気漂っています。

【タイトル】 中山神社/神門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나카야마 신사 개요**

수 세기에 걸쳐 나카야마 신사는 미마사카국의 정신적·문화적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기원은 70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9 세기에는 조정으로부터 높은 사격(신사의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혼덴(本殿) 은 화재로 소실된 후 1559 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이 신사는 나카야마즈쿠리로 알려진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합니다. 나카야마 신사는 이 양식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의 사례로, 주로 쓰야마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정방형의 삼간 구조, 인상적인 편백 나무 껍질 지붕의 맞배 지붕, 그리고 삼각 지붕 정면에 곡선 지붕 장식을 올린 당파후(唐破風) 형 향배가 있습니다.

<日本語仮訳>**中山神社の概要**

何世紀にもわたり、中山神社は美作国の心と文化の象徴として扱われてきました。その起源は 707 年にまで遡ると言われています ; そして、9 世紀に朝廷から高い社格を授けられました。本殿は、火災で消失した後、1559 年に再築されました。

この神社は中山造として知られる独特の建築様式で有名です。神社はこの様式の中で、最古かつ最大規模の例であり、主に津山地域で見られます。その特徴には、正方形の三間造り、印象的な檜皮葺の入母屋造屋根、そして妻入の唐破風造の向拝が挙げられます。

【タイトル】 中山神社/拝殿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나카야마 신사의 세 신전**

나카야마 신사의 주요 구조는 세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참배를 위한 배전(拜殿, 하이텐)으로 모든 참배객에게 개방되어 있고, 참배객은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고 공물을 바칩니다. 배전은 편백나무 껍질을 사용한 팔작지붕 양식과 지붕이 우아하게 커브를 올리며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전의 천장에는 나무를 정사각형으로 조립해 격자 모양으로 완성한 매립식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폐전(幣殿, 헤이텐)은 배전과 신을 모시는 건물인 혼텐을 잇는 건물로, 스님이 기도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배전과 폐전 모두 1922년 혼텐을 복원하는 공사를 하면서 세워져 2021년에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혼텐(本殿)에는 세 기둥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1599년에 건축되던 당시에는 선명한 채색과 금박으로 만든 신상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세월의 미를 중시하는 다도(茶道)와 관련한 미의식의 영향으로 일본인들의 기호가 바뀌면서 건물은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새긴 채 남겨졌습니다. 오늘날 혼텐에서는 과거 화려했던 흔적을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혼텐은 1914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中山神社の三つの社殿**

中山神社の主要な構造は、三つの建物で構成されています。最初の建物は拝殿（英語で「参拝堂」）です。すべての参拝者に開放されており、参拝者はここで祈りを捧げ、お供え物を捧げます。拝殿は、檜皮葺で覆われた入母屋造屋根、そして正面の優美な唐破風造の向拝が特徴です。拝殿の天井には木を正方形に組んで格子状に仕上げた埋め込み式の仕切りが施されています。

幣殿（英語で「奉納殿」）は拝殿と本殿をつなぐ建物で、神職が祈祷を行う場所です。拝殿と幣殿はどちらも 1922 年に本殿の修復工事を行った際に建てられ、2021 年に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ました。

本殿（英語で「本殿」）には、三柱の神様が祀られています。1559 年に建てられ、当初は鮮やかな彩色と金箔が施された神像で飾られていました。その後、経年変化の美を重んじる茶道と関連する美意識が影響して日本の嗜好が変わり、建物は年季の風合いを残したままになりました。現在の本殿はかつての輝きの痕跡をわずかにのみ見ることができます。本殿は 1914 年に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ました。

【タイトル】 中山神社/幣殿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나카야마 신사의 원숭이 신사**

신사 경내의 신성한 숲 깊은 곳에 혼덴 뒤로 난 험하고 좁은 산길을 오르면 원숭이 신사(猿神社)가 있습니다. 암벽 위에 세워진 이 작은 초가 건물에는 12 세기 불교 설화집에 나오는 원숭이 혼이 모셔져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원숭이 신사의 신은 예로부터 소와 말의 순산을 관장하는 수호신으로 신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참배객들은 천과 점토로 만든 작은 원숭이상을 이 수호신에 대한 상징적 공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中山神社の猿神社**

神社の境内にある神聖な森の奥深く、本殿の裏手にある陰しく狭い山道を登ると、猿神社（英語で「猿の神社」）があります。この小さな茅葺屋根の建物は岩肌に建てられており、12 世紀の仏教説話集に出てくる猿の霊が祀られていると信じられています。

猿神社の神は、牛馬の安産を司る守護神として古くから信仰されています。今日でも、参拝者は布や粘土で作られた小さな猿の像を、この守り神への象徴的なお供え物として捧げています。

【タイトル】 中山神社/本殿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나카야마 신사의 건축적 영향**

미마사카국에는 나카야마즈쿠리 건축 양식을 가진 장소가 10 곳 이상있으며, 그 중 5 곳이 쓰야마에 있습니다. 나카야마 신사의 혼덴은 1559 년에 건축된 가장 오래된 건물로, 그 외에도 4 곳은 그 이후 시대에 건축되었습니다. 이들 건물은 모두 정사각형 구조, 팔작지붕, 지붕이 둥글게 커브를 그리는 참배실이 있는 등 그 밖에도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서 깊은 신사 중 하나인 시마네현의 이즈모오오야시로 (出雲大社)의 맞배지붕 양식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과거 쓰야마번을 통치하던 모리 가문의 종교 통일 정책에 쓰야마 지역 전역으로 퍼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日本語仮訳>**中山神社の建築的な影響**

美作国には特徴的な中山造の建築様式が 10 例以上あり、その内 5 つは津山にあります。中山神社の本殿は 1559 年に建てられた最古のもので、ほかの 4 例はその後の時代に建てられました。どれも正方形の間取り、入母屋造屋根、唐破風造の向拝を有し、その他にも同様の特徴があります。

この様式がいつ、どこで生み出されたかは定かではありません ; しかし、日本最古かつ最も由緒ある神社の 1 社である、島根県の出雲大社の切妻屋根の影響を受けていると思われます。この様式は、かつて津山藩の統治者であった森家の統一的宗教政策の下で、津山地域全体に浸透し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高野神社/高野神社 概要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다카노 신사**

쓰야마 서부 요시이가와 강 기슭에 자리한 다카노 신사(高野神社)는 미마사카국에서 두 번째로 등급이 높은 유서 깊은 신사입니다. 신사에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534년에 건립되었으며, 9세기에는 특별한 사격(社格)을 받았습니다.

14세기 이후 무사 계급이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많은 주요 무장들이 이 신사 건립에 기부하고, 신사의 제례를 지원하면서 사격을 더 높였습니다. 현존하는 혼텐은 1663년에 세워진 나카야마즈쿠리 양식으로 팔작지붕 구조와 우아하고 아름답게 둥근 커브를 한 지붕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붕판은 편백나무 껍질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붕은 나카야마 신사의 지붕보다도 급경사를 이루며 높이가 있는데, 이는 아마도 오래된 신사의 우아함을 능가하려 했던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지역 양식의 특징이기도 한 히다와부키 지붕은 1929년 동판 지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신사는 과거에는 드넓고 신성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현재는 몇 그루의 느티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高野神社**

津山西部の吉井川畔にあるのは由緒ある高野神社で、美作国で二番目に位の高い神社とされています。社伝によると、534年頃に建てられ、9世紀に特別な社格を授かりました。

14世紀以降武士階級が影響力を持つようになるにつれて、多くの中心的武将たちがこの神社の建設に寄進し、神社の祭祀を支援し、社格をさらに高めました。現存する本殿は1663年に建てられた中山造様式で、入母屋造の屋根と優美な唐破風造の向拝があります。屋根板は檜皮葺でできています。屋根は中山神社のものよりも急勾配で高さがあり、もしかすると古社の優雅さを凌駕しようとしたことが窺えます。この地域の様式の特徴である元の檜皮葺の屋根は、1929年に銅板葺に取り替えられました。神社はかつて広大な神聖な森に囲まれていましたが、現在は数本のケヤキの木が残るばかりです。

【タイトル】 高野神社/木造隨身立像（国指定重要文化財）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다카노 신사의 보물: 목조 신호액

다카노신사와 이어진, 나무가 무성한 언덕 돌계단 아래 산기슭에는 1911년에 이전의 문을 새로 지은 즈이진문(隨身門)이 서 있습니다. 과거 이 문에 걸려 있던 멋진 목조 신호액은 신사의 보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호액은 세로 약 76cm, 가로 약 60cm 크기의 좌우 대칭으로 소용돌이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두께가 겨우 3mm로 얇은 동판이 끼워져 있습니다. 동판에는 신사의 주 제신인 다카노 대명신의 이름과 그 최고 신위를 뜻하는 정일(正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부여받는 최고의 위계이자 그 영적 권위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액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高野神社の宝物：木造神号額

高野神社へと続く、木が生い茂る丘の石段の麓には、1191年に旧門に代わって建てられた隨身門が立っています。かつてこの門に掲げられていた見事な木造神号額は、神社の宝物の1つとなっています。神号額は縦約76センチ、横約60センチで、両側に左右対称の渦巻き模様が彫られています。その中央には厚さわずか3ミリの薄い銅板がはめこまれています。銅板には神社の主祭神である高野大明神の名と、その位階を表す上級第一位という意味の正一という文字が刻まれています。これは神が授かる最高位の位階で、そしてその霊的権威の証です。この神号額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高野神社/木造神号額（国指定重要文化財）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다카노 신사의 보물: 즈이진문의 목조 수호 신상

다카노 신사의 보물 중에는 예전 즈이진문 양옆에 서 있던 한 쌍의 수호신 목조 입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사와 사찰의 수호신상과 마찬가지로 한쪽의 신상은 ‘아’ 소리를 내듯 입을 벌려 시작을 상징하고, 다른 한쪽은 ‘음’ 소리를 내듯 입을 다물어 끝을 상징합니다. 이는 산스크리트어 음절 문자의 첫음과 마지막 음을 표현한 것으로,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가 만물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것과 매우 흡사한 불교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들 수호신도 궁정용의 관모와 의복, 신발을 몸에 두르고 과거에는 활과 화살을 들고 수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162년에 편백나무로 조각되었으며, 본래 선명한 채색이 입혀져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색이 바래졌습니다. 비문에 따르면 불상 조각가가 지역 신도들에게 지원받아 제작했다고 합니다.

<日本語仮訳>

高野神社の宝物：隨身門の木造守護神像

高野神社の宝物には、かつて隨身門の両脇に立っていた一対の守護神の木造立像が含まれます。多くの神社や寺の守護神像と同様に、一方の像は「ア」の音を表すかのように口を開けて始まりを象徴し、もう一方は「ウン」の音を表すかのように口を閉じて終わりを象徴しています。これらはサンスクリット音節文字の最初と最後の音を表し、聖書の「アルファ」と「オメガ」が万物の始まりと終わりを示すのとよく似た仏教概念を表現しています。

どちらの守護神も宮廷の帽子、衣、靴を身につけており、かつては弓矢を構え守護の姿勢をとっ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1162年にヒノキ材で彫刻され、鮮やかな彩色が施されていましたが、その大部分は剥落してしまっています。碑文によれば、仏師が地元の勧進者たちの支援を得て制作したと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高野神社/木造獅子 2 対（国指定重要文化財）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다카노 신사의 보물: 목조 수호 사자상

다카노 신사의 보물 중에는 전통적인 수호 사자 두 쌍의 목조 사자상이 있습니다. 편백나무로 조각된 이 조각상들은 신사와 사찰 경내를 수호하는 고마이누(狛犬)로 알려진 전설 속 수호수와 달리 머리에 뿔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사자인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다른 수호상과 마찬가지로 각각 마주한 사자상의 한쪽은 입을 벌리고 다른 한쪽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음절 문자의 첫음과 마지막 음인 ‘아’와 ‘음’을 나타내며, 시작과 끝을 상징합니다. 높이 약 70cm 크기의 큰 사자상 한 쌍은 9 세기에, 30cm 크기의 작은 사자상 한 쌍은 12 세기에 제작된 것입니다.

<日本語仮訳>

高野神社の宝物：木造守護獅子像

高野神社の宝物の中には、伝統的な守護獅子である 2 対の木造獅子があります。ヒノキ材で彫られたこの像は、神社や寺の境内を守る狛犬として知られる伝説の獅子のような守護獣が持つ 1 本の角がないことから、明確に獅子であると判別できます。

他の守護像と同様に、それぞれ、対の獅子像の片方は口を開けて、もう片方は口を閉じています。これはサンスクリット音節文字の最初と最後の音である「ア」と「ウン」を表し、始まりと終わりを象徴しています。高さ約 70 センチの大きな方の 1 対は 9 世紀、30 センチの小さな方の 1 対は 12 世紀のもので

【タイトル】 作樂神社/作樂神社 概略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인노쇼칸 유적지**

쓰야마시 서쪽 끝 요시이가와 강을 따라 넓게 펼쳐진 평야에 인노쇼칸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미마사카국의 치안을 담당하던 수호직이라 불리던 군사행정관의 관저로 14 세기경 세워졌습니다. 당시 이 같은 관저는 수호직의 주거지 및 쇼군의 명령을 수행하며 지방의 행정 사무를 감독하는 행정 중심지 역할 모두를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빈 터가 된 한 구역만이 관저 유적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의 비석에는 14 세기에 유배된 천황을 위해 지은 것으로 전승되는 10 자의 전설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전승으로 (이곳과 인접한 유서 깊은 사쿠라 신사(作樂神社)와 함께) 약 700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이 칭송받는 이유입니다.

<日本語仮訳>**院庄館跡**

津山市西端、吉井川沿いの広い平野に、院庄館跡があります。ここは美作国の守護職の居館で、14 世紀頃に建てられました。当時、この種の居館は、守護職が將軍の命を履行し地方の行政事情を監督する、住居と行政の中心地両方の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

今日、更地となった一画のみが居館跡として保存されています。しかし東門の石碑には、14 世紀に配流された天皇に向けたとされている 10 字の伝説上のメッセージが刻まれています。この伝承が、その後約 700 年を経た今でも、この地（と隣接する見事な作樂神社）が称えられている所以です。

【タイトル】 作楽神社/院庄館跡（児島高德伝説地）（国指定史跡名勝天然記念物）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고다이코 천황과 충신에 관한 전승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승이 전해 내려옵니다. 1331년 고다이코 천황은 가마쿠라 막부를 쓰러뜨리려던 계획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황은 폐위되어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던 중 천황을 호송하던 자들은 인노쇼에 있는 수호직 관저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천황의 충신 중 한 명이었던 고지마 다카노리는 천황을 구출하고자 결의합니다. 그는 관저에 잠입하였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하여 구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고지마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관저터의 벚나무 꺾질에 변치 않는 충성심을 읊은 10글자의 한시를 새긴 것입니다. 이것은 천황에게 자신은 천황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희망의 암호문이었습니다.

이 충의의 이야기는 서사적 역사 기록물 ‘태평기(太平記)’에 기록되어 이후 수 세기 동안 칭송받았습니다. 1869년, 지역 관리인들은 이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 사쿠라 신사를 건축할 것을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고다이코 천황은 마침내 유배지에서 벗어나, 1333년에 일시적으로 권력을 탈환했다고 전해집니다. ‘태평기’에 고지마의 이름은 언급되었지만, 천황과 고지마가 재회했는지(혹은 이 극적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여전히 추정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後醍醐天皇と忠臣の伝承

伝承ではこのように伝えられています：1331年に後醍醐天皇は鎌倉幕府の倒幕計画に失敗しました。同天皇は廃位を余儀なくされ、島流しを命じられました。その途中、彼の護送者らは院庄にある守護職の居館で夜を明かすことにしました。

天皇の忠臣の1人である児島高德は、天皇を奪還しようと決意しました。彼は居館に潜入しましたが、警備が厳重すぎるために救出は不可能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途方に暮れた彼は、ある象徴的な行動に出ました。敷地の桜の樹皮に、変わらない誠忠を詠んだ漢詩を10字で刻んだのです。それは、見捨ててはいないということを天皇に知らせる、希望の暗号文でした。

この忠義の物語は、叙事詩的な歴史物語『太平記』に記され、その後何世紀にもわたって称賛されました。1869年、地元の役人たちはこの伝承を称えて、作楽神社を建てるよう政府に請願しました。

歴史によれば、後醍醐天皇はついに島流しの地から脱し、1333年に権力を一時的に奪還したとされています。児島は『太平記』で言及されていますが、その2人が再会したかどうか（あるいはこの劇的な出来事が実際にあったかどうか）は今もなお推測の域にとどまっています。

022-031

津山まちじゅう博物館コンソーシアム

【タイトル】 作楽神社/太刀「銘国行」 (国指定重要文化財)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사쿠라 신사의 보검

사쿠라 신사의 보물 중에는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도검이 있습니다. 다치(太刀)라 불리는 이 도검은 널리 알려져 있는 가타나(刀)의 전신과도 같습니다. 강한 곡선을 그리며 휘어진 형태로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허리에 차는 검입니다. 전체 길이 약 70cm로 가늘지만, 강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도검은 당시의 우아하면서도 위엄 있는 양식을 보여줍니다.

칼날에는 13세기 도공의 이름, ‘구니유키(国行)’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명장들은 독자적인 기술을 계승하고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닌 평화와 수호의 상징으로 도검을 단조했습니다. 그들의 도검은 그때나 지금이나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 도검은 1710년, 제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가 쓰야마 번주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사쿠라 신사가 1869년에 창건될 당시, 이 신사에 봉납되었습니다. 도검은 지금도 신사의 소유이지만, 현재는 오카야마 현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022-031

<日本語仮訳>

作楽神社の宝剣

作楽神社の宝物の中には日本の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た刀剣があります。太刀と呼ばれる刀剣で、より広く知られている刀の前身となるものです。きつく弧を描くような曲線を持ち、刃を下に向けて佩（は）きます。全長約 70センチ、細身でありながら力強い湾曲のあるこの刀剣は、当時の優雅でありながら威厳ある様式を映しだしています。

刀身には 13 世紀の刀工の名、「国行」が刻まれています。彼のような名匠たちは独自の技術を継承し、戦のためだけでなく、お守りや平和の象徴としても、刀剣を鍛造しました。彼らの刀剣は、当時も今も、傑出した芸術作品として称賛されています。

この刀剣は 1710 年に、第 6 代将軍・徳川家宣より津山藩主に贈られました。作楽神社が 1869 年に建てられた際、同神社に奉納されました。刀剣は今も神社の所有物ですが、現在は岡山県立博物館に預け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本源寺/本源寺 概要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호젠지 절**

호젠지(本源寺) 절은 쓰야마시 중심가의 서쪽 지역에 위치합니다. 17세기 초반부터 94년간 쓰야마번을 통치했던 모리 가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보리사입니다. 호젠지 절은 일본 선종 3대 종파 중 하나인 임제종에 속합니다. 수 세기에 걸쳐 임제종 사찰은 종교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예술, 건축 및 문화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호젠지 절을 방문하는 참배객들은 외문과 내문을 지나게 되는데, 이는 쓰야마에서는 보기 드문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두 문 사이의 길이 석축과 토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찰 전체가 마치 요새와 같은 분위기를 띠었습니다. 내문은 17세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네 개의 기둥 구조의 맞배지붕 양식이 특징이며, 근처에는 과거 큰 종을 보관했던 종루가 서 있습니다.

혼텐은 1607년 쓰야마번의 초대 번주이자 쓰야마성 축성자인 모리 다다마사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1683년에 번주의 법령을 따서 ‘호젠지’로 명명되었습니다.

연면적 400평방미터 이상의 혼텐은 선종 주지승의 주거처를 본뜬 구조로 참배하기 위한 공간과 일상 공간, 다다미가 깔린 공간과 목조 툇마루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리에는 주불상과 다다마사 공의 목조상이 각각 안치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못 장식 등, 모리 가문의 보리사였던 시절의 흔적을 목조 기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07년에 세워진 마룻대에 쓰여진 먹글씨는 ‘쓰야마’라는 지명이 기록된 현존하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혼텐의 동쪽에는 18세기에 재건된 승방이, 서쪽에는 모리 가문을 기리는 영묘가 세워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채색으로 장식되었던 영묘 정면의 문은 경내에 있는 다른 건조물과 마찬가지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묘 뒤 북쪽에 다다마사와 그 일족을 위해 세어진 7기의 석조 탑묘가 서 있습니다. 석묘는 영묘를 마주 보며, 동쪽 쓰야마성의 천수각과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本源寺**

本源寺は津山市街地の西部に在ります。17世紀初頭から94年間にわたって津山藩を統治した森氏の菩提寺です。本源寺は日本の禅宗三大宗派の1つである臨済宗に属しています。何世紀にもわたり、臨済宗のお寺は宗教的な場所というだけでなく、芸術や建築、文化生活の中心地となってもいました。

本源寺を訪れる参拝者は外門と内門をぐります；津山では珍しい設計です。かつては両門の間の道が石垣と土堀で挟まれており、寺はまるで砦のような雰囲気を持っていました。内門は17世紀によく見られた四本柱の切妻屋根様式が特徴で、かつて大鐘を納めていた鐘楼が近くに立っています。

本堂は1607年に、津山藩初代藩主であり津山城築城者でもある森忠政によって建てられました。1683年に、藩主の法名に因んで「本源寺」と命名されました。

延べ面積400平方メートル以上の本堂は、禅宗の住職の住居をモデルにしています。参拝のための空間と通常の部屋、畳の広間や木造の縁側などが組み合わされています。栄誉ある場所に主仏像と忠政公の木像がそれぞれ安置されています。家紋をあしらった釘隠など、森家の菩提寺だった頃の名残を木造の梁にみることができます。1607年に上棟された棟木の墨文字は、「津山」の名を示す現存する最古の記録です。

本堂の東側には18世紀に再築された僧房があり、一方で西側には森家の霊屋が建っています。霊屋の正面の門は、精巧な彫刻がされかつては鮮やかな彩色が施されていたもので、境内にある他の建造物と同様に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霊屋背後には、北側に忠政とその一族のために建てられた七基の石造の塔墓が立っています。塔墓は霊屋に向いて、東に津山城の天守閣と直線に並んでいます。

地域番号	023	協議会名	周南市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23-001	回天記念館/回天記念館の概要	2173	Web
023-002	回天記念館/視聴覚コーナー（小灘利春さん） 3：50～4：46	527	Web
023-003	回天記念館/視聴覚コーナー（小林秀雄さん） 4：56～9：52	1391	Web
023-004	回天記念館/視聴覚コーナー（石橋輝好さん） 10：16～15：05	1073	Web
023-005	回天記念館/視聴覚コーナー（河崎春美さん） 15：16～20：34	1332	Web
023-006	回天記念館/視聴覚コーナー（小灘利春さん） 20：44～22：57	626	Web
023-007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1：激動の時代のなかで 回天開発者（黒木大尉、仁科中尉）	516	Web
023-008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2：祖国を救うために 回天誕生の経緯	605	Web
023-009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2：祖国を救うために 黒木大尉の殉職、回天作戦での死者	781	Web
023-010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2：祖国を救うために 回天搭乗員の構成や選抜方法	665	Web
023-011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3：基地での生活 回天の構造や操縦方法	795	Web
023-012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3：基地での生活訓練内容	772	Web
023-013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3：基地での生活 かつての訓練基地施設と現状	775	Web
023-014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4：出撃 出撃 壮行式と短刀	339	Web
023-015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4：出撃 出撃 遺書	800	Web
023-016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4：出撃 出撃 遺書	706	Web
023-017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4：出撃 出撃 碇泊艦攻撃と航行艦攻撃	578	Web
023-018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4：出撃 出撃 基地回天隊	388	Web

023-019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４：出撃 出撃 各隊の構成や出撃回数	817	Web
023-020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４：出撃 お重さん	689	Web
023-021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５：戦後社会と回天 セクション６：新たな時代に向かって セクション７：平和を願う回天のころ戦後社会と回天	835	Web
023-022	回天記念館敷地内/魚雷のエンジン	751	アプリ QR コード/Web
023-023	回天記念館敷地内/回天一型レプリカ	930	アプリ QR コード/Web
023-024	回天記念館敷地内/回天碑	743	アプリ QR コード/Web
023-025	回天記念館敷地内/平和祈念の鐘	403	アプリ QR コード/Web
023-026	大津島内/回天訓練基地	708	アプリ QR コード/Web
023-027	大津島内/回天運搬用トンネル	575	アプリ QR コード/Web
023-028	大津島内/回天整備工場	656	アプリ QR コード/Web
023-029	大津島内/魚雷見張所	422	アプリ QR コード/Web

【タイトル】 回天記念館/回天記念館の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가이텐 기념관****기념관의 개요**

가이텐은 일본 해군이 제 2 차세계대전이 종식되기 채 1 년도 남지 않은 1944 년 11 월에 배치한 유인 조종 어뢰입니다. 가이텐 기념관은 일본에 4 곳이 있었던 가이텐 기지 중 가장 먼저 세워진 오즈시마(大津島) 섬 기지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1968 년에 개관한 가이텐 기념관은 해군 및 가이텐 작전 관련 조직인 가이텐 겐쇼카이(回天顕彰会)가 기념관을 세운 후, 도쿠야마시(현 슈난시)에 기증하였습니다. 기념관에는 가이텐 탑승원들의 유서, 제복, 학교 성적표를 비롯한 유품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벽에 전시된 사진이 들어간 패널을 통해 가이텐 작전의 기원과 역사, 특히 오즈시마 섬 기지에 특히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텐의 레플리카, 모형, 일부 부품들은 어뢰의 개요와 동작 방법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컬렉션의 주요 물품들은 1937 년부터 1945 까지 오즈시마 섬의 군시설에서 근무했던 모리 가쓰로(毛利勝郎) 씨가 수집한 것들입니다. 종전 당시, 모리 씨가 오즈시마 섬에서 문서와 사진을 모아서 매장했던 이유는 1945 년부터 1952 년까지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국 군대의 손에 물품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후 수십 년에 걸쳐 그는 가이텐 탑승원들의 유족들을 방문하였고 유족들이 기증한 개인 소지품은 모리씨의 컬렉션에 하나하나 쌓여갔습니다. 자기자신을 희생했던 가이텐 탑승원들의 시신이 바다 속으로 사라져 더 이상 찾을 수 없기에 이 유품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기념관은 종전 50 주년을 맞아 개보수를 마치고 1998 년에 재개관하였습니다. 전시 내용이 훨씬 광범위해지고 기존 5 개 섹션에서 3 개의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섹션에는 극비였던 가이텐 작전이 전후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대규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계가 제 2 차세계대전 후에 노력한 것들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의 부지

기념관은 이전에 오즈시마 섬 기지의 하사관 숙소 건물이 있었던 곳 근처에 있습니다. 돌 기둥이 돌로 만든 명판이 양쪽으로 나란히 서있는 길로 통합니다. 이 명판에는 전쟁 당시 희생된 일본 내 4 곳에 위치했던 가이텐 기지의 145 명의 탑승원, 정비사, 기타 기술요원들 전원의 이름과 출생지의 도도부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텐 비석

지금의 가이텐 비석은 1960 년 11 월 20 일에 세워졌습니다. 이날은 가이텐의 첫 공격일로부터 16 년이 지난 같은 날로 그 첫 공격은 캐롤라인 제도의 울리시 환초에 정박해 있던 미군 함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가이텐 비석은 1961 년 3 월 26 일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고 가이텐 기념관이 개관하기 7 년 전의 일입니다. 비석은 잘 연마된 화강암 석판 3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석판에는 일본어로 ‘回天(가이텐)’의 2 글자가 새겨져 있고, 이 필체는 가이텐을 발명한 2 명 중 1 명인 구로키

히로시(黒木博司) 대위의 유서를 모사한 것입니다. 구로키 대위는 오즈시마 섬 먼바다에서 있었던 가이텐의 실험기의 훈련 연습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 화강암 석판에는 입구로 이어지는 통로 양쪽에 있던 돌 명판에 적혀 있던 145 명의 탑승원과 보조 요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가이텐 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오즈시마 섬 기지뿐만 아니라 히라오(平生), 히카리(光), 오가(大神)의 가이텐 기지 3 곳에 있던 모든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의 맨 처음에 구로키 대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1944 년 9 월 6 일 오즈시마 섬 훈련이 시작된 지 겨우 이틀만에 사망하였고 가이텐에서 최초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왼쪽 화강암 석판에는 활동 중에 실종된 가이텐 탑재 잠수함 8 척의 출항지, 침몰 지점, 함장의 이름, 잠수함 별 전사자 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종

‘평화의 종’이라고 불리는 무게 850 킬로그램에 달하는 청동종은 교토의 절에 있는 한 고대의 종을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쿠야마 히가시 라이온즈 클럽(徳山東ライオンズクラブ)의 기부로 제작되었고 1974 년에 주조되었습니다. 종의 금속 일부는 전함 ‘무쓰(陸奥)’의 포탑이었던 약실의 탄금이 사용되었으며,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이었던 ‘무쓰’는 1943 년에 히로시마 만에서 침몰된 이후 전후가 되서 인양되었습니다. 종에는 전통적인 종교적 문양과 함께 가이텐의 탑승원이었던 구주미 히로시(久住宏) 씨가 쓴 유서에서 인용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기를 바라며”

평화의 종은 매년 종전일인 8 월 15 일에 도쿠야마 유네스코 협회가 거행하는 행사에서 타종합니다.

오시게상의 처진올벚나무(시다레자쿠라)

가이텐 비석으로 향하는 길 도중에 처진올벚나무가 서 있습니다. 도쿠야마의 고급음식점(료테이)에서 일하던 구라시게 아사코(倉重アサコ) 씨가 심은 나무로 그녀가 일하던 음식점에서 가이텐의 탑승원들의 출항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구라시게 씨는 대부분 18 살부터 23 살까지 젊은 탑승원들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탑승원들은 그녀의 성 ‘구라시게’를 줄여서 ‘오시게상(お重さん)’이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93 식 어뢰의 엔진과 가이텐의 모형

기념관 입구 오른쪽에는 회수된 93 식 어뢰의 엔진이 있습니다. 93 식 어뢰는 제 2 차세계대전 당시 가장 선진 기술로 제작된 어뢰로 가이텐과 그 내부의 압축산소집진시스템의 기초가 된 병기입니다. 오즈시마 섬 기지는 원래 93 식 어뢰를 시험하기 위해 1939 년에 건설되었고 종전 1 년 전인 1944 년 9 월에 가이텐 기지로 바뀌었습니다.

기념관의 별관 앞에는 실물과 같은 크기의 모형이 있습니다. 일본에 남아있는 유일한 가이텐 1 형의 실물은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유슈칸(遊就館)에 있습니다.

023-001

<日本語仮訳>

回天記念館

記念館の概要

回天は、大日本帝国海軍によって第二次世界大戦が終結する一年足らず前の 1944 年 11 月に配備された人が操縦する魚雷です。回天記念館は大津島基地の跡地にあり、この基地は日本に 4 つあった回天基地のうち最初のものでした。

1968 年に開館したこの記念館は、海軍および回天作戦に関連する組織である回天顕彰会によって建設され、その後徳山市（現在の周南市）に寄贈されました。記念館には、回天搭乗員の遺品として、遺書、制服、学校の成績表などが収められています。写真付きの壁面パネル展示では、回天作戦の起源と歴史を説明しており、特に大津島基地に重点を置いています。回天のレプリカ、模型、一部の部品は、回天がどのようなもので、どのように動作したかを鮮明に示しています。

コレクションの中心となる物品は、1937 年から 1945 年まで大津島の軍施設で働いていた毛利勝郎さんが収集したものです。終戦時、毛利さんが大津島から文書や写真を集めて埋めたのは、1945 年から 1952 年まで日本を占領した連合国軍の手にそれらが渡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でした。その後数十年にわたり、彼は回天搭乗員の遺族を訪ねて回り、遺族が寄贈した個人の所持品が彼のコレクションに加えられていきました。自らの命を犠牲にした回天搭乗員の亡骸は海に失われてしまっているため、遺品はなおさら重要となります。

記念館は終戦 50 周年を契機に改修され、1998 年に再オープンしました。展示内容がより広範になり、当初の 5 つのセクションに加えて 3 つのセクションが追加されました。新しいセクションでは、極秘だった回天作戦が戦後どう受け止められたか、そして、世界的な大規模紛争を回避するために第二次世界大戦後に世界で行われてきた取り組みを考察しています。

記念館の敷地

記念館は、かつて大津島基地の下士官宿舎が建っていた場所の近くにあります。石の門柱は、石の銘板が両側に並ぶ歩道に通じています。これらの銘板に刻まれているのは、回天の 145 人の搭乗員、整備士、その他技術要員の名前と出生都道府県であり、これらは日本に 4 か所あった回天基地すべてからのもので、彼らは戦争中にその命を犠牲にしました。

回天碑

現在の回天碑は 1960 年 11 月 20 日に建てられたもので、回天最初の攻撃から 16 年後の日付となっており、その攻撃はカロリン諸島のウルシー環礁に碇泊していたアメリカ軍艦に対するものでした。回天碑が正式に公開されたのは 1961 年 3 月 26 日で、1968 年に回天記念館が開館する 7 年前です。碑は 3 枚の磨かれた御影石の石板で構成されています。中央の直立した石板には、日本語で回天という二文字が刻まれており、これは回天を発明した 2 人のうちの 1 人である黒木博司大尉の遺書から写されたものです。黒木大尉は、大津島沖での回天試作機の訓練演習中に亡くなりました。

（正面からみて）右側の御影石の石板には、入り口通路の両脇にある石の銘板に記されているのと同じ 145 人の搭乗員と補助員の名前が刻まれています。これらの名前は回天作戦で命を落としたすべての人たちの名前で、大津島基地あるいはそれ以外の平生、光、大神の 3 つの回天基地のいずれかにいた人も

含まれています。リストの先頭には黒木大尉の名前が刻まれており、彼は 1944 年 9 月 6 日、大津島での訓練のわずか 2 日目に亡くなり、回天で命を落とした最初の人となりました。

左側の御影石の石板には、活動中に失われた回天搭載潜水艦 8 隻と、出港場所、沈没した場所、艦長の名前、各潜水艦で亡くなった乗組員の人数が記載されています。

平和の鐘

850 キログラムあるこの青銅の鐘は、「平和の鐘」と呼ばれており、京都の寺にある古代の鐘をモデルにしています。徳山東ライオンズクラブの寄付により建立され、1974 年に鑄造されました。鐘の金属の一部には、戦艦「陸奥」の砲塔にあった薬莢の砲金が使われており、この陸奥という超ドレッドノート級戦艦は 1943 年に広島湾で爆沈し、戦後に引き揚げられました。鐘には、伝統的な宗教的文様に加えて、回天搭乗員の久住宏さんの遺書からの引用が刻まれています：「南洋の海の底で安らかに眠りたいと願う。」

鐘は徳山ユネスコ協会が運営する行事で鳴らされます（毎年終戦日の 8 月 15 日に開催）。

お重さんのしだれ桜

回天記念碑への通路沿いには、しだれ桜の木が立っています。徳山の料亭で働いていた倉重アサコさんをしのんで植えられたもので、この料亭では回天の乗組員の出港を見送る会が開かれていました。倉重さんは、ほとんどが 18 歳から 23 歳の若い搭乗員たちにとって母親のような存在でした。搭乗員たちは彼女のことを「お重さん」（彼女の苗字を縮めたもの）と親しみを込めて呼んでいました。

九三式魚雷のエンジンとレプリカの回天

記念館の入り口右側には、回収された九三式魚雷のエンジンがあります。九三式魚雷は第二次世界大戦において最も技術的に洗練された魚雷であり、回天とその圧縮酸素推進システムの基礎となった兵器でした。大津島基地は、もともとは九三式魚雷を試験するために 1939 年に建設され、終戦の 1 年前の 1944 年 9 月に回天の基地になりました。

記念館の別館の前には、実物大の回天のレプリカがあります。日本に唯一現存するオリジナルの回天一型は、東京の靖国神社の遊就館にありま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視聴覚コーナー（小灘利春さん）

3 : 50~4 : 46

【想定媒体】 Web

<韓国語>

동영상의 개요: 고나다 도시하루 씨 [1]

수십 년의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것

동영상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나다 도시하루(小灘利春) 씨입니다. 1923 년 생인 고나다 씨가 인간 어뢰인 가이텐의 탑승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해 오즈시마에 파견된 것은 1944 년 9 월이었습니다. 고나다 씨는 특공대 대장 겸 교관으로 임명되어 연합군의 상륙 공격으로부터 일본 본토의 수비 임무를 맡았던 부대인 하치조지마 섬의 제 2 기지 가이텐 부대를 인수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할 당시, 고나다 씨는 전국 가이텐회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예전의 가이텐 훈련 선창을 바라보면서, 고나다 씨는 가이텐을 물속에 내리기 위한 크레인이 사라지고 선창 끝에 있는 정비 공장 지붕의 반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섬도 바다도 가이텐 운송 터널도 전쟁 당시와 그다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매일 약 10 기의 가이텐이 훈련 선창에서 발진하고 탑승원들은 전속 정비사들과 함께 터널을 지나 선창까지 가이텐을 밀고 갔었다고 고나다 씨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이텐 안에 올라타서 출발할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것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즉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으니 그 당시의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라고 고나다 씨는 말합니다.

<日本語仮訳>

動画の概要：小灘利春さん [1]

何年も経つがほとんど変わっていない

動画で最初に語るのは小灘利春さんです。1923 年生まれの小灘さんが回天搭乗員の訓練のために大津島に派遣されたのは 1944 年 9 月のことでした。小灘さんは特攻隊の隊長兼教官に任命され、八丈島の第二基地回天隊を率いました；予期される連合軍の上陸攻撃から日本本土を守る任務を担った隊です。この動画が制作された当時、小灘さんは全国回天会の会長を務めていました。

かつての回天訓練棧橋を見つめながら、小灘さんは、回天を水中に降ろすためのクレーンがなくなり、棧橋の端にある整備工場も屋根が半分なくな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島も海も回天輸送トンネルも、戦時中と

ほとんど変わっていないと思いを馳せます。

毎日約 10 基の回天が訓練栈橋から発進し、搭乗員は専属の整備士と一緒にトンネルを通して栈橋まで回天を押していたと小灘さんは振り返ります。回天に乗り込んで出発するときには緊張感が常にありましたが、それは一歩間違えれば即死する可能性があったからです。

「今ここに立っていると、当時の緊張感がよみがえってきますが、それと同様に、自分は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感じと実感します」と小灘さんは語りま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視聴覚コーナー（小林秀雄さん）

4 : 56~9 : 52

【想定媒体】 Web

<韓国語>

동영상의 개요: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씨

가이텐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과 기지에서의 생활

동영상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은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씨입니다. 1944 년 9 월에 고바야시 씨는 인간 어뢰인 가이텐 탑승원으로 오즈시마 섬에 배속되었습니다. 이어서 히카리(光), 히라오(平生) 부대에 배속된 그는 일본 4 곳에 있는 가이텐 기지 중 3 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바야시 씨는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무기는 전시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은 그 과정 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바야시 씨에 따르면 그 개념은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되었지만, 물리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가이텐에 탑승한 날 마침내 우리들 모두는 각자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런 거였어. 내 인생은 이 병기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야.’ 그날 밤 저녁 시간에는 그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훈련은 이론과 실기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론 시간에는 교관이 가이텐의 구조와 그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바야시 씨는 실제 기기에 타면서 처음으로 가이텐에 대하여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은 정비 공장에 가서 가이텐을 직접 공부했습니다.

육상에서는 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생들은 수중에서 실제로 가이텐을 탔을 때 제어 방법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에 들어가면 훈련생들은 우선 실제 가이텐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장 먼저 단순한 코스를 돌고 난 다음 가이텐으로 조종하며 좁은 수로를 빠져 나옵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목표로 삼은 함정에 직접 부딪히는 훈련을 합니다. 숙련되기 위해서 훈련생들은 이런 훈련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실기 훈련은 어스름할 때, 즉 이른 아침 또는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훈련을 위해 탑승원들은 새벽 3 시 반에 기상했습니다. 저녁에는 경험이 많은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지에서의 생활은 오전 6 시에 기상하여 적당한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오후 4 시 정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끝난 후 과외활동에서는 주로 상대의 장대를 쓰러뜨리는 장대 놓히기 또는 럭비를 했습니다. 고바야시 씨 본인은 바둑을 자주 두곤 했습니다. 자유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기지를 이탈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고바야시 씨에 따르면 20 대 초반에 친구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시대만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단순한 뜻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알지도 못한 채. 고바야시 씨는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의 결의가 전후 일본을 재건을 위해 노력한 그의 활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023-003

<日本語仮訳>

動画の概要：小林秀雄さん

回天操縦士になるための訓練と、基地での生活

動画で 2 番目に語るのはいくみ秀雄さんです。1944 年 9 月に、小林さんは回天搭乗員として大津島に配属されました。続いて光、平生に配属された彼は、日本に 4 つあった回天基地のうち 3 つに勤務したことになります。

小林さんは噂を聞いていました。確かに、新しい武器は戦況を変えるものだけでも、それを使う者はその過程で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と。小林さんによると、この概念は知的なレベルでは理解しやすいものの、物理的なレベルでは理解しにくいといいます。「初めて回天に乗った日によやく、我々はそれぞれに初めて思いました；『なるほど。私の人生はこの兵器で終わりを迎えるのだ』と。」その夜の夕食では、誰も何も話しませんでした。

訓練は座学と実技の両方で構成されていました。座学では、教官が回天の構造とその仕組みを説明しました。しかし、小林さんは、実機に乗ることで初めて回天について本当に理解できると感じていました。そのため訓練生たちは整備工場に赴き、回天について直接学びました。

観測訓練では、潜望鏡を覗き、形から艦艇を識別し、艦艇の航行速度、進行方向、方位角などを把握します。

陸上では実習ができないため、訓練生たちは水中で実際の回天に乗ったときに、その制御方法を把握しなければならませんでした。実習では、訓練生はまず実機の操縦方法を学習します。最初に単純なコースを周回し、その後狭い水路を、回天を操縦して通り抜けます。次の段階は、目標の艦艇に体当たりする訓練です。熟練するために、訓練生たちはこうした訓練を何度も繰り返しました。

実技訓練は薄明時、つまり早朝か夕方に行われました。早朝の演習では、搭乗員は午前 3 時半に起床していたものです。夕方には、経験を積んだ先輩から学ぶことができるセミナーに参加しました。

ほとんどの場合、基地生活では午前 6 時に起床し、いづらか運動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その後、訓練プログラムが始まり、それが午後 4 時頃まで続きました。その後の課外活動は、主に棒倒しやラグビーでした。小林さん自身は囲碁をよくやりました。自由時間であろうとなかろうと、基地を離れることは許されませんでした。

小林さんによれば、20 代前半でこの世を去った友人たちは、その時代ならではの純粋な思いを胸にして亡くなったそうです。日本という国がどれだけ豊かになるかを知らずに。小林さんはそのことを考えずにはいられま

せん。その思いを無駄にしたいくないという彼の決意が、戦後日本を立ち直らせるための彼の活動につながったので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視聴覚コーナー（石橋輝好さん）

10 : 16~15 : 05

【想定媒体】 Web

<韓国語>

동영상의 개요 : 이시바시 데루요시 씨

가이텐 탑승원의 송별식

1926 년생 이시바시 데루요시((石橋輝好)) 씨는 1944 년에 인간 어뢰인 가이텐 탑승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격부대의 일원으로 도도로키(轟)와 다문(多聞) 부대의 임무에 참전하였습니다.

이시바시 씨는 가이텐이 출격할 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기지의 사령관은 각 탑승원에게 하치마키(鉢巻) 머리띠와 단도를 건넸습니다. 그후, 모두들 장교 기숙사로 돌아와 이별주를 마십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훈련생이 기지에 처음 도착할 당시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탑승원들을 배웅했다고 이시바시 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출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였거나 지도하던 사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기 힘들었다고 이시바시 씨는 전합니다.

그는 아침이 되면 탑승원들마다 자신의 가이텐에 탑승하여 기계를 점검하던 모습을 설명합니다. 탑승원과 정비사가 언제나 팀을 이뤄 기계를 점검했습니다. 이시바시 씨는 자신의 가이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의 정비사가 여러가지 문제들을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탑승원은 삼교대 근무로 대부분은 몇 시간마다 팀 전체가 교대하였습니다. 본인이 당직이 아닌 날은 쉬었습니다.

이시바시 씨는 2 번의 출격 경험이 있습니다. 첫 출격에서는 어뢰를 탑재한 잠수정에서 출항한 이후 약 20 일 후에 가이텐을 공격 태세로 준비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잠수함 사령관은 가이텐 탑승원들을 전함의 사령탑에 모이도록 하고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탑승원들은 서로의 건투를 빌며 해산했습니다. 공격 개시 명령이 내려지자 이시바시 씨의 담당 정비사가 가이텐의 최종 준비를 마치고 건투를 빌며 이시바시 씨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때 이시바시 씨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의 얼굴인가’라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격은 악천후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가이텐의 출격 여부는 잠수함 사령관에게 달려있었습니다. 이시바시 씨의 잠수정 사령관은 가이텐 탑승원들을 무모한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확신이 불가능하다면 제군들을 함정에서 출격시키지 않겠다’라고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이시바시 씨의 두 번째 출격을 위한 송별회를 8 월 7 일에 가졌습니다. 사령관은 히로시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폭탄이 투하되어 자신들도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령관은 가능한 한 빨리 적함을 격침시키도록 탑승원들을 재촉했습니다. 이시바시 씨에 따르면 탑승원들은 그들이 탄 잠수함이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8월 14일 이시바시 씨가 타고 있던 잠수함은 공중으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갑판 위의 모든 가이텐에 구멍이 뚫리고 몇몇 탑승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였고 잠수함도 해저로 침몰하였습니다.

첫 번째 블로우다운 탱크가 정지했을 때는 잠수함에 있던 모두가 이곳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블로우다운이 성공한 후 잠수함은 해수면으로 떠올랐고 8월 15일에 사세보 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야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시바시 씨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가 낚시할 때 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이유는 전사한 그의 동료들이 흘린 피가 머리 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타바시 씨는 그의 동료들이 치른 희생이 지금도 여전히 일본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023-004

<日本語仮訳>

動画の概要：石橋輝好さん

回天搭乗員の送別式

1926年生まれの石橋輝好さんは、1944年に回天搭乗員になりました。彼は、攻撃部隊の轟隊と多聞隊の任務に参加しました。

石橋さんは回天で出撃する体験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出撃の見送りでは、基地の司令官が各搭乗員に鉢巻と短刀を贈っていました。その後、皆、将校寮に戻って別れの酒を飲みます。そしていよいよ出発します。

訓練生が基地に着いた当初は、見ず知らずの搭乗員たちを見送っていたと石橋さんは語ります。しかし時間が経つにつれ、出撃する人たちは友人であったり、指導してくれた士官であったり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段階になると、涙をこらえるのが大変だったといいます。

石橋さんは、各搭乗員が朝、自分の回天に乗り込んで機械を点検していた様子を説明しています。搭乗員と専属の整備士は常にチームを組んで点検していました。石橋さんは自分の回天に自信を持っており、自分の整備士があらゆる問題に対処してくれていると知っていました。

搭乗員は三交代制で、だいたい数時間ごとにチーム全体が交代していました。自分が当直ではないときは休んでいました。

石橋さんは2度の出撃を経験しました。1度目の出撃では、魚雷を搭載した潜水艦で出港してから約20日後に自分の回天を攻撃に向け準備するよう命じられました。潜水艦の司令官は、回天搭乗員たちを艦の展望塔に集めて「いよいよだ」と言いました。搭乗員たちは互いの幸運を祈って解散しました。攻撃開

始の命令が下ると、石橋さんの担当整備士が回天の最終準備を整え、幸運を祈って石橋さんに敬礼しました。そのときに石橋さんが思ったのは、「これが最後に見る人間の顔だ」ということだけでした。しかし、その出撃は悪天候のために取りやめとなったのです。

回天を発進するかどうかは潜水艦の司令官次第でした。石橋さんの潜水艦の司令官は、回天の搭乗員たちを無駄死にさせないと決意していました。「任務を完遂できると確信できない限り、君たちを艦から出発させない」と彼は言いました。

石橋さんの2度目の出撃のための送別式は8月7日に行われました。司令官は、広島に信じられないほど強力な爆弾が投下され、自分たちもこれで終わりだと発表しました。それでも、司令官はできるだけ早く敵艦を沈めるよう搭乗員たちに促しました。石橋さんによると、搭乗員たちは自分たちの潜水艦にはもう帰る場所がないのだろうと感じていたといいます。

8月14日、石橋さんが乗った潜水艦は空からの攻撃を受けました。甲板上の回天にはすべて穴が開き、乗組員の数人が死傷し、潜水艦も海底に沈没しました。

最初のタンクブローが効かなかったとき、潜水艦に乗っていた誰もがそこで死ぬことを確信しました。しかし、2度目のブローが成功して潜水艦は海面に浮上して8月15日に佐世保の港に戻ることができ、そこで戦争が終わったことを知りました。

石橋さんは釣りが好きです。海で釣りをするときに彼が水に手を浸すのは、戦死した仲間の血に思いを馳せ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同胞たちがした行いによって、彼らは今もなお日本を守っているのだと石橋さんは言いま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視聴覚コーナー（河崎春美さん）

15 : 16~20 : 34

【想定媒体】 Web

<韓国語>

동영상의 개요: 가와사키 하루미(河崎春美) 씨

가이텐 탑승자에 지원 입대

동영상에서 4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와사키 하루미(河崎春美) 씨입니다. 1924 년생으로 1944 년 9 월에 인간 어뢰인 가이텐의 탑승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 월에 가와사키 씨는 시코쿠 스자키(須崎) 기지의 가이텐 부대 부속으로 배치되어 일본 본토를 방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동영상 제작 당시, 가와사키 씨는 전국 가이텐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씨에 따르면 일본 해군이 가이텐 작전 지원자를 모집할 때 흥미를 보인 젊은이들에게 그 병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병기가 개발되었다는 것, 약 3 개월간의 훈련을 마치면 출정하게 될 것, 살아서 돌아올 보장은 없다는 점만이 전달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겨우 5 분만에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열의가 매우 높았던 사람은 용지에 이중 동그라미, 관심이 적은 사람은 하나의 동그라미만 그리게 했고, 흥미가 없거나 비행기를 조종한 적이 없던 사람은 백지를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와사키 씨에 따르면, 젊은이들에게는 명백한 우선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선 보호할 대상은 자신의 가족, 다음은 연인 등 가까운 타인, 그다음은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열렬한 환송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지키는 것은 일본 전체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가이텐 작전에 참가하면 무언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이텐에서 몸을 던지면 혼자 힘으로도 함정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군대에 들어올 때 젊은이들은 ‘죽어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가족과 이별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죽음을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뢰를 조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비행기 조종훈련과 달랐습니다. 탑승원들은 실제 기기를 조종하는 방법부터 적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초의 전략은 정박 중인 함정을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가와사키 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적이 방어책을 세우기 시작하자 공격이 가능할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전술을 바꿔서 태평양상에서 이동하는 함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 년 4, 5 월경부터 일본 본토에 대한 최종 공격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본토에 작은 가이텐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기지 가이텐 부대로 불리던 부대는 해안에 참호를 파고 가이텐이 바다를 향해 쉽게 발사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기지를 향한 공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가이텐을 다음날까지 발진시킬 수 없던 적도 있었습니다.

미군은 가이텐을 두려워했다고 가와사키 씨는 말합니다. ‘기묘한 잠수함 같은 기체가 있다. 잠망경이 달린 것을 보았다면 거기서 도망가는 것이 현명했지요. 처음에 미군은 우리를 발견하면 대량의 폭뢰를 투하하면서 따라왔었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이텐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 가와사키 씨는 기뻐던 순간, 슬펐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을 나눠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옆에서 저녁을 먹었던 사람이 다음날 쉽게 죽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즈시마 섬 주위의 바다에 손을 담그면 죽은 동료들이 그를 부르며 만나러 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이텐 겐쇼카이(回天顕彰会)에서는 그들을 위해 위령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023-005

<日本語仮訳>

動画の概要：河崎春美さん

回天搭乗員に志願

動画で 4 番目に語るのは河崎春美さんです。1924 年に生まれ、1944 年 9 月に回天搭乗員となりました。同年 11 月に、河崎さんは四国の須崎にある基地回天隊に配属され、日本本土を防衛する任務に就きました。動画制作当時、河崎さんは全国回天会の事務局長を務めていました。

河崎さんによると、日本海軍が回天作戦の志願者を募集した際、興味を示した若者たちに対して、その兵器がどのような性質のものであるかは詳細な情報が提供されなかったといいます。若者たちには、新しい兵器が開発されたこと、約 3 か月の訓練を経て出征することになること、生きて帰れる保証はないということだけ伝えられました。

若者たちはわずか 5 分で決心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非常に熱意のある者は用紙に二重丸を、少ししか興味のない者は一重丸を書き、興味のない者や飛行機を操縦する方がよい者は白紙にするように言われました。

河崎さんによると、若者たちには明確な優先順位がありました。彼らがまず守りたいものは自身の家族であり、次に恋人などの身近なほかの人、その次が故郷です。故郷から熱烈に見送られたことを考えれば、それは驚くことではありません。故郷を守れば、日本全体を守ることになります。若者たちは、回天作戦に参加すれば何かを変えられると信じていました。回天で体当たりすれば単独で艦艇を沈め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考えは、彼らを誇りに満ちた気持ちにさせました。

軍隊に入るとき、若者たちは「死んで帰ってくる」と言って家族と別れたと河崎さんは説明します。死ぬのだという考えを、彼らはそこまで気にしていませんでした。重要なのは、生きている間に自分たちがするであろうことでした。

魚雷を操縦したことのある人はいませんでした。彼らがそれまでにしてきた飛行機の操縦訓練とは異なりまして。搭乗員たちは実機を操縦する方法から敵に激突する方法まで、すべてその場で即興で対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最初の戦略は、碇泊中の艦艇への攻撃だったと河崎氏は説明します。しかし敵が防御策を取り始めると、それができるほど接近することは不可能になりました。彼らは戦術を変更し、太平洋上を移動する艦艇を攻撃し始めました。

1945年4～5月頃から、日本本土に対する最終攻撃が現実味を帯びてきました。これを防ぐため、日本本土に小さな回天基地が建設されました。基地回天隊と呼ばれる部隊は、海岸沿いに壕を掘り、回天を海に向けて簡単に発進できるようにレールを設置しました。しかし時折、基地への攻撃があまりに激しかったために回天を翌日まで展開できないこともありました。

アメリカ軍は回天を恐れていたと河崎さんは言います。「奇妙な潜水艦のような機体がある。潜望鏡が付いているのを見たなら、そこから逃げ出すのが賢明でした。最初、アメリカ軍は我々を見つけると大量の爆雷を投下しながら追いかけてきましたが、戦争が終わる頃にはそれほど熱心ではなくなっていました。」

回天に関する体験を振り返り、河崎さんは嬉しかった面、悲しかった面、辛かった面を分け隔てて考えるのは難しいと感じています。ある日自分の隣で夕食を食べていた人が、次の日には簡単に死んでい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彼は知っていました。彼は、大津島の周りの海に手を浸すと、死んだ仲間が彼に呼びかけて会いに来てくれるような気がしています。そのため、回天顕彰会は慰霊祭を行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視聴覚コーナー（小灘利春さん）

20 : 44~22 : 57

【想定媒体】 Web

<韓国語>

동영상의 개요: 고나다 도시하루 씨 [2]

가이텐 탑승원들의 심리 상태

고나다 도시하루 씨(동영상의 첫 번째 화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재등장하여 자신과 동료들이 가이텐 탑승원으로 선택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고나다 씨는 전쟁 말기 젊은 가이텐 지원자들 모두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고나다 씨는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격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는 데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 그는 단순히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나다 씨에게 있어서 일본의 현 상황을 보았을 때, 가이텐은 일본인들을 지켜주고 국가를 존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고나다 씨는 자기가 죽음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결론에 내린 고나다 씨에게 더 이상 죽음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느껴지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몇 번의 식사를 할 수 있을지 세어가며 먹었습니다.

고나다 씨가 당시의 에피소드와 사람들의 얼굴을 회상하면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선명하고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후 그는 즐거운 일도 좋은 일도 경험했지만 가이텐 임무를 수행하던 그 짧은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이유는 그가 불타는 사명감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日本語仮訳>

動画の概要：小灘利春さん [2]

回天搭乗員の心理状態

小灘利春さん（動画の最初に話した人）が最後に再登場し、彼と同胞たちが、回天搭乗員に選ばれたことについてどう感じていたかを語ります。

小灘さんによると、戦争末期、若い回天志願者たちは皆この残酷で無慈悲な武器が必要だと信じていたといます。小灘さんは自分が選ばれたことを知ったとき、他の人たちと同じように感激しました。それと同時

に、長くは生きられないことを知ったことで、なぜ自分がこの世に生まれてきたのか、死が何を意味するのかを知りたくなりました。3 日ほどかけてそれらの疑問に納得のいく答えを見つけた後は、もう死について考えなくなりました。

小灘さんにとって、日本の状況を考えると、回天は日本の人々を守り、国を存続させることができる唯一の手段でした。小灘さんは、自分の死が多くの人々の命を救うと信じていたので死ぬのは平気だと感じました。その結論に達した小灘さんは、もはや死ぬことが心配ではなくなりました。食べ物が美味しく感じられてきました；感謝の気持ちを込めて、この世であと何回食事ができるかを数えながら食べていました。

小灘さんが当時のエピソードや人々の顔を思い出すとき、人生の他の時期にはない鮮烈さがあるといいます。戦後、彼は楽しいことも良いことも味わいましたが、回天の任務に就いた短い期間が人生の中で最も充実した期間だったのは、彼が使命感に燃えていたからです。彼にとって、それは忘れられない経験でした。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1：激動の時代のなかで

回天開発者（黒木大尉、仁科中尉）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1: 격동의 시기

가이텐 개발자: 구로키 히로시(黒木博司) 대위와 니시나 세키오(仁科関夫) 중위

인간 어뢰인 가이텐을 개발한 사람은 구로키 히로시(黒木博司, 1921~1944) 대위와 니시나 세키오(仁科関夫, 1923~1944) 중위입니다. 시가현 출신의 니시나 중위는 히로시마 만의 에타지마(江田島) 섬에 있는 해군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반면에 구로키 대위는 기후현 출신으로 교토부 마이즈루시(舞鶴市)에 위치한 일본해군기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구로키 대위와 니시나 중위가 가이텐이란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는 둘 다 20 대 전후로 다른 가이텐 탑승원들과 거의 동년배였습니다. (가이텐 조종사로 사망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 대 전후입니다) 즉 두 사람의 학창 시절은 그리 먼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는 두 사람의 교복, 학교 가방 외에도 니시나 중위가 소학교 시절에 붓글씨를 쓴 서예 족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족자에는 ‘나는 떨어져 지는 사쿠라(벚꽃)의 나라, 일본에 태어난 청년입니다. (私は散る桜の国、日本に生まれた青年です)’라는 애국적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기타 학교 관련 전시로서 니시나 중위의 일본해군학교의 수업 시간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구로키 대위의 일본해군관계학교 합격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적힌 옥일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1：激動の時代

回天の開発者：黒木博司大尉と仁科関夫中尉

回天を発案したのは、黒木博司大尉（1921～1944 年）と仁科関夫中尉（1923～1944 年）です。滋賀県の生まれである仁科中尉は、広島湾の江田島にある海軍兵学校を卒業しました。一方、黒木大尉は岐阜県出身で、京都府舞鶴市にある大日本帝国海軍機関学校を卒業しました。

黒木大尉も仁科中尉も回天のアイデアを思いついたときは 20 歳前後で、他の回天搭乗員たちとほとんど同じ年齢でした。（回天を操縦して亡くなった人の平均年齢は 20 歳前後でした。）つまり、2 人が学生時代を過ごしたのはそれほど前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ため、このコーナーには 2 人の学生服や学生靴のほか、仁科中尉が小学校時代に作った書道の掛け軸も展示されています。掛け軸には「私は散る桜の国、日本に生まれた青年です」、という愛国的なメッセージが書かれています。

他の学校関連の展示としては、仁科中尉の大日本帝国海軍兵学校の授業スケジュールなどがあります。
また、黒木大尉の大日本帝国海軍機関学校への合格を祝うメッセージが書かれた旭日旗もありま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2：祖国を救うために

回天誕生の経緯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2.1: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전세를 역전시킬 새로운 병기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 4 척을 잃었고 일본이 패배함에 따라 주도권은 갑작스럽게 미국측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구로키 대위와 니시나 중위는 훨씬 빠른 속도의 수중 병기가 있다면 일본이 우위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1943 년 4 월 구로키 대위는 해군사령부에 유인 조종 특수 공격 병기의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형 무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1941 년 진주만 공격에 투입되었던 특수 잠함정인 고탄(甲標的)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한 소형 잠수함에 압축 산소를 동력원으로 한 93 식 어뢰의 추진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93 식 어뢰는 뛰어난 사정 거리와 스피드를 가진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의 최첨단 어뢰였습니다.

93 식은 수상 발사형 어뢰였고 일본에서는 어뢰 발사를 위한 함정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93 식 기술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병기에 응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운명을 역전시키는 것’ 을 의미하는 ‘가이텐(回天)’은 전세를 역전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 상층부에는 탑승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특수 공격 병기의 승인에 난색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 제안할 당시에는 탑승원이 마지막 순간에 탈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로키 대위와 니시나 중위의 계획은 1944 년 2 월에 승인되었습니다. 4 월에는 최초 1 형 실험기 3 기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해군은 그해 8 월에는 100 기의 제작 명령을 내렸습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2.1：祖国を救うために 戦争の流れを変える新兵器

日本はミッドウェー海戦で空母 4 隻を失い、日本の敗北によって支配権は突如アメリカ側に移りました。黒木大尉と仁科中尉は、より機敏な水中兵器が日本の優位性を取り戻すのに役立つと確信していました。

1943 年 3 月、黒木大尉は海軍司令部に人間による特殊な攻撃兵器の製作を提案しました。それはハイブリッド兵器を作るというアイデアでした：1941 年の真珠湾攻撃に参加した甲標的にヒントを得た小型潜水艦に、圧縮酸素を動力源とした九三式魚雷の推進システムを取り入れるというもので、九三式魚雷はその並外れた射程と速度により第二次世界大戦において最も先進的な魚雷とされていました。

九三式は水上発射型の魚雷であり、日本ではそれを発射するための艦艇が不足し始めていました。したがって、九三式の技術を、潜水艦から発射できる新しい兵器に応用することは現実的に理にかなっていません。「回天」は「運命を逆転するもの」を意味し、この兵器に戦争の流れを変える力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大日本帝国海軍の将校上層部には搭乗員が自らの命を犠牲にする必要がある特殊攻撃兵器の承認に難色を示す者もいたため、当初の提案では搭乗員が土壇場で脱出できるものとなっていました。

黒木大尉と仁科中尉の計画は 1944 年 2 月に承認されました。4 月には最初の一型試作機 3 基の製作が始まり、海軍は 8 月には 100 基の製作命令を出したので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2 : 祖国を救うために

黒木大尉の殉職、回天作戦での死者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2.2: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구로키 대위의 죽음

1939 년 이후 오즈시마 섬은 93 식 어뢰를 시험하고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44 년 9 월 1 일, 인간 어뢰인 가이텐의 시험과 탑승원의 훈련을 실시할 새로운 목적을 위해 오즈시마 섬에 새롭게 기지가 개설되었습니다. 9 월 6 일, 훈련이 시작된 지 단 이틀 만에 구로키 히로시 대위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병기 개발자 2 명 중 1 명이 단 3 기뿐이던 가이텐 실험기 중 1 기를 조종하는 훈련 중에 사망한 것입니다.

구로키 대위가 왕복 6 킬로미터의 직선 코스를 훈련하던 중, 타고 있던 가이텐이 그와 훈련생 히구치 다카시(樋口孝) 대위를 태운 채 해저로 침몰했습니다. 그들은 약 16 시간 후에 가이텐 속에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구로키 대위는 조종실 벽에 유서를 적고(벽 패널 중 한 곳에 사진 전시), 사고 내용에 관해 침착하게 노트에 기록하여 다른 교관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 배움을 얻도록 했습니다.

구로키 대위의 사망을 계기로 훈련 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난 훈련용 가이텐을 쉽게 발견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기체의 상반부를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훈련 중 사망한 탑승원은 15 명으로 전체 가이텐 사망자의 10 분의 1 을 차지합니다.

구로키 대위와 가이텐의 공동 개발자인 니시나 세이코 중위는 1944 년 11 월 8 일 공격부대인 기쿠스이(菊水隊) 부대의 일원으로 오즈시마 섬을 출발할 때, 구로키의 화장한 재가 담긴 유골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기쿠스이 부대가 울리시 환초에서 미국군의 급유함 미시시네와를 격침한 가이텐의 첫 성공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1944 년 11 월 20 일, 구로키의 유골함은 니시나 중위가 탑승한 가이텐 조종실에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로키 대위는 사후에 그의 병기가 성공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공헌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니시나 중위의 부대는 가이텐으로는 최초로 미국 항공모함 격침 임무를 맡았습니다. 종전 때까지 가이텐을 이용한 공격으로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공격은 이번 공격 외에 1 번뿐이었습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2.2 : 祖国を救うために

黒木大尉の死

1939 年以降、大津島は九三式魚雷の試験と微調整を目的に使用されていました。しかし 1944 年 9 월 1 日に、回天の試験と搭乗員の訓練を行うという新たな目的で大津島基地が島に開設されたのです。

9月6日、訓練のわずか2日目に、黒木博司大尉が悲劇に見舞われ、この新兵器の2人の開発者のうちの1人が、わずか3基しかない回天の試作機の一つを操縦する訓練演習中に死亡しました。

黒木大尉が往路3キロメートル、復路3キロメートルの直線コースの演習を行っていたときに、搭乗していた回天が彼と訓練生の樋口孝大尉を乗せたまま海底に沈みました。彼らは約16時間後に回天の中で死亡しているのが発見されました。黒木大尉は操縦室の壁に遺書を書き（壁のパネルの一つにそれが写っています）、事故の内容を冷静にノートに記録して、他の教官たちが彼の不幸から学べるようにしていました。

黒木大尉の死を受けて、訓練体制は変更されました。そして故障した訓練用回天を見つけて救助しやすくするために、分かりやすいよう機体の上半分が白く塗装されました。訓練中に死亡した搭乗員は15人で、全回天死亡者の10分の1を占めています。

黒木大尉の共同発明者である仁科関夫中尉は、1944年11月8日に攻撃部隊の菊水隊の一員として大津島を出発する際、黒木の遺灰が入った骨壺を持って行きました。菊水隊がウルシー環礁でアメリカ軍の給油艦ミシネワを撃沈し、この作戦が回天の最初の成功した攻撃となった1944年11月20日、その骨壺は仁科中尉の回天の操縦席に置かれていました。このようにして、黒木大尉は死後、彼の兵器の配備を成功させることに関与していました。この攻撃により、仁科中尉の隊は回天によって初となるアメリカ艦艇撃沈を担当したのです。終戦までに、回天による攻撃でさらに多くの命を奪ったのはほかにもう1件だけでした。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2 : 祖国を救うために

回天搭乗員の構成や選抜方法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2.3: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신병의 출신지

기념관 벽면에 있는 표는 가이텐 작전 탑승원들이 채용된 출신 학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1,375 명의 지원자가 가이텐 탑승원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중 89 명은 일본해군병학교, 32 명은 일본해군관계학교, 9 명은 해군수전학교, 210 명은 대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 중 1,035 명(전체의 4분의 3 이상)은 항공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일본은 전쟁 중이던 이 시기에 비행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를 가이텐 탑승원으로 재훈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또한 해군 공식 문서의 사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1944 년 8 월 24 일로 오즈시마 섬 기지가 개설되기 8 일 전입니다. 이 문서는 가이텐 탑승원의 선택 기준을 보여줍니다. 17 세 이상일 것. 평균보다 우수한 시력을 보유할 것, 가족 중 외아들이 아닐 것, 남겨진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일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문서에는 가이텐 작전이 조금 애매한 말로 '수중 특수 공격'적인 것에 집중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들에게는 '2, 3 개월간의 훈련 뒤에 전투에 투입된다는 점',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만이 전달되었습니다.

반대쪽 벽면에 있는 흑백의 초상 사진은 오즈시마 섬과 기타 3 곳의 가이텐 기지에 있던 145 명의 탑승원과 정비사들로서, 훈련 중 또는 임무 수행 중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승원들 중에는 예장용 군복을 입고 찍은 사람도 있지만 최후 임무를 위해 흰색 하치마키(鉢巻) 머리띠를 머리에 맨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초상 사진은 단체 사진 속 인물을 확대한 것입니다. 일부 공백으로 남은 사진들은 사진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2.3 : 祖国を救うために 新兵の出身地

記念館の壁面にある表は、回天作戦の搭乗員が採用された出身校を示しています。合計 1,375 人の志願者が回天搭乗員として選ばれました。そのうち、89 人は大日本帝国海軍兵学校、32 人は大日本帝国海軍機関学校、9 人は海軍水雷学校、210 人は大学あるいはこれに準ずる教育機関出身でした。しかし、志願者のうち 1,035 人(全体の 4 分の 3 以上)は航空学校出身でした。日本では戦争のこの時期には飛行機が不足していたので、飛行機のパイロットを回天搭乗員として再訓練するのは理にかなっていませんでした。

また、海軍の公式文書の写しも展示されており、その日付は 1944 年 8 月 24 日となっています；大津島基地が開設する 8 日前です。それは回天搭乗員の基準を示しています：17 歳以上であること；平均より優れた視力を持っていること；家族の中で一人息子ではないこと；残される扶養家族がない独身者であること、です。文書では、回天作戦はやや曖昧な言葉で「水中特殊攻撃」に的を絞ったものだと説明されています。志願者たちには、「2、3 か月の訓練の後に戦闘に送られる」「命の保証はない」とだけ伝えられました。

反対側の壁面にある白黒の肖像写真は、大津島と他 3 か所の回天基地にいた 145 人の搭乗員と整備員で、訓練中または任務中に戦争で命を落とした人たちを示しています。搭乗員の中には礼装用軍服を着ている人もいますが、最後の任務のために白い鉢巻を頭に巻いている人もいます。こうした人たちの肖像写真は集合写真から抜き出して拡大されたものです。空白のフレームが一部ありますが、これらは写真が見つからなかった人を表していま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3 : 基地での生活

回天の構造や操縦方法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2.4: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세를 역전시킬 신병기

주석이 달린 가이텐 1 형의 실물 크기의 도면이 탑승원들의 사진 아래 그려져 있습니다. 길이 14.75 미터, 직경 1 미터로 베이스가 된 전장 9 미터 길이의 93 식 어뢰보다 훨씬 컸습니다. 가이텐이 대형인 이유는 탑승원인 사람을 태우고 93 식 어뢰의 2 배 용량의 폭약을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이텐의 잠망경이 도면 앞 바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잠망경을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겨우 70 센티미터에 불과했습니다. 비교적 온화한 세토 내해 해역에서의 훈련 또는 환초 정박지를 공격할 때는 다소 적당한 크기지만 태평양의 거대한 너울 속에서는 그다지 실용성이 적었습니다.

잠망경과 가까운 거리에 실제 가이텐의 출입구인 상부 해치가 있습니다. 출격 시에 적의 목표가 근접해지면 떠오릅니다. 탑승원은 갑판에 올라가 상부 해치에서 자신들의 가이텐으로 올라타입니다. 탐지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후에 가이텐은 잠수함과 ‘결합’되어 탑승원이 하부 해치에서 올라가서 직접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전시된 가이텐의 조종실 부분은 2006 년 영화 ‘출구없는 바다(出口のない海)’에 사용된 레플리카입니다. 이것은 실제 비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경은 1.25 미터(실제보다 25 센티미터 넓음)이고 선체는 실제보다 10 센티미터 더 얇습니다.

가이텐은 선박 조종 장치인 타륜이 없었습니다. 밸러스트를 조정하기 위한 밸브와 레버를 사용하여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키를 움직여 제어했습니다. 속도는 압축 산소 흐름의 개폐로 제어되었습니다. 가이텐 조종은 극도로 어려워서 생환한 탑승원 중 한 명은 ‘여섯 개의 손과 그 숫자만큼 눈이 필요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훈련 중에는 가이텐이 수중에서 상하로 움직여서 밸브, 레버, 잠망경의 단단한 금속에 부딪혀 탑승원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가이텐의 조종실은 길이가 약 1.7 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것처럼 협소했던 것을 고려하면 훈련 중에 훈련생과 교관을 그 공간에 수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2.4 : 祖国を救うために 戦争の流れを変える新兵器

回天一型の実物大の注釈付き図面が、搭乗員の下に壁に描かれています。全長 14.75 メートル、直径

1メートルで、ベースとなった全長9メートルの九三式魚雷よりも劇的に大きいです。回天が大型だった理由は、搭乗員として人間を乗せ、九三式の倍量の爆薬を搭載していたことです。

図の前のフロアには、本物の回天潜望鏡が展示されています。潜望鏡を垂直に動かせる範囲はわずか70センチでした。これは、比較的穏やかな瀬戸内海の海域での訓練や環礁の停泊地での攻撃にはある程度適していましたが、太平洋の巨大なうねりの中ではあまり実用的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潜望鏡の近くには回天の本物の上部ハッチがあります。出撃の際、潜水艦は敵の目標に近づく上浮しました。搭乗員は甲板に上がって上部ハッチから自分たちの回天に乗り込みました。探知されるリスクが大幅に高かったため、後に回天は潜水艦と「結合」され、搭乗員が下部ハッチから登って直接乗り込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

展示されている回天のコックピット部分は2006年の映画『出口のない海』（英語で「Sea without Exit」）で使用された複製です。これは完全に縮尺どおりではありません。直径は1.25メートル（実物より25センチ広い）で、船体は元の10センチよりも薄くなっています。

回天に舵輪はありませんでした。バラストを調整するバルブとレバーを使って、垂直方向と水平方向の舵を動かして制御されていました。速度は圧縮酸素の流れを開閉することで制御されていました。回天の操縦は恐ろしく難しく、生き残った搭乗員の一人が「六本の手と同じ数の目が必要だった」と言ったのは有名な話です。練習中には、回天が水中で上下に動くときにバルブ、レバー、潜望鏡の硬い金属にぶつかって搭乗員が怪我をすることがよくありました。

回天のコックピットは長さ約1.7メートル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狭さを考えると、訓練中に訓練生と教官を収容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は信じ難いで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3 : 基地での生活訓練内容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3.1: 훈련 기지에서의 생활

가이텐 탑승원이 되기 위한 훈련

벽에 붙어있는 표는 가이텐 탑승원들이 어떻게 훈련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2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기초(이론) 훈련을 마치면 실기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생들은 우선 가이텐의 구조와 보수, 유지에 관한 강의를 들은 후, 가이텐을 조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기 단계로 들어가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다양한 코스에서 가이텐을 조종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코스는 정비공장을 출발해서 만을 향하는 동쪽 방향의 왕복 6 킬로미터 직진 코스였습니다. 다음 단계가 되면 오즈시마 섬 남쪽 끝 주변 짧은 코스를 일주하거나, 또는 북쪽으로 더 긴 코스, 또는 오키시마(沖島) 섬, 히라지마(平島) 섬, 노시마(野島) 섬의 3 개의 작은 섬들을 일주하였습니다. 이 3 가지 코스 모두 가이텐 훈련 선창에서 출발했습니다.

훈련생들이 더 숙련되어 특정 기술을 습득했고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의 어스름한 상황(시야가 나쁘고 공격 중에 적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적은 시간)에서 조종과 좁은 해협을 조종해서 정박지에 잠입하는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했습니다. 최종 단계 훈련이 되면 가이텐을 항공모함 바로 밑에서 조종하고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가이텐의 조종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수평 자세를 유지하기 너무 힘들고 급상승과 급강하를 해서 마치 ‘돌고래’ 같았다고 비유하는 탑승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탑승원은 잠망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거리, 자신들의 속도, 목표물인 전함의 속도에 근거하여 재빨리 복잡한 계산을 마치고 확실하게 명중시켜야 했습니다.

전시함 속에는 미군함의 간략한 도면이 그려진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이텐 탑승원이 잠망경에 비치는 함정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적과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양한 함정의 도면 밑에 거리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모두 230 미터에서 260 미터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이텐이 최후 공격을 하기 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3.1 : 訓練基地での生活

回天搭乗員になるための訓練

壁に貼られた図は、回天搭乗員がどのように訓練されたかを説明しています。訓練は 2 段階に分けられていました : 基礎 (理論) 訓練の後に実技訓練が行われました。

訓練生たちは、まず回天の仕組みやメンテナンスについての講義を受け、それから回天を操縦する機会を得ました。実技段階に進むと、難易度が次第に上がるさまざまなコースで回天を操縦しました。最も簡単なコースは、整備工場から出発し湾に向かって東に往路 3 キロメートル、復路 3 キロメートルの直線コースでした。その後、大津島の南端を回る短いコースを一周したり、北部を回る長いコースを一周したり、すぐ南にある沖島、平島、野島の 3 つの小さな島を一周したりしました。これら 3 つのコースはすべて、回天訓練栈橋からスタートしました。

訓練生は熟練するにつれて、特定の技術を習得していき、早朝や午後遅くの薄暗い状況（視界が悪く、攻撃中に敵に発見される可能性が低いタイミング）での操縦や、狭い海峡を操縦して停泊地に潜入するシミュレーションなどを行いました。最終レベルの訓練では、回天を艦艇の真下で操縦し攻撃をシミュレートしました。

回天の操縦は決して簡単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水平姿勢を維持するだけでも大変で、急上昇・急降下して「イルカ」のようだと揶揄された搭乗員もいたといいます。また、搭乗員は潜望鏡を覗き込んで、素早く複雑な計算を距離、自艇の速度、目標艦の速度に基づいて行い、確実に命中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展示ケースの中には、アメリカ軍艦の概略図が描かれたカードがあります。これは、回天の搭乗員が潜望鏡に映る艦艇の大きさに基づいて、標的との距離を計算できるように作られたものです。よく見ると、さまざまな艦艇の図の下には距離が書き込まれ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距離はすべて 230 メートルから 260 メートルの範囲内であることから、回天が最後の攻撃をする前にどれだけ接近したかがわかりま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3 : 基地での生活

かつての訓練基地施設と現状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3.2: 훈련 기지에서 생활
오즈시마 섬 기지의 배치 구조

오즈시마 섬 기지가 된 군사시설은 원래 93 식 어뢰 시험을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가이텐 탑승원들의 훈련 기지가 된 것은 1944 년 9 월입니다.

이 디오라마는 전쟁 중이었던 오즈시마 섬을 보여줍니다. 현재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달라진 점이 3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재 페리가 도착하는 항구는 그 당시에 건설되기 전이었습니다. 둘째, 현재는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언덕 중턱에는 계단식 밭이 있었습니다. 셋째, 현재는 소학교로 변한 부지에 당시에는 군사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높은 벽이 기지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고 당시에는 2~3 천 명이었던 섬 주민들(현재는 약 160 명)이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지 내에서 군사기밀 활동을 할 경우, 경비원은 사람들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오즈시마 섬과 일본 최대 연료 창고가 있던 도쿠시마 항은 당시 군사기밀보호법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출입, 사진 촬영, 묘사가 전부 금지되었고 이 지역 전체가 지도상에 공백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벽에 둘러싸인 기지의 부지 내에 아직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은 모두 3 개입니다. 변전소, 위험물저장소, 점화시험소가 그것입니다. 현재 학교로 바뀐 부지의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수상 비행기들이 바다로 오갈 수 있도록 하역 시설인 콘크리트 에이프런을 갖춘 격납고가 당시 현재 항구가 있는 곳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큰 빌딩 중에는 군인들의 숙소였던 병영과 3 채의 정비 공장이 있었고 그중 1 채는 바다로 돌출된 형태로 되어, 갠트리크레인으로 가이텐 어뢰를 수중에서 직접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장교들과 하사관들의 숙소는 부지 벽 바로 외곽에 있었습니다. 하사관 숙소는 기념관 건물과 직각 방향으로 현재는 기념관 정원에 있는 ‘오시게상(お重さん)’을 기념하는 처진올벚나무(시다레자쿠라)가 있는 장소에서는 바로 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3.2: 訓練基地での生活
大津島基地のレイアウト

大津島基地となった軍事施設はもともと九三式魚雷の試験のために建設されました。回天搭乗員の訓練基地になったのは 1944 年 9 月になってのことです。

このジオラマは戦時中の大津島を示しています。現在との顕著な違いは 3 つあります。第一に、現在のフェリーが到着する港はまだ建設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第二に、現在はうっそうと森に覆われている丘の中腹には棚田がありました。第三に、現在は小学校になっている敷地には軍事施設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が、現在はほとんど残っていません。

今も残っている高い壁が、基地の大部分を取り囲み、当時は二、三千人だった島民（現在は約 160 人）に中を見られないようにしていました。基地内で機密活動が行われているときは、警備員が地元の人々が門を通過できないようにし、中で何が行われているかを見られないようにしていました。

当時、大津島と、日本最大の燃料庫があった徳山港は、軍事機密保護法の対象でした。立ち入り、写真撮影、スケッチはすべて禁止され、この地域全体が地図上で空白で表示されました。

壁に囲まれた基地敷地内に現存する唯一の元の建物は 3 つあります：変電所、危険物貯蔵庫、点火試験場です。現在の学校になっている敷地の一番奥にあります。

水上飛行機が海に出入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コンクリートのエプロンを備えた水上機格納庫はかつて、現在の港に面して設置されていました。大きな建物の中には、兵舎や 3 棟の整備工場があり、そのうちの 1 つは海に突き出っていて、ガントリークレーンで回天を直接水中に降ろしたり、引き上げ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将校と下士官の宿舎は、敷地の壁のすぐ外側にありました。下士官の宿舎は記念館の建物と直角になっており、現在の記念館の庭にある「お重さん」を記念するしだれ桜の木のある場所のすぐ西にありました。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4 : 出撃

出撃 壮行式と短刀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4: 출격

출정식

벽면 패널 사진은 가이텐 공격대원들이 이별을 고하는 의식을 보여줍니다. 오즈시마 섬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격하기 전에 가집니다. 기지 사령관이 탑승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넨 것은 머리에 두를 흰 머리띠인 ‘하치마키(鉢巻)’와 이별주인 일본술 ‘기요메노사케(清めの酒)’를 따른 의식용 술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도를 탑승원들에게 주는 것은 고대 의식을 재현한 것으로 천황이 장군을 전장에 보내기 전에 검을 하사한 것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그 후에 탑승원들은 동료들이 모여서 만든 대열 사이를 걸으며 목제 선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송을 위한 단정(短艇)을 타고 잠수함으로 이동한 후, 잠수함의 남쪽 바다의 전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잠수함이 오즈시마 섬을 출항할 시간이 되면 탑승원들은 갑판에 서서 손을 흔들며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4 : 出撃

壮行式

壁面のパネルの写真は回天攻撃隊との別れの儀式を示しており、これは大津島から任務に出撃する前に行われていました。基地の司令官が搭乗員一人ひとりに贈ったのは、搭乗員が頭に巻く白い鉢巻と、別れ酒（英語で farewell sake）として知られる清めの酒の入った儀式用の杯でした。最後に短刀が搭乗員たちに贈られますが、これは古代の儀式を再現したもので、天皇が将軍を戦場に送り出す前に剣を贈ったことにちなんでいます。

その後、搭乗員は集まった同胞たちの隊列の間を歩いて木製の栈橋に降りました。そこで彼らは艦載艇に乗り込み、その艇で前甲板と後甲板に数基の回天を縛り付けた潜水艦に移動し、潜水艦で南方の戦域へ向かっていきました。潜水艦が大津島を出航するとき、搭乗員たちは甲板に立って手を振り、同胞たちに別れを告げました。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4 : 出撃

出撃 遺書

【想定媒体】 Web

<韓国語>**섹션 4: 출격****여러 형태의 유서**

이곳에는 가이텐 탑승원들이 부모님을 위해 쓴 유서와 기지의 동료들에게 적었던 격려의 메시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부채는 ‘나라를 지킨다’, ‘적을 철저히 쳐부순다’라는 애국적인 메시지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다른 메시지에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1924~1936)의 마지막 메시지로 알려졌으며 이 무사는 일왕과 일본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상적인 무사로 여겨졌습니다. 1944년 11월 울루시 환초에 정박한 미국 군함을 공격했던 최초의 가이텐 공격부대의 이름은 ‘기쿠스이(菊水) 부대’입니다. 부대 이름의 기원은 마사히게 가문의 문장인 ‘기쿠스이(菊水, 흐르는 물에 뜬 국화)’였습니다. 이 가문의 문장은 모든 가이텐 탑부에 그려져 있으며 기념관 밖에 있는 레플리카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전시는 하시구치 히로시(橋口寛)대위가 수기로 적은 가로로 긴 문서입니다. 가이텐 교관이었던 하시구치 대위는 다른 이들의 훈련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도 간절히 전장으로 떠나길 원했습니다. 이 문서는 본인의 출격을 요청하는 문서였습니다. 색이 바랜 글자들은 분홍빛을 띠니다. 그 이유는 하시구치 대위가 자신의 피로 탄원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혈서는 ‘성의’를 표하는 전통적 방법이었습니다. 하시구치 대위의 이 요청은 반려되었고, 일왕이 종전 선언을 선포한 3일 후인 1945년 8월 18일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 눈길을 끄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후쿠짱(フクちゃん)이라는 당시 인기 있는 모자를 쓴 만화 캐릭터 같은 그림입니다. 오른쪽에는 ‘푸른 바다, 푸른 하늘(青い海、青い空)’이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밝은 분위기의 이 그림은 1945년 4월 3일 출항한 다타라(多々良) 부대 소속 다테와키 코지(館脇幸治) 소위의 작품입니다. 다테와키 소위는 타고 있던 잠수함이 침몰하여 사망했습니다.

<日本語仮訳>**セクション 4 : 出撃****さまざまな遺書**

ここに展示されているのは、回天の搭乗員が両親に宛てて書いた遺書や、基地の同胞たちに向けて書いた励ましのメッセージです。

展示されている扇子は、「国を守る」「敵を徹底的に滅ぼす」と書かれた愛国的な書で飾られています。別の書には、「何度生まれ変わっても国のために尽くしたい」と書かれています。この言葉は、楠木正成（1294～1336年）の最後の言葉と思われ、この武士は、天皇と日本のために命を捨てることを厭わなかったため理想的な武士とされていました。最初の回天攻撃部隊「菊水隊」の名前の元となったのは、正成の家紋である「菊水」（流水に浮かぶ菊）でした（菊水隊は1944年11月にウルシー環礁に碇泊するアメリカ軍艦を攻撃した隊です）。この家紋はすべての回天の塔部にも描かれており、記念館の外にあるレプリカにも描かれています。

このコーナーでもう一つ目を引く展示は、橋口寛大尉が手書きした横長の文書です。回天の教官であった橋口大尉は、他の人を訓練するのではなく、自分も戦場に出たいと強く願っていて、この文書が出撃を願ったものでした。色あせた文字はピンクがかかった色をしています。その理由は橋口大尉が自らの血を墨にしてこの嘆願書を書いたからであり、これは「誠意」を表す伝統的な手法でした。橋口大尉のこの願いは却下され、天皇による終戦宣言が放送された3日後の1945年8月18日に彼は自らの命を絶ちました。

この厳粛な雰囲気の中で目を引くメッセージが1つあり、それはフクちゃんという、当時人気のあった、帽子をかぶった漫画のキャラクターのような絵です。右側には「青い海、青い空」という文字が書き込まれています。この不自然に明るい雰囲気作品は、1945年4月3日出航した多々良隊の館脇幸治少尉の作品です。館脇少尉は、彼が乗っていた潜水艦が沈没したときに亡くなりました。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4 : 出撃

出撃 遺書

【想定媒体】 Web

<韓国語>**섹션 4: 출격****이례적인 방법으로 전해진 유서**

가이텐 탑승원이었던 쓰카모토 타로(塚本太郎)가 관례에 따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족과 만나기 위해 도쿄의 자택으로 돌아온 것은 1945 년 1 월 곤고(金剛) 부대에서의 임무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쓰카모토 소위의 본가는 긴자에서 언론광고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녹음이 가능한 축음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육성으로 녹음한 유언은 2 부분으로 확실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가족을 향한 애정과 그리움을 담은 이별의 메시지이고 후반부는 일본을 위해 죽음을 다짐하는 정열적인 선언입니다

쓰카모토 소위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을 부르며, 가족, 자신을 키워준 마을과 학교에 이별을 고합니다. 그는 평온하고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봄이면 강가에서 물놀이하고 여름에는 마을 축제를 즐기고 가을이면 달맞이를 하고 갈대를 꺾고 겨울에는 눈싸움했던 날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쓰카모토 소위는 말합니다. 그는 3 천 년간 이어진 문화의 일부이자 자신의 몸 안에 무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일본이 전쟁 개시를 선택한 이상, 일본의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 명예롭다는 것.

쓰카모토 소위는 남은 인생에 소비했을 모든 에너지를 전쟁 중 단 한 순간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집중할 것을 희망합니다. 선조들의 피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를 향해 전진하라고 한다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노인과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싸워서 일본의 영원한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와 그의 전우들은 남쪽 바다와 북쪽 섬에서 모든 것을 던져 전투할 것이다. 대동아의 천지가 부르고 있다. 10 억의 민중이 희망의 눈빛을 보낸다. ‘잘 있어요, 모두들! 저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日本語仮訳>**セクション 4 : 出撃****珍しい形式の遺書**

慣例にならい、回天搭乗員の塚本太郎少尉が最後にもう一度家族に会うために東京の自宅に戻ったのは、1945 年 1 月に金剛隊での任務を開始する前のことでした。塚本少尉の実家は銀座でメディア・広告業を営んでいたため、録音できる蓄音機を持っていました。彼の肉声による遺言は 2 つのパートにきちんと

分けられています：前半は家族への愛情と懐かしさを込めた別れの言葉、後半は日本のために死ぬという情熱的な宣言です。

塚本少尉は父、母、弟、妹に直接語りかけ、家族や育った町、出身校に別れを告げています。彼は牧歌的な子供時代を思い起こしています：春には川辺で遊び、夏には地元のお祭りを楽しみ、秋にはススキを摘んで月見をし、冬には雪合戦をしたと。

「こんな風に幸せに暮らすのもいいですが、自分が日本人であること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と塚本少尉は言います。彼は3千年続く文化の一部であり、彼の武士の血が流れている。日本が開戦を選択して以来、日本の若者は国のために命を捧げることを荣誉としてきたと。

塚本少尉は、残りの人生に費やしていたであろうすべてのエネルギーを戦いのただ一つの決定的瞬間に集中させたいとしています。先祖の血が、すべての障害を打ち負かし、勝利に向かって行けと呼びかけていると。自分が死んだ後も、老人や若者たちが戦い続け、日本が永遠に繁栄す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塚本少尉と彼の同胞は南方の海と北方の島々で戦い、その戦いに身を投じると約束しました。大東亜が呼んでいる、10億人が希望を込めて自分たちを応援していると。「さらば、みんな！私は戦いへ征ってくる」、と締めくくりました。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4 : 出撃

出撃 碇泊艦攻撃と航行艦攻撃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4: 출격

전술의 변화

가이텐 작전이 개시될 당시, 주요 전술은 정박 중인 미군함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1944 년 11 월 최초의 가이텐 작전에서 기쿠스이(菊水) 부대가 울루시 환초에 정박 중이던 항공모함을 공격하였습니다. 미국 해군이 서태평양 상의 전진 작전기지로 사용 중이던 환초에서 미국군의 미시시네와 급유함을 격침해서 미국 측에 63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곤고(金剛) 부대(울루시, 홀란디아, 애드미럴티 제도, 팔라우, 괌으로 파견), 지하야(千早) 부대(이우오지마 섬), 진무(神武) 부대(이우오지마 섬), 다타라(多々良) 부대(오키나와) 모두 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가이텐 공격이 있는 동안, 미군은 정박 중인 항공모함의 수비 방법을 조금씩 습득하였습니다. 그 방어 전술 중 하나가 방잠망(防潜網)의 사용이었습니다. 그러자 1945 년 4 월 가이텐은 새로운 전술을 적용하여 이번에는 울루시와 오키나와 사이를 향해하는 함정을 목표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 2 단계에 파견된 공격대는 덴무(天武), 신부(振武), 도도로키(轟), 다몬(多聞), 신슈(神州) 부대였습니다. 다몬 부대의 가이텐이 1945 년 7 월 24 일 미군의 방어 구동함 언더힐을 격침했습니다. 미국인 사망자 112 명은 가이텐이 유일하게 치명타를 가한 공격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슈 부대는 1945 년 8 월 16 일, 즉 일본이 항복한 다음날 출항하여 8 월 18 일에 귀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4 : 出撃

戦術の変更

回天作戦が開始したとき、その主な戦術は碇泊中のアメリカ軍艦を攻撃することでした。1944 年 11 月の最初の回天作戦では、菊水隊がウルシー環礁に停泊していた艦艇を攻撃し、このアメリカ海軍が西太平洋上の前進作戦基地として使用していた環礁において、アメリカ軍給油艦ミシシネワを撃沈し、アメリカ側に 63 名の犠牲者を出しました。

金剛隊（ウルシー、ホーランドシア、アドミラルティ、パラオ、グアムに派遣）、千早隊（硫黄島）、神武隊（硫黄島）、多々良隊（沖縄）はすべて同じ戦術を使用しました。

数か月間にわたる回天攻撃の間に、アメリカ軍は碇泊中の艦艇をよりよく守る方法を徐々に学んでいきました。その防衛戦術の一つが防潜網の使用でした。しかし、1945 年 4 月、回天は新しい戦術を採用し、今度はウルシーと沖縄の間を航行する艦艇を標的にし始めました。

この第二段階で派遣された攻撃隊は、天武隊、振武隊、轟隊、多聞隊、神州隊でした。多聞隊の回天は、アメリカ軍の護衛駆逐艦アンダーヒルを 1945 年 7 月 24 日に撃沈しました。112 人のアメリカ人の命が失われ、この戦争において唯一最大の致命的な回天による攻撃となりました。

興味深いことに、神州隊は 1945 年 8 月 16 日、つまり日本の降伏の翌日に出港し、その後 8 月 18 日に帰港するよう命じられました。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4 : 出撃

出撃 基地回天隊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4: 출격

본토 방위

종전이 가까워져 오자 가이텐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예정된 연합국 군의 공격으로부터 일본 본토를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육상에 거점을 둔 기지 가이텐 부대(Base Kaiten Corps)는 해안선을 따라 방어용 동굴을 파고 동굴에서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레일을 설치했습니다. 동굴 속에 가이텐을 배치하여 미국 해군의 공격이 있을 시에 신속하게 발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이텐과 뱃머리에 폭탄을 탑재한 특공정 ‘진요(震洋)’가 함께 한 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벽면 그림은 가이텐이 배치된 장소를 보여줍니다. 계획된 16 곳 중 가이텐은 12 곳에만 배치되었고 예상했던 본토 상륙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옮긴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1 기지 가이텐 부대 ‘하쿠류(白龍)’는 전원 오키나와를 방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마구치현의 히카리(光) 가이텐 기지에서 운송함을 타고 오키나와로 이동 중에 미군 잠수함에 격침되어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4 : 出撃

本土の防衛

戦争が終わりに近づく、回天は新たな任務を与られました：日本本土を、予期される連合国の侵略から守ることです。陸上を拠点とする基地回天隊（そのまま英語で「Base Kaiten Corps」）は、海岸沿いに防衛用の洞窟を掘り、洞窟には海に降りるためのレールを設置しました。洞窟内に回天を配備し、アメリカ海軍の攻撃があったときに迅速に発進できるようにする計画でした。回天と、船首に爆薬を搭載した特攻艇「震洋」がペアになることもありました。壁面の図は回天が配置された場所を示しています。計画された 16 か所のうち、回天は 12 か所に配置されただけで、予想されていた本土上陸が現実とならなかったため実働したところはありませんでした。

第一基地回天隊「白龍」（英語で White Dragon）は総員、沖縄を防衛するはずでした。しかし、光（山口県）の回天基地から沖縄へ輸送艦で移動中にアメリカ軍の潜水艦に撃沈され、総員が死亡しました。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4 : 出撃

出撃 各隊の構成や出撃回数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4: 출격

전쟁의 결과

벽면 도표에는 1944 년 11 월부터 1945 년 8 월 사이에 임무를 맡아 일본에서 출격한 10 개의 가이텐 부대와 가이텐 부대를 목적지로 운송하던 잠수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이텐을 탑재한 16 척의 잠수함 중 8 척은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811 명의 잠수함 탑승원이 가이텐을 전장에 이동시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6 명의 탑승원, 36 명의 정비원(가이텐 보수를 위해 탑승원 임무에 동행), 3 명의 기지 보조요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탑승원 중 45 명은 가이텐으로 공격하며 목숨을 잃었고 35 명은 가이텐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귀환하지 못했으며, 15 명은 훈련 중 사망하였습니다. 나머지 탑승원은 타고 있던 가이텐 수송정의 침몰(7 명), 미국 전투기의 기탄 포격(2 명), 종전 직후 자살(2 명)로 사망하였습니다.

가이텐이 목적지에 도달하였다고 해도 언제나 효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운송하던 I 클래스 잠수함보다 작고 견고하지 못해서 80 미터까지 잠수할 것으로 상정되었지만 50 미터 이상 깊이에서 종종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가이텐을 탑재한 잠수함이 적을 피해 잠수할 수밖에 없거나 수중 어뢰로 공격당하면 비교적 취약한 가이텐은 공격을 시작도 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탑승원의 인원수가 많았던 공격부대는 곤고(金剛) 부대(탑승원 24 명, 그중 19 명 사망), 다몬(多聞) 부대(탑승원 32 명, 그중 12 명 사망), 다타로(多々良) 부대(탑승원 20 명, 그중 10 명 사망)였습니다.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기쿠스이(菊水) 부대로 1944 년 11 월 20 일 미군의 급유함 미시시네와를 침몰시킨 공격(전사자 63 명 발생)입니다. 곤고 부대는 1945 년 1 월 2 일 보병상륙정 LCI-600 를 격침(전사자 3 명 발생)했고, 다몬 부대는 1945 년 6 월 24 일 미 해군 호위구축함 USS 언더힐을 격침(전사자 112 명 발생)했습니다.

그외에 화물수송함 카리나, 호위구축함 길리건, 공격수송함 수송정 마라톤, 호위구축함 로리, 총 4 척의 미국 군함이 가이텐의 공격으로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4 : 出撃

戦果

壁面の図表には、1944 年 11 月から 1945 年 8 月までの間に任務で日本から出撃した 10 の回天隊と、回天隊を目的地に輸送した潜水艦の名前が記載されています。回天を搭載した 16 隻の潜水艦のう

ち、8 隻は帰還できませんでした。全体で、811 人の潜水艦乗組員が回天を戦場に運ぶために命を落しました。

106 人の搭乗員、36 人の整備員（回天の保守のため搭乗員の任務に同行）、3 人の基地補助員が死亡しました。死亡した搭乗員のうち、45 人は回天での攻撃で命を落とし、35 人は回天を搭載した潜水艦で帰還できず、15 人は訓練中に亡くなりました。残りの搭乗員が死亡したのは、乗っていた回天輸送艦が沈没したとき（7 人）、アメリカの戦闘機に機銃掃射されたとき（2 人）、終戦直後の自殺によるもの（2 人）です。

回天自体は、目的地に到着したときに必ずしも有効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搭載して輸送する一等潜水艦よりも回天は小さく頑丈ではなかったため、80 メートルまで潜れるとされていたものの、50 メートル以上の深さでよく水漏れを起こしました。回天を搭載した潜水艦が敵を回避するため潜ら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り、水中爆雷で攻撃されたりすると、比較的脆い回天は展開前に使用できない状態になることもありました。

搭乗員の数が多かった攻撃隊は金剛隊（搭乗員 24 人、内 19 人死亡）、多聞隊（搭乗員 32 人、内 12 人死亡）、多々良隊（搭乗員 20 人、内 10 人死亡）でした。最大の成功を収めたのは菊水隊で、1944 年 11 月 20 日にアメリカ軍の給油艦ミシネワを撃沈しました（63 人の戦死者を出しました）；金剛隊は、1945 年 1 月 12 日に歩兵揚陸艇 LCI-600 を撃沈しました（3 人の戦死者を出しました）；そして多聞隊は、1945 年 7 月 24 日にアメリカ軍の護衛駆逐艦アンダーヒルを撃沈しました（112 人の戦死者を出しました）。

他 4 隻のアメリカ軍艦の、回天による損傷が確認されました：輸送艦カーナ；護衛駆逐艦ギリガン；攻撃型輸送艦マラソン；護衛駆逐艦ロウリーで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4 : 出撃

お重さん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4: 출격

오시계상: 젊은 탑승원들의 엄마와 같은 존재

이 사진은 구라시게 아사코(倉重アサコ) 씨를 촬영한 것으로 도쿠야마 중심부의 전통 고급 여관인 ‘마쓰마사 여관(松政旅館)’에서 일하던 여성입니다. 그녀의 성을 짧게 줄인 ‘오시계상(お重さん)’이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훨씬 더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오시계상은 갑자기 오즈시마 섬 기지로 60명 정도의 남성들이 모이는 스키야키 연회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물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오시계상은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소형 불판을 빌려 모았고, 한편 군에서는 남자들 전원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고기를 조달했습니다. 흰 천을 간 비를 막던 방풍창이 테이블을 대신했습니다. 마쓰마사 여관은 가이텐 탑승원의 출정식이 열리는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이텐 작전의 모든 것이 극비였기 때문에 오시계상이 준비했던 그 연회의 목적을 알게 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시계상은 당시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부분 20세 전후였던 가이텐 탑승원들의 엄마를 대신하기에 딱 좋은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하기 전 부모님께 이별을 고하지 못했던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화에 따르면 오시계상은 자신의 흰색 비단 혼례복을 잘라서 가이텐 탑승원을 위해 스카프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탑승원들 대부분은 항공학교로부터 전입해 왔기 때문에 제로센이라 불렀던 0식 함상전투기 조종사들이 목에 둘렀던 땀뻘 땀 뻘 스카프를 선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이텐 기념관으로 향하는 길의 왼쪽 마지막 나무가 오시계상을 기념하여 심은 처진올벚나무(시다레자쿠라)입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4 : 出撃

お重さん :若い搭乗員の母のような存在

この写真は倉重アサコさんを写したもので、徳山中心部の伝統料亭「松政旅館」で働いていた女性です。彼女は、名字を短くした「お重さん」という親しみのこもったニックネームで広く知られています。

戦時中のある時、お重さんは突如、大津島基地で60人ほどの男性たちが集まるすき焼きの宴会を世話するよう頼まれました。その頃には日本では多くの物資が不足していましたが、お重さんはなんとか近所の人から小型コンロを借り集め、一方で軍は男性たち全員に食べさせるのに十分な量の肉を調達しました。白い布をかけた木の雨戸がテーブルの代わりとなりました。松政旅館は回天搭乗員の壮行会の会場にもなりま

した。回天作戦はすべて極秘だったため、お重さんが世話をしたその宴会が何のためのものだったのかを知ったのはかなり後のことでした。

お重さんは当時 30 代後半でした；したがって、彼女は、ほとんどが 20 歳前後だった回天搭乗員たちの母親代わりになるのにちょうどよい年齢だったのです。彼女の存在は、故郷からあまりに遠く離れた地で、生きて帰ってこられない可能性が高い任務に出る前に両親に別れを告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若者たちにとって、間違いなく慰めとなりました。

ある話によると、お重さんは白い絹の花嫁衣裳をカットして回天の搭乗員たちのために白いスカーフを作ったそうで、それというのも搭乗員の多くは航空学校から転入してきており、零戦のパイロットが身に付けていたダンディーなフライト用スカーフに執心していたからだそうです。

回天記念館に向かう道沿いの左側にある最後の木は、お重さんを記念して植えられたしだれ桜で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セクション 5：戦後社会と回天

セクション 6：新たな時代に向かって

セクション 7：平和を願う回天のこころ戦後社会と回天

【想定媒体】 Web

<韓国語>

섹션 5~7:

섹션 5~7

기념관의 마지막 섹션 3 개는 개관 후 30 년이 지난 1998 년에 증설되었습니다. 개보수를 통해 종전 직후 수년에 걸쳐 가이텐 작전이 끼친 영향 및 다음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포함하도록 가이텐 기념관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섹션 5: 전후 일본 사회와 가이텐

도쿠야마 공습

종전이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일본의 방공망이 거의 모두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미군기는 대낮에도 자유롭게 일본 도시를 폭격했습니다. 약 100 기 정도의 B-29 폭격기가 1945 년 5 월 10 일 도쿠야마 해군 연료창고를 백주 대낮에 폭격을 가해 공격했고, 전쟁의 남은 기간 동안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945 년 7 월 26 일 밤에는 도쿠야마에 소이탄을 떨어뜨려 도시의 90%가 파괴되었습니다. 벽면 패널 중 하나에는 그 공격 이후 지역 고등학교를 수리하려는 아이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초대 가이텐 비석

전시 중 가이텐 작전의 전모는 대부분이 극비에 부쳐졌습니다. 신조(神潮) 특별 공격 부대와 관련된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신문기사로 이 작전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전쟁이 끝나고도 몇 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생환한 가이텐 탑승원들은 사망한 동료들을 추도하기 위해 마음을 다 했습니다. 벽면 패널 사진에 보이는 초대 가이텐 비석은 종전 3 개월도 채 안 된 1945 년 11 월 10 일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비석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미 주둔군에 의해 파괴되었는지 그들의 반감을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묻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의 가이텐 비석은 현재의 비석보다 다소 소박한 양식이었습니다.

섹션 6: 새로운 시대로

이 섹션에서는 1945 년 연합국의 창설 및 같은 시기에 일어난 탈식민지화의 물결을 비롯한 전후 세계의 개관을 제공합니다. 전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전쟁의 포기를 명시한 헌법과 함께 평화를 약속하는 민주주의국가로 재탄생했습니다. 제 2 차세계대전 종결 이후, 일본이 분노에 차서 발포한 적이 없습니다.

섹션 7: 가이텐 탑승원의 평화를 향한 바람

기념관의 가장 마지막 섹션 패널에서 생환한 가이텐 탑승원들의 생각과 전쟁이 없는 세계를 바라는 그들의 염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セクション 5～7：

セクション 5～7

記念館の最後の 3 つのセクションは、開館から 30 年後の 1998 年に増築されました。改修により、終戦直後の数年間における回天作戦の影響や、次の世界大戦を起こさないための国際的な取り組みを含むよう、記念館が対象とする範囲を拡大するスペースが確保されました。

セクション 5：戦後の日本社会と回天

徳山の空襲

戦争が終わりに近づく頃には、日本の防空網はほぼすべて破壊されていました。アメリカ軍機は昼間でも自由に日本の都市を爆撃できました。100 機ほどの B-29 爆撃機が徳山の海軍燃料廠を 1945 年 5 月 10 日の白昼爆撃により攻撃し、戦争の残りの期間機能できなくしました。1945 年 7 月 26 日の夜に徳山に焼夷弾が落とされ、都市の 90%が破壊されました。壁面のパネルの一つには、この空襲の後に地元の高校を修理しようとしている子供たちの写真があります。

初代回天碑

戦時中、回天作戦の全容はほぼ極秘でした。神潮特別攻撃隊（英語で「Divine Tide Special Attack Force」）については一部報道があったものの、一般の人々が新聞記事でこの作戦について詳細を知るようになったのは、戦争が終わってから数か月経ってからでした。

生き残った回天搭乗員たちは、亡くなった仲間を追悼することに熱心でした。壁面のパネルの写真に写っている初代の回天碑は、終戦から 3 か月も経たない 1945 年 11 月 10 日に建てられました。しかし、この碑はすぐに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アメリカ進駐軍によって取り壊されたのか、占領者の反感を買うのを避けるために日本人たちが埋めたのかは不明です。この以前の回天碑は、現在のものよりも幾分素朴な様式でした。

セクション 6：新しい時代へ

このセクションでは、戦後の世界を概観し、1945 年の国連創設や同時期に始まった非植民地化の波などを紹介します。戦後の日本は、戦争を公式に放棄する憲法を持ち、平和を約束する民主主義国家として生まれ変わりました。第二次世界大戦終結以降、日本が怒りに任せて発砲したことは一度もありません。

セクション 7：回天搭乗員の平和への願い

記念館の最後のセクションのパネルは、生き残った回天搭乗員の思いや、戦争のない世界を求める彼らの願いを伝えていま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敷地内/魚雷のエンジン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

93 식 어뢰의 엔진

현지 어부가 끌어올린 이 엔진은 산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93 식 어뢰의 부품이지만, 1939 년부터 1944 년 후반까지 오즈시마 섬에서 시험하여 인공 조종 어뢰인 가이텐에 적용하기 위해 개조한 것입니다.

93 식 어뢰는 일본해군이 발명하고 1933 년에 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60 년 신무천황이 처음 황제로 즉위한 해를 기념한 일본의 황기(皇紀)로 따지면 1933 년은 2593 년이 되기 때문에 황기의 아래 두 자리 숫자인 93 이 어뢰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후 미국의 해군 사학자 새뮤얼 엘리엇 모리슨은 93 식 어뢰에 긴 창을 뜻하는 ‘롱 랜스(Long Lance)’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잠수함이 아닌 수상정에서 발사되는 이 어뢰는 매우 크고 빠르고 치명적이었으며 길이는 9 미터, 직경 61 센티미터, 중량 2,800 킬로그램, 탄두는 780 킬로그램이었습니다. 48 노트에서 15 킬로미터로 또한 36 노트에서는 30 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93 식이 장거리 항행이 가능했던 것은 표준적인 압축 공기가 아닌 압축 산소를 엔진의 산화제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기는 5 분의 4 가 질소로 산소는 5 분의 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산소를 사용해서 산화제 양이 5 배로 늘어 어뢰의 사정거리가 크게 연장되었습니다. 93 식 어뢰가 연합국의 함선을 격침하기 시작할 당시에 연합군의 승조원들은 어뢰가 근처 잠수정에서 발사된다고 믿고 있었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함선에서 발사된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93 식이 영국과 미국 모두 보유하지 못한 압축 산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산화제를 통상 ‘제 2 의 공기(number-two air)’라고 불렀습니다.

93 식이 산소를 사용해서 얻은 또 하나의 이점은 산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 기포를 발생시켜 어뢰 탐지 및 회피가 훨씬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어뢰의 경우, 항적 기포 대부분이 질소에서 발생합니다)

<日本語仮訳>

九三式魚雷のエンジン

このエンジンは、地元の漁師によって引き揚げられたもので、酸素を動力源とする九三式魚雷の部品ですが、この魚雷は 1939 年から 1944 年後半にかけてここ大津島で試験され、人が操縦する魚雷回天を作るために改造されました。

九三式魚雷は大日本帝国海軍によって発明され、1933 年に運用が開始されました。紀元前 660 年の神武天皇即位から始まった日本の皇紀では、1933 年は実際には 2593 年であることから、皇紀の下 2 桁が魚雷の名前に使われました。

戦後、アメリカの海軍史家サミュエル・エリオット・モリソンさんは九三式魚雷に「ロング・ランス」という名前をつけました。潜水艦からではなく水上艦から発射されたこの魚雷は、非常に大きく、速く、致命的でした。長さ 9 メートル、直径 61 センチ、重さ 2,800 キログラム、弾頭は 780 キログラムありました。48 ノットで 15 キロメートル、または 36 ノットで 30 キロメートル航行できました。

九三式が長距離を航行できたのは、標準的な圧縮空気ではなく圧縮酸素をエンジンの酸化剤として使用した結果です。通常の空気は 5 分の 4 が窒素で酸素は 5 分の 1 しかないので、純粋な酸素を使用すると酸化剤の量が 5 倍になり、魚雷の射程が大幅に延長されます。九三式が連合国の艦船を撃沈し始めたとき、連合軍の乗組員たちは魚雷が近くの潜水艦から発射されたと思い込んでおり、数十キロメートル離れた艦船から発射されたとは想像していませんでした。九三式がイギリスもアメリカも持っていなかった技術である圧縮酸素を使用していたことを隠すため、酸化剤は常に「第二空気」（英語で number-two air）と呼ばれていました。

九三式が酸素を使用したことによるもう一つの利点は、酸素が出す気泡による航跡はほとんど視認できないため、魚雷の探知と回避をより難しくできることです。（圧縮空気を使用する魚雷では、航跡の泡のほとんどは窒素に由来しま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敷地内/回天一型レプリカ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

가이텐 1 형의 복제품

이것은 가이텐 1 형의 실물 크기 복제품입니다. ‘운명을 역전시킬 것’이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가이텐은 제 2 차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설계된 몇 가지 특공 병기 중 하나입니다.

길이 14.75 미터, 직경 1 미터, 무게 8.3 톤의 가이텐은 원형인 93 식 어뢰(길이 9 미터, 직경 61 센티미터)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그와 동시에 큰 차이점은 그 폭발력입니다. 가이텐 탄두에 탑재된 1.55 톤의 화약량은 93 식 어뢰 탑재량인 780 킬로그램의 거의 두 배였습니다.

가이텐은 93 식과 동일하게 엔진 산화제로 압축 산소를 사용하여 출력과 항속거리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소는 가연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이런 이유로 탑승원이 가이텐의 엔진을 발동시킬 때는 우선 불연성 물질인 사염화탄소로 희석하고 위험한 잔류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1 형의 잠망경을 완전히 늘렸을 때의 높이는 겨우 70 센티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가이텐 탑승원들은 요격 지점을 설정하기 위해 표적함에 몇 백 미터 이내로 들어섰을 때 잠망경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단거리 잠망경은 조용하고 안전한 해역에 매우 적합하지만, 태평양처럼 너울이 심한 바다에서는 사용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부 해치를 둘러싼 작은 탑은 흐르는 물 위에 떠다니는 국화꽃을 모티브로 한 문장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4 세기 초반 일본의 장수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의 문장이었습니다.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천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를 열렬히 희망했다는 점에서 그는 일본군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앞부분보다 훨씬 좁아진 선미에는 역회전하는 프로펠러, 그리고 수평 방향키와 수직 방향키로 구성된 조타 기구가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가이텐은 '마루 6 금물(Metal Hardware No. 06)'이란 코드 네임으로 불렸습니다. 무기의 본질은 애매하지만 이 이름을 통해 일본 해군이 개발한 6 번째 특공 병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텐 1 형의 첫 실험기는 1944 년에 제조되었습니다. 종전될 때까지 약 420 기가 제작된 가운데 약 100 기가 출격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개의 가이텐이 제작되었지만 실험기 단계를 마친 것은 1 형뿐이었습니다. 일본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완전한 형태의 가이텐 1 형(시애틀에도 1 기가 있음)은 도쿄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의 유슈칸(遊就館)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回天一型のレプリカ

これは回天一型の実物大レプリカです。「運命を逆転するもの」という意味の名前を持つ回天は、第二次世界大戦の末期に日本が有利になるよう戦争の流れを変えるために設計された複数ある特攻兵器の一つです。

長さ 14.75 メートル、直径 1 メートル、重さ 8.3 トンの回天は、元となった九三式魚雷よりもはるかに大きく、重量があります。（九三式は全長 9 メートル、直径 61 センチでした。）

同様に大きく異なっていたのがその爆発力です。回天の弾頭に搭載された 1.55 トンの炸薬量は、九三式魚雷の搭載量 780 キログラムのほぼ倍でした。

九三式と同様に、回天はエンジンの酸化剤として圧縮酸素を使用することにより、出力と航続距離が大幅に向上しました。しかし酸素は、可燃性が高いものです。そのため、搭乗員が回天のエンジンを発動させる際は、最初に難燃性の四塩化炭素で酸素を希釈し、危険な残留物を除去していました。

一型の潜望鏡は、完全に伸ばしたときの高さがわずかに 70 センチでした。回天搭乗員は、迎撃地点を決定するために、標的とする船から数百メートル以内に近づくと潜望鏡を上げました。このように短い潜望鏡は、穏やかで守られている海域ではよく適していましたが、太平洋の激しいうねりの中で使用するのには難しい可能性がありました。

上部ハッチを囲む小さな塔は、流れる水の上に浮かぶ菊の花をモチーフにした紋章で飾られています。これは 14 世紀初頭の日本の武将、楠木正成の紋章であり、この武将は天皇のために命を捨てることを熱望したということで日本軍によって理想とされていました。前部よりもかなり狭くなっている船尾には、逆回転するプロペラと、水平方向舵と垂直方向舵からなる操舵機構があります。

開発段階では、回天は「マルロク金物」（英語で Metal Hardware No. 06）というコードネームで呼ばれていました。兵器の性質を曖昧にしながらも、この名前は大日本帝国海軍が開発した 6 番目の特攻兵器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した。

回天一型の最初の試作品は 1944 年 7 月に製造されました。終戦までに、約 420 基が製造され、そのうち約 100 基が出撃しました。他に複数の種類の回天が作られましたが、試作段階を終えることができたのは一型だけでした。日本に現存する唯一の完全な回天一型は（シアトルにも 1 基あります）、東京・靖国神社の遊就館にありま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敷地内/回天碑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가이텐 비석

이곳에 있던 최초의 가이텐 비석은 종전 3개월이 채 안된 1945년 11월 10일에 세워졌습니다. 첫 비석은 곧바로 철거되었습니다. 미국 주둔군이 파괴했는지 아니면 일본인이 눈치를 보며 철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비석은 해체되어 묻혔습니다.

1955년부터 생환한 가이텐 탑승원들이 오즈시마 섬에 모여 전사한 동료들의 영혼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에 이전 비석의 잔해를 파내고 1959년에 탑승원들은 비석을 새롭게 세우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비석은 기쿠스이(菊水) 부대가 처음으로 가이텐으로 울루씨를 공격한 날로부터 16년 후인 1960년 11월 20일에 세워졌습니다. 정식으로 제막식을 한 것은 1961년 3월 26일입니다. 연마된 화강암을 똑바로 세운 석판에 새겨진 ‘回天(가이텐)’이라는 일본어 2글자는 가이텐을 발명한 2명의 개발자 중 한 명인 구로키 히로시(黒木博) 대위의 유서에서 모사한 것입니다. 구로키 대위가 오즈시마 섬 먼바다에서 가이텐의 시제품 속에서 사망한 것은 1944년 9월로 기지가 개설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른쪽에 가로로 긴 화강암 석판에는 106명의 탑승원과 39명의 보조 요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곳의 입구 양옆에 늘어선 돌로 만든 명판에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이 145명은 가이텐 작전으로 전사한 전원의 명단으로 오즈시마 섬 기지뿐 아니라 히라오, 히카리, 오가의 세 거점에 소속된 인원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명단의 첫머리에는 구로키 대위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왼쪽 가로석에는 활동 중에 실종된 가이텐 잠수함 8척의 출항지, 침몰 지점, 함장의 이름, 각 잠수함에서 전사한 탑승원 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811명의 탑승원이 사망하였습니다.

1945년에 세워진 초대 가이텐 비석의 잔해는 지금의 비석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回天碑

この場所にあった最初の回天碑は、終戦から3か月も経たない1945年11月10日に建てられました。それはすぐに撤去されましたが、アメリカ進駐軍に破壊されたのか、それとも日本人が気を利かせようとして撤去されたのかは不明です。いずれにせよ、それは解体され埋められました。

1955 年に、生還した回天搭乗員たちが大津島に毎年集まって、戦死した仲間たちを慰霊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古い記念碑の残骸は 1958 年に掘り起こされ、1959 年に搭乗員たちは新しい記念碑を設置することを決定し、そのための資金を集める運動を開始しました。

現在の碑は、菊水隊の回天が最初にウルシーで攻撃してから 16 年後の 1960 年 11 月 20 日に建てられました。正式に除幕されたのは 1961 年 3 月 26 日でした。磨かれた御影石の直立した石板に彫られた「回天」という日本語 2 文字は、回天を発明した 2 人の発明者のうちの一人である黒木博司大尉の遺書から写されたものです。黒木大尉が大津島沖で試作機の回天の中で亡くなったのは、1944 年 9 月に基地が開設されてから一週間も経たないうちのことでした。

右側の横長い御影石の石板には、106 人の搭乗員と 39 人の補助員の名前が刻まれており、これは入り口通路の両脇にある石の銘板ひとつひとつに記されているものと同じです。これら 145 人は、回天作戦で命を落とした全員であり、ここ大津島の基地あるいは、それ以外の平生、光、大神の 3 つの拠点のいずれかにいた人もすべて含まれています。相応しく、最初に記載されている名前は黒木大尉のものです。

左側の横石には、活動中に失われた回天搭載潜水艦 8 隻と、出港場所、沈没した場所、艦長の名前、各潜水艦で亡くなった乗組員の人数が記載されています。合計 811 人の乗組員が死亡しました。

1945 年の初代回天碑の残骸は、現在の碑の下に埋め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回天記念館敷地内/平和祈念の鐘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

평화의 종

무게 850 킬로그램에 달하는 청동종 ‘평화의 종’은 교토의 보도인(平等院) 사원에 있는 12 세기 국보의 종을 모델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쿠야마 히가시 라이온즈 클럽의 기부로 만들어졌고 1974 년에 주조되었습니다.

종에 사용된 금속 10 분의 1 이 약간 넘는 부분은 전함 ‘무쓰(陸奥)’의 포탑 탄창의 탄금이 사용되었으며,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이었던 ‘무쓰’는 1943 년에 히로시마 만에서 침몰되고 전후에 인양되었습니다. 종에는 전통적인 종교 문양과 함께 가이텐 탑승원이었던 구주미 히로시(久住宏) 씨의 유서에서 인용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기를 바라며”

가이텐 겐쇼카이(回天顕彰会)는 매년 11 월 둘째 주 일요일에 이곳에서 위령제를 거행합니다. 이날은 기쿠스이 부대가 1944 년 11 월 8 일 최초로 가이텐을 출격시킨 날에 맞춰 정해졌습니다.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8 월 15 일에는 도쿠야마 유네스코 협회의 대표가 이곳을 방문하여 평화를 기원하는 타종을 합니다.

<日本語仮訳>

平和の鐘

850 キログラムあるこの青銅の鐘は「平和の鐘」と呼ばれており、国宝である京都の平等院にある 12 世紀の鐘をモデルにしています。徳山東ライオンズクラブの寄付により建立され、1974 年に鑄造されました。

鐘の金属の 10 分の 1 強は、戦艦「陸奥」の砲塔にあった薬莢の砲金が使われており、この陸奥という超ドレッドノート級戦艦は広島湾で爆沈し、戦後に引き揚げられました。鐘には宗教的文様に加えて、回天搭乗員の久住宏さんの遺書からの引用が刻まれています：「南洋の海の底で安らかに眠りたいと願う。」

回天顕彰会は、ここで慰霊祭を毎年 11 月の第二日曜日に行っています。この日付は、菊水隊が最初に回天出撃した 1944 年 11 月 8 日に合わせて選ばれました。

日本の終戦記念日である 8 月 15 日には、徳山ユネスコ協会の代表者も訪れ、平和を祈願して鐘を打ちます。

【タイトル】 大津島内/回天訓練基地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93 식 어뢰 발사 시험장(가이텐 훈련 선창)

이곳 선창은 해저의 평탄화 작업을 한 후에 선창을 지탱하기 위한 거대한 콘크리트 말뚝(케이슨)을 설치해서 건설하였습니다. 1933 년부터 1944 년 말까지 이 선창은 산소가 원동력인 93 식 어뢰(수상발사형 무인 어뢰)의 발사 시험장의 기능을 했습니다.

93 식 어뢰는 바다를 향해 서쪽을 향해 직진 30 킬로미터로 발사됩니다. 어뢰의 항행 상황은 시험장 2 층과 바로 뒷산 위에 있는 어뢰 관측소에서 감시합니다. 어뢰를 수중으로 내리기 위한 리프팅 슬링은 선창 오른쪽 건물 안 승강구를 통해 사용합니다.

이 승강구들은 오즈시마 섬이 가이텐 탑승원들의 훈련 기지가 된 1944 년 9 월 이후에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93 식 어뢰보다 길이가 6 미터 가깝게 길고 폭이 40 센티미터 정도 크기 때문에 가이텐은 이전 승강구로는 수용할 수 없어졌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신 가이텐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선창 반대쪽 수중에 내려졌습니다. 지금도 크레인의 녹슨 금속기초의 흔적이 콘크리트에 덮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93 식 발사장은 가이텐을 보수하고 미세 조정할 때 이용되었습니다.

가이텐 탑승원들은 훈련 중 여러 코스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루트는 섬 반대쪽에 위치한 정비공장을 출발한 후 6 킬로미터를 왕복하는 직선 코스였습니다. 이 선창에서 출발하는 루트는 3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섬들을 일주하는 짧은 코스, 오즈시마 섬 북쪽의 반을 일주하는 코스 오즈시마 섬의 작은 남쪽 부분인 바지마(馬島) 섬을 일주하는 코스입니다. 어떤 코스를 선택하든 정비공장에 도착합니다.

대규모 보수 공사가 1995 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염분을 포함한 습한 공기로 철근 콘크리트 내부의 철골 구조가 심하게 부식되어 구조 중 일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3 식 발사용 탑승구 주변은 펜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九三式魚雷発射試験場（回天訓練棧橋）

この棧橋は、海底を平らにならし、棧橋を支えるための巨大なコンクリート杭を設置して建設されました。1939 年から 1944 年末まで、この棧橋は酸素を動力源とする九三式魚雷（水上発射型の無人魚雷）の発射試験場として機能しました。

九三式魚雷は海に向かって西方向にまっすぐ 30 キロメートル発射されます。その航行状況は試験場の 2 階とすぐ後方の山の上にある魚雷見張所から監視されました。魚雷を水中に降ろすための吊り索は、棧橋右側の建物の中にある 2 つの昇降口から使われました。

これらの昇降口は、大津島が回天搭乗員の訓練基地になった 1944 年 9 月以降は余分なものになりました。九三式魚雷よりも長さが 6 メートル近く長く、幅が 40 センチ大きいため、回天は以前の昇降口には収まらなかったのです。代わりに、回天はクレーンを使って栈橋の反対側の水中に降ろされました。クレーンの錆びた金属の台座跡が今でもコンクリートに埋まっているの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古い九三式発射場は、回天のメンテナンスと微調整に使われていました。

回天搭乗員たちには、訓練の際にいくつかの選択肢がありました。最も簡単なルートは、島の反対側にある整備工場から出て 3 キロ、戻って 3 キロの直線コースでした。この栈橋から出発するルートは 3 つありました：南にある 3 つの島群を周回する短いコース；大津島の北半分を周回するコース；大津島の小さな南部（馬島）を周回するコースです。いずれのルートも、整備工場に到着します。

大規模な修復工事が 1995 年に行われました。湿った塩分を含んだ空気が鉄筋コンクリート内部の鉄の骨組みをひどく腐食させるため、構造の一部は安全ではありません。そのため、九三式発射用の昇降口の周辺はフェンスで囲ま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大津島内/回天運搬用トンネル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

가이텐 운반용 터널

이 터널은 섬 동쪽의 기지 부지 중심에 있는 정비공장과 섬 서쪽의 발사시험장 사이로 어뢰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93 식 수상발사어뢰와 이후의 가이텐 유인어뢰에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터널의 길이는 247 미터, 높이는 4 미터입니다. 이전에는 단선 레일만 통했습니다. 터널 중앙 부분을 단거리 복선 레일을 깔기 위해 넓히고 북쪽 레일에는 3 기의 가이텐이 발진 준비를 마친 후 상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이텐은 트롤리에 실어 레일을 따라 밀어서 운반했습니다.

가이텐 작전의 최전성기에는 2 번째 복선 철도가 터널 외곽을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이 외곽 철도는 남아있지 않지만, 선로를 깔기 위해 표면을 평편하게 만들기 위해 돌 위에 시멘트를 깔았던 흔적은 여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일은 전후 금속 부족을 겪을 때 철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터널 중심부 벽에 걸려 있는 거대한 흑백 사진 속에는 전시 중에 오즈시마 섬의 풍경이 담겨있습니다. 상반부가 흰색으로 칠해진 훈련용 가이텐(수중에서 고장난 경우에 바로 발견하기 위한 도색)과 터널 입구에 편안하게 서 있는 정비원들의 단체 사진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은 섬을 떠나는 가이텐 탑승원들의 사진일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탑승원들이 가이텐을 탑재한 잠수함을 향해 보트에 타는 동료들 사이를 걸어가 선창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에는 그들이 잠수함 갑판에서 해안가에 있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回天運搬用トンネル

このトンネルは、島の東側にある基地敷地の中心部にある整備工場と、島の西側にある発射試験場の間で魚雷を効率的に運搬するために建設されました。九三式水上発射魚雷と、その後の回天有人魚雷の両方に使用されました。

トンネルの長さは 247 メートル、高さは 4 メートルです。以前は単線のレールが通っていました。トンネルの中央部分は短距離の複線レールを敷くために広がっており、北側のレールには 3 基の回天が発進準備を整え常時設置されていました。回天は台車に乗せられ、レールに沿って運ばれました。

回天作戦の最盛期になると、2 組目のレールがトンネルの外側に沿って敷設されました。外側のレールは 1

本も残っていませんが、レールを敷く平らな面を作るために岩の上に盛られたセメントの跡が今でも確認できます。レールはおそらく戦後の金属不足の際に撤去された可能性があります。

大きな白黒写真がトンネルの中心部の壁に取り付けられており、戦時中の大津島の風景が写っています。上半分を白く塗装した訓練用の回天（水中で故障した場合に見つけやすくするため）や、トンネルの入口に立つ整備員たちの何気ない集合写真などがあります。おそらく最も目を引くのは、島を離れる回天搭乗員たちの写真でしょう。1枚の写真では、搭乗員たちは回天を搭載した潜水艦に向かう艦載艇に乗り込むために仲間たちの間を歩いて栈橋を下っています。もう1枚の写真では、彼らは潜水艦の甲板から岸にいる仲間たちに別れを告げています。

【タイトル】 大津島内/回天整備工場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
가이텐 기지

가이텐을 이루는 대부분의 건물은 현재 지역 소학교 부지에 남아 있습니다. 전후 해안선은 매립되어 약 20 미터 정도 확장되었습니다. 학교 앞 도로를 따라서 녹슨 철제 볼라드가 여럿 있습니다. 이것은 가이텐 기지와 과거 해안선이었던 곳의 경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과거 부지 내에 많았던 건물 중 3 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현재 페리 선착장에서 안으로 가는 순으로 변전소(사각형의 회색 건물), 위험물 저장소(언덕 비탈에 서 있는 방폭 터널형 지붕 건물), 점화 시험장(붉은 기와 지붕을 한 건물)입니다. 큰 건물들(정비공장, 병영, 정비공 숙소 등)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지 부지의 육지 방향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던 극비 활동을 민간인에게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지 내 가장 안쪽의 돌계단에 ‘지옥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별칭을 붙인 것은 탑승원들이 훈련의 일환으로 이곳을 오르락내리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단은 기지 부지의 중심부와 장교 숙소 및 하사관 숙소를 이어주고 있었지만, 이 숙소들은 언덕을 계속 올라가서 현재의 가이텐 기념관이 있는 장소 부근에 있었습니다.

수상비행기 격납고와 선양장은 현재의 페리항 부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이텐을 탑재한 잠수함을 향하여 단정에 승선하기 위해 가이텐 탑승원들이 이용했던 좁은 선창은 현재의 학교 체육관과 나란히 있습니다. 부지의 대부분은 3 채의 거대한 정비 공장이 점거하고 있었고 이 공장은 병영과 정비공 숙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정비공장 중 하나는 바다를 향해 돌출되어 있고 시험과 훈련을 위해 가이텐을 물속에서 내렸다 올리기 위해 갠트리크레인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日本語仮訳>
回天基地

回天基地を構成していた建物の大部分は、現在の地域の小学校の敷地内に建っていました。戦後、海岸線は埋め立てられて外へ約 20 メートル広がりました。学校の前にある道を歩くと、錆びた鉄のボラードがいくつかあります。これは、回天基地とかつての海岸線があった場所の境界を示しています。

かつて敷地内にあった多くの建物のうち、3 つだけが残っています。それらは現在のフェリー埠頭から奥へ向かって順に、変電所（四角い灰色の建物）；危険物貯蔵庫（耐爆のトンネル型屋根の、丘の中腹にある建物）；点火試験場（赤い瓦屋根の建物）です。大きな建物（整備工場、兵舎、工員宿舎など）

はすべて姿を消してもう長い時間が経っています。

高い壁が基地の敷地の陸地側を囲んでいます。これは、内部で行われている極秘活動を民間人に一切見ら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ものでした。敷地の一番奥の石段に「地獄への階段」というあだ名があったのは、搭乗員が訓練の一環として上り下り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からです。この階段は、基地敷地の中心部と、将校宿舍と下士官宿舍を結んでいましたが、それらの宿舍は丘をずっと登った、現在の回天記念館がある場所の近くにありました。

水上飛行機格納庫とすべりは、現在のフェリー埠頭に面していました。一方、回天を搭載した潜水艦に向かう艦載艇に乗るために回天搭乗員が使用した狭い栈橋は、現在の学校の体育館とほぼ並んでいます。敷地のほとんどは3つの大きな整備工場で占められており、それらの工場は兵舎と工員宿舍に挟まれていました。整備工場の一つは海に突き出ている、試験や演習のため回天を水中に降ろしたり引き上げたりするためのガントリークレーンが装備されていました。

【タイトル】 大津島内/魚雷見張所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

<韓国語>
어뢰 관측소

단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해발 163 미터의 다테가미야마(蠶山) 산 정상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즈시마 섬에 최초로 군사시설이 들어선 1939 년 당시에는 93 식 어뢰 시험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산소를 동력원으로 고속 및 장거리 운항이 가능했던 93 식 어뢰는 제 2 세계대전 중 가장 기술적이고 최첨단 어뢰였습니다. 1944 년 9 월 전세가 일본에 상당히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시설을 개조하여 가이텐 시험과 가이텐 탑승원의 훈련을 위해 오즈시마 섬 기지가 개설되었습니다.

93 식 어뢰는 히로시마 구레해군공창(呉海軍工廠)에서 제조된 후 시험 및 미세 조정을 위해 오즈시마 섬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어뢰는 어뢰 발사 시험장에서 직진으로 30 킬로미터 서쪽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비교적 해상 교통량이 적었던 세토 내해 지역에 있는 오즈시마 섬은 어뢰 시험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배를 어뢰 궤도에 따라 정점에 배치하고 어뢰가 배 옆을 통과할 때와 어뢰가 주행을 마친 후 해수면으로 떠오를 때 깃발을 올립니다. 이 방법으로 어뢰의 진행 상황을 관측소에서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日本語仮訳>
魚雷見張所

この平屋建ての建物は、標高 163 メートルの蠶山山頂付近にあります。大津島における最初の軍事施設の目的は、1939 年に開設された当初は九三式魚雷の試験をすることでした。酸素を動力源とし、高速で長距離航行できる九三式魚雷は、第二次世界大戦において最も技術的に洗練された魚雷だったとみなされています。1944 年 9 月、戦争の流れが日本にとって断然不利になったときに、施設は改造され、回天の試験と回天搭乗員の訓練のために大津島基地が開設されました。

九三式魚雷は広島の大津島で製造された後、試験と微調整のために大津島に送られました。それらは魚雷発射試験場からまっすぐ 30 キロメートル西方向へ発射されました。比較的海上交通量が少ない瀬戸内海のこの地域にある大津島は、魚雷の試験に適した場所でした。船が魚雷の軌道に沿って定点に配置されました。魚雷が船の横を通過したとき、魚雷が走行を終えて海面に浮かんだときに旗が上げられました。このようにして、魚雷の進行状況を見張所から監視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地域番号	024	協議会名	こんびら文化観光推進協議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 (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24-001	金刀比羅宮全体、由緒等	1051	Video/ WEB
024-002	金刀比羅宮 旭社の解説	1101	Video/ WEB
024-003	金刀比羅宮 表書院の解説	1234	Video/ WEB
024-004	奥書院の解説	986	Video/ WEB
024-005	旧金毘羅大芝居の全体説明	1252	Video/ WEB
024-006	参拝についての概要、一段目 あと 785 段	770	WEB
024-007	一の坂/灯明堂	537	WEB
024-008	琴陵宥常銅像	375	WEB
024-009	大門 あと 420 段	437	WEB
024-010	宝物館	549	WEB
024-011	桜馬場 あと 415 段	347	WEB
024-012	こんびら狗	588	WEB
024-013	神馬舎	410	WEB
024-014	高橋由一館	531	WEB
024-015	表書院(社務所門)、白書院、奥書院	764	WEB
024-016	神椿 あと 285 段	379	WEB
024-017	旭社	720	WEB
024-018	賢木門あと 143 段/ 一段下がる石段	561	WEB
024-019	お手水について/ 御前四段坂あと 134	432	WEB
024-020	展望台	284	WEB
024-021	御本宮	1080	WEB
024-022	白峰神社 奥社まで 445	674	WEB
024-023	厳魂神社(奥社)	442	WEB
024-024	旭社の概要、建立経緯と特徴	814	WEB
024-025	旭社 テキスト解説 2-6	1484	WEB
024-026	旭社 テキスト解説 7-10	1032	WEB

【タイトル】 金刀比羅宮全体、由緒等

【想定媒体】 Video/WEB

<韓国語>**고토히라궁: 순례자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

‘곤피라산’으로도 알려진 가가와현의 고토히라궁은 조즈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모노누시노카미(자연·영토·생명력을 총괄하는 근원적 신)와 스토쿠 천황의 신격화된 영혼이 모셔져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순례자들은 농업, 상업, 의학, 항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순례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 볼 수 있습니다.

본전으로 가려면 785 개의 돌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이처럼 고된 등반은 신에게 가까워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유명한 랜드마크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77 번째 계단에는 ‘오모테서원’이라고 하는 접견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1659 년경, 중요한 방문객들이 주신관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던 장소로 지어졌습니다. 건물의 담장과 미단이문에는 학과 호랑이, 물살이 거센 폭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명작은 18 세기 화가 마루야마 오묘가 그린 것입니다. 인접한 ‘오쿠서원’의 벽은 또 다른 18 세기의 장인이었던 이토 자쿠추가 그린 갖가지 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오쿠서원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아사히사’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아사히노 야시로(‘아침 해의 신사’라는 뜻)는 628 번째 계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우아한 목조 건물은 1845 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부자의 재정 지원을 받아 마침내 완공되기까지 40 년이 걸린 건물입니다. 끝서까래와 처마 아래 목조부에는 구름과 용을 비롯한 여러 가상과 실제 생물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신사의 본당 지붕은 전통적인 노송피로 만든 팔작지붕입니다. 본당의 내외부는 금가루를 흩뿌린 우루시(옻칠) 기법으로 표현한 벚꽃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본당에서 풍경을 내려다보면 푸르른 사누키 평야가 펼쳐집니다. 저 멀리에는 세토 내해와 원뿔 모양의 이이노산도 보입니다. 이 산은 후지산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 ‘사누키 후지’라고도 불리죠.

고토히라궁에서는 일 년 내내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10 월에 열리는 사할간의 가을 축제 기간에는 이틀에 걸쳐 신사의 신들을 모신 가마 신사가 거리를 행진합니다. 1 월 첫 사할 동안, 약 50 만 명의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드리러 본전을 찾습니다. 오모테서원 경내에서는 신사의 승려들이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차며 이어 가는 의식인 ‘케마리’를 선보입니다. 이는 천 년 전 궁중에서 인기 있는 놀이였으며, 1974 년에 가가와현 무형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토히라궁은 순례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지금도 종교와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参拝者と芸術家の心を動かす場所

「こんぴらさん」と親しまれる香川県の金刀比羅宮は、香川県の象頭山の斜面に位置している。金刀比羅宮では大物主神と崇徳天皇の神霊が祀られている。数世紀に渡って、農業・殖産・医療・海上安全の成就を祈願する巡礼者が訪れてきた。今なお来訪者は、幾世紀にも渡って参拝者たちが歩んだのと同じ道を辿ることができる。

御本宮への道は 785 段の石段が続く。この厳しい登坂は、神々に近づく準備として心身を清める意味合いを持つ。

この参拝路は数々の名所を通る。例えば 477 段目には表書院と呼ばれる応接の場がある。ここは住職との謁見を待つ要人の待合所として 1659 年頃に建てられた。建物の襖や壁には鶴、虎、流れ落ちる滝が描かれている。これらの躍動感あふれる傑作はいずれも 18 世紀の画家・円山応挙の作品である。隣接する奥書院の壁面には、同じく 18 世紀の巨匠・伊藤若冲により様々な花の絵が描かれている。奥書院は特別な場合のみの公開となっており、拝観できる機会は貴重である。

628 段目には、旭社（「あさひのやしろ」だが、「あさひしゃ」とも通称される）がある。この風格ある木造建築は 1845 年に建てられたものである。数千人からなる寄進による資金援助によって実現したこの建造には 40 年を要した。軒下の尾垂木や木工細工には、雲や龍や、実在するものから想像上のものまで様々な生物が、精巧に彫り込まれている。

御本宮は入母屋造り屋根で、伝統的な檜皮葺きが施されている。御本宮の内外には、金粉を散らした漆塗りで描かれた桜の花が装飾されている。

御本宮からは、緑豊かな讃岐平野を見渡すことができる。遠くには瀬戸内海とともに、円錐形の飯野山が見える。飯野山はその姿が富士山に似ていることから「讃岐富士」とも呼ばれる。

金刀比羅宮では年間を通じて様々な祭事や文化的な行事が催される。3 日間かけて行われる 10 月の例大祭では、二日間に渡って祭神を乗せた神輿の渡御が行われる。正月三が日には、およそ 50 万人ほどの参拝者が訪れ、御本宮まで登り、お詣りをする。表書院の境内では、神職による蹴鞠（けまり）の実演が行われる。これは千年以上前に宮廷で親しまれた鞠を蹴る遊神事であり、1974 年に香川県の無形民俗文化財に指定された。参拝者にとっても地域の人々にとっても、金刀比羅宮は今なお宗教や文化が息づく場所であり続けている。

【タイトル】金刀比羅宮 旭社の解説

【想定媒体】Video/WEB

<韓国語>**아사히노 야시로: 정교한 조각 장식이 새겨진 신사**

아사히노 야시로는 시코쿠 섬에 있는 가장 큰 목조 신사 건물 중 하나입니다. ‘아사히샤’라고도 알려진 이 맞샤(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는 1845년 가가와현의 아주 유명한 고토히라궁 경내에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은 전국 각지의 기부자 13만 8,000명의 후원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신사 건물의 높이는 25m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본전과 굽은 지붕에는 중국 불교 건축에서 영향받은 양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아사히샤는 본래 치유와 의술을 관장하는 불교의 신을 모시기 위해 세워졌으나, 19세기 후반에 신사(神社)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은 신토(신도, 일본의 전통 종교)의 가장 오래된 여러 신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아메노 미나카누시(일본 신화에서 우주의 중심이자 최초의 신)를 비롯하여 여러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신사 건립에 참여한 이들은 아사히샤에 도자기 기와 지붕을 씌우려고 했으나, 너무 무거워질 것을 우려하여 그 대신 가벼운 동판 약 10,000장을 사용했습니다. 기와처럼 보이도록 동판을 손으로 하나하나 다듬었습니다.

건물의 목조 표면 대부분에는 화려한 조각이 새겨졌습니다. 돌출된 처마 아래의 평평한 표면에는 소용돌이치는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고, 끝서까래에서는 조각된 용과 다른 여러 생물이 길게 뻗어 나오며, 측면 판재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에는 물과 연관된 동물을 새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화재에 대비한 부적의 의미였습니다. 상단 박공에도 상서로운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학이, 다른 쪽에는 거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판문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교의 신선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상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불사의 힘을 지닌 존재로서, 종교 건축에서 영감을 주는 예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곳에 조각 장인들은 투각 기법을 사용해 부조를 제작하여, 공기와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틈을 만들었습니다. 방 내부에는 본전을 둘러싼 수평보 사이에 십이지 동물을 새겨 넣었습니다. 동물들은 방문객들이 들어왔을 때 마치 그들을 주시하는 것처럼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사의 정교한 건축에는 멀리 떨어진 아키타현에서 공수한 100여 개의 느티나무 대들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층 건물의 막대한 하중은 상층부에 숨겨진 영리한 외팔보 구조로 지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앙의 기도 공간은 순례자들과 신사에 모셔진 신들 사이를 방해하는 중앙 기둥 없이 널찍하고 개방감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아사히샤는 1982년에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고토히라궁은 훌륭한 건축물과 조각 문양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0년에 가까운 시간은 건물에도 세월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현재, 흰개미와 습기로 인한 손상을 보수하기 위한 야심찬 18개년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日本語仮訳>

旭の社：彫刻の施された社

旭社（あさひのやしろ）は、四国最大級の木造社寺建築の一つである。「あさひしゃ」とも呼ばれるこの末社は、1845年に香川県の名所・金刀比羅宮境内に建立された。建立にあたっては、全国から13万8千人もの寄進が寄せられた。

社殿は25メートルの高さになる。開放的な主殿と曲線を描く屋根は中国仏教建築様式の影響を受けている。というのも、旭社はもともと医療と医薬の仏尊を祀るため建立されたが、19世紀末に神社の様式に改められている。現在では、神道神話において最古の神々の一柱とされる天之御中主をはじめ、多くの神々が祀られている。

旭社は建築当初は瓦葺きが計画されていたが、重量過多を懸念し約1万枚の軽量銅板で葺くことに替えられた。一枚一枚が瓦の形に手作業で成形されている。

建物の見える部分のほぼ全てには精巧な彫刻が施されている。張り出した軒下の空間には渦巻く雲模様が施され、尾垂木からは龍など様々な生物の彫刻が伸び、装飾板では魚が泳いでいる。水に関連する動物は、火除けのお守りとしてこうした木造建築に加えられることが一般的であった。屋根の妻飾りにも縁起の良い意匠が配されている。一方には鶴が、もう一方には亀が彫られている。どちらも長寿の象徴である。

板張りの扉には、自然との調和を体現した道教の仙人の姿が彫られている。こうした図像は、不老長寿や人智を超越した力への憧れとして、宗教建築にしばしば取り入れられた。ここでは、名工たちが浮き彫りに空洞を設け、空気と光を通す穴を創り出した。内部では、主殿を取り囲む横梁の間に十二支の動物が彫られている。動物たちは内側を向き、参拝者が入る様子を観察するかのように見える。

社殿の精巧な構造には、遠く秋田県から運ばれた100本以上の巨大なケヤキ材が用いられている。この多層建築の重みは柱ではなく、上階に巧みに組み込まれた桔木の仕組み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る。これにより中央の参拝スペースは高く開放され、中央の柱がないことで参拝者と祀られた神々の間を隔てるものがない。

旭社は1982年に国の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金刀比羅宮はその特筆されるべき建築様式と彫刻の保存に尽力している。現在は、約2世紀にわたる歳月の影響を受けた建物に対し、シロアリや湿気による損傷を修復するための18年間に及ぶ大規模な改修プロジェクトが進行中である。

【タイトル】金刀比羅宮 表書院の解説

【想定媒体】Video/WEB

<韓国語>

오모테서원: 명작으로 가득 찬 방

오모테서원은 가가와현의 고토히라궁 경내에 있는 접견실입니다. 과거에 이곳은 방문객들이 주신관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던 곳이었습니다. 당대의 명화가들이 그린 몰입감 넘치는 작품들 덕분에 방문객들은 즐겁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모테서원은 현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어, 건축물과 자연환경 속에 조화롭게 녹아든 작품을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모테서원은 1659 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경사가 가파른 노송과 지붕널로 된 팔작지붕이 있는데, 이는 전통 일본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내부에는 미단이문으로 구분된 일곱 개의 방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을 닫으면 방문객들은 작품에 둘러싸이게 되고, 문을 열면 정원 풍경이 관람 경험에 어우러지게 됩니다.

문간방에는 편백나무에 앉아 쉬고 있지만, 금방이라도 먹이를 던칠 듯이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가 그려진 그림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모리 간사이가 그린 이 역동적인 작품은 금박 위에 먹으로 그려졌습니다. 그가 활용한 스타일과 주제는 전임자이자 다음 다섯 개 방에 그림을 그린 마루야마 오쿄의 것과 유사했습니다.

18 세기 일본 미술은 대체로 표준 형식과 상징적인 이미지로 양식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쿄는 자신이 직접 관찰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우아하고 사실적인 양식을 개척했습니다. 오모테서원에 있는 오쿄의 작품들은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의 방’에 있는 오쿄의 그림에 묘사된 학들은 물속을 헤치며 걷고, 하늘을 날고,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토착종으로, 자연학자에 버금가는 정확함을 바탕으로 묘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방으로 가보면, 호랑이들이 벽 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일본 토착 동물이 아니며, 오쿄가 살아 있던 당시 일본에는 살아 있는 표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보존 처리된 가죽과 흔히 접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인 집고양이를 참고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곱 현자의 방’에 묘사된 중국 현자들은 작품 활동을 하고 철학적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먹의 농담 조절이 돋보이는 대나무 숲은 공간감의 착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숲 한가운데에서, 현자들과의 대화에 참여 중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산 경관의 방’에는 가장 높은 지위의 손님들만 앉을 수 있었던 높은 좌석 공간이 있습니다. 벽화에는 거센 폭포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는 오쿄의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벽에 묘사된 물줄기는 바깥 정원에 있는 연못으로 매끄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라타 단료의 그림이 있는 두 개의 방도 이와 비슷한 몰입 효과를 일으킵니다. 한쪽 방에는 말 위에 올라탄 전사들의 모습이, 다른 쪽 방에는 안개 낀 후지산 풍경이 그려져 있어

두 방 사이의 칸막이를 열면 언덕에서 사냥 모임을 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오모테서원의 작품은 사무라이 시대 당시 그대로 남아 있으며, 미술관처럼 유리 진열장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물과 주변 풍경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모든 방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오감으로 느껴 보세요. 피부에 와닿는 산들바람, 물이 흐르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합쳐져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024-003

<日本語仮訳>

表書院：芸術的傑作が並ぶ境内建築

表書院は、香川県の金刀比羅宮の境内にある迎賓館である。かつては重要な来賓が住職との謁見のためここで待機した。待機時間は、当時の名匠による没入感あふれる芸術作品によって和まされた。現在表書院は一般公開されており、建築と自然環境と調和した芸術作品を鑑賞できる。

表書院は1659年頃に建てられた。入母屋造の屋根に檜皮葺きという、日本の伝統建築に共通する特徴を備えている。内部は七つの部屋が襖で仕切られた構成になっている。各部屋は、閉じて彫刻や襖絵などの芸術作品に囲まれることも、開け放って庭の景色を鑑賞体験に取り込むことも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入口には、檜に止まり、獲物に襲いかかるかのように翼を広げた鷺の絵が飾られている。この躍動感あふれる構図は、森寛斎による金地墨絵である。彼は先人である円山応挙と同様の作風と画題を用いており、次の5つの部屋にはその応挙の描いたものがある。

18世紀の日本の美術は、標準的な形式と象徴的なイメージで様式化されるのが一般的となっていた。しかし、円山応挙は直接自然を観察した際の閃きから、優雅で写実的な画風を開拓した。表書院に描かれた彼の作品は国の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

鶴の間では、応挙は水辺を歩く鶴、飛翔する鶴、眠る鶴を描いた。よく見ると、これらは異なる在来種であり、いずれも博物学者のような正確さで表現されている。

隣の間では、虎が壁を徘徊している。虎は日本に生息しておらず、応挙の時代には生きた個体は存在しなかった。そのため、彼は毛皮や身近な近縁種である猫をモデルにしてこの絵を描いた。

七賢の間では、中国の賢人たちが芸術を創作し、哲学的な議論を交わす様子が描かれている。竹林の濃淡を墨で表現することで奥行き感が創出され、鑑賞者はまるで賢人たちとの対話に加わっているかのように、竹林の中心に置かれる効果を生んでいる。

山水の間には、最高位の賓客のみ着席できる高座が設けられている。壁面に描かれた滝とその激しい飛沫は、応挙の最高傑作の一つである。壁に描かれたこの水流は、外の庭園の池へと途切れることなく流れ込むかのようにも見える。

邨田丹陵の絵が飾られた二つの部屋は、同様の没入感を生み出す。両室の間にある屏風を開けると、片方の部屋に描かれた騎乗姿の武者と、もう片方の部屋に描かれた霧に包まれた富士山の風景が融合し、山麓での狩猟の様子が表現されている。

表書院の芸術作品は、武士の時代の姿を留めている。それは博物館のガラスケースに隔離されることなく、建物と景観に溶け込んでいる。各部屋は単に見るだけでなく、そよ風や水音、風の音、きしむ床板の音と不可分な体験として感じられる。

【タイトル】 奥書院の解説

【想定媒体】 Video/WEB

<韓国語>

오쿠서원: 숨은 보물들의 보고

가가와현의 고토히라궁은 명화와 장인들의 훌륭한 작품이 탄생한 곳입니다. 수많은 뛰어난 작품 중에서도 오쿠서원이 소장한 귀중품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전시됩니다. 방에 있는 대부분의 벽과 문에는 정교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1659 년경에 지어진 오쿠서원은 본래 주신관의 거처였습니다. 오쿠서원은 평민부터 고위급 사무라이까지 손님들을 접견하는 공간이었던 인접한 오모테서원보다 아담하고 더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관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들은 오쿠서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오쿠서원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는 ‘연단의 방’으로, 18 세기 명화가 이토 자쿠추의 그림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백화도’입니다. 이 그림에는 수국, 연꽃, 모란, 국화 등 활짝 핀 꽃 201 송이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처럼 자쿠추가 태어난 고토에 흔치 않았던 여러 식물도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백색 바탕에 꽃을 그려 넣었으나, 배경은 나중에 반짝이는 금가루로 덮였습니다.

자쿠추는 그리는 대상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그린 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든 이파리나 벌레 먹은 흔적 등과 같이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쿠서원 동쪽에 있는 두 개의 방에는 목가적인 물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와 기타 동물 그림으로 알려져 있던 19 세기 초 화가 간타이의 작품입니다. 그중 하나의 방에는 그의 작품 ‘물가의 버드나무와 흰 왜가리’가 걸려 있는데, 왜가리들이 날아올라 늘어진 버드나무잎을 가로질러 얇은 물가에 내려앉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옆방에는 간타이의 작품인 ‘물가의 꽃과 새’가 걸려 있습니다. 수생붓꽃과 활기 넘치는 물새들이 어우러져 한여름의 다채로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총새가 먹이를 잡으려 물에 뛰어드는가 하면, 이끼로 뒤덮인 땅을 따라 뿔내며 걷는 도요새도 보입니다. 뒤통거리거나 획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에서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같은 방의 위쪽 판자 4 개에 그려진 그림에는 400 여 마리의 나비 떼가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지 자연학자가 수집한 표본을 바탕으로 이 나비들을 그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활기차 보이는 그림 속 나비들은 아래에 평야와 산이 내려다보이는 실제 정원 쪽을 향해 떼 지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쿠서원은 1955 년에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그려진 자연 풍경과 담장 밖의 실제 경관이 어우러진 오쿠서원은 고토히라궁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움의 보고 중 하나입니다.

<日本語仮訳>

奥書院：秘蔵の宝が眠る館

香川県の金刀比羅宮には、芸術家たちの傑作が数多く収められている。数ある優れた芸術品の中でも、奥書院と呼ばれる境内建築にある宝物は特別な機会にのみ公開される。その中のほとんど全ての壁や襖が精巧な絵画で飾られている。

1659 年頃に建立された奥書院は、元々は住職の住居として使用されていた。表書院が庶民から高位の武士まで客人を迎える場であったのに対し、奥書院はより小規模で親密な空間となっている。住職の個人的な友人は、この奥書院で歓待された。

奥書院で最も有名なのは主室で、18 世紀の巨匠・伊藤若冲の作品を飾っている。この作品『百花の図』には、アジサイ、ハス、シャクヤク、キクなど、201 点もの鮮やかな開花植物が描かれている。そこには、京都出身の若冲には珍しかったはずの熱帯のハイビスカスなども含まれる。これらの花々は当初真っ白な背景に描かれていたが、後にその白地にきらめく金砂子が施された。

若冲は描く前に対象を丹念に観察することで知られていた。彼の花々を注意深く観察すると、枯れかけた葉や虫食いの跡といった、自然のままの不完全さが表現されている。

奥書院の東側にある二つの部屋には、のどかな水辺の情景が描かれている。これらは 19 世紀初頭の画家・岸岱による作品で、彼は鳥や動物を描くことで知られていた。ある部屋では『柳に白鷺の図』が描かれており、鷺が飛び立ち、しだれ柳の葉の間を舞い抜け、浅瀬に降り立って狩りをする様子が表現されている。

隣接する部屋は、岸岱の『花菖蒲に水禽の図』で彩られている。水辺には菖蒲が咲き、水鳥たちが躍動する真夏の情景が広がる。カワセミが獲物を狙って水面に飛び込み、シギが苔むした地面を闊歩する。他の鳥たちがよちよち歩いたり飛び回ったりする様子が、画面に躍動感を与えている。

同じ部屋の上部四枚には、400 匹以上の蝶の群れが緻密に描かれている。岸岱は地元の自然研究者が収集した標本を基にこれらの蝶を描いたと考えられている。絵の中では蝶たちは生き生きと群れを成し、眼下に広がる平野と山々を見下ろす実在の庭園へと飛んでいくように見える。

奥書院は 1955 年に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た。絵画に描かれた自然の情景と、その壁の外に広がる風景との間で、奥書院は金刀比羅宮の美の宝庫の一つである。

【タイトル】旧金毘羅大芝居の全体説明

【想定媒体】 Video/WEB

<韓国語>**가나마루자: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부키 극장**

현지에서는 ‘가나마루자’라고 알려진 구 곤피라 오시바이(‘옛 곤피라 대극장’이라는 뜻)는 가나마루자의 고토히라궁 인근에 있는 역사적인 가부키 극장입니다. 1835 년에 지어진 가나마루자는 일본에서 살아 남은 가장 오래된 가부키 극장이며, 지금도 메이저 제작사의 공연이 상연되곤 합니다.

18 세기 무렵, 고토히라궁은 일본 전체에서 종교 순례자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였습니다. 신사 근처에서는 일 년에 세 차례 시장 축제가 열렸는데,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소극장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공연자들을 모으고 복잡한 연출 기법을 요하는 공연을 상연하려면 상설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무대를 대극장이라는 뜻의 ‘오시바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전역에 이런 극장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오시바이를 세우려면 현지 다이묘(영주)의 공식적인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고토히라 주민들이 대극장 건설 허가를 청하자 현지 다이묘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본래 곤피라 오시바이로 알려졌던 가나마루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나마루자는 1970 년 초반과 2003 년에 복원을 진행한 덕에 여전히 19 세기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객들은 입구에 신발을 벗어둔 채 좌석 칸으로 들어가거나 경사진 다다미 바닥에 모여 앉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공간들을 둘러보는 것은 물론, 무대 위를 직접 걸어보고 무대 뒤편까지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들의 분장실, 연주자들이 머무는 작은 공간, 무대 아래에 미로처럼 이어진 통로 등을 탐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미치’라고 알려진 통로는 좌석 쪽으로 이어져 있어, 배우들이 관객으로부터 겨우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극적으로 등장하거나 퇴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통로 안에 설치된 승강식 무대가 배우들을 소리 없이 바닥 높이까지 들어 올려, 유령이나 닌자 같은 등장인물들이 마치 마법처럼 나타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대 전면에 숨겨진 함정 같은 출입구를 통해 배우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무대에는 장면 변경과 기타 효과를 위해 돌아가는 회전식 무대가 있습니다. 현대 극장에서 이런 기능들은 전동식으로 작동하지만, 가나마루자에서는 지금도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인력으로 무대를 회전시킵니다.

무대와 객석 위에 설치되어 있는 대나무 격자 구조물이 등불과 배경막을 지탱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이 구조물에서 눈이나 벚꽃을 상징하는 종잇조각을 관객 위로 흩뿌리기도 합니다. 또한 ‘가케스지’라고 하는 이동식 트랙이 있어, 배우들이 하네스를 착용하고 관객 위로 날아다니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본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가케스지 중 하나입니다.

이 유서 깊은 공연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최고 수준의 가부키 배우들이 탐내는 무대이며, 봄이 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년 4 월에 전문 가부키 공연이 열립니다. 이는 초기 무대 상연 방식을 이용하며,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가부키를 관람할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입장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가나마루자에서는 가부키 공연 이면의 작동 원리와 장치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극장 애호가나 역사 애호가들에게 가나마루자는 고토히라궁에서 인기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024-005

<日本語仮訳>

金丸座：日本最古の現存する歌舞伎劇場

旧金毘羅大芝居（通称・金丸座）は、香川県の金刀比羅宮近くにある歴史的な歌舞伎劇場である。1835年に建てられた金丸座は現存する日本で最も古い歌舞伎劇場であり、現在も主要な公演に使用されている。

18世紀頃、金刀比羅宮は全国から参拝客が集まる主要な巡礼地であった。年に三度、金刀比羅宮周辺で開催される市祭りでは、娯楽を提供するため仮設の芝居小屋が建てられていた。しかし、一流の役者を招き、複雑な舞台装置を必要とする演目を上演するには、恒久的な舞台が必要だった。このレベルの舞台は大きな劇場という意味で「大芝居」と呼ばれた。大芝居の設立には地元の藩主による公認が必要とされており、全国に存在する大芝居の数は比較的少なかった。幸いにも、琴平の住民が大芝居建設の許可を求めた際、地元の藩主は快諾した。これが金丸座（当初は金毘羅大芝居として知られていた）の始まりである。

1970年代初頭と2003年の修復により、金丸座は19世紀当時の姿をほぼ保っている。観客は今も入口で靴を脱ぎ、敷席席へ向かうか、傾斜した畳の客席に混じる。来訪者はこれらの空間を見学し、舞台の上を歩き、舞台裏にも足を踏み入れることができる。この見学には、役者の楽屋や楽師の小部屋、舞台下の迷路のような場所の探索も含まれる。

「花道」と呼ばれる通路が客席の間を通っており、観客のすぐそばで、役者の劇的な登場や退場が行われる。花道に設けられた昇降台は役者を静かに舞台へ上げ、彼らが精霊や忍者を演じる際に魔法のように現出させることができる。同様に、舞台前方の落とし戸は役者を消え去らせる。本舞台には回転式の舞台装置があり、場面転換や特殊効果に活用される。現代の劇場ではこうした機構は電動化されているが、金丸座では今も地元のボランティアによる人力で操作されている。

舞台と客席の上には竹製の格子が張り巡らされ、提灯や背景幕を支えている。雪や桜を表現した切り紙が、この格子から観客席に散りばめられる演出もある。さらに「かけすじ」と呼ばれる滑車式軌道が設置され、俳優が吊り具を使って観客の上を飛翔する演出が可能だ。こちらは、日本に現存する僅かなかけすじの一つである。

この歴史ある劇場は、現代の歌舞伎界の名優たちにとっては今も憧れの舞台であり、毎年4月に春の訪れを祝う大歌舞伎の公演が行われる。最古の舞台技法と名優たちによる歌舞伎を体感できる貴重な機会であるため、公演のチケットは貴重な商品となっている。

金丸座は歌舞伎の隠された仕組みに触れる貴重な機会を提供する。伝統芸能の愛好家にも歴史ファンにも、金丸座は琴平の文化的遺産として愛され続けている。

【タイトル】 参拝についての概要、一段目 あと 785 段

【想定媒体】 WEB

<韓国語>**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1****소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곤피라산’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고토히라궁의 여러 유적지를 돌아보시는 동안 여러분께 해설을 제공해 드릴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이 신사는 조즈산의 동쪽 기슭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코끼리 머리라는 뜻의 ‘조즈’라는 이름이 붙은 조즈산은 그 이름처럼 코끼리의 머리와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고토히라 마을에서 본전까지 가려면 785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그런 다음 583 개의 계단을 더 오르면 이즈타마 신사가 나옵니다. 오쿠사(뒷신사)로도 알려진 곳이죠. 이곳은 오늘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자 이 신사 경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 길을 따라 가면 여러 박물관과 역사 기념물,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흥미로운 장소가 가까워지면 오디오 가이드가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참배객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곤피라산이 정확히 언제 처음 지어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소 3,000 년은 넘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신사는 특히 성지 참배를 주된 이유로 삼아 여행을 떠났던 17 세기와 19 세기 사이에 일본 주변국의 종교 참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곤피라산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시코쿠섬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의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신들 중에는 고대 일본 신화에 기원을 둔 신도 있고, 자연 현상 혹은 역사적 인물의 영혼인 신도 있습니다. 곤피라산 본전에 모셔진 신은 과거 천황의 신격화된 영혼과 바다의 수호자로 여겨지는 신입니다. 곤피라산에는 다른 신들을 모시는 부속 신사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불교 신들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불교 건축 양식을 따른 건축물들을 마주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주변 풍경을 감상하면서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보세요. 다음 오디오에서는 이 순례길의 첫 구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日本語仮訳>**金刀比羅宮：音声ガイド 1****イントロダクション**

ようこそこんにちは。このオーディオガイドは、「こんぴらさん」と金刀比羅宮の数々の名所を巡る旅をご案内します。この神社は、象の頭のような形をしたことから象頭山と名付けられた山の東斜面高台に位置して

います。琴平の町から御本宮まで 785 段の階段があります。さらに 583 段の階段を上ると、奥社とも呼ばれる巖魂神社に到着します。ここが本日の巡礼の最終地点であり、境内で最も高いところにある建物です。

道中には博物館や史跡、さらには生きた動物など、見るべきものが数多くあります。階段を登っていき、興味深い場所に近づくとこのオーディオガイドは自動で再生されます。

あなたがこれから歩み始めるこの道は、かつて幾多の巡礼者たちが歩んできた道です。こんぴらさんがいつからあるかは正確には分かっていませんが、3000 年もの歴史が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金比羅宮には、17 世紀から 19 世紀にかけて、巡礼を旅の主目的とする日本全国から多くの巡礼者が訪れました。以来、金比羅宮は四国を訪れる人々にとって人気の目的地であり続けています。

こんぴらさんには「神」と呼ばれる神道の神々が祀られています。神々の起源は古代日本の神話に遡るものもあれば、自然現象の精霊や歴史上の人物に由来するものもあります。こんぴらさんの御本宮に祀られているのは、過去の天皇の神格化された霊と、海の守護神として信仰されている神です。こんぴらさんには他の神々を祀る末社も多くあります。かつては仏尊も祀られていたため、参道沿いの建造物の中には仏教建築の例も見られます。

どうぞ景色を楽しみながら、登り道をお楽しみください。次のセクションでは、この巡礼路の最初の区間について、詳しくご紹介します。

【タイトル】一の坂/灯明堂

【想定媒体】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2

이치노사카

기념품 가게와 식당이 늘어진 이 구역은 ‘이치노사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몇백 년 동안 상인들은 이 계단 주위에 노점을 열어 참배객들에게 간단한 식사나 기념품을 판매했습니다. 일부 노점에서는 곤피라산에서 가장 유명한 사탕인 ‘카미요 아메’를 판매합니다. 단단한 부채 모양에 유자 맛이 나는 사탕입니다. 이 사탕은 행운을 상징하며, 포장 안에는 사탕을 작게 깨트려 행운을 나눌 수 있도록 작은 망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길의 왼쪽에는 지붕 덮인 보행로처럼 보이는 목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등불이 달린 줄이 매달려 있어 밤에도 길을 환히 비춰줍니다. 이 건축물은 세토 내해 반대쪽에 살았던 목수, 목공, 석공, 미장공, 지붕 수리공 등으로 이루어진 한 상인 무리가 1858 년에 기증한 것입니다. 명판에는 기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도목수들이 못을 사용하지 않고 구조물을 짜맞추는 일본 전통 이음 기법을 사용하여 세운 것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맞춰진 접합부를 통해 이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단 아래의 땅이 평평하지 않은데도 말이지요. 이곳은 선박의 선체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목재로 건립되었는데, 이는 선원 및 바다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신사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 건축물에서 본전까지 617 개의 계단이 남았습니다. 다음 오디오는 곧 도착할 휴게소에서 재생됩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 音声ガイド 2

一之坂

この土産物店や飲食店が並ぶ一角は「一之坂」と呼ばれています。何世紀にもわたり、参拝者に軽食やお土産を売る露店が階段周辺に軒を連ねてきました。いくつかの店舗ではこんぴらさんで最も有名な菓子「神代飴」を販売しています。この扇形の硬い飴は柚子の風味が特徴です。縁起物とされるこの飴には、幸運を分かち合えるよう小さく割るための小さな槌が添えられています。

小道の左側には屋根付きの通路のような木造建築物があります。内部には、夜道を照らすための釣り灯籠がずらりと並んでいます。

この建物は 1858 年に瀬戸内海の対岸に住む大工、木工職人、石工、左官、屋根職人らを含む職能者達によって寄贈された。こんぴらさんは庶民から深く信仰され、寄進者の名前は銘板に記されています。この建物は、熟練の大工の手で、釘を使わず骨組みを組み立てる日本の伝統的な工法によって建造され

ました。階段沿いの地面は平らでないにもかかわらず、接合部がぴったりと合っていることから、彼らの技量が伺えます。建造には船体の木材が利用されており、金刀比羅宮が船乗りや海と深く結びついていることを反映しています。

この建物から御本宮まで、あと 617 段です。次のセクションは、この後にある休憩所で再生されます。

【タイトル】 琴陵宥常銅像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3

고토오카 히로츠네 상

길 오른쪽에는 휴게소가 딸린 작은 공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곤피라산의 제 19 대 최고 신관을 지낸 고토오카 히로츠네(1840~1892)를 기리는 공간입니다. 1800 년대 후반, 일본이 몇몇 서방 국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해상 운송로에 외국 선박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심각한 난파 사고가 발생하자, 히로츠네는 1889 년에 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해상구조대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이 조직은 오늘날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터 저편에 세워진 히로츠네 동상은 19 세기의 구조 장비 전시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일본해상구조대원들은 물론, 일본해상보안청과 해상 관련업에 종사하는 이들 역시 히로츠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곳으로 참배하러 옵니다.

여기에서 본전까지 497 개의 계단이 남았습니다. 다음 음성 안내는 사찰로 들어가는 대문에서 재생됩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 音声ガイド 3

琴陵宥常像

この小道の右側には休憩所のある小さなスペースがあります。この場所は金刀比羅宮第 19 代宮司の琴陵宥常（1840 年～1892 年）を称える空間です。1800 年代後半、日本は複数の西洋諸国と通商条約を締結し、その海路は外国船で混雑するようになった。一連の致命的な難破事故の後、広恒は 1889 年に帝国海上救助協会を設立した。この組織は後に海上救助日本と改称され、現在も活動が続いている。開けた場所の向こう側にある広恒の銅像は、19 世紀の救助装備の展示を見下ろしている。

この時代に、日本の港湾は次々と外国船を受け入れ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した。混雑するようになった海上で相次いだ致命的な難破事故を受け、宥常は 1889 年に大日本帝国水難救済会を設立し、海難事故における人命救助に尽力しました。この組織は現在も日本水難救済会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宥常の銅像は、歴史的な救助装備の展示を見下ろすように立っています。

日本水難救済会の会員たちをはじめ、海上保安庁職員や他の海事関係者も宥常への敬意を表すためこの地へ参拝に訪れます。

ここから御本宮まで、あと 497 段です。次のセクションは大門で再生されます。

【タイトル】 大門 あと 420 段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4

사찰로 들어가는 문, 대문

사찰로 들어가는 문인 대문에는 신을 모신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메나와’라고 하는 새끼줄이 경계선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며, 신사(神社)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끼줄은 이것처럼 정교한 2층 건축물에는 흔히 걸어두지 않습니다. 곤피라산의 대문은 불교 사찰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에 불교 신들을 신토의 신들과 함께 모셨던 1649 년에 세워졌지요. 이 문은 구역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불교 건축물 중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곤피라산이 신토만을 모시는 장소가 되었던 19 세기에 들어서고 난 후 정문에 시메나와 새끼줄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문까지 이르는 길에는 노점들이 늘어서 있지만, 신성한 신사 경내에서는 오직 다섯 가문만이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문대는 대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수백 년 전에 곤피라산의 유명한 사탕, 카미요 아메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다섯 가문의 후손입니다.

대문에서 본전까지 420 개의 계단이 남았습니다. 다음 음성 안내는 박물관에서 재생됩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音声ガイド 4

大門

この大門は、神々の聖域との境界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神社の例に倣い、しめ縄と呼ばれる藁縄が境界線を描いています。しかし、このような複雑な造りの二階建て構造の大門に縄が掛けられることはあまりありません。金刀比羅宮の大門は仏教寺院式の門です。1649年に建立された当時、この地では神道の神々と共に仏尊も祀られていました。この門は、境内随所に見られる仏教建築群の最初のものとなります。大門に注連縄が掛けられたのは 19 世紀、金刀比羅宮が神道だけの地となった時期です。

大門へと続く参道には露店が並んでいますが、神域内で土産物を販売できるのは五つの家に限られています。彼らの屋台は大門の内側に設置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商人は、数百年前に金刀比羅山の名物「神代飴」を作り始めた五家門の子孫です。

大門から御本宮まではあと 420 段です。次のセクションは宝物館で再生されます。

【タイトル】 宝物館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5

보물관

길 오른쪽에는 보물관이 있습니다. 갖가지 귀중한 유물과 기증받은 미술품, 기타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소장품 중에는 한때 수많은 참배객들을 불러 모았던 불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 목조상입니다. 본전 안에 신토의 신과 함께 나란히 모셔졌던 목조상이지요.

보물관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물품 중 하나는 18 세기에 그려진 신사 진입로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이 길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복적이는 군중 속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활동을 하는 모습도 담겨 있죠.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르기에 앞서 몸을 씻어 정화하는 참배객들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시물로는 사무라이 갑옷과 검 같은 귀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곤피라산은 항해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 바다와 관련된 물품이 많습니다. 조선 회사가 기증한 정교한 모형 보트처럼 말이지요.

보물관 건물 그 자체는 전통 박공 양식의 입구와 화강암 외벽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일본과 서양의 건축 요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쿠루 마사미치가 설계하여 1905 년에 완공한 곳입니다. 쿠루가 설계한 1893 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의 일본 전시장은 유명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 건축에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편하게 보물관에 입장하여 감상해 보세요. 참배길로 돌아오시면 음성 안내가 다시 재생됩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音声ガイド 5

宝物館

この道の右側には宝物館があり、貴重な工芸品、寄進された美術品など様々な品々が展示されています。

収蔵品には、かつて無数の巡礼者がお詣りした仏像も含まれています。最も注目すべき例は、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の木像です。この像はかつて、御本宮の神々と近いところで祀られていました。

宝物館で最も有名な品の一つは、18 世紀に描かれた参道の絵です。この作品では様々な活動に励む人々で賑わう参道の様子が細く描き込まれています。例えば、参拝前に身を清めるため沐浴する巡礼者も描かれています。

その他の展示品には、武士の鎧や刀といった貴重な品々も並んでいます。こんぴらは海事とのゆかりがあるため、造船業者から寄進された精巧な模型船など、海に関連する品も多く収蔵されています。

宝物館の建物自体は、伝統的な切妻造りの玄関と花崗岩の外壁が組み合わせられるなど、日本と西洋の建築様式の融合が見られます。設計は久留正道が手掛け、1905 年に完成しました。久留が 1893 年のシカゴ万国博覧会に設計した日本館は、著名な建築家フランク・ロイド・ライトが日本建築に興味を持つきっかけと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宝物館へどうぞお入りください。オーディオガイドの続きは、参拝路に戻ってからとなります。

【タイトル】 桜馬場 あと 415 段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6

사쿠라 바바

곤피라산 사찰로 들어서는 대문에서부터 이어지는 150m 길이의 이 자갈길은 ‘사쿠라 바바’라고 불립니다. 매년 봄이 되면, 길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를 보러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박물관에 있는 18 세기의 신사 경내 그림에는 이 구역에서 사케를 홀짝이는 사람들과 벚나무 아래에서 쉬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벚나무를 따라 이어지는 길가에는 글자가 새겨진 석주와 등불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이 기념물들은 각각 신사에 대한 거액의 기부를 기리는 것으로, 기부자의 이름과 지역, 기부 금액, 날짜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의 석주 대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것이지만, 세월이 마모되고 이끼로 뒤덮인 훨씬 오래된 비석들도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사쿠라 바바 끝에 다다르면 계단이 몇 개 더 나옵니다. 맨 위에 도착하시면 강아지 동상을 찾아 보세요.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音声ガイド 6

桜馬場

こんびらさんの大門から延びる 150 メートルの石畳の道は桜馬場と呼ばれています。道の両側の桜並木を楽しみに、毎年の春になると数千もの人が訪れます。実際、宝物館にある 18 世紀の境内を描いた絵には、この場所で酒を酌み交わし、桜の木陰でくつろぐ人々の姿が描かれています。

桜並木沿いには文字が彫られた石柱や灯籠も並んでいます。これらは神社への主な寄進を記したもので、寄進者の名前と地域、寄進額、寄進年月日などが刻まれています。桜馬場には比較的新しいものが多いですが、歳月で磨耗し苔に覆われた古い石柱もまた見られるでしょう。

桜馬場が終わると、また登りの階段です。頂上では、犬の銅像に注目ください。

【タイトル】 こんびら狗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7

곤피라견 동상

곤피라견 동상이 계단 구간의 시작점에서 마치 기다리듯 앉아 있습니다. 귀엽고 만화 같은 모습을 한 이 동상은 삽화가 유무라 테루히코가 제작한 것으로, 충직한 개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세워졌습니다. 곤피라견은 신사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 대신 신사에 기부금을 전하러 보내졌던 네 발 달린 참배객이었습니다. 개의 주인은 신사의 이름과 본인 집 주소를 적은 목걸이, 그리고 이동 경비와 신사에 전달할 기부금을 담은 주머니를 개의 목에 매달았습니다. 곤피라견은 다른 참배객들과 함께 이동했으며, 기부를 하고 난 뒤 개는 여러 여행자를 거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무라가 제작한 동상의 개 이름은 ‘곤’입니다. 목에 걸린 표지판에는 “고토히라궁으로 참배하러 가는 중, 시험 합격을 기원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빠서 책상 앞을 떠날 수 없는 학생을 대신해서 충직한 개가 여행을 떠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곤피라견은 신사에서 판매하는 수호 부적, 소원 나무판, 기념품 속에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독특한 역사 덕분에, 현재 곤피라산은 애견 친화적인 신사입니다. 목줄을 맨 개는 신사 경내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건물 내부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터 주변에 볼거리가 많으니, 계단을 더 올라가시기 전에 이곳저곳 둘러보세요. 다음 음성 안내는 다카하시 유이치 박물관과 신성한 말들의 마구간에서 재생됩니다. 두 곳 모두 이 구역에 있습니다. 이 두 곳 다음으로 방문할 장소는 이 계단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音声ガイド 7

こんびら狗

階段の下には「こんびら狗」の銅像が待ち構えています。イラストレーターの湯村輝彦氏が、忠実な犬たちを記念するために、親しみのあるコミカルなデザインを手がけました。こんびら狗とは、自ら金刀比羅宮へ参拝できない人々に代わって寄付を届けるため派遣された四本足の巡礼者です。飼い主は犬の首輪に神社名と自宅住所を記し、旅費と神社への寄付金を入れた袋を付けました。こんびら狗は他の巡礼者と共に旅をし、寄付を届けた後は旅人から旅人へと預け渡され、最終的に飼い主の元へ帰還したのです。

湯村氏が作った像の犬の名前は「ゴン」。首輪には「金刀比羅参り 受験合格祈願」と記されています。これは、机から離れられない学生に代わって、忠実な犬が巡礼の旅に出た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金刀比羅の

犬たちは、お守りや絵馬など、神社が提供する様々な授与品にもかたどられています。

こうしたユニークな歴史から、金刀比羅宮は犬に優しい神社です。社殿内への入場こそ禁止されているものの、境内はリードにつながれた状態であれば犬の立ち入りが可能となっています。

この広場周辺には見どころが多数あります。階段を上る前にぜひ周囲をご覧ください。次のオーディオガイドは高橋由一館と神馬舎付近で再生されます。いずれもこのあたりに位置しています。これら二か所を過ぎた先の階段頂上が次の見学スポットとなります。

【タイトル】 神馬舎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8

신성한 말

이곳 마구간에는 곤피라산의 신성한 말인 ‘신메’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신메는 오직 신토의 신들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러집니다. 제의 등을 위해 신들이 다른 장소로 옮겨질 때 이 신메에 안장을 엮는데, 바로 그 안장에 신이 올라탄다고 여겨집니다. 신메의 안장에 사람이 올라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관습이 더 흔했으나, 오늘날 신메를 계속 두고 있는 곳은 곤피라산을 포함해 몇몇 신사뿐입니다. 특정 품종이 신성시되는 것은 아니며, 신사에 기증된 말들 중에서 신메가 선정됩니다. 말을 봉납하는 풍습은 약 1,300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대체로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거나 중요한 기도를 올릴 때 행해졌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참배객들은 실제 말 대신 작은 말 조각상이나 다른 그림들을 봉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린 말이라는 뜻을 가진 소원 나무판인 ‘에마’를 봉납하는, 현재 널리 퍼진 관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곤피라산을 비롯한 많은 신사에서 말 등의 문양이 그려진 소원 나무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 : 音声ガイド 8

神馬舎

ここには、金刀比羅宮の神馬——「しんめ」がいます。神馬とは、神道の神だけに仕える特別な馬のことです。神が儀式的に別の場所へ渡御される際、この馬に鞍が据えられ、その上に神が乗られるとされています。神馬の鞍に、人が腰かけることは決してありません。

こうした慣習は以前はより一般的であったものの、金刀比羅宮は今も神馬を有する数少ない神社の一つとなっています。神馬は特定の品種と決まっているわけではなく、神社に奉納された馬の中から選ばれます。馬を奉納する習慣はおよそ 1300 年前に遡り、大きな出来事の記念としてや重要な祈願に合わせて行われてきました。

後世になると、本物の馬に代わって馬の像やその他の形のものを奉納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が現在広く普及している「絵馬」(えま)と呼ばれる奉納板の起源です。絵馬とは「描かれた馬」を意味します。馬や他の図柄が描かれた絵馬は、金刀比羅宮を含む多くの神社で授与されます。

【タイトル】 高橋由一館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9

다카하시 유이치 박물관

이 박물관에는 다카하시 유이치의 유화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카하시 유이치는 1828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거의 200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양 미술에 익숙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다카하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온 문화적 영향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유화에 특히 흥미를 보였습니다. 일본 전통 미술은 정형화된 경향이 있었지만, 다카하시는 유화 기법으로 구현되는 사실주의적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일본 예술가들 사이에서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예술가들의 지도를 통해, 그는 유화 기법을 익히고 기량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다카하시는 일본의 유명한 장소, 염장 생선이나 두부 같은 일상적 소재 등 익숙한 것을 소재로 한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림으로써 일본인들 사이에 유화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다카하시는 1880년부터 1881년까지 고토히라 마을에 머물면서 신사의 최고 신관들의 초상화와 ‘고토히라산 원경’이라는 작품처럼 현지 풍경을 담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신사는 현재 다카하시의 그림 27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을 계속하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 마음껏 둘러보세요.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 音声ガイド 9

高橋由一館

この美術館では高橋由一による油絵作品を常時展示しています。高橋は1828年に生まれました。当時、日本は約200年に渡って海外との交流をほぼ断っていたため、西洋美術はほとんど知られていませんでした。しかし高橋が青年になった頃には状況は変わり始め、欧米からの文化的影響が根付き始めていました。新たな芸術の形に触れた高橋は特に油絵に興味を抱きました。日本の伝統美術は様式化された表現が多いのに対し、高橋は油絵具で表現できる写実性に魅力を感じていました。

彼はこうした表現における日本人画家の先駆者となりました。海外から訪れた画家の指導のもと、油彩技術を学び、その腕を磨きました。また、日本の名所や干物・豆腐といった身近なものを題材にした風景画や静物画を制作しており、油絵が国内に広まる一助となりました。

高橋は 1880 年から 1881 年にかけて琴平町に滞在しており、その間、宮司の肖像画を描き、『琴平山遠望図』などの作品で地域の風景を描きました。現在、神社は彼の絵画 27 点を所蔵しています。ご参拝の途中で、どうぞお気軽に中に入ってください。

【タイトル】 表書院(社務所門)、白書院、奥書院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10

서원 접견실

곤피라산의 가장 유명한 작품 몇 점은 참배길 오른쪽으로 곧 도착할 단지 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오모테 서원, 오쿠 서원, 시로 서원이라고 하는 서로 연결된 세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에서 19세기 사이에 세워진 이 건물들은 접견실, 그리고 신관들의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오모테서원만 정기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담장과 미단이문에는 각 방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뛰어난 회화들이 그려져 있으며, 이 그림들은 주변 풍경에 조화롭게 녹아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에 그려진 강과 폭포는 자연스럽게 바깥에 있는 연못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품들을 남긴 화가들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모리 간사이가 그린 입구의 그림에는 금박 배경으로 사나운 독수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무라타 단료가 그린 뒤쪽 방의 그림은 수십 명의 말을 탄 사냥꾼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안개 낀 후지산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중간 방의 그림은 자연주의적 방식의 선구자였던 18세기 화가 마루야마 오쿄의 작품입니다. 그 예로, 오쿄는 ‘학의 방’에 있는 그림에 두 가지 토착종 학을 세밀하게 그려내어 두 종의 특징을 정확히 담아냈습니다. 오쿄의 사실적인 묘사는 ‘호랑이의 방’에서만 예외를 보이는데, 방 안을 둘러싼 맹수들이 예상외로 둥글둥글하고 통통하게 그려져 있지요. 살아 있는 호랑이 표본을 관찰할 수 없었던 오쿄는 집고양이를 참고하여 호랑이를 그려야 했습니다.

오모테서원의 외부 공간은 때때로 ‘케마리’라는 의식을 치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공을 사용하는 의식으로, 제기차기와 비슷합니다. 경기장은 각기 다른 수종의 갈라진 네 개의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데, 카미가 의식을 관람하는 동안 그곳에 머문다고 전해집니다.

오모테서원에 방문하여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여기에서 본전까지 308개의 계단이 남았습니다. 다음 음성 안내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에서 재생됩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音声ガイド 10

表書院

金刀比羅宮で最も有名な美術品のいくつかは、参道右側に控える施設に収められています。この施設は表書院・奥書院・白書院と呼ばれる三つの連なった建物となっており、いずれも17～19世紀に建立さ

れ、迎賓施設兼別当の住居として機能していました。

現在、一般公開されているのは表書院だけです。各部屋に合わせて特別に描かれ、周囲の景観と調和した見事な絵が部屋の壁や障子に施されています。例えば、ある部屋では外の池の自然な延長として川や滝が描かれています。

これらの作品は、いずれも卓越した技法で知られる画家達によるものです。入口には森寛斎による金地に猛々しい鷲を描いた作品が、奥の部屋には、邨田丹陵が描いた数十人の騎乗した狩猟者の躍動的な情景と、霧に包まれた富士山の眺めがあります。中間にある部屋は、18世紀に写実的な画風を開拓した円山応挙によるものです。例えば鶴之間では、二種類の日本の鶴が丁寧に描き分けられ、それぞれの特徴が正確に表現されています。応挙の写実は「虎之間」ではやや例外で、部屋に描かれた猛獣達は存外に丸々と愛らしい姿をしています。実物の虎を観察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応挙は猫を参考に描いたと言われています。

表書院の屋外では、蹴鞠という神事が行われることがあります。ハッキーサックにも似たこちらの神事は、毬を用いて行われます。蹴鞠場は四種類の枝分かれした木で区切られており、神々がそこに座って蹴鞠を見守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どうぞ表書院に訪れ、ゆっくりご覧ください。ここから御本宮までは308段の石段があります。次のオーディオガイドは、休憩や昼食をとることができるカフェで再生されます。

【タイトル】 神椿 あと 285 段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11

카페 겸 식당 카미즈바키

곤피라산 방문객들은 참배길을 오르는 도중에 종종 이곳에 들러 쉬곤 합니다. 이곳에는 1797 년, 방문객들을 위해 찻집이 처음 생겼습니다. 지금은 한층 현대적인 모습으로 2007 년에 문을 연 카페 카미즈바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뉴로는 프랑스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로 만들어진 가벼운 식사와 아름다운 디저트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식당은 경사면 아래 지하층에 지어져 있어, 참배길과 카페 양쪽 모두에서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활기찬 내부 공간은 밝고 바람이 잘 통하며, 창밖으로는 주황색과 검은색 털을 가진 작은 곤줄박이들의 보금자리인 울창한 숲이 내려다보입니다. 이곳은 신사 방문객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현지 단골 고객들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카페에서 본전까지 285 개의 계단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장소는 신사에서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인 아사히샤입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音声ガイド 11

神椿 カフェ&レストラン

金刀比羅宮参りの巡礼路を登る参拝客は、しばしばここで休憩をとりました。1797 年に参拝者のための茶屋が建てられ、現在のモダンな姿は 2007 年にオープンしたカフェ「神椿」です。メニューはフランス料理に着想を得た軽食や彩り豊かなデザートが並び、地元産の食材を使用しています。店舗施設は斜面の下に地下式に造られており、参道からもカフェからも広々とした眺望を楽しめます。賑わう店内は明るく開放感にあふれ、窓からはヤマガラと呼ばれる小さなオレンジと黒の鳥が生息する緑豊かな森が見渡せます。多くの参拝者にとって印象深い場所であると同時に、地元民にも親しまれるスポットです。

カフェから御本宮までは 285 段の階段が続きます。次の見所は旭社で、境内随一の規模を誇る建物です。

【タイトル】 旭社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12

아사히샤

눈앞에 보이는 정교하게 장식된 이 건물은 아침 해의 신사라는 뜻의 ‘아사히노 야시로’라고 하며, 흔히 ‘아사히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25m 높이를 자랑하는 웅장함 때문인지, 이 부속 신사를 여정의 종착지로 오해하는 참배객들이 많습니다.

아사히샤는 원래 커다란 불상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짓는 데 40 년이 걸려 1845 에 마침내 완공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완공한 지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 곤피라산은 신토만을 모시는 장소가 되었고, 수많은 불교 요소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허무는 대신, 아사히샤는 신사(神社)로 개조되었습니다. 지금은 신토의 태초 신들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아메노 미나카누시(일본 신화에서 우주의 중심이자 최초의 신)를 비롯하여 여러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건물의 전체 외관 대부분에는 화려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마 아랫면 전체에 소용돌이치는 구름 문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끝서까래와 담장에는 실제 동물과 신화 속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상서로운 상징을 나타내는 동물이 많습니다. 박공 양 끝에 각각 장수를 상징하는 학과 거북이 새겨진 것처럼 말이죠. 다른 예로, 일부 측면에 새겨진 물고기는 물과 관련된 이미지로서, 목조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새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층은 개방형 구조의 넓은 참배실입니다. 중앙 기둥 없이 목조 지붕과 동기와 10,000 장의 막대한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층부에 숨겨진 영리한 외팔보 구조로 인해 하중을 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샤에서 본전까지 157 개의 계단이 남았습니다. 다음 음성 안내는 사카키몬에서 재생됩니다.

현재 아사히샤는 습기와 흰개미로 인한 손상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43 년에 재개방될 예정입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音声ガイド 12

旭社

目の前に聳える精巧な装飾の施された建物は、旭の社（通称・あさひしゃ）です。高さ 25 メートルに及ぶその壮麗さゆえ、多くの巡礼者がうっかりこの末社こそ旅の目的地と勘違いしてしまうほどです。

旭社はもともとは大きな仏像を祀っていました。本堂の建設には 40 年を要し、1845 年によりやく完成しました。しかし完成から数十年のうちにこんぴらは神道のみを祀る神社となり、多くの仏教的要素が取り除かれました。旭社は、取り壊されるのではなく神社へと転用さ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現在では、神道の神々の中でも最も古い神の一人とされている天御中主神をはじめとする多数の神々を祀っています。

建物の外装はほぼ全面にわたって精巧な彫刻が施されています。例えば軒裏には渦巻く雲の文様が広がっています。尾垂木や壁面には実在の動物から神話上の生物までが彫刻されています。多くは縁起の良い象徴であり、対となる破風に刻まれた鶴と亀は共に長寿を表しています。側面に描かれた魚など他の彫刻は、水に関連する意匠として、木造建築を火災から守る象徴として施された可能性があります。

一階は広々とした開放的な拝殿です。巨大な木造屋根と 1 万枚の銅板瓦を支える中央柱はありません。その重量は上層階に隠された巧妙な桔木構造によって分散されています。

旭社から本宮までは 157 段の階段が続きます。次のオーディオガイドは賢木門で再生されます。

なお旭社は現在、湿気やシロアリによる被害の修復を目的とした大規模な改修工事を実施中です。2043 年の再開を予定しています。

【タイトル】 賢木門あと 143 段/ 一段下がる石段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13, 14

사카키몬

앞에 보이는 우아한 물결 모양 지붕의 건축물은 신사와 사찰에서 가장 격식 있는 형태의 문인 ‘가라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문은 16 세기에 현지 영주의 의뢰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기둥 하나가 실수로 거꾸로 세워졌는데, ‘기둥이 거꾸로 된 문’이라는 뜻의 ‘사카키몬’이라는 이름은 이 사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1879 년에 문을 보수한 후, ‘거스릴 역’자를 ‘어질 현’자로 바꿔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글자는 달라졌지만 발음은 여전히 그대로 ‘사카키몬’입니다.

이 문에서 본전까지 143 개의 계단이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지만, 가는 길에 알아볼 장소가 아직 몇 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빠진 계단

지금까지 계단은 본전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 있었지만, 이 앞에 내려가는 계단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분의 계단은 불길한 숫자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전으로 가는 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786 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일본어 숫자 읽기 방식인 고로아와세로, 숫자 7, 8, 6 은 ‘번뇌’라는 의미를 가진 ‘나야무’로 발음됩니다. 이 불길한 연상을 피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하나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올라가는 계단 786 개에 내려가는 계단 1 개를 추가한 것이지요. 그렇게 총 계단 수가 785 개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부터 계단 몇 구간만 더 오르면 본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 : 音声ガイド 13 と 14

賢木門

優雅な波打つ屋根を持つこの建造物は、神社や寺院で使用される最も格式高い門である唐門の一例です。この門は 16 世紀に地元の大名によって建立されました。建設中、柱の一つが誤って逆さに設置されてしまいました。この事故が「逆さの門」を意味する「逆木門」という名称の由来となりました。1879 年に修復された際、名称は「逆さ」を表す漢字を「知恵」の字に改められました。表記は変わりましたが、依然として読み方は変わっていません。

この門から御本宮までは 143 段の階段が続きます。あと少しですが、道中にはまだ見どころが残されています。

一段下がる石段

ここまでの階段は御本宮へ少しずつ上っていくものでしたが、この先に一段だけ下がる階段があります。この余分な一段は、不吉な数字を避けるために意図的に設けられたようです。本宮への参道が最初に造られた時、階段は 786 段でした。日本語では 7、8、6 の数字の並びは「なやむ（心配する）」と読めます。この不吉な連想を避けるため、余分な一段下がる段が設けられたと考えられます。これにより階段の総数は「786 段上り+ 1 段下り」となり、結果として「785 段」と言われる所以です。

ここから御本宮まで、残る上り階段はわずか数段です。

【タイトル】 お手水について/ 御前四段坂あと 134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15, 16

의식용 수반

신사(神社)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본전 건물에 가까워지기 전에 신성한 물로 손과 입을 깨끗이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용도로 쓰이는 수반은 원래 본전의 북쪽에 있었는데, 1930 년에 전망대가 세워진 이후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본전에 모셔진 신과 만나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단 한 구간만 남았습니다.

가장 가파른 계단

본전으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 133 개는 가장 가파릅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두 개의 작은 신사가 나옵니다. 한 곳은 사업의 성공과 연관된 신을 모시는 신사이며, 다른 한 곳은 농작물을 보호해 주는 신을 모시는 신사입니다. 본전에 도착하기 전에 있는 마지막 부속 신사입니다.

계단 맨 꼭대기에 오르면, 눈 앞에 본전이 바로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길은 산 아래로 이어집니다. 오른쪽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를 지나 이어지는 길은 뒷 신사로 이어지는데, 이곳은 ‘텐구’라 불리는 신화 속 산의 정령들과 관련된 신사입니다.

본전이 있는 계단의 맨 꼭대기에 도착하시면 음성 안내가 재생됩니다. 거의 다 왔으니 힘내세요!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音声ガイド 15 と 16

手水舎

神社では、本社に近づく前に参拝者は神聖な水で手と口を清めることが推奨されています。このための手水舎は、以前は御本宮の北側に位置していましたが、1930 年に展望台が建設された際に現在の場所へ移設されました。

いよいよ御本宮の神様にお詣りに向かいます。あともう少し階段を上るだけです。

御前四段坂

御本宮までの最後の 133 段は最も急勾配です。この最後の階段の中腹には、二つの小さな祠があります。一つは商売繁盛の神様を祀り、もう一つは五穀豊穡の神様を祀っています。これらが御本宮手前の最

後の末社となります。

階段の頂上では、正面に御本宮が見えます。左側の道は山を下りる道です。右側には展望台があります。展望台の向こうはさらに上へと続き、天狗と呼ばれる伝承上の山の精霊を祀る奥社へと続きます。

御本宮をはじめとする、この階段の上にある場所に到着したら、オーディオガイドは続きを再生します。もうすぐそこです！

【タイトル】 展望台

【想定媒体】 WEB

<韓国語>**전망대**

이 전망대는 세토 내해가 있는 북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누키 평야의 논과 마을 너머로 뾰족한 원뿔 모양의 이이노산이 보이실 거예요. 이 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고 유명한 후지산에서 이름을 따와 ‘사누키의 후지’라고도 불립니다.

콘크리트 전망 데크 위에 서 있을 때는 알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천연 절벽면이 본전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참배객 무리와 그 사이를 지나 뒗 신사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통행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1930 년, 절벽의 좁은 가장자리를 따라 이 전망 데크가 지어졌습니다.

이곳과 뒗 신사 사이에는 계단이 583 개 더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이 길을 따라 또 다른 부속 신사에 도착하시면 음성 안내가 재생됩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 : 音声ガイド 17

展望台

この展望台は北東向きで、瀬戸内海を見渡せます。讃岐平野の田園や町並みを越えて、飯野山の鋭い円錐形が見えます。日本最高峰にして最も有名な山に形が似ていることから、「讃岐富士」とも呼ばれます。

コンクリートの展望台に立つと分かりませんが、御本宮のすぐそばには自然の断崖が迫っています。このため、かつては多くの参拝客や群れを縫って奥社へ進む人々にとって、十分なスペースはありませんでした。1930年、この断崖の狭い縁に沿って展望台が建設されました。

ここから奥社まではさらに 583 段の階段が続きます。このオーディオガイドは、木々の生い茂る小道を沿って、奥社に差し掛かるまで続きます。

【タイトル】 御本宮

【想定媒体】 WEB

<韓国語>**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18****본전**

본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백 년 동안 참배객들은 이 숭고한 성지에 닿기 위해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적어도 3,000 년 전부터 신사가 이 절벽 부근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현 건축물은 일본에서 급격한 변화와 근대화가 진행되었던 시기인 1878 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종교적 장소는 신토와 불교 요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부가 두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곤피라산은 신토만을 모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본전은 신토 건축 양식으로 다시 지어졌으며, 당시 신선하고 새롭게 여겨지는 요소들을 더했습니다. 이는 신토 지도자들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자 함을 내비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채색 장식 대신, 건축물 전체에 반복되는 당초문이 새겨진 우아한 구리 주물 장식을 채택했습니다. 처마 아래를 받치는 지지목들은 둥근 모서리가 아닌 날카로운 직각으로 깎여 있습니다. 건축물 전체에 사용된 편백나무는 세월이 흐른 탓에 색이 바래 어두워졌지만, 원래는 흰색에 가까웠으며 이는 순수함을 상징했습니다. 지붕은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두껍게 겹쳐 쌓은 노송피로 만든 지붕널은 33 년마다 교체됩니다.

신사 경내 전체에 세워진 다수의 초기 건축물에는 주로 동물 모티프의 요소들이 많지만, 이 본전 건물은 식물인, 그 중에서도 벚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당 안 천장에는 깊이감과 광택을 더하기 위해 귀금속 가루를 뿌려 마무리한 옷칠기법으로 표현한 벚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옷칠은 외부 담장에 꽃이 피는 벚나무를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두 가지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연의 여러 힘들을 다스린다고 여겨지는 ‘오모노누시노카미’로, 뱀사람들이 특히 이 신의 수호를 바라곤 했습니다. 또 하나의 신은 스토쿠 천황으로, 실패한 반란을 이끈 후 12 세기에 이 지역으로 유배되었던 인물입니다. 유배된 천황이 죽고 난 이후, 수많은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복수심 가득한 원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스토쿠의 원혼은 그가 일본의 수호신으로 추대된 후에야 비로소 진정되었습니다. 스토쿠 천황은 산 위로 138 개의 계단을 더 올라가면 나오는 부속 신사인 ‘시라미네 신사’에도 모셔져 있습니다.

본전 왼쪽의 지붕 덮인 보행로는 본전을 보수하는 동안 주요 신들을 임시로 모시는 부속 신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곤피라산이 불교 신들도 모시던 시기에 이 신사는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을 모시는 사찰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오모노누시의 아내이자 농업의 여신인 ‘미호즈히메노미코토’라는 신토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본전 방문은 이번 곤피라산 순례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혹시 계단을 계속 올라 부속 신사들을 좀 더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음성 안내는 전망대와 시라미네 신사에서 계속됩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音声ガイド 18

御本宮

本宮へようこそ。何世紀にもわたり、巡礼者たちはこの尊い地を目指して旅をしてきました。

この崖の地に信仰が寄せられたのは、3000 年以上前からと言われています。現在の建物は 1878 年に建てられました。当時は日本が急速な変化と近代化を遂げていた時代です。それまでは多くの宗教施設が神道と仏教の要素を併せ持っていました。しかし政府が両者を分離する政策を実施した際、こんぴらさんは神道のみを祀る神社の姿となりました。御本宮は神社の建築様式で再建され、当時としては斬新な要素を取り入れており、当時の神社の指導者達が過去との違いを明確に図ったためと考えられています。精巧な彫刻や鮮やかな彩色に代わって、蔓模様の鋳銅金具を用いた落ち着いた意匠が建物全体に施されました。軒下の支え木は縁で丸みを帯びるのではなく鋭角に切り出されています。構造全体に使われた檜材は経年により黒っぽくなっていますが、当初は純白に近い色調で、清浄さを象徴していたとされています。屋根は伝統的な構造で、厚く重ねた檜皮葺で、33 年ごとに葺き替えられます。

境内には動物をモチーフにした建造物が数多く建てられていますが、この建物は植物、特に桜を装飾に用いています。御本宮内部の天井には、深みと輝きを出すために金砂子を散りばめた漆塗りの桜の花が描かれています。外壁にも漆を用いて咲き誇る桜の木が描かれています。

御本宮には二柱の神が祀られています。一柱は大物主神（おおものぬしのかみ）で、多くの自然の力を司る神です。特に船乗り達はこの神の加護を求めてきました。もう一柱は崇徳上皇で、12 世紀に乱を起こして敗れ、この地に流されました。追放された上皇は没後に怨霊になり、数々の天災をもたらし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崇徳上皇の霊は日本の守護神とされたことでようやく鎮ま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崇徳上皇は、さらに 138 段の階段を上ったところにある白峯神社という摂社にも祀られています。

御本宮左側の屋根付き通路は、御本宮改修時に主祭神を一時安置する別宮へと繋がっています。こんぴらさんがかつて仏教の神々を祀っていた時代には、この別宮は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を祀る寺院でした。現在、この別宮は大物主神の配偶神である三穂津姫命（みほつひめのみこと）を祀っています。

御本宮参拝はこんぴら詣での中心です。しかし階段を上りさらに多くの末社を見学したい場合は、展望台や白峰神社で次の音声ガイドが再生されます。

【タイトル】 白峰神社 奥社まで 445

【想定媒体】 WEB

<韓国語>

교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19

시라미네 신사

이 건물은 1913 년에 지어졌으며, 권력 투쟁의 희생자였던 12 세기 인물 스토쿠 천황을 모시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스토쿠의 노한 원혼은 그가 신토의 신으로 추대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일본 황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스토쿠는 1123 년부터 퇴위 압박에 시달렸던 1141 년까지 집권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수도였던 교토에서 가가와의 시라미네라는 마을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신사의 이름을 따온 곳이지요.

유배 기간 동안 스토쿠는 불교에 몰두했고, 190 권에 달하는 경전을 옮겨 적으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교토에 자신이 필사한 경전을 모시고 싶어 했지만, 당시 군림하던 황제는 경전에 저주가 담겨 있을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스토쿠는 격분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대극전이 전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정의 관리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스토쿠의 기일을 전후하여 재해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수심 가득한 원혼에 관한 전설이 널리 퍼지게 되었죠. 1868 년, 메이지 천황은 스토쿠 천황을 국가의 수호신으로서 교토에 모심으로써 그의 원혼을 달랬습니다. 곤피라산의 시라미네 신사는 스토쿠 천황에게 바쳐진 가가와현의 수많은 장소 중 한 곳입니다.

건물의 붉은색과 흰색 배색은 신사(神社)의 전형적인 양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붉은 도료에는 진사가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는 선명한 붉은색을 낼 뿐만 아니라 해충과 부패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악귀를 물리친다고 여겨지기도 했죠. 흰색은 순수함, 신성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라미네 신사에서 뒷 신사까지 445 개의 계단이 남았습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 音声ガイド 19

白峯神社

こちらは 1913 年に建てられたもので、12 世紀の権力闘争の犠牲者となった崇徳上皇を祀っています。伝承によると、崇徳上皇の怨霊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日本の皇族を苦しめた後、神として祀られたといえます。

崇徳天皇は 1123 年から 1141 年まで在位し、その後退位を余儀なくされました。数年後、権力奪取の

ためクーデターを企てました。失敗に終わった後、京の都から現在の香川県内にあたる白峯という町に流され、その町がこの神社の名の由来となっています。

流された先で、崇徳上皇は仏教に傾倒し、長年かけて約 190 巻の経典を写経しました。彼は経典が京都に安置されることを望みましたが、経典に呪いがあると信られ、当時の天皇からは拒否されてしまい、崇徳上皇は激怒しました。

彼の死後、御所の大広間は焼失し、朝廷では数名が亡くなりました。数世紀にも渡り、崇徳上皇の命日付近に災厄や争いが頻繁に発生したため、怨霊伝説が広まっていきました。1868 年、明治天皇は崇徳上皇を日本の守護神として京都に祀ることで、その霊を鎮めました。金刀比羅山の白峰神社は、香川県内に点在する崇徳上皇を祀る数多くの神社の一つです。

この神社の紅白の配色は、神社の典型的な特徴です。伝統的に赤漆には辰砂（しんしゃ）が含まれており、この鉱石は鮮やかな赤色を呈するだけでなく、木材を害虫や腐朽から守る役割を果たしました。また邪気を祓うとも信じられていました。白は清浄さと神聖さを象徴する色です。

白峯神社から奥社までは、あと 445 段です。

【タイトル】 厳魂神社(奥社)

【想定媒体】 WEB

<韓国語>

고토히라궁: 오디오 가이드 20

이즈타마 신사

축하합니다! 곤피라산 신사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뿔 신사라는 뜻의 ‘오쿠샤’라고도 알려진 이즈타마 신사입니다.

이곳에 모셔진 신은 16 세기 곤피라산을 부흥시킨 최고 신관을 신격화한 ‘이즈타마히코노미코토’입니다. 생전에 그는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사랑해 마지않는 곤피라산을 지키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산 속에 산다고 전해지는 힘있는 신화 속 정령인 ‘텐구’로 모습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텐구는 종종 날개와 새의 얼굴, 혹은 긴 빨간 코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텐구의 두 얼굴을 나타내는 두 가지 텐구 가면이 신사 왼쪽에 있는 절벽 높은 곳에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사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고 있지만, 이 신사는 곤피라산의 본전이 있는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신사를 영원히 보살피겠다던 이즈타마히코의 약속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순례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디오 투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오셨던 길을 따라 여러 장소들을 다시 한번 즐겁게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日本語仮訳>

金刀比羅宮 : 音声ガイド 20

厳魂神社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金刀比羅宮境内の一番高い場所までたどり着きました。ここは厳魂神社（いづたまじんじや）、別名奥社です。

ここに祀られているのは、16 世紀に金毘羅山の別当を務めた人物を神格化した厳魂彦命（いづたまひこのみこと）です。生前に彼は、愛する金毘羅山を死後も守ると誓いました。伝説によると彼は、山に住む強力な存在である天狗に変身したとされています。天狗は翼と鳥のような顔、あるいは長い赤い鼻で描かれることが多く、この二種類の天狗の顔を表す仮面が、神社の左側にある崖壁の高い位置に掛けられています。

ほとんどの神社は東、日の出の方角を向いていますが、この神社は南、こんぴさんの御本宮の方を向いています。これは、厳魂彦命が愛する神社を永遠に見守るという誓いを反映しています。

これで登りは終わりです。オーディオガイドをお楽しみいただけたなら幸いです。下り道は気をつけて、道中の数々の名所を再訪してお楽しみください。

【タイトル】 旭社の概要、建立経緯と特徴

【想定媒体】 WEB

<韓国語>**아사히사: 건축과 목세공의 경이로움**

아사히사라고도 하는 아사히노 야시로는 고토히라궁의 맞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이자 중요문화재입니다. 이 목조 건물의 높이는 25m이며, 까다로운 건축 과정으로 인해 짓는 데 거의 40 년이 걸렸습니다. 약 13 만 8,000 명에 달하는 전국의 기부자가 이 막대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사히사의 역사

아사히사는 종교적 장소에 신토(신도, 일본의 전통 종교)와 불교가 흔히 공존했던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순례자들은 고토히라궁에 찾아와 두 종교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고, 아사히사가 완공되었던 1845년에는 본래 치유와 의술을 관장하는 불교의 신을 모셨습니다. 건물의 디자인은 선종 불교 건축 양식에서 영향받았으며, 정교한 목세공에는 수백 년 된 불교 도상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868 년 정부가 신토와 불교를 엄격히 분리할 것을 명하면서 고토히라궁은 신토만을 위한 신사(神社)가 되었습니다. 이 전환기 동안 신사(神社)에서 불교의 요소를 없애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만, 건물을 허무는 대신 아사히사는 신토 신들을 모시는 곳으로 그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아사히사의 미래

아사히사는 주로 부패와 해충에 강한 느티나무를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200 여 년이 지난 만큼, 이 튼튼한 목조 건축물도 누수와 흰개미로 인한 손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고토히라궁은 건물의 절반 이상을 해체한 뒤 보수 및 재건하는 야심찬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해체 과정은 연구자들이 지붕 아래에 활용했던 영리한 외팔보 균형 시스템과 같은 역사적 건축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43 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복원 기간에는 아사히사의 외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토히라궁은 독특한 예술 및 건축적 특징 몇 가지를 강조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통은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주요 구역의 상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살펴보시면서 건축물의 주요 볼거리와 성스러운 작품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日本語仮訳>

旭社：建築と木工の妙技

旭社（あさひのやしろ、またはあさひしゃ）は金刀比羅宮の末社であり、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木造建築の高さは 25 メートルに及び、その複雑な構造の建設には約 40 年を要しました。全国から約 13 万 8 千もの人々がこの大規模な事業の支援に寄進を行いました。

旭社の歴史

旭社は、神仏習合が一般的だった時代に建立されました。1845年に完成した旭社では当初、薬師如来が祀られ、金刀比羅宮の参拝者は神仏両方にお詣りしました。建築は禅宗寺院の様式を基調としており、精巧な木彫りには仏教の伝統的な図像が用いられています。しかし1868年、政府が神仏分離を厳格に命じたため、金刀比羅宮は神道のみの地となりました。この過渡期には、神社から仏教的要素を取り除くことが広範に行われました。旭社は取り壊されるのではなく、神道の神々を祀るために転用されることとなります。

旭社の今後

旭社は主に耐湿性・耐虫性に優れた檜材で建造されています。しかし約2世紀を経た今、この頑丈な木造建築は水害やシロアリ被害により甚大な損傷を受けてしまいました。金刀比羅宮では建物の少なくとも半分を解体・修復・再建する大規模な改修プロジェクトを進めています。解体作業では、屋根裏の巧妙な枯木構造など歴史的建築技法を研究する貴重な機会にもなっています。

プロジェクトは2043年の完了を予定しています。修復期間中は旭社の外観を直接ご覧いただけないため、金刀比羅宮ではその際立った芸術的・建築的特徴を紹介するデジタルサイネージを用意しました。通常は見えない部分を含む主要箇所の詳細な映像をご覧いただけます。建物の見どころや神聖な芸術について、ぜひインターフェースでご覧ください。

【タイトル】 旭社 テキスト解説 2 -6

【想定媒体】 WEB

<韓国語>**새롭게 바뀐 신전**

아사히샤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1 층의 본전에 커다란 불상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찰 건축 양식에서 본존불은 흔히 높은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샤는 중앙 기둥 없이 설계되어 공간이 훨씬 트여 있고, 본존이 가려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는 상층부에 숨겨진 외팔보 구조, 그리고 지붕의 하중을 옮기는 데 도움이 되는 본전 주변부의 몇 가지 건축적 특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중을 지지하는 천장 옆 공포(栱包)가 방 모서리 주위에 있는 기둥으로 지탱되며, 이 기둥들은 일련의 수평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상을 모시는 불전과 달리, 신전에는 흔히 카미(神, 신토에서 신앙이나 외경의 대상)가 머무는 공간을 감춘 높은 내부 성소가 있습니다. 1868 년 고토히라궁이 신토만을 위한 신사(神社)가 되자 아사히샤에 있던 불상과 불상을 세워두던 단상은 전부 치워졌고, 신전 뒤쪽에 신토 양식의 내부 성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내부 성소 주변에서 이러한 전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단 양옆에 선 기둥은 본래 연단이 있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 연단을 설치하기 위해 일부 목재가 깎여 나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흔적은 예술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전의 본래 디자인에는 본전을 둘러싼 수평보 사이에 십이지 동물을 새긴 조각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11 가지 동물만 볼 수 있습니다. 없어진 동물(닭)은 내부 성소의 지붕으로 대체되었고, 현재 다락방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귀한 느티나무

건축물 대부분은 품질 좋은 느티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결이 고운 이 단단한 목재는 내구성 있고 해충에 강해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아사히샤를 짓기 위한 느티나무를 조달하는 데 그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일본 북부의 아키타현에서 자란 고목을 베어낸 통나무 100 여 개가 배로 운송되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뒤에는 이 거대한 통나무 더미를 건축 부지까지 산길을 따라 옮겨야 했습니다.

흔치 않은 겹지붕

아사히샤에는 두 개의 팔작지붕이 있으며, 위쪽 지붕이 아래쪽 지붕보다 10.5m 더 높습니다. 중앙의 용마루와 사방의 경사진 처마, 서로 마주 보는 두 개의 삼각 박공으로 이루어진 팔작지붕은 일본 전역의 사찰과 신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 세기 초반에는 이와 같은 겹지붕 구조가 흔치 않았습니. 1 층 천장과 2 층 바닥 사이에 배치된 복잡한 보 구조 위에 세운 추가 기둥이 이를 지지합니다.

10,000 장의 동기와

신전 설계 초반에는 굵은 진흙 기와를 포개어 덮는 전통 지붕을 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흙 기와는 이 구조가 지지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건립에 참여한 이들은 그 대신 동판을 사용하기로 하고, 평범한 진흙 기와처럼 보이도록 형태를 잡았습니다. 약 10,000 장의 동판이 필요했으며, 동판 하나하나 형태를 잡고 포개지는 형태에 들어맞게 제작해야 했습니다. 200 여 년의 세월 동안 새 동판의 밝은 주황빛은 점차 누그러지면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섬세한 균형

지붕의 거대하고 완만하게 굽은 처마가 건물 담장 너머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처마의 무게는 ‘하네기’라 불리는 상층부에 숨겨진 긴 목재 외팔보로 지탱됩니다.

건물 내부에서 지붕 아래 공간을 올려다보면 직선보와 곡선보가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오히려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네기는 처마에서 지붕 중심부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지렛대의 받침점 역할을 하는 수평보 위에 직각으로 걸쳐 있습니다. 지붕의 하중이 하네기의 안쪽 끝을 아래로 누르면, 시소처럼 반대쪽 끝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깥쪽 끝이 처마의 하중을 지지하는 한편, 구조의 중심에 있는 수평보는 건축물 전반에 배치된 하중 지지 기둥으로 지탱됩니다.

단단한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보와 기둥과 달리, 하네기에 사용된 소나무는 더 가늘고 유연해 외팔보 구조에서 변화하는 하중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024-025

<日本語仮訳>

変遷のあった本堂

建立された当初、来訪者は一階の本堂に安置された大仏像を参拝しました。寺院建築の他の様式では、本尊は高い天井を支える柱に囲まれるのが一般的です。しかし旭社では中央柱を設けないことで、参拝対象を遮るものなく見渡せる広々とした空間を創出しました。これは上層部に隠された桔木構造など、本殿周囲の屋根荷重を分散させる建築的工夫によって実現されました。天井付近の梁組は本殿外周の柱で支えられ、これらの柱は貫で連結されています。

仏像を祀る仏堂に対して、神道の社殿には通常、神が鎮座するための少し高さのある奥まった空間があります。1868年に金刀比羅宮が神道のみの社となった際、旭社の仏像とその台座は撤去され、この建物の後方に神道様式の内陣が設置されました。

こうした変遷の痕跡は内陣周辺に見られます。階段両側の柱は、元の台座があった位置の端に立っており、その柱には台座を設置するために切られた跡が残っています。美術品にも痕跡が残っています。本殿を囲む横梁には十二支の彫刻が施されていましたが、よく数えると十一体しか確認できません。欠けた動物（酉）は内陣の屋根に置き換えられ、屋根裏に安置されました。

高級材の檜

建物の大部分は、良質な檜材で作られています。きめ細かく硬い木材である檜は強度と耐虫性に優れ、建築材として有用であり、旭社では檜材の調達に費用を惜しみませんでした。100本以上の古木の丸太が、遠く北日本の秋田から船で運ばれてきました。港に到着した後、巨大な丸太は山を越えて建設現場まで運ばれました。

二重入母屋

旭社には切妻屋根が二重に重なっており、上層の屋根は下層より10.5メートル高い。中央に棟木を配し、四方に傾斜した軒、対角線上に二つの三角形の破風を持つ切妻屋根は、日本全国の寺院や神社で

よく見られます。しかし、このような二重屋根構造は 19 世紀初頭には稀でした。この構造は、一階の天井と二階の床の間に設置された複雑な梁の上に追加の柱を立てて支えられています。

銅瓦 1 万枚

当初、本堂は曲面瓦を重なり合わせる伝統的な屋根構造で設計された。しかし、この構造では瓦の重量を支えきれませんでした。そこで建設者らは、瓦を模した形状の銅板を採用しました。約 1 万枚の銅板が必要で、それぞれが個別に成形され、瓦の重なり模様に合わせて配置されました。真新しかった銅の鮮やかな橙色は、おおよそ 200 年程度の歳月の影響で、緑青へと変化しています。

天井と多数の桔木

屋根の大きく弧を描く軒は、建物の壁をはるかに超えて突き出ています。その重量は、上層階に隠された「桔木」と呼ばれる長い木材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ます。

建物の内部では、屋根の下でまっすぐな梁と自然な曲線を描く梁が絡み合ったように見えます。しかし、実際には繊細なバランスが保たれています。桔木は軒から屋根の中央まで伸びています。中央部では、支点となる水平梁に対して垂直に交差しています。屋根の重みが桔木の内側の端を押し下げると、反対の端はシーソーのように押し上げられます。外側の端は軒の重みを支え、中央の水平梁は、建物全体に配置された荷重支持柱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ます。

梁と柱が強固な櫟材で作られているのに対し、桔木はより細く柔軟な松材で作られているため、この原理により変動する荷重をより効果的に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旭社 テキスト解説 7-10

【想定媒体】 WEB

<韓国語>**구름 문양이 새겨진 처마**

2층 처마 아랫면에는 양식화된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름은 지상의 건축물과 극락을 상징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찰과 신사 건축에서 흔히 쓰이는 모티프입니다. 조각 무늬는 몇 센티미터 깊이로 파여 있고, 이 문양은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역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장소를 짓는 데에는 노력과 비용이 아낌없이 투자되었습니다. 심지어 장식의 거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말이죠.

서까래에 새겨진 동물들

끝서까래가 처마 아래에 층층이 짜 올린 공포(栱包)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지붕 아래에 숨겨진 하네기처럼 이 서까래도 시소처럼 외팔보 구조로 되어 있어 처마의 하중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 건축에서 흔히 그렇듯이, 아사히사에는 두 줄의 끝서까래가 있습니다. 둘 다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윗줄에는 사나운 용의 모습이, 아랫줄에는 코끼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입을 ‘a’모양으로 벌린 동물들과 ‘un’모양으로 닫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불교에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 음절 문자 체계의 첫소리와 끝소리로, 함께 쓰여 시작과 끝, 삶과 죽음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불에 맞서는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

아사히사의 외부 담장에는 상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층 담장의 꼭대기를 따라 여러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고토히라궁과 바다와의 연관성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화재를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물과 연관된 동물이나 신화 속 생물들은 보호용 부적의 의미로 오랫동안 목조 건축물 장식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박공 하나에는 커다란 학이, 다른 박공에는 커다란 거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천 년, 만 년 동안 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학과 거북은 일본 미술 전반에서 상서로운 장수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도교의 신선들

1층에는 정문과 두 개의 측면 출입구가 있습니다. 세 면 모두 선종 건축 양식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산카라도’라고 불리는 여단이식 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사히사의 각 문에는 중간에 접이식 경첩이 하나 더 있어, 문이 열릴 때 반으로 깔끔하게 접힙니다. 각 구획의 상단 판자에는 투각 장식이 있으며, 그 틈을 통해 내부로 공기와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판자에는 중국 민속 설화에 등장하는 36 명의 도교 신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신선들은 중국과 일본의 종교 예술에서 반복되는 모티프로, 흔히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세속적인 세상을 초월한 이들은 하늘을 나는 능력과 같은 신비한 힘을 수련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사히사에 이들을 새겨넣은 것은 가호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日本語仮訳＞

雲形軒裏

2 階の軒裏には、様式化された雲の彫刻が施されています。雲は寺院建築や神社建築において、地上の建造物と天空を象徴的に繋ぐ普遍的なモチーフとして広く用いられています。彫刻の溝は数センチの深さがあり、その模様は下から見えない部分にも及んでいます。こうした装飾が通常は目につかない場所にさえも、この神聖な建築のため惜しみなく労力や費用がかけられています。

尾垂木の動物

軒下には、段状の支柱群から外側に伸びる尾垂木があります。屋根裏に隠れた枯木のように、これらの垂木は軒の重量を支える役割を果たすテコのように張り出しています。

仏教建築に共通する様式ですが、旭社にも 2 列の尾垂木があります。どちらにも精巧な彫刻が施されています。上段には寧猛な龍が、下段には像が刻まれています。中には、口を開けて「ア」の音節を表わすものもあれば、口を閉じて「ウン」の音節を表わすものもあります。これらは日本仏教で使用されるサンスクリット音節表の最初と最後の音であり、共に始まりと終わり、生と死の循環を象徴しています。

懸魚 妻飾り

旭社の外壁には精緻な彫刻が施されています。たとえば 1 階の壁上部には、様々な種類の魚が泳いでいる様子が刻まれています。これは、金刀比羅宮が海と結びついていることに由来するか、あるいは火災を祓う意図のものかもしれません。水と関連する動物や神話上の生き物は、古くから木造建築物に魔除けとして用いられてきました。

大きな鶴の彫刻が片方の破風に、そしてもう片方には大きな亀が飾られています。これらの動物はそれぞれ千年と万年生きると言われています。そのため、鶴と亀は長寿の縁起物として、日本の美術において広く用いられています。

栈唐戸の仙人

1 回には正面と両脇に入口があります。三方全てには、禅宗建築に典型的な「栈唐戸（さんからど）」と呼ばれる両開きの扉が取り付けられています。旭社では、それぞれの扉の中央に折り畳み式の蝶番が設けられており、開いた際にきれいに半分に折り畳め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各部位の上部板には透かし彫りが施され、それが空気と光を室内に取り込む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扉全体には中国の民間伝承に登場する 36 人の道教の仙人が描かれています。これらの仙人は中国と日本の宗教美術で繰り返し描かれるモチーフであり、しばしば自然と調和し悟りを求める存在として表現されます。彼らは俗世を超越しており、飛翔能力など神秘的な力を培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旭社に仙人を配したことは、神々の加護への祈りの表現と考えられています。

地域番号	025	協議会名	大洲市観光施設多言語推進協議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25-001	大洲歴史探訪館/大洲歴史探訪館の歴史・役割 （ガイドンス）	239	看板/Web
025-002	大洲歴史探訪館/城下町の歴史・産業・特徴	521	看板/Web
025-003	大洲歴史探訪館/大洲の自然（肱川や富士山、霧など）	472	看板/Web
025-004	大洲歴史探訪館/明治～昭和の大洲城下町	616	看板/Web
025-005	大洲歴史探訪館/城下町再生のストーリー	535	看板/Web
025-006	大洲城/木造復元のストーリー	482	Web
025-007	大洲城/日本の城郭の仕組み	561	Web
025-008	大洲城/キャスルスステイなどの取組み	528	Web
025-009	大洲城/天守閣	579	Web
025-010	大洲城/台所櫓	315	Web
025-011	大洲城/高欄櫓	298	Web
025-012	大洲城/その他櫓	405	Web
025-013	大洲城/暗がり門	434	Web
025-014	臥龍山荘/日本庭園とは	485	Web/その他
025-015	臥龍山荘/建築当初の時代背景	431	Web/その他
025-016	臥龍山荘/臥龍院	465	Web/その他
025-017	臥龍山荘/清吹の間	312	Web/その他
025-018	臥龍山荘/壺是の間	279	Web/その他
025-019	臥龍山荘/霞月の間	485	Web/その他
025-020	臥龍山荘/知止庵	259	Web/その他

			他
025-021	臥龍山莊/不老庵	289	Web/その他
025-022	臥龍山莊/庭園	414	Web/その他
025-023	臥龍山莊/蓬萊山	300	Web/その他
025-024	盤泉莊/盤泉莊パンフレット	956	パンフレット
025-025	盤泉莊/日本の建築	426	Web
025-026	盤泉莊/和洋折衷の文化	723	Web
025-027	盤泉莊/コンクリートの部屋	674	Web

025-001

大洲市観光施設多言語推進協議会

【タイトル】 大洲歴史探訪館/大洲歴史探訪館の歴史・役割

(ガイドンス)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오즈 역사 탐방관

오즈 역사 탐방관에서 사진과 영상 자료를 관람하며 오즈 성곽 마을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강물이 범람해도 잠기지 않도록 120cm 높이의 석조 토대 위에 세워진 탐방관은 본래 한 19 세기 목탑 상인의 창고였습니다. 이 건축물은 오즈가 목탑 제품의 교역을 통해 발전하고 번영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내부 전시물은 14 세기 태동기와 19 세기 호황기, 이후 쇠퇴기를 거쳐 최근 지역사회 주도의 재생 사업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성장 여정을 차근차근 되짚습니다. 탐방관에서는 현지 관광 명소 관련 정보와 안내서를 제공하며,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25-001

<日本語仮訳>

大洲歴史探訪館/大洲歴史探訪館の歴史・役割 (ガイドンス)

大洲駅観光案内所では、歴史的な写真や映像の展示を通して、大洲の城下町の物語を学ぶことができます。この施設は 19 世紀の蠟商人の倉庫を利用しており、川の氾濫から倉庫を守るための高さ 120 センチの石造りの基礎の上に設置されています。この構造は、蠟製品の取引の発展によって大洲が遂げた繁栄を象徴しています。内部の展示は、14 世紀の町の始まりから、19 世紀の好況期、その後の衰退、そして近年の地域主導による再生への取り組みまで、この町の発展をたどっています。この案内所では、地元の観光スポットに関する情報やパンフレットを提供しており、休憩所も併設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大洲歴史探訪館/城下町の歴史・産業・特徴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오즈: 성곽 마을 이야기**

오즈의 역사는 오즈성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즈는 다이묘 영주들의 통치 아래 성곽 마을로 발전했으며, 히지가와강을 통한 교역으로 한층 성장하면서 지역의 정치·문화적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교통과 행정 체계가 변화하며 오즈의 지역적 입지도 점차 약해졌지만, 유서 깊은 도시 구조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 보존과 재생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즈성은 본래 1331년 히지가와강을 굽어보는 고원에 세워진 작은 요새였습니다. 이후 성의 주인이 수 세기 동안 계속 바뀌다가, 1617년 가토 가문이 입성해 권력을 잡고 19세기 후반까지 줄곧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가토 가문의 다스림 아래 무사, 상인, 장인들이 성곽 주변에 자리를 잡으며 마을은 번성했습니다. 숲에 둘러싸여 있고 강을 통한 수운에 기댈 수 있었던 오즈는 특히 목재와 목랍을 중심으로 탄탄한 상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히지강을 따라 이루어지던 교역은 20세기 초반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강길의 운송의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오즈의 지역적 위상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성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 건축물은 방치되어 황폐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오즈의 역사적 특징은 마을 풍경 곳곳에 뚜렷이 남아 있으며, 전통 건축공법으로 천수각을 복원하는 등 지속적인 재생 활동을 통해 보전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洲歴史探訪館/城下町の歴史・産業・特徴**

大洲の歴史は、大洲城と密接に結びついています。その大名領主の治世下、大洲は城下町として発展し、この地域の政治と文化の中心地となりました。また、肱川沿いの交易もこの町の発展を支えました。交通や統治の変化により、地域における大洲の役割は時代とともに縮小したものの、この町は歴史的な都市構造を今も残し、保存と再生への取り組みの中心となっています。

大洲城の起源は、1331年に肱川を見下ろす台地に築かれた小さな要塞でした。その後、何世紀にもわたり城主が交代を繰り返し、1617年、加藤家が大洲に入封しました。彼らは支配力を維持し、19世紀後半までこの領地を統治し続けました。加藤家の統治下、武士、商人、職人たちが砦の周辺に定住したことで、この城下町は繁栄しました。森林に囲まれ、河川舟運に支えられた大洲は、木材と蠟を中心とした強力な商業基盤を発展させました。

20世紀初頭、肱川沿いの交易は最盛期を迎えます。しかし、交通手段が河川ルートではなくなるにつれ、地域での大洲の存在感は薄れていきました。人口は減少し、城やその他の歴史的建造物は廃墟と化し、町は荒廃の一途をたどりました。こうした変化にもかかわらず、大洲の町並みには歴史的な特徴が色濃く残っており、伝統的な建築工法による天守閣の復元をはじめとする継続的な復興の取り組みにより、今

なおこの町の景観は守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大洲歴史探訪館/大洲の自然（肱川や富士山、霧など）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오즈의 풍요로운 자연

오즈시는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지형이 도시의 특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히지강은 오즈의 정체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히지강은 19 세기 후반부터 주요 교역로 역할을 하며 목재와 기타 천연자원을 북쪽 기슭의 나가하마로 실어 나랐습니다. 자원은 그곳에서 다시 해상 운송로를 통해 일본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오즈시의 경계는 분지를 넘어 세토 내해까지 뻗어 나갑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자연환경 덕분에 여러 산업을 지탱할 풍부한 천연자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에서는 목재가 나고, 강물을 활용해 일본의 전통 종이인 ‘와시’를 만들었으며, 옻나무 열매로는 목랍을 생산했습니다.

오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휴양을 즐기거나 경치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오즈 분지 안에는 해발 320m 높이의 도미스산이 솟아 있습니다. 산비탈에는 진달래밭이 점점이 늘어서 있고 정상에 오르면 오즈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늘한 계절에는 아침 안개가 저지대를 뿌옇게 덮습니다. 히지강은 카약이나 낚시 등의 레저 활동은 물론, 전통식 가마우지 낚시(우카이)의 중심지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大洲歴史探訪館/大洲の自然（肱川や富士山、霧など）

大洲市は、山々に完全に囲まれた盆地に位置しており、その景観がこの町の特徴を形作ってきました。特に、町の中心を流れる肱川は、大洲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切っても切れない関係にあります。19世紀後半から、この川は重要な交易の大動脈として、木材などの天然資源を北岸の長浜へと運びました。そこから、それら天然資源はこの地域と日本各地を結ぶ航路へと輸送されました。

大洲市境は盆地を越えて瀬戸内海にまで広がり、この町の多様な景観は豊かな天然資源を供給し、さまざまな産業を支えました。生い茂った森は木材を供給し、河川の水は和紙の生産を可能にし、収穫されたハゼの実には蠟を製造する原料となりました。

大洲の自然環境は、レクリエーションや景観を楽しむ機会も提供しています。大洲盆地には、標高 320メートルの富士山がそびえ立っています。その斜面にはツツジ畑が点在し、山頂からは市街地が一望できます。涼しい季節には、低地に朝霧が立ち込めることもあります。肱川は今でも、カヤックや釣りといったレジャーアクティビティ、さらには伝統的な漁である鵜飼（鵜を使った漁）の中心的存在とな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大洲歴史探訪館/明治～昭和の大洲城下町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오즈의 번영과 쇠퇴

오즈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이 옛 성곽 마을의 거리는 상점과 공방, 활기 넘치는 상인 계층으로 북적였습니다.

이 시기 오즈에서는 30여 개의 공방과 공장이 목랍과 비단 생산 등의 산업을 지탱하고 중산층의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대의 사진에는 그러한 경제 및 문화적 번영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당시 세워진 건축물 중 많은 수가 지금도 마을의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강길이 교통의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교역 요충지로서 오즈의 위상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에 인구가 줄어들고 일부 역사적인 건축물이 방치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마을의 건축 유산을 보존하려는 재생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마우지 낚시

히지강의 가마우지 낚시(우카이)는 1957년 관광 진흥 차원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는 어느 영주가 가마우지를 데리고 강에 낚시하러 갔다는 에도 시대(1603~1867)의 한 기록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매년 6월 1일부터 9월 20일 저녁에는 훈련받은 바다 가마우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우카이’ 시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마우지의 목에는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밧줄로 만든 고리를 채웁니다. 어부들은 햇불을 밝힌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는데, 이때 햇불에서 불뚝이 튀어 머리카락이 타지 않도록 천 모자를 씩니다. 또한 가마우지를 부릴 때 물보라에 몸이 젖지 않도록 짚으로 만든 겹옷을 두릅니다. 관객들은 강에 낚는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아서 배로 돌아오고, 어부는 물고기를 바구니에 담은 모습을 근처 배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大洲歴史探訪館/明治～昭和の大洲城下町

大洲は19世紀後半から20世紀半ばにかけて最盛期を迎えました。旧城下町の通りは商店や工房、活気に満ちた商人層の人たちで賑わっていました。

この時期、大洲には30を超える工房や工場があり、蠶や絹の生産などの産業を支え、成長する中産階級を支えていました。ここに展示されている当時の写真に、この経済的・文化的繁栄の記憶が残されています。また、当時の建築物が町並みの一部として今なお数多く存在しています。

近代の交通手段が河川ルートではなくなったことで、大洲の交易拠点としての役割は縮小していきました。人口は減少し、一部の歴史的建造物は使用されなくなりました。しかし今日では、再生への取り組みによ

り、この町の建築遺産が守られています。

鵜飼

鵜を使った漁、鵜飼は、1957年に地元の観光振興の一環として、肱川で復活しました。これは、領主が鵜を連れて川釣りに行ったという江戸時代（1603～1867）の記録から着想を得たものです。

6月1日から9月20日までの夕方には、訓練された海鵜を使って魚を捕る鵜飼の実演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海鵜の首には、獲物を飲み込まないようにロープで作られた輪が付けられています。漁師は松明を灯した船に乗り、松明からの火の粉から髪を守るために布帽子を被り、海鵜を操る際に水しぶきで濡れないように藁の腰蓑を巻いています。観客は、海鵜が川に放たれ、魚を捕まえ、船に戻って吐籠に集める様子を、近くの船から見守ります。

【タイトル】 大洲歴史探訪館/城下町再生のストーリー

【想定媒体】 看板/Web

<韓国語>

성곽 마을의 재생

오즈는 지난 수십 년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0 세기 중반 인구수가 정점을 찍은 후 오즈에는 인구 감소, 건물 노후화, 산업 위축 등 여러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현지 단체들은 오즈의 예스러운 마을 풍경을 보존하고 시민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지역사회 기반의 재생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장시간 방치되었던 건축물을 복원하고 상점, 음식점, 숙박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서 깊은 건물들의 보수를 통해 옛 성곽 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지킴과 동시에 마을 중심부의 상업적인 활력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사업으로는 2004 년 전통 건축공법으로 진행한 오즈성의 천수각 복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0 년에는 제한된 인원이 천수각에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하는 ‘오즈성 캐슬 스테이’ 프로그램도 선을 보였습니다. 캐슬 스테이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천수각은 일반 관광객들에게 기념물로 계속 개방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즈시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도시 재생을 위한 오즈의 노력은 일본 국내외에서 여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3 년에는 베를린에서 열린 ‘그린 데스티네이션 스토리 어워즈’ 문화유산 부문 1 위를 차지하는 등, 도시 재생 부문에서 여러 차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현재 오즈는 연간 7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大洲歴史探訪館/城下町再生のストーリー

大洲は、この数十年間で大きな変化を遂げていきました。20 世紀半ばに人口がピークに達してからは、人口減少、建物の老朽化、経済産業の縮小などを経験しました。これを受けて、住民や地域団体は、歴史的な町並みを保存し、市民生活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地域密着型の一連の再生プロジェクトを開始したのです。

こうした取り組みでは、長く放置されていた建造物を修繕し、店舗やレストラン、宿泊施設として再利用することに重点が置かれました。歴史上重要な建造物を修繕することで、かつての城下町の歴史的価値を維持しながら、町の中心部に商業活動の賑わい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中の重要なプロジェクトが大洲城天守閣の再建で、伝統的な建築工法を用いて 2004 年に完了しました。そして 2020 年、「大洲城キャッスルステイ」として知られる取り組みが開始され、天守閣は一般公開される記念碑としての機能を保ちつつ、期間・人数限定で宿泊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取り組みは、大洲への新たな関心の高まりに貢献しています。

こうした復興への努力は、その後、国内外から認め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2023 年には、町の再生に向けた取り組みを認定する賞の一つである、ベルリンで開催された「グリーン・デスティネーションズ・ストーリー・アワ

ード」の「文化・伝統保全」部門で、大洲市は世界 1 位を獲得しました。この町は現在、年間 7 万人を超える観光客を迎え入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大洲城/木造復元のストーリー

【想定媒体】 Web

<韓国語>
오즈성 복원

오즈성은 14 세기 초부터 줄곧 언덕 위에서 히지강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 세기 후반에 이르러 성은 심각한 황폐화에 직면했습니다. 본래의 천수각은 1888 년 철거되었고, 이후 100 년이 넘도록 성의 석조 토대와 현존하는 몇몇 망루만 쓸쓸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천수각은 2002 년과 2004 년 사이 지역사회의 주도로 복원되었으며, 그 이래로 도시의 재부흥과 부활을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0 년대 후반 시작된 시민운동을 통해 주민들은 전통적인 공법으로 천수각을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7 년이 넘도록 옛 지도들과 19 세기 사진 기록, 한때 성과 연이 있던 가문이 보관해 온 목재 모형을 토대로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천수각을 최대한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 신사와 사원 건축 전문가들도 투입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약 13 억 엔의 금액이 들었으며, 그중 일부는 지역사회의 기부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02 년 시작된 공사는 현지에서 조달한 목재, 수제 단조 쇠못, 전통 회반죽 기술, 소성 점토 기와를 활용해 진행되었습니다. 4 층으로 이루어진 천수각이 완공된 것은 2004 년으로, 여러 지자체가 합병해 오늘날의 오즈시를 이룬 지 50 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日本語仮訳>
大洲城/木造復元のストーリー

大洲城は14世紀初頭から、肱川を見下ろす丘の上に建っています。しかし、19世紀後半には深刻な荒廃に陥っていました。天守閣は1888年に取り壊され、1世紀以上にわたり、石造りの土台と現存する数棟の櫓だけが残されました。2002年から2004年にかけて、天守閣は地域住民によって修復され、以来、この町の復興と再生の象徴的存在となっています。

1990年代後半に始まった市民運動により、伝統的な工法で天守閣を再建することが決定されました。歴史的な地図、19世紀の写真、そしてかつて城にゆかりのあった一族が保存していた木製の模型を参考に、7年以上をかけて構想と準備が進められました。神社仏閣の建築を専門とする宮大工が招かれ、その構造を可能な限り忠実に再現しました。このプロジェクトの総工費は13億円で、資金の一部分は地域住民の寄付によるものでした。

建設作業は2002年に開始され、地元で調達した木材、手打ちで鍛造した鉄釘、伝統的な漆喰細工、焼成した粘土の屋根瓦が使用されました。2004年、4階建ての天守閣が完成し、時を同じくして、現在

の大洲市が誕生した自治体合併 50 周年を迎えました。

【タイトル】 大洲城/日本の城郭の仕組み

【想定媒体】 Web

<韓国語>**일본 성곽의 구조**

일본의 성곽은 방어 거점을 지휘하며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요새이자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곽의 구조는 성 핵심부를 중심에 두고 여러 구역(마루)을 동심원상으로 배치하는 고도의 체계적 양식을 따랐습니다.

성곽의 중심은 본 구역(혼마루)으로, 거대한 다층탑인 천수각이 자리한 곳입니다. 천수각은 공성전 시 최후의 거점이자 영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혼마루를 둘러싼 형태의 두 번째 구역(니노마루)에는 가신들의 거처와 주요 행정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의 세 번째 구역(산노마루)에는 주로 곡물 창고나 공방, 하급 무사를 위한 공간을 두었습니다.

성곽의 방어 체계는 겹겹이 쌓인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해자가 성곽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일부 성들은 건식 해자나 담수 해자를 여러 겹 둘러 적의 공격 속도를 늦추기도 했습니다. 안쪽으로 휘어진 돌벽(무사가에시: ‘무사를 쫓아 보낸다’는 뜻)은 적병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을 막고 공성 무기의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좁은 성문은 예각으로 배치해 적이 측면 공격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성벽을 따라 늘어선 망루는 감시탑이자 무기고였으며, 궁수와 조총병의 거점 역할도 겸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것은 물론, 지위가 높은 인물일수록 혼마루 가까이에 거주하는 식으로 당시의 계층 구조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곽의 건축 양식에는 군사적 독창성과 정치적 상징, 사회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洲城/日本の城郭の仕組み**

日本の城は要塞であると同時に行政の中心地でもあり、防御陣地を指揮しながら権力を誇示できるように設計されました。その構造は、城の中心を囲むように同心円状に配置された「丸」（曲輪）と呼ばれる、極めて整然とした様式に沿ったものでした。

中央に一の曲輪（本丸）があり、その中に数階建ての巨大な塔である天守閣がありました。この天守閣は攻撃に備えた最後の砦の役割を果たし、支配者である領主の権威を象徴していました。本丸を囲むように二の曲輪（二の丸）があり、家臣の屋敷や重要な管理棟が建てられました。さらにその外にあるのが三の曲輪（三の丸）で、多くの場合、穀物庫や作業場、下級武士のスペースなどがありました。

防御設備は、重層的かつ複雑な構造をしていました。堀は曲輪を囲んでおり、一部の城では、攻撃者を足止めするために、何重もの環状の水堀や空堀が掘られました。内側に傾いた曲線の石垣（「武者返

し」) は、攻撃者の登攀を防ぎ、攻城兵器の衝撃を吸収しました。狭い門は鋭角に配置されており、敵は側面からの攻撃にさらされました。城壁沿いには櫓が建ち並び、見張り台、武器庫、弓兵や鉄砲兵の拠点となっていました。

こうした配置は、手強い防御を作り出しただけでなく、階層も反映していました。本丸に近いほど、そこに住む者の地位は高くなっていました。このように、城郭建築は軍事的計略、政治的象徴、社会的秩序を表現していたのです。

【タイトル】 大洲城/キャッスルスティなどの取組み

【想定媒体】 Web

＜韓国語＞

오즈성 캐슬 스테이 체험

오즈성 캐슬 스테이는 오즈성의 성주 또는 성주 부인이 되어 복원된 천수각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특별한 숙박 체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즈시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유산을 나누고자 2020 년 개시되었습니다.

이 몰입형 체험은 마쓰야마 공항 등 미리 정해진 픽업 장소에서 당대의 갑옷을 갖춰 입은 ‘가신’이 투숙객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투숙객은 차로 성까지 이동하며,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은 뒤 환영 의식이 진행됩니다. 이 의식은 역사 기록의 묘사를 바탕으로 고증한 것으로 태고 연주, 고동 나팔 합주, 화승총 축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험 동안에는 재건된 천수각에 투숙객만 출입할 수 있게 되며, 현대식 편의 시설이 있어 편안한 숙박이 가능합니다. 저녁에는 전통 신도 무용 ‘가구라’ 등의 공연을 감상한 뒤, 현지의 제철 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여러 코스의 가이세키 만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내의 전용 욕탕에서 조명을 밝힌 천수각의 야경을 바라보며 목욕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히지강을 굽어보는 20 세기 초 정원 별장인 강 상류의 ‘가류 산장’에서 제공됩니다.

선택 활동으로는 다도 등의 문화 프로그램, 가이드가 동반하는 성곽 마을 산책, 히지강 유람선 관광 등이 있습니다. 오즈성 캐슬 스테이는 연간 30 회로 한정 운영하며, 1 박에 최대 6 인으로 이루어진 한 팀만 숙박 가능합니다.

＜日本語仮訳＞

大洲城/キャッスルスティなどの取組み

「大洲城キャッスルスティ」は、ゲストが復元された天守閣内で大洲城の城主や城主夫人になりきって一夜を過ごすことができる、他に類を見ない特別な宿泊体験です。同プログラムは、大洲市の歴史への理解を深め、その遺産を共有してもらうことを目的に、2020 年に開始されました。

この没入型体験は、松山空港など事前に手配した出迎え場所で、その当時さながらの甲冑を身にまとった「家臣」がゲストを迎えるところから始まります。その後、ゲストは城まで車で移動し、用意された伝統的な衣装に着替えてから、歴史上の記録の記述に基づいた儀式によって歓迎を受けます。儀式では、太鼓の演奏、法螺貝の響き渡る合奏、火縄銃の祝砲などが催されます。

この体験では、再建された天守閣を専用で利用することができ、快適な滞在を約束する最新設備が整っています。ゲストは、伝統的な神道の歌舞である神楽などの夜の余興を楽しんだ後、地元の旬の食材を使

った複数コースの会席料理の夕食を堪能します。また、城内にある貸切浴場も利用でき、夜にはライトアップされた天守閣を眺めることができます。朝食は、川上にある「臥龍山荘」でいただきます。ここは 20 世紀初頭の庭園別荘で、肱川を見下ろす場所にあります。

オプションで、茶道などの文化プログラム、城下町のガイド付き散策、肱川舟下りなどのアクティビティが用意されています。大洲城キャッスルスティは、1 泊 1 組 6 名様まで、年に 30 回限定で実施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大洲城/天守閣

【想定媒体】 Web

<韓国語>**천수각**

오즈성 천수각은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촬영된 사진 자료들과 건축 모형을 참고해 에도 시대 후기(1853~1867)의 모습으로 재현된 것입니다. 전후 복원된 성들은 콘크리트로 지은 경우가 많지만 오즈성 천수각은 원래 건물이 지어졌던 시대의 기술과 재료를 활용해 목조로 재건했습니다. 높이 19.15m의 목조 건물로, 재건된 일본의 성 중 최대 높이를 자랑합니다.

복원 계획은 1990 년대에 시작되었으며 7 년 넘는 세월에 걸쳐 역사 기록과 지도를 연구한 것은 물론 19 세기 사진, 보존된 구조 자료, 에도 시대(1603~1867)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목재 축소 모형 등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현존하는 방대한 자료들 덕분에 이례적으로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모여든 전문가와 장인들은 전통 기법을 이용해 천수각의 이음새와 겹겹이 바른 회반죽, 수제 기와, 철제 창호 등을 재현해 냈습니다.

현지에서 조달한 노송나무 등의 목재는 당시 기준에 맞도록 신중하게 선별하여 건조 처리하였으며, 다수의 지주 기둥들은 지역 단체에서 기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 기둥은 중심이 살짝 비껴난 위치에 있는데, 강한 북풍을 견디기 위해 이렇게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1 층과 2 층 사이에 있는 2 층 높이의 트인 공간입니다. 이처럼 높이 올린 중앙 공간은 다른 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 기둥을 돋보이게 하거나 수납공간을 늘리기 위해서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洲城/天守閣**

大洲城の天守閣は、天守の建築模型や明治時代（1868～1912）に撮影された写真を参考にして再建され、江戸時代後期（1853～1867）の姿に復元されました。戦後に復元された城の多くはコンクリート製でしたが、この建物は、当初の天守閣と同時代の技術や資材を用いて木造で再建されました。高さは19.15メートルで、木造再建城郭としては日本でも有数の高さを誇ります。

復元計画は1990年代に始まり、7年以上にわたり、歴史上の記録や古地図の調査に加え、19世紀の写真、保存されている構造資料、江戸時代（1603～1867）から保存されている木製模型などを調査しました。現存する資料が多いことから、類を見ない精密さでの復元が実現しました。全国から専門家や職人が集まり、伝統的な手法を用いて、建造物の建具や何層にも重ねた漆喰、手製の瓦、鉄製建具などを再現していきました。

地元大洲産のヒノキをはじめとする木材は、当時の基準に合うように慎重に厳選され、乾燥処理されました。支柱の多くは地域団体から寄贈されたものです。主柱はやや中心からずれた位置にあり、これは強い北風に対する耐久性を高める設計要素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もうひとつの特徴は、1 階から 2 階にかけて 2 階分の吹き抜け構造になっていることで、他の城には見られない、高さのある中央の空間を作り出しています。この構造の理由は今なお不明ですが、主柱を目立たせるため、あるいは収納スペースを増やすためだったとする説があります。

【タイトル】 大洲城/台所櫓

【想定媒体】 Web

<韓国語>**부엌 망루**

부엌(다이도코로) 망루는 성주와 가신들의 식사를 준비하던 곳입니다. 천수각 바로 옆에 자리한 이 건물은 천수각 다음으로 규모가 컸으며, 성내에서 실용적 역할과 상징적 역할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전통적인 주방 공간에 흔히 사용되던 다진 흙바닥, 환기용 격자창, 창밖으로 총구를 겨눌 수 있는 벽면의 개구부를 보면 이곳이 가사와 방어 기능을 겸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수각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히지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면 성곽이 더욱 거대해 보여, 요새의 위용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1857년 지진으로 크게 훼손되어 1859년 재건되었고 이후 약 100년간 방치되었다가 1970년에 다시 보수되었습니다. 부엌 망루는 오즈성 내 현존하는 4채의 원형 망루 중 하나이며,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洲城/台所櫓**

台所櫓は、城主や家臣たちの食事を準備する場所でした。天守閣の隣に位置し、天守閣に次ぐ大きな建物で、城郭内で実用的かつ象徴的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

伝統的な厨房空間によく見られる土間、換気用の格子窓、壁には銃器用の四角い開口部があり、家事と防衛機能を兼ね備えた構造になっています。天守閣に隣接しているため、肱川を挟んで対岸から見ると城がより大きく映し出され、城郭の威容を高めていました。この建物は 1857 年の地震で甚大な被害を受け、1859 年に再建されました。その後、約 1 世紀間放置され、1970 年に再び修復されました。大洲城の現存する 4 つの櫓の 1 つで、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大洲城/高欄櫓

【想定媒体】 Web

<韓国語>**난간 망루**

성곽 서쪽에 자리한 난간(고란) 망루만의 특징은 난간이 설치된 2층 뒹마루입니다. 이곳에서는 성 부지가 훤히 내려다보입니다. 난간은 보통 천수각에 설치하므로, 망루에 설치한 형태는 특이합니다. 또한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들에게 돌을 떨어뜨리기 위한 개구부 등 방어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1857년 지진으로 크게 훼손되어 1860년 재건되었습니다. 지금도 천장에서 당시 사용한 목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에는 수지 함유량이 높아 유연하고 지진에 잘 견디는 굵은 솔통나무들이 쓰였으며, 20세기에는 대만에서 공수한 튼튼한 편백 대들보로 한층 더 보강했습니다. 난간 망루는 오즈성 내 현존하는 4채의 원형 망루 중 하나이며,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洲城/高欄櫓**

城郭の西側にある高欄櫓の最も際立った特徴は、高欄のある2階の縁側で、ここから城の敷地を見下ろすことができます。高欄櫓は天守閣によく見られるため、櫓に欄干が設置されているのは珍しいことです。また、この櫓には防御機能も組み込まれており、下の城壁を登ろうとする敵に向けて石を落とすための開口部もあります。

この建造物は1857年の地震で甚大な被害を受け、1860年に再建されました。その再建時の木材が天井に残っているのを目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太い松の丸太が使用されたのは、樹脂を多く含むその組成により、柔軟性と耐震性が向上するためです。20世紀には台湾から輸入した頑丈なヒノキの梁で、さらに補強されました。高欄櫓は大洲城に現存する4つの櫓の1つで、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大洲城/その他櫓

【想定媒体】 Web

<韓国語>**그밖의 망루들**

전성기의 오즈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부지를 아울렀으며, 성터도 오늘날의 배치 바깥으로 더 멀리 뻗어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두 망루의 위치를 보면 당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옛 외곽 해자를 따라 자리한 산노마루 미나미스미 망루, 그리고 히지강변에 있는 오와타 망루입니다. 이 두 망루는 오즈성 내 현존하는 4 채의 원형 망루 중 두 곳이며,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노마루 미나미스미 망루는 천수각에서 약 300m 떨어진 옛 성터의 남쪽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본래 건립 연도는 알 수 없지만 1766년 재건된 것으로, 오즈성에 남아 있는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방어 시설로는 성을 공격하는 적에게 돌을 떨어뜨리기 위한 개구부와 회벽 뒤에 숨겨진 총안이 있습니다.

오와타 망루는 천수각에서 약 150m 떨어진 히지강변 근처에 있는 망루입니다. 17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843년 재건되었습니다. 이후 1959년 해체 보수 과정에서 범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돌벽을 약 2.6m 높여 지었습니다.

<日本語仮訳>**大洲城/その他櫓**

最盛期の大洲城は、現在よりもはるかに広大な城郭を擁し、その敷地は現在の配置を大きく上回るものでした。当時の規模は、2つの現存する櫓の位置から明らかです。旧外堀沿いに位置する三の丸南隅櫓と、肱川の堤防に位置する苧綿櫓です。これらは大洲城に当初から現存する4棟の櫓のうちの2つで、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三の丸南隅櫓は、天守閣から300メートルほど離れた、旧城敷地の南端に建っています。創建年代は不明ですが、1766年に再建されたもので、大洲城に現存する最古の建造物です。防御機能としては、敵に向けて石を落とすための開口部や、漆喰の後ろに隠された射撃口などが設けられています。

苧綿櫓は、肱川の堤防近くに位置し、天守閣から南東に150メートルほど離れています。17世紀に創建されたと考えられており、1843年に再建されました。この建造物は1959年に解体修理され、その際、洪水による被害を防ぐために石垣が約2.6メートルかさ上げされていました。

【タイトル】 大洲城/暗がり門

【想定媒体】 Web

<韓国語>

기타 성곽 방어 시설: 구라가리 문, 휘어진 성벽, 우물

건축물로서의 오즈성은 성곽 내부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천수각 근처, 성 안뜰로 이어지는 비탈길 정상에서 ‘구라가리 문’으로 추정되는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은 최후의 방어 관문이자 성내에서 가장 큰 문이었습니다. 구라가리 문으로 진입하는 길의 급회전 구간은 복도형 망루로 가려져 어둡고 밀폐된 공간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치는 적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 감각을 교란해, 안뜰을 둘러싼 망루에 배치된 수비대의 총포나 화살에 더 취약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계단식 언덕 위에 자리한 성곽의 본 구역 중 일부는 돌을 정교하게 쌓아 만든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쪽으로 휘어진 이 벽은 무사가에시(‘무사를 쫓아 보낸다’는 뜻)라고 부릅니다. 주 지지벽에서는 지진 후 보수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수각 서쪽 본 구역의 하층부에는 돌을 둘러 만든 대형 우물이 있습니다. 공성전을 무사히 버티려면 반드시 성곽 안에 수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름 약 3.8m의 이 우물은 일본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성내 우물이기도 합니다.

<日本語仮訳>
大洲城/暗がり門

大洲城の建造物には、城郭内を守るために設計された、様々な種類の施設が備わっています。

天守閣の近く、中庭に続く坂の頂上で、研究者たちは「暗がり門」と思われる遺構を発見しました。これが最終の防御門で、城の敷地内で最大の門でした。入口は、廊下のような櫓に覆われた急曲線があり、暗く閉ざされた空間を作り出していました。この配置は、敵の侵入を遅らせ、方向感覚を失わせ、中庭を囲む櫓に配置された守備隊からの銃撃や弓矢の攻撃を受けやすくするよう設計されました。

城の主郭は段々になった丘の上にあり、その一部は「武者返し」と呼ばれる内側に傾いた曲線の石垣で覆われています。この壁は石を丁寧に積み上げて造られています。主要な擁壁には、地震後に補修された跡が見られます。

曲輪の下層、天守閣の西側には、石積みの大きな井戸があります。城内での水源の利用は、攻城戦に耐えるために不可欠でした。この井戸は直径約 3.8メートル、国内最大級の城郭の井戸です。

【タイトル】 臥龍山莊/日本庭園とは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일본 정원의 특징은?**

일본의 전통 정원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그 본질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건축 공간과 주변 경관의 어우러짐을 추구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섬세한 디테일과 자연물의 세심한 균형을 통해 사색을 위한 영감을 줍니다.

일본 정원 구성의 핵심 개념은 강산과 하늘 등의 배경 요소를 정원에 끌어들이는 ‘차경’입니다. 이를 통해 공간감을 넓히고, 정원이 보다 큰 자연환경의 일부처럼 느껴지도록 합니다. 정원의 공간 구성은 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담벼락이나 징검돌 길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시선의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별장 입구 근처의 옹벽을 뚫고 자라나도록 내버려둔 나무에서도 지형과 건축물의 이러한 상호작용이 드러납니다.

식재 초목도 계절의 변화와 조화를 고려해 선택합니다. 가류 산장의 경우 금송, 팽나무, 녹나무 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넓게 깔린 이끼는 차분하면서도 질감이 느껴져 정원에 통일감을 더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시간의 변화와 자연의 심오한 질서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사색의 공간을 이룹니다.

이 정원을 후세에도 전할 수 있도록, 가류 산장을 방문하실 때는 쉽게 손상되는 섬세한 이끼를 보호하기 위해 돌길 위로만 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日本語仮訳>**臥龍山莊/日本庭園とは**

伝統的な日本庭園は、自然を忠実に再現するというよりは、その本質を捉えるように設計されています。建築空間と周囲の景観との融合は重要な特徴となっています。精緻な細部と自然要素の入念なバランスによって、訪れる人々の内省を促します。

日本庭園の構成において重要なコンセプトとなっているのが借景で、川や山、空といった背景要素を取り入れています。これにより、空間感覚が広がり、より広大な自然環境の中に庭園を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石は空間構造を定義し、地形の自然な輪郭に沿った壁や飛び石の通路を形成すると同時に、注目点も作り出します。こうした地形と建築の相互作用の一例は、別荘の入口近くの擁壁から成長を続けている木々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

植栽は季節感と調和に重きを置いて選出されます。臥龍山莊には、コウヤマキ、エノキ、クスノキなどがあります。苔が一面に生い茂ることで、控えめで陰影のある外観が生じ、庭園に統一感を生み出しています。こうした要素が相まって、移りゆく時間のリズムや自然の深い秩序を感じ取れる、美的景観と瞑想の場が創

出されています。

この庭園を未来の世代に向けて残していくために、来園者は石畳の小道から踏み出さず、繊細で傷みやすい苔の保護に協力するよう求め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臥龍山莊/建築当初の時代背景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가류 산장의 기원

가류 산장은 20 세기 초, 오즈 출신의 부유한 목랍 상인 고치 도라지로(1853~1909)가 지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고베에 머물던 그는 건축 자재와 설계 특징을 서신으로 상세히 지시하며 약 10 년간 이 별장과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도라지로는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 속에 에도 시대(1603~1867)의 오랜 문화적 관습이 점차 쇠퇴해 가던 시기에 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다도인이자 노 공연과 에도 시대 건축물에 애착을 지녔던 그는 가류 산장을 통해 이러한 전통을 담아내고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산장 곳곳의 설계적 특징에서 도라지로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건물은 다도 문화와 관련된 ‘스키야즈쿠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후로안 다실을 들 수 있습니다. 본채 가류인에는 다다미를 치우면 노 공연을 위한 무대가 나타나도록 설계된 방도 하나 있습니다.

산장이 자리한 곳의 이름인 가류(와류, 즉 ‘누운 용’)는 강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인 호라이산의 형상에서 따 왔습니다. 본채 가류인, 부속 건물 분코, 다실 후로안은 일본의 중요문화재이며, 정원은 국가지정 명승지입니다.

＜日本語仮訳＞

臥龍山莊/建築当初の時代背景

臥龍山莊は 20 世紀初頭、大洲出身の裕福な蠟商人であった河内寅次郎（1853～1909）によって築造されました。彼は神戸にある彼の事業本部から、資材や設計の特徴を詳細に指示しながら、およそ 10 年かけて山莊とその庭園を築き上げました。

河内がこのプロジェクトに取り組んだのは、日本の近代化が急速に進み、江戸時代（1603～1867）から長く続いてきた文化的慣習が色あせつつあると思われる時期でした。茶道を実践し、能楽、江戸時代の建築を愛好していた彼は、臥龍山莊にこれらの伝統を体現し、保存することを企図していました。

敷地全体を通して入念に選定された設計は、河内の理想を反映しています。建物は茶文化に関連する数寄屋造りの様式で建てられており、肱川に張り出した茶室の不老庵はその代表例です。本邸である臥龍院の一室は、畳を外すと能舞台が現れるように造られています。

この別荘の所在地は臥龍（「臥せる龍」）と呼ばれ、その名は川に浮かぶ小島である蓬萊山の形状と結

びついています。本邸の臥龍院、別邸の文庫、茶室の不老庵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また、庭園は国指定名勝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臥龍山莊/臥龍院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가류인**

가류 산장의 본채 가류인은 1905 년 완공되었으며, 에도 시대(1603~1867) 다도 문화와 관련된 ‘스키야즈쿠리’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오즈 출신의 부유한 목탑 상인 고치 도라지로(1853~1909)는 에도 시대의 미학과 전통을 그대로 담아낸 별장을 구현하고자 최고의 장인들을 모아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가류인의 초가지붕 구조에서는 교토의 가쓰라리큐와 같은 저명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요소가 엿보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전통 초가지붕, 다다미방을 둘러싼 비막이 툇마루 ‘엔가와’, 그리고 에도 시대의 미학과 문화적 관념이 느껴지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엔가와’는 지지 기둥 없이 넓은 폭으로 뻗어 있어 특히 눈에 띕니다. 지붕틀에 숨겨진 서까래가 처마의 무게를 지탱하므로 실내에서 탁 트인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엔가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장인의 섬세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솔송나무 마루판의 끝단은 거친 나뭇결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재단하고 맞물렸습니다. 이음부에는 얇은 마루판 하나가 다른 마루판의 끝부분을 덮어 비바람으로부터 안쪽 목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뛰어난 장인 정신은 구조 전반의 디테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日本語仮訳>**臥龍山莊/臥龍院**

1905 年に完成した臥龍院は、江戸時代（1603～1867）の茶文化に関連する数寄屋造りの建築様式で築造されました。大洲の裕福な蠟商人であった河内寅次郎（1853～1909）は、江戸時代の美意識と伝統を体現した隠れ家という構想を実現するために、名工たちを集結させました。茅葺き屋根の構造には、京都の桂離宮などの名建築から着想を得た設計要素が取り入れられています。

その主な特徴は、伝統的な藁葺き屋根、縁側（畳部屋を囲む屋根付きのベランダ）や調度品を含み、江戸時代の美意識と文化的理想を受け継いでいます。縁側は、眺望を遮らないように垂直の支柱を設けず、幅が広く設計されている点で、特に注目に値するものです。屋根トラスに隠された梁が軒の重量を支え、内部から遮ることのない景観を実現しています。

縁側をよく観察すると、細部まで行き届いた職人技が見てとれます。米杓の床板は、木材端部の木目が露出しないように、慎重に切断され接合されています。その接合部分は、片方の木板の薄い部分がもう片方の端部と重なり合い、内側の木材を風雨から守っています。こうした職人技が、建物全体の細部にまで表現されているのです。

【タイトル】臥龍山莊/清吹の間

【想定媒体】Web/その他

<韓国語>**세이스이노마**

이 방은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물과 시원함에 관련된 건축적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세이스이노마라는 이름은 ‘여름 산들바람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북쪽을 향해 있어서 시원한 북풍이 들어오고 가류인의 다른 방에 비해 천장이 높습니다.

네 벽면에는 물을 주제로 한 계절별 문양 조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신단 아래의 장식용 ‘란마(가로대)’에는 벚꽃과 땃목이 새겨져 있어 봄의 정취가 느껴지며, 한때 히지강 아래로 실어 나르던 목재가 떠오릅니다. 새겨진 윤곽선을 통과한 빛은 그 장면을 앞쪽 장지문에 아로새깁니다.

반대쪽 벽의 눈꽃을 닮은 육각형 창문은 겨울을 나타냅니다. 북쪽의 란마에는 여름을 상징하는 물결이 새겨져 있고, 잇시노마와의 경계를 이루는 가로대에는 물 위에 뜬 국화가 가을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日本語仮訳>**臥龍山莊/清吹の間**

この部屋には、水と涼を連想させる建築的特徴が取り入れられており、夏の暑さを和らげることを想定して設計されています。清吹の間は「夏のそよ風の部屋」を意味します。涼しい北風を受けるため北向きで、臥龍院の他の部屋よりも天井が高くなっています。

四方のすべての壁には、季節ごとの水にちなんだ彫刻が施されています。神棚の下飾り欄間には、桜の花と丸太の筏が彫刻され、春の季節と当時肱川を流れ下っていた木材を連想させます。彫刻の輪郭から光が差し込み、正面の障子にその情景が映し出されます。

反対側の壁の窓は、雪の結晶に似せた六角形で、冬を表現しています。北側の欄間には夏を象徴する水紋が彫刻され、壺是の間とを仕切る欄間には水面に浮かぶ野菊が描かれ、その描写は秋を連想させます。

【タイトル】臥龍山莊/壺是の間

【想定媒体】Web/その他

<韓国語>**잇시노마**

‘잇시노마(접견실)’는 손님을 맞이하는 주된 공간으로, 정원과 그 너머의 강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둥근 창과 판정 천장판, 족자가 걸린 커다란 벽감이 눈에 띕니다.

방 안의 목조물은 가류 산장을 지은 목공들의 뛰어난 솜씨를 잘 보여줍니다. 천장판과 후스마 미닫이문에는 가스가산(産) 삼나무 판을 사용했으며, 벽감의 삼나무 기둥은 네면이 모두 곧고 나뭇결이 균일하도록 재단하고 다듬었습니다. 미닫이문 위의 장식용 가로대에는 국화와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방의 특별한 점은 다다미를 걷으면 노 공연을 위한 무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루 아래에 놓인 열두 개의 비젠야키 항아리는 소리의 울림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日本語仮訳>**臥龍山莊/壺是の間**

壺是の間（「応接室」）は客人を迎える主室で、庭園とその向こうの川の景色を一望できる造りとなっています。丸窓、格天井板、そして掛軸のある広い床の間を特徴としています。

室内の木工細工には、臥龍山莊の名工の技が反映されています。天井板や襖には春日杉の板が使用され、床の間の杉柱は、四方すべてに均等な木目がまっすぐ現れるように切断され、鉋がかけられています。障子の上の飾り欄間には野菊と鳳凰の透かし彫りが施されています。

この部屋の特徴は、畳を外して能楽の舞台として使用できることです。また、床下には備前焼の壺が12個置かれ、音響効果を高めています。

【タイトル】臥龍山莊/霞月の間

【想定媒体】Web/その他

<韓国語>
가게쓰노마

‘흐릿한 달의 방’을 뜻하는 가게쓰노마의 구조는 저녁과 어스름이라는 주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벽면은 여러 색조의 회색으로 칠했으며, 공간 곳곳에는 방문객의 시선을 끌며 자세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미묘한 시각적 장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벽감에는 후지산을 그린 족자 앞에 층층이 선반이 놓여 있는데, 마치 안개구름이 산을 반쯤 가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족자 옆에는 나무 격자로 덮인 둥근 창이 나 있습니다. 이 창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 뒤편 유리창에 드리운 그림자가 변하며 초승달이나 그믐달처럼 보이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보름달처럼 보입니다.

어스름의 정취는 공간 전체에 깃들여 있습니다. 벽장 미닫이문은 회색 종이를 발라 마감했으며, 금속 손잡이는 박쥐의 형상입니다. 작은 미닫이 판과 선반, 목조 조각품에는 밤에 꽃을 피우는 조롱박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양에는 총 6 개의 조롱박이 존재합니다.

북쪽 벽면의 석회벽 일부는 ‘와비사비’의 미학을 담아내고자 일부러 미완성 상태로 두어, 덧없음과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식 수제 종이 ‘와시’를 바른 천장은 은은한 조명 아래 부드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히지강을 마주 보는 격자창은 강물 위 배에서 던진 그물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日本語仮訳>
臥龍山莊/霞月の間

「霞月の間」は「おぼろ月の部屋」を意味し、夕暮れや夜というテーマに着想を得て設計されています。壁は濃淡のある鼠色で塗装され、その空間には、様々なさりげない視覚的な仕掛けが取り入れられており、訪問客の目を惹きつけて愉しませています。

床の間の掛け軸には富士山が描かれており、その前に違い棚が置かれ、富士山を部分的に隠している霞に似せて作られています。掛け軸の横には木製の格子で覆われた丸窓があります。見る角度を変えると、背後のガラスに映る影が、満ち欠ける月のように変化します。真正面から見ると、まるで満月のようです。

夕暮れの演出は、この空間全体に満ちています。押入れの襖は鼠色を基調とした襖紙で仕上げられ、コウモリの細工が施された金属製の引手が付いています。小さな引き戸や棚、木彫り細工には、夜になると花を咲かせる瓢箪の透かし彫りが見られます。瓢箪は全部で 6 つあります。

北側の壁は、侘び寂びの美学を反映させるために、漆喰の一部が意図的に塗り残されており、はかなさや

不完全さの中に存在する美を表現しています。天井は手漉きの和紙で仕上げられ、薄暗い光の中に柔らかな要素を添えています。肱川に面した格子窓は、水上の船から投げられた漁網を思わせるよう設計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臥龍山莊/知止庵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

지시안

이 작은 구조물은 본래 욕실이었습니다. 1949 년 다실로 개조되었는데, 이는 가류 산장의 설계에 다도 문화가 지닌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시안에 출입은 불가하며, 안을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액자에 담긴 ‘지시(知止)’라는 글씨는 오즈번의 10 대 다이묘 영주 가토 야스즈미(1787~1826)의 필체입니다. 지시는 ‘지혜로운 멈춤’이라는 의미로, 무언가를 멈추거나 중용을 지킬 때를 아는 지혜에 관한 유교 사상을 일컫습니다.

벽면의 징두리 판에는 오즈번의 3 대 다이묘 영주 가토 야스쓰네(1674~1715)가 쓴 다회(茶會) 일지 「다방일기」의 낡은 책장이 붙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臥龍山莊/知止庵

この小さな建物はもともと浴室として建てられました。1949 年に改装され茶室となり、臥龍山莊の設計における茶文化の重要性を反映しています。訪問客は知止庵に入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中の様子を見ることが出来ます。

額装された「知止」の書は、大洲藩第 10 代藩主、加藤泰済（1787～1826）の作品です。「知止」は文字通り「止まるを知る」を表し、物事の止め時や、ほどよく行うという知恵を持つという儒教の教えを表しています。

壁の羽目板には、大洲藩第 3 代藩主、加藤泰恒（1674～1715）が記した茶会の日記である『茶方日記』の古紙が貼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臥龍山莊/不老庵

【想定媒体】 Web/その他

<韓国語>**후로안**

1901년 건립된 후로안 다실은 가류 산장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건축학적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곳은 구마 겐고와 이토 도요오를 비롯한 현대 건축가와 예술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교토의 기요미즈데라 사원과 마찬가지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 약 7m 높이의 기둥으로 지탱하는 현수 구조의 건물입니다. 이 기둥들 중 하나는 실제 살아있는 나무로서, 절벽 끝자락에서 튀어나온 모양새가 히지강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부의 천장은 대나무를 엮어 만들었으며 배의 밑바닥처럼 생겼습니다. 천장의 곡면은 마치 자연의 영사막인 양 역할을 겸해, 강물에 반사된 햇빛과 달빛을 대나무 천장에 일렁이며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日本語仮訳>**臥龍山莊/不老庵**

不老庵は1901年に臥龍山莊で最初に建てられた建物です。建築の傑作と評され、隈研吾や伊東豊雄といった現代の建築家や芸術家たちによって研究されてきました。

京都の清水寺と同様、崖の上に位置し、高さ7メートルほどの柱で支えられた懸り造りの建築様式です。そのうちの1本は、実際に生きた木を使用しています。崖の上に張り出したこの建造物は、肱川に浮かぶ船を想起させるようデザインされています。

室内の天井は竹で編まれており、船底のような形をしています。天井の曲面は、自然の映写幕にもなっており、日光や月明かりが川面に反射して竹の天井に揺らめき、室内を優しく照らします。

【タイトル】臥龍山莊/庭園

【想定媒体】Web/その他

<韓国語>

가류 산장 정원

가류 산장의 정원에는 일본 전통 디자인의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심하게 고려한 디테일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정원이 위치한 히지강변의 수려한 경치를 십분 활용하여 공간감을 넓히고, 전원 풍경까지 정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끌어들이었습니다.

징검돌 길은 지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이어지며, 강 위의 작은 섬인 호라이산을 비롯해 차경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조망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섬 위의 바위와 식물은 작은 산악 풍경이 연상되도록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정원에서 바라본 이 섬은 한 아득히 멀고 신성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정원에는 계절의 변화와 시각적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식물을 배치했습니다. 금송, 팽나무, 녹나무, 진달래 등이 대조적인 색감과 질감으로 사계절 내내 정원을 수놓습니다. 땅을 덮은 여린 이끼를 보호하기 위해, 가류 산장을 방문하실 때는 징검돌 위로만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징검돌 중에는 일본 각지에서 가져온 오래된 맷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臥龍山莊/庭園

臥龍山莊の庭園は、日本の伝統的な設計美学を反映しています。自然の美しさと、深く配慮が行き届いた細部が融合し、周囲の景観と調和しています。この庭園は肱川沿いの風光明媚な立地を最大限に生かして、空間を広げるとともに、田園風景を庭園内の構図に取り入れています。

飛び石の小道は地形の自然な輪郭に沿っており、川の小島である蓬萊山などの借景を意識的に用いた景観が次々に現れます。この小島の岩石や植栽は、山の風景の縮図を思わせるよう巧みに配置されており、庭園から眺める蓬萊山は、人里離れた神聖な空間を感じさせます。

庭園には、季節感と視覚的調和に重きを置いて厳選された、さまざまな植栽が取り入れられています。コウヤマキ、エノキ、クスノキ、ツツジなど、一年を通して対照的な色彩と質感で庭園を彩ります。敷地を覆う繊細な苔を保護するため、国内各地から収集された古い石臼などの飛び石が設置されており、訪問客はその上のみを歩くよう求められます。

【タイトル】臥龍山莊/蓬萊山

【想定媒体】Web/その他

<韓国語>**호라이산**

호라이산은 가류 산장 옆, 히지강 위의 작은 섬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섬 모양이 누워 있는 용을 닮았다고 해서 가류(와룡)라고도 부릅니다. 한때는 등나무 덩굴로 이루어진 장식 다리가 강둑과 섬을 이었으며, 그때 다리를 지탱하던 돌기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류 산장 정원은 차경의 원칙을 활용해 호라이산과 주변 풍경을 정원의 구성 요소로 끌어들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별장에서 바라본 섬은 정원에 시각적 깊이를 더하고, 실제 경계를 넘어 넓게 뻗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길고 나지막한 섬의 윤곽이 본체의 선과 어우러지며 별장의 건축 구조와 자연경관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합니다. 섬 위의 바위와 식물은 작은 산악 풍경이 연상되도록 배치되어 있어 마치 신선들이 사는 아득히 먼 섬처럼 느껴집니다.

<日本語仮訳>**臥龍山莊/蓬萊山**

蓬萊山とは、臥龍山莊に隣接する肱川に浮かぶ小さな小島に付けられた名前です。その形から、臥龍（「臥せる龍」）とも呼ばれています。かつては藤の蔓でできた飾り橋が蓬萊山と川岸を結んでおり、橋を支えた石柱は現在も残っています。

臥龍山莊の庭園は、蓬萊山と周囲の風景をその構図に取り入れ、借景の原理を用いて設計されています。この別荘から眺める小島は、庭園の境界を超えて、視覚的な奥行きと広がりを感じさせます。長く低いその姿は母屋のシルエットと調和し、自然環境と別荘建築の間に、バランスの取れた関係を築いています。この小島の岩石や植栽は、山の風景の縮図を思わせるよう配置されており、人里離れた神仙の島を彷彿とさせます。

【タイトル】 盤泉荘/盤泉荘パンフレット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반센소 팸플릿

반센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 마쓰이가 저택으로도 알려진 반센소는 오즈의 번영이 정점에 달했던 20세기 초반의 별장으로, 외국과 일본의 요소가 어우러진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유명합니다.

반센소는 필리핀에서 무역 회사를 경영하며 일본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점을 운영했던 마쓰이 구니고로(1875~1945), 마쓰이 텐자부로(1870~1920) 형제가 1926년 지은 건물입니다. 앞뜰 옆에 있던 옛 창고는 이제 마쓰이 가문 관련 유물과 사진, 기타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 되었습니다.

이 저택은 오즈시에 기증된 뒤 2021년부터 대중에 공개되었으며, 저택 뒤편 언덕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가리켜 ‘반석샘 별장’이라는 의미의 ‘반센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외관과 석조물

반센소는 가파른 산비탈에 자리한 3층 목조 저택으로, 현지에서 공수한 돌을 십자형으로 교차해 쌓아 올린 옹벽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어 유노키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며 히지강과 주변 풍경도 내려다보입니다. 2층에는 당시로서 흔치 않게도 넓은 현대식 발코니가 있습니다.

앞뜰

반센소로 이어지는 정문에 들어서면 전통식 일본 석등과 큼지막한 돌을 넓은 간격으로 간 돌길, 그리고 토기 사자상이 있는 정원이 나옵니다. 이 사자상은 20세기 초 부활한 현지의 옛 공예품인 신야나세 도자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자상의 디자인에서는 해외 문물에 대한 형제의 관심이 느껴지며, 소재 선정에서는 지역의 전통을 생각하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복도

주 복도의 바닥에는 단단한 열대 활엽수인 이필 판재 약 20장이 깔려 있습니다. 각 판재는 대략 2.5m x 1m 크기로, 폭이 좁은 여러 장의 판재를 간 주거 공간과 달리 바닥 표면이 곧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차이 덕분에 주 복도는 손님을 받고 안내하는 격식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1층 다다미방

손님을 맞이하는 이 방은 후스마 미닫이문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문을 열면 뒤뜰과 주변 풍경이 펼쳐집니다. 높은 천장과 가로대, 벽감 모두가 검은 옷칠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다실

저택 뒤편의 다실은 고리버들세공 가구에서 엿볼 수 있듯이 뛰어난 장인의 솜씨가 돋보입니다. 벽에 설치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작은 돌출형 벽감은 마찬가지로 히지강 위 절벽에 매달려 있는 가류 산장의 후로안 다실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평 우물

산비탈의 급속 문 뒤에는 수평 우물이 암반 속으로 50m 가량 뻗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끌어낸 이 우물물은 반센소의 주방 근처에 있는 수조로 흐릅니다.

＜日本語仮訳＞

盤泉荘/盤泉荘パンフレット

盤泉荘へようこそ

旧松井家住宅としても知られる盤泉荘は、20 世紀初頭の別荘で、大洲の繁栄の最盛期を象徴する建造物です。当施設は、外国と日本の要素を融合させた異彩を放つ建築として有名です。

盤泉荘は、松井國五郎（1875～1945）と松井傳三郎（1870～1920）の兄弟によって 1926 年に建てられました。彼らは貿易会社を経営し、フィリピンで日本人移民向けの百貨店を操業していました。前庭に隣接するかつての蔵は、松井家の歴史に関する工芸品や写真、その他の資料を展示する展示室に改装されています。

この建物は、大洲市に寄贈され、2021 年に一般公開されました。邸宅の裏山から流れ出る天然の泉にちなみ、「岩盤の泉の別荘」、すなわち「盤泉荘」と名付けられました。

外観と石造り

盤泉荘は、急斜面に建てられた木造 3 階建ての邸宅で、地元で調達した石を X 字状に積み上げた擁壁で支えられています。高台に位置し、柚木の町を見下ろし、肱川とその周辺の景観を一望できます。2 階には現代風の大きなバルコニーがあり、当時としては珍しい設計です。

前庭

盤泉荘に通じる正門は、伝統的な日本式の石灯籠、大きな石を広い間隔で敷き詰めた道、土器製のライオン像などがある庭園に面しています。このライオン像は、20 世紀初頭に復活した太古の工芸である地元の新柳瀬焼で作られています。ライオン像のデザインは、海外文化に対する兄弟の興味を反映しており、素材は地域の伝統に対する彼らの擁護を示しています。

廊下

メインフロアの廊下には、イピールという高密度の熱帯硬木の一枚板が、約 20 枚敷き詰められています。それぞれの板の大きさは約 2.5 メートル×1 メートルで、居住用に使用されている幅の狭い複数の板からなる床材とは対照的な、一続きの表面を作り出しています。この区別により、メインの廊下は客人を迎え、案内するためのフォーマルな空間となっています。

1 階座敷

客人を迎える部屋は襖で仕切られており、襖を開けると後庭とその周辺の景色が広がります。高い天井、欄間、床の間は、すべて黒漆塗りで仕上げられています。

茶室

建物の奥にある茶室は、網代建具の調度品など、手の込んだ細工が施されています。壁柱で支えられた小さな突き出た床の間は、肱川の崖に張り出した臥龍山荘の茶室「不老庵」へのオマージュだとされています。

横井戸

丘の中腹にある金属製の扉の向こうには、岩肌から奥に約 50 メートル伸びる水平の井戸があります。その

水は、汲み上げて家の生活用水として使用され、盤泉荘の台所の近くにある貯水槽に向かって流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盤泉荘/日本の建築

【想定媒体】 Web

<韓国語>**반센소를 향한 마쓰이 텐자부로의 비전**

반센소는 오즈 출신의 사업가 마쓰이 텐자부로(1870~1920)의 꿈을 실현한 저택입니다. 텐자부로는 일본의 전통 건축양식에 필리핀 체류 중 여러 곳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들을 더해 히지강을 굽어보는 강가 별장을 짓고자 했습니다.

텐자부로와 그의 동생 구니고로(1875~1945)는 해외 무역 회사인 마쓰이 상회와 필리핀의 일본인 이민자 공동체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형제는 토지를 사들여 해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원 별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920 년, 텐자부로는 당시 유행하던 스페인 독감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건축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동생인 구니고로가 형의 계획을 토대로 우아한 자태의 반센소를 완공한 것은 1926 년입니다. 저택의 설계는 오즈의 한 부유한 목탑 상인이 1907 년 지은 강가 별장인 가류 산장에 일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뜰 옆, 옛 창고를 재 활용한 전시관에는 사진, 문서, 개인 소장품 등 마쓰이 가문과 관련된 다양한 물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盤泉荘/日本の建築**

盤泉荘は、大洲出身の実業家、松井傳三郎（1870～1920）の構想を具現化したものです。彼は肱川を見下ろす川辺に、日本の建築の伝統と、フィリピン時代に暮らしていた場所から着想を得た特徴を融合させた別荘を建てることを望んでいました。

傳三郎と弟の國五郎（1875～1945）は、フィリピンの移民コミュニティに輸入した日本製品を供給していた、彼らの海外貿易会社である松井商会とフィリピンの百貨店を通じて、海外で富を築きました。帰国後、兄弟は土地を購入し、海外での経験を生かし、田園地域の別荘建設に着手しました。

1920 年に傳三郎がスペイン風邪の流行で亡くなり、この計画は一時中断しました。國五郎はその後、1926 年に盤泉荘を完成させ、兄の設計に基づいた優雅な邸宅を造り上げました。この設計は、1907 年に大洲の裕福な蠟商人が築造した川沿いの別荘、臥龍山荘の影響も一部受けています。

前庭の横には、かつての蔵を再利用した展示室があり、写真や文書、身の回り品など、松井家ゆかりの品々が展示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盤泉荘/和洋折衷の文化

【想定媒体】 Web

<韓国語>**반센소의 건축과 미학**

반센소는 겉보기에는 전통 일본식 별장 같지만, 그 설계에는 일본과 외국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지어진 이 건물은 오랜 건축 전통과 해외 문화에 대한 마쓰이 일가의 시각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널찍한 툇마루와 큼직한 창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정원 풍경과 유노키 마을, 그리고 주변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1907년 건립된 가류 산장에서 영감을 얻어, 반센소도 견고한 돌담을 토대 삼아 가파른 산비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류 산장을 참고했다는 사실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후로안 다실을 그대로 본떠 만든 반센소의 다실입니다. 히지강 위로 뻗어 있는 후로안 다실처럼, 반센소의 다실도 외벽 바깥으로 살짝 튀어나온 벽감을 벽에 설치한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반센소의 앞뜰과 뒤뜰은 모두 전통 조경 설계의 면모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앞뜰에는 석등과 토기 사자상이 있으며, 이 사자상은 오즈에서 유래해 20세기 초 부활한 중세 공예품 ‘신야나세 도자기’로 만들었습니다. 뒤뜰에는 장수와 길운을 상징하는 거북과 학을 형상화한 석조물과 조각품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안채 다다미방을 비롯한 건물 내부의 방에는 높은 천장과 검은 옷칠 마감 등 전통 공예와 격식을 강조하는 요소가 엿보입니다.

별장 곳곳에서 이국적인 자재와 디자인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주 복도의 바닥에는 한 장당 대략 2.5m x 1m 크기의 큼직한 이필 판재 약 20장이 깔려 있습니다. 이필은 멀바우, 또는 보르네오 티크나무라고 부르는 단단한 열대 활엽수입니다. 앞뜰을 마주 보는 ‘오니가와라’ 용나무 기와에 새겨진 “K.M.”이라는 로마자는 반센소를 설계한 형제 중 동생인 마쓰이 구니고로(1875~1945)의 머리글자입니다. 그 외에 외국에서 영향을 받은 요소로는 대형 창문, 그리고 당시의 일본 주택 건축양식에서는 흔치 않은 널찍한 2층 발코니가 있습니다.

<日本語仮訳>**盤泉荘/和洋折衷の文化**

盤泉荘の外観は伝統的な日本の別荘のように見えますが、その設計は日本と外国の要素が融合したものとなっています。1920年代後半に建てられたこの建造物は、古くから続く建築の伝統と松井家の国際的なつながりを反映しています。広いベランダと大きな窓からは、庭園や柚木の町、周囲の景色を眺めることができます。

1907年に建てられた臥龍山荘から着想を得た盤泉荘も、急峻な丘の中腹に建ち、その基礎部分は頑丈な石垣で支えられています。もっとも顕著な着想は茶室に見られ、臥龍山荘の不老庵の茶室を直接模

倣して設計されました。その床の間は外壁からわずかに突き出ており、壁柱に支えられています。これは、脇川に張り出した不老庵の茶室と似た構造です。

敷地内には前庭と後庭があり、どちらも伝統的な造園様式の要素を取り入れています。前庭には、石灯籠と土器製のライオン像があります。このライオン像は、20世紀初頭に復活した大洲発祥の古代工芸である新柳瀬焼で造られています。後庭には長寿と幸運の象徴である亀や鶴をかたどった石や彫刻があります。建物内の大座敷をはじめとする各部屋には、高い天井や黒漆塗りの仕上げなど、伝統的な職人技と格式を強調する要素が施されています。

別荘内の至る所に、外国の素材や設計を取り入れていることが見てとれます。メインの廊下には、ボルネオチーク材や太平洋鉄木とも呼ばれる、熱帯硬木のイピールという大きな一枚板が約20枚敷き詰められています。それぞれの板の大きさは約2.5メートルx1メートルです。その他、東南アジア産の熱帯硬木が建物の随所に使用され、自生する米桐や黒檀とコントラストをなしています。前庭に面した屋根の鬼瓦には、ローマ字で「K.M.」のイニシャルが刻まれており、これは盤泉荘の設計を手掛けた2人の兄弟のうちの1人、松井國五郎（1875～1945）を指しています。外国の影響を受けたその他の特徴としては、広々としたガラス、大きな窓、そして当時の日本の住宅建築では珍しい要素であった2階の広いバルコニーなどがあります。

【タイトル】 盤泉荘/コンクリートの部屋

【想定媒体】 Web

<韓国語>**반센소의 경내**

별장과 주변 경관이 한데 어우러진 반센소(‘반석샘 별장’)의 경내는 앞뜰과 뒤뜰, 창고, 여러 기타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센소로 이어지는 정문에 들어서면 전통 석등과 20 세기 초에 부활한 중세 공예품인 신야나세 도자기로 만든 토기 사자상이 있는 정원이 나옵니다. 이 사자상은 전통적인 석조 수호 사자상보다 훨씬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쓰이 가문이 신야나세 기법을 후원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입구의 이국적 감성을 더합니다.

경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어를 든 너구리상은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또 다른 조각상이자 익살맞은 상징물입니다. 지붕에는 장수와 길운을 상징하는 전설의 ‘미노가메’ 거북이 있습니다. 별장 뒤쪽의 방은 뒤뜰과 이어져 있는데, 이곳에는 학 조각상과 거북이를 닮은 바위들이 놓여 있어 장수와 부를 염원하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택 뒤편의 산비탈에는 반센소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샘터가 있습니다. 금속 문으로 막아 둔 수평 우물이 암반 속으로 50m 가량 뻗어 있는데, 한때 이 저택의 중요한 수원이었으며 별장의 위치 선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물 옆에는 산비탈을 직접 파내 콘크리트로 보강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문 위쪽에는 반원형 창문이 나 있고, 천장에는 금속 고리와 구멍이 있는 이곳은 반센소를 구상한 사업가 마쓰이 텐자부로(1870~1920)가 설계한 방입니다. 별장 경내에 지어진 최초의 건축물이지만, 무슨 용도였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본채 맞은편, 앞뜰 너머의 옛 창고를 개조한 전시관은 마쓰이 가문의 사진과 유물, 기타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마쓰이 가문이 어떤 사업을 했으며, 이들이 반센소의 개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盤泉荘/コンクリートの部屋**

盤泉荘(「岩盤の泉の別荘」)の敷地は、この別荘を周囲の景観と一体化させています。敷地内には、前庭と後庭、蔵、その他いくつかの付属建造物があります。

盤泉荘に通じる正門は、伝統的な石灯籠が地元の新柳瀬焼で造られた土器製のライオン像のそばに立つ、庭園に面しています。新柳瀬焼は、20世紀初頭に復活した古代工芸です。このライオン像は伝統的な石造りの狛犬ではなく、より写実的に造られており、松井家の工芸品への庇護を反映しつつ、入口に外

国の雰囲気添えています。

敷地内の彫像には他にも、タコを抱いたタヌキの像（遊び心をプラスした商売繁盛の象徴）や、屋根の上には長寿と幸運の象徴であるミノガメの像などがあります。別荘の奥の部屋は、鶴の像や亀の形をした岩が長寿と富というテーマを象徴する、後庭に面しています。

この邸宅の裏手の丘の斜面には、泉の湧く場所があり、そこから「盤泉荘」と名づけられました。金属製の扉に守られた横井戸は、岩肌の奥に約 50 メートル伸びています。この井戸はかつて、家庭用の重要な水源であり、別荘の立地に影響を与えた可能性があります。

井戸の隣には、丘の斜面に直接切り込みを入れ、コンクリートで補強した部屋があります。ドアの上に半円形の窓があり、天井には金属製の留め金と穴があります。盤泉荘を構想した実業家、松井傳三郎（1870～1920）の設計によるもので、別荘敷地内に建てられた最初の建造物ですが、この部屋の用途は未だ不明です。

本邸の向かい側、前庭の向こう側には、蔵を改装した展示室があり、松井家ゆかりの写真や工芸品、その他の資料が展示されています。この空間では、松井家の事業活動や、この土地の開発における彼らの役割についての背景を感じ取ることができます。

地域番号	026	協議会名	徳島県文化振興課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26-001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三業（太夫・三味線・人形遣い） 一体の表現（解説・インタビュー）	2,265	アプリQRコード /Web/その他
026-002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概要・インタビュー）/人形師の仕事 （解説・インタビュー）	1,856	アプリQRコード /Web/その他
026-003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農村舞台（歴史、構造、村）	1,558	アプリQRコード /Web/その他
026-004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人形浄瑠璃の国、徳島吉野川と藍、そして人形浄瑠璃	2,035	アプリQRコード /Web/その他
026-005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人形の操り方（かしら、腕、足）	1,524	アプリQRコード /Web/その他
026-006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長屋門	926	看板/アプリQR コード/Web
026-007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辰巳座敷	422	看板/アプリQR コード/Web
026-008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傾城阿波の鳴門 巡礼歌の段」あらすじ	839	アプリQRコード /Web
026-009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阿波人形浄瑠璃」概要	1,375	アプリQRコード /Web

【タイトル】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三業（太夫・三味線・人形遣い）

一体の表現（解説・インタビュー）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その他

<韓国語>

인형, 이야기 구연, 그리고 반주

아와닌교조루리(阿波人形浄瑠璃)는 도쿠시마현에서 발전한 일본 전통 인형극의 한 지역 유파로, 인형을 샤미센 반주(조루리)에 맞춰 다루는 종합 예술입니다. 인형의 움직임에는 이야기 구연과 샤미센(중국의 삼현금에 뿌리를 둔 일본의 현악기) 음악이 반주로 어우러집니다. 이 예술은 에도 시대(1603~1867년)에 아와국(현재의 도쿠시마현)에서 크게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 예술은 가타리모노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타리모노란 이야기에 가락을 붙여 구연하는 목소리와 음악을 결합한 것으로, 음악극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가타리모노는 다유(이야기꾼)와 비파(일본의 현악기) 연주자에 의해 공연되었습니다. 이후 비파는 샤미센으로 대체되었고, 닌교즈카이(인형술사)가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와닌교조루리에서는 다유, 샤미센 연주자, 그리고 닌교즈카이가 서로 호흡을 맞춘 연기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서로 연동하고 있는 세 주체의 역할에는 각각 고유한 예술적 책임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호흡을 맞춘 연기를 통해 이야기가 펼쳐지고, 움직임은 역동적으로 표현되면서 인간의 감정이 묘사됩니다.

다유

공연 경력 50년 이상으로 닌교조루리의 중요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이기도 한 유명한 다유, 다케모토 도모와카는 다유야말로 무대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유가 이야기를 이끌고, 샤미센 연주자가 반주를 맡으며, 닌교즈카이와 인형이 이야기를 연기합니다.

다유는 이야기를 구연하고 모든 등장인물을 연기하여 각 인물을 표현함으로써 무대의 감정적 무게를 담당합니다. 이는 고도의 발성 표현력과 타이밍에 대한 숙련이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러한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조루리의 음색에 둘러싸여 자란 다케모토는 이 길로 이끌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숙련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한 법입니다. 다유는 온즈카이라고 불리는 발성 기법을 익혀야 하며, 이를 습득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면의 성숙도 역시 중요합니다. “다유는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 사람 몫을 한다고들 합니다”라고 다케모토는 설명하며 인생에서 쌓인 경험이 슬픔, 기쁨, 상실감을 전하는 능력을 풍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팀워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다유와 샤미센 연주자는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맞춰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지향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서 직감적으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편,

닌교즈카이는 그러한 리듬을 ‘느끼고’ 그에 맞춰 움직임을 조정해야만 하며 다유와 샤미셴 연주자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샤미셴 연주자

샤미셴 연주자인 쓰루자와 도모스케는 30 년에 가까운 예술 경력을 가지며 아와닌교조루리의 신작도 작곡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악기를 다유의 인도자이자 동시에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유를 이끌면서도 다유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샤미셴은 배경을 받쳐주는 소리로서만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고요함 속에 여백을 더해줍니다.

샤미셴 연주자는 이야기를 암기하고, 다유의 호흡과 리듬을 이해해야 합니다. 쓰루자와는 다유의 작은 신호에 반응하고 요구되는 감정 표현을 유지하면서 관객에게 적절한 음색을 전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것은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 속에서야말로 그녀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다유와 닌교즈카이의 조화에 관객이 반응해 주면 일체감을 느낍니다”라고 말합니다. 연기의 세 가지 요소 모두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팀워크로 하나가 된 순간, 그곳에는 압도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연기의 성공은 누군가 한 사람의 뛰어난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식하며 배려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그녀는 덧붙입니다.

닌교즈카이

아와닌교조루리 극단인 가쓰우라자에 있어서 닌교즈카이는 표현력과 조종자 간의 협조성이 요구되는 오랜 세월 다듬어진 예술입니다. 하나의 인형을 3 명의 닌교즈카이가 조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머리와 오른팔을, 두 번째 사람은 왼팔을, 세 번째 사람은 다리를 조종합니다. 이 작업에는 완전한 신뢰 관계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닌교즈카이의 역할은 다유와 샤미셴 연주자가 연주하는 감정을 인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원 대부분은 고등학생 시절 가쓰우라 민예 클럽에서 처음으로 아와닌교조루리를 접했고, 그곳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이 예술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관객의 감동적인 반응에 마음이 움직여 50 년이나 수련을 이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단원은 “관객이 울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라고 말합니다.

닌교즈카이 세 사람의 팀워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단원은 “왼팔과 다리를 조종하는 인형술사들이 머리를 조종하는 인형술사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가 관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호흡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공연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하나로 어우러진 퍼포먼스

아와닌교조루리에서는 세 가지의 독립된 예능이 하나로 어우러져 하나의 흐르는 듯한 연출을 만들어냅니다. 각 공연자는 각자의 기량을 연마하면서 서로의 소리와 호흡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받쳐주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아와닌교조루리의 공연자 전원이 조루리의 소리에 담긴 미묘한 감정과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를 이해하고, 이야기 구연에 맞춰 박자를 조절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도 맡아야 합니다.

“다유, 샤미센 연주자, 닌교즈카이 삼자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정확히 완벽하게 호흡이 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아와닌교조루리의 매력입니다”라고 전합니다.

026-001

<日本語仮訳>

人形、語り、そして伴奏

阿波人形浄瑠璃は徳島県で発展した人形浄瑠璃の一つの地域流派で、人形を歌語り（浄瑠璃）に合わせて操る総合芸術です。人形の動きには、語りと三味線（中国の三弦（サンシェン）にルーツを持つ日本の弦楽器）の音楽が伴奏として付きます。この芸術は、江戸時代（1603-1867年）に阿波国（現在の徳島県）で大きく発展し、今日まで受け継がれています。

この芸術は、語り物を起源としています。語り物とは、物語に節をつけて語る声と音楽を組み合わせたもので、初期の音楽物語になります。語り物は、太夫（語り手）と琵琶（日本の弦楽器）の奏者によって演じられました。後に、琵琶は三味線に置き換えられ、人形遣い（人形術師）が加わりました。

阿波人形浄瑠璃では、太夫、三味線奏者、そして人形遣いの息の合った演技が求められます。この互いに連動している三者の役割には、それぞれに独自の芸術的責任があります。完璧に息の合った演技によって、物語が語られ、動きがダイナミックに表現され、人間の感情が表現されます。

太夫

芸歴 50 年以上で、人形浄瑠璃の重要無形文化遺産保持者でもある著名な太夫、竹本友和嘉氏は、太夫こそが舞台の核であると語ります。太夫が物語をリードし、三味線奏者が伴奏をし、人形遣いと人形が物語を演じます。

太夫は物語を語り、登場人物全員を演じ分けることで、舞台の感情的な重みを担います。それは、高度な発声表現力と間の取り方の習熟が求められる役割です。その厳しさに関わらず、家庭で浄瑠璃の音色に囲まれて育った竹本氏は、この道に導かれたと感じていました。「自分から始めたというよりは、自然とや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と彼女は言います。

しかし、熟練への道のりは長いものです。太夫は音遣いと呼ばれる発声技法を習得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習得には数十年かかることもあります。感情面の成熟も同様に重要です。「太夫は 60 歳で一人前になると言われています」と竹本氏は説明し、人生の積み重ねが悲しみ、喜び、喪失感を伝える能力を豊かにすると指摘します。

チームワークは極めて重要です。「太夫と三味線奏者は互いの呼吸を感じ取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彼女は言います。目指すのは、機械的にぴったりあわせることなく、特に感情が高まる場面での直感的なハーモニーを生み出すことです。一方、人形遣いはそのリズムを「感じ取り」、それに応じて動きをあわせなければならず、太夫と三味線奏者は互いを邪魔することなく支え合う必要があります。

三味線奏者

三味線奏者の鶴澤友輔氏は、30年近い芸歴で、阿波人形浄瑠璃の新作も作曲してきました。彼女は自身の楽器を太夫の導き手であると同時にパートナーでもあると考えています。「太夫を導きながらも、太夫に自由に語らせることが大切です」と彼女は言います。三味線は背景を支える音としてだけでなく、雰囲気をつくり、緊張感を高め、静寂に余白を与えます。

三味線奏者は物語を暗記し、太夫の呼吸とリズムを理解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鶴澤氏は、太夫の僅かなサインに応じながら、求められる感情表現を維持しつつ、観客に向けてふさわしい音色を届けることを意識している、それは常に挑戦だと説明します。

しかし、その挑戦の中にこそ、彼女は喜びを見出します。「太夫と人形遣いの調和に観客が反応してくれると、一体感を感じます」と彼女は言います。演技の3つの要素すべてが、計画されたものではなく、自然発生的なチームワークで一体になった瞬間、そこには圧倒的な力が生まれます。このような演技の成功は、誰か一人の卓越した才能からではなく、お互いを意識し合うことから生まれると彼女は付け加えます。

人形遣い

阿波人形浄瑠璃の一座である勝浦座にとって、人形遣いは表現力と操る者の協調性が求められる、磨きぬかれた芸術です。一体の人形を3人の人形遣いが操ります。1人目が頭と右腕、2人目が左腕、3人目が足を操ります。この作業には、完全な信頼関係と細心の注意が必要です。人形遣いの役割は、太夫と三味線奏者が奏でる感情を人形で表現することです。

座員の多くは、高校生の時に勝浦民芸クラブで初めて阿波人形浄瑠璃に接し、そこで先生方にこの芸術に携わるよう勧められたことがきっかけです。中には、観客の感動的な反応に突き動かされ、50年間も稽古を続けている人もいます。ある座員は、「観客が泣いたり、喜んだりする姿を見ると、私たちももっと上達したいという気持ちになります」と語ります。

3人の人形遣いのチームワークは非常に重要です。ある座員は、「左腕と足の操り手らが、頭の操り手の動きをどれだけうまくサポートできるかが鍵です」と言います。彼らは互いのタイミングを予測するだけでなく、本番での予期せぬ変化にも対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一体感のあるパフォーマンス

阿波人形浄瑠璃では、3つの独立した芸能が一体となり、ひとつの流れるようなパフォーマンスを生み出します。それぞれの演者は、各自の技を磨きながら、互いの音や呼吸に耳を傾け、支え合う能力を磨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阿波人形浄瑠璃の演者全員が、浄瑠璃の音に込められたニュアンスや登場人物の微妙な機微を理解し、語りに合わせてテンポを取り、物語を伝える役割も担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太夫、三味線奏者、人形遣いの三者がそれぞれの役割をきちんと演じていると、あるときピタッと完全に息が合う瞬間があります。その瞬間こそが、阿波人形浄瑠璃の魅力なのです」と竹本氏は語ります。

【タイトル】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概要・インタビュー）/人形師の仕事

（解説・インタビュー）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その他

<韓国語>

인형 제작 장인의 일

아와닌교조루리(阿波人形浄瑠璃)는 에도 시대(1603~1867 년)에 아와국(현재의 도쿠시마현)에서 탄생한 일본의 전통 인형극입니다.

아와닌교조루리의 인형 제작 장인 중에는 인형극과는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이 일을 시작한 사람도 많습니다. 도쿠시마의 한 인형 제작 장인은 인물과 동물의 형상을 조각하는 조각가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6 세 때 전통 목각인형(테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3 대 텐구히사(1858~1943 년)의 공방을 방문했을 때 텐구히사가 밑그림을 한 장도 사용하지 않고 제작하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작업에 감명받은 그는 기존에 하던 조각 제작과 병행하여 인형 제작도 시작했습니다. 약 5 년 후, 그는 새로운 인형 제작 장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아와 목우 제작 보존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때부터 인형 제작이 그의 전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형 제작 장인이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장인이 목공, 대나무 공예, 혹은 현대적인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모델링 등의 관련 분야를 거쳐 아와닌교조루리의 세계로 발을 들입니다. 인형 제작은 전통과 혁신이 융합된 것이며, 새로운 장인들은 옛 기법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형 제작 기술

아와닌교조루리에서 사용되는 인형은 공연 작품과 요구에 맞춰 각 부위를 조정하며 단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각 인형의 머리에는 움직임과 표정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 하나를 만드는 데 적어도 한 달이 걸립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인형 하나하나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형 제작 장인은 인형의 움직임과 조작 방법, 더 나아가 무대에서 사용할 때의 내구성 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인형 제작 장인은 도쿠시마현 밖에서도 인형 수리 의뢰를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그중에는 에도 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인형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인형을 수리하면서 인형 제작 장인들은 과거 명공들이 사용한 기법과 재료, 형태의 선택 방법을 연구하고, 도구 자국과 구조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디자인과 제작 과정에 관한 귀중한 지식을 얻습니다.

수리는 배움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형 제작 장인들 사이에는 “수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많은 인형을 수리해라”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 장인들은 수리를 통해, 더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계보

도쿠시마현은 예로부터 인형 제작의 뛰어난 기술과 깊이 관련되어 왔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인형은 단순히 외형뿐만 아니라 높은 실용성으로도 유명합니다. 몇십 년, 또는 몇 세기 동안 사용되었음에도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는 인형은 특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오래된 인형은 장치가 적은 것이 많으며, 1500 년대에서 1600 년대의 옛 조루리(서사적 노래)의 초기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소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형들은 여전히 잘 움직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손을 본 것도 많지만, 지금도 무대에서 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사용되어 온 것은 인형 제작에 담긴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며, 현대 장인 기술의 기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계승

아와닌교조루리의 전통을 계승하는 데 있어 인형 제작 장인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닌교즈카이(인형술사), 다유(이야기꾼), 그리고 샤미센 연주자입니다. 인구 감소와 전통 예능에 대한 신규 진입자 감소로 인해 이러한 역할들을 맡을 공연자를 모으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이 예능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을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형 제작 장인들은 낙관적인 견해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다양한 방면에서 이 전통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3D 프린터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형 제작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각본가나 소설가라면 극작가로서 공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악가라면 다유 또는 샤미센 연주자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도쿠시마 현립 아와 주로베 야시키는 아와닌교조루리에 특화된 인형극장 겸 박물관으로, 이 예능을 보존하는 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무대를 관람하거나 인형의 구조를 배우고 인형 관련 공예품 지도자와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인형 제작 장인들은 이 예능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인형을 접하고 무대를 관람하며, 제작 하나하나에 담긴 노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와닌교조루리와 관련된 사람들은 기술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체험과 교육, 공동 제작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이 예능을 계승하고 지켜나감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소중히 여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형 제작 장인들은 제작, 복원, 교육을 통해 수 세기에 걸친 이 예술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026-002

<日本語仮訳>

人形師の仕事

阿波人形浄瑠璃は、江戸時代（1603-1867 年）に阿波国（現在の徳島県）で生まれた日本の伝統的な人形芝居です。

阿波人形浄瑠璃の人形師は、人形芝居とは関係のない分野からこの仕事を始める人も多いです。徳島のある人形師は、人物や動物の像を彫る彫刻師としてキャリアをスタートさせました。彼は 26 歳の時に

伝統的な木彫り人形（デコ）について知りました。三代目天狗久（1858–1943 年）の工房を訪れた際、天狗が下絵を一枚も使わずに制作していることに衝撃を受けました。

この仕事に感銘を受けた彼は、普段の彫刻制作と並行して人形制作も始めました。約 5 年後、彼は新たな人形師を育成するために設立された阿波木偶制作保存会に入会しました。その時から、人形作りが彼の専業となりました。

こうした道筋を経て人形師になるのは、珍しくありません。多くの職人が、木工、竹工芸、あるいは現代の道具を使ったデジタルモデリングなど、関連分野を経て阿波人形浄瑠璃の世界へと足を踏み入れます。人形作りは伝統と革新が融合したものであり、新しい職人たちは古来の技法から学ぶことができます。

人形作りの技術

阿波人形浄瑠璃で使われる人形は、演目や二�ズに合わせて各パーツを調整しながら段階的に作られます。各人形の頭には、動きや表情を可能にする複雑な仕掛けが組み込まれています。1 つの頭を作るのに少なくとも 1 ヶ月かかります。

大量生産ではないため、人形 1 体 1 体には細心の注意を払って調整する必要があります。人形師は、人形の動き方や操作方法、さらに舞台上で使ううえでの耐久性などを考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人形師は、徳島県外からも人形の修理依頼を定期的に受けます。中には江戸時代中期に作られた人形が、現在でも使われ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古い人形を修理しながら、人形師たちは過去の名工たちが用いた技法や素材・形の選び方を研究し、道具の跡や構造の変化などから、デザインや製作工程に関する貴重な知見を得ます。

修理は学びの機会と捉えられています。人形師には「修理から学ぶことができる。だから、できるだけ多くの人形を修理しなさい」という言い伝えがあります。現代の職人たちは、修理を通して、もはや正式な場では教えてもらえない技法を学ぶことができます。

伝統と系譜

徳島県は古くから、人形作りの高度な技術と結びついてきました。ここで作られる人形は、その見た目だけでなく、実用性の高さでも知られています。何十年、あるいは何世紀も使用されてもなお、機能を維持する人形は、特に高く評価されています。

古い人形は、仕掛けが少ないものが多く、1500 年代から 1600 年代の古浄瑠璃（歌語り）の初期の時代を反映しています。簡素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れらの人形は今でもしっかり動きます。長い年月を経て手を加えられたものも多いものの、今なお舞台上での役割を果たし続けています。長く使われ続けることは、その製作に込められた技術の高さを物語り、現代の職人技の基準を形作っています。

伝統の継承

阿波人形浄瑠璃の伝統を継承する上で、人形師と同様に重要なのは、人形遣い（人形術師）、太夫（語り手）、そして三味線奏者です。人口減少と伝統芸能への新規参入者の減少により、これらの役割を担う演者を集めることがますます困難になっており、この芸能がどれだけ長く受け継がれていけるかが懸念されています。

しかし、人形師たちは楽観的な見方を崩していません。彼らは、今日では様々な方面からこの伝統に参入する人がいると指摘しています。3Dプリンターなどのデジタルツールを扱ってきた人は、人形作りの現場で活躍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脚本家や小説家なら、劇作家として貢献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音楽家なら、太夫や三味線奏者という新たな道を見つけるかもしれません。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は、阿波人形浄瑠璃に特化した人形劇場兼博物館で、この芸能の保存活動の拠点となっています。来場者は、舞台を鑑賞したり、人形の仕組みを学んだり、人形関連の工芸品の指導者と交流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は重要なことです。なぜなら、人形師たちは、この芸能を真に理解するには、人形に触れ、舞台を鑑賞し、一つ一つの製作に込められた労力を理解することが大切だと考えているからです。

阿波人形浄瑠璃に関わる人々は、技術の伝承に尽力しています。彼らは、体験や教育、共同制作を通じて、新しい世代がこの芸能を継承し、守り続けることで、これからもずっと大切なものとして残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人形師たちは、製作、修復、教育を通じて、この数世紀にわたる芸術を生かし続けるでしょう。

【タイトル】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農村舞台（歴史、構造、村）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Web/その他

<韓国語>

아와닌교조루리의 농촌 무대

도쿠시마 현립 아와 주로베 야시키는 서사적 노래(조루리)에 맞춰 인형을 조종하는 일본의 전통 인형극 ‘아와닌교조루리(阿波人形浄瑠璃)’를 전문으로 하는 인형극장과 자료관을 겸한 시설입니다. 아와닌교조루리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이야기 구연, 샤미센, 닌교즈카이(인형술사)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종합 예술입니다. 에도 시대(1603~1867 년)에 아와국(현재의 도쿠시마현)에서 발전했습니다.

이 극장과 자료관은 에도 시대 마을 관리였던 반도 주로베의 옛 저택 터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루리 인형극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 현립 아와 주로베 야시키는 정기 공연과 체험 교실을 통해 도시 지역에서 아와닌교조루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형극의 뿌리는 농촌에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박한 무대를 마련해 신들을 기리고 풍작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닌교조루리를 상연했습니다.

신사를 무대로

특히 요시노 강 유역 등의 마을에는 비교적 부유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랑 인형극단을 마을이나 집으로 초청해 공연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간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의 다이묘에 의해 공공 집회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신사 경내는 종교적인 지역 활동의 장이었기 때문에 모임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신사는 도쿠시마현 내에서 닌교조루리의 주요 상연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대는 보통 신사 경내의 숲속에 마련되었습니다. 인형극은 신들에게 바치는 봉납으로 여겨졌으며 대부분은 수호신에게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인형극은 신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오락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형극을 즐기고 수확에 감사하며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요시노 강은 닌교즈카이들과 그들의 도구를 운반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시코쿠 지방에서 가장 큰 하천인 요시노 강은 물자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통로였습니다. 도쿠시마의 주요 산업인 아와조메(쪽염)도 이 강을 따라 발전했습니다. 부유한 쪽염 상인들 대부분은 공연 자금을 제공하거나 자신들의 땅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아와닌교조루리를 포함한 예술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하천 교역, 농업, 문화 교류가 어우러지면서, 아와닌교조루리는 농촌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무대의 구조와 디자인

농촌의 인형극 무대는 주로 야외에 세워진 목조 극장으로, 인형술사들이 공연하는 바닥이 높은 무대와 관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뒤쪽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후스마 가라쿠리’(그림이 그려진 여러 장의 미닫이문)라고 불리는 장치로 연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 덕분에 공연을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도 무대는 생동감 넘치고 마음에 남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무대 디자인은 간소했으며 신들과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사 경내에 무대를 둠으로써 공연 그 자체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형극이 가장 성행한 시기는 가을이었는데, 이는 수확제와 맞물려 마을 사람들이 신에게 감사를 올리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다음 계절의 풍작을 기원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농사력에서 중요한 시점을 나타내며 지역의 유대와 신앙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에 의한 보존 활동

현재 도쿠시마현 내에는 아와닌교조루리의 무대가 각지에 남아있으며, 농촌의 인형극 무대 수는 일본에서 가장 많습니다. 무대 대부분은 연중행사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약 12 곳에서는 인형극이 상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무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큰 헌신 덕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령의 주민들로 선대로부터 인형극에 관한 기술을 전수받아 열의와 훈련을 통해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공연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26-003

<日本語仮訳>

阿波人形浄瑠璃の農村舞台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は、歌語り（浄瑠璃）にあわせて人形を操る、日本の伝統的な人形芝居「阿波人形浄瑠璃」を専門とする人形劇場兼資料館です。阿波人形浄瑠璃は、国指定重要無形民俗文化財で、語り、三味線、人形遣い（人形術師）という三つの要素から成る総合芸術です。江戸時代（1603～1867 年）に阿波国（現在の徳島県）で発展しました。

この劇場と資料館は、江戸時代の村役人・板東十郎兵衛の旧邸の跡地に建てられています。彼の名は、浄瑠璃の人形芝居に登場する主人公の名前として使われています。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は、定期公演や体験教室を通じ、都市部で阿波人形浄瑠璃の保存と発信を行っています。しかし、この人形芝居のルーツは農村にます。村人たちは簡素な舞台を作り、神々を称え、豊作への感謝を表すために人形浄瑠璃を上演していました。

神社を舞台として

特に吉野川流域などの村には、比較的裕福な住民が住んでいました。彼らは旅回りの人形一座を村や自宅に招いて上演させることもありましたが、山間部や交通の不便な地域に住む人々にはそのような機会がありませんでした。当地の大名によって公共の集会は制限されていましたが、神社の境内は宗教的な地域活動の場であったため、集まりは許されていました。そのため、神社は徳島県内における人形浄瑠璃の主要な上演場所となったのです。

舞台は通常、神社の境内の森の中に設けられました。人形芝居は神々への奉納と見なされ、多くは鎮守の神に捧げられました。こうして人形芝居は、神々と人々の双方を楽しませる娯楽として機能していました。人々は人形芝居を楽しみ、収穫に感謝し、地域社会の絆を深めるために集まりました。

吉野川は、人形遣いたちとその道具を運ぶ中心的な役割を担っていました。四国最大の河川である吉野川は、物と人には欠かすことのできない交通路でした。徳島の主要産業である藍染（藍染）もこの川沿いで発展しました。裕福な藍商人たちの多くは、上演資金を提供したり、自らの土地での公演を許可するなど、阿波人形浄瑠璃を含む芸術を支援しました。こうした河川交易・農業・文化交流が相まって、阿波人形浄瑠璃は農村地域全体に広まっていきました。

舞台の構造とデザイン

農村の人形舞台は、たいてい屋外に設けられた木造の劇場で、操り手が演じる高床の舞台と、観客には見えない裏方スペースが設けられていました。なかでも特徴的なのが「襖からくり」（絵が描かれた複数の引き戸）と呼ばれる仕掛けで、演出効果を高めるものでした。こうした仕掛けのおかげで、芝居をめったに観られない人々にとって、舞台は躍動感があり心に残る特別なものになりました。舞台のデザインは簡素で、神々や自然との深いつながりを表すためのものでした。神社の境内に舞台を置くことで、上演そのものの神聖さを強調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

歴史的に見て、人形芝居が最も盛んに行われたのは秋で、それは、収穫祭と重なり、村人たちが感謝を捧げる時期だったからです。春には、次の季節の豊作を願う上演が行われました。こうした催しは農事暦における重要な節目を示すものであり、地域の結びつきや信仰を強める役割を担っていました。

地元住民による保存活動

現在、徳島県内には阿波人形浄瑠璃の舞台が各地に残されており、農村の人形舞台の数は日本一です。舞台の多くは年中行事として今でも使われており、そのうち約 12 か所では人形芝居が上演されています。

こうした農村舞台が今日まで存続できたのは、地元住民の尽力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です。多くの担い手は高齢の住民で、先代から人形芝居に関連する技術を学び、熱意と訓練によって伝統を守り続けてきました。しかし、担い手の減少は進んでおり、今後どの程度まで上演を継続できるのか懸念が高ま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人形浄瑠璃の国、徳島

吉野川と藍、そして人形浄瑠璃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その他

<韓国語>

요시노 강과 쪽염이 길러낸 인형극

수 세기에 걸친 도쿠시마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은 인형극, 농업, 쪽염 등 서로 연결된 문화적 유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형극의 중심지

도쿠시마 현립 아와 주로베 야시키는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인형극 ‘아와닌교조루리(阿波人形浄瑠璃)’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인형극장과 자료관을 겸한 시설입니다. 방문객들은 공연을 직접 관람하거나 아와닌교조루리의 역사에 관한 전시를 둘러보고 인형 제작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새로운 닌교즈카이(인형술사)를 양성하는 연수 시설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전통 계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현에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인형극단이 있습니다.

인형극의 전통

아와닌교조루리의 오랜 전통 덕분에 도쿠시마현은 ‘인형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와닌교조루리는 서사적 노래(조루리)에 맞춰 인형을 조종하는 예능으로, 에도 시대(1603~1867년)의 아와국(현재의 도쿠시마현)을 기원으로 합니다.

이 연극적 예능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도덕적 교훈, 문화적 가치를 전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하나의 인형은 세 사람의 닌교즈카이에 의해 조종됩니다. 한 사람은 머리와 오른팔을 움직이고, 두 번째 사람은 왼팔을, 세 번째 사람은 다리를 움직입니다. 이 공동 작업에는 오랜 수련과 세밀한 호흡이 요구됩니다. 무대 옆에는 다유(이야기꾼)와 샤미센 연주자가 앉아 있으며 다유가 모든 대사와 이야기 구연을 맡고, 샤미센 반주는 감정 표현을 고조시켜 긴장, 슬픔, 기쁨 등의 순간을 강조합니다.

특히 19세기 쪽염업이 전성기를 맞았을 때는 부유한 쪽염 상인이 후원자가 되면서 도쿠시마 닌교조루리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공연은 중요한 문화적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세대가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를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시노 강

일본 3대 아바레가와(자주 범람하는 강) 중 하나로 불리는 요시노 강은 도쿠시마현 중심부를 흐르며, 에도 시대 이래 이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당시에는 제방과 댐이 충분하지 않아 큰비가 올 때마다 강이 범람했는데, 이로 인해 산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이 하천을 따라 저지대 농지로 운반되었습니다. 범람한 강물은 천연비료 역할을 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였고 영양이 풍부한 토양을 필요로 하는

아와아이(阿波藍)의 재배에 적합한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도쿠시마는 아와아이 천연염료의 생산과 판매의 중요한 거점으로 발전했습니다.

요시노 강은 쪽염을 위해 사용되는 자재를 운송할 수 있게 했으며, 주변 지역은 활발한 교역 지대가 되었습니다. 강변에는 쪽 창고가 늘어서 있었고 배들은 쪽과 그 제품을 매일같이 구매자에게 운송했습니다. 도쿠시마의 경제는 급속히 발전하여 1890년에는 인구 6만 명을 자랑하는 일본 11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아와닌교조루리와 아와오도리 춤과 같은 문화 활동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쪽염으로 재산을 모은 상인들은 예술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되어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요시노 강에 의해 광범위한 농업 지대가 유지되었으며 식량을 북쪽과 동쪽의 도시 지역으로 운반했습니다. 지금도 쪽 외에 고구마, 연근, 표고버섯 등이 재배되며, 그 생산량이 일본 전국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많아 이 지역은 ‘간사이 지방의 부엌’이라고 불립니다. 하구 부근에서는 실뱀장어와 바지락 등이 어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래 중에서도 최고급 품종으로 알려진 ‘가시파래’도 일본 전체 생산량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시노 강이 없었다면 쪽염 산업도 지역의 인형극 전통도 오늘날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쪽염(藍染)

도쿠시마의 전통 공예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쪽염입니다. 요람(학명: *Persicaria tinctoria*)은 정성스러운 발효 과정을 거쳐 깊은 쪽빛의 염료가 됩니다. 아와 쪽의 특징은 깊은 푸른색을 띠면서도 어둡게 느껴지지 않고 선명하고 빛나는 듯한 색감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이 색감은 ‘재팬 블루’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쪽염 문화의 상징으로 일본 국내외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도쿠시마는 일본 굴지의 쪽염의 산지로 자리 잡았으며, 쪽염은 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도쿠시마의 장인 정신과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염색은 염색액에 여러 차례 담그며 공기에 노출해 산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색이 깊어집니다. 숙련된 장인은 원하는 색감을 내기 위해 과정을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작업합니다. 그들의 기법은 세대를 넘어 계승되어 오늘날에도 가족 경영 공방과 소규모 작업장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쪽염 공방에서 견학과 체험을 진행하고 있어 사람들은 전통 기법을 직접 접해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관광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쪽염은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제조법은 예로부터 내려온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시장에 맞춘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받쳐주는 관계

인형극, 요시노 강, 쪽염 이 세 가지는 도쿠시마의 문화적 생활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강은 농업을 키워 왔으며 농업은 산업과 예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 현립 아와 주로베 야시키는 인형극 공연의 박진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깊은 인연을 이어가며 문화 교육을 뒷받침함으로써 도쿠시마는 오늘날에도 그 풍부한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026-004

<日本語仮訳>

吉野川と藍染が育んだ人形芝居

何世紀にもわたる徳島の社会的・経済的な発展は、人形芝居、農業、藍染という相互に結びついた文化的遺産と関係しています。

人形芝居の中心地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は、地域に伝わる人形芝居「阿波人形浄瑠璃」を保存・継承するための劇場兼資料館です。来館者は公演を生で鑑賞したり、阿波人形浄瑠璃の歴史に関する展示を見学したり、人形の制作工程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この施設は新しい人形遣い（人形術師）を育成する研修施設としても機能しており、伝統の継承を支えています。徳島県には、日本で最も多くの人形座が存在します。

人形芝居の伝統

阿波人形浄瑠璃の長い伝統から、徳島県は「人形の国」と呼ばれることがあります。阿波人形浄瑠璃は、歌語り（浄瑠璃）に合わせて人形を操る芸能で、江戸時代（1603～1867年）の阿波国（現在の徳島県）を起源とします。

この演劇的な芸能は、娯楽であるとともに、歴史的出来事、道徳的教訓、文化的価値を伝える役割も担ってきました。1体の人形は3人の人形遣いによって操作されます。ひとりは頭と右腕を動かし、二人目は左腕、三人目は脚を動かします。この共同作業には、長年の修練と緻密な連携が求められます。舞台脇には太夫と三味線弾きが座り、太夫（語り手）がすべての台詞と語りを担い、三味線の伴奏は感情表現を高め、緊張や悲しみ、喜びといった瞬間を強調します。

特に19世紀の藍商が最盛期だった頃は、裕福な藍商人が後援者となり、徳島の人形浄瑠璃の地位が高まりました。今日でも上演は重要な文化的活動として続いており、今の世代が、自分たちの伝統や歴史を再認識する機会となっています。

吉野川

日本三大暴れ川（頻繁に氾濫する川）の一つとされる吉野川は徳島県を中心に流れ、江戸時代以来、この地域の経済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きました。当時は堤防やダムが十分でなく、大雨のたびに川が氾濫しましたが、これにより山からミネラルを多く含んだ土壌が、河川沿いの低地の農地へと運ばれました。氾濫した川の水は天然の肥料となり、農業の生産性を高め、栄養豊富な土壌を必要とする阿波藍の栽培に適した土地を作り出しました。こうして、徳島はこの天然染料の生産と販売の重要な拠点として発展しました。

吉野川は藍染のために用いられる資材の輸送を可能にし、周辺地域は活発な交易地帯となりました。川岸には藍の倉庫が立ち並び、舟は日常的に藍やその製品を買い手へと運びました。徳島の経済は急速に発展し、1890年には人口6万人を擁する国内第11位の都市となりました。

この繁栄は阿波人形浄瑠璃や阿波踊りといった文化活動を支えました。特に藍染めで財を成した商人たちは、芸術を支える後援者となり、文化の発展に貢献しました。また、吉野川によって広範な農業地帯が支えられ、食料を北や東の都市部へと運ばれました。今でも藍のほか、サツマイモ、レンコン、シイタケなどが栽培され、その生産量は全国有数を誇ることから、この地域は「関西の台所」と呼ばれています。河口付近ではウナギの稚魚やアサリなどが漁獲されています。また、青のりの中でも最高級品種といわれる「すじ青のり」も、全国の約9割を生産しています。

吉野川がなければ、藍産業も地域の人形芝居の伝統も、今日ほど発展することはなかったでしょう。

藍染

徳島の伝統工芸の中でも特に知られているのが藍染です。蓼藍（学名：Persicaria tinctoria）は丹念な発酵の過程を経て深い藍色の染料となります。阿波藍の特徴は、深みのある青色ながらも暗さを感じさせず、鮮やかで輝くような色合いを持つ点です。この色合いは「ジャパングルー」として海外でも高い評価を受け、藍染文化の象徴として日本国内外で知られています。江戸時代、徳島は日本有数の藍染の産地となり、藍色は地域と密接に結びつき、徳島のものづくりやアイデンティティの象徴となりました。

染色は染液に何度も浸し、空気にさらして酸化させる工程を繰り返すことで色が重なっていきます。熟練の職人は求める色合いを出すために工程を緻密に計算しながら作業します。その技法は世代を超えて受け継がれ、今日も家族経営の工房や小規模な作業場を通して存続しています。

多くの藍染工房は見学や体験を受け入れており、人々が伝統技法に直接触れることができます。伝統と観光が関わり合うことで、藍染は進化を遂げました。製法は古くからのものを受け継ぎつつも、現代の市場に合わせた新しい素材やデザインの試みも行われています。

支え合う関係

人形芝居、吉野川、藍染——これら三つは徳島の文化的生活を支える柱です。川は農業を育み、農業は産業と芸術を支えています。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は、人形芝居の公演における迫力を伝えています。自然との深いつながりを保ち、文化教育を支えることで、徳島は今日もその豊かな伝統を守り続けています。

【タイトル】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人形の操り方 (かしら、腕、足)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 その他

<韓国語>

아와 주로베 야시키에서 만나는 닌교즈카이(인형술사)

도쿠시마 현립 아와 주로베 야시키는 에도 시대(1603~1867 년) 아와국(현재의 도쿠시마현)에서 탄생한 일본의 인형극, 전통 예능 ‘아와닌교조루리(阿波人形浄瑠璃)’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인형극장과 자료관을 겸한 시설입니다. 방문객들은 실 공연을 관람하거나 이 예능의 역사에 관한 전시를 둘러보고, 인형 제작 과정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닌교즈카이를 양성하는 장으로서도 기능하면서 전통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설 이름은 ‘주로베’라는 인형 캐릭터에서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캐릭터는 에도 시대에 실존했던 마을 관리 반도 주로베를 모델로 삼고 있으며, 당시 이곳에 있던 주로베의 저택 터에 시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형에 대하여

아와닌교조루리의 인형은 높이가 85~140cm이며, 주로 나무로 제작됩니다. 손과 발, 얼굴 부위를 움직일 수 있어 슬픔에서 기쁨까지 폭넓은 감정 표현이 가능합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전통 의상을 입은 인형은 섬세하고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손으로 조종됩니다. 아와닌교조루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인형 머리 부분의 대형화입니다. 분라쿠 인형은 약 12cm 크기이지만, 아와 닌교조루리에서는 약 18cm 크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이지 시대에 농촌 무대에서 관객에게 잘 보이도록 고안된 지방 고유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 큰 머리를 사용함으로써 동작이 크고 역동적인 인형 조작이 가능해졌고, 독자적인 연출법이 탄생했습니다.

하나의 인형은 세 사람의 닌교즈카이에 의해 조종됩니다. 세 사람이 각자 인형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합니다. 탁월한 호흡과 정교한 조작으로 이루어진 이 협업을 통해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오모즈카이

오모즈카이(주 인형술사)는 인형의 머리와 오른팔을 담당합니다. 내부의 레버와 장치를 조작하여 인형의 고개 끄덕임, 머리 회전, 눈과 입의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인형은 이야기 속에 담긴 섬세한 감정과 몸짓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조작용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이 손잡이는 인형의 몸체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전체 움직임을 연동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오모즈카이는 다른 두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조작하기 때문에 굽이 높은 게타(일본 전통 나막신)를 신습니다. 이 역할을 맡으려면 오랜 경험과 이야기의 기술적, 감정적 요소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히다리즈카이

히다리즈카이(좌 인형술사)는 긴 막대를 사용하여 인형의 왼팔과 왼손을 담당합니다. 히다리즈카이는 사실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양팔을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장면(포옹, 물건 줍기 등)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객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히다리즈카이는 인형의 뒤에서 조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모즈카이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시즈카이

아시즈카이(발 인형술사)는 인형의 다리와 발을 담당하며, 걷기, 무릎 꿇기, 춤추기 등의 동작을 표현합니다. 이 역할은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크며, 공연자는 공연 내내 허리를 구부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형은 무대 바닥에서 약 80cm 높이로 유지되며 걷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시즈카이는 다른 두 사람과의 보폭과 균형을 완벽히 맞춰, 마치 인형이 스스로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세 사람의 호흡

세 명의 닌교즈카이가 관객의 시야에 들어오지만 검은 의상과 두건을 착용하여 무대 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로 여겨집니다. 무대 옆에는 이야기꾼(다유)과 샤미센 연주자가 앉아있으며, 다유는 모든 대사와 이야기를 맡고 있으며, 샤미센 반주는 감정 표현을 고조시켜 긴장, 슬픔, 기쁨 등의 순간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아와 주로베 아시키에서는 공연과 더불어 체험 워크숍, 인형 실물 전시, 아와닌교조류리의 역사와 발전을 소개하는 전시 등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문객이 전통 예능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026-005

<日本語仮訳>

阿波十郎兵衛屋敷における人形遣い（人形術師）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は、江戸時代（1603～1867 年）に阿波国（現在の徳島県）で生まれた日本の人形芝居の伝統芸能「阿波人形浄瑠璃」を保存・継承するための人形劇場兼資料館です。来館者は実演公演を鑑賞したり、この芸能の歴史に関する展示を見学したり、人形の制作工程を間近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後継の人形遣いを育成する場としても機能し、伝統の継承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施設名は、「十郎兵衛」という架空の人形キャラクターにちなんで名づけられました。このキャラクターは、江戸時代に実在した村役人・板東十郎兵衛をモデルとし、当時この地にあった十郎兵衛の屋敷跡に施設が建てられています。

人形について

阿波人形浄瑠璃の人形は高さ 85～140 センチで、主に木製です。手足や顔の部位は可動式で、悲しみから喜びまで幅広い感情表現が可能です。精巧に作られた伝統衣装を身につけた人形は、繊細で生きているかのような動きができるよう手動で操られます。阿波人形浄瑠璃の最大の特徴は、人形の首（かしら）の大型化です。文楽は四寸（約 12cm）型ですが、阿波では六寸（約 18cm）型を基本としています。これは明治時代に農村舞台での見栄えを良くするために考案された地方独自の工夫です。この大型の首を使用することで、大振りダイナミックな人形操作が可能となり、独自の演出法が生まれました。

1 体の人形は 3 人の人形遣いによって操作されます。3 人がそれぞれ人形の体の各部位を担当します。見事な連携と正確な操作を持つこの共同作業によって人形に命を吹き込みます。

主遣い

主遣い（主の人形術師）は人形の頭と右腕を担当します。内部のレバーや仕掛けを操作することで、人形のうなずき、首の回転、目や口の動きを表現します。これにより人形は、物語に込められた細やかな感情や仕草を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頭部には操作用の柄（え）が取り付けられており、これが人形の体幹を安定させるとともに、全体の動きを連動させる役割も果たします。

主遣いはほかの二人より高い位置から操作するため、高下駄（日本の伝統的な履物）を履きます。この役割を担うには長年の経験と、物語の技術的・感情的要素を深く理解する力が必要です。

左遣い

左遣い（左の人形術師）は長い棒を使って人形の左腕と左手を担当します。左遣いは、リアルな動作を見せるのに不可欠で、特に両腕を同時に動かす必要がある場面（抱擁、物を拾うなど）では特に重要な役割です。観客の視界を遮らないよう、左遣いは人形の後方から操作することが多く、主遣いとの完璧なタイミング合わせが求められます。

足遣い

足遣い（足の人形術師）は人形の脚と足元を担当し、歩く、ひざまずく、踊るなどの動作を表現します。この役割は身体的にも負担が大きく、演者は公演中ずっと中腰の姿勢を維持します。人形は舞台床から約 80 センチの高さに保たれ、自然な歩行に見えるよう工夫されています。足遣いは他の二人と歩幅やバランスを完全に合わせ、あたかも人形が自立しているかのような錯覚を生み出します。

三人の連携

三人の人形遣いは観客の視界に入っていますが、黒い衣装と頭巾を身につけることで舞台上では「存在しないもの」として扱われます。舞台脇には語り手（太夫）と三味線弾きが座り、太夫がすべての台詞と語りを担当し、三味線の伴奏は感情表現を高め、緊張や悲しみ、喜びといった瞬間を際立たせます。

阿波十郎兵衛屋敷では公演に加えて、体験ワークショップ、人形の実物展示、阿波人形浄瑠璃の歴史や発展を紹介する展示なども行われており、来館者が伝統芸能を学び体感できる教育施設としても機能しています。

【タイトル】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長屋門

【想定媒体】 看板/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나가야문과 쪽염 상인의 번영**

도쿠시마 현립 아와 주로베 야시키(아와닌교조루리에 특화된 인형극 극장 겸 자료관)의 입구에는 ‘나가야문’이라 불리는 전통적인 문이 있습니다. 나가야문은 농가와 무가 저택의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으로, 문의 기능 외에도 시중이나 하인들이 거주하는 간소한 방과 수납공간을 함께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도쿠시마 현립 아와 주로베 야시키에 있는 나가야문은, 원래 도쿠시마에서 남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고마쓰시마시에 있던 쪽염 상인 저택의 정문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추정에 따르면 에도 시대(1603~1867년) 후기의 건축물로 여겨집니다. 당시 고마쓰시마 주변은 온난한 기후, 비옥한 토양, 풍부한 수자원의 혜택을 바탕으로 쪽염 산업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요시노 강의 지류인 신마치 강을 따라서는 쪽염 산업과 관련된 창고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강은 생산자에게 물자를 운송하거나 쪽 염료와 쪽 제품을 구매자에게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쪽 거래에 관련된 상인들은 부와 사회적 지위를 축적하였으며, 그 저택 또한 그러한 성공을 반영한 격식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나가야문은 단순한 실용적 역할을 넘어 가문의 번영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가야문을 소유했던 쪽염 상인은 에도 시대의 고마쓰시마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쪽염은 일본 전역의 직물에 사용되는 매우 가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도쿠시마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쪽 산지였으며, 이 나가야문의 소유자와 같은 상인들은 재배부터 가공과 유통을 아우르며 번영을 이끌어왔습니다. 나가야문의 규모와 정교한 구조는 당주가 무역에서 거둔 성공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1954년, 이 나가야문은 노후화와 철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쿠시마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기 위해 현재의 장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축할 때는 원래 구조와 배치를 최대한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특징 중 하나로 문의 기초에 사용된 ‘청석(靑石)’을 들 수 있습니다. 청석은 채굴 지역에 따라 브랜드가 나뉘는데, 도쿠시마에서 채굴되는 것은 ‘아와 청석’이라 불리며, 내구성과 아름다운 색감 덕분에 도쿠시마의 전통 건축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나가야문에서는 청석이 목조 골조를 받쳐주는 튼튼한 토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가야문은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長屋門と藍商人の繁栄**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阿波人形浄瑠璃に特化した人形芝居劇場・資料館）の入口には、「長屋門」と呼ばれる伝統的な門があります。長屋門は農家や武家屋敷の入口でよく見られる建築様式で、門としての機能とともに従者や使用人が住む簡素な部屋や収納スペースを兼ねた造りが特徴です。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にある長屋門はもともと、徳島市の南約 13 キロに位置する小松島市にあった藍商人の屋敷の正門でした。専門家の推定では、江戸時代（1603～1867 年）の後期の建築とされています。当時、小松島周辺は温暖な気候、肥沃な土壌、豊富な水資源に恵まれ藍産業が最盛期を迎えていました。吉野川の支流である新町川沿いには藍産業に関連した倉庫が並んでいました。この川は、生産者へ物資を輸送したり、藍の染料や藍製品を買い手へ運搬するのに使われていました。

藍取引に関わる商人たちは富と社会的地位を築き、その邸宅もその成功を反映する格式ある造りでした。それゆえ、長屋門は実用的な役割を果たすだけでなく、家の繁栄や社会的地位を示す象徴的存在でもありました。

この長屋門を所有していた藍商人は、江戸時代の小松島経済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ました。藍染は日本全国の織物に使われる非常に価値の高い商品でした。徳島は日本有数の藍産地であり、この長屋門の所有者のような商人たちは、栽培から加工、流通までを統括することで繁栄しました。長屋門の規模や精巧な造りは、当主の交易における成功を今に伝えています。

1954 年、この長屋門は、老朽化や取り壊しの危険から保護し、徳島の文化遺産として保存する目的で、現在の場所に移築されました。移築の際には、元の構造や配置を可能な限り忠実に再現するよう細心の注意が払われました。

特徴の一つとして、門の基礎に使われている「青石」が挙げられます。青石は採掘される地域によってブランドがあり、徳島で採れるものは「阿波青石」と呼ばれ、耐久性と美しい色合いから徳島の伝統建築に用いられてきました。長屋門では、青石が木造の骨組みを支える頑丈な土台として機能しています。

現在、この長屋門は「国の登録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辰巳座敷

【想定媒体】 看板/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다쓰미자시키

도쿠시마 현립 아와 주로베 야시키(인형극 극장 겸 자료관) 내에 위치한 ‘다쓰미자시키’는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방입니다. 에도 시대(1603~1867 년) 후기에 고마쓰시마시의 쪽염 상인 저택의 일부로 지어졌으며, 1954 년에 현재 위치로 이축되었습니다. 이축할 때는 같은 저택에 있던 나가야몬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이 다다미방의 디자인에서는 스키야즈쿠리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스키(数寄)는 와카(일본 고유의 정형시)와 다도, 꽃꽂이와 같은 풍류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며, 스키야(数奇屋)는 취향에 따라 지은 집을 가리킵니다. 스키야즈쿠리는 다실과 접객용 건물에 쓰이는 주거 양식으로, 소박함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다다미방은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손님을 맞이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깔끔하고 직선적인 디자인, 목조 구조, 그리고 세심하게 설계된 방 배치는 에도 시대의 전통적인 건축 사상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쓰미자시키는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辰巳座敷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人形芝居劇場・資料館）内にある「辰巳座敷」は、畳敷きの和室です。江戸時代（1603～1867 年）後期に小松島市の藍商人の邸宅の一部として建てられ、1954 年に現在の場所へ移築されました。移築の際には、同じ邸宅にあった長屋門も一緒に運ばれました。

この座敷のデザインには数寄屋造の特徴が見られます。数寄とは和歌（日本固有の定型詩）や茶の湯、生花といった風流を楽しむことで、数奇屋とは好みに任せて作った家を指します。数寄屋造は、茶室や来客をもてなす建物に用いられる住宅様式で、簡素さと優美さを兼ね備えた造りが特徴です。そのため、この座敷は日常生活の場というよりも、来客を迎えるための空間として使われ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

すっきりとした直線的なデザイン、木造構造、考え抜かれた間取りは、江戸時代の伝統的な建築思想を今に伝えています。

この辰巳座敷は、「国の登録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傾城阿波の鳴門 巡礼歌の段」あらすじ

【想定媒体】 アプリ QR コード / Web

<韓国語>

게이세이 아와노 나루토(傾城阿波の鳴門)

도쿠시마 현립 아와 주로베 야시키는 아와닌교조루리(阿波人形浄瑠璃)라는 일본의 전통 인형극 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극장과 자료관을 겸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상연되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에도 시대(1603~1867 년)에 탄생한 명작 『게이세이 아와노 나루토』입니다. 10 단으로 구성된 이야기로, 어머니와 딸의 이별과 재회를 그린 「준레이 우타노 단(순례가의 단)」이 유명합니다. 능숙한 이야기 구연(다유)과 샤미센 연주가 하나로 어우러져 이야기에 깊은 정서를 더합니다.

이 작품이 쓰인 18 세기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신분 제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야기에서는 의무, 자기희생, 그리고 인정 사이의 갈등과 같은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게이세이 아와노 나루토』의 주인공은 주로베와 그의 아내 오유미입니다. 두 사람은 주군의 도난당한 명검을 찾기 위해 고향인 아와(현재의 도쿠시마현)를 떠나며, 어린 딸인 오쓰루를 남겨두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도적 행세를 하며, 오사카에서 가명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진짜 도적이 되었고 결국 무법자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한편, 성장한 오쓰루는 순례 여행길에 오르고 부모님을 찾으러 아와를 떠납니다. 우연히도 부모님이 사는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쓰루는 그곳이 부모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 오유미는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딸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망설입니다. 눈물을 삼키며, 오유미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오쓰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합니다.

오쓰루가 순례가를 읊조리며 떠나는 모습을 보고, 오유미는 참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가 딸을 불러 돌아오게 합니다.

이 명장면은 모자 이별의 슬픔과 재회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정, 사모, 그리고 회한과 같은 보편적인 감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형극은 당시의 도덕관도 비추고 있는데, ‘의무나 생존을 위해 종종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傾城阿波の鳴門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は、阿波人形浄瑠璃という日本の伝統的な人形芝居の芸術を保存・継承する劇場兼資料館です。

ここで上演される代表的な演目の一つが、江戸時代（1603～1867 年）に生まれた名作『傾城阿波の鳴門』です。10 段からなる物語で、母と娘の別離と再会を描いた「順礼歌の段（順礼歌の言葉）」が有名です。巧みな語り（太夫）と三味線の演奏が一体となり、物語に深い情感を与えます。

この作品が書かれた 18 世紀当時、日本は徳川幕府の支配下にあり、身分制度が厳格に定められていました。そのため当時の物語には、義務、自己犠牲、そして人情との板挟みといったテーマが多く見られます。

『傾城阿波の鳴門』の主人公は、十郎兵衛とその妻・お弓です。二人は主君の盗まれた名刀を探すために故郷・阿波（現在の徳島県）を離れ、幼い娘・お鶴を置いて旅に出ます。やがて二人は盗賊のふりをし、大阪で偽名を使いながら暮らすようになります。しかし年月とともに、二人は本当の盗賊となり、ついに無法者へとなってしまいました。

一方、成長したお鶴は巡礼の旅に出て、両親を探しに阿波を後にします。偶然にも両親の住む家を訪れます。しかしお鶴はそこが両親の家とは知らず、母・お弓は娘であることを確信しながらも、二人の置かれた状況が娘に迷惑をかけることを恐れ、真実を明かすことをためらいます。涙をこらえながら、お弓は身元を明かさずお鶴に家に帰るよう伝えます。

お鶴が巡礼歌を口ずさみながら去っていくのを見て、お弓は抑えきれず家を飛び出し、娘を呼び戻します。

この名場面は、母子の別れの悲しみと再会へのかすかな希望を表現しています。親子の愛情、思慕、そして悔恨といった普遍的な感情を描いています。また、この芝居は、当時の道德観も映し出しており、「義務や生き延びるために個人の幸福がしばしば犠牲にさ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タイトル】 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阿波人形浄瑠璃」概要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Web

<韓国語>

아와닌교조루리의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다

아와닌교조루리(阿波人形浄瑠璃)는 도쿠시마현(옛 아와국)에서 탄생한 전통 인형극입니다. 닌교즈카이(인형술사), 이야기 구연, 그리고 음악 반주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구전하는 사람은 ‘다유’라는 이야기꾼으로, 감정을 풍부하게 담은 가락으로 이야기하는 ‘기다유부시’라는 이야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양식의 이름은 유명한 이야기꾼 다케모토 기다유(1651~1714 년)에게서 유래하였습니다. 음악을 받쳐주는 역할은 샤미센 연주자가 맡으며, 세 명의 인형술사가 협력하여 하나의 인형을 조작합니다. 세 사람의 정교한 호흡을 통해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풍부한 감정 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와닌교조루리의 기원은 일본 각지에서 인형극이 성행했던 에도 시대(1603~1867 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도쿠시마의 인형극은 독자적인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도쿠시마의 닌교조루리는 특히 인형의 사실적인 움직임과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강렬한 서사성이 특징입니다. 공연 작품에서는 역사적 사건과 도덕적 교훈, 그리고 지역 전설 등이 주제로 자주 다루어집니다.

다른 지역의 인형극과 달리, 아와닌교조루리에서는 대형 인형을 세 명이 함께 조작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오모즈카이(주 인형술사)가 머리와 오른팔을, 두 명의 보조자가 왼팔과 양발을 각각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형극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다유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야기꾼으로,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자리 이동 없이 혼자 연기하며 각 인물을 표현합니다. 이 기법은 기술과 오랜 훈련이 요구됩니다. 샤미센은 음악적 깊이를 더하며, 소리의 음색과 템포를 통해 변화를 전달합니다. 이야기 구연, 음악, 인형의 움직임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조루리 특유의 깊은 정서가 생깁니다.

아와닌교조루리는 도쿠시마 현립 아와 주로베 야시키에서 상연됩니다. 이 시설은 공연이 열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에 특화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에도 시대의 마을 관리였던 반도 주로베의 옛 저택 터에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인기 작품의 등장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와 주로베 야시키에서는 시설 내 전용극장에서 아와닌교조루리 공연을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관객들이 아와닌교조루리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에 인형의 구조와 각 공연자의 역할, 이야기의 관람 포인트 등을 실제 공연을 통해 해설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내 자료 전시실에서는 인형과 의상, 관련 자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설명 패널에서는 인형의 구조와 조작 방법, 아와닌교조루리의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아와닌교조루리를 발전시켜 온 도쿠시마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중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와 워크숍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실제로 인형을 조작하거나 간단한 이야기 구연에 도전해 보면서 전통 예능의 기교와 깊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며, 다음 세대에 대한 문화 계승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와닌교조루리의 보존 활동은 지역 인형극단과 문화 단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활동하는 극단은 줄었지만 지금도 열정적인 공연자들이 끊임없이 연습하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와 주로베 야시키는 이러한 전통을 유지하고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와닌교조루리를 배우고 보존하며 감상하기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026-009

<日本語仮訳>

阿波人形浄瑠璃の伝統を守り継ぐ

阿波人形浄瑠璃は、徳島県（旧・阿波国）で生まれた伝統的な人形芝居です。人形遣い（人形術師）、語り、そして音楽の伴奏の三つの要素が一体となって構成されています。

物語を語るのは「太夫」と呼ばれる語り手で、感情豊かな節回しで語る「義太夫節」という語り口を用います（この様式の名称は、これを作り出した名語り手・竹本義太夫〔1651-1714 年〕に由来します）。音楽的に支えるのは三味線奏者で、さらに三人一組の人形遣いが一体の人形を動かします。三人の緻密な連携によって、人形がまるで生きているかのような自然な動きと感情豊かな表現を見せるのです。

阿波人形浄瑠璃の起源は、日本各地で人形芝居が盛んだった江戸時代（1603-1867 年）にさかのぼります。年月とともに、徳島の人形芝居は独自の進化を遂げました。徳島の人形浄瑠璃は、特に人形の写実的な動きと、観る者の心を打つ物語性の強さが特徴です。演目には、歴史的事件や道徳的教訓、地域の伝説などが題材としてよく取り上げられます。

他の地域の人形芝居と異なり、阿波人形浄瑠璃では、大型の人形を三人で操るのが大きな特色です。主遣い（主の人形術師）が頭と右手を、二人の助手が左手と両足をそれぞれ担当します。この手法によって、多様な動きの演技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芝居の中心的役割を担う太夫は、物語全体の語り手であり、登場人物全員の台詞も、立ち位置を変えずに一人で演じ分けます。この技法は、技術と長年の訓練が求められます。三味線は音楽的な深みを加え、音のトーンやテンポで変化を合図します。語り・音楽・人形の動きが一体となることで、浄瑠璃ならではの深い情感が生まれます。

阿波人形浄瑠璃は、徳島県立阿波十郎兵衛屋敷で上演されます。この施設は、上演を行う場所であり、地域の芸能に特化した博物館として機能しています。ここは江戸時代の村役人・板東十郎兵衛の旧

邸跡にあり、彼の名は人気演目の登場人物にもなっています。

阿波十郎兵衛屋敷では、施設内の専用劇場で、阿波人形浄瑠璃の上演を生で鑑賞できます。公演は、来場者が阿波人形浄瑠璃の仕組みを理解しやすいように構成されています。演目の合間に人形の構造や演者のそれぞれの役割、物語の見どころなどを、実演を交えて解説することもあります。

また、館内の資料展示室では、人形や衣装、関連資料が展示されています。説明パネルでは、人形の構造や操作方法、阿波人形浄瑠璃の歴史がわかりやすく紹介されており、阿波人形浄瑠璃を育んだ徳島の文化的背景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年間を通して、さまざまな体験型イベントやワークショップも開催されています。来館者は実際に人形を操作してみたり、簡単な語りに挑戦したりすることで、伝統芸能の技や奥深さを体感できます。子ども向けの教育プログラムもあり、次世代への文化継承に力を入れています。

阿波人形浄瑠璃の保存活動は、地元の人形座や文化団体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ます。かつてより活動する劇団は減ったものの、今も熱心な演者たちが稽古を重ね、公演を続けています。阿波十郎兵衛屋敷は、こうした伝統を維持・普及していく上で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ており、阿波人形浄瑠璃を学び、保存し、鑑賞するための拠点となっています。

地域番号	027	協議会名	板野町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27-001	四国霊場 3 番 金泉寺（こんせんじ）	405	パンフレット
027-002	四国霊場 4 番 大日寺	410	パンフレット
027-003	四国霊場 5 番 地藏寺	362	パンフレット
027-004	あせび温泉やすらぎの郷	620	看板
027-005	道の駅「いたの」	644	看板
027-006	あせび温泉やすらぎの郷	384	パンフレット
027-007	道の駅「いたの」	456	パンフレット
027-008	あせび公園	397	パンフレット
027-009	岡の宮の大クス	343	パンフレット
027-010	愛染院	336	パンフレット
027-011	大坂口御番所跡	430	パンフレット
027-012	あすたむらんど徳島	793	パンフレット
027-013	板野町（全体概要）	338	パンフレット
027-014	あせび公園	568	Web
027-015	岡の宮の大クス	509	Web
027-016	愛染院	1299	Web
027-017	大坂口御番所跡	1038	Web

【タイトル】 四国霊場 3 番 金泉寺 (こんせんじ)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곤센지 절

곤센지 절은 쇼무 천황이 8 세기 전반에 건립한 절입니다. 9 세기 초반, 신곤슈(진언종, 眞言宗)의 창시자, 구카이가 이 절을 찾았을 때, 절 경내에 우물을 판 후, ‘곤코묘지 절’(金光明寺, 금빛으로 환한 절)에서 ‘곤센지 절’(金泉寺, 황금색 우물의 절)로 절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우물 물에 선명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장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곤센지 절에 전해 내려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벤케이(弁慶)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12 세기 후반의 유명한 무승입니다. 다이라 씨와 미나모토 씨 사이에 이어진 겐페이 전투(源平合戦)가 있던 중, 미나모토 가문의 장군인 요시쓰네(義経)가 야시마(현재의 다카마쓰)를 향하던 도중 곤센지 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쓰네의 부하인 벤케이는 이미 괴력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괴력을 보여 달라고 하자 벤케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커다란 바위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 바위는 지금도 절의 정원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金泉寺

聖武天皇が 8 世紀前半にこの寺を建立しました。空海(眞言宗の開祖)가 9 世紀初頭にこの寺を訪れた際に、寺の境内に井戸を掘り、寺の名が「金光明寺」(「金色の光の寺」)から「金泉寺」(「金色の井戸の寺」)へと変わりました。言い伝えによると、井戸の水にはっきりと映った自分の顔を見た者たちは長寿を授かるのだそうです。

もう一つの金泉寺の言い伝えは弁慶に関するものです ; 12 世紀後半の著名な武僧です。平家と源氏との間で繰り広げられた源平合戦の際、源氏の將軍・義経が屋島(現在の高松)へ向かう途中、金泉寺で休息を取りました。源義経の家臣の 1 人である弁慶は、その強さで知られていました。地元の人たちは、彼に力を披露するよう求め、弁慶は当然大きな岩を頭上に持ち上げたのです。この岩は現在も寺の庭の片隅に置か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四国霊場4番 大日寺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다이니치지 절

다이니치지(大日寺) 절은 산으로 둘러싸여 최근까지 찾아가기 힘든 장소였습니다. 이 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특징 중 하나는 2층 부분의 종루 겸 정문입니다. 이 절에 모신 본존불은 일본에서 ‘다이니치노라이(大日如来)’라고 불리는 대일여래상으로, ‘큰 태양의 부처’라는 뜻의 부처입니다. 절의 이름 ‘다이니치’(大日)는 이 대일여래에서 유래합니다. 815년에 신콘슈의 창시자 구카이가 이 절의 본존불을 조각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의 불상은 1407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에도 시대(1603~1867)의 다이니치지 절은 도쿠시마번을 통치한 하치스카 씨의 보리사(가문의 조상을 모시기 위한 사찰)였습니다. 지붕에는 하치스카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됩니다.

본당과 대사당을 잇는 L자 모양 회랑에는 자비의 보살인 33구체 관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음상들은 서일본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 순례(西国三十三所観音巡礼)’의 각 순례지에 있는 관음상을 복제한 것으로 18세기 말경에 제작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大日寺

大日寺は山々に囲まれており、つい最近まで行くのが困難な場所でした。このお寺のひと際目を引く特徴の一つが2階部分が鐘楼を兼ねるその正門です。この寺で祀られる本尊は大日如来（マハーヴァイローチャナ、「大いなる太陽」の仏）です；寺の名前は大日如来が由来となっています。空海（真言宗の開祖）が815年にこの寺の本尊を彫像し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が、現在の像は1407年に作られたものです。

江戸時代（1603~1867年）には大日寺は徳島藩を治めた蜂須賀氏の菩提寺となりとなりました。屋根の棟には、蜂須賀氏の家紋が施された瓦が見られます。

本堂と大師堂をつなぐL字型の回廊には、慈悲の菩薩である33体の観音（アヴァローキテーシュヴァラ）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これらは西日本の「西国三十三所観音巡礼」の各札所にある観音像のレプリカで、18世紀の終わり頃に造られたものです。

【タイトル】 四国霊場 5 番 地藏寺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지조지 절

이 절에서는 지장보살을 본존불로 모십니다. 임산부, 여행자, 어린이를 지키는 수호신의 모습을 한 일반적인 지장보살과 달리, 이곳의 지장보살은 ‘장군지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장한 기마 무사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외진에 앉아 있는 붉은 조각상은 치유의 부처, 빈두로존자입니다. 빈두로가 밖에 안치된 것은 술에 취한 탓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에서 추방된 사실을 나타냅니다.

대사당은 18 세기 후반에 건축되었습니다. 정면에 자리잡은 큰 은행나무의 수명은 800 년을 넘었다고 전해지며, 만지는 사람은 장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위쪽 언덕에는 선명하게 채색한(부처님의 제자로 깨달음을 얻은) 나한의 실물 크기 조각상이 진열된 회랑으로 이어진 3 개 건물로 구성된 오백나한당이 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발발로 프로젝트가 중단되기 전까지, 500 구의 나한상 중 약 200 여 구 조금 못 미치게 완성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地藏寺

地藏菩薩（クシティガルバ）はこの寺に祀られている本尊です。妊婦、旅人、子供の守り神である一般的な地藏の姿をしてはおらず、この地藏は「將軍地藏」として知られ、武装した騎馬武者の姿をかたどっています。外陣に座っている赤い像は、癒しの仏・賓頭盧尊者です。賓頭盧が外に安置されているのは、酔っぱらっていたことが原因でお釈迦様の僧伽から追放されたという事実を映し出しています。

大師堂は、18 世紀後半に建てられました。正面にある大きなイチョウの木は、樹齢 800 年を超えると言われ、触れる人に長寿をもたらすと多くの人が信じています。上の高台には、五百羅漢堂が建っており、鮮やかな色で塗られた、（仏の弟子で悟りを開いた）羅漢の等身大の彫像が並べられている回廊でつながった 3 つの建物で構成されています。第二次世界戦争の勃発によりプロジェクトが中断される前に、500 体の羅漢像の内約 200 体弱しか完成しませんでした。

【タイトル】 あせび温泉やすらぎの郷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아세비 온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2년 개장한 이 온천 시설의 이름은 이타노초 마을의 나무인 아세비라는 마취목(Pieris japonica, 또는 영어로 Temple Bells)에서 유래합니다. 이 시설은 오사카타니가와 강이 옆을 흐르는 다카오산의 산기슭에 위치합니다. 아세비 온천의 유황 알칼리성 온천수는 1.4km 떨어진 원천수에서 끌어와, 자연 분출되는 21℃를 시설 내에서 40℃ 이상으로 가열합니다.

시설 내에는 5 종류의 욕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 욕장(노천탕 41℃), 온천의 폭포(떨어지는 온천수)와 ‘원천에서 직접 흘러오는’ 온천(원천수, 43℃), 커다란 욕조(대욕장, 42℃), 냉수욕장(냉탕 15℃~18℃)의 3 종류의 실내 욕장으로 구성됩니다. 욕장의 오른쪽 공간에 있는 사우나와 왼쪽 공간의 스팀실은 격일로 번갈아가며 남녀 이용이 변경됩니다. 양쪽 욕장 공간에는 흰 벽과 기와지붕에 둘러싸여 암석과 소나무로 꾸며진 일본 정원이 펼쳐집니다.

아세비 온천 이용자의 대부분이 자동차로 방문하기 때문에 음료는 소프트 드링크, 논알콜 맥주, 녹차(셀프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께서는 복도 안쪽에 위치한 다다미실에서 준비해 온 식사와 음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둑이나 장기 등 전통 게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도에는 지역 미술 클럽의 사진과 그림, 지역의 역사, 활동, 미술 및 공예품을 소개하는 패널이 번갈아 전시됩니다.

아세비 온천

어른: 600 엔

어린이: 400 엔

영업시간: 오전 10:00 ~ 오후 9:30(입장 마감: 오후 9시)

문신한 사람 입장 불가

<日本語仮訳>
あせび温泉ようこそ

2002年にオープンしたこの温泉施設は、板野町の町木である馬酔木という低木（ピエリス・ジャポニカ、英語で「Temple Bells」）にちなんで名付けられました。この施設は、大坂谷川がそばを流れる高尾山の麓にあります。あせび温泉のアルカリ性イオウ泉は、1.4キロメートル離れた源泉から引き込まれ、自噴する温度約 21℃から施設内で 40℃を超える温度に加熱されています。

施設内には 5 種類の浴場があります：屋外浴場（露天風呂、41℃）、温泉の滝（打たせ湯）、3 つの屋内浴場—「源泉から直接流れる」浴場（源泉湯、43℃）、大きな浴槽（大浴場、42℃）、冷水

浴場（水風呂、15℃～18℃）です。右側の浴場エリアのサウナと左側エリアのスチームルームは交互の日程で男女の利用が切り替わります。両方の浴場エリアからは、伝統的な白壁と瓦屋根に囲まれた、岩と松の木をあしらった日本庭園が見渡せます。

あせび温泉利用者のほとんどが車で来館するため、飲物はソフトドリンク、ノンアルコールビール、そしてセルフサービスの緑茶のみがあります。利用者は、廊下の奥の畳部屋で、食べ物や飲み物を持ち込んでご飲食いただいて構いません。囲碁や将棋（日本式チェス）などの伝統的なボードゲームもあります。廊下には、入れ替わりで地元の美術クラブの写真や絵画の展示、また、地域の歴史、活動、美術・工芸品を紹介するパネルもあります。

あせび温泉

大人：600 円

子ども：400 円

営業時間：午前 10:00～午後 9:30（最終入場午後 9:00）

タトゥーお断り

【タイトル】道の駅「いたの」

【想定媒体】看板

＜韓国語＞

미치노에키 이타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치노에키 이타노는 시코쿠에서 88 번째로 개장한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로고에 88 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렌지색은 봄당근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당근은 이타노초에서 유명한 몇몇 농산품 중 하나로, 그밖에 쌀, 연근, 장아찌용 울외가 유명합니다.

이타노초에서는 지역 농가와 식품 업체가 연계하여 이타노초만의 독자적인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현지 농산물을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봄당근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신선한 당근과 더불어, 당근 소프트크림, 당근 주스, 당근 케이크, 당근 맛 디핑 소스, 당근 샐러드드레싱, 당근 튀김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와 식품 생산자들의 대형 사진이 천장에 매달려 있고, 먹거리에 대한 그들의 이념을 전하는 메시지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쇼핑 공간 안쪽에는 전면 유리로 된 주방 안에서 신선한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도시락을 만듭니다.

출입문 옆에는 소프트크림을 판매하는 코너가 있고, 소프트크림의 플레이버는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 레스토랑 메구미 식당도 동일한 이념을 가지고 신선한 현지 식자재만을 사용합니다.

기타 시설로 어린이 놀이터(2 층), 야외 족욕탕과 애견 운동장이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이타노 옆에는 자연 재해에 대비한 대피소도 있습니다. 헬리포트, 이재민들의 보호를 위한 넓은 공간,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식료품과 식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미치노에키 이타노: 오전 8:30 ~ 오후 6:00

레스토랑 메구미 식당: 오전 11:00 ~ 오후 6:00(주문 마감 오후 5:30)

＜日本語仮訳＞

道の駅いたのようこそ

道の駅いたのは四国で 88 番目にオープンした休憩所です ; したがって、ロゴに 88 という数字が採用されています。オレンジ色は、春にんじんを連想させる色として選ばれました ; 板野町が有名であるいくつかの作物の一つで、他には米、蓮根、漬物用シロウリがあります。

地元の農家や食品メーカーと連携し、私たちは、板野町の独自の食文化を紹介する方法として、地元の

農産物を自然なままの形でだけでなく、付加価値の高い加工品としても宣伝しています。春人参はよい例です。新鮮な人参に加え、私たちは人参ソフトクリーム、人参ジュース、人参ケーキ、人参風味のディップソース、人参サラダドレッシング、人参天ぷらなども販売しています。

地元の農家や食品生産者の大判の写真が天井から吊り下げられており、彼らの食への理念を伝える言葉と一緒に掲げられています。ショッピングエリアの奥にあるガラス張りのキッチンでは、新鮮な地元食材を使ったお弁当が作られています。

メインエントランスのそばには、ソフトクリームを販売する窓口があり、そのフレーバーは季節に合わせて変わります。レストラン恵食堂も同様の理念を掲げ、新鮮な地元産食材のみを使用しています。

ほかの施設として、子供の遊び場（2 階）、屋外の足湯とドッグランがあります。道の駅いたの隣には自然災害時の避難所もあります。ヘリポート、避難者を保護するための広間、シャワー、トイレ、食料品と水の備蓄が整備されています。

営業時間

道の駅いたの：午前 8:30～午後 6:00

レストラン恵食堂：午前 11:00～午後 6:00（ラストオーダー 午後 5:30）

【タイトル】 あせび温泉やすらぎの郷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아세비 온천

온천시설 아세비 온천의 이름은 이타노초 마을의 나무인 아세비라는 마취목(Pieris japonica 또는 Temple Bells)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유황 알칼리성 온천수는 주변의 원천수를 끌어와서 자연 분출 온도인 21℃를 40℃가 넘는 온도로 가열한 것입니다.

시설 내에는 5 종류의 욕장이 있습니다. 야외 욕장(노천탕 41℃), 온천의 폭포(떨어지는 온천수)와 ‘원천에서 직접 흘러오는’ 온천(원천수, 43℃), 커다란 욕조(대욕장, 42℃), 냉수욕장(냉탕 15℃~18℃)의 3 종류의 실내 욕장으로 구성됩니다. 욕장의 오른쪽 공간에 있는 사우나와 왼쪽 공간의 스팀실은 격일로 남녀 이용이 변경됩니다. 양쪽 욕장 공간에는 흰 벽과 기와지붕에 둘러싸여 암석과 소나무로 꾸며진 일본 정원이 펼쳐집니다.

소프트 드링크, 논알콜 맥주, 녹차(셀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다다미 라운지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あせび温泉

温泉施設 あせび温泉は、板野町の町木である馬酔木という低木（ピエリス・ジャポニカ、英語で「Temple Bells」）にちなんで名付けられました。アルカリ性イオウ泉は、近くの源泉から引き込まれ、自噴する温度約 21℃から 40℃を超える温度に加熱されています。

施設内には 5 種類の浴場があります：屋外浴場（露天風呂、41℃）、温泉の滝（打たせ湯）、3 つの屋内浴場—「源泉から直接流れる」浴場（源泉湯、43℃）、大きな浴槽（大浴場、42℃）、冷水浴場（水風呂、15℃~18℃）です。右側の浴場エリアのサウナと左側エリアのスチームルームは交互の日程で男女の利用が切り替わります。両方の浴場エリアからは、伝統的様式の白壁と瓦屋根に囲まれた、岩と松の木をあしらった日本庭園が見渡せます。

ソフトドリンク、ノンアルコールビール、セルフサービスの緑茶をご利用いただけます。利用者は、畳のラウンジで、食べ物や飲み物を持ち込んでご飲食いただいても構いません。

【タイトル】道の駅「いたの」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韓国語>
미치노에키 이타노

미치노에키 이타노는 시코쿠에서 88 번째로 개장한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로고에 88 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렌지색은 봄당근을 연상시킵니다. 당근은 이타노초에서 유명한 몇몇 농산품 중 하나로, 그밖에 쌀, 연근, 장아찌용 울외가 유명합니다.

이타노초에서는 지역 농가와 식품 생산업자가 연계하여 이타노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현지 농산물을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뛰어난 가공식품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봄당근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신선한 당근과 더불어, 우리들은 당근 소프트크림, 당근 주스, 당근 케이크, 당근 맛 디핑 소스, 당근 샐러드 드레싱, 당근 튀김 등도 판매합니다. 레스토랑 메구미 식당도 동일한 이념으로 신선한 현지 식자재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이타노 주변에는 자연 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도 있고, 헬리포트, 이재민들의 보호를 위한 넓은 공간,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식료품과 식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미치노에키 이타노: 오전 8:30 ~ 오후 6:00

레스토랑 메구미 식당: 오전 11:00 ~ 오후 6:00 (주문 마감 오후 5:30)

<日本語仮訳>
道の駅いたの

道の駅いたのは四国で 88 番目にオープンした休憩所です ; したがって、ロゴに 88 という数字が採用されています。ロゴのオレンジ色は、春にんじんを連想させます ; 板野町が有名であるいくつかの作物の一つで、他には米、蓮根、漬物用シロウリがあります。

地元の農家や食品生産者と連携し、私たちは、板野町の食文化を紹介する方法として、地元の農産物を自然なままの形でだけでなく、付加価値の高い加工品としても宣伝しています。春人参はそのよい例です。新鮮な人参に加え、私たちは人参ソフトクリーム、人参ジュース、人参ケーキ、人参風味のディップソース、人参サラダドレッシング、人参天ぷらなども販売しています。レストラン恵食堂も同様の理念を掲げ、新鮮な地元産食材のみを使用しています。

道の駅いたの隣には自然災害時の避難所もあり、ヘリポート、避難者を保護するための広間、シャワー、ト

イレ、食料品と水の備蓄が整備されています。

営業時間

道の駅いたの：午前 8:30～午後 6:00

レストラン恵食堂：午前 11:00～午後 6:00（ラストオーダー 午後 5:30）

【タイトル】 あせび公園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아세비 공원

이타노초 마을의 나무는 아세비(마취목, 영어로 Temple Bells)입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종 모양으로 고개를 숙인 흰색 또는 분홍색 꽃이 피는 상록 마취목입니다.

아세비(馬酔木)는 한자 뜻대로 ‘말을 취하게 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해발고도 약 400m 에 위치한 아세비 공원은 아산 산맥의 류오산의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공원 전망대 두 곳에서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도보로 약 10 분 거리의 공원 북쪽 끝에 위치한 오사카도게 전망대는 세토 내해가 서쪽으로 보입니다. ‘시코쿠노 미치’는 시코쿠를 가로지르는 1,600km 의 장거리 자연 보도로 이 지점을 통과합니다.

주차장에서 남쪽으로는 작은 휴게소가 있고, 그곳에서 아세비 공원 전망대로 연결되는 길이 이어집니다. 길은 도중에 약 2,000 그루의 마취목이 자라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타노초 일부와 동쪽을 향해 이어진 산들을 바라보는 풍경이 멋진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이 산책로는 편도로 약 10 분 정도 소요됩니다.

<日本語仮訳>
あせび公園

板野町の町木は、馬酔木（ピエリス・ジャポニカ、英語で「Temple Bells」）です；春のはじめ頃に鐘の形をした下垂する白またはピンクの花がつく常緑低木です。馬酔木は文字通り「馬を酔わせる低木」を意味します。

約 400 メートルの標高にあるあせび公園は、阿讃山脈の龍王山の尾根沿いに広がっています。その 2 つの展望台では絶景を望めます。駐車場から徒歩約 10 分の場所にある、公園北端の大坂峠展望台は、瀬戸内海を西に望みます。「四国のみち」は四国を縦断する 1,600 キロメートルの長距離自然歩道で、この地点を通過します。

駐車場から南には、小さな休憩所があり、そこからあせび公園の展望台に続く道が延びています。途中、道は約 2,000 本の馬酔木の低木が育つエリアを通過します。見どころは、板野町の一部と、東に向かって連なる山々を望める景色です。この散策路は片道約 10 分ほどです。

【タイトル】 岡の宮の大クス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오카노미야 신사와 녹나무

오카노미야 신사(岡の宮神社)는 900 년에 창건되었으며 해충의 접근을 막아 풍작을 가져다주는 무명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경내에 서있는 녹나무는 1973 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뿌리 둘레는 25m, 나무 자체 높이는 35m, 가지는 동서 방향으로 27m, 남북 방향으로 37m 나 됩니다. 나무의 나이는 약 700 년 정도로 추정되며 가마쿠라 시대(1185~1333) 후기 또는 무로마치 시대(1336~1573)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지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나무를 숭배했습니다. 1768 년, 이 나무는 현지 **번의 수군 관리의** 눈길을 끌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나무가 배를 만들기 위한 목재로 사용되는 것을 염려한 마을 사람들은 지역 번주에게 벌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나무 뒤의 비석은 이 청원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日本語仮訳>
岡の宮神社と大クス

岡の宮神社は 900 年に建立されました ;そして害虫を寄せ付けないようにして豊作をもたらす無名の神を祀っています。境内にそびえるこの大クスは、1973 年に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ました。根回りは 25メートル、木自体の高さは 35メートル、枝張りは東西方向に 27メートル、南北方向に 37メートルあります。樹齡は推定約 700 年で、鎌倉時代（1185～1333 年）後期または室町時代（1336～1573 年）初期に遡ります。

地元の人たちは長い間ずっとこの木を崇めています。1768 年には、この木は地元藩の海軍省事務官の目を引くほどに大きく成長していました。木が船の木材にされることを恐れた氏子たちは、地元藩主に伐採しないよう請願しました。木の後ろにある石碑は、その請願が成功したことを記念しています。

【タイトル】 愛染院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아이젠인 절

이 소박한 절은 시코쿠 순례길 제 3 번 순례지인 곤센지 절의 오후노인(奥の院, 안쪽 성소)입니다. 아이젠인(愛染院) 절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은 순례길 중 자연 그대로인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는 최초의 구간입니다.

정문 양쪽에 걸려 있는 거대한 짚신은 절을 보호하는 두 수호신(인왕)에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두 구의 명왕이 본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전신 붉은색으로 눈이 셋, 여섯 팔을 가진 애염명왕과 분노의 표정을 한 부동명왕입니다.

본당 왼쪽에는 1582 년에 전사한 지역 성주였던 아카자와 시나노노카미를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패하게 된 원인은 짚신을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도 입구 양쪽에 큰 짚신, 그리고 안쪽에는 보통 크기의 짚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짚신을 봉헌하면 발과 다리, 허리가 튼튼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愛染院

この質素な寺は、四国遍路の第3番札所の寺である金泉寺の本殿です。愛染院へと続く狭い土道は、遍路の道で自然のまま未舗装の状態で残っている最初の区間です。

正門の両側に付けられている巨大なわらじは、寺を護る二体の守護の王（仁王）に奉納されています。二体の明王が本堂に祀られています：全身赤色で三目六臂の愛染明王と、忿怒顔の不動明王です。

本堂の左は、1582年に討死した地元城主の赤沢信濃守を祀る廟です；言い伝えでは彼が負けた原因はわらじをきちんと結ばなかったためだと言われています！この建物も、入り口の両側には大きなわらじが、そして内部には通常のサイズのわらじが積まれています。わらじを奉納すると、足、脚、腰の健康を高めると言わ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大坂口御番所跡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오사카구치 고반쇼 유적

에도시대(1603~1867)에는 ‘번소’ (番所)라는 초소가 번의 경계선에 설치되어 사람들의 왕래 및 물자 이동을 감시했습니다. 오사카구치 고반쇼 유적지는 도쿠시마번에 있던 49 곳의 번소 중 하나로 이웃인 다카마쓰번(현재의 가가와현)으로 통하는 산길을 감시했습니다.

반닌(番人)이라 불리던 경비병들은 도망친 범죄자나 대도시에서의 보다 나은 생활을 동경했던 반항적인 농민들을 감시했습니다. 여행객은 자신의 품행을 보증할 통행증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무라세 가문과 구지메 가문 양가가 막부의 지배하에 있던 도쿠시마번의 통치자였던 하치스카 씨를 대신해 이 번소를 운영했습니다. 지붕 기와에 하치스카 가문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번소는 1644 년 최초로 건축되었을 당시, 조금 더 고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1773 년에 발생한 화재 후, 지금의 장소에 재건되었습니다. 현재 구조물 중 가장 오래된 부분은 1790 년에 건조된 돌계단 부분입니다.

오사카구치 고반쇼 유적

작수달 첫 번째 일요일 오전 10:00 ~ 오후 4:00 에 개관(또는 요청에 응함)

＜日本語仮訳＞

大坂口御番所跡

江戸時代（1603 年～1867 年）には、番所が藩の境界線に設置され、人の往来や物資の移動を監視していました。大坂口御番所跡は、徳島藩にある 49 ある同様の番所の一つで、隣の高松藩（現在の香川県）へと通じる山道を監視しました。

番人は逃亡犯や大都市のよりよい生活を求める反抗的な農民を見張っていました。旅人たちは、自身の品行を保証する通行手形を見せる必要がありました。地元の村瀬家と久次米家の両家が、幕府の支配下にあった徳島藩の統治者である蜂須賀氏に代わって、この番所を預かりました。軒先の瓦には、蜂須賀氏の家紋が施されています。

番所は、1644 年に初めて建てられた当時、もう少し高台に立っていたとされています。1773 年の火災の後、現在の場所に再建されました。現在の構造物で最も古い部分は、1790 年に建造された石段の部分です。

大坂口御番所跡

偶数月の第 1 日曜日の午前 10:00～午後 4:00 に開館（または要望に応じる）

【タイトル】 あすたむらんど徳島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아스타무 랜드

아스타무 랜드는 다양한 존으로 구성된 테마파크입니다. 일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는 저렴한 입장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어트랙션에는 넓은 잔디밭 구역, 회전 풍차가 있는 언덕, 수많은 계단으로 구성된 모험의 요새, 인공 산, 그리고 패들링 풀과 물대포 게임이 있는 ‘워터 파라다이스’ 등으로 구성된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어린이 과학관(유료 입장)은 3 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세 곳 모두 참여형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들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지구’ 섹션에서는 압축 공기로 불을 던질 수 있는 농구 체험이 가능합니다. ‘달 표면 보행’ 체험 공간을 방문하시면 중력 조절 장치에 안전 줄에 몸을 고정하고 달 표면을 걸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미나리 시어터에서는 인공 번개로 곧게 서 있는 목재가 둘로 갈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환경’ 섹션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이구아나, 알비노 콘 스네이크, 공비단뱀 등 살아있는 파충류에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전시된 물고기들 중 특이한 것은 아래쪽에 지느러미가 있는 블랙 고스트 나이프 피쉬입니다. 기울어진 전시실과 암흑에 싸인 미로에서 어린이들은 오감을 착각하거나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인간’ 섹션에는 ‘알파 21’, VR 시간여행 극장, 어린이들이 실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사이언스 키친’ 등의 인기있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야외에는 요시노가와 크루즈(티켓 필요)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너구리 조각상으로 유명한 풍경으로 인도합니다. 크루즈를 타는 동안 여러 차례 계곡 하류로 떨어지며 짜릿한 스릴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스타무 랜드

영업시간: 연중 오전 9:30 ~ 오후 5:00 (수요일 휴관)

어린이 과학관

어른: 510 엔 / 어린이: 200 엔 / 미취학 아동: 무료

요시노가와 크루즈

어른: 310 엔 / 어린이: 100 엔 / 미취학 아동: 무료

레스토랑

영업시간: 오전 11:00 ~ 오후 3:00 (주문 마감)

＜日本語仮訳＞

あすたむらんど

あすたむらんどは、各種ゾーンで構成されるテーマパークです；一部は無料で、一部はわずかの入場料が必要です。無料のアトラクションには、広い芝生エリア、回る風車のある丘、多層階建ての冒険の砦、人工の山、そしてパドリングブールや水鉄砲ゲームなどのある「ウォーターパラダイス」といった冒険遊び場があります。

子ども科学館（有料入場）は3つのセクションに分かれており、いずれもインタラクティブな展示や体験が特徴です。最小限の説明に留め、展示は子どもたちが自分で発見することを促すよう作られています。

「宇宙と地球」セクションは、圧縮空気でボールをシュートしてバスケットボールをする機会があり、「月面歩行」では訪れる人は重力調整装置にストラップで固定された状態を体験し、カミナリシアターでは人工の雷がまっすぐの木材を真っ二つにします。

「生命と環境」セクションでは、子どもたちは、イグアナ、ホワイコーンスネーク、ボールパイソンなどの生きている爬虫類に餌をあげることができます。展示されている魚の中に、特徴的な下側のヒレを持つブラックゴーストナイフフィッシュがいます。傾いた部屋と暗闇の迷路は、子どもの五感を一部錯覚させたり遮断したりした状態での探検を試します。

「科学技術と人間」には、VR タイムトラベルシアター「アルファ 21」や、子どもたちが実験の進行の様子を見られる「サイエンスキッチン」など、人気の体験があります。

屋外には、吉野川クルーズ（要チケット）が訪れる人をためきの像が点在する景色を巡る船の旅にいらいます；そして何回かあるスリリングな溪流下りが楽しいです。

あすたむらんど

営業時間：年中 午前 9:30～午後 5:00（水曜日閉館）

子どもの科学館

大人：510 円 / 子ども：200 円 / 未就学児以下：無料

吉野川クルーズ

大人：310 円 / 子ども：100 円 / 未就学児以下：無料

レストラン

営業時間：午前 11:00～午後 3:00（オーダーストップ）

【タイトル】 板野町（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이타노초

이타노초는 도쿠시마현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약 13,000 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북쪽으로는 아산 산맥으로부터 그리고 남쪽으로는 농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타노초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주요 농산품으로는 쌀, 연근, 장아찌용 울외, 복숭아와 딸기 등이 있습니다. 온실에서 재배한 봄당근이 1960 년대 이후 이곳의 주요 농산물이 되었습니다. 이타노초는 현재 일본 국내 유수의 봄당근 생산지입니다.

이타노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코쿠 88 개소 순례길의 오래된 절 중 3 곳이 있습니다. 오사카구치 고반쇼 유적은 막부 시대 당시에 영지의 경계선을 오가는 여행객이나 물건을 감시하던 초소로, 관광객들 사이에 인기 있는 역사적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참여형 과학관과 요시노가와 크루즈가 있는 멀티존 테마파크 아스타무랜드는 작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日本語仮訳＞

板野町

板野町は徳島県北東部に位置する人口約 13,000 人の小さな町です。北の阿讃山脈から南の平坦な農地までに広がります。板野町の主要な産業は農業で、主な農産物は、米、蓮根、漬物用瓜のシロウリ、そして桃やイチゴなどの果物です。温室栽培の春にんじんが 1960 年代以降、主要な農作物となっています；板野町は現在日本国内有数の生産地です。

板野町には世界的に有名な四国遍路を構成する 88 の古刹の内 3 つがあります。大坂口御番所跡は幕府時代の領地境界を渡る旅人や荷物を監視した番所で、観光客の間で人気のある歴史的建造物の一つです。インタラクティブな科学館と川船クルーズがあるマルチゾーンテーマパーク、あすたむらんどは、小さな子ども連れのご家族に楽しい場所です。

【タイトル】 あせび公園

【想定媒体】 Web

<韓国語>

아세비 공원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각 마을 또는 현의 상징으로 꽃을 선정합니다. 이타노초 마을의 나무는 아세비(*Pieris japonica*, 또는 Temple Bells)입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종 모양의 흰색 또는 분홍색 꽃이 고개를 떨군 모양의 상록마취목입니다. 아세비(馬酔木)는 한자 뜻대로 ‘말을 취하게 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해발고도 약 400m에 위치한 아세비 공원은 아산 산맥의 류오산 능선에 위치합니다. 그곳에는 절경이 바라보이는 2개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약 도보 10분 거리의 공원 북쪽 끝에 있는 오사카고개 전망대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세토 내해와 수많은 섬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곧게 선 비석에 새겨진 하이쿠에는 ‘꽃 핀 아세비, 고을이 둘이 되어, 서 있는 고개(花馬酔木 あがたをへだて いる峠)’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오사카 고개가 현재의 도쿠시마현과 가가와현 사이에 걸쳐져 있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시코쿠를 종단하는 1,600km의 장거리 자연 산책로 ‘시코쿠노 미치’와 그 중 일부인 짧은 산책 코스 ‘야마자토노 미치’가 이 지점을 통과합니다.

주차장 남쪽으로는 아담한 휴게소가 있고, 그곳에서 아세비 공원 전망대로 연결되는 오솔길이 이어집니다. 길을 따라가면 약 2,000그루의 아세비 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타노초의 오사카 지역과 동쪽을 향해 이어진 산을 바라보는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산책로는 편도로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日本語仮訳>

あせび公園

日本では、地方自治体が町や県のシンボルとしてよく花を選びます。板野町の町木は、馬酔木（ピエリス・ジャポニカ、英語で「Temple Bells」）です；春のはじめ頃に鐘の形をした白またはピンクの花の下垂する房がつく常緑低木です。馬酔木は文字通り「馬を酔わせる低木」を意味します。

標高約 400メートルの位置にあるあせび公園は、阿讃山脈の龍王山の尾根沿いに広がっています。そこには絶景を望める 2つの展望台があります。駐車場から徒歩約 10分の場所にある、公園北端の大坂峠展望台は、瀬戸内海と数多くの島々を西に望みます。真つすぐ立った石碑に刻まれた俳句は「花馬酔木 あがたをへだて いる峠」と書いてあり、大坂峠が現在の徳島県と香川県にまたがることをほのめかしています。四国を縦断する 1,600 キロメートルの長距離自然歩道「四国のみち」と、その一部である地元の短い散策コース「山里のみち」の両方がこの地点を通過します。

駐車場から南には、小さな休憩所があり、そこからあせび公園の展望台に続く道が延びています。途中、道は約 2,000 本の馬酔木の低木が育つエリアを通過します。見どころは、板野町の大坂と、東に向かって連なる山々を望む景色です。この散策路は片道約 10 分ほどです。

【タイトル】 岡の宮の大クス

【想定媒体】 Web

<韓国語>
오카노미야 신사의 녹나무

이 녹나무는 곤센지(金泉寺) 절과 다이니치지(大日寺) 절(시코쿠 순례길 제 3 번 및 순례지 제 4 번 순례지) 사이에 있는 신사 경내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나무는 1973 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카노미야 신사는 900 년에 건립되었으며, 해충을 막고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준다는 무명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무의 노출된 뿌리둘레는 25m 에 달합니다. 나무 그 자체의 높이는 약 35m, 가지는 동서 방향으로 27m, 남북 방향으로 37m 나 됩니다. 나무의 수명은 약 700 년으로 추정되며 일본이 통일되기 훨씬 전인 가마쿠라 시대(1185~1333 년) 후기 또는 무로마치 시대(1336~1573 년)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역 주민은 수백 년에 걸쳐 나무를 섬기고 신성한 나무(고신보쿠)로 숭배했습니다. ‘시메나와’라고 불리는 줄기에 감겨있는 밧줄은 신성한 영역과 세속의 경계선을 나타냅니다. 2 세기 반 전, 1758 년, 지역 번의 수군 관리의 눈에 떨 정도로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번주는 세토 내해 바다를 건너기 위한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나무가 배의 목재가 될 것을 두려워한 지역 주민들은 번주에게 벌채를 막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무 뒤에 있는 비석은 그 바람이 이루어졌음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日本語仮訳>
岡の宮神社の大クス

この大クスは金泉寺と大日寺（四国遍路の第 3 番札所と第 4 番札所）の間にある神社の境内にそびえています。この木は、1973 年に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ました。岡の宮神社は 900 年に建立されました；そして害虫を寄せ付けないようにして豊作をもたらす無名の神を祀っています。

木の露出した根の周りが 25 メートルもあります。木自体は高さ 35 メートル、枝張りは東西方向に 27 メートル、南北方向に 37 メートルあります。樹齢は推定約 700 年で、日本が統一されるもっと前の鎌倉時代（1185~1333 年）後期または室町時代（1336~1573 年）初期に遡ります。

地域住民は数百年にわたりこの木を崇め奉り、神聖な木（御神木）として拜んでいます。幹に巻きつけられたロープはしめ縄として知られ、神聖な領域と俗世の境界線を示しています。2 世紀半前の 1768 年には、この木は地元藩の海軍省事務官（船奉行）の目を引くほどに大きく成長していました。藩主は、瀬戸内海を渡るための船を必要としていました。親しまれてきた木が船の木材にされることを恐れた氏子たちは、

藩主に伐採しないよう請願しました。木の後ろにある石碑は、その請願が成功したことを記念しています。

【タイトル】 愛染院

【想定媒体】 Web

＜韓国語＞

아이젠인 절

신의 쥔신

아이젠인(愛染院) 절은 경내에 사고야자나무와 풀이 무성한 소박한 절로 시코쿠 순례길 제 3 번 순례지 절인 곤센지(金泉寺) 절의 오후노인(奥の院, 안쪽 성소)입니다. 공식적으로 88 곳의 순례지 중 하나는 아니지만 아이젠인 절은 곤센지와 제 4 번 순례지인 다이니치지(大日寺) 절 사이의 순례 루트 상에 있습니다. 산기슭의 대나무숲을 빠져나와 아이젠인 절로 연결되는 좁은 흙길은 순례길 중 자연 그대로인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는 최초의 구간입니다.

앞쪽에서 절로 향해 가다 보면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은 정면 양쪽에 걸려 있는 커다란 쥔신입니다. 이 쥔신은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박력 넘치는 얼굴을 한 두 개의 수호신(인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인왕상은 문 안에 서서 절을 지킵니다 (쥔신은 높이가 약 2m 나 됩니다. 실제 수호신의 키는 10m 에 달한다고 함). 문 안의 천장에는 천계의 여신인 천녀와 길복을 기리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의 모티브가 새겨져 있습니다.

본당에는 2 구의 명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1 구는 전신 붉은색에 눈이 셋, 여섯 팔을 가진 애염명왕으로, 이 절의 이름은 이 명왕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다른 분노의 표정을 한 부동명왕은 ‘오즈시’라고 불리는 나무 상자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한편, 애염명왕은 제단 왼쪽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벽에는 애염명왕이 속한 금강계와 부동명왕이 속한 태장계의 만다라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승병의 무덤

본당 왼쪽 건물은 16 세기 후반, 지역 성주이자 출가한 승려였던 아카자와 시나노노카미를 기리는 사당입니다. 아카자와는 1582 년에 전사하였지만,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전사한 원인이 쥔신을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문의 문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의 입구 양쪽에도 거대한 쥔신이 걸려 있습니다. 안쪽에도 보통 크기의 쥔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쥔신을 봉헌하면 발, 다리, 허리가 건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쥔신을 신고 다녔을 때, 순례자들은 순례길을 걷는 동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당 바로 옆 한쪽 구석에 아카자와의 무덤이 있고, 무덤을 둘러싸듯 ‘반자이성(板西城)의 병사’로 불리던 아카자와의 가신들을 기리는 오륜탑이 있습니다. 배치 형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가신들의 실제 무덤은 1970 년대에 약 1km 떨어진 무덤이 있던 장소에서 이곳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시코쿠 순례길 전체 88 구 본존불(각 절에 모셔진 불상)의 석상이 나란히 서 있는 오솔길이 절 뒤에서 시작해 고지대의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이 ‘미니 순례길’은 실내 또는 야외에 있으며, 시코쿠 순례길의 절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경내의 가장 오른쪽 끝에는 진언종의 창시자 구카이(법명은 고보다이시(弘法大師)로 알려져 있음)를 기리는 큰 법당인 대사당이 있습니다. 경내 반대쪽 안쪽, 산 기슭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은 이 절의 종루입니다. 종은 2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달려 있고 다른 하나는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 많은 일본 절의 종들은 몰수되어 녹여져 전쟁 물자가 되었습니다. 전쟁 직후 바로 제작된 바닥에 놓여 있던 종은 질이 좋지 않아 바로 금이 갔습니다.

아이젠인 절은 초기에는 아미다지(阿彌陀寺) 절이라고 했지만 시코쿠 순례길 제 21 번 순례지의 절인 다이류지(太龍寺) 절 경내에 위치한 아이젠인 절과 통합하면서 1921 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27-016

<日本語仮訳>

愛染院

神のわらじ

愛染院は、境内にサゴヤシと草が茂る簡素な寺で、四国遍路の第 3 番札所の寺である金泉寺の本殿（奥の院）です。公式の八十八ヶ所の札所の一つではありませんが、愛染院は金泉寺と第 4 番札所である大日寺との間の巡礼ルート上にあります。山の麓の竹林を抜けて愛染院へと続く狭い土道は遍路道で自然のまま未舗装の状態に残っている最初の区間です。

前方から寺に近づく人たちにとって、最も目を引くのが、正門両側に付けられた対の大きなわらじです。これらは筋肉隆々とした迫力ある顔の二体の守護の王（仁王）に捧げられたものです；その像が門内に立ち、寺を守っています。（わらじは高さ約 2 メートルあります；実際の守護王は身長が 10 メートルあると言われているためです。）門内の天井には、天界の女神 天女と縁起を担いだ松・竹・梅のモチーフが装飾されています。

本堂には二体の明王が祀られています；一体は全身赤色で三目六臂の愛染明王です；彼の名前が寺に付されています。もう一体の忿怒顔の不動明王は木製の箱（御厨子）の中に隠されており、一方で愛染明王は祭壇の左側に姿をみることができます。壁には、愛染明王が属する金剛界と、不動明王が属する胎蔵界の曼荼羅が飾られています。

僧兵の墓

本堂の左にある建物は、16 世紀後半の地元城主で出家した僧侶でもある赤沢信濃守を祀る廟です。赤沢は 1582 年に討死しましたが、言い伝えではその原因はわらじをきちんと結ばなかったためだと言われています！正面の門同様、この建物の入り口の両側にも大きなわらじがあります。内部にも通常のサイズのわらじが積まれています；ここにわらじを奉納すると、足、脚、腰の健康を高めると信じられています。わらじが自分たちにとって普通の履物だった巡礼者は、徒歩でお遍路の道を歩ききるために必要な力を得ようと、かつてはここにきて拝んでいました。

廟のすぐ後ろの一角には赤沢の墓石があり、それを囲むように、「板西城の兵」と呼ばれる赤沢の家臣の五つの輪でできた塔（五輪塔）があります。並びは昔からそのままですが、家臣の実際の墓は 1970 年代に約 1 キロメートル離れた元の場所からここに移されました。

四国遍路の全 88 体の本尊（各寺で祀られる仏像）の石像が間隔をおいて並べられている小さな道が、寺の後ろから高台の頂上まで伸びています。これらの「ミニ遍路道」が、屋内や屋外に存在し、四国遍路の寺院で一般的にみられます。

境内の一番右端には、大師堂があります；真言宗の開祖である空海（法名を弘法大師として知られる）が祀られる大堂です。境内の反対奥、山の麓に面して建つのがお寺の鐘楼です。鐘は 2 つあります；1 つは吊り下げられ、もう 1 つは地面に置かれています。第二次世界大戦中、多くの日本の寺の鐘は没収され、軍事活動のために溶かされました。戦後すぐに作られた地面にある鐘は質が悪く、すぐに割れてしまいました。

愛染院は当初、阿弥陀寺と呼ばれていましたが、四国遍路の第 21 番札所の寺である太龍寺境内にある愛染院寺と合併し、1921 年に現在の名称に変更されました。

【タイトル】 大坂口御番所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
오사카구치 고반쇼 유적

도쿠가와 막부가 통합한 에도 시대(1603~1867 년), 일본은 이동에 많은 제한을 둔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번소(番所)라고 알려진 초소가 번과 번 사이 경계에 설치되어, 사람들의 이동과 물건의 유통을 감시했습니다. 도쿠시마번에만 49 개의 번소가 있었습니다. 오사카구치 고반쇼는 이웃인 다카마쓰번(현재의 가가와현)으로 통하는 산길 입구(口、일본어로 ‘구치’)에 있던 ‘오사카’라는 마을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이동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지역의 신사나 절에서 통행증을 입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통행증은 그 인물의 품행을 보증하고 비기독교인(일본에서 1871 년까지 금지된 종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여행의 목적이 종교적인지 상업적인지를 기재했습니다.

한편 번소 경비병들은 반항적인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도망자, 토지와 세금 부담의 속박에 피폐해져 도시를 향해 훨씬 더 좋은 생활을 찾아가는 농민이 그들이었습니다. 번소 경비병은 여행자가 기독교인으로 의심될 경우, 여행자들에게 예수, 마리아, 십자가의 그림을 밝게 하여 기독교 상징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번소 제도는 메이지 시대(1868~1912) 4 번째가 되던 1872 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습니다.

현지의 무라세 가문과 구지메 가문의 두 가문이 도쿠시마번의 통치자였던 하치스가 가문을 대신하여 이 번소를 관리했습니다. 처마끝 기와의 둥근 끝부분에는 하치스가 씨의 가문인 만자문(왼쪽 방향의 스와스티카)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은 지면에 무릎을 꿇고 건물 주변을 둘러싼 목재 돌출부에 서 있는 번소 경비병에게 통행증을 제시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번소는 에도 시대에 들어선 후 40 년 정도가 지난 1644 년 처음 건설된 당시에는 약간 더 고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건물이 1773 년에 전소된 후, 지금의 자리에 재건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부분은 1790 년에 건조된 정면 벽 옆에 남아있는 돌계단 부분입니다. 번소 자체는 약 200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에는 금속제 새시가 설치되어 있고, 초가 지붕은 현재 물결무늬의 패널이 덮여져 있습니다.

내부 앞부분의 반은 다다미방 3 개가 있고 뒷부분의 반은 전통 흙바닥으로 된 주방과 마룻바닥을 깔 높은 공간이 있습니다. 번소를 통과한 물품을 기재한 일부 원본 자료, 에도 시대 초기의 갑옷과 투구, 번소 경비병이 통행할 권리가 없는 이들을 구속, 체포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의 복제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사카구치 고반쇼 유적은 짝수달 첫번째 일요일 오전 10:00 부터 오후 4:00 까지 개관하며 또는 요청에 따라 공개됩니다.

<日本語仮訳>

大坂口御番所跡

徳川幕府が統治した江戸時代（1603～1867 年）、日本は移動に多くの制限が課せられる厳格な社会でした。番所として知られる警備所が藩の間の境に設置され、人の移動と物の流通を監視していました。徳島藩だけでも 49 の番所がありました。大坂口御番所は、隣の高松藩（現在の香川県）へと通じる山道の入り口（口）にその当時あった大坂村から、その名が付けました。

当時、移動を希望する人たちは、地元の神社や寺から通行証（通行手形）を入手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通行証はその人物の品行を保証し、キリスト教徒ではないこと（1871 年まで日本において禁止されていた宗教）を証明し、そして旅の目的が宗教的か商業的かを記載していました。

番所役人は一方で、反抗的な者を監視していました；逃亡犯や、土地と税負担の束縛に疲れ、都市のよりよい生活を求める農民のことです。番所役人は、旅人がキリスト教徒であると疑った場合、彼らはそうした旅人たちにイエス、マリア、または十字架の絵を踏ませ、キリスト教の象徴への無関心を証明させました。番所の制度は、明治時代（1868～1912 年）の 4 年目に当たる 1872 年に遂に廃止されました。

地元の村瀬家と久次米家の両家が、徳島藩の統治者である蜂須賀氏に代わって、この番所を預かりました。軒先の瓦の丸い端部には、蜂須賀氏の家紋である万字紋（左向きのスワスティカ）が示されています。通常、旅人は地面に跪き、建物の周囲を囲む木製の張り出しに立っている番所役人に通行証を提示して検査を受けました。

この番所は、江戸時代に入って 40 年ほど経った 1644 年に初めて建設された当時は、もう少し高台に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元の建物が 1773 年に焼失した後に、現在の場所に再建されました。現在の構造物で最も古い部分は、正面壁のそばに残る短い石段部分です；1790 年に建造されました。番所自体は、約 200 年の歴史がありますが、最大限忠実に保存され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例えば、窓には金属製のサッシが取り付けられています；また、茅葺き屋根には現在、波板プラスチックがかけられています。

内部には前面半分に 3 つの畳の間が並び、後面半分には古い土間式の台所と床板張りの高床の間があります。番所を通過した品物を記載した一部の原本資料、江戸時代初期の鎧甲冑や、番所役人が通行する権利のない者を拘束・捕縛するために使用したとされる複製武具が展示されています。

大坂口御番所跡は偶数月の第 1 日曜日の午前 10:00～午後 4:00 に開館、または要望に応じて公開されています。

地域番号	028	協議会名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保存活用協議会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タイトル）	韓国語 文字数	媒体
028-001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漁師と沖ノ島	312	アプリ QRコード
028-002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漁師と宗像三女神信仰	281	アプリ QRコード
028-003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神宿る島」沖ノ島と「神守る島」大島	279	アプリ QRコード
028-004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神宿る島」沖ノ島	1883	アプリ QRコード
028-005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宗像三女神の降臨	992	アプリ QRコード
028-006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自然崇拝から始まった中津宮	944	アプリ QRコード
028-007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沖ノ島祭祀と御嶽山祭祀	865	アプリ QRコード
028-008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神宿る島への祈りの場	460	アプリ QRコード
028-009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神守る島	766	アプリ QRコード
028-010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沖ノ島の禁忌	684	アプリ QRコード
028-011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原始・古代＞	593	アプリ QRコード
028-012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中世＞	756	アプリ QRコード
028-013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近世＞ 島守の島	840	アプリ QRコード
028-014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近世＞ 捕鯨の島・流人の島	405	アプリ QRコード
028-015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近・現代＞ 漁とともに生きる島	592	アプリ QRコード

028-016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近・現代＞戦争の歴史を伝える島	436	アプリ QRコード
028-017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年間予定表	753	アプリ QRコード
028-018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言い伝え	414	アプリ QRコード
028-019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食文化	993	アプリ QRコード
028-020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七夕伝説	693	アプリ QRコード
028-021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感光の島	321	アプリ QRコード
028-022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Taboo words	278	アプリ QRコード
028-023	大島交流館 （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Welcoming leaflet	488	アプリ QRコード/ パンフレット

028-001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保存活用協議会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漁師と沖ノ島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어부들과 오키노시마

신성함에 대한 경외감

오키노시마에 발을 디디면 본토나 다른 섬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신성한 장소

이 섬은 하나의 신으로 숭배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신관들은 매일 아침 바다에 몸을 담그는 '미소기'라는 의식을 통해 몸을 정화합니다.

뿌리 깊은 믿음

금기로 보호되고 있는 이 섬에서는 어떠한 것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키노시마 근해에서 어망에 걸린 돌조차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섬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오시마 사람들은 스스로를 오키노시마의 수호자로 여기며 고대 의식과 행동 규범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해에서 밤을 보내는 낚시인들은 한겨울에도 매일 아침 '미소기'를 행하며, 돌아갈 때 섬에서 본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킵니다.

028-001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漁師と沖ノ島

神々しさを感じる

沖ノ島に上陸すると、本土や他の島々が見えないため、崇敬の念を強く感じる方もいます。

聖地

この島は崇拝すべき対象として神格化され崇められています。神職たちは毎朝、禊という儀式で、海で沐浴して身を清めます。

深い信仰

禁忌がいかなる物も持ち出すことを禁じ、島を守っています。沖ノ島付近で漁師の網にかかった石でさえも元の位置に戻されます。

島に対する人々の思い

大島の人々は、古の祭祀や行動規範を守りながら、沖ノ島の守護者としての自覚を持っています。近くの海で漁をするために一晩滞在する者たちは、真冬でも毎朝海で禊を行い、帰途についた後は島で見たことを決して口外しないという誓いを守ります。

028-002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保存活用協議会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漁師と宗像三女神信仰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어부들과 무나카타 신앙

어부들의 전통 관습

새 선박이 건조되면, 나카쓰미야 앞바다로 가져가 반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도는 관습이 있습니다.

헌신

자부심을 갖고 무나카타 신앙을 신봉하는 오시마 사람들은 밧줄을 꼬아 신사 경내에 걸려 있는 신성한 '시메나와'를 만드는 등의 일을 하며 신사 유지 관리에 참여합니다.

축복에 대한 감사

매달 1일과 15일, 어부들은 나카쓰미야에 어획물 일부를 바치며 안전과 풍어를 기원합니다.

오키노시마와 가장 가까운 곳

오키노시마는 신성한 섬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시마는 오키노시마의 수호섬이기에 두 섬의 역할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시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오키노시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028-002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漁師と宗像三女神信仰

漁師の伝統的慣習

新しい船が造船されると、中津宮の沖に船を出し、反時計回りに3周するという慣習があります。

奉納

大島の人々は宗像信仰に誇りを持っており、神社の境内に掛けられる神聖なしめ縄作りを含む神社の維持管理に携わっています。

祝福への感謝

毎月1日と15日には、漁師たちが中津宮に獲れた物の一部をお供えし、安全と幸運を祈ります。

沖ノ島に最も近い場所

沖ノ島は神聖な場所で、一般の人々の立ち入りは禁止されています。大島は沖ノ島の守護島であり、2つの島の役割は深く結びついています。大島の人々にとって、沖ノ島は今も変わらず常に心の中に存在しています。

028-003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保存活用協議会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神宿る島」沖ノ島と「神守る島」大島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18 세기 오시마 지도

오시마 지도는 1797년 후쿠오카번 영주가 시행했던 토지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수 세기가 지났음에도 섬의 모습은 당시 지도에 그려졌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섬 중앙의 나카쓰미야, 미타케산(224m) 정상의 미타케 신사, 그리고 이 두 곳을 잇는 산길 등의 주요 장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안 마을도 거의 같은 위치에 그려져 있으며, 지도 상단에는 오시마 북쪽의 오키노시마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카쓰미야 경내 말사 수와 위치, 오키쓰미야 요하이쇼 예배당의 위치 등은 오늘날과 다릅니다. 현재 오시마 교류관(오시마 문화센터)은 지도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원형 만 옆에 위치합니다.

028-003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神宿る島」沖ノ島と「神守る島」大島

大島のこの地図は、1797年に福岡藩主の命により行われた土地調査の一環として描かれました。数世紀が経過したにもかかわらず、島は地図に描かれた姿とほぼ変わっていません。

現在も確認できる主な場所としては、島の中央にある中津宮、御嶽山（224メートル）の頂上にある御嶽神社、そしてその2つを結ぶ山道などが挙げられます。沿岸部にある集落も、ほぼ同じ位置に描かれています。地図の上部、大島の北側には沖ノ島が確認できます。

現在との相違点としては、中津宮境内にある末社の数と配置、そして沖津宮遙拝所の位置が挙げられます。地図を正面にみると、現在の大島交流館（大島文化センター）は右側、円形の入り江のすぐそばに位置します。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神宿る島」沖ノ島

【想定媒体】 アプリ QR 코드

<韓国語>**신성한 섬 오키노시마**

오키노시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나카타 신앙의 일부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면적이 1km²도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섬은 오시마 해안에서 약 48km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어 항해사들에게는 이정표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고고학 조사를 통해 4세기부터 9세기까지 이 섬에서 거행된 제례 의식의 발전을 보여주는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일본 초기의 제례 전통 및 외국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래

8세기 초 편찬된 「니혼쇼키(일본서기)」에 따르면,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자신의 신성한 자녀들인 무나카타의 세 여신에게 겐카이해(현해탄)에 걸쳐 일본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해로를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 보답으로 역대 천황들은 여신들을 추앙하고 숭배했습니다. 세 여신은 각각 무나카타 타이샤의 3대 신사인 오키노시마의 오키쓰미야, 오시마의 나카쓰미야, 그리고 본토의 헤쓰미야에 모셔졌습니다.

무나카타 일족은 규슈 북서부를 통치하며 오키노시마의 제례를 관장했습니다. 이들은 8세기 초 일본의 가장 오래된 기록에도 등장하지만, 실제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7세기 무렵 이 일족은 지역 행정관이자 고위 신관이라는 세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16세기 후반 가문의 계보가 단절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제례 관습의 변천

오키노시마의 제례는 4세기에서 9세기 사이 몇 차례 눈에 띄는 변화의 단계를 거쳤으며, 이는 주요 유적지에 남겨진 봉납물의 배치 흔적에서 드러납니다. 거울, 구슬, 검, 금동 장식품뿐만 아니라 멀리 중동에서 건너온 유리 제품과 같은 유물들은 이 섬이 대륙과의 교역 및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기에 따라 봉납품의 출처도 변화했는데, 이는 무나카타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변화 및 일본과 아시아 대륙 간의 관계, 그리고 해상 교역망의 발달 과정을 반영합니다.

제례는 섬 중앙 부근의 대형 암반 주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가장 초기 단계에는 거울이나 덩이쇠(철제 주괴) 같은 봉납물을 바위 위에 직접 올린 뒤 돌로 덮거나 주위를 둘러싸는 방식으로 제례를 올렸습니다. 이후 수 세기에 걸쳐 봉납물은 바위 그늘이나 돌출부 아래, 또는 부분적으로 그늘진 공간에 놓였습니다. 9세기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오키쓰미야 근처에 있는 탁 트인 공터에서 봉납물을 바쳤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제례 공간으로 넘어가는 변화는, 자연 숭배에서 시작한 일본 초기의 종교 관습이 훗날 ‘신토’라 불리는 체계적 관습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봉납물의 형태 또한 변화했습니다. 초기에는 무기와 장신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8세기에는 베 짜는 도구와 악기를 본뜬 축소 모형이

등장했고, 9 세기에 이르러서는 사람, 말, 배 모양의 조형물을 봉헌했습니다.

오키노시마에서는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은 8 만 점이 넘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섬의 출입을 금지한 오랜 금기 덕분입니다. 이 중 많은 유물들이 일본의 가장 오래된 문헌 기록보다도 오래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무나카타 신앙이 지역 및 국제 교류에서 핵심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며, 당시 지배층 사이에서 무나카타 가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출토 유물들은 전체가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는 본토 헤쓰미야 경내의 심포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키노시마와 오시마

오키노시마, 그리고 오시마에서 가장 높은 미타케산(해발 224m) 정상에서는 서로 유사한 형태의 제의 유물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유물의 유사성은 미타케산의 제례가 오키노시마 제례의 후기 단계와 같은 시기에 거행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제례 관습이 오키노시마에서 오시마로 점차 전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오키노시마에 봉납물을 두는 관습은 9 세기에 중단되었으나, 그곳에 모신 신에 대한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16 세기 무나카타 일족의 계보가 단절된 후 제례 활동의 중심은 점차 오키노시마에서 오시마로 옮겨갔습니다. 오시마는 신성한 섬 오키노시마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보호 완충지 역할을 하며 ‘수호의 섬’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시마 북쪽 해안에 오키노시마 방향으로 세워진 오키쓰미야 요하이쇼는 오늘날에도 멀리서나마 섬의 신을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적은 2017 년 ‘신성한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등재 범위에는 신이 사는 섬 오키노시마를 비롯해 무나카타 타이샤의 관련 유적인 오키쓰미야, 오키쓰미야 요하이쇼, 나카쓰미야, 헤쓰미야, 그리고 신바루-누야마 고분군이 포함됩니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대외 교류 속에서 발전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신성한 섬을 숭배하는 문화적 전통의 독보적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28-004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神宿る島」沖ノ島

沖ノ島は長い間宗像信仰の一部として崇められてきました。この小さな島は、面積 1 平方キロメートルにも満たず、大島の沖合約 48 キロメートルに位置しています。日本と朝鮮半島の間にあり、航海の目印として船乗りたちに利用され、信仰の対象となってきました。考古学調査によって、4 世紀から 9 世紀にかけて島で発展した祭祀の慣行を証明するたくさんの遺物が発見されており、日本の初期の祭祀の伝統や外国との関係に関する貴重な手がかりとなっています。

信仰

日本最古の史書の 1 つである『日本書紀』（8 世紀初期編纂）によれば、太陽神 天照大御神は、自身から生まれた神聖な存在である三女神（宗像三女神）に、玄界灘を挟んで相對する日本とアジア大陸間の海路を守るよう命じました。その見返りとして、天皇らは彼らを崇め、敬いました。神々はそれぞれ、3

つの宗像大社の 1 宮に祀られました。沖ノ島の沖津宮、大島の中津宮、そして本土の辺津宮です。

宗像氏は九州北西部を統治し、沖ノ島の祭祀を司りました。その名は 8 世紀初頭から日本最古の文献にも見られますが、彼らの台頭はこれらの文献よりもっと古い時代にさかのぼると考えられます。7 世紀まで、宗像氏は地方行政官と最高祭司の両方の世襲職にありました。彼らは 16 世紀後半に家系が途絶えるまで、これらの職務を維持しました。

祭祀慣行の変遷

沖ノ島における祭祀は、主要な場所に奉納供物が置かれ、4 世紀から 9 世紀にかけてははっきりと段階的に発展しました。鏡、ビーズ、刀剣、金銅の装飾品、さらには中東のようにはるか遠くから輸入されたガラス製品などの遺物は、この島の大陸との貿易や外交との関わりを示しています。奉納供物の起源は数世紀にわたって異なり、宗像地域の政治的・経済的・文化的状況の変化、日本とアジア大陸との関係、海上網の発展を映し出しています。

島の中心付近にある大きな岩の周囲で、祭祀が行われました。最も初期の段階では、鏡や鉄ののべ棒といった供物が、儀式的に巨岩の頂上に直接置かれたり、石で覆われたり囲まれたりしていました。その後数世紀にわたり、供物は岩陰や張り出した岩の下、あるいは部分的に日陰になった場所に安置されました。9 世紀には、現在の沖津宮付近の開けた場所に奉納供物が捧げ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自然の空間から人工の祭祀の場へのこの移り変わりは、日本の初期の宗教的慣行が、自然崇拝から「神道」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組織化された慣習へと進化し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供物の形態も変化し、武器や装飾品から、8 世紀には織具や楽器を表現した雛形へ、そして 9 世紀には人、馬、船の像へと変わっていきました。

沖ノ島では 8 万点以上の遺物が発掘されました。その驚くべき保存状態は、ごく一部の例外を除き、島への立ち入りを禁じてきた長年の禁忌のおかげです。これらの遺物の多くは、日本最古の歴史文献よりも古い時代にさかのぼります。これらの発見は、宗像信仰が地域および国際交流において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たこと、また宗像氏が日本の初期の統治者たちから高い威信を享受し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遺物はすべて保存されており、一部は本土の辺津宮の敷地内にある博物館 神宝館に展示されています。

沖ノ島と大島

同様の祭祀用具は、沖ノ島と、大島の最高峰である御嶽山（224 メートル）の山頂でも発見されています。遺物の類似性から、御嶽山での祭祀は沖ノ島の後期祭祀の段階と同時期に行われており、儀式慣行は時を経て沖ノ島から大島へと徐々に移行された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

沖ノ島への供物奉納の慣行は 9 世紀に終焉を迎えましたが、祀られている神様への崇拝は続きました。16 世紀に宗像の血族が途絶えた後、祭祀活動の中心は沖ノ島から大島へと徐々に移っていきました。大島は守護の島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り、聖なる沖ノ島に最も近い地点に位置する、守護の仲介地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ました。大島北岸に位置し沖ノ島を向くお堂、沖津宮遙拝所は、今も島の神を遠くに拝むことができる場所となっています。

ユネスコ世界遺産認定

2017 年、沖ノ島と関連する地は「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としてユネスコ世界遺産リストに登録されました。これには、「神宿る島」沖ノ島、宗像大社の関連遺跡群である沖津宮、沖津宮遥拝所、中津宮、辺津宮、そして新原・奴山古墳群が含まれます。東アジアにおける海外との活発な交流が進む中で発展を遂げ、現在まで受け継がれてきた、神聖な島を崇拝する文化的伝統の類まれな例として、評価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宗像三女神の降臨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무나카타의 세 여신**

무나카타 신앙 체계는 고대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신앙의 중심에는 일본 열도와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바닷길을 지키는 세 여신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뱃사람과 어부들은 이 세 여신에게 안전과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나카타 신에 대한 숭배는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어 히로시마의 이쓰쿠시마 신사, 가나가와의 에노시마 신사 등 바닷가 여러 곳에 신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 여신의 전설

8세기 초 편찬된 「고지키(고사기)」에 따르면, 무나카타 여신들은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점복 의식을 행하던 중 태어났습니다. 이 의식에서 아마테라스는 남동생인 폭풍의 신 스사노오노미코토의 검을 세 조각으로 부순 후에, 검의 조각들을 신성한 우물물로 씻은 후 씹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마테라스가 숨을 내쉬자 무나카타의 세 여신인 다고리히메노카미, 다기쓰히메노카미, 이치키시마히메노카미가 탄생했습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세 딸들에게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겐카이나다(현해탄) 바닷길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이 세 여신은 무나카타 타이샤의 신사 세 곳에 각각 모셔져 있습니다. 다고리히메노카미는 오키노시마의 오키쓰미야에, 다기쓰히메노카미는 오시마의 나카쓰미야에, 이치키시마히메노카미는 본토의 헤쓰미야에 모셔져 있습니다.

변함없는 신앙과 의례

이 여신들을 기리는 의식은 예로부터 주로 오키노시마에서 대륙과의 항해와 교류에 관여하던 지배 세력인 무나카타 일족이 관장해 왔습니다. 국가 제례를 통해 이들은 무나카타 타이샤의 세 신사에 모셔진 세 여신을 바닷길과 뱃사람들을 수호하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16세기 후반 무나카타 일족이 쇠퇴한 이후에도 현지 신관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러한 전통을 계속 이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무나카타 타이샤의 신관들이 열흘마다 교대로 오키노시마에 머물며 산 중턱에 위치한 신사 경내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의례는 세 신사 모두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가을 대제(大祭)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연중 행사입니다. 대제의 시작을 알리는 미아레 축제 기간에는 오키쓰미야와 나카쓰미야의 신위를 모신 가마(미코시)가 바다를 건너 헤쓰미야로 옮겨지는데, 이때 세 자매 여신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무나카타 지역 7개 항구에서 출항한 100척이 넘는 어선이 장대한 선단을 이루어 이 행렬을 호위합니다. 대제는 다카미야 사이조 제장에서 열리는 간나비 축제로 막을 내리며, 의식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여신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 宗像三女神の降臨

宗像信仰は、古代における海洋渡航の安全祈願を起源とする信仰体系です。日本列島とアジア大陸を結ぶ海路を守る三女神を中心としています。古来より、船乗りや漁師たちは、安全と豊かな漁獲を祈願してその女神たちに祈りを捧げてきました。時を経て、宗像の神々への信仰は日本全国に広がり、広島の大島神社や神奈川の江島神社など、他の沿岸の神社も建立されるに至りました。

三女神の伝説

8世紀初期に編纂された『古事記』によれば、宗像の神々は神託の儀において太陽神 天照大御神から生まれました。この儀で、天照大御神は、嵐の神である弟 須佐之男の剣を取り、3つに折りました。天照大御神は、その剣の破片を神聖なる泉の水ですすぎ、噛み砕きました。そして息と共に宗像の三神を吐き出しました。田心姫、湍津姫、そして市杵島姫です。天照大御神は新たな子どもたちに、日本と朝鮮半島の間にある玄界灘の重要な海路を見守るよう命じました。

三神はそれぞれ、3つの宗像大社の1宮に祀られています：沖ノ島の沖津宮には田心姫、大島の中津宮には湍津姫、そして本土の辺津宮には市杵島姫です。

不朽の信仰と祭祀

これらの神々を祀る祭祀は、古の時代から、主に沖ノ島で、大陸との航海や交流に携わる血族である統治者 宗像氏によって執り行われてきました。国の祭祀におけるその役割を通して、彼らは宗像大社の三宮に祀られる三女神を、海路と船乗りを守る神として崇めました。16世紀後半に氏族が潰れた後も、地元の宮司やその他地域住民たちがこれらの伝統を守り続けました。現在では、宗像大社の神職らが10日ごとに交代で沖ノ島に滞在し、山腹にある神社の境内で祭祀を執り行っています。

3つの神社すべてで、今日まで儀式の習慣が守り続けられています。10月1日から3日まで催される秋の大祭は、今も最も重要な年中行事です。祭りの幕開けとなるみあれ祭では、沖津宮と中津宮に鎮座する神輿が海を渡って辺津宮に運ばれ、三姉妹神が再会します。宗像の7つの港から100隻を超える漁船が雄大な船団の進行に随行します。祭りは高宮祭場で神奈備祭をもって締めくくられ、祭祀を無事終了したことに對して神々に感謝が捧げられます。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自然崇拜から始まった中津宮

【想定媒体】 アプリ QR 코드

<韓国語>**나카쓰미야의 변천사**

오시마에 있는 나카쓰미야는 무나카타 타이샤의 세 신사 중 하나로, 무나카타의 세 여신 중 다기즈히메노카미를 모시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산 정상에 제례 유적과 산기슭에 자리한 본전 건물이 있습니다. 산정 유적지에서는 7세기 후반부터 9세기 사이의 봉납품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산 정상에서 신앙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나카쓰미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신성한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 관련 유적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산악 신앙을 기원으로 하는 무나카타 신사

미타케산은 오시마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224m)입니다. 산정 제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7세기 후반에서 9세기 사이의 유물로 추정됩니다. 이 유물들은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본토에 있는 무나카타 타이샤의 헤쓰미야 신사 경내에서 발견된 것들과 유사합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세 곳 모두에서 제례가 거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산 정상에서의 이러한 발견은 8세기 초 편찬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고지키(고사기)」와 「니혼쇼키(일본서기)」에도 기록된 바 있는, 세 여신을 모시는 무나카타의 세 신사에 관한 현지인들의 오랜 믿음을 뒷받침합니다.

나카쓰미야의 역사적 발전

시간이 흐르며 산기슭에서의 제례 방식도 점차 보편화되었습니다. 15세기의 문헌 기록에 따르면 가마쿠라 시대(1185~1333) 후기에 이미 신사 단지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기록은 위쪽의 신사를 미타케 신사로, 아래쪽 신사인 나카쓰미야를 본전으로 명시하고 있어 산정과 산기슭의 참배 공간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본전 보수공사 중 1655년에 쓰인 목서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현재의 본전은 그 무렵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치 및 주요 특징

두 신사는 970m의 길로 이어져 하나의 신성한 경내를 이룹니다. 나카쓰미야 본전은 일본 전역에서 기념하는 '타나바타(칠석)' 전설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내에는 전설 속의 비극적인 연인 견우(히코보시)와 직녀(오리히메)를 모시는 신사가 있으며, 그 사이로 '아마노가와(은하수)'라는 개울이 흐릅니다. 오시마의 칠석 축제는 음력을 따라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한 달 늦은 8월 7일에 열립니다.

또한 경내에는 무나카타 세 여신의 탄생 설화와 관련된 아마노마나이 우물도 있습니다. 해안에서 본전으로 이어지는 참배길에는 2개의 도리이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것은 1673년 세워진 것으로 무나카타 타이샤에서 가장 오래된 도리이입니다.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自然崇拝から始まった中津宮

大島にある中津宮は宗像大社の三宮の一宮で、宗像三女神の一柱である湍津姫が祀られています。境内には山頂の祭祀場と山麓の本殿があります。山頂からは、7世紀後半から9世紀にかけての奉納供物が出土しており、山頂での信仰が始まった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中津宮はユネスコ世界遺産「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の一部です。

山岳信仰から宗像神社へ

御嶽山（224メートル）は、大島の最高峰です。山頂にある祭祀跡からは、7世紀後半から9世紀にかけての考古学的遺物が出土しています。これらは聖なる島 沖ノ島や本土の宗像大社 辺津宮の境内から出土した遺物と類似しています。それらは、祭祀が3つの場所すべてで同じ時期に行わ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山頂での発見は、宗像三社には、8世紀初頭に編纂された日本最古の文献である『古事記』と『日本書紀』に記述されている三女神が祀られているという、長きにわたり地元で伝わる信仰を裏付けています。

中津宮の歴史的発展

時が経つにつれて、山麓で礼拝の祭祀が行われることがより一般的になりました。鎌倉時代（1185～1333年）後期には神社の施設が存在していたことが、15世紀の文献に記録されています。この記録では、上宮を御嶽神社、下宮の中津宮を本殿と特定しており、山頂と山麓の礼拝場所が共存していたことを証明しています。1997年の本殿修復工事の際、1655年の墨書が発見され、現在の本殿がその頃に建立された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

配置と特徴

2つの神社は970メートルの参道で結ばれ、一種の聖域を形成しています。本殿は日本全国で祝われる七夕伝説（英語で Star Festival、星祭り）の発祥の地と言われています。境内には、物語の悲恋の主人公である織女（織姫）と牽牛（彦星）を祀る神社があり、天の川（英語で the Milky Way、乳の道の意味）と呼ばれる小川で隔てられています。大島では、日本の他のほとんどの地域より1か月遅い、旧暦の8月7日にその関連する祭りが行われます。

境内にはまた、宗像三女神の起源伝説に由来する天ノ真名井という井戸があります。海岸から本殿へと続く参道沿いには2本の鳥居が立っており、内側の鳥居は1673年に建立された宗像大社の現存最古の鳥居です。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沖ノ島祭祀と御嶽山祭祀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오키노시마와 미타케산: 제례 의식과 그 유사성**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7세기 후반부터 9세기 사이 오키노시마와 오시마의 미타케산 두 곳 모두에서 제례 의식이 행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타케산(224m) 정상과 오키노시마 성지에서 발견된 봉헌 유물의 유형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은, 이러한 봉헌 의식이 무나카타 지역 내 공동 종교 전통의 일부로 행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유물들이 본토의 헤쓰미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8세기 초에 편찬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인 「고지키(고사기)」와 「니혼쇼키(일본사기)」에는 무나카타 일족이 이들 장소에서 무나카타의 세 여신에게 바치는 의례를 거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키노시마의 의례

고대부터 오키노시마는 일본과 한반도를 오가는 항로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항해 표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7세기경부터 이 섬은 이러한 항로를 지키는 세 여신 중 하나인 다고리히메노카미와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로부터 해상 안전과 해외 사절단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가 의례가 이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4세기부터 9세기 사이 수천 점에 달하는 봉헌물이 이 섬에 봉납되었습니다. 약 80,000 점에 이르는 봉헌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여기에는 한반도, 중국 본토, 그리고 현재의 이란에 이르는 지역에서 유래한 물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봉헌물은 오키노시마 중앙에 위치한 대형 암반 위나 그 주변에 놓였습니다. 의례는 약 500년에 걸쳐 네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4세기의 암반 정상 의례에서 시작해, 5세기~7세기의 암반 그늘 의례, 7세기 중반의 부분적 암반 그늘 의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8세기~9세기의 노천 의례까지 변천을 거쳤습니다. 봉헌물의 형태 또한 정치·사회·외교적 환경의 흐름에 따라 시대별로 변화했습니다.

미타케산의 의례

8세기 후반부터는 오시마에서 가장 높은 장소인 미타케산에서도 유사한 의례가 행해졌습니다. 산 정상을 조사한 결과 사람, 배, 말 등을 형상화한 동석(凍石) 조형물과 구멍이 뚫린 토기, 청동제 그릇 등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오키노시마에서 발견된 것들과 매우 유사하며, 제작 시기도 비슷해 미타케산의 의례가 오키노시마의 의례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沖ノ島祭祀と御嶽山祭祀**

考古学調査により、祭祀は7世紀後半から9世紀にかけて、沖ノ島と大島の御嶽山の両方で行わ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御嶽山の山頂（224メートル）と沖ノ島の聖域から発見された供物遺

物の種類に見られる類似点が、これらの供物は宗像地域内で共有された宗教的伝統の一部として捧げられたものという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同種の遺物が、本土の辺津宮でも発見されています。日本最古の歴史書である『古事記』と『日本書紀』（いずれも 8 世紀初期に編纂）は、宗像氏がこれらの様々な場所で宗像三女神に捧げる祭祀を行ったと記しています。

沖ノ島の祭祀

古の時代から、沖ノ島は、日本と朝鮮半島とを結ぶ海路を渡る人々の目印として崇められてきました。7 世紀頃から、この島は海路を守る三女神の一柱、田心姫と結びつけ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海上の安全や海外使節の成功を祈願する国の祭祀が、伝統的にこの地で執り行われました。4 世紀から 9 世紀にかけて、何千もの供物が島に奉納されました。朝鮮半島、中国本土、さらには現在のイランにさえ由来する品々を含む、約 8 万点の奉納供物が発見されています。

これらの供物は沖ノ島の中央にある大きな岩盤の上またはその周辺に置かれました。祭祀はおよそ 500 年で 4 段階を経て発展しました。4 世紀の岩頂祭祀から始まり、岩影祭祀（5～7 世紀）、部分的岩影祭祀（7 世紀半ば）、そして最後に野外祭祀（8 世紀～9 世紀）へと至りました。この奉納供物の形態も、政治的・社会的・外交的状況の変化を反映して、時代とともに変化しました。

御嶽山の祭祀

8 世紀後半からは、大島最高峰の御嶽山で、同様の祭祀が行われました。山頂の調査では、人、船、そして馬を象った凍石の像や、穴あき土器、青銅器などの遺物が発見されました。これらは沖ノ島で見つかるものとよく似ており、同様の時代に製造されたものとみられ、御嶽山での祭祀が沖ノ島での祭祀と同時期に行われていた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

028-008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保存活用協議会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神宿る島への祈りの場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오끼쓰미야 요하이쇼 원배소

오시마 북쪽 해안에 있는 오끼쓰미야 요하이쇼는 겐카이해(현해탄)를 사이에 두고 오끼노시마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오끼쓰미야와 인근의 제례 유적을 포함한 오끼노시마의 성역은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멀리서나마 신성한 섬을 향해 참배를 올리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이곳에서 오끼노시마를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 무나카타 일족의 세습 제관 계보가 단절된 후, 두 지역 가문이 무나카타 신앙의 제례를 공동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이전까지 오끼노시마에서 거행하던 제례를 이곳 원배소에서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입구에 세워진 1749년의 석비는 요하이쇼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875년의 지도를 보면 이곳의 위치는 변함이 없으나, 과거에는 현재의 탁 트인 앞 마당 자리에 제관들의 거처와 같은 건물이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배소의 문과 창문은 평소에는 닫혀 있지만, 문을 열면 신성한 섬 오끼노시마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 대축제 기간에는 오끼노시마를 훑히 바라보며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문이 개방됩니다.

028-008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神宿る島への祈りの場

沖津宮遙拝所は、大島の北岸に位置し、玄界灘を隔てて沖ノ島と向かい合っています。沖津宮やその周辺の祭祀場を含む沖ノ島のこの聖域は、一般の人々の立ち入りが禁止されているため、この場所は、遥か彼方から神宿る島を崇める場所として機能しています。晴れた日には、沖ノ島をこの場所から見渡すことができます。

16世紀に宗像氏の代々続く神職の家系が途絶えた後、地元の2つの家系が宗像信仰の祭祀の責任を共同で引き受けました。時が経つにつれ、彼らは沖ノ島で以前行われていた祭祀をこの礼拝所で執り行うようになりました。入口にある石碑は1749年のもので、遙拝所の最古の記録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1875年の地図でもその位置は変わっていないことが確認できますが、当時の配置には、現在の前庭にあたる場所に神職の居住区などの建物が含まれていました。

この拝殿の扉や窓は普段閉ざされていますが、開かれると、神聖な島の直接の景色を収めることができます。春と秋に開催される沖津宮の大祭の際には、沖ノ島への視線が遮られることなく祈りを捧げられるようそ

れらが開かれます。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神守る島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수호의 섬, 오시마**

고대부터 이 해역을 항해하고 어업에 종사해 온 오시마 사람들은 오키노시마를 신성한 섬으로 여겨 신앙의 대상으로서 보호해 왔습니다. 오키노시마 출입을 제한하는 금기로 인해, 오시마는 이 섬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8세기부터 9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섬과 본토에서 출토된 고고학 유물들은 무나카타 지역 내에 공통된 영적 전통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오시마는 중요한 참배 장소로 남아 있으며, 사람들은 오키노시마와 일직선으로 시선이 맞춰진 오키쓰미야 요하이쇼에서 오키노시마에 모셔진 신에게 예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의례 계승과 신사 가문

오키노시마의 고대 의례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 작성된 시기인 8세기 이전부터 이 지역을 지배했던 무나카타 일족의 일원들이 관장했습니다. 16세기 후반 무나카타 일족의 사제 계통이 단절된 이후에는, 오시마에 거주하던 두 가문이 이치노카이와 니노카이라는 역할 체계를 통해 신앙 의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치노카이는 오키노시마의 오키쓰미야 의례를, 니노카이는 오시마의 나카쓰미야 의례를 담당했습니다. 두 가문은 때때로 본토의 헤쓰미야 의례를 돕기도 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지배 세력이었던 구로다번의 후원을 받으며 신앙을 지켜 왔습니다. 이치노카이는 오키쓰미야 요하이쇼를 포함한 의례 장소를 유지 관리했으며, 해마다 두 차례 성스러운 섬으로 건너가 의례를 거행하며 고대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미아레 축제

오키노시마, 오시마, 그리고 본토를 잇는 오랜 유대는 매년 10월 1일 열리는 미아레 축제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되는 가을 대축제가 열립니다. 오시마의 나카쓰미야에 봉안된 오키쓰미야와 나카쓰미야의 가마는 바다를 건너 본토의 헤쓰미야로 옮겨지며, 이때 무나카타의 세 여신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무나카타 지역 7개 항구에서 출항한 100척이 넘는 어선이 장대한 선단을 이루어 이 행렬을 호위합니다.

<日本語仮訳>**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神守る島**

古代からこの海域を航海し、ここで漁業を営んできた大島の人々は、沖ノ島を神聖な島とみなし、信仰の対象として守ってきました。沖ノ島への立ち入りを禁じる禁忌があるため、大島は島へのアクセスを管理する拠点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この島と本土から出土した考古学的遺物は8世紀から9世紀にかけて造られたもので、宗像地域において共有された精神的伝統を示唆しています。大島は現在も重要な

礼拝の場であり、ここで人々は沖ノ島の祭神に、島と向き合うように建つお堂の沖津宮遙拝所から参拝することができます。

祭祀の系譜と神社の家系

沖ノ島の古の祭祀は、8世紀の日本最古の記録以前からこの地域を統治していた宗像氏の人々によって執り行われました。16世紀後半に宗像の神職の家系が途絶えた後、大島に居住する二つの家系が、一ノ甲斐と二ノ甲斐として知られるものを通じて仕え、信仰の管理を引き継ぎました。

一ノ甲斐は沖ノ島で沖津宮の祭祀を執り行い、二ノ甲斐は大島で中津宮の祭祀を行いました。両家ともに時には本土にある辺津宮の祭祀を補助することもありました。江戸時代（1603～1867年）には、統治する黒田藩の庇護の下、彼らは信仰を守り続けました。一ノ甲斐では、沖津宮遙拝所などの祭祀の場も維持管理し、年に二度、聖なる島へ渡ってそこで祭祀を行い、古からの慣習を継承してきました。

みあれ祭

沖ノ島、大島、そして本土との長きにわたる結びつきは、毎年10月1日に催されるみあれ祭によって続いています。このお祭りは、3日間にわたって祝われる秋の大祭の始まりを告げるものです。大島の中津宮に鎮座する沖津宮と中津宮の神輿が海を渡って本土の辺津宮に運ばれ、そこで宗像の三神が再び会します。宗像の7つの港から、100隻を超える漁船が雄大な船団の進行に随行します。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沖ノ島の禁忌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금기로 지켜온 섬**

오키노시마에서의 고대 제례가 중단된 9세기 이후에도 신토의 신관들과 지역 공동체가 지켜 온 금기를 통해 섬은 계속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로 1천 년 넘는 세월 동안 섬이 본래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되었기에 제의 유적과 유물들은 놀라운 정도로 온전하게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키노시마의 신성함은 철저한 출입 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규칙들을 통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무나카타 타이샤의 신관들은 열흘간 섬에 머물며 의례를 거치는데, 섬에 발을 들이기 전 반드시 바닷물로 목욕재계 의례 ‘미소기’를 치릅니다. 또한 섬에서 본 것은 일체 발설해서는 안 되며 그 무엇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오시마에서는 오늘날에도 지역 문화의 일부로서 여러 금기가 지켜지고 있는데, 부정하거나 불길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7세기 초, 정해진 금기를 어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쿠오카의 초대 영주 구로다 나가마사(1568~1623)가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명하여 몇몇 성물을 섬에서 반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직후 원인 불명의 이변들이 발생했다고 전해지며, 성물들을 서둘러 제자리에 돌려놓은 후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건으로 섬의 신이 지닌 신성한 보호의 힘에 대한 믿음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20세기 들어, 당국은 섬의 제의 유적과 방대한 봉납물을 조사하기 위해 통제된 조건하에서 제한적인 고고학 조사를 허가했습니다. 조사는 ‘무나카타 타이샤 복원회’의 주도로 1954년부터 1971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8만 점 이상의 제의 유물이 발굴되어 오키노시마의 탁월한 문화적 가치가 입증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沖ノ島の禁忌**

沖ノ島の古の祭祀が 9 世紀に終焉を迎えた後も、島は神職や地域社会によって支持された禁忌によって保護され続けました。これらの禁制によって島は千年以上もの間手つかずの状態に保存され、その祭祀の場や遺物は驚くほど完全な形で残されています。

沖ノ島の神聖さは厳しいルールによって長らく守られており、その中には立ち入りが厳しく制限されていることも含まれています。宗像大社の神職たちは、各々 10 日間この島に滞在して祭祀を行います。上陸する前に、彼らはまず禊という、海で裸で沐浴する浄化の儀を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彼らは、目にしたものについて語ったり、何かを持ち出したりすることが禁じられています。大島では、多くの禁忌が地域文化の一部と

して今も守られています。これには、伝統的に不浄または不吉とみなされる特定の言葉を口にすることを避けることも含まれています。

17 世紀初頭に、福岡藩初代藩主である黒田長政（1568～1623 年）が、地元のキリシタンに特定の神聖な宝物を撤去するよう命じたとき、確立された禁忌に違反することの危険性が感じられました。間もなく、原因不明の異変の発生が報告され、その品々が急いで返還されてはじめてその異変が収まったそうです。この出来事は、島の神様の神聖な加護に対する信仰を一層強めました。

20 世紀には、島の祭祀場と大量の奉納供物を評価するため、当局は管理された条件下での限定的な考古学調査を許可しました。調査は、宗像大社復興期成会により 1954 年から 1971 年にかけて 3 つの期間に分けて行われました。調査では 8 万点以上の祭祀遺物が発見され、沖ノ島の卓越した文化的価値が確認されるとともに、ユネスコ世界遺産としての認定の実現に寄与しました。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原始・古代＞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고대의 오시마

오시마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야요이 시대(기원전 900년~기원후 300년)로 추정됩니다. 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물로는 제1천년기 초 무렵의 석촉과 토기 파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같은 시기의 아시아 대륙 유물과 공통된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한반도와 교류를 나타내며, 오시마가 일본 열도와 대륙을 잇는 초기 해상 교통망의 일부였음을 시사합니다.

일상 생활 유물들과 함께, 오시마의 취락 유적에서는 제의용 유물도 출토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훈 시대(고분 시대, 약 250년~7세기 초)에 제작된 '곡옥(마가타마)'입니다. 이 시대는 야마토(현재의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고 대형 토분묘인 고분(고훈)이 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무덤은 지배 계층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대개 마가타마와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오시마에서는 고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의례용 유물의 존재는 야마토 조정과의 연관성과 더불어 공통된 의례 전통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 이후 나라 시대(710~794) 무렵의 유물들은 의례 관행의 변화를 보여 줍니다. 미타케산(224m) 정상에서 발견된 봉헌 유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에는 산 정상에서 제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물들 가운데 다수는 오키노시마에서 발견된 유물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물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인 「고지키」와 「니혼쇼키」에 기록된 무나카타의 세 여신에 대한 초기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原始・古代＞

大島の人の居住は、弥生時代（紀元前 900 年～紀元後 300 年）に始まったと考えられます。島で発見された最古の遺物には、紀元後 1 千年紀初頭頃の石製の矢じりや土器片が含まれており、その一部には同時期のアジア大陸の遺物と共通の特徴があります。これらは朝鮮半島との交流を示しており、大島が日本列島と大陸とを結ぶ初期の航海交流網の一部であった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

日用品的な遺物と共に、祭祀用具が大島の集落跡から発掘されており、中でも注目すべきは古墳（墳墓）時代（およそ 250～600 年代前半）に作られたコンマの形をした勾玉です。この時代は、大和地方（現在の奈良）における中央集権国家の樹立と、巨大な土製の墳墓（日本語で古墳）の建造を特徴としています。これらは支配階級の特権で、その埋葬時にはしばしば勾玉と一緒に供えられました。大島では古墳は発見されていませんが、こうした儀式用具の存在は、共通する祭儀の伝統の思想と大和朝廷との結びつきの可能性を示唆しています。

奈良時代（710～794 年）頃の遺物は儀式の慣習の変化を示唆しています。その頃、山頂から発見された奉納供物からも明らかなように、御嶽山（224 メートル）の山頂では礼拝の儀が行われていたことが窺えます。その多くが沖ノ島で発見された遺物とよく似ています。これらは、日本最古の歴史書である『古事記』や『日本書紀』に記録されている、宗像三女神の崇拝の初期の頃に関連し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中世＞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중세 시대의 오시마

중세 시대(1185~1568)에도 오시마는 계속해서 겐카이해(현해탄)를 사이에 둔 지역 정치와 교류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섬에 있는 유일한 불교 사찰 안쇼인과 훗날 오시마 성으로 알려지게 되는 산성의 존재를 기록한 역사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안쇼인과 아베노 무네토 전설

안쇼인은 일본 북부의 유력 가문인 아베 가문 출신 무장 아베노 무네토(1032~1108)와 관련이 있는 사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북부 전쟁에서 가문이 패배한 이후 그는 오시마로 유배되어 여생을 이곳에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후손 아마묘토는 1264년 무네토의 거주지 터에 안쇼인을 창건했습니다. 사찰 북쪽에 있는 묘는 무네토의 묘로 전해지지만, 묘비는 1824년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찰에는 중국 송나라의 동전과 13세기~14세기 무렵 한반도 고려에서 제작된 금동 불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은 중세 시대 내내 무나카타 지역과 한반도 간에 교류와 무역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 동안 오시마는 8세기부터 이 지역을 지배해 온 무나카타 일족의 통제 아래 해상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오시마 성: 무나카타 일족의 마지막 방어선

16세기 후반 전국 시대(1467~1568)의 혼란 속에서 오시마는 피난처가 되었으며,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섬에 산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확인된 구조물 유적은 없지만, 산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지금도 '조야마(성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559년, 이 지역을 지배하던 무나카타 일족의 사제 영주였던 무나카타 우지사다는 규슈를 거점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무인 가문 오토모 일족과의 분쟁 중 오시마로 도피했습니다. 우지사다는 오시마의 산성에 몸을 숨겼다가, 이듬해 본토에 있던 자신의 거점인 고노미성을 되찾았습니다. 1586년 그의 사망과 함께 무나카타 일족은 명맥이 끊겼고, 8세기 이상 이어졌던 가문의 지배도 막을 내렸습니다.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中世＞

中世（1185～1568年）も、大島は玄界灘を隔てた地域政治と交流において戦略的役割を担い続けました。これは、島唯一の仏教寺院である安昌院や、後に大島城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山城の存在を示す歴史的記録にも表れています。

安昌院と安倍宗任の伝説

安昌院は、北日本の有力な安倍家出身の武将、安倍宗任（1032～1108 年）と関係があります。一説によれば、安倍家が北部での戦に敗退した後、彼は大島に流され、そこで余生を過ごしたといわれます。その子孫である尼妙任が、1264 年に彼の住居跡に安昌院を建てました。寺院の北側にあるお墓は宗任のものでされていますが、墓石は 1824 年に再建されたものです。

お寺には中国の宋朝の貨幣や、13～14 世紀に朝鮮半島の高麗で造られた金銅仏が所蔵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存在は、中世を通じて宗像地域と朝鮮半島との交流と交易が継続していた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当時、大島は 8 世紀初頭からこの地域を支配した宗像氏の管理の下、海上拠点として機能していました。

大島城：宗像氏の最後の防衛線

16 世紀後半、大島は戦国時代（戦国）（1467～1568 年）の紛争における避難場所となり、歴史的記録が島の山城に言及しています。建造物の遺構は確認されていませんが、その跡地と推定される場所は、今でも地元では城山（城の山）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

1559 年、宗像氏を大宮司そして領主として統治していた宗像氏貞は、九州に本拠を置くライバルの武家一族、大友との戦いの中で、大島へ逃れました。宗像氏貞は城に身を寄せ、翌年には本島の彼の拠点である許斐城を奪還しました。1586 年に彼が亡くなったことで宗像の家系は途絶え、8 世紀以上にわたる同家の支配は幕を閉じることとなりました。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近世＞ 島守の島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왜국 시대의 오시마**

에도 시대(1603~1867) 일본의 왜국 정책 시기 동안 오시마는 오키노시마와 겐카이해를 모두 지키는 수호섬 역할을 했습니다. 막부는 기독교를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1614년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본 가톨릭 신자들의 봉기를 계기로 1630년대 후반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서 추방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2세기에 걸친 왜국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후쿠오카 구로다번의 지배 아래에서 오시마는 해안 전초 기지가 되었으며, 외국 선박을 감시하기 위한 경비가 배치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선교사 사건

1643년 5월 12일, 포르투갈 선교사 4명과 여러 명의 기독교 신자를 태운 외국 선박이 오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섬 경비대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들의 억류에 관여한 주민들은 포상을 받았습니다. 상륙 지점에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비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구로다번은 섬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여 서해안 쓰와세, 북해안 이와세, 그리고 미타케산(224m) 정상에 감시 초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오시마는 오키노시마를 관리하는 관료들의 거점이 되었고, 이곳에 파견된 초병들은 성스러운 섬에서 50일씩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오키노시마 상륙이 허가된 사람들은 이 섬으로 건너가기 전에 오시마의 나카쓰미야에서 여러 정화 의례를 치르고 금욕 기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미소기(바다에서 몸을 정화하는 의식)'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때도 이 시기입니다.

아오야기 다네노부의 기록

학자이자 구로다번의 가신이었던 아오야기 다네노부(1766~1836)는 1794년 오키노시마 감독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부임지로 떠나기 전, 오시마에서 열흘간 머물며 '미소기'와 미타케산 등반을 포함한 정화 의례를 거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오키쓰시마 사키모리 닛키(오키노시마 감독관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섬의 경관, 지역의 금기, 그리고 오키노시마에 도착했을 때 느낀 경외감도 기술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오시마가 오키노시마로 향하는 영적 관문이자 번의 해상 감시 체계의 일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近世＞ 島守の島**

江戸時代（1603～1867年）の日本の鎖国中、大島は沖ノ島と玄界灘の守護島として機能していました。幕府はキリスト教を統治への脅威と見なし、1614年にこの宗教を禁止しました。日本のカトリック教

徒による反乱が発生したことを受けて、これが 1630 年代後半にポルトガル人の日本追放へと発展し、約 2 世紀にわたる鎖国の始まりとなりました。福岡の黒田藩の支配下で、大島は沿岸要衝地となり、外国船を監視する警備隊が駐屯しました。

ポルトガル人宣教師事件

1643 年 5 月 12 日、ポルトガル人宣教師 4 名とほかに数名のキリスト教徒を乗せた外国船が大島に到来しました。その一行は島の警備隊に捕らえられ、そして拘束に関わった住民には褒賞が与えられました。地碑が上陸地点に残されています。

この事件を受けて、黒田藩は島の防衛体制を強化し、西岸の津和瀬、北岸の岩瀬、そして御嶽山頂（224 メートル）に番所が設けられました。大島は沖ノ島を見張る役人の拠点となり、ここから警備隊が派遣され、その聖なる島で 50 日間の交代勤務に就きました。沖ノ島に上陸を許された者たちは、渡る前に大島の中津宮で様々な禊の儀を行い、禁忌期間を守ることを義務付けられました。今日まで続く禊の慣習（海に入って身を清める儀式）は、この時期に初めて記録されています。

青柳種信の記録

学者であり黒田藩家臣であった青柳種信（1766～1836 年）は、1794 年に沖ノ島の見張り役に任命されました。任務地に赴く前に、彼は大島にて 10 日間、禊や御嶽山頂までの登山など、身を清める儀を行いました。彼はこれらの儀式を『瀛津島防人日記』（「ある沖ノ島見張り役の日記」）に認（したた）めています。彼はまた、島の風景や地元の禁忌、沖ノ島に到着した際の崇敬の念についても記しています。彼の記述は、大島が沖ノ島への霊的な玄関口として、また藩の海上監視体制の一部としてどのように機能していたかを伝える貴重な資料です。

028-014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保存活用協議会

【タイトル】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近世〉捕鯨の島・流人の島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근세의 오시마: 포경과 정치적 유배

에도 시대(1603~1867)와 메이지 시대(1868~1912) 동안 오시마는 활발한 포경 기지이자 두 곳의 유배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북동 해안과 인근 섬들에는 겐카이해에 출몰하는 고래를 감시하기 위한 망루가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포경 활동의 모습을 묘사한 1821 년의 기록에는 "바다에 고래가 마치 소와 말처럼 오가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래는 고기뿐만 기름을 얻기 위해 포획되었는데, 고래기름은 논에서 해충 방제에 사용되던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고래 한 마리를 환산하면 오늘날 1 천만엔이 넘는 가치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607 년부터 1908 년까지 오시마에는 두 곳의 유배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북동 해안의 가시로에, 다른 하나는 북서 해안의 나가하타에 있었습니다. 이 섬으로 유배된 이들 중 다수는 정치적 이유로 추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업과 포경 활동에 참여하고 섬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일조했습니다.

028-014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近世〉捕鯨の島・流人の島

江戸時代（1603～1867 年）と明治時代（1868～1912 年）、大島は熱心な捕鯨基地であり、2 つの流刑地が置かれていました。北東海岸沿いや周辺の島々には、玄界灘で鯨を見つけるための見張り場所が設置されていました。1821 年の記録には、その捕鯨の様子が記されており、「海では、鯨が牛や馬のように行き来している」と述べています。鯨は肉のほかに、水田での害虫駆除に用いられる貴重な商品として、その油も目的に捕獲されました。1 頭の鯨で現在の価値で 1000 万円以上に相当する金額が手に入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1607 年から 1908 年にかけて、大島には 2 つの流刑地が設けられました。1 つは北東岸の加代、もう 1 つは北西岸の畑にありました。島に流された人々の多くは政治亡命者でした。彼らは村人に混じって暮らし、漁業や捕鯨活動に参加し、さらには島の子どもたちに教育を施すなど、地域社会に貢献しました。

【タイトル】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大島の歴史〈近・現代〉漁とともに生きる島

【想定媒体】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근현대의 오시마: 어업의 섬

고대부터 오키노시마 주변 해역은 중요한 어장으로 기능하며, 오시마 주민들의 생계를 지탱하고 그들의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어촌은 계절풍의 영향을 덜 받는 오시마 남쪽 해안을 따라 발달했습니다. 제한된 토지 위에 집들이 밀집해 들어섰고, 해안에는 '아게'라고 불리는 대나무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뻗어 있어 어망을 말리거나, 어구를 펼쳐놓거나, 배를 정박시키는 데 쓰였습니다.

오시마의 어부들은 연중 일정 기간을 종종 오키노시마에서 지내며 섬의 오두막에서 생활하며 그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금기를 어기지 않기 위해 관습적인 규칙을 따랐으며 '오키노시마 나카마(오키노시마의 친구들)'라고 불리는 어업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어획물은 섬의 얼음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본토에서 물자를 가져온 바지선에 실어 시장으로 옮겼습니다. 섬에 체류하는 동안 어부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섬을 '오키노시마사마' 또는 '오이와즈사마(입에 올릴 수 없는 분)'라고 부르며 경외심과 친밀감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1955년 오키노시마에 어항이 건설되고 선박과 어구가 현대화되면서, 이러한 계절적 체류 어업은 없어졌습니다. 전통적인 대나무 구조물과 오시마 어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풍경들도 나일론 어망이 기존 어망을 대체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어획량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섬 주민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바다와 오키노시마와의 관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大島の歴史〈近・現代〉漁とともに生きる島

古の時代から、沖ノ島周辺の海域は重要な漁場として機能し、大島の住民の生計を支え、その文化を形成してきました。

大島の南岸沿いは、季節風から守られた土地で、漁村が発展しました。家々は限られた土地に密集するように立ち、そして網を干したり漁具を並べたり船舶を係留したりするためのアゲと呼ばれる竹製のデッキが岸辺から伸びていました。

大島の漁師たちはしばしば、一年のうちの一部を沖ノ島で過ごし、島の小屋に住みながら海で漁を行いました。彼らは慣習的な規則に従って禁忌を犯さないよう注意しつつ、「沖ノ島仲間」（沖ノ島の友人たち）と

して知られる一団を結成しました。彼らは漁獲物を島内の氷蔵庫に保管し、本土から物資を運ぶ荷船でそれらを市場に出荷しました。漁師たちは滞在中、生計を守ってくれる聖なる島の神様へ向けて祈りを捧げました。彼らは沖ノ島を崇敬の念と親しみを込めて、沖ノ島様あるいは不言様（「私たちが口にしない御方」）と呼んでいました。

1955年に沖ノ島に漁港が建造され、船や漁具が近代化されると、島でのこうした季節ごとの滞在は終わりを告げました。伝統的な竹製のデッキや大島の漁村で見慣れた光景は、ナイロン網が従来の網に取って代わるにつれて次第に姿を消していきました。今日、漁獲量の減少や高齢化が進む中でも、島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は海と沖ノ島との関係に根ざして残っています。

028-016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保存活用協議会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近・現代〉戦争の歴史を伝える島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전쟁기의 오시마

오시마는 국제 해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해안 방어망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섬 곳곳에는 기념비부터 20세기 군사 시설에 이르기까지 근대 전쟁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러일전쟁(1904~1905) 당시 승패를 가른 쓰시마 해전도 오키노시마 인근 해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승리는 전국적인 경사였고, 오시마에는 여러 전쟁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나카쓰미야 입구에는 이 전투를 기리기 위한 두 번째 '도리이'가 세워졌으며, 그 옆에는 일부 참전자의 이름을 새긴 포탄 모양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신사 경내에는 승리를 이끈 지휘관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1848~1934)의 필적이 새겨진 등룡도 남아 있습니다.

1930년대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오시마 북서쪽 언덕에는 일본의 주요 산업 및 군사 거점으로 이어지는 해로였던 시모노세키 해협을 지키는 방어망의 하나로 포대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포대에는 네 곳의 포좌, 탄약고, 관측소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15cm 대포는 전쟁 이후 해체되었지만, 해당 유적지는 현재까지 남아있어 둘러볼 수 있습니다.

028-016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歴史〈近・現代〉戦争の歴史を伝える島

大島が国際水域に近接しているため、この島は日本の沿岸防衛網において戦略的に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ました。記念碑から20世紀の軍事施設まで、島内の随所に近代戦争の痕跡があります。

日露戦争（1904～1905年）では、沖ノ島付近で勝敗を決する対馬海戦が繰り広げられました。日本の勝利は全国的に祝われ、戦争記念碑が大島に建てられました。中津宮神社の入口には、この戦いを記念する2基目の鳥居が建てられ、それと並んで砲弾型の記念碑には従軍者の名前が刻まれています。神社の境内には、勝利を収めた東郷平八郎提督（1848～1934年）の筆跡が刻まれた灯笼があります。

1930年代、東アジアの緊張が高まる中で、日本の主要な産業・軍事拠点へのアクセスを可能にする水路の下関海峡を守る防衛網の一環として、大島の北西部の丘に砲台が建設されました。この砲台には、砲台4基、弾薬庫、そして観測所がありました。15センチ砲は戦後に撤去されましたが、跡地は今も残されたままで、現在も見学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大島の年間予定表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오시마의 연중행사**

오시마의 세시 풍속은 바다와 음력, 그리고 무나카타 3 여신 신앙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지역 의례 중 다수는 조수 간만의 흐름에 맞춰 진행되는데, 이는 어업 중심의 삶과 신도 전통을 모두 반영합니다. 계절 축제는 섬 공동체를 무나카타 타이샤라는 더 넓은 신앙 체계와 이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쓰키나미 축제

어부들은 매달 1일과 15일 나카쓰미야에 그날 잡은 어획물 일부를 공물로 바치며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봉납을 통해 오시마 주민들은 수 세기 동안 섬의 어업 공동체를 지켜온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신에 대한 신앙을 이어갑니다.

춘추 대축제

음력 3월과 9월 보름(4월 초와 10월 초) 무렵에는 오시마 북쪽의 오키쓰미야 원배소에서 제례를 거행합니다. 이때는 평소 닫혀 있던 원배소의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참배객이 신성한 섬 오키노시마를 훤히 바라보며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타나바타 축제

8월 7일 나카쓰미야에서 열리는 오시마의 타나바타(칠석) 축제는 천상의 연인 견우(히코보시)와 직녀(오리히메)의 연례 만남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 축제 날짜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에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한 달 정도 늦습니다. 직녀를 모시는 신사 앞에는 생선과 제철 농산물이 공물로 올라가며, 나카쓰미야 경내는 등불과 장식물, 그리고 형형색색의 소원지를 매단 대나무 가지가 정성스럽게 꾸며집니다.

미아레 축제

오시마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는 10월 1일에 열립니다. 100척이 넘는 배로 구성된 대규모 선단이 오키쓰미야와 나카쓰미야의 신위를 모신 가마(미코시)를 본토의 헤쓰미야까지 운반합니다. 이로써 무나카타 3 여신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면서 무나카타 타이샤의 연중 최대 행사인 3일 간의 가을 대축제가 시작됩니다.

참고: 일부 변경되었거나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 행사도 있습니다. 일례로 천황 탄생일은 현재 2월 23일에 기념하고 있으며, 5월 27일 열던 러일전쟁 개전 기념행사는 폐지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大島の年間予定表

大島の暦は、海と旧暦、そして宗像三女神の信仰と密接に関係しています。地元の多くの慣習は潮の満ち引きのサイクルに従って、漁業生活と神道の伝統の両方に影響を与えています。季節ごとのお祭りは、島の地域社会を宗像大社の広範なネットワークと結びつける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月次祭

毎月 1 日と 15 日には、漁師たちが中津宮に獲った物の一部をお供えし、安全と海からの大漁を祈ります。こうした定期的な信仰活動を通じて、大島の人々は、何世紀にもわたり島の漁業共同体を導いてきた沖ノ島と宗像の神々への信仰を守り続けています。

春秋の大祭

旧暦の 3 月と 9 月の 15 日頃（4 月上旬と 10 月上旬）、大島北部の沖津宮遙拝所で祭祀が行われます。こうした機会には、普段は閉ざされている遙拝所の扉や窓が開かれ、参拝者は沖ノ島まではっきりと見通して、聖なる島を目の前に拝むことができます。

七夕祭

8 月 7 日に中津宮で催される大島の七夕祭は、日本の他の地域より一か月遅れて、天上の恋人である織女（織姫）と牽牛（彦星）の年一回の再会を祝います。この祝日は旧暦に基づいており、織女の神社の前には魚や旬の農産物が供えられ、中津宮の境内は提灯や飾り紐、色とりどりの願い事を書いた紙を付けた竹の枝で飾られます。

みあれ祭

島で最も重要な祭りは 10 月 1 日に催されます。100 隻を超える船からなる壮大な船団が、大島の中津宮に鎮座する沖津宮と中津宮の神輿を、本土の辺津宮へと運ぶ神船を護るように送り届けます。これが宗像の三神の儀式的な再会を告げ、宗像大社の最大の年次行事である 3 日間にわたる秋季大祭の幕を開けます。

注記：一部の祭祀は変更あるいは廃止されています。例えば、天長祭は現在 2 月 23 日に祝われ、5 月 27 日の沖津宮現地大祭は廃止されました。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大島の言い伝え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오시마의 속담과 미신**

오시마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다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현대식 기상 예보가 도입되기 전, 이들은 세심한 관찰과 대대로 내려온 구전 지식을 통해 날씨와 조류를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통찰력은 실질적인 경험과 더불어 자연과 영적인 힘에 대한 경외심을 담은 속담이나 미신으로 발전했습니다.

날씨는 곧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바람, 조류, 구름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면밀히 관찰했으며,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경험에 뿌리를 둔 속담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례로 "가을 저녁노을은 맑은 날씨를 부르지만, 붉은 새벽노을은 비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섬 주민들은 조류와 바람의 관계에도 주목했기 때문에 "만조에는 남풍이 불고, 간조에는 북풍이나 북서풍이 분다"와 같은 속담도 전해 내려옵니다.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미신은 바다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미신은 부주의한 행동을 경계하고 도구를 올바르게 다루는 것을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 칼을 바다에 떨어뜨리면 어획량이 나빠진다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日本語仮訳>**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大島の言い伝え**

大島の人々は長い間海を生活の糧としてきました。近代的な気象予報が出現する前は、彼らは入念な観察と世代を超えて受け継がれてきた口承の知識によって、天候や潮の満ち引きを読み取る術を身につけていました。時を経て、こうした知識は実践的な経験と自然や霊的な力への崇敬の念の両方を反映した格言や迷信へと発展していきました。

天候が生死を左右したため、風や潮の満ち引き、雲のわずかな変化さえも注意深く観察されました。これから生まれた、経験に根ざす知恵があります：「夕焼けは晴れ、朝焼けは雨（直訳：秋の夕焼けは晴天をもたらす、赤い夜明けは雨をもたらす）」島の人々は潮の満ち引きと風の関係にも注目し、「満潮時には風が南から吹き、干潮時には北または北西から吹く」といった言い習わしがあります。

安全と幸運を願う迷信が、海での行動を形作りました。海にナイフを落とすと不漁になるという信仰など、不注意な行動を戒め、道具の正しい扱いを強調するものもありました。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食文化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오시마의 식문화**

오시마의 식문화에는 해안 환경과 어업 전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섬 주민들은 생계를 바다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해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대개 제철 채소 및 기타 현지 식재료와 함께 조리하는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또한 온화한 해안성 기후는 감귤류 재배에 적합해, 감귤류를 해산물 위주의 요리에 상큼하게 곁들여 낼 수 있었습니다.

붕장어 전골

붕장어 전골은 붕장어와 양배추, 각종 채소를 붕장어 뼈로 우려낸 미소 육수에 넣어 조리한 음식입니다. 오시마에서는 특별한 날 먹는 음식으로, 보통 붕장어의 살이 가장 많이 오르는 가을과 겨울에 즐겨 먹습니다.

베라 소면

베라는 여름에 잡히는 놀래기와 어종입니다. 이 생선을 달고 짭짤한 국물에 조리된 뒤, 그 국물에 차가운 소면을 찍어 먹습니다.

아마나쓰 감귤

'아마나쓰'는 현지에서 재배되는 감귤 품종으로, 일본어로 '달콤한 여름'을 뜻합니다. 초여름에서 늦여름 사이에 무르익으며, 생과로 먹거나 젤리로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제 미소

'우니 미소(성게 미소)'라고도 부르는 이 별미는 삶은 성게 내장을 미소와 설탕과 함께 갈아 만듭니다. 전통적으로는 3월 3일 '히나마쓰리(인형 축제)'에 마름모 모양으로 구운 떡 위에 올려 먹었으며, 오늘날에는 밥반찬이나 오니기리(주먹밥) 속재료로 넣어 먹습니다.

비나 고등

'니나'라고도 부르는 이 식용 고등은 일본 대부분의 해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시마에서는 여름철에 바위 해안에서 채취되며, 찢어서 삶은 뒤 절이거나 국물에 조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오큐토 식용 해초

'오큐토'는 칼로리가 낮고 수용성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한 저장 식품으로, 현지 아침 식사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여름에 해초를 채취해 햇볕에 말린 뒤 세척하고, 붉은 해초가

흰색으로 변할 때까지 건조와 세척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건조된 해초를 물에 불려 간장, 폰즈, 마요네즈 등과 함께 먹습니다.

성게밥

오시마에서는 성게를 여름과 겨울 연 2회 채취하며, 성게는 현지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이 요리는 성게 내장을 섞은 생쌀을 찐 것입니다. 얇게 썬 당근이나 '사자에' 고동을 함께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카모쿠

아카모쿠는 여러 가지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식이섬유 후코이단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용 해초입니다. 보통 삶아서 폰즈에 찍어 먹거나, 국에 넣어 먹습니다.

소멘노리 식용 해초

가느다란 소면처럼 보여 이름이 붙여진 현지 특산물로, 오키나와 특산품인 '모즈쿠'와도 비슷합니다. 5~6월에 채취하며, 폰즈에 찍어 먹거나 미소 된장국 등 다양한 국 요리에 넣어 먹습니다.

028-019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大島の食文化

大島の食文化は、その沿岸環境と漁業の伝統を映し出しています。古の時代から、島民は海からの恵みを頼って生活してきたため、魚介類を豊富に用いた料理が生まれ、たいてい季節の野菜や他の地元の食材と共に調理されます。この島の穏やかな沿岸気候は柑橘類の栽培に理想的で、魚介類中心の料理に天然の爽やかな風味を添えています。

アナゴの鍋

この料理では、黒アナゴ、キャベツやその他の野菜を、アナゴの骨から取った味噌味の出汁で煮込みます。大島では、アナゴが最も脂がのる通常秋から冬にかけて、特別な行事を祝って食べられます。

ベラそうめん

ベラは夏に漁獲されるベラ科の魚です。この魚は甘辛い煮汁で煮込まれ、その煮汁は冷やし素麺のつけ汁として利用されます。

甘夏柑

甘夏は、温州みかんを地元で改良した品種です。その名は日本語で「甘い夏」を意味します。この果物は初夏から晩夏にかけて熟し、生食やゼリーにするなど様々な形で楽しまれています。

ガゼ味噌

ウニ味噌とも呼ばれるこの珍味は、茹でたウニのはらわたを味噌と砂糖と合わせてペースト状にすりつぶして作られます。伝統的に3月3日に祝うひな祭り（人形祭）に、菱形の焼き餅の上に載せて提供されま

す。現在では、ご飯のお供として、またはおにぎりの具として食されています。

びな巻き貝

ニナとしても知られるこの食用巻き貝は、日本のほとんどの海岸で見られます。夏に大島の岩場で採られ、洗って茹でた後、酢漬けにしたり出汁で煮たりなど様々な方法で調理されます。

おきゅうと食用海藻

低カロリーで水溶性食物繊維やミネラルが豊富なおきゅうとは、地元の朝食の一部としてよく食べられる保存食です。海藻は夏に収穫し、天日干しをして洗います。赤い海藻が白くなるまで、この工程を繰り返します。水で戻した後、醤油、ポン酢、またはマヨネーズをつけて食べます。

ウニご飯

大島ではウニは年に2回、夏と冬に水揚げされ、地元の料理に材料としてよく使われます。この料理では、ウニのはらわたを生米と混ぜて蒸します。料理に人参の薄切りやサザエ巻き貝を加えるパターンなどもあります。

アカモク

アカモクは、様々な健康効果があるとされる植物繊維フコイダンを豊富に含むことで知られる食用海藻です。茹でてポン酢でいただくか、スープに加えるのが一般的です。

素麺海苔食用海藻

細い素麺に似ていることから名付けられた地元の特産品で、沖縄の名産品であるモズクに似ています。5月から6月に収穫され、ポン酢でいただくか、味噌汁など様々なスープに加えるのが一般的です。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七夕伝説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오시마와 타나바타 이야기**

일본 전역에서 열리는 타나바타 축제와 그 설화는 오시마의 나카쓰미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7월 7일에 축제를 열지만, 나카쓰미야에서는 음력을 따라 한 달 늦은 8월 7일에 축제를 엽니다. 기록상 가장 오래된 축제는 가마쿠라 시대(1185~1333)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사에서는 인연을 맺어주는 풍습이나 시를 짓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타나바타 전설

타나바타 설화는 여러 변형이 있으나, 오시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견우(히코보시)라는 귀족 청년과 직녀(오리히메)라는 베 짜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견우는 조정의 명을 받아 당나라의 숙련된 직조 기술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중 한 명인 직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후 직녀는 헤쓰미야로 보내졌고, 견우는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견우는 직녀를 잊지 못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무나카타의 신이 꿈에 나타나 나카쓰미야로 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신의 계시에 따라 견우는 관직을 버리고 나카쓰미야의 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신사 경내를 흐르는 개울에서 몸을 씻던 견우는 물동이에 비친 직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매년 음력 7월 7일이면 직녀의 모습이 물동이에 나타나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신사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타나바타 축제

나카쓰미야 경내에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를 모시는 두 개의 작은 신사가 있습니다. 8월 7일이 되면 쇼쿠조 신사 앞에 제단이 마련되고 제철 농산물과 생선이 공물로 올라갑니다. 축제 당일 저녁의 신사 경내는 화려한 등불과 장식물로 꾸며지며 대나무 가지에는 소원을 적은 형형색색의 종이가 걸립니다.

<日本語仮訳>**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大島の七夕伝説**

七夕の物語とそれまつわるお祭りは、全国的に行われていますが、その発祥は大島の中津宮神社だと信じられています。このお祭りは、日本の多くの地域では7月7日に行われますが、中津宮では旧暦の8月7日に催されます。最も古い記録は鎌倉時代（1185～1333年）にさかのぼり、その頃は縁結びの習わしや詩歌の集いがこの神社で行われていました。

伝説

七夕の物語には様々なバリエーションがありますが、大島で伝わるものは、牽牛（彦星）という名の上流階級の若者と、織女（織姫）という名の織り手の女性の恋物語を語っています。牽牛が唐の時代の中国から熟練の織工を連れてくるよう朝廷から命じられた後、彼らは出会いました。彼が戻った後、牽牛はその一人である織女と恋に落ちました。日本に到着した後、織女は辺津宮に遣わされ、牽牛は朝廷に戻りました。彼女を忘れられず彼は深く嘆いていたある夜、彼の夢に現れた宗像の神様が、中津宮へ行くよう告げました。神のお告げに従い、牽牛は自身の職を離れ、彼の地で神職に就きました。ある夜、神社の境内を流れる小川で身を清めていると、彼の水桶に織女の面影が映りました。その夜以来、毎年旧暦 7 月 7 日になると、織女が桶に映るようになり、二人は愛おしそうに互いを見つめ合いました。それからある日のこと、二人はそれぞれの神社から忽然と姿を消してしまったのです。

七夕のお祝い

中津宮の境内には、川を挟んで牽牛と織女の 2 つの小さな神社が建っています。8 月 7 日には、織女神社の前に祭壇が設けられ、旬の農産物や魚介類が供えられます。その夕べの祝いに向け、神社の境内は灯りで彩られ、飾り紐で飾られ、竹の枝には色とりどりの祈願の紙が吊るされます。

028-021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保存活用協議会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感光の島

【想定媒体】 アプリ QR 코드

<韓国語>

빛의 섬

하루가 저물고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추어도 오시마의 밤은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섬 서쪽 쓰와세 해변에서는 겐카이해(현해탄) 너머로 석양이 지고 난 뒤 규슈 해안선을 따라 불빛이 점차 하나둘 켜지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또 다른 빛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른 새벽까지 바다 위를 반짝이며 야행성 어종들을 유인하는 오징어잡이 어선들의 불빛입니다. 빛 공해가 거의 없는 이곳의 밤하늘은 별 관측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는 수평선 가까이로 북두칠성이 낮게 뜨면서, 마치 국자로 바닷물을 떠 올리는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동지(12월 22일)와 일본의 전통 입춘(2월 3일) 무렵에는 아침 해가 나카쓰미야의 두 도리이와 정확히 일직선을 이루며 떠오르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028-021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感光の島

日が暮れる頃、太陽は地平線の彼方へと沈みますが、大島の夜は決して暗くはありません。島の西側にある津和瀬の浜から玄界灘に沈む夕日を眺めていると、九州の海岸線が徐々に明るくなっていきます。

夜が更けていくにつれ、他の光も現れます。イカ漁船の灯りが水面にかすかに光り、夜行性の獲物を朝の早い時間まで誘い込みます。光害がほとんどないため、夜空は星空の観察に絶好の環境を提供します。秋から初冬にかけては、北斗七星が水平線近くまで低く現れ、まるで柄杓が海から水をすくい上げているかのように見えます。

冬至（12月22日）と日本の旧暦の春分（2月3日）の頃には、昇る太陽が中津宮神社の2本の鳥居と一直線に並びます。

028-022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保存活用協議会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Taboo words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韓国語>

오시마만의 독특한 표현

오시마의 독특한 문화는 다양한 일상어를 바꾸어 표현하는 현지 언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표현 가운데 상당수는 옛 금기나 문화 교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길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 보통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오키노시마에서는 네 발 달린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그래서 소는 '네 다리가 달린 뿔'이라고 부릅니다.

외국 문화와 접촉해 온 오시마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다른 대체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술을 '친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쌀을 '샤리'라고 부르는 것 역시 불교에서 기원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028-022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ド施設）/Taboo words

大島の独特な文化は、日常的な用語の多くに異なる表現を使う方言にも表れています。これらの表現の多くは、古の禁忌や文化交流に由来するものです。

不吉な意味合いを持つ言葉は通常置き換えられます。例えば、沖ノ島では四本足の動物の肉は食べられないため、その動物の名前を口にする事さえも避けられます。牛はそのため「四本（足）の角」と呼ばれます。

その他の言い換えは、外国文化と接触してきた大島の歴史を映し出しています。酒はチンタと呼ばれることがあり、この言葉はポルトガル語からきていると考えられ、そして、米はシャリとも呼ばれ、仏教に起源を持つと考えられています。

028-023

「神宿る島」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保存活用協議会

【タイトル】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Welcoming leaflet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오시마 교류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시마 교류관(오시마 문화 센터)에서 오시마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성한 섬 오키노시마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세요.

전시 패널의 QR 코드로는 한국어 해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을 확인하려면 스마트폰 카메라나 QR 리더로 코드를 스캔하세요. 화면에 링크가 표시되며, 링크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가 열립니다. 내용을 확인하려면 인터넷이 필요하므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나카타 무료 Wi-Fi 를 통해 무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기의 Wi-Fi 설정에서 'Munakata_Free_Wi-Fi' 네트워크를 선택한 후, 이메일 주소 또는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등록하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 센터에서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오키노시마와 오시마 사이의 깊은 관계를 소개합니다. 전시를 통해 과거에 이루어졌던 고대 의례를 보여 주는 유물들을 바탕으로, 오키노시마를 수호하고 관문 역할을 해온 오시마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층에는 오키노시마에 대한 섬 주민들의 생각을 담은 단편 영화(영어 자막)가 상영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2 층에서는 오시마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3 층은 바다 전망이 보이는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28-023

<日本語仮訳>

大島交流館（世界遺産ガイダンス施設）/Welcoming leaflet

大島交流館（大島文化センター）で、大島の歴史と文化、そして神聖な島 沖ノ島との関わりをたどりましょう。

展示パネルのQRコードは韓国語の説明を提供しています。ご覧になる際は、スマートフォンのカメラまたはQRコードリーダーを起動して、コードに向けてください。リンクが画面に表示されます。それをタップすると該当ページが開きます。コンテンツの閲覧にはインターネット接続が必要となりますので、お使いの端末が接続されていることをご確認ください。

無料インターネット接続は Munakata Free Wi-Fi をご利用いただけます。接続するには、お使いの端末のWi-Fi設定で「Munakata_Free_Wi-Fi」というネットワークを選択し、お持ちのメールアドレスまたはソーシャルメディアアカウントでご登録ください。

当大島交流館では、大島と立ち入りが厳しく制限されている沖ノ島との深いつながりを紹介しています。展

示では、大島が沖ノ島の守護島かつ玄関口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きた経緯を、かつてそこで行われていた古の祭祀を伝える遺物に触れながらたどります。1 階には、島民の方々が沖ノ島への想いを語る短編映像（英語語字幕付き）をご覧いただける展示室があります。2 階では大島の歴史と文化に関する情報を紹介しており、3 階は海を眺められる作業スペースとなっています。